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90호 2025.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특집 용두산 발해 왕실 고분군 연구

권은주 ▮ 발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 검토 7
김은옥 ▮ 용두산 발해 고분군 묘제에 대한 초보적 검토 63
박유정 ▮ 용두산 고분군 내 묘상건축의 사례와 보고서의 '묘상건축'의 인식에 대한 검토 111
최정범 ▮ 용두산 용해고분군 내 왕릉 비정과 능원 149
최슬기 ▮ 발해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의 특징과 의의 193

논문

여호규 ▮ 고구려 금석문 · 문자자료의 출토 현황과 연구 과제 237
정석배 ▮ 고구려 · 발해 T자 단병 등자의 특징과 사용 시기 문제 303
이태호 ▮ 5~6세기 백제·왜 관계와 이와이의 난 345
최진열 ▮ 당 정관 연간 경관(京官) 640원(員)의 함의 —정원 감축과 결원, 겸직의 제도적 · 재정적 분석을 중심으로 391
정천구 ▮ 일본의 불교사서 편찬과 그 역사적 양상 433
손장훈 ▮ 백단대전(百團大戰)의 평가와 공적 서사—자발성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465
양지혜 ▮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기억정치와 학문지형: 한일 및 영미 연구동향 비교분석(2015~2025) 497

서평

송연옥 ▮ 『조선 식민지 전쟁—갑오농민전쟁부터 관동대지진까지—『朝鮮植民地戦争 甲午農民戦争から関東大震災まで』(愼蒼宇, 有志舍, 2024) 539

자료소개

김현경 ▮ 일본의 중세 혹은 중세의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이시모다 쇼, 『일본 중세적 세계의 형성』 555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56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Special Issue Study of the Yongdusan Balhae Royal Tomb Complex

Kwen Eunju ▮ Review of the Epitaph of Empress Hyoui and Empress Sunmok of Balhae 7
Kim Eunok ▮ A Preliminary Study on the Burial System of the Longtoushan(龍頭山) Balhae Tombs 63
Park Yujeong ▮ A Review of the Cases and the Perception of '*Myosangguchuk*' in the Report on the Longtoushan Cemetery 111
Choi Jungbum ▮ The Royal Tomb Designation and Royal Mausoleum in Longhai Cemetery, Longtoushan 149
Choi Seulgi ▮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Roof Tiles Excavated from the Longtushan Ancient Tombs of Balhae 193

Articles

Yeo Hogyu ▮ The Excavation Status and Research Tasks of Goguryeo Inscriptions and Written Materials 237
Jung Sukbae ▮ Characteristics and Chronological Issues of Goguryeo and Balhae T-shaped Short Handle Stirrups 303
Lee Taeho ▮ Relations between Baekje and Wa in the 5th to 6th Century and the Iwai's Rebellion 345
Choi Jinyeol ▮ The Reinterpretation of Tang Taizong's Cutback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s 640 Members and It's Financial and Demographic Significance 391
Jung Chunkoo ▮ A Study on the Compilation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in Japan and Their Historical Aspects 433
Sohn Janghun ▮ The Evaluation and Public Narrative of the Hundred Regiments Offensive: Focusing on Dilemmas of Voluntarism 465
Yang Jihye ▮ The Politics of Memory and Academic Landscape Surrounding the UNESCO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Japan's Modern Industrial Heritage: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Japanese, and Anglophone Scholarship Research Trends(2015~2025) 497

Book Review

Song Yeonok ▮ SHIN Chang U "Korean Colonial War–From Kogo Peasants'War To Great Kanto Earthquake" 539

Introduction to Documents

Kim Hyunkyung ▮ Japan's Medieval Age. Medieval Japan in World History, and East Asia Ishimoda Shō, *The Formation of the Medieval World* 55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집

용두산 발해 왕실 고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01

발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 검토

권은주 | 동북아역사재단 선임연구위원

I. 머리말
II. 묘지명 역주
III. 묘지명 내용 분석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발해 제3대 문왕의 황후 효의황후(726~775, 50세 사망)와 제9대 간왕의 황후 순목황후(?~?, 미상)의 묘비[1]는 2004~2005년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에 위치한 용두산고분군의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고분군에서는 이미 1980년 발굴 조사에서 문왕의 넷째딸인 정효공주(757~792, 36세 사망)의 묘비[대흥 56년(792) 제작]가 발견된 바가 있다. 이보다 앞서 1949년 길림성 돈화 육정산고분군에서 출토된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738~777, 40세 사망)의 묘비[보력 7년(780) 제작]를 합치면, 지금까지 발견된 발해의 묘비는 모두 4기이다.

용두산고분군은 용호(龍湖)구역, 용해(龍海)구역, 석국(石國)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1997~1998, 2000~2005, 2008년 발굴 조사 성과를 수록한 보고서가 나왔다. 용호 구역의 경우 모두 8개 대지로 구분되며,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비는 제5호 대지의 M12 무덤과 M3 무덤에서 발견되었다.[2]

---

* 투고: 2025년 10월 13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이 글에서는 해당 묘지석을 '묘비'라고 한다. 8~9세기 당나라의 일반적인 묘지석의 형태는 방형인데, 발해 묘지석은 비의 형태이고, 기존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비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이다. 본문에서 묘지문을 지칭할 때는 '묘지명'이라고 하였다.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學 考古學院·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 發掘報告』, 文物出版社. 이하 보고서로 약칭한다. 보고서에서 효의황후의 묘비 정보와 원문 판독문은 80~81쪽, 탁본은 판독문 앞에 별지(도 86)로 붙어 있으며, 사진은 보고서 뒤쪽의 채판(彩版) 41에 수록되어 있다. 순목황후의 묘비 정보와 판독문은 보고서 69쪽, 탁본은 70쪽(도 71), 사진은 채판(彩版) 55에 수록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효의황후 묘비는 보력 2년(775)에 제작되어, 발해 4묘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 보고서의 출토 위치 평면도와 출토 사진을 보면 묘실에서 용도 쪽에 약간 걸쳐 넘어져 있다. 이를 통해서는 묘비를 원래 묘실에 세워두었는지, 용도에 세워두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순목황후 묘비와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비 모두 용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원래 용도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3] 묘비석의 머리 부분이 평정말각(平頂抹角) 형태인 것과 둘레에 새겨진 넝쿨 문양은 정혜공주, 정효공주와 비슷하다. 차이는 밑단에 낮은 받침(底座)이 도드라지게 있는 것이다.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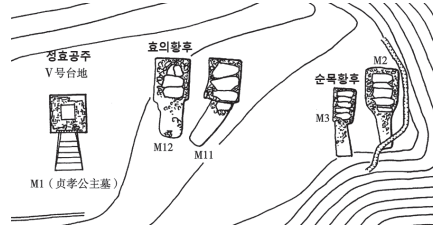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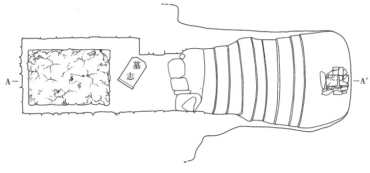


그림 1 정효공주, 효의황후, 순목황후 무덤(보고서, 54쪽 도 52 활용)



묘비 출토 위치 평면도

묘비 출토 사진

묘비 사진

그림 2 효의황후 묘비와 출토 모습(좌: 보고서, 78쪽, 중: 보고서, 79쪽, 우: 채판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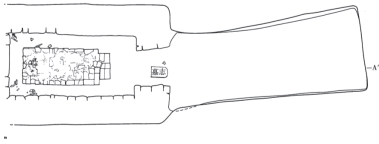
3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비 출토 위치는 王承禮, 1956, 「敦化六頂山渤海墓淸理發掘記」, 『考古學報』 1956-2(孫進己 · 馮永謙 · 蘇天鈞, 1996, 『中國考古集成 東北卷 渤海編』, 300쪽);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淸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982-1(孫進己 · 馮永謙 · 蘇天鈞, 1996, 앞의 책, 354쪽) 참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석은 너비 52cm, 높이 94cm, 두께 28cm이며, 받침은 높이 6.5cm, 너비 55.5cm, 두께 31.5cm이다. 묘지명은 19행이며, 총 981자로 되어 있다. 이체자를 많이 사용하여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몇 자를 제외하고 모두 읽을 수 있다. 서체풍은 8세기 후반 당대 묘지명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정자 해서체보다는, 좌우방변이 불균형하거나 획을 한두 개 생략하는 방식과 글자의 기울기 등으로 볼 때 북위 등 당 이전의 서법에 더 가까워 보인다. 『속일본기』 권34에는 776년 12월에 발해 사신 사도몽(史都蒙) 등이 발해 국왕비의 사망 소식을 일본에 전달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묘비의 발견으로 그 주인공이 효의황후임을 알게 되었다.

순목황후의 묘비는 발해 제10대 선왕 때인 건흥 12년(829)에 제작되었다. 출토 위치 평면도와 출토 사진으로 봤을 때, 묘비는 용도에 세워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도굴로 인해 묘지명이 있는 면이 아래로 뒤집혀 있었다고 한다. 비석은 홍갈색 사암(砂岩)이며, 머리 부분은 평정원각형(平顶圆角形)이다. 비석은 너비 34.5cm, 높이 55cm, 두께 13cm이며, 묘지명은 9행 141자이다. 훼손되어 탈락된 2자를 제외하고 글자가 잘 남아 있다. 묘지명의 글씨는 집자(集字)일 가능성이 있다.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비는 이번 정식 보고서가 출간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비공개되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묘비 출토 위치 평면도

묘비 출토 사진

묘비 사진

그림 3 순목황후 묘비와 출토 모습(좌: 보고서, 63쪽, 중: 채판 36, 우: 채판 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요 고고 발굴보고서가 수십 년 만에 출간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중국 측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물 정리가 2020년까지 오래 걸렸고, 특히 묘지명 판독이 2020년이 되어서야 진행[4]되었으며 보고서 작성과 출판 진행 역시 미뤄지면서 올해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개된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비의 내용은 발해사 연구에 새로운 정보와 의문을 던져준다. '울(欝)'과 '태(泰)'라는 성씨가 처음으로 확인되어, 발해의 성씨와 인적 구성 연구가 반보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고미술과 한문학 분야에서는 묘비의 형식, 서체, 문장 연구 등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고, 역사학 분야에서는 고왕, 무왕, 문왕, 간왕 등 전기 발해 왕의 무덤 위치를 비정하고, 발해의 황제국 체제와 천하관에 대한 연구, 내명부, 동궁제, 시호제, 존호제 등 황실 제도 및 상장 의례, 왕실의 혼인 및 가족관계와 왕계(王系), 지배층의 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해져 발해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보고서에 수록된 린윈(林沄)의 판독문을 참고하여,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의 전문(全文)에 대한 판독·교점문과 주석을 포함한 번역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두 묘지명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첫째,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출자와 성씨, 문왕의 가족 관계 보정, 둘째, 묘지명에 보이는 장례 의례와 '진릉(珍陵)' 등의 논쟁점, 셋째, 호법, 호국 의식과 황제국을 지향하며

4 보고서에 수록된 두 황후의 묘지명 판독문(중문 간체자)은 2020년 린윈(林沄, 1939~)이 판독한 것이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學考古學院·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앞의 책, 9쪽). 린윈은 베이징대학과 지린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으며, 지린대학 고고학과 창립 멤버 중 한명이다. 중국고문자학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중국 국가사회과학기금항목(国家社科基金项目) 고고학평가 위원,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위원, 국가고적정리출판규획(规划) 소조(小组) 위원, 교육부 고교고적정리공작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연구 및 전공 분야는 고문자 해석, 문자학 이론, 갑골 연대, 상주고고학, 동북청동기 연구 등이다(길림대학 교수 소개, https://www.jlu.edu.cn/info/1251/36218.htm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이는 발해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5]

Ⅱ. 묘지명 역주

1. 효의황후 묘지명

1) 원문 판독

※ 기호: 」 묘지명 줄(行) 바꾸기, ㄴ 존귀 표시 칸 띄우기, [ ]는 미확정, ▨ 궐자 또는 판독 불가

孝懿皇后墓誌一首幷序

粵若河洲之鳥, 詩人表其和聲, 爲魯夫人, 傳家錄其奇掌. 故細求窈窕, 立以英賢, 積行累功, 扶助ㄴ王化, ㄴ后妃之義, 其在玆乎. ㄴ皇后釋氏者, 本夏神鄉人也.」肅慎福地, 久号隼集之林. 崑崙勝區, 先稱虎[6]臣之地. 惟祖

5 필자는 올해 8월 21일 해당 보고서의 출판과 온라인 판매를 확인하였고, 곧바로 보고서를 입수하여 9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두 황후의 묘지명에 관한 1차 분석 보고를 하였다. 이후 9월 20일 고구려발해학회 학술회의에서 동일 내용을 공개하였고, 10월에 이 글을 『동북아역사논총』에 투고하였다. 이후 11월 21일에 재단에서 "용두산 발해왕실 고분군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여 20여 명의 연구자를 모시고 판독을 진행하였다. 묘지명 연구는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한데도 짧은 시간에 판독과 역주를 진행하며, HWP 파일의 한자 변환에서 몇 자를 잘못 입력한 단순 실수마저 고치지 않은 거친 판독문을 공개하여 부끄럽게 생각한다. 필자가 1차 판독과 분석에서 놓친 오기와 오독을 바로잡고, 최종 글을 완성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6 묘지명 이체자 ' ' 사용. 비슷한 사례로 한대 ''(熹平石經)가 있다(古今文字集成 字統網, https://zi.tool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惟父, 昇[7]闕將門, 盡忠ㄴ聖朝, 以身許國. 安邊之計, 營平侯[8]之大功, 赴敵[9]之心, 李將軍之雄氣. 剖符受」印, 襲軒冕而永傳, 比山[擔[10]]河, 如帶礪而不絕. ㄴ皇后[抽][11]形松岫, [揚][12]神影於行雲, 吐秀桂蘂, 揮奇耀於[13]流月. 春歸青谷, 花[14]發紫巖, 學柳[15]枝[16]而纖纖, 居槐里」而艷艷. 幼聞婉行, 長蘊惠仁, 語無戲言, 目不妄視. 以簡[17]入侍, 以賢被ㄴ恩, 諸姬競[18]推, 靡不崇仰. 慶雲年內, 乃人徙居, 定都ㄴ龍泉, 勤承鳳曆. 立爲」皇后, 助化ㄴ紫宮, 大度淵[19]深, 高宇山峙. 祗修[20]四德, 無闕組紃之功, 備踐十儀, 有聞環佩之響. 允聰允慧, 雅韻天然, 乃溫乃良, 英[21]才日就. 不飾粉」黛, 逍遙道義之林, 不

---

7 묘지명 이체자 ' ' 사용.

8 묘지명 이체자 ' ' 사용.

9 묘지명 이체자 ' ' 사용.

10 묘지명 ' '의 좌방변의 획이 확실하지 않다. '誓'로도 보이나, 보고서에는 '擔'으로 판독했으며, 문맥상 무리가 없어 이를 따랐다.

11 묘지명 ' '. 보고서에는 '▨'로 표시. 묘지명에서 좌방변이 '木'과 '扌'인 경우 획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木'인 경우 '扌'에 비해 왼쪽 아래로 기울기가 좀 더 내려간 경향이 있고, 뒤에 '吐秀桂蘂'와 대구를 이루어 '抽'자로 판단하였다.

12 묘지명 ' '. 판독이 어려워 보고서의 판독 '揚'을 따랐다.

13 묘지명 ' '. 이하 묘지명의 '於'자 모두 동일하다. 비슷한 사례로는 왕희지의 ' '(東方朔畫像贊)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84.html).

14 묘지명 행서체인 ' '. 비슷한 사례로 왕희지의 ' '(興福寺半截碑)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5235.html).

15 묘지명 이체자 '柳' 사용.

16 묘지명 ''. 글자가 훼손되었으나 남아 있는 획과 문맥상 '枝'로 볼 수 있어, 보고서의 판독을 그대로 따랐다.

17 묘지명 이체자 '簡' 사용.

18 묘지명 이체자 ' ' 사용. 비슷한 글자체로는 ' '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4482.html).

19 묘지명 이체자 '渕' 사용. 보고서 '▨'.

20 묘지명 이체자 ' ' 사용.

21 묘지명 ' '. 비슷한 사례로는 행서체로 쓴 왕희지의 ' '(興福寺半截碑), 구양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貴綺羅, 敦悅詩書之訓. 德高東國, 容類西施, 比馬后於蛾眉, 想樊姬於獸肉.[22] 動[23]之以禮, 操之以貞, 君子好仇, 誰出其右.」 覃思美政, 罷粧[鏡][24]於春臺, 研精妙詞, 尋歡[25]扇於秋句. 雖陰麗華之被寵, 慎夫人之奉恩, 彤史所書, 俱爲下第.[26] 加以遊心本覺, 戀味真如, 願」乘[27]般若之舟, 以到涅槃之岸. 不妬不嫉, 明辨繩蛇, 深解深知, 細分巾鬼.[28] 是以宣風之道, 排女節[29]而先鳴, 護法之心, 並曇稱[30]而高視. 書契之後, 釋教已」來, 或無德而有姿, 或學外而闕內. 未有我ㄴ后應感, 而生美艷絕倫, 德行皆備, 周覽內外之典. 專奉儒釋之資, 禮[31]佛誦經, 衛ㄴ主安國者也, 豈唯」嬪則休要. 化被三宮, 抑亦母道深慈, 潤霑萬[32]姓. 玉臺曉闢, 爛朱澡之新文, 珠簾夜開, 發芙蓉之[神[33]]彩. 我ㄴ皇聖明之化, 日照天臨, 我ㄴ后賢智之猷, 月行」地載. 豈謂忽

의 ''(千字文)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5272.html).

22 묘지명 ' '. 비슷한 글씨로는 國詮의 ' '(善見律)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4984.html).

23 보고서는 '勤'으로 판독하였으나, '動'자가 분명하다.

24 묘지명 ' '. 보고서는 '鏡'으로 판독했으나, 좌방변은 '金'으로 보기 어렵고 '言'으로 보인다. 다만 뒤에 '扇'과 대구를 이루어, '鏡'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판단을 유보하였다.

25 묘지명 이체자 '' 사용. 비슷한 글씨로는 ' '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3014.html).

26 묘지명 이체자 ' ' 사용. 비슷한 글씨로 國詮의 ' '(善見律)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4514.html).

27 묘지명 이체자 ' ' 사용. 비슷한 예로 당대 ' '(開成石經)이 있다(古今文字集成, 字統網 https://zi.tools/).

28 묘지명 ' '. 보고서에 '▨'로 표기하였으나, '鬼'자가 분명하다.

29 묘지명 ' '. 비슷한 예로 왕희지의 ''(智永集王字告墓文), 智永의 ' '(真草千字文)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5204.html).

30 묘지명 이체자 ' '(=称) 사용.

31 묘지명 고자인 '礼'. 이하 동일하다.

32 묘지명 '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隨逝水, 俄動藏舟, 以寶曆二年二月五日戊辰, 薨於文思堂側寢, 春秋五十. 愛[34][▨][35][▨][36]淚,[37] ㄴ聖主傷心, 悽[38]切之懷, 於斯爲慘.[39] 其年冬十月廿四日甲申, 遷葬於珍陵臺,」禮也.ㄴ皇上徹懸, 損饍, 廢朝, 慟[▨[40]]. 賜東園秘器·羽葆·鼓吹, 喪[41]事之儀, 並皆優給. 車馬雲轉, 辭[42]ㄴ丹闕而低昻, 旌旐霞飛, 出青門而飄颺. 方之簡[43]翟, 禮峻營陵, 喻」以[▨▨[44]], 嘉在立厝. 平[45]原之首, 髣髴神[46]女之臺, 大河之隈, 連接蛟人之室. 白楊[47]路上, 悲風度而

---

33 묘지명 ' '. 오른쪽 변은 '申'이나 좌방변이 불확실하다. 글자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고서의 '神'을 따랐다. 묘지명 2행의 ''과 4행의 ''과 비교해볼 수 있다.

34 묘지명 ' '. 비슷한 예로 구양순의 ' '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3671.html).

35 묘지명 ''. 보고서 '▨'. 좌방변은 '礻', '禾' 등과 비슷해 보이고, 우방변은 '成'과 비슷해 보인다.

36 묘지명 ' '. 보고서 '▨'. 글자 판별이 어렵다. 비슷한 자형으로는 '澄', '澈' '灉' 등이 있다.

37 묘지명 ' '. 비슷한 예로 남북조 魏碑의 ' '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3211.html).

38 보고서 '凄'.

39 묘지명 이체자 ' '를 사용. 비슷한 예로 褚遂良의 ''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2032.html).

40 묘지명 ' '. 보고서 '▨'. '哭', '哉', '於'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뒷 문장과 연결하면 '於'일 가능성이 있으나, 묘지명에 나오는 '於' 중 유사한 것은 없다. 참고로 비슷한 자형으로는 ''가 있다(古今文字集成 字統網, https://zi.tools/).

41 묘지명 ''. 비슷한 예로 남북조 魏碑의 ' '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30.html).

42 묘지명에는 고자 '辞'를 사용.

43 묘지명 ' '. 윗변의 획을 볼 때 '艹'변이 아닌 '竹'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蕑'으로 판독하였다.

44 묘지명 ''. 2자에 해당하며, 훼손이 심해 남아 있는 획으로는 판독이 어렵다.

45 보고서는 '下'로 판독했으나, '平'이 분명하다.

46 묘지명 ''. 보고서의 '神'을 따랐다. 묘지명의 '神'자 사례는 주 33) 참조.

47 보고서 '揚'으로 판독하였으나, 좌변 획의 기울기와 대구인 '青松'을 고려하면 '楊'이 분명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悽][48]寒, 青松隴頭, 片雲凝而逆[49]遰. 乃作銘曰,」

擇⌴后之制, 禮備[50]瓊篇, 窈窕淑女, 必取其賢. 國之成[51]否, 靡不由然, 洲鳥之義, ⌴明主攸憐. 其一. 山川之感, 必有英靈, 將軍之氣, 壯士之精. 六奇善略, 萬里長城, 衣冠之族, 帶」礪之名. 其二. [服][52]歟賛后, 福地之隈, 玉樹貞質, 紅花始開. 行雲颺影, 流月徘徊, 纖纖[53]學柳, 居里号槐. 其三. 簡[54]在⌴皇意, 入侍⌴紫宮, 椒房厚澤, 桂殿芳風. 深量」瀉浪, 高宇懸峯, 道德緝熙, 美政時邕.[55] 其四. 不借粧飾,[56] 不貴綺羅, 動[57]中規矩,[58] 行從切磋. 美容[59]甚偉, 淳直爲多, 味不近獸, 艷眉如蛾. 其五. 研精般若, 棲[60]念真如」, 崇貴儒釋, 內外經書. 忽然物化, 孤哀有餘, 霜飛窓寂,[61] 月落屛虛. 其六. 廢朝徹樂, ⌴皇望靈車, 去馬似雲, 飛旒寫霞. 送葬之路, 薤歌接笳, 陵臺之裏, 長掩寒花. 其七.

---

48 묘지명 ' '. 보고서 '凄'로 판독하였으나, 좌방변이 '忄'으로 보인다.

49 묘지명 ' '. 비슷한 예로 왕희지의 ' '(孝女曹娥碑)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6375.html).

50 묘지명 ' '. 비슷한 예로 저수량 ' '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1221.html).

51 묘지명 ' '. 보고서는 '臧'으로 보았다.

52 묘지명 ' '. 보고서는 ''. 좌방변은 '舟'가 분명하며, '服'의 본자인 '舺'으로 판단된다. '艀', '舭'으로도 쓰인다.

53 묘지명 ' '. 앞 글자와 같은 글자라는 뜻.

54 묘지명 이체자인 '蔄' 사용.

55 보고서 '雍'.

56 묘지명 이체자 ' '. 비슷한 예로 國詮의 ' '(善見律)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7164.html).

57 보고서 '勤'.

58 보고서 '則'.

59 보고서 '芙蓉'.

60 묘지명 이체자 '栖'.

61 묘지명 ' '. 비슷한 예로 남북조 魏碑의 ''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1501.htm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寶曆二年十月廿四日.

2) 번역문

효의황후(孝懿皇后) 묘지(墓誌) 일수(一首)와 서(序)

무릇 강섬(河洲)의 새는 시인이 그 조화로운 소리를 표현하였고,[62] 노나라 부인(魯夫人)이 된 일[63]은 집안에 전해져 그 기이한 고사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요조(숙녀)를 자세히 구하여, 빼어남과 현명함으로 (황후로) 세워서, 행실과 공을 쌓아 왕의 교화(王化)를 거들고 도우니, 후비(后妃)의 의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황후 울씨(欝氏)[64]는 본래 하신향(夏神鄕)[65]의 사람이다. 숙신(肅愼)의 복지(福地)는 오랫동안 준집(隼集, 새매 무리)의 숲(林)[66]으로 불렸고, 곤륜(崑崙)

62 『詩經』 關雎편 "끼룩끼룩(자웅이 서로 응하며 우는 소리) 물수리는 (황)하의 섬에서 우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네(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에서 나온 비유이다.

63 仲子의 고사에서 비유한 것이다. 중자는 宋 武公의 딸로 魯 惠公의 둘째 부인이 되었다. 桓公의 어머니이다. 『春秋左氏傳』 隱公 원년 "송 무공이 중자를 낳았는데, 중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손바닥에 글이 있었고, 노나라 부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자가 우리(혜공)에게 시집왔다(宋武公生仲子, 仲子生而有文在其手, 曰 '爲魯夫人', 故仲子歸于我)." 杜預의 註에 "손안에 자연스레 글자가 있으면, 천명과 같다(手理自然成字, 有若天命)"라고 하였다(『한어대사전』 115【掌文】). '위노부인' 고사에 대한 정보는 송기호 선생님께서 주셨다.

64 처음 발굴 간략 보고서(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518쪽)에서는 효의황후의 성씨를 밝히지 않았으나, 묘지명을 실견한 張福有에 의해 처음 '韓氏'로 잘못 알려졌다(張福有, 2023, 「敦化崗子至寧安複興樓遺址遺跡的調查與思考」, 『黑龍江社會科學』 2023-1, 163쪽; 권은주, 2024, 「문자자료를 활용한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검토」, 『영남학』 88, 22쪽).

65 하신향은 지명보다는 비유로 하신의 고장으로 보인다. 하신은 중국 신화에 계절신, 오방신의 하나로 祝融을 가리킨다. 기록에 따라 남해신, 남방신, 불의신, 黃帝의 六臣(치우, 대창, 사룡, 축융, 대풍, 후두)의 하나, 高辛씨의 火主, 염제의 助神, 황제의 후예, 전욱 고양씨의 손자 등으로 나온다.

66 『國語』 卷5, 魯語, "仲尼在陳 有隼集於陳侯之庭而死 楛矢貫之 石砮其長尺有咫 陳惠公使人 以隼如仲尼之館問之 仲尼曰 隼之來也 遠矣 此肅愼之矢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승구(勝區, 경치가 뛰어난 구역)는 앞서 호신(虎臣: 용맹한 신하)의 땅[67]으로 불렸다. 생각건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장수의 가문을 일으켜 여시고, 성조(聖朝, 발해)에 충성을 다하시며, 온몸을 나라에 바치셨다. 변경을 안정시키는 계책은 영평후(營平侯)[68]의 큰 공(大功)에 비견되고, 적을 대적할 때의 마음은 이장군(李將軍)[69]의 웅기(雄氣)와 같았다. (그로 인해) 부절과 인장을 받아,[70] 헌면(軒冕, 고관이 타던 초헌과 면류관)을 세습하여 영원히 전하였고, 산을 잇고 강을 떠맡아, 대려(帶礪, 공신 집안을 변치 않고 대대로 대접하는 일)가 끊이지 않음과 같았다.

황후의 풍모는 소나무가 솟은 산봉우리와 같아서, 신영(神影)이 움직이는 구름(行雲)까지 오르며, 내뿜는 기운은 계수나무 떨기(桂藂)와 같이 빼어나, 기이한 빛(奇耀)이 흐르는 달(流月)에 휘날린다. 봄은 청곡(青谷)으로 돌아오고, 꽃은 자암(紫巖)에서 피어나니, (황후는) 버드나무 가지와 같이 가냘프고 여리며, 회화나무 속 같이 곱디 고왔다. 어려서는 아름다운 행실(婉行)을 듣고, 커서는 은혜와 어짐을 쌓아서 말에 허언이 없고 눈은 헛된 것을 보지 않았다.

『史記』 卷47, 孔子世家17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67 곤륜산은 중국 신화에 나오는 신선이 사는 신령한 산으로, 명산유수에서 영웅과 인재가 난다고 여겨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곤륜산에 산다는 서왕모는 『산해경』 등 초기 기록에서 표범의 꼬리와 호랑이 이빨을 가진 반인반수로 묘사되며, 전염병과 형벌을 주관하는 존재로 그려지다가, 이후 도교의 영향으로 장생불사를 주관하는 아름다운 여신으로 그려진다고 한다(나희라, 1996, 「서왕모신화에 보이는 고대중국인의 생사관」, 『종교학연구』 15, 146~150쪽). 또한 여러 古詩에서 곤륜산은 표범과 호랑이, 까마귀가 노니는 곳으로 표사된다. '虎臣'은 이러한 이미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편, 당나라 시기에 중국 남해 방면에 崑崙國이 존재하였으므로, 북쪽의 숙신과 남쪽의 곤륜이 대구를 이루어, 남과 북으로 대비되는 변경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어 함께 적는다.

68 전한 무제와 선제 시기, 趙充國의 봉호이다. 흉노 정벌의 공으로 영평후에 봉해졌다.

69 전한 문제 시기 장수 李廣으로 추정된다. 흉노와의 전쟁에 큰 공을 세워 飛將軍으로 불렸다.

70 '剖符'은 부절을 쪼갠다는 뜻으로, 제후나 변경 장수를 임명할 때 천자가 부절을 나누어 반쪽을 주고, 반쪽은 중앙에서 보관하여 신표로 삼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간택되어 들어와 (황제를) 모시고, 어짐으로 은총을 받으니, 여러 희(姬, 임금의 아내 또는 왕실 여성)가 다투어 추대하며 숭앙하지 않음이 없었다. 상서로운 구름[71]이 있은 해에 이내 사람들을 옮겨 머물게 하고, 용천(상경 용천부)에 도읍을 정하여, 부지런히 봉력(鳳曆, 冊曆)을 받들었다. 황후로 세우니 자궁(紫宮, 황궁 또는 대궐)을 도와 조화롭게 하였는데, 그 큰 도량은 연못과 같이 깊고, 높은 처마와 우뚝 선 산과 같았다. 사덕(四德, 인의예지)을 성실히 닦고, 베 짜는 공을 쉬지 않았으며, 십의(十儀)를 갖추어 실천하니, 환패(環佩, 패옥)의 울림이 들렸다. 뛰어난 총명과 지혜로 고상함은 천연(天然)을 이루었고, 따뜻하면서 어질어서 뛰어난 재능은 나날이 발전하였다. 화장(粉黛,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으로 꾸미지 않으며, 도의(道義)의 숲을 자유롭게 거니셨다. 기라(綺羅, 곱고 아름다운 비단)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시서(詩書)의 가르침을 우러러 즐기셨다. 덕은 동국(東國)에서 높았고, 용모는 서시(西施, 월나라 미인)와 견주며, 마후(馬后, 후한 명제의 황후)의 아미(蛾眉, 누에나방 눈썹, 미인의 눈썹)와 비교되고, 번희(樊姬, 초나라 장왕의 비)의 짐승 고기를 생각한다.[72] 움직일 때는 예(禮)로 하며, 절개를 지켜 군자(君子)의 좋은 짝이 되니, 누가 이보다 뛰어나겠는가.

아름다운 정치를 깊이 생각하며, 춘대(春臺)에서 꾸며 다투는 것을 그만두었고,[73] 묘사(妙詞)를 자세히 연구하여, 추구(秋句, 가을을 주제로 한 문장 구절)로

---

71 '慶雲'은 연호로도 해석 가능하나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비와 문왕대 연호 기록 등을 볼 때 대흥, 보력 외에 '경운' 연호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바로 뒤에 천도 기사와 연결하면, 천도의 명분으로 상서로운 조화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72 초 장왕이 사냥과 짐승고기를 즐김에, 이를 고치기 위해 번희가 짐승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고사이다.

73 원문 판독 시 보고서에서 '鏡'으로 본 글자는 '譑'으로 판독되어, 이렇게 해석하였다. '춘대'는 옛 시와 문장에서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장소로 그려지며, 『노자 도덕경』 제20장의 "사람들이 희희낙락하길, 태뢰의 향연같이 여기고, 춘대에 오른 듯이 하였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登春台)"와 같이 미추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무상함을 논하며 허상의 장소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봄의 꽃과 같은 여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 즉 후궁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견은 주 24)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꾸민 부채의 즐거움을 좇았다. 비록 음려화(陰麗華)와 같은 은총을 받았고, 신부인(愼夫人)과 같은 은혜를 받들었으니,[74] 동사(彤史, 후궁의 기록)에 기록된 바를 모두 아래와 같이 갖추었다.

(황후는) 본각(本覺, 본성에 대한 깨달음)에 주의를 더하고, 진여(真如,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반야(般若)의 배(舟)를 타고, 열반(涅槃)의 언덕에 도달하기를 원하였다. 추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끈과 뱀(繩蛇)[75]을 분명히 분별하였으며, 깊은 깨달음과 지혜로 두건과 귀신[76]을 세밀하게 분별하셨다. 이런 까닭에 풍속의 도리를 펼치며 여인의 절개를 바로 잡아 먼저 선창하셨고, 호법(護法)의 마음으로 아울러 불법의 칭호(曇稱)[77]를 높이 보았다. 서계(書契)가 있고 난 뒤에 석교(釋教, 불교)가 이미 왔지만, 혹은 덕은 없으면서 자태만 갖추었고, 혹은 겉으로는 배움이 있지만, 안으로는 비어 있었다. 우리 후께서는 아직 응감(應感)하지 않으셨을 때도, 미염(美艶)과 절륜(絕倫)을 타고 나셔서, 덕행(德行)을 모두 갖추고 내외(內外)의 전(典)을 두루 열람하셨다. 오로지 유가와 석가의 자산(또는 가르침)을 받들고, 예불(禮佛)하고 경(經)을 읽으시니, 주상의 안국(安國)을 지키는 것이 어찌 부인의 준칙(嬪則)에만 머물겠는가.

덕화는 삼궁(三宮)에 미치고, 또한 모도(母道)는 심히 자애로워 만백성을 적

---

74 음려화는 후한 광무제의 황후이다. 광무제가 음려화를 사랑하여 먼저 귀인의 자리를 주었다가, 첫 번째 부인인 곽 황후를 폐위하고 음려화를 황후의 자리에 앉혔다. 신부인은 전한 문제의 후궁으로, 문제의 황후와 비등한 대우를 받았지만 스스로 사양하고 후궁의 질서를 지킨 것으로 미담이 전해진다. 앞의 비유로 든 서시, 마후, 번희는 모두 군왕의 정비인데, 음려화와 신부인을 비유로 든 것은 효의황후가 후궁에서 황후로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효공주와 정혜공주 묘지명에서 한나라 악장(鄂長)공주와 평양(平陽)공주 등 격에 맞는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 참고된다.

75 뱀에 물린 사람은 줄만 봐도 두려워하거나, 줄을 보고 뱀인 줄 놀랄 때의 비유이다. 불교의 유식(唯識)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사물의 본질을 분별하거나 환상에 현혹되지 말도록 일깨울 때 쓰인다.

76 巾鬼를 구분하는 것도 주 75)와 같은 의미이다.

77 '담(曇)'자는 불법(佛法)을 뜻하는 범어 dharma를 음역한 담마(曇摩)와 석가모니의 성인 gautama를 음역한 구담(瞿曇)과 연결되어, 불(佛)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셨다. 옥대(玉臺, 대궐)는 새벽에 열고 주록(朱澴)의 신문(新文)을 밝혔으며, 주렴(珠簾)은 밤에 열고 부용(芙蓉)의 신채(神彩)를 발하였다. 우리 황제의 성스럽고 밝은 교화는 태양이 (땅을) 비추고 하늘이 임한 것 같으며, 우리 황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계책은 달이 움직이고 땅이 떠받치는 것과 같다.

어찌 홀연히 흘러가는 물(逝水, 황천 또는 삼도천)을 따라서, 갑자기 숨겨진 배를 움직이는가. 보력(寶曆) 2년(775) 2월 5일 무진[78]에 문사당(文思堂)의 측침(側寢)[79]에서 돌아가시니, 춘추 50세이다. 사랑▨▨ 눈물을 흘린다. 성주(聖主)께서 상심하시길 가슴에 사무치듯 비통해하셨다. 그해 겨울 10월 24일 갑신에 진릉대(珍陵臺)에 천장(遷葬)하니 예이다.

황상(皇上)께서는 음악을 정지하고(徹懸), 반찬(饍)을 줄이셨으며, 조(朝)를 폐하시고 매우 슬퍼하셨다. 동원(東園)의 비기(秘器)·우보(羽葆)·고취(鼓吹)를 하사하시고, 상사(喪事)의 의례에 모두 넉넉히 주셨다. 거마(車馬)는 구름같이 (운구를) 옮겨, 단궐(丹闕, 궁궐)에 인사하며 오르내렸고, 깃발(旌旒)은 노을에 펄럭이며, 청문(青門)을 나와 바람에 날렸다. 간적(簡翟)[80]처럼 예를 준엄하게 하여 능을 만들고, ▨▨[81]처럼 아름답게 관 자리를 세웠다(立厝).[82] (능의 위치는)

---

78 김종복 선생님은 775년 2월 5일의 간지는 己巳이며, 戊辰은 4일로 하루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필자로서는 이것이 단순 오기인지, 당시 사용한 역법상의 문제인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로 아래의 '其年冬十月廿四日甲申'은 일간지가 일치한다.

79 문사당은 황후가 내명부의 일을 처리하고 생활하던 건물로 보이며, 측침은 문사당에 붙어 있는 침실 또는 침전으로 여겨진다.

80 『史記』 殷本紀와 劉向의 『列女傳』 등에 나오는 은나라 시조 契王의 모친인 娀簡, 즉 簡狄의 다른 표기이다. 『淮南子·墜形訓』에 '簡翟'으로 나온다. 다른 표현으로는 '簡易', '簡逿'이 있다(漢語字典 漢語網, https://www.chinesewords.org/dict/234226-190.html). 간적은 고신씨 제곡의 왕비이다. 제비(玄鳥)가 떨군 알을 먹고 설을 나았다고 한다.

81 문맥상 고전, 고사에 나오는 명망 있는 군왕의 부인 이름이 있어야 한다.

82 해당 문장은 정효공주 묘지명의 "(전한) 악장 공주처럼 영예를 높여 능묘(크기)를 넘게 하고, (전한) 평양 공주처럼 은총을 더하여 관 자리를 세웠다(喩以鄂長, 榮越崇陵, 方之平陽, 恩加立厝)"라는 표현과 비교된다. '立厝'에 대한 해석은 Ⅲ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평원(平原)의 으뜸으로 신녀(神女)의 대(臺)를 방불하며, 대하(大河)의 굽이는 교인(蛟人)의 실(室)과 연접한다. 백양나무(白楊) 길 위에 비통한 바람은 슬프고 차디차며, 푸른 소나무(青松) 고갯마루에는 조각구름이 엉기어 갈마든다. 이내 명(銘)을 지어 말하길,

후(后)의 제도를 택하여, 예로서 경편(瓊篇, 아름다운 시편)을 갖추고, 요조숙녀로서 반드시 그 현명함을 취해야 한다. (이는) 나라의 성공 여부가 그러함에 있어서이며, 물새(洲鳥)의 의로움을 명주(明主)가 어여삐 여기셨다. 그 첫 번째.

산천이 감응하면 반드시 영명한 신령이 있고, 장군(將軍)의 기상과 장사(壯士)의 정기가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육기(六奇, 여섯 가지 기발한 계책)의 뛰어난 책략으로 만리의 장성에 (명성을 떨쳤고) 의관(衣冠, 사대부 또는 관리)의 가문을 (이루고) 대려(帶礪, 공신)의 명예를 (가지셨다). 그 두 번째.

[복(服)[83]이여] 울후(欝后)는 복지(福地)의 굽이에서 옥수(玉樹)의 곧은 성질을 지니고, 붉은 꽃이 비로소 피었다. 떠도는 구름이 그림자를 흩날리고, 흐르는 달은 배회하는데, 가냘프고 여린 것은 버들가지와 같고, 머무는 곳은 회화나무라 불렀다. 그 세 번째.

황의(皇意)로 간택되어 들어와 자궁(紫宮, 황제의 궁)을 모시고, 초방(椒房, 왕비의 거처)의 두터운 은택을 받으니, 계전(桂殿, 월계수 궁전, 선녀 항아의 처소)에 향기로운 바람이 불었다. 깊은 기량은 파도처럼 너울대니 높은 처마와 우뚝 선 봉오리와 같고, 도덕(道德)은 계속 빛을 발하며 미정(美政)이 때를 맞춰 화합하였다. 그 네 번째.

장식을 빌리지 않으며, 기라(綺羅)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움직임에 규칙이 있고, 절차(切磋)를 따라 행동하였다. 아름다운 용모는 심히 뛰어나며, 순직(淳直)을 다하고, 짐승을 가까이해 맛보지 않았으며, 아름다운 눈썹은 나방(초승

2-2절 참조.

83 '복(服)'은 보통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 직책을 나타내거나 옷을 입다, 복종하다, 따르다, 합당하다, 생각하다 등의 동사로 쓰인다. 여기서는 어조사 '歟'와 함께 쓰여, 뒤에 울후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달)과 같다. 그 다섯 번째.

반야(般若)를 정밀히 연구하며, 진여(真如)를 깊이 생각하였고, 유가와 불가를 숭상하여 귀하게 여기고 내외(內外)의 경서(經書)를 보았다. 홀연히 돌아가시니, 외로운 슬픔이 아직 남아서, 서리가 창에 날려 쓸쓸하고, 달이 저문 울타리는 허전하기만 하다. 그 여섯 번째.

조(朝)를 폐하고 음악을 정지하시고, 황상이 영거(靈車)를 바라보시니, 거마(去馬)가 구름 같고, 나부끼는 깃발은 노을을 그린 듯하였다. 송장(送葬)의 길에 상여 노래(薤歌)는 갈대 피리와 이어지며, 능대(陵臺) 안은 오랫동안 겨울꽃(寒花)을 감추었다. 그 일곱 번째.

보력 2년 10월 24일.

2. 순목황후 묘지명

1) 원문 판독

※ 기호: 」 묘지명 줄(行) 바꾸기, ▨ 궐자

渤海國順穆[84]皇后墓誌銘 幷序」

簡[85]王皇后泰氏也. 稟靈桂景, 引曜銀潢. 德會母儀, 行」成內則. 關[86]關[87]之化, 用於邦國. 而坤厚有傾, 月華[88]時」缺. 以延平二年四月卄四日崩,

---

84 묘지명 '▨'. 비슷한 예로 남북조 魏碑의 '▨'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4432.html).

85 묘지명에는 '簡'의 이체자인 '蕑'을 사용. 『신당서』에는 '簡王'으로 나온다. 보고서 69쪽에는 '簡'으로 표기하였다. 간왕의 한자와 관련하여 묘지명에서 '蕑'과 '簡' 두 자가 혼용되는 사실은 송기호 선생님께서 처음 지적해주셨다.

86 묘지명 '▨'.

87 묘지명에는 앞 글자와 같은 글자 표시 '▨'를 하였다. 이러한 표기 방식을 중국에서는 보통 중문호(重文號)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재점(再點)이라고 한다. 이른 시기로는 서주의 금문에서 '二' 자를 작게 써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이후 '二'를 붙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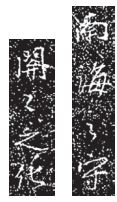
殯[89]于鮮卑不易」山原. 率由典禮, 建興十二年七月十五日, 遷安」▨陵, 禮也. 祖諱長文, 爲南海之[90]守. 父諱興節,[91]」爲[92]中臺右相. 述其德美爲銘. 銘[93]曰,」

서 'ㄴ' '' 'ㅅ' 등으로 표기하였고, '之'의 형태도 확인된다. 같은 글자 반복 표시는 정효공주 묘지명에서도 보인다(嚴長錄, 1981, 『渤海貞孝公主墓發掘淸理簡報』,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1쪽).

88 묘지명 ' '. 비슷한 예로 왕희지의 ' '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592.html).

89 묘지명 ' '. 비슷한 예로 魏 侯掌 묘지의 ' '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3057.html).

90 묘지명에는 ' '로 표기하였다. 2025년 9월 5일 보고회에서 순목황후 묘지명의 재점 표기인 ' '와 같은 글자일 가능성은 없는지, 같은 묘지명에서 '之'의 표기를 다르게 표기한 것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에는 재점 표기와 달리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고 위아래 글자와의 간격을 고려했을 때, '之'로 판단된다. 참고로 '之'의 서체로 ' '의 형태는 자주 확인되는데, 예로 당 태종 이세민의 글씨 ' ', 왕희지의 글씨 ' '가 있다(好健盤書法, https://www.haojianpan.com/show-7FU43H1.html). 또한 고문서에는 같은 글자를 다른 서체로 쓰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는데, 묘지명에서도 아래의 사례와 같이 확인된다(②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사료 DB, 금석문 문자자료; ③ 北京圖書館善本部金石組, 1993, 『北京圖書館藏畵像拓本匯編』 諸15冊-唐, 北京圖書館, 6쪽).

① 순목황후 묘지명(3행, 6행)	② 김일성 묘지명(5행, 8행)	③ 변민(邊敏) 묘지명(9행. 14행)
		

91 묘지명 ' '. 효의황후 '節'의 글씨체와 유사하다. 주 29) 참조.

92 비석에는 글자가 탈락되어 있으나, '爲'자가 확실하다.

93 묘지명에는 앞 글자와 같은 재점 표시인 ' '를 하였다. 주 87), 90)과 관련하여 여기서 재점을 '之'로 보고, '其德美爲銘之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묘지명에서는 銘文 앞에 모두 '銘曰', '乃爲銘曰', '銘云' 등으로 표기되었고, 그 사이에 '之'가 들어간 '爲銘之曰'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懿乎我后 嬪[94]軌載揚 繁華早落[95]」

娥彩沈藏[96] 幽明永隔[97] 重泉夜[98]長」

2) 번역문

발해국 순목황후(順穆皇后) 묘지명과 서

간왕(簡王)의 황후 태씨(泰氏)이다. 영혼은 계수나무 경관(桂景, 달 속에 있는 계수나무와 토끼)에 올라 은하수(銀潢)를 밝혀 이끌었다. 덕은 모의(母儀,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와 만나고, 행동은 내칙(內則)을 이루었다. 자웅이 서로 응하는 조화[99]로 방국(邦國)에 쓰이셨다.[100]

그러나 곤후(坤厚, 대지의 덕)가 기울어지고, 달빛이 때를 잃었다. 연평(延平) 2년(?) 4월 24일에 돌아가시니,[101] 선비(鮮卑) 불이산(不易山) 언덕에 임시로 모셨다(殯). 전례(典禮)를 좇아[102] 건흥(建興) 12년(829) 7월 15일에 ▨[103]릉으로

94 묘지명 ' '. 비슷한 글자로 구양순의 ' '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1402.html).

95 묘지명 ' '. 행서와 초서에서 비슷한 글자 형태가 확인되며, 사례로는 왕희지 글씨 ' '(普覺國師碑)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5434.html).

96 묘지명 ' '. 비슷한 글자로 왕희지의 ' '(黃庭經)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5543.html).

97 묘지명 이체자 ' '(='障') 사용. 비슷한 글자로 國詮의 ''(善見律)이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6975.html).

98 묘지명 ' '. 비슷한 글자로 왕희지의 ''(普覺國師碑)가 있다(書法字典, http://www.swrtm.com/dictionary/b1234.html).

99 앞의 주 62) 참조.

100 군왕의 부인 즉 황후가 된 것을 의미한다.

101 효의황후의 경우 '薨'을 사용한 반면 순목황후는 '崩'을 사용하고 있어, 그 사이 황제국 관련 용어를 격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102 9월 20일 고구려발해학회 학술회의에서 장병진 선생님은 "山原"이 장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이며, 당대 묘지명에서 묘지명을 새기는 이유를 산원이 생긴 연유를 모르게 되거나 혹은 후대 산원이 바뀔까 두려워서 묘지명을 새긴다라는 표현이 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옮겨 모시니 예이다.

조부의 이름은 장문(長文)이며 남해의 수(南海之守,[104] 남해부의 수령)이다. 부친의 이름은 흥절(興節)로 중대성(中臺省) 우상(右相)이다.

그 덕과 아름다움을 기술하여 명을 지었다. 명왈,

아름다운 우리 황후, 아내의 법도를 드날리셨다.
번화는 일찍 시들었고, 아름다운 빛깔은 깊이 감추어졌다.
저승과 이승은 영원히 가로막혀, 중천(저승)의 밤은 길기만 하다.

Ⅲ. 묘지명 내용 분석

1. 황후의 성씨와 출자, 그리고 문왕의 가족 관계 보정

1) 성씨와 출자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황후의 성씨와 출자에 관한 것이다. 효의황후의 성은 기존에 알려진 '한(韓)'씨[105]가 아닌 '울(欝)'씨인데, 발해 성씨로는 처음 확인된다. 순목황후의 성씨인 '태(泰)'씨의 경우도 처음 확인되는 성씨이다. 송대 홍호(洪皓)가 쓴 『송막기문(松漠紀聞)』에는 "발해국 … 그 왕은 예전에 '대'로 성을 삼았고, 우성(유력 귀족성)은 '고·장·양·두·오·이

인된다고 하셨다. 또한 "殯于鮮卑不易山原. 率由典禮"을 "殯于鮮卑. 不易山原, 率由典禮"로 읽고 "선비(의 땅)에 임시로 안치하였다. 산원(무덤)은 바꾸지 않는데, 전례(규범)에 따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주석을 단다.

103 '珍'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104 주 90)과 관련하여 강진원 선생님은 '南海之守'를 '南海海守'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

105 주 64)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高·張·楊·竇·烏·李)'로 몇 종에 불과하다. 부곡(部曲)과 노비의 성이 없는 자들은 대개 그 주인(의 성)을 따랐다"라고 하여 발해 성씨가 왕족의 성인 대씨와 유력 귀족의 성으로 고·장·양·두·오·이 등 불과 몇 종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금대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다. 『당서』, 『요사』, 『금사』, 『고려사』, 『속일본기』, 『일본후기』 등에서 확인되는 발해인과 그 유민의 성씨를 합치면 50여 개에 달하며,[106] 이번에 '울'과 '태'가 추가되었다.

이들 성씨에는 고구려 당시부터 있었던 성씨 외에 중국이나 북방계 등에서 흔히 쓰는 이, 장, 왕, 양씨 등이 있는가 하면, 소그드계로 보이는 안(安)과 사(史), 말갈계로 보이는 섭(攝), 여(茹), 부여, 고구려, 백제에서 쓰던 해(解), 신라에서 쓰이던 박(朴), 최(崔), 김(金) 등이 보여 발해 구성원의 다양성을 짐작할 수 있다.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성씨와 출자에서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울(欝)'성은 '鬱' 또는 '郁'으로도 쓴다. 대체로 선비, 거란, 돌궐 등 북방민족이 사용하던 희귀성으로 발해 이후 몽골, 여진 계통에서도 사용되었다.[107] 이

106 대씨와 우성 외에 賀·王·任·馬·馮·呂·裵·崔·已·慕·郭·木·史·辛·解·趙·劉·朱·衛·吳·洪·林·申·夏·梁·羅·文·安·朴·胥·茹·卯·門·隱·周·列·公·多·聿·受·智·壹·葱·古·阿·達·冒·謁·渤海 등이 있다. 발해 성씨와 관련해서는 金毓黻, 2008, 『渤海國志長編』(1935), 신서원; 임상선, 1998, 「渤海 支配勢力의 構成과 種族的 淵源」, 『백산학보』 51; 임상선, 1999, 「渤海 支配勢力의 變動과 姓氏」, 『고구려연구』 6; 림호성, 2005, 「발해의 기본주민은 고구려 유민」,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역사재단·조선력사학학회·러시아극동국립기술대학교; 박순우, 2017, 『10~14세기 '渤海人'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등 참조.

107 희귀성으로 鬱=欝=郁을 같은 성씨로 보고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상고 시기 鬱華氏 부락에 기원을 둔다고 전해진다. 『路史』에는 黃帝 시기 東夷 부락 수령 울화씨가 鬱山에 머물러 鬱氏로 하였고, 뒤에 欝氏로 변했다고 한다. 柔然 왕족 성씨(鬱久閭=郁久閭, 시조 木骨閭의 음이 변한 것으로 봄)이며, 남북조 시기 북위 효문제의 한화 정책으로 선비족 鬱久閭氏 부락의 성을 울씨(欝=郁氏)로 고쳤다. 西魏 말(552) 돌궐에게 공격당한 뒤 부락 일부는 고구려와 말갈로, 일부는 중앙아시아로 흩어졌다. 당나라 때 돌궐 阿史那氏의 후예도 당으로 귀부한 뒤 울씨를 사용하였고, 거란에서도 사용하였다[예: '单于郁射设'(「大唐故右屯衛翊府右郎將阿史那勿施墓志」), 거란은 鬱揖(『文苑英華』, 「勅契丹王據埒可突于等書」)]. 원대 몽골족 客亦克氏와 청대 팔기의 裕瑚魯氏, 玉庫勒氏 등이 울씨로 개성하였다. 명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통해 효의황후의 경우 원 고구려 계통보다는 선비·거란 또는 말갈 계통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효의황후의 출자에 대한 표현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묘지명에 "황후 울씨는 본래 하신향(夏神鄕)의 사람이다. 숙신의 복지(福地)는 오랫동안 새매 무리의 숲으로 불렸다. 곤륜의 뛰어난 경치는 앞서 용맹한 신하(虎臣)의 땅으로 불렸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하신향'은 특정 지명보다는 '하신'의 고향(마을) 출신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하신'은 중국 신화에 나오는 축융(祝融)을 가리킨다. 기록에 따라 그 신분에 대해 달리 표현했는데, 주목되는 것은 고양씨의 후예이면서, 또 다른 후예인 고신씨(高辛氏)의 불주(火主)이자 신하로서 전쟁의 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삼국사기』, 『진서(晉書)』 등에서 고구려는 4~5세기경부터 고양씨(高陽氏) 또는 고신씨(高辛氏)의 후예로 인식하였고,[108] 고구려계 묘지명에서도 확인된다.[109] '하신향'은 '용맹한 신하(虎臣)의 땅'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즉, '하신향'은 고양씨 또는 고신씨를 출자로 내세운 고구려를 계승한 성조(聖朝)인 발해에 충성을 다했던 용맹한 장수의 가문을 세운 할아버지, 아버지의 출신지를 비유한다고 생각된다.

그 출신지는 바로 '숙신의 복지'로 숙신은 당시 말갈의 전신으로 이해되었고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말갈 7부 중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용두산 고분군이 위치한 발해 중경 지역의 토착세력이라고 한다면 백산말갈계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울씨'가 선비·거란 계통의 성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면, 송화강 유역에서 활동하던 속말말갈계일 가능성도 있다. 속말말갈은 7세기 초 고구려의

여진족에도 울씨가 확인된다. 발해 성씨에서 말갈계로 여겨지는 '茹'씨도 유연과 선비 계통에서 사용된 성씨로, 울씨와도 연관이 있어 보여 향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百度百科, 위키백과 등 참조).

108 『三國史記』 卷第28 「百濟本紀」 第6, "又聞新羅人自以小昊金天氏之後故姓金氏, 高句麗亦以高辛氏之後姓高氏(見晉書載記)"; 『晋書』 慕容雲傳 "祖父和 高句驪之支庶, 自云高陽氏之苗裔, 故以高氏焉."

109 「高英淑 묘지명」, "字英淑, 昌黎孤竹人, 五聖枝分高辛."(권은주, 2016, 「唐代營州 출신 고구려계 高英淑의 묘지명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4, 35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압력으로 그 일부가 요서 영주(營州)지역으로 이주하여 거란과 잡거하였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돌지계(突地稽) 집단이다.[110] 요동 지역에 남아 있던 속말말갈은 고구려에 복속되었고, 두만강 유역의 백산말갈 역시 고구려에 일찍이 복속되어 고구려민이 되었다. 그리고 말갈 세력 대부분은 고구려의 멸망 전쟁에 휩쓸려 해체·재편을 겪었고, 상당수는 고구려인들과 함께 당나라 내지로 끌려가고 일부는 영주 지역에 거주하였다. 영주 지역에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발해 건국자인 대조영이다.[111]

효의황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황후의 출생이 726년임을 감안할 때 발해 건국에 참여하거나 고왕·무왕·문왕대 말갈 복속과 영역 확장에 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출신지에 대한 표현 다음 구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장수의 가문을 올려 여시고, 성조에 충성을 다하셨다.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변경을 안정시키는 계책을 내셨다. … 부절을 쪼개고 인장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그 공로를 전한 때 흉노 정벌에 공을 세운 '영평후(營平侯, 趙充國)', '이장군(李將軍, 李廣)'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로로 효의황후 집안은 고관을 상징하는 '헌면을 세습'하고, 공신을 상징하는 '대려(帶礪)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효의황후는 군벌 공신 가문 출신으로 입궁하게 되었고,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목황후의 경우 그 출자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묘지명의 내용이 매우 소략하기 때문이다. 우선 '태씨(泰氏)'의 경우도 흔치 않은 희성이지만, 북방계가 주로 쓰는 성씨는 아니었다. 중국 고전에 따르면, 주(周) 태왕(太王)의 장자 태백(泰伯)의 후예들과 주 문왕(文王)의 신하 태전(泰顚)의 후예가 성으로 사용했다

110 『구당서』 말갈전; 『신당서』 흑수말갈전.

111 효의황후가 말갈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 고구려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말갈 역시 부여계, 거란계, 숙신계 등 여러 종족집단의 이합집산으로 이루어진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권은주, 2008, 「말갈 연구와 유적현황」,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연구』(공저), 동북아역사재단; 권은주, 2009, 「靺鞨 7部의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고구려발해연구』 35; 권은주, 2018, 「고구려 멸망과 요동지역 말갈인의 향배」, 『대구사학』 133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한다.[112] 물론 발해 태씨와는 관련성이 없다. 우리 역사에서 태씨 사례를 보면, 고대에 한반도(신라 또는 가야로 추정)에서 일본에 도래한 씨족으로 하타(泰)씨가 확인된다. 이들은 5세기경 야마토 지방 가쓰라기(葛城, 현 나라분지 남서부)에 도래하여 5세기 중엽 이후에 야마시로(山城=山背, 현 교토부 남부)에 이주한 것으로 보이며, 주철, 구리제련, 토목 및 양잠 기술로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113] 이를 감안하면 '태씨'는 한반도 북부의 재지 성씨 또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성씨일 가능성이 있다.[114]

또 다른 가능성은 발해 왕성인 '대'씨와의 관련성이다. '大'는 '太'·'泰'와 음과 의미가 통하여 자주 혼용되었다. 발해 세자 대광현의 후예는 고려와 조선에서 주로 '太'를 성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의 출자설에는 주나라 '태전(泰顚)'의 후예라는 설도 있는데, '태전'은 '太顚'으로도 쓴다.[115] 순목황후의 성씨가 '대'씨인데, 족내혼을 숨기기 위해 또는 왕족과 구분하기 위해 '泰'로 썼을 가능성도

112 百度百科 '태성' 항목 참조(https://baike.baidu.com/item/%E6%B3%B0%E5%A7%93/1447100).

113 박규태, 2009, 「교토와 도래인: 하타씨(泰氏)와 신사(神社)를 중심으로」, 『韓國學論集』 45, 251~252쪽.

114 필자는 1차 보고 때부터 『고려사(高麗史)』에 지금의 황해도 연백지역인 염주(鹽州) 출신의 태평(泰評, ?~?)을 '泰'씨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는 후삼국 시기 유긍순의 휘하에 있다가 왕건에게 귀순하여 고려 건국의 공을 인정받아 순군낭중에 제수되었다[『고려사』 열전 권제5, 제신(諸臣), 왕순식, 태평 "泰評, 塩州人. 博涉書史, 明習吏事. 初爲其州賊帥柳矜順記室, 弓裔破矜順, 評乃降. 裔怒其久不服, 令屬卒伍, 遂從太祖, 開國之際, 與有力焉, 擢授徇軍郎中."] 황해도 연백 지역은 원래 고구려 땅이었다가 신라 땅이 되었고, 발해의 남쪽 경계와 가까우면서 동쪽으로 동해 방면은 순목황후의 할아버지가 지방관으로 있었던 발해 남해부 지역과 가까웠다. 또한 발해 멸망 때 세자 대광현이 고려로 내려와 받았던 봉읍지가 태평의 출신지와 같은 백주(白州, 현재 연백 온정면 추정)였던 점도 참고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태평'의 '태'는 성씨가 아닌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는 김종복 선생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아, 본문에서 삭제하고 주석에 달았다.

115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남원 태씨(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591763&cid=51948&categoryId=5514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생각해볼 수 있다.[116] 그러한 사례는 신라와 고려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순목황후의 출자는 고구려계이거나 발해 내부에서 그렇게 이질적인 계통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순목황후의 할아버지인 태장문(泰長文)은 남해부의 수령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의 관청 명이 나오고, '守'가 나올 경우 그 관청의 장관을 의미한다.[117] 아버지 태흥절(泰興節)은 중대성의 장관인 우상(右相)이다.[118] 중대성은 발해 최고 관청인 3성의 하나로 당나라 중서성에 해당하며, 황제의 명령을 하달하는 문서 작성과 정책 구상과 심의를 담당하였다. 이렇듯 할아버지는 지방 관청인 부-주-현 중 가장 상위인 남해부의 장관이었고, 아버지는 중대성의 장관인 우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순목황후의 집안은 유력한 문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순목황후는 이러한 배경하에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문왕의 가족 관계 보정

공교롭게도 발해 4묘비는 모두 발해 문왕과 관련된 인물의 것이다. 『신당서』 발해말갈전에 보면 문왕에게는 대굉림(大宏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어 족제인 대원의(大元義)가 즉위하였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대굉림의 아들 대화여(大華璵, 成王)가 왕이 되었고, 그 뒤를 문왕의 작은 아들인 대숭린(大嵩璘, 康王)이 이었다. 그 뒤에는 강왕의 아들인 대원유(大元瑜, 定王), 대언

116 강진원, 2021, 「발해 선왕(宣王) 이전 시기에 대한 시론: 순목황후묘지명의 이해를 중심으로」, 송기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엮음,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문헌, 문자, 물질』, 진인진, 512~515쪽.

117 예로 『삼국유사』 卷 第二, 紀異第二, 後百濟·甄萱편 "義成府之守"는 "의성부 태수"를 가리킨다. 발해 지방 행정구역인 府州의 장관으로는 都督, 刺史가 확인된다. 일본의 『類聚國史』에는 발해 초기 大村의 장을 도독이라 하고, 그다음을 자사라고 하였다. 도독과 자사 사례로는 『속일본기』 '若忽州都督', '木底州刺史', '玄菟州刺史'가 있다.

118 『신당서』 북적열전 발해전, "官有 … 中臺省, 右相·右平章事·內史·詔誥舍人居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大言議, 僖王), 대명충(大明忠, 簡王)이 잇따라 왕위를 이었다. 간왕을 마지막으로 대조영계의 왕위는 그 동생인 대야발(大野勃)의 4대손 대인수(大仁秀, 宣王)계로 넘어간다. 문왕대 대당 사절 또는 숙위로 활동하던 이들 중 신분이 왕자인 대영준, 대정한, 대청윤 등이 확인된다.[119] 그러나 이들은 문왕의 친아들인지 아닌지, 적자인지 서자인지 알 수 없다. 문왕의 친자손이 확실한 것은 기록상 대굉림과 성왕에서 간왕까지 왕위를 잇는 이들이 전부이다. 그리고 정혜, 정효공주 묘비의 발견으로 문왕에게는 적어도 4명의 딸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 효의황후 묘비와 순목황후 묘비의 발견으로 문왕의 가족 관계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 효의황후는 처음부터 황후로 입궐한 것은 아니다. 묘지명에는 "간택되어 들어와 (황제를) 모시고, 어짐으로 은총을 받았다. 여러 희가 다투어 추대하며, 숭앙하지 않음이 없었다. … 용천(상경 용천부)에 도읍을 정하고, … 황후로 세우니(入侍, 以賢被恩, 諸姬競推, 靡不崇仰 … 定都龍泉, … 立爲皇后)"라고 묘사하였다. 즉, 효의황후는 상경 천도 이전에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갔으나, 황후가 된 것은 상경 용천부를 수도로 정한 뒤의 일인 것이다.[120] 효의황후가 황후가 된 과정과 정혜공주, 정효공주와의 관계를 보면, 효의황후는 문왕의 계비임을 알 수 있다. 효의황후는 726년 출생하여 서른 무렵인 755년에서 756년경 황후가 되었다. 그런데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가 738년생이므로 효의황후와 12살 차이밖에 안 난다. 따라서 정혜공주는 효의황후의 소생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문왕의 장녀 역시 효의황후의 소생이 아니다. 또한 효의황후 이전에 문왕에게는 적어도 1명의 정비가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9 『冊府元龜』 권996, 外臣部 41, 納質, "(唐)代宗 大曆九年(774) 二月辛卯, 渤海質子大英俊還蕃, 引辭于延英殿.", "(唐)德宗 貞元七年(791) 八月, 渤海王遣其子太貞幹【一作眞幹】來朝."; 『구당서』 발해말갈전, "[貞元] 十年(794) 正月, 以來朝王子大淸允爲右衛將軍同正."

120 정비로 간택된 것인지, 후궁으로 간택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상경 천도는 안사의 난이 일어난 755년 또는 756년경으로 추정된다. 『신당서』 권43下, 地理志下 河北道, "… 二曰登州海行入高麗渤海道 … 至顯州, 天寶(742~756)中王所都."; 『신당서』 권219, 발해전, "天寶末, 欽茂徙上京. 直舊國三百里, 忽汗河之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정혜공주, 정효공주의 묘지명에는 공통적으로 "궁궐의 모범이 되었으니, 동궁(東宮)의 누나답네(北禁羽儀, 東宮之姉)"라는 표현이 있다. 정혜와 정효공주의 동생인 동궁은 같은 인물로 기록상 확인되는 '대굉림'으로 보고 있다.[121] 그렇다면 동궁인 대굉림은 757년 출생인 정효공주보다 늦게 태어난 것이 확실하며, 상경 천도 이후 출생한 정효공주와 대굉림은 효의황후 소생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문왕의 소자로 알려진 강왕 대숭린도 효의황후 소생일 가능성이 있다. 효의황후와 정효공주 그리고 강왕의 아들 간왕의 황후인 순목황후의 무덤을 같은 묘역인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 5호 대지에 함께 조성했는데, 무덤의 근접성은 친속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정혜공주를 비롯하여 대굉림과 제5대 정왕에서 제9대 간왕까지는 효의황후 소생 자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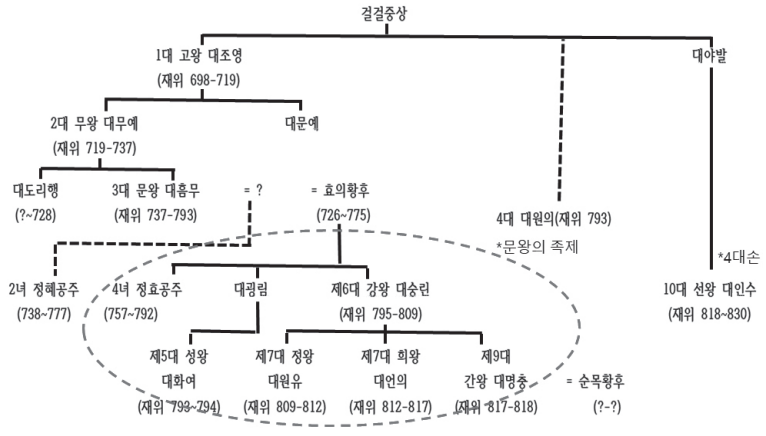


그림 4 효의황후와 발해 황실 가족 혈연 추정도

121 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18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장례 의례와 논쟁점

1) 장례 의례

발해 왕실의 장례 의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장례 의례와 관련해서는 738년 당에서 필사해 온 당례(開元禮로 추정)[122]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정혜, 정효공주와 효의, 순목황후의 묘지명에 보이는 장례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 장례 의례를 살펴본다.

> 가. 정혜공주 묘지명 "① 아, 보력(寶曆) 4년(777) 여름 4월 14일 을미일에 외제(外第, 궁궐 밖 사가)에서 임종하였으니, 나이는 40세였다. ② 시호를 정혜공주(貞惠公主)라고 하였다. ③ 보력 7년(780) 겨울 11월 24일 갑신일에 진릉(珍陵)의 서쪽 평원에 배장(陪葬)하였으니, 예법에 맞다. ④ 황상(皇上)은 조회를 파하고 몹시 비통해하며 정전(正殿)을 떠나 음악도 중지시켰다. ⑤ 장례를 치르는 의식은 관청에 명하여 잘 갖추었다. ⑥ 상여꾼의 목멘 울음은 논밭길 따라 맴돌고, (운구 실은) 수레 끄는 말의 구슬픈 울음은 들판 따라 오르내리네. ⑦ 악장(鄂長) 공주처럼 영예를 높여 능묘를 넘게 하고, ⑧ 평양(平陽) 공주처럼 은총을 내려 관자리를 세웠다(立厝). … ⑨ 천금(千金)(같은 공주)과 한번 이별하기에 아쉬워, 만년토록 (기리고자) 작은 돌을 남겨두네. 이에 명문(銘文)을 새겨 말한다."[123]
>
> 나. 정효공주 묘지명 "① 아, 대흥 56년(792) 여름 6월 9일 임진일에 외제에서 임

122 『唐會要』 권36, 蕃夷請經史, "(開元)二十六年(738)六月二十七日, 渤海遣使求寫唐禮及三國志·晉書·三十六國春秋, 許之." 정효공주 묘지명에 보이는 장례 절차와 개원례의 비교는 王承礼, 1985,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研究(下)」, 『博物館研究』 1985-1 참조.

123 "粵以寶曆四年夏四月十四日乙未[終於]外第, 春秋四十. 謚曰貞惠公主. 寶曆七年冬十一月廿四日甲申, 陪葬於珍陵之西原, 禮也. 皇[上罷朝]輿慟, 避寢弛[懸]. 喪事[之儀, 命官備矣]. 挽郎嗚咽, 遵阡陌而盤桓, 轅馬悲鳴, 顧郊野而低昂. 喻以鄂[長, 榮越]崇陵, 方之平陽, [恩]加[立厝]. … 惜千金於一別, 留尺石於萬齡. 乃勒銘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종하였으니, 나이는 36세였다. ② 시호를 정효공주(貞孝公主)라고 하였다. ③ 그 해 겨울 11월 28일 기묘일에 염곡(染谷)의 서쪽 평원에 배장하였으니, 예법에 맞다. ④~⑨ 상동"[124]

다. 효의황후 묘지명 "① 보력 2년(775) 2월 5일 무진에 문사당(文思堂)의 측침(側寢)에서 돌아가시니, 춘추 50세이다. 사랑▨▨ 눈물을 흘린다. 성주(聖主)께서 상심하시길 가슴에 사무치듯 비통해하셨다. ③ 그해 겨울 10월 24일 갑신에 진릉대(珍陵臺)에 천장(遷葬)하니 예이다. ④ 황상(皇上)께서는 음악을 정지하고(徹懸), 반찬을 줄이셨으며(損饍), 조를 폐하시고(廢朝) 매우 슬퍼하셨다(慟▨). ⑤ 동원(東園)의 비기(秘器)·우보(羽葆)·고취(鼓吹)를 하사하시고, 상사의 의례(喪事之儀)에 모두 넉넉히 주셨다. ⑥ 거마(車馬)는 구름같이 (운구를) 옮겨, 단궐(丹闕, 궁궐)에 인사하며 오르내렸고, 깃발(旌旒)은 노을에 펄럭이며, 청문(青門)을 나와 바람에 날렸다. ⑦ 간적(簡翟)처럼 예를 준엄하게 하여 능을 만들고, ⑧ ▨▨처럼 아름답게 무덤집을 세웠다(立厝). ⑨ 이내 명(銘)을 지어 말한다."

라. 순목황후 묘지명 "① 연평(延平) 2년(?) 4월 24일에 돌아가시니, 선비(鮮卑) 불이산(不易山) 언덕에 임시로 모셨다(殯). ⑤ 전례(典禮)를 좇아 ③ 건흥(建興) 12년(829) 7월 15일에 ▨릉(陵)으로 옮겨 모시니(遷安) 예이다. … ⑨ 그 덕과 아름다움을 기술하여 명을 지었다. 명에서 말한다."

위에서 장례 과정은 아홉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①은 사망일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뒤 대장(大葬)을 치르기 전 임시로 안치(또는 매장)하는 행위나 장소에 대한 정보이다. 이를 빈장(殯葬), 가장(假葬), 권장(權葬) 등으로 표현한다. 공주 묘지명에는 빈장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사망일과 대장 사이에 정혜는 3년 이상, 정효는 4개월 이상 차이가 있어 그 사이 빈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효의황후의 경우 대장을 '천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전에 빈장

124 "粵以大興五十六年夏六月九日壬辰終於外第, 春秋三十六. 謚曰貞孝公主. 其年冬十一月廿八日己卯, 陪葬於染谷之西原, 禮也. 이하 주 123)과 동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순목황후는 '선비 불이산원에 빈(殯)하였다'고 하여 유일하게 빈장 장소를 밝혔다.

②는 시호를 정하여 올리는 일로, 정혜공주, 정효공주의 경우 '謚曰, 某某'로 표현되어 있지만 효의황후, 순목황후는 생략되었다. 그러나 묘지명의 제목이 '효의황후', '순목황후'로 밝히고 있어 대장 전에 시호를 정하여 올렸음을 알 수 있다.[125]

③은 빈장을 끝내고 최종 무덤에 안장하는 대장에 해당하며, 대장이 행해진 날짜 뒤에 장소 및 장사 형식을 표시하였다. 정혜공주는 '진릉(珍陵)'의 서원(西原)에 '배장(陪葬)'되었고, 정혜공주는 '염곡(染谷)'의 서원에 '배장'되었다. 효의황후는 '진릉대(珍陵臺)'에 '천장'하고, 순목황후는 '▨릉'에 '천안(遷安)'하였다. 위의 ①과 ②, 아래의 ④~⑨는 최종 안장 전의 과정이다.

④는 장례 과정에서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황제의 의례 행위를 나타낸다. 정혜공주, 정효공주와 효의황후의 장례는 문왕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아버지이자 남편인 황상(문왕)은 기본적으로 정무를 정지(罷朝, 廢朝) 하고, 매우 슬퍼하며(興慟, 慟▨), 침식과 음악을 줄이며(避寢弛懸, 徹懸損饍) 망자를 추모하였다. 순목황후의 묘지명에는 ④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은 묘지명의 제작과 대장이 순목황후 사후 한참 지나서이기도 하지만, 순목황후와 관련 없는 선왕 때여서 선왕이 순목황후를 위해 앞의 경우와 같은 애도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최소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⑤는 왕실 장례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관청에 명해, 장례 의식을 정하고 장례 용품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당 관청은 당연히 묘지명에 보이는 ①~⑨ 부분을 모두 관장하여 처리하였을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정혜공주, 정효공주의 경우 장례 의식을 관청에 명하여 잘 갖추게 하였는데, 효의황후의 경우 문

125 황후의 사례로는 북주 무덕황후의 묘지가 참고된다. 「周武德皇后墓志」, "大隋開皇二年(582), 歲次壬寅, 四月甲戌朔廿三日乙未, 周武帝皇后阿史那氏徂, 謚曰武德皇后. 其月廿九日壬寅合葬於孝陵."(石風, 2024, 『出土墓志所見北朝女性世界』, 山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3~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왕이 직접 동원의 비기와 우보, 고취를 하사하고 상사의 의례를 넉넉하게 챙기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공주와 황후라는 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순목황후의 경우, '전례를 좇아'라는 부분이 대장을 치르기까지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⑥은 애도기간이 끝나고 능묘가 완성된 뒤 대장으로 넘어가 능묘에 안치하기 위해 운구를 옮기는 과정으로 상여길을 묘사한 부분이다. 운구는 공통되게 상여꾼이 이끌고 수레와 말로 옮겼다. 차이점은 효의황후의 상여길에는 궁궐에 인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두 공주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두 공주가 외제에서 사망하고 빈소 역시 도성 밖이었기 때문이다.

⑦은 능묘의 조성을 묘사한 부분으로, 공주와 황후의 격에 맞는 고전의 인물과 비교될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화려하게 조성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다음 ⑧에서 '입조(立厝)'는 두 공주와 효의황후 묘지명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표현인데, 보통 '빈소를 세웠다'로 번역된다. '厝'는 본래 마석(磨石, 숫돌, 금강석)을 의미하다가 집, 안치, 조치라는 의미가 더해지고, 장례에서는 주로 임시매장이나 관을 놓는 자리 또는 빈소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위의 묘지명에서는 '입조'가 능묘의 조성과 ⑨능묘에 들어갈 묘지명을 작성하고 새기는 행위, 그 사이에 있다. '조'가 빈소일 수 있지만, 순서상 대장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 자연스럽다. 무령왕의 묘지에는 '조'가 임시가 아닌 최종 매장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126] '입조'는 '무덤'이나 '관 자리를 세웠다'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2) 귀장·천장과 진릉 해석 논쟁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비가 발견되면서 장례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것은 귀장(歸葬), 천장(遷葬)과 장지(葬地)인 '진릉(珍陵)'에 대한 해석이다. 우선 귀장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 학계에서는 일찍이 진위푸(金毓黻)가 정혜공주의 장례

126 「공주 무령왕릉 무령왕 지석」, "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 年六十二歲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 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 安厝登冠大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귀장으로 본 바 있다. 그는 정혜공주가 육정산 고분군에 묻힌 것을 "고도(故都)"에 "환장(还葬)"한 것이라 하였고, 바로 진릉은 대흠무(문왕)가 생전에 미리 건축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진위푸는 돈화 오동성(敦化敖东城)을 대조영이 나라를 세운 구국(旧国)으로 보았으며, 정혜공주가 사망한 777년과 무덤을 조영한 780년에는 이미 수도를 상경용천부로 옮긴 뒤였기 때문에, 귀장으로 본 것이다.[127] 그러나 발해 왕실의 귀장에 대한 논의는 이후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용두산 고분군 발굴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서 발해 왕실의 귀장에 대해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용두산 고분군 발굴보고서에는 이 고분군에서 귀장 현상을 확인하였고, 육정산 고분군이 귀장지는 아니며, 귀장 현상이 발해 시기 내내 일관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어쨌든 현재 확인된 바로는 발해 왕실 성원이 가장 많이 귀장한 곳은 용두산 고분군이며, 3대 문왕 시기에 시작되어 9대 간왕 대에 멈추었다고 하였다. 또한 10대 선왕 때부터 대야발계의 능묘는 대조영계의 묘역(즉 용두산 고분군)에 무덤을 옮기지 않았고, 상경성 북쪽 목단강 우안의 삼령분 능구역(三灵坟陵区)에 조성하였다고 하였다.[128]

원적(原籍)이나 구영(舊塋), 선영(先塋)에 귀장, 천장하는 현상은 위진남북조 및 수당대 묘지명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삼국사기』 등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발해 왕실에서 귀장, 천장이 보이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순목황후의 경우 초장지, 즉 빈장 장소가 발해 땅이 아닌 거란 땅으로 보이는 "선비(鮮卑) 불이산(不易山)[129] 언덕"이었던 점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연평 2년(?) 4월 24일"에 죽고 빈장했다가 "건흥(建興) 12년(829) 7월 15일"에 현재의 용두산 고분군 용해 구역의 '▨릉'으로 천장되었다는 것이다. 연평이 선왕의 연호가 아닌 경우 사망 최소 12년 뒤에 천장한 것

127 金毓黻, 1956, 「關千 "渤海貞惠公主墓碑研究"的補充」, 『考古學報』 1956-2.
128 귀장에 관한 중국 학계 동향과 보고서 의견은 보고서 209~210쪽 참조.
129 번역자에 따라 '불역산'이라고도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되며, 선왕의 연호라고 하여도 한참 뒤에 천장한 것으로 보인다.[130]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가능성은 문왕 사후 불안정한 왕위 계승과 간왕 사후 왕통이 대조영계에서 대야발계인 선왕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내부 권력 문제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순목황후가 모종의 이유로 거란 땅에 갔다가 사망한 뒤, 발해, 거란, 당, 회흘 등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곧바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선비 불이산' 지역을 발해가 차지하게 되면서 황후의 빈장 장소로 활용한 것이다.[131]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진릉'에 대한 해석이다. 논쟁의 발단은 용두산 고분군에 묻힌 효의황후의 묘지명에 천장 장소로 '진릉대(珍陵臺)'가 나오는데, 육정산 고분군에 묻힌 정혜공주의 배장 장소인 '진릉'과 한자가 같기 때문이다. '진릉'이 왕릉이 아닌 '진릉대'와 같은 '지명'인지, 왕릉으로 볼 경우 누구의 능인지, '진릉'이 육정산 또는 용두산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은 건국지 및 '구국(舊國)' 비정에도 영향을 주어 기존 둔화설 대신 옌벤지구설이 확대되고 있다.[132]

---

130 현재 '연평'을 선왕의 연호로 보는 경우가 다수이며, 문왕의 '대흥', '보력'의 사례와 같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131 고구려가 요동을 완전히 차지하기 전, 요동 지역에 선비 계통이 오랫동안 잡거했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선비 불이산'은 요동의 변경 어딘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2 동모산을 마반촌산성으로 보는 주장은 王禹浪 · 都永浩에 의해 제기되었다(王禹浪 · 都永浩, 2000, 「渤海東牟山考辨」, 『黑龍江民族叢刊』 2). 王培新은 구국은 상경 첫 번째 도읍이 아닌 상경 천도 이전의 도읍인 현주, 즉 중경 서고성 지역을 지칭한다고 보았다(王培新, 2013, 「渤海早期王城研究中的幾個問題」, 『中國邊疆史地研究』 2).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마반촌산성 발굴로 고구려 말에서 발해 초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면서, 마반촌 산성이 동모산이라는 주장이 확대되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 2018, 「吉林省圖們市磨盤村山城2013~2015年發掘簡報」, 『邊疆考古研究』 24; 王培新, 2018, 「磨盤村山城爲渤海早期王城假說」, 『新果集(二): 慶祝林沄先生八十華誕論文集』, 科學出版社). 중국 학계의 관련 동향과 이에 대한 반박은 양시은, 2022, 「발해 동모산 비정에 대한 중국 학계의 최근 논의」, 『고구려발해연구』 72; 정석배, 2022, 「발해 구국과 동모산의 위치에 대해」, 『고구려발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쟁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자면, 진위푸가 진릉을 문왕의 능이며 육정산고분군에 있다고 보았고, 왕청리(王承礼) 역시 처음에는 같은 견해였다가 대조영과 무왕의 능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133] 진릉을 무왕의 능으로 강조한 것은 왕지엔쥔(王健群)이다.[134] 이후 1990년대까지 무왕의 능설이 강세를 보였다. 2000년대 초에는 여전히 진릉을 무왕의 능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정혜공주의 생모, 즉 문왕의 왕비 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35] 그러다가 2004년 효의황후 묘비가 출토되면서 '진릉'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웨이준청(魏存成)은 '진릉'이 대흠무의 능묘라고 한다면 둔화 동쪽의 다른 지역에 있을지 여부를 제기하였고, 왕즈강(王志刚) 등은 지명일 가능성과 정혜공주 무덤의 동쪽 산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왕페이신(王培新)은 '진릉'이 발해 왕실 성원의 매장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류샤오동(刘晓东)은 대흠무의 능일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그 위치를 용두산 고분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발굴보고서에서는 용해구역에 대흠무의 능침인 진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136] 따라서 '진릉대'는 진릉이 있는 대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최근 중국 학계의 '진릉' 논쟁은 지명이든 왕릉이든, 그 위치를 둔화 육정산이 아닌 화룽 용두산 지역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첫째, 정혜공주 묘지명에 나타나는 '진릉'의 위치가 육정산이 아닌 용두산이

연구』 73 참조.

133 王承禮, 1957, 「敦化六頂山渤海古墓群調查簡記」, 『吉林省文物工作通訊』; 王承禮·曹正榕, 1961, 「吉林敦化六頂山渤海古墓」, 『考古』 1961-6.

134 王健群, 1980, 「渤海貞惠公主墓碑考」, 『文物集刊』 2.

135 侯莉閏·李強, 2002, 「渤海珍陵新探」, 『北方文物』 2002-02; 徐學毅, 2003, 「敦化六頂山 "珍陵" 新考」, 『北方文物』 2003-2.

136 魏存成, 2008, 『渤海考古』, 文物出版社; 王志剛·張秀榮·林世香, 2009, 「關於渤海"珍陵"的兩點認識」, 『東北史地』 2009-4; 劉曉東, 2013, 「渤海"珍陵"問題的再檢討—紀念金毓黻先生逝世50周年」, 『北方文物』 2013-3; 王培新, 2013, 「渤海早期王城研究中的幾個問題」, 『中國邊疆史地研究』 2013-2; 보고서, 208~2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고 한다면, 왜 '배장'했다고 표현했는가이다. '배장'은 근친이나 군신 관계에 있는 하위자가 상위자의 무덤 곁에 묻힐 때 쓰는 표현이다. 묘지명과 기록을 보면 '배장'의 범위는 묘역의 크기에 따라 무덤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상위자의 무덤 묘역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137] 정혜공주, 정효공주의 경우 남편의 무덤에 배장했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138] 공주와 부마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공주가 격이 더 높으므로 보통 '陪'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둘째, 정효공주와 효의황후 및 순목황후는 같은 무덤 구릉에 인접하여 조성되었는데, 정효공주는 '염곡(染谷)의 서원(西原)'으로, 효의황후는 '진릉대'로, 순목황후는 '▨릉'으로 달리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진릉'이 지명인지, 능 이름인지, 누구의 능인지에 대한 논쟁과 별개로, '진릉대'에 대한 해석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릉대'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배로운 능대"로, 효의황후의 무덤이 조성된 능대(무덤 구릉, 무덤 돈대)를 미화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묘지명 뒤에 "능을 만들고 … 평원의 으뜸으로 신녀의 대를 방불하며(營陵 … 平原之首, 髣髴神女之臺)", "능대의 안은 겨울꽃을 오랫동안 가린다(陵臺之裏, 長掩寒花.)"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어쨌든 '진릉'과 '진릉대'에 대한 논쟁은 왕릉 비정과 건국지 및 구국에 대한 이해에 주요한 단서가 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137 정혜공주 묘지명의 '진릉'이 대조영, 무왕, 문왕의 능인지에 대한 논란도 공주보다 신분이 높은 장배의 능에 배장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효공주 역시 마찬가지로, 염곡에 매장된 사람을 정효보다 신분이 높은 장배로 본다(王承禮, 1984,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研究(中)」, 『博物館研究』 1984-3).

13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대 사료 DB 금석문·문자자료 중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 번역문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호법, 호국의식과 독자적인 천하관

1) 호법, 호국의식

고구려·백제·신라가 불교를 수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종교로 발전시킨 것과 같이 발해 역시 불교를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통치이데올로기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가 숭불(崇佛)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외교 대상국에서 예불 활동을 벌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713년에 당으로 들어간 말갈 왕자(발해 왕자)는 시장 교역과 함께 절에 들어가 예배할 것을 청하였고, 762년 일본에 사신으로 간 왕신복(王新福) 일행은 763년 동대사(東大寺)에서 예불하였다.[139] 이 밖에도 외교 선물로 불상이나 염주를 주고받은 일, 발해 사찰 유적과 불교 유물 등을 통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140]

특히 발해의 호법, 호국의식은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에 나오는 전륜성왕 관련 용어에서 확인된다. 두 공주의 묘지명에는 문왕의 존호로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이 보인다. 이 존호에서 '대흥'과 '보력'은 문왕의 연호이고, '효감'은 효와 관련된 덕행을 상징하며, '금륜성법대왕'은 전륜성왕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왕을 나타낸다.[141] 전륜성왕은 불교에서

---

139 『册府元龜』 卷九百七十一, 外臣部 十六, 朝貢 四, "開元 元年(713) 十二月, 靺鞨王子來朝. 奏曰, 臣請就市交易, 入寺禮拜. 許之."; 『正倉院 樂具闕失幷出納帳』 天平寶字七年(763) 正月 廿四日 "▨ … ▨▨(高)麗客人(발해 사신)禮佛會日破損如件."

140 발해 불교 연구 현황은 金志埏, 2006, 「渤海佛教의 연구현황」, 『경주사학』 24·25 합본; 송기호, 2011, 「제6장 불교의 전개과정과 몇 가지 특징」,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계미향, 2025, 「발해 승려들의 對 일본 활동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70 등 참조.

141 문왕의 '금륜성법대왕' 존호를 당 측천무후의 존호인 '金輪聖神皇帝'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한다(王承禮, 1982, 「唐代渤海《貞惠公主墓誌》和《貞孝公主墓誌》的比較研究」, 『社會科學戰線』 1982-1; 王承禮, 1985,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研究(下)」, 『博物館研究』 1985-1; 송기호, 2011, 앞의 책, 2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법(正法, dharma, 즉 불법)에 의한 통치로 이 세상에 이상국가를 실현한다는 제왕이다. 전륜성왕은 32가지의 신체적인 특징을 지녔고, 7가지 보물을 가졌으며, 하늘로부터 금, 은, 동, 철의 네 윤보(輪寶)를 얻어 수미사주(須彌四洲)를 통솔하고 위엄으로 사방 천하(四天下)를 다스렸다. 전륜성왕의 통치 방법인 정법은 국토와 인민을 통치하는 이상적인 통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천하가 통일된다고 여겼다.

불교사에서 전륜성왕의 정법 정치를 구현한 대표적 인물은 인도의 아소카(Asoka)왕으로 아육왕(阿育王), 육왕(育王), 성왕(聖王) 등으로 불렀다. 이러한 관념은 고대 한국에도 전래되어 삼국이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남북조시대에 형성된 '왕즉불(王卽佛)사상'과 '호국사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지배이념인 불교를 활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륜성왕은 불교의 신성한 권위에 기대어 왕권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고, '정법'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불교에서 '정법치국'은 일반 백성을 위한 통치 행위로 결국 '호국안민'을 위한 실천이 요구되었다. '정법치국' 위에서 비로소 '국가를 보호'할 근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세간(世間)을 다스리는 왕, 즉 전륜성왕은 출세간(出世間)을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정법치국'이면서 이는 호국의 수단이자 '불국토(佛國土)의 이상향을 실현하는 방법이었다.[142] 문왕이 스스로 존호를 '금륜성법대왕'이라고 한 것은 불법을 수호하여 '정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며 불국토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효공주 무덤의 경우 봉토 부분이 전탑(塼塔)으로 축조되어 불교가 발해의 무덤 양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전탑을 제외하고 무덤의 구조나 벽화 양식 등을 보면 불교보다는 일반적으로 당대에 유행하던 당나라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묘탑이

142 전륜성왕 개념과 호법, 호국사상과 관련해서는 전륜성왕사상 항목,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7802; 송기호, 2011, 앞의 책; 고영섭, 2013, 「국가불교의 '호법'과 참여불교의 '호국'-호국불교의 전개와 의미」, 『불교학보』 64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워지는 경우 명문도 불교식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효공주 묘지명은 공주를 칭송하는 문구에서 '육행(六行)', '삼종(三從)'과 같은 유교적 표현으로 일관되고,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견해에서는 당나라 묘제의 영향으로 탑 자체를 무덤으로 보고, 정효공주의 무덤을 탑묘로 지었다고 보았다.[143]

탑묘가 불교의 영향인지, 불교와 상관없는 당나라 무덤 양식의 영향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144] 정혜, 정효공주 묘지명에 불교와 관련된 표현이 문왕의 '금륜성법대왕' 존호밖에 없어 불교 사상과 인식에 대해 더 들여다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반면 효의황후 묘지명의 경우 불교와 관련한 다양한 표현이 보여 주목된다. 묘지명을 보면 효의황후 자신이 불자이면서 불법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묘지명에는 황후가 본성의 깨달음인 "본각(本覺)에 주의를 더하고", 불변의 진리인 "진여(真如)를 추구"하였으며, 사물의 도리를 꿰뚫어 보는 초월적 지혜를 나타내는 "반야(般若)의 배를 타고", 완전한 깨달음과 해탈을 의미하는 "열반(涅槃)의 언덕에 도달하길 원하였다"고 하였다.[145] 그러면서 불교의 유식론(唯識論)에서 허상과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비유할 때 쓰는 "끈과 뱀(繩蛇)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안다고 했으며, "깊은 깨달음과 지혜로, 두건과 귀신을 세밀하게 나눌" 줄 안다고 하였다. 이런 지혜와 깨달

143 한정인, 2010, 「渤海와 唐의 묘제 비교: 貞孝公主墓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36.

144 정효공주의 전탑 축조가 불교와 관련 있음을 논증하고 정국 안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 박유정, 2019, 「渤海 貞孝公主墓 塼塔 출현의 의미」, 『한국사론』 65가 참고된다.

145 발해 불교 유물 중 「함화 4년(849)명 불비상」의 발원문에 아미타불 조성 배경에 정토사상이 아닌, 반야사상과 관련된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실천해야 할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언급하고 있어 어색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문명대, 1999, 「渤海 佛象彫刻의 流派와 樣式 硏究」, 『강좌 미술사』 14, 34쪽), 8세기 이래 발해 불교 사상의 영향이 아닌지 효의황후 묘지명과 함께 비교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불비상에 나오는 용어 개념에 대해서는 李殿福, 1993, 「渤海咸和四年銘佛龕」, 『歷史與考古信息』 1993-1·2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음을 추구하며, 자신의 소양으로 삼고 "유가와 불가"를 함께 숭상하며 귀하게 여겼고, "내외(內外)의 경서(經書)를 보았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 나아가 '금륜성법대왕'인 문왕의 '정법 통치'를 뒷받침하는 주체로 효의황후가 묘사되고 있다. 묘지명에는 효의황후가 "호법(護法)의 마음으로, 아울러 불법의 칭호(曇稱)를 높이 보았다"라고 하였다. '호법'은 즉 '정법의 수호'를 나타낸다. '묵칭'은 불법의 칭호로 번역할 수 있는데, '묵'은 '정법'인 'dharma'를 의미하며, 불교에서는 곧 '불법'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황후는 "오로지 유가와 석가의 자산(또는 가르침)을 받들고, 예불(禮佛)하고 경(經)을 읽어 주상(문왕)의 안국(安國)을 지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안국'은 바로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호국안민'의 통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왕의 '안국'을 지켰다는 것은 효의황후가 전륜성왕인 '금륜성법대왕'의 '정법 통치'를 수호하고 뒷받침하는 동반자였음을 의미한다.

2) 독자적인 천하관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황제와 관련된 용어였다. 황제와 관련된 용어라면 황제를 비롯한 황실 가족의 호칭과 제도(내명부, 동궁제, 존호제, 시호제 등) 및 연호 등을 들 수 있다. 발해의 황제국적 면모와 관련해서는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과 발해 왕실 고분군, 발해의 중앙 관제와 봉작제 등의 연구가 있다.[146]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신당서』 발해전에 남아 있어 황제국을 지향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었지만,

146 현명호, 1991, 「발해의 〈계루군왕〉 칭호에 대하여」, 『력사과학』 1991-1; 방학봉, 1991, 「정효공주묘지의 '대왕' '성왕' '황상'에 대하여」, 『발해문화연구』, 이론과 실천; 송기호, 1995, 「제2장 8세기의 遷都와 文王의 文治 2. 文王의 文治」, 『渤海政治史研究』, 일조각; 송기호, 2010,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8; 김진광, 2012,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方冬, 2023, 「唐朝藩屬政權的"華夏時間"-以南詔、渤海年號改元爲線索」, 『曆史研究』, 2023-1; 조영광, 2025, 「정치 제도를 통해 본 발해의 황제국 체제-중앙 관제와 봉작제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97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외에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다. 그런데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에 문왕을 직접 '황상(皇上)'이라 하였고,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을 통해 발해 국왕의 정비를 황후라고 불렀음이 확인된 것이다.

효의황후 묘지명에는 황제와 관련된 표현이 더 다양하게 나오는 데, 황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충성을 바친 대상인 발해를 황제의 조정을 뜻하는 '성조(聖朝)'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문왕의 교화를 '우리 황제의 성스럽고 밝은 교화(我皇聖明之化)'로 하였고, 그 뜻을 '황의(皇意)'라고 하여 효의가 '황의에 의해 간택'되어 입궁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이 외에 문왕을 성주(聖主), 황상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순목황후의 묘지명을 보면 남편인 간왕의 시호가 '황제'가 아닌 '왕'으로만 나온다. 따라서 발해가 고려와 같이 '외왕내제'를 택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형식은 발해가 고려에 물려준 유산으로 보기도 한다.[147] 발해가 내부적이라도 황제국을 지향한 것은 왕위 계승자를 '계루군왕'으로 책봉한 것[148]과 제후왕인 허왕을 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함화 4년(849)명 불비상〉을 보면 함화 4년 윤5월 8일에 전 허왕부참군(許王府參軍) 기도위(騎都尉)인 조문휴(趙文休)의 어머니가 불비상을 조성하였다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발해왕 아래 제후왕을 증명하는 것으로, 칭제를 방증하는 사례인 것이다.[149]

다음은 연호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신당서』 발해전에는 발해의 연호로 무왕의 인안(仁安), 문왕의 대흥(大興), 성왕의 중흥(中興), 강왕의 정력(正曆), 정

147 송기호, 2010, 앞의 글, 148~149쪽. 간왕과 순목황후의 호칭의 격 차이와 관련해서 필자의 막연한 생각이지만, 삼국시대부터 왕에서 '대왕(태왕)'은 격이 한층 올라간 것으로 여겨졌고, 왕중의 왕의 의미, 어쩌면 중국식 황제와 버금가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정비(왕후)의 경우 '부인'이라고 하였는데, 발해 때 전통적인 '대왕'의 호칭보다 '부인'을 '황후'로 바꾸기 쉬웠던 것 아닌가 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문헌 기록과 달리 9세기에도 '대왕'으로 불린 흔적이 참고된다(『입당구법순례행기』 권3, 개성오년 칠월 中 발해 승려 정소의 편지).

148 현명호, 1991, 앞의 글.

149 宋基豪, 1992, 「咸和四年銘 佛像 銘文」,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宋基豪 · 全虎兌, 1992, 「咸和4年銘 발해 碑像 검토」, 『西巖趙恒來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왕의 영덕(永德), 희왕의 주작(朱雀), 간왕의 태시(太始), 선왕의 건흥(建興), 대이진의 함화(咸和)가 확인된다. 그런데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으로 인해 문왕의 연호로 보력(寶曆)이 추가 확인되었다. 효의황후 묘지명에도 보력 연호가 사용되었다. 옌완장(閻萬章)은 '보력'은 당 경종(敬宗, 재위 824~827) 때 연호로 쓰였지만, 문종(文宗, 재위 827~840)이 즉위하며 대화(大和)로 개원하였기 때문에 정혜공주 묘지명에 나오는 보력 7년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발해가 대화 원년과 4년에 당에 내조해서 개원 사실을 모를 수 없고, 발해는 스스로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의 연호를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의 연호가 아닌 발해의 연호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정혜공주 묘지명의 일간지를 통해 보력 원년을 774년으로 추산했으며, 문왕 대흥 37년에 보력으로 개원하였다고 밝혔다.[150] 이로써 발해가 1왕 1연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순목황후 묘지명을 통해 다시 새로운 연호가 확인되었는데 바로 '연평(延平)'이다.

연호는 하늘의 명을 받아 지상을 다스리는 천자가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늘의 운행 질서인 시간, 즉 역(曆)을 만들어 선포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연호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황제에게 있는데 발해가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발해 국왕이 황제이며, 독자적인 천하의 주인임을 선포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실제로 발해가 외부로 황제국임을 표방했든 안 했든 당이나 신라, 일본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구축하고 황제국 체제를 구현해 갔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주목하는 것은 발해의 '동국(東國)' 의식이다. 효의황후 묘지명에 보면 "(황후의) 덕은 동국(東國)에서 높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동국'은 '해동'과 마찬가지로 삼국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정체성의 표어와도 같은 별칭이다. 발해를 부르던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효의황후 묘지명은 발해 스스로 '동국'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첫 실물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 정

150 閻萬章, 1956, 「渤海'貞惠公主墓碑'的研究」, 『考古學報』, 195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 열전에 신라는 동이(東夷)전에 발해는 북적(北狄)전에 편제된 것을 근거로, 한국사에서의 남북국시대를 부정한다.[151] 그러나 발해 스스로는 '동국'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발해를 북적전에 편제한 것은 『당서』 편찬자의 인식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순목황후 묘지명의 제목은 "발해국(渤海國) 순목황후 묘지명 병서"로 당나라와 무관하게 국명을 표기하였다. 중국에서 출토된 신라왕의 종형인 김일성의 묘지명(774)과 경주 숭복사비(896)는 제목의 맨 앞에 '유당(有唐)'이라고 하여 당나라를 달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152] 즉, 중국 측에서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독자적인 천하관과 중국과 구분된 공간 의식을 가진 독립국이자 황제국의 면모를 지닌 발해상(像)을 효의황후, 순목황후 묘지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 용두산 발해왕실 고분군에서 발견된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의 판독과 역주를 진행하고,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발해의 성씨는 50여 개인데, 새롭게 효의황후의 성인 '울(欝)'씨와 순목황후의 성씨인 '태(泰)'씨가 확인되었다. 발해인의 성씨는 고구려·백제·신라, 중국이나 북방, 말갈, 소그드 계통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발해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울씨는 선비, 거란 또는 말갈 계통에서 사용하던 성씨인데, 효의황후의 출신과 관련하여 '하신향', '숙신의 복지' 등의 표현이 있어 말갈계일 가능성이 있다. 태씨는 5세기경 일본에 건너간 하타(泰)씨의 사례가 있으므로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성씨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발해 왕성인

151 권은주, 2022,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 동인과 최근 연구 경향-웨이궈중의 『발해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70, 141쪽.

152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 고대사료 DB 금석문·문자자료, "有唐故銀青光祿大夫光祿卿贈兗州都督金府君墓誌銘", "有唐新羅國初月山大崇福寺碑銘幷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씨와 족내혼을 숨기거나 왕족과 구분하기 위해 '태'씨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효의황후, 순목황후가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분이 높았기 때문이다. 효의황후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군공을 세운 군벌 공신 가문이고, 순목황후는 할아버지가 남해부의 수령, 아버지가 중대성 우상으로 유력한 문벌 가문 출신이었다.

발해 4묘비는 공교롭게도 모두 문왕과 관련된 인물의 것이다. 효의황후, 순목황후의 묘비가 발견되면서 그 가족관계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 726년생인 효의황후는 755년에서 756년경에 황후가 되었는데, 738년생인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와의 나이 차이는 12살밖에 안 된다. 따라서 정혜공주는 효의황후의 소생이 아니며, 효의황후 이전에 문왕에게 적어도 1명의 정비가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757년생인 정효공주와 동생인 동궁(東宮) 대굉림은 효의황후의 소생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문왕의 소자로 알려진 강왕 대숭린도 효의황후 소생일 가능성이 있다. 강왕의 아들인 간왕의 황후 순목황후의 무덤이 효의황후와 근접해서 조성되었는데, 무덤의 근접성은 친속관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정혜공주를 비롯하여 대굉림과 제5대 정왕에서 제9대 간왕까지는 효의황후의 소생 자손으로 볼 수 있다.

장례 의례와 관련해서는 738년 당에서 필사해 온 당례(開元禮로 추정)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묘지명에는 장례와 관련하여 처음 빈장(殯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시호를 정하여 올리고, 대장(大葬)은 공주는 배장(陪葬), 황후는 천장(遷葬)을 한 것으로 나온다. 다음으로 정무를 정지하고(罷朝, 廢朝), 매우 슬퍼하며(興慟, 慟𡚁), 침식과 음악을 줄이거나 피하며(避寢弛懸, 徹懸損饍)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황제의 의례 행위가 나온다. 그리고 왕실 장례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관청에 명해, 장례 의식을 정하고 용품을 갖추게 하는데, 효의황후의 경우 문왕이 직접 물품과 상사 의례를 챙겼다. 순목황후는 '전례(典禮)를 좇아'라는 표현에 이러한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 애도 기간이 끝나고 상여꾼이 상여길을 이끌고 운구는 수레와 말로 옮겼다. 마지막으로 능묘와 무덤 자리를 정성스럽게 조성하고, 망자를 기리기 위해 묘지명을 짓고 새기는 행위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보인다.

장례 의례와 관련하여 귀장, 천장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것은 중국뿐 아니라 삼국시대에도 나타나므로,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순목황후의 경우 빈장 장소가 거란 땅으로 보이는 '선비의 불이산원'이고 천장 시기도 사망한 연평 2년(?)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선왕 건흥 12년(829)인 것이 의문이다. 여기에는 첫째, 왕통이 대야발계로 넘어가며 일어난 내부 권력 문제, 둘째, 국제 정세의 변동, 셋째, 발해가 '선비 불이산' 지역을 차지했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논쟁이 된 것은 용두산 고분군에 묻힌 효의황후의 천장 장소인 '진릉대(珍陵臺)'와 육정산 고분군에 묻힌 정혜공주의 배장 장소인 '진릉'의 한자가 같아 '진릉'을 어떻게 해석할 해석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논쟁은 초기 건국지와 구국(舊國)의 비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혜공주 묘지명이 발견된 뒤 진릉은 육정산 고분군에 위치하며, 대조영, 무왕, 문왕의 능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 이 중 무왕능설이 대세를 이루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다. 2004년 효의황후 묘지명이 나오면서 지명설, 왕실 성원 매장지 통칭설과 함께 문왕의 능이며 용두산 고분군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발굴보고서는 문왕의 능으로 판단하였다. 필자는 '진릉'과 별개로 '진릉대'가 '보배로운 능대'로 효의황후의 무덤이 조성된 능대를 미화한 표현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호법, 호국의식과 관련해서는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에 보이는 문왕의 존호 '금륜성법대왕'이 '전륜성왕' 관념을 보여주어 일찍이 주목받았다. 전륜성왕은 불교에서 정법(正法, dharma, 즉 불법)에 의한 통치로 세상에 이상 국가를 실현한다는 제왕이다. 문왕이 자신을 '금륜성법대왕'이라고 한 것은 불법을 수호하여 '정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며 불국토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방이라고 할 수 있다. 효의황후 묘지명에 나오는 '안국'은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호국안민'의 통치 행위를 의미한다. 묘지명에는 '본각', '진여', '반야', '열반' 및 유식론과 관련된 표현 등을 통해 황후 자신이 지혜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효의황후는 더 나아가 문왕의 '안국'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것은 효의황후가 '금륜성법대왕'인 문왕의 '정법 통치'를 수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고 뒷받침하는 동반자였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발해가 황제국을 지향하며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기존에도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거나, 계루군왕과 허왕 등 제후왕을 두고 황제국을 지향한 흔적들은 있었다. 그런데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에는 문왕을 황상이라고 하고, 효의황후, 순목황후 묘지명에는 발해 국왕의 정비를 황후라고 하여, 발해가 실제로 칭제하였음을 증명한다. 효의황후 묘지명에는 '성조(聖朝)', '우리 황제의 성스럽고 밝은 교화(我皇聖明之化)', '황의(皇意)', '성주(聖主)' 등 황제와 관련한 더 다양한 표현이 나온다. 『신당서』 발해전에 보이는 연호는 1왕 1연호로, 문왕의 연호는 대흥(大興)이다. 그러나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을 통해 보력(寶曆)이 확인되며, 1왕 1연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순목황후 묘지명을 통해 '연평(延平)'이라는 연호가 새로 확인되었다. 연호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황제에게 있는데, 발해가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발해 국왕이 황제이며, 독자적인 천하의 주인임을 선포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효의황후 묘지명에 보면 "(황후의) 덕은 동국(東國)에서 높고"라는 표현이 나온다. 중국과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별칭이다. 순목황후 묘지명 제목에도 당나라와 상관없이 발해국을 표기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발해가 독자적인 천하관과 중국과 구분된 공간 의식을 가진 독립국이자 황제국의 면모를 지닌 것을 보여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고려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구당서』, 『당회요』, 『사기』, 『신당서』, 『진서』, 『책부원구』.

『속일본기』, 『유취국사』.

『국어』, 『노자 도덕경』, 『시경』, 『열녀전』, 『춘추좌씨전』.

단행본

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김진광, 2012,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송기호, 1995, 『渤海政治史研究』, 일조각.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 · 吉林大學 考古學院 · 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 發掘報告』, 文物出版社.

金毓黻, 2008, 『渤海國志長編』(원서 출판: 1935), 신서원

北京圖書館善本部金石組, 1993, 『北京圖書館藏畵像拓本匯編』 諸15冊-唐, 北京圖書館

孫進己 · 馮永謙 · 蘇天鈞, 1996, 『中國考古集成 東北卷 渤海編』, 北京出版社

논문

강진원, 2021, 「발해 선왕(宣王) 이전 시기에 대한 시론: 순목황후묘지명의 이해를 중심으로」, 송기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엮음,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문헌, 문자, 물질』, 진인진.

계미향, 2025, 「발해 승려들의 對 일본 활동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70.

고영섭, 2013, 「국가불교의 '호법'과 참여불교의 '호국' - 호국불교의 전개와 의미」, 『불교학보』 6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권은주, 2009, 「靺鞨 7部의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고구려발해연구』 35.
_____, 2016, 「唐代 營州 출신 고구려계 高英淑의 묘지명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4.
_____, 2018, 「고구려 멸망과 요동지역 말갈인의 향배」, 『대구사학』 133.
_____, 2022,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 동인과 최근 연구 경향-웨이궈중의 『발해사』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70.
_____, 2024, 「문자자료를 활용한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검토」, 『영남학』 88.
金志埏, 2006, 「渤海佛敎의 연구현황」, 『경주사학』 24·25 합본.
나희라, 1996, 「서왕모신화에 보이는 고대중국인의 생사관」, 『종교학연구』 15.
림호성, 2005, 「발해의 기본주민은 고구려유민」,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역사재단·조선력사학학회·러시아극동국립기술대학교.
문명대, 1999, 「渤海 佛象彫刻의 流派와 樣式 硏究」, 『강좌 미술사』 14.
박규태, 2009, 「교토와 도래인: 하타씨(泰氏)와 신사(神社)를 중심으로」, 『韓國學論集』 45.
박유정, 2019, 「渤海 貞孝公主墓 塼塔 출현의 의미」, 『한국사론』 65.
방학봉, 1991, 「정효공주묘지의 '대왕' '성왕' '황상'에 대하여」, 『발해문화연구』, 이론과 실천.
宋基豪, 1992, 「鹹和四年銘 佛像 銘文」,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_____, 2010,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8.
_____, 2011, 「제6장 불교의 전개과정과 몇 가지 특징」,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宋基豪·全虎兌, 1992, 「鹹和 4年銘 발해 碑像 검토」, 『西巖趙恒來敎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양시은, 2022, 「발해 동모산 비정에 대한 중국 학계의 최근 논의」, 『고구려발해연구』 72.
임상선, 1998, 「渤海 支配勢力의 構成과 種族的 淵源」, 『백산학보』 51.
_____, 1999, 「渤海 支配勢力의 變動과 姓氏」, 『고구려연구』 6.
정석배, 2022, 「발해 구국과 동모산의 위치에 대해」, 『고구려발해연구』 73.
조영광, 2025, 「정치 제도를 통해 본 발해의 황제국 체제 -중앙 관제와 봉작제를 중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역사학연구』 97.
한정인, 2010, 「渤海와 唐의 묘제 비교: 貞孝公主墓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36.
현명호, 1991, 「발해의 〈계루군왕〉 칭호에 대하여」, 『력사과학』 1991-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 2018, 「吉林省圖們市磨盤村山城2013~2015年發掘簡報」, 『邊疆考古研究』 24.
金毓黻, 1956, 「關千 " 渤海貞惠公主墓碑研究"的補充」, 『考古學報』 1956-2.
方冬, 2023, 「唐朝藩屬政權的"華夏時間"—以南詔､渤海年號改元爲線索」, 『曆史研究』, 2023-1.
徐學毅, 2003, 「敦化六頂山 "珍陵" 新考」, 『北方文物』 2003-2.
石風, 2024, 『出土墓志所見北朝女性世界』, 山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嚴長錄, 1981, 「渤海貞孝公主墓發掘淸理簡報」,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淸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982-1.
閻萬章, 1956, 「渤海'貞惠公主墓碑'的研究」, 『考古學報』, 1956-2.
王健群, 1980, 「渤海貞惠公主墓碑考」, 『文物集刊』 2.
王培新, 2013, 「渤海早期王城研究中的幾個問題」, 『中國邊疆史地研究』 2013-2.
_____, 2018, 「磨盤村山城爲渤海早期王城假說」, 『新果集(二): 慶祝林沄先生八十華誕論文集』, 科學出版社.
王承禮, 1956, 「敦化六頂山渤海墓淸理發掘記」, 『考古學報』 1956-2.
_____, 1957, 「敦化六頂山渤海古墓群調查簡記」, 『吉林省文物工作通訊』.
_____, 1982, 「唐代渤海《貞惠公主墓誌》和《貞孝公主墓誌》的比較研究」, 『社會科學戰線』 1982-1.
_____, 1984,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研究(中)」, 『博物館研究』 1984-3.
_____, 1985, 「唐代渤海國〈貞孝公主墓誌〉研究(下)」, 『博物館研究』 1985-1.
王承禮 · 曹正榕, 1961, 「吉林敦化六頂山渤海古墓」, 『考古』 1961-6.
王禹浪 · 都永浩, 2000, 「渤海東牟山考辨」, 『黑龍江民族叢刊』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王志剛·張秀榮·林世香, 2009,「關於渤海"珍陵"的兩點認識」,『東北史地』2009-4.
劉曉東, 2013,「渤海"珍陵"問題的再檢討—紀念金毓黻先生逝世50周年」,『北方文物』2013-3.
魏存成, 2008,『渤海考古』, 文物出版社.
李殿福, 1993,「渤海鹹和四年銘佛龕」,『歷史與考古信息』1993-1·2.
侯莉閨,李強, 2002,「渤海珍陵新探」,『北方文物』2002-02.

기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고대사료 DB 금석문·문자자료, https://db.history.go.kr/ancient/level.do?levelId=gskh_006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ref=menu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www.grandculture.net/korea

古今文字集成 字統網, https://zi.tools/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書法字典, http://www.swrtm.com
漢語字典 漢語網, https://www.chinesewords.org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발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 검토

권은주

발해 제3대 문왕의 황후 효의황후(726~775)와 제9대 간왕의 황후 순목황후(?~?)의 묘비는 2004~2005년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에 위치한 용두산 고분군의 발굴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고분군에서는 이미 1980년 발굴 조사에서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757~792)의 묘비가 발견된 바가 있다. 이보다 앞서 1949년 길림성 돈화 육정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738~777)의 묘비를 합치면, 지금까지 발견된 발해의 묘비는 4기이다.

이 글에서는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의 판독과 역주를 진행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발해 성씨로 새롭게 효의황후의 성인 '울(欝)'씨와 순목황후의 성씨인 '태(泰)'씨가 확인되었다. 울씨는 북방 민족이 주로 쓰던 희귀 성씨로 효의황후는 말갈계일 가능성이 있다. 태씨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성씨일 가능성이 있고, 발해 왕성인 '대'씨와 구분하기 위해 '태'씨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황후들은 모두 고위 가문 출신이다. 726년 출생인 효의황후는 755년에서 756년경 황후가 되었는데, 12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738년생인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와는 모녀 관계가 아니다. 한편, 757년생인 정효공주와 동생인 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궁(東宮) 대굉림을 비롯해 제5대 정왕에서 제9대 간왕까지는 효의황후의 소생 자손으로 추정된다.

장례 의례와 관련해서는 738년 당에서 필사해 온 당례(開元禮로 추정)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묘지명에는 장례와 관련하여 처음 빈장(殯葬), 시호, 대장(大葬), 황제의 애도 의례, 주관 관청, 상여길, 능묘 조성 및 묘지명을 만드는 내용 등이 나온다. 논란이 된 것은 순목황후의 빈장 장소가 왜 거란 땅으로 보이는 '선비 불이산원'이고, 천장 시기가 사망한 연평 2년(?)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선왕 건흥 12년(829)인가 하는 점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효의황후의 천장 장소인 '진릉대(珍陵臺)'와 정혜공주의 배장 장소인 '진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진릉'을 문왕의 능으로 보고 용두산 고분군에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진릉대'가 효의황후의 무덤이 있는 능대를 미화한 표현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호법, 호국의식과 관련해서는 '전륜성왕' 관념이 일찍이 주목받았다. 문왕이 자신의 존호를 '금륜성법대왕'이라고 한 것은, 불법을 수호하여 '정법(正法, dharma, 즉 불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며 불국토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방이라고 할 수 있다. 효의황후 묘지명에 는 황후가 불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내용과 함께, 문왕의 '정법 통치'를 수호하고 뒷받침하는 동반자로 묘사되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발해가 황제국을 지향하며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낸 부분이다. 발해가 황제국을 지향한 직접적인 증거가 발해 4 묘비이다. 효의황후, 순목황후 묘지명을 통해 발해 국왕의 정비를 황후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효의황후 묘지명에는 황제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이 나온다. 『신당서』 발해전에 보이는 발해의 연호 외에 정혜공주, 정효공주 묘지명에서 보력(寶曆)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순목황후 묘지명에서 '연평(延平)'이 새로 확인되었다. 연호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황제에게 있는데, 발해가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발해 국왕이 황제임을 선포한 것과 같다. 효의황후 묘지명의 '동국(東國)'이라는 표현과 순목황후 묘지명의 제목을 당나라와 상관없이 발해국으로 표기한 것도 주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다. 이는 발해가 독자적인 천하관과 중국과 구분된 공간 의식을 가진 독립국이자 황제국의 면모를 지닌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발해 묘지명, 효의황후, 순목황후, 황제국, 문왕, 간왕, 전륜성왕, 발해 천하관, 동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view of the Epitaph of Empress Hyoui and Empress Sunmok of Balhae

Kwen Eunju

The tombstones of Empress Hyoui(孝懿皇后, 726~775) of the third King Moon(文王) of Balhae(渤海) and Empress Sunmok(順穆皇后, ?~?) of the ninth King Gan(簡王) of Balhae were discovered during the excavation of the Longtoushan(龍頭山) ancient tombs, located in Helong City(和龍市), Yanbian Chaoxian Autonomous Prefecture(延邊朝鮮族自治州), Jilin Province(吉林省), China between 2004 and 2005. The tombston of Princess Jeonghyo(貞孝公主, 757~792), the fourth daughter of King Moon, were already discovered in this tombs in 1980. Combining the tombston of Princess Jeonghye(貞惠公主, 738~777), the second daughter of King Moon, excavated from the ancient tombs of Dunhwa Liudingshan(六頂山) in Jilin Province in 1949, the total number of tombstones found in Balhae to four.

In the study, Chinese characters in the two Empress's the epigraph texts were read,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en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were analyzed. First of all, the surnames of Empress Hyoeui, “Ul(欝)”, and Empress Sunmok, “Tae(泰)”, were newly confirmed in Balhae’s surnames. “Ul” is a rare surname mainly used by northern peoples, and Hyoeui may be of Malgal(靺鞨) origin. “Tae” may have been used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surname was called “Tae” to distinguish it from “Dae(大)”, the surname of the Balhae royal family. The empresses are all from noble families. Empress Hyoui and Princess Jeonghye are 12 years apart in age, them not biological mother and daughter. One side, Princess Jeonghyo, born in 757, her younger brother Donggung(東宮, Crown Prince) Dae Kengrim(大宏臨, ?~?), and the fifth King Jeong(定王) through the ninth King Gan are all presumed to be descendants of Hyoui.

Regarding the funeral rituals, it seems that the Tang Lie(唐禮, presumed to be the *Kaiyuan Lie*) transcribed by the Tang Dynasty in 738 was referenced. The epitaph contains the binjang(殯葬, temporary burial), posthumous name, last burial, the emperor’s mourning rites, Funeral proceedings by the relevant government office, the construction of the tomb, and the creation of the epitaph. The controversy is why the place of Empress Sunmok’s binjang was ‘Xianbi(鮮卑) Bulisan-won(不易山原)’, which appears to be Khitan(契丹) territory, and why the binjang date was the 12th year(829) of King Seon(宣王)’s Geonheung(建興),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fter when she died.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s how to interpret ‘Jinreung-dae(珍陵臺)’, where Hyoui was transferred to and buried, and ‘Jinreung(珍陵)’, where Jeonghye was accompanying burial. The excavation report determined ‘Jinreung’ t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e King Moon's tomb within the Longtoushan Tombs. I think 'Jinreungdae' may be an expression that the foundation of the tomb of Empress Hyoui is rare and precious.

With regard to Balhae's law and national security awareness, the concept of 'Chakravartin(轉輪聖王)' has long attracted attention. King Moon's Regnal name of 'the great king of golden wheel holy law(金輪聖法大王)' can be seen as a declaration of his commitment to upholding a nation, leading the nation with "righteous law"(正法, dharma. Buddha's teachings), and to create a Buddhist nation. Empress Hyoui's epitaph is noteworthy for describing her as a companion who protected and supported King Moon's reign along with her pursuit of Buddhist enlightenment.

Finally, the epitaphs reveal Balhae's imperial aspirations and unique worldview. Four Balhae's tombstones directly demonstrate that Balhae was an empire. The inscriptions of Hyoui and Sunmok show that their queens were addressed as empresses. Furthermore, Empress Hyoui's inscription contains various expressions related to the emperor. In addition to the Balhae's era name(年號) mentioned in *the New Book of Tang's* Balhae section, the epitaphs of Princess Jeonghye and Jeonghyo confirm that the king moon's 'Bolyeok(寶曆)', while Empress Sunmok's epitaph confirms that the 'Yeonpyeong(延平).

The authority to proclaim a era name rests with the emperor, and Balhae's use of one was tantamount to declaring its king emperor. It is noteworthy that Balhae was referred to as "Dongguk(東國, The eastern country)" in the inscription of Empress Hyoui, and Balhae was described as "Balhaeguk(渤海國)" in the inscription of Empress Sunmok, regardless of the Tang Dynasty. This shows that Balha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ad characteristics of an independent state and empire as it had a world view and spatial perception differentiated from China.

Keywords: Balhae tombstone, Empress Hyoui(孝懿皇后), Empress Sunmok(順穆皇后), Balhae empire, King Moon(文王), King Gan(簡王), Chakravartin(轉輪聖王), Balhae's world view, Dongguk(東國, The eastern count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02

용두산 발해 고분군 묘제에 대한 초보적 검토

김은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과 강사

I. 머리말
II. 각 무덤 구역별 조사 성과
III. 용두산 발해 고분군 묘제의 특징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용두산 발해고분군은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화룡시(和龍市) 두도진(頭道鎭) 용두산(龍頭山)에 위치한다. 고분군 주변에서는 이미 다수의 발해 유적이 발견된 바 있다. 우선 북서쪽에 위치한 발해 시기 대표 도성 유적 중 하나인 서고성을 비롯하여 잠두성, 하남둔고분, 용해소학교 고분군, 동남구고분군, 동남구절터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크게 3구역으로 구분되며 북쪽부터 용호(龍湖)고분구역, 용해(龍海)고분구역, 석국(石國)고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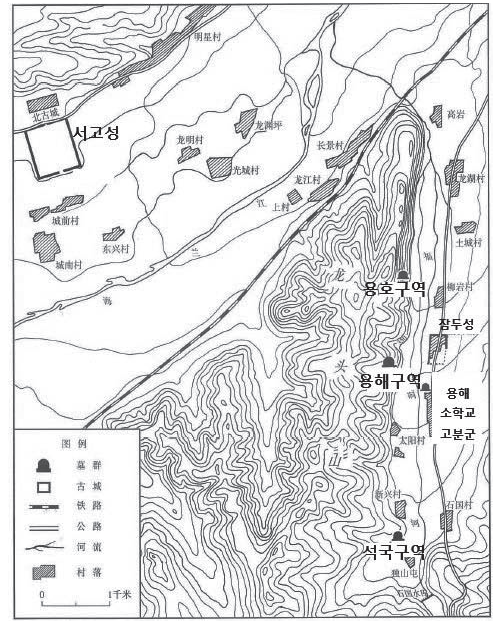


그림 1 용두산고분군 위치 및 주변 유적 분포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2쪽, 재편집)

---

* 투고: 2025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10월 28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이 글은 2025년 11월 21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진행된 '용두산 발해왕실 고분군 학술분석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용두산고분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다소 부족했던 이 글의 완성에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논문 심사위원분들과 세미나 당시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이하 '용호구역', '용해구역', '석국구역'으로 칭함)으로 불리고 있다(그림 1).

유적의 첫 발견은 1980년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조사단이 용해촌(龍海村) 인근에서 유적조사를 하던 중 지표에 산재하고 있던 대량의 벽돌·기와(塼瓦)를 수습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에서 1980년 10~12월, 1981년 5~6월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정효공주무덤과 묘비가 발견되었다. 이후 2008년까지 크고 작은 고고학적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표 1). 다만 조사 당시 대부분의 무덤에서 도굴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중 1997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 출간되었다.[1] 1997~1998, 2000~2005, 2008년 발굴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2] 석국구역의 1·2호무덤, 용해구역의 1호건축지, 2~15호·21호무덤, 1·2호우물 등에 대한 조사 성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 공유되지 않았던 순목황후와 효의황후 묘지명의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용두산고분군은 정효공주무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개별 무덤 구조, 정효공주 묘탑과 묘비 관련 연구, 개별 고분의 피장자 비정 문제와 관련된 연구 등이 활발한 편이다. 우선 대표적으로 송기호(2010)는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발해와 고구려계 유민 간의 관계성, 황제국으로서의 위상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재복(2009)은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

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學考古學院·和龍市文物管理所(이하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로 표기),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2004~2005·2008年發掘報告』, 文物出版社.

2 발굴보고서의 제목에는 '1997, 2004~2005, 2008년 발굴성과에 대한 보고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발굴보고서 내 조사연혁에 따르면 1985년과 1998년 조사된 석국구역 무덤에 대한 성과 역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조사자였던 박윤무 글에 따르면 석국구역 무덤은 1988년에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발굴보고서와 차이를 보인다(박윤무, 1994, 「룡두산발해구역내의 룡호무덤떼에 대한 고찰과 발굴」, 『발해사연구 4』,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2쪽). 아울러 용해구역 내 정효공주무덤은 1980년에 조사되었기에 2005년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용호구역 무덤 역시 맺음말 부분에서만 종합적으로 언급될 뿐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주요 발굴조사 연혁

조사기간	조사기관	주요 성과
1980년 10~12월, 1981년 5~6월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	정효공주묘 발견 및 조사. 주변에서 10기 석축 고분 추가 발견. '용두산고분군1'로 명명
1985년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	석국 1호무덤 조사. 인근 다수 고분 존재 확인
1987년 5월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 화룡현문물관리소	용호 1호무덤 조사. 인근 다수 고분 존재 확인
1997년 7~10월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 화룡현문물관리소,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용해 1호건축지 조사
1998년 10~11월, 1999년 5월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석국 1호무덤 재조사. '同封三室墓' 구조 확인
2004년 5~10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 등	Ⅳ호臺地 4~9호무덤, Ⅴ호臺地 1호우물, 2·3·11·12호무덤, Ⅵ호臺地 10호무덤, Ⅶ호臺地 15·21호무덤, Ⅷ호臺地 13·14호무덤 발굴조사
2005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 등	3~9·11호무덤 조사
2005년 7~9월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 등	13·14호무덤 보호조치 및 주변 조사
2008년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 연변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 등	석국 2호무덤 조사

묘비를 통해 발해 묘지(墓誌)에 대해 다루었고 한정인(2010)은 정효공주무덤과 당(唐)의 묘제를 비교한 바 있다. 박유정(2019, 2025)은 정효공주 묘탑을 중심으로 전실묘탑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에 대해 귀족 및 황실에서 탑장(塔葬)이 유행했던 당(唐)의 매장방식과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구난희(2019)는 발해 고분의 외부조영물에 주목하여 용두산고분군 13·14호무덤의 조영물을 금당형 조영물로 분류하여 분석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바 있다. 특히 왕실고분군에 걸맞게 용두산고분군 관련 연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각 개별 고분군의 피장자 비정 문제이다. 중국의 류사오둥(劉曉東, 2012, 2013)이나 일본의 다무라 고이치(田村晃一, 2014)을 비롯하여 국내의 여러 연구자도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진광(2018)은 14호 무덤의 피장자를 문왕 대흠무로 비정한 바 있으며 최정범(2019)은 10호무덤을 성왕 대화여, 14호무덤을 강왕 대숭린, 2호무덤을 간왕 대명충의 릉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조사 및 연구성과와 함께 발굴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용두산고분군 묘제에 대한 특징을 다룬다. 우선 개별 고분 발굴조사 성과에 대해 파악하고 축조 재료, 무덤 구조, 배치 형태 등에서 보이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각 무덤 구역별 조사 성과

용두산 고분군에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용호구역, 용해구역, 석국구역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각 구역별로 용호구역에서는 6기, 용해구역에서는 21기, 석국구역에서는 5기의 발해 시기 무덤이 확인되었다. 이 장에서는 각 구역의 발해 시기 무덤 조사 현황에 대해 다룬다.

1. 용호구역[3]

용호구역의 발해 시기 고분은 1987년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도굴당한 상태였으나 무덤은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유물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형석실봉토무덤 1기(그림 2), 석광봉토무덤 1기, 수혈식토광묘 4기가 발견되었다. 대형석실봉토무덤은 언덕의 남쪽 변

3 박윤무, 1994, 앞의 글, 1~2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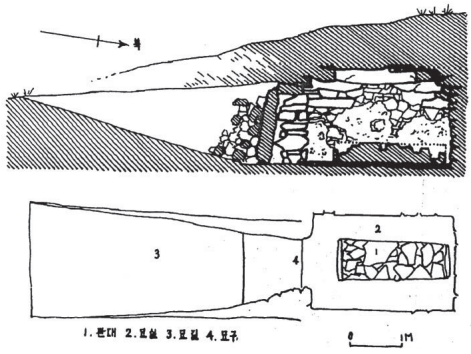


그림 2 용호구역 1호무덤 평단면도(박윤무, 1994, 19쪽)

두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석광봉토묘 1기는 석실봉토무덤에서 남쪽으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수혈식토광묘는 석실봉토무덤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위치에서 4기가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석실봉토무덤 북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여러 기의 석축무덤군이 남북 10m, 동서 5m 범위 안에서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수량이나 구조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용호구역의 석실봉토무덤은 정혜공주무덤, 정효공주무덤, 삼릉둔 1호무덤과 비교될 정도로 큰 규모이다. 발견 당시 봉토가 지표면 위로 눈에 띄게 돌출된 상태가 아니라 표토층과 거의 비슷한 높이로 평토한 상태였다. 무덤의 주위로는 토축의 담장 시설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둘레 길이는 약 30m, 담장의 밑 너비는 약 3m, 잔존 높이는 약 0.5m로 확인되었다.

무덤은 묘실, 묘문, 묘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묘실 내 관대와 천장도 확인되었다. 묘실은 지면에서 3m 깊이 아래에 마련되었고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남북 2.8m, 동서 1.85m 규모로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진 남향이다. 묘실 네 벽은 가공된 화강석을 사용하여 쌓았고 돌과 돌의 틈새는 깬돌이나 니질 토기를 석회에 섞어 메운 뒤 회칠로 마무리하였다. 남쪽벽과 북쪽벽은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동쪽벽과 서쪽벽은 들여쌓기 방식으로 쌓았다. 묘실 벽체의 높이는 약 1.45m이다. 묘실 바닥 역시 정지한 후 얇은 판석을 깔고 그 위에 다시 회를 발랐다. 천장은 3단의 3각 평행고임 구조를 갖고 있다. 위로 갈수록 안으로 좁게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여 모줄임 천장구조가 확인된다. 묘실 중앙에서는 남-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향으로 놓여 있는 관대가 1기 확인되었다. 관대도 석재를 사용하여 만들었고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장방형이다. 길이 약 2.3m, 너비 0.65~80m, 높이 0.40m이다. 관대 겉면에도 모두 백회를 발랐다. 특히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두향은 남쪽이며 앙신직지장으로 안치하였다. 인골 분석 결과 키 156cm 정도인 중년 여성의 인골임이 확인되었고 이 외에도 영아의 인골도 함께 확인되었다.

묘실과 묘도 사이의 묘구(墓口)에는 큰 돌들을 쌓고 세워 입구를 봉한 뒤 다시 크고 작은 막돌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폐쇄하였다. 묘도는 경사졌으며 나팔형으로 묘실에 가까울수록 좁아지고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다. 특히 묘실 인근 묘도 양측은 석재를 쌓아 벽을 보강하고 있다. 상술하였듯 발견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여서 소량의 부장품만 확인되었다. 토기, 금·은제 장신구, 철기 등이 확인되었고 특히 관정과 관고리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목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중 금제 장신구는 얇은 금종이를 가로와 세로로 각각 한 번씩 겹쳐서 만든 제품으로 장방형이다. 별다른 문양도 없고 정확한 용도는 불확실하다. 은제 장신구는 은편을 두드려서 만든 것으로 가는 선으로 새겨진 어골문이 확인된다. 토기는 완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두 윤제토기로 니질에 약간의 모래가 함유되었고 대부분 황갈색 혹은 흑갈색이다. 특히 묘도에서 둥근 철제 문고리 한 쌍과 철제 자물쇠가 발견되었다. 당시 조사단은 정혜공주무덤과는 차이점이 분명하고 정효공주무덤과 서고성 인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효공주무덤과 비슷한 시기이거나 그보다 조금 늦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략 7세기 말의 무덤으로 보았다.[4]

석광봉토무덤은 1기가 확인되었으며 발견 당시 이미 훼손되어 묘실이 노출된 상태였다. 묘실은 장방형이며 대체로 남북향이다. 잔존 길이는 약 1m, 너비

4 다만 이는 오기재로 보인다(박윤무, 1994, 앞의 글, 13쪽). 정효공주 묘비문에 따르면 공주는 792년에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호구역 1호무덤의 추정 연대는 8세기 말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약 0.5m 정도이다. 무덤 내부에서 인골편이 확인되고 무덤 내외부 퇴적층에서 회색니질토기편과 지두문기와편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수혈식토광묘는 총 4기가 확인되었는데 무덤 간 간격이 약 2m로 일정하며 나란히 배열된 상태였다. 다만 물에 의한 훼손 정도가 심한 편이어서 구조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일부 무덤 내부에서 인골편과 철제관정 등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조사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특히 용호구역에서도 무덤 이외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중 석실봉토무덤에서 서남쪽으로 약 550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둔덕 모양(丘形)의 흙무지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그 둘레 길이가 약 30m, 높이가 1.5m로 확인되었다. 이 흙무지 주위로 대량의 기와와 니질토기편이 산재하고 있었으며 조사단은 이를 정효공주무덤 남쪽의 건축지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도 기와 등의 건축재료가 산재된 지점들이 여러 곳 확인되기도 하였다.

2. 용해구역[5]

발굴보고서에서는 용해구역을 대지(臺地)에 따라 8개의 구역(Ⅰ~Ⅷ호)으로 구분하였다(그림 3). 우선 동에서 서로, 다시 북에서 남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Ⅰ호대지는 조사 결과 별다른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Ⅱ호대지에서는 回자형 방형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다. Ⅲ호대지에서는 5기의 무덤(16~20호)과 무덤 추정 유구가 파악되었으나 아직 발굴조사되지 않았다. Ⅳ호대지에서는 1기의 전실묘(8호)와 5기의 석축묘가 조사되었다. Ⅴ호대지에서는 정효공주무덤(1호),

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앞의 책;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 정석배·구난희·이병건·윤재운·김은옥·김영길·최슬기·최재경(이하 '정석배 외'로 표기), 2023, 『발해유적총람Ⅱ-중국지역2』, 예지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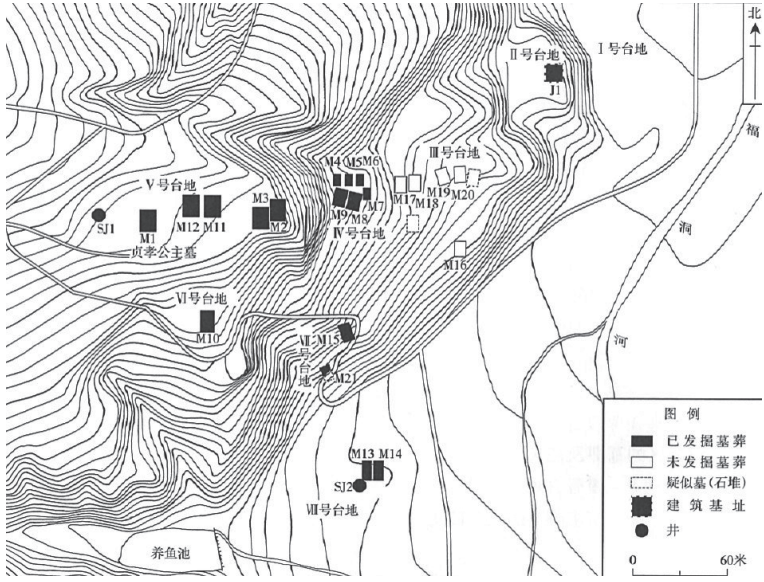


그림 3 용해구역 유적 분포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12쪽)

효의황후무덤(12호), 순목황후무덤(3호)을 비롯하여 총 5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그중 정효공주묘는 전실탑묘 구조이고 그 외 무덤은 모두 대형석실묘이다. 특히 2호와 3호, 11호와 12호는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효공주무덤 서쪽에서 우물 1기가 조사되었다. 남쪽 Ⅵ호대지 중앙에서는 10호무덤 1기가 발견되었다. 정효공주무덤과 마찬가지로 전실탑묘이다. Ⅷ호대지에서는 2기의 석실묘(15·21호)가 확인되었다. Ⅷ대지에서는 동봉이혈전곽목관묘(13·14호)와 그 상부의 回자형 묘상건물지가 함께 조사되었다. 또한 13호무덤 남서쪽에 바로 인접하여 우물 1기도 발견되었다. 조사된 용해구역 모든 무덤의 묘도(묘문) 위치는 일부 남동, 남서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묘실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각 고분의 위치와 기본적인 특징은 〈그림 3〉, 〈표 2〉와 같다.

Ⅲ호대지에서는 5기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지만 상술하였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용해구역 각 고분 주요 특징

대지(호)	고분(호)	종류	구조	방향	비고
Ⅲ	16	석실묘		북-남	미발굴
	17			북-남	
	18			북-남	
	19	대형석실묘		북서-남동	
	20	대형석실묘		북-남	
Ⅳ	4	중형석실묘	묘도+묘문+묘실	북-남	
	5	중형석실묘	묘도+묘문+연도+묘실	북-남	
	6	중형석실묘	묘도+묘문+묘실	북-남	
	7	중형석실묘	묘도+묘문(?)+묘실	북-남	
	8	전실묘	묘도+묘문+연도+묘실	북동-남서	
	9	대형석실묘	묘도+묘문+연도+묘실	북동-남서	
Ⅴ	1	대형전실탑묘	묘도+묘문+연도+묘실	북-남	정효공주묘, 묘비, 벽화무덤
	2	대형석실묘	묘도+연도+묘문+묘실	북-남	
	3	대형석실묘	묘도+묘문+연도+묘실	북-남	순목황후묘, 묘비, 벽화무덤
	11	대형석실묘	묘도+묘문+연도+묘실	북-남	
	12	대형석실묘	묘도+묘문+연도+묘실	북-남	효의황후묘, 묘비
Ⅵ	10	대형전실탑묘	묘도+묘문+연도+묘실	북-남	
Ⅶ	15	대형석실묘	묘도+묘문+연도+묘실	북서-남동	벽화무덤
	21	중형석실묘	묘실만 잔존	북서-남동	
Ⅷ	13	동봉이혈전곽목관묘	무덤+回자형 묘상건축지	북-남	
	14				삼엽형금제관식 출토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2005년 시추조사를 통해 19·20호무덤이 확인되었다. 이 2기의 무덤은 대형석실봉토무덤으로 추정되며 바로 인접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호무덤 서쪽으로 대량의 석재가 지표면에 산재된 상태로 발견된 지점에도 2기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17호무덤과 18호무덤으로 명명되었다. 18호무덤이 북쪽에, 17호무덤은 남쪽에 서로 인접해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구조는 불분명하다. 그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16호무덤의 경우 석실묘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17호무덤 남쪽과 20호무덤 동쪽에도 석재가 산포되어 있는 지점이 확인되는데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Ⅲ호대지에는 5~7기의 무덤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Ⅳ호대지는 총 6기의 무덤이 발견되어 조사되었다(그림 4). 전실묘 1기, 대형석실묘 1기, 중형석실묘 4기, 총 6기의 무덤이 군(群)을 이루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8호무덤과 9호무덤을 북에서 동쪽으로 두르듯 나머지 무덤이 배치되어 있다.

우선 8호무덤은 전실묘[6]이며 6개의 무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발굴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출토 유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묘도, 묘문, 연도, 묘실로 이루어져 있다. 묘도는 남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급하고 무덤 입구로 갈수록 완만해진다. 묘도의 길이는 5.7m, 너비는 1.6~2.3m이다. 묘도의 내부는 흙과 돌로 채워진 상태였다. 묘도의 양측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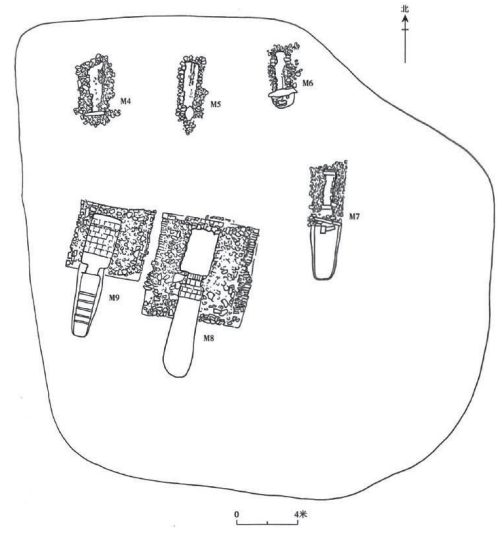


그림 4 Ⅳ호대지 무덤 분포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40쪽)

6 발굴보고서에는 전실묘로 분류하였으나 묘실, 묘벽, 묘문에서 석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석혼축묘로도 분류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돌을 한 단 쌓아 만든 벽의 기초부가 확인되는데 표면에 백회가 발라져 있다. 묘문은 2개의 큰 판석을 수직으로 세워 봉쇄하였다. 판석 아래 부분에 돌을 쌓고 그 돌 위로 다시 판석을 대각선으로 올려 수직으로 세워둔 판석을 지탱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묘문이 무너짐을 막기 위한 구조이다. 그 아래에는 벽돌이 2열 깔려 있으며 그 표면에는 백회를 발랐다. 묘문과 묘실 사이에는 장방형의 연도가 있다. 그 바닥에도 벽돌이 2열 깔려 있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길이 3.05m, 너비 1.85m, 높이 1.9m이다. 묘벽은 내·외층으로 축조되었는데 바깥은 돌을 쌓아 축조하였고 안쪽은 벽돌을 쌓아 올렸다. 천장은 세장방형의 5기 판석을 사용하여 덮었다. 묘실 바닥은 평평하며 황색 점토로 덮여 있다. 발굴 당시 묘실 훼손 정도가 심해 관대의 존재 여부는 불확실하다. 무덤의 상부 지표면에는 벽돌, 기와, 돌로 구성된 방형에 가까운 묘역이 형성되어 있다. 남북 길이 6.9m, 동서 너비 6.5m 규모이다. 특히 조사단은 바로 옆에 위치한 9호무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두 묘역 사이에 대한 절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두 무덤은 약 1m 간격으로 각각 별도의 묘광을 파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돌을 사용하여 묘벽을 쌓고 크고 길다란 돌을 사용하여 상부를 덮은 뒤 봉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봉토 중앙 부분은 비교적 높게 만들었다. 이후 봉토 바깥을 기와를 사용하여 한 줄 둘렀다. 이렇게 형성된 묘역 내 상부는 흙과 돌을 섞어 최종적으로 봉했다. 묘실 내부에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9호무덤은 8호무덤 서쪽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대형석실묘이다. 발견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무덤은 묘도, 묘문, 연도,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의 길이는 4.55m, 너비는 0.95~1.85m이며 바닥은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중앙에는 5개의 계단이 확인되며 묘도 내부는 흙과 돌로 채워져 있다. 묘문은 대형 판석 1기를 사용하였다. 그 바깥으로 돌을 2층으로 쌓아 올린 뒤 그 위로 판석 1기를 기울여 묘문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묘실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길이 3.45m, 너비 2.05m, 높이 1.75m이다. 묘벽은 돌을 사용하였다. 상부 일부분은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된 부분은 판석 1개와 가늘고 긴 돌(條石) 1개를 사용하여 묘실 위를 덮었다. 무덤 바닥은 평평한 생토면 그대로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대는 묘실의 정중앙에서 확인되었으며 방형이다. 길이는 2.3m이고 너비는 묘실 너비와 동일하다. 높이는 0.2m이다. 관대는 먼저 남북 양측에 벽돌을 동-서 방향으로 2열 2층으로 깐 뒤 그 내부에 돌을 한 층 깔고 다시 황색 점토를 사용하여 평평하게 다듬은 후 마지막에 그 위로 벽돌을 깔아 조성하였다. 무덤 상부 지표에서는 벽돌, 기와, 돌을 사용한 장방형이 묘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남북 4.7m, 동서 5.2m이다. 묘실 내부에서 인골이 발견되었고 소량의 토기, 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7호무덤은 8호무덤 동북쪽에 위치한다. 중형석실묘로 묘실과 묘도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는 묘실 쪽이 넓고 깊으며, 바깥쪽으로 좁아지고 얕아지며 경사져 있다. 길이 3.65m, 너비 0.75~1.85m이며 묘도 내부는 흙과 돌로 채워진 상태이다. 묘실 평면은 장방형이고 길이 2.7m, 너비 1.1m, 높이 0.6m이다. 묘실 천장은 7개의 돌로 덮었다. 묘벽은 돌을 쌓아 축조하였다. 바닥은 가공된 가늘고 긴 돌을 사용하여 사방을 두른 뒤, 그 안쪽의 아래는 황갈색 점토를 깔고 그 위는 회갈색 고운 모래흙을 깔아 바깥에 두른 돌과 수평을 맞추었다. 이미 도굴된 상태였으며 인골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목관의 잔재만 확인되었다.

4·5·6호무덤은 7·8·9호무덤 북쪽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모두 중형석실묘이다. 가장 서쪽의 4호무덤 묘도는 묘문 가까운 부분만 조사가 진행되어 전체적인 구조가 확실하진 않지만 경사져 있으며 흙과 돌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묘문은 가공된 장방형 대형 돌을 사용하였고 묘실 쪽으로 양측에 긴 돌을 세웠다. 묘실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3.1m, 동서 너비 0.95m, 높이 1m이다. 천장은 5개의 가공되지 않은 대형 판석으로 덮었지만 모두 묘실 안쪽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묘실 네 벽은 모두 돌을 쌓아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황색 점토를 한 겹 깔았다. 내부에서 일부 인골이 확인되었다.

5호무덤도 중형석실묘이다. 묘도와 묘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훼손이 심하여 구조 파악은 어렵다. 묘실과 묘문 사이에 연도도 확인된다. 연도의 길이는 0.62m, 동서 너비는 0.64m이다. 묘실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1.54m, 동서 너비 0.78m, 높이 0.55m이다. 상부는 가공하지 않은 7개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판석으로 덮었다. 묘실 네 벽은 모두 돌을 쌓아 축조하고 바닥은 황색 점토를 평평하게 깔았다. 관대는 따로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인골이 확인되었다. 발견된 상태를 바탕으로 정남 두향의 앙신직지장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미 도굴된 상태라 발견된 수장품의 수량은 극히 적다.

6호무덤도 중형석실묘로 묘도, 묘문,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는 반타원형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바닥은 평평하고 내부는 흙과 돌로 채워져 있다. 묘문은 가공되지 않은 다수의 돌로 봉하였고 그 상부를 길고 가느다란 판석을 사용하여 문미(門楣)로 사용하였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2.7m, 동서 너비 0.8m, 높이 0.6m이다. 묘실 상부는 4개의 불규칙한 대형 판석을 사용하여 덮었다. 묘실 네 벽은 돌을 사용하여 쌓았고 바닥은 황색 점토를 평평하게 깔았다. 이미 도굴된 상태였으며 인골 일부가 발견되었다.

용해구역의 가장 핵심 구역 중 한 곳인 Ⅴ호대지는 가장 서북쪽에 위치하며 여러 대지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정효공주무덤(1호), 효의황후무덤(12호), 순목황후무덤(3호) 등 총 5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5기의 무덤은 다시 3개의 그룹으로 소분되는데 11·12호무덤, 2·3호무덤이 각각 짝을 이루듯 배치되어 있다. 조사단은 이 Ⅴ호대지를 '진릉대(珍陵臺)'로 보고 있다.

가장 서쪽에 위치한 정효공주무덤은 대형 전실탑묘로 지하에는 무덤이, 상부에는 탑이 있는 구조이다(그림 5). 무덤은 벽돌과 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묘도, 묘문, 연도, 묘실, 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덤은 이미 도굴되었으며 탑도 훼손되어 탑의 기단부만 남아 있다. 무덤 전체 규모는 남북 약 15m, 동서 약 7m이다. 지표에서 묘실 바닥까지 깊이는 약 3.4m이다. 묘실 바닥은 방형의 벽돌을 평평하게 깔았으며 그 상면에는 백회를 발랐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묘실 바닥은 남북 길이 3.1m, 동서 너비 2.1m이다. 묘실 중앙에는 장방형의 전돌을 5층으로 쌓아 만든 관대가 확인되었다. 관대도 그 상면과 주변을 모두 백회를 발랐다. 관대 규모는 길이 2.4m, 너비 1.45m, 높이 0.4m이다. 내부에서 인골 일부가 확인되었다. 묘벽도 장방형의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하고 남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벽은 위로 갈수록 살짝 안쪽으로 기울게 축조하였다. 천장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평행고임 천장구조이다. 묘벽과 천장 모두 백회를 사용하였다. 연도는 묘문과 묘실 사이에 위치하며 정효공주묘비가 발견된 곳이다. 길이 1.9m, 너비 1.6~1.7m이다. 연도의 바닥과 양측 벽 모두 장방형의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벽의 높이는 1.56m이다. 상부는 가공된 돌을 사용하여 올리고 몇 개의 큰 판석으로 봉쇄하였다. 연도의 벽면과 상부 모두 백회를 발라 마무리하였다. 또한 돌문을 세워 공간을 구분하였다. 묘문은 연도의 동벽과 서벽을 문 기둥으로 삼고 그 상부의 덮개돌 가장자리에 백회를 발라 문액(門額)으로 사용하였다. 문액 상부에는 방형의 벽돌을 사용하여 액장(額墻)을 쌓았다. 묘도는 묘실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가 7.1m이다. 남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깊이는 낮아져 나팔 형태를 띠고 있다. 내부는 5개의 계단으로 구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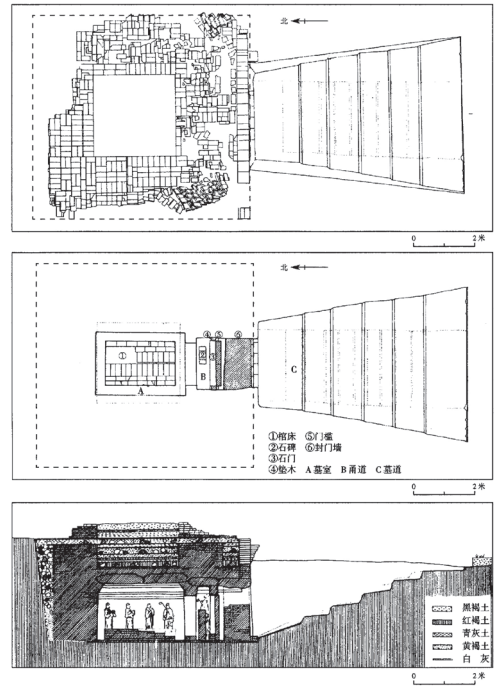


그림 5 정효공주무덤 평면도·단면–입면도(魏存成, 2008, 256쪽)

2호무덤은 Ⅴ호대지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바로 옆에 인접한 3호무덤(순목황후무덤)과 관련성이 커 보인다. 대형석실묘[7]로 묘도, 연도, 묘문,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8] 묘도는 세장방형이며 묘실의 장축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살짝

7 묘실 바닥 일부에서 벽돌을 깐 흔적이 확인되어 전석혼축묘로도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서-동남 방향으로 꺾여 있다. 지표면(남)에서 묘실(북) 방향으로 경사져 있다. 묘도의 길이는 6.1m, 너비는 1.7~3.9m이다. 묘도 내부는 0.6~1.95m 두께로 흙과 돌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위로 다시 봉토하여 덮었다. 연도는 돌을 쌓아 축조하고 양측에 백회를 발랐다. 길이 1.1m, 너비 1.2~1.35m이다. 연도 내부는 돌을 4층으로 쌓아 봉쇄하였다. 이는 봉문석(封門石)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봉문석은 가공된 장방형의 대형 석재를 사용하였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길이 5.6m, 너비 1.8m, 높이 1.7~1.8m이다. 천장은 5개의 장방형 대형 판석을 사용하여 덮었다. 그 위로 다시 봉토한 것으로 추정되나 남아 있지는 않다. 묘실 네 벽은 가공된 대형 석재를 사용하여 쌓았고 내벽이 비교적 평평한 편이다. 묘실 앞쪽에 방형의 벽돌을 사용하여 동-서 방향으로 두 줄을 깔았다. 열 간 거리는 0.5m이다. 묘실 바닥은 5개의 평평한 대형 판석을 깔았고 그 위는 백회를 발랐다. 묘실 가운데에서 관대 흔적이 확인되었다. 길이 2.5m, 너비 0.8m이고 훼손 정도가 심한 편이다. 묘실 중앙에서 벽돌이 산재하고 있는데 관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묘실 퇴적토에서 대량의 목탄 흔적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목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골 일부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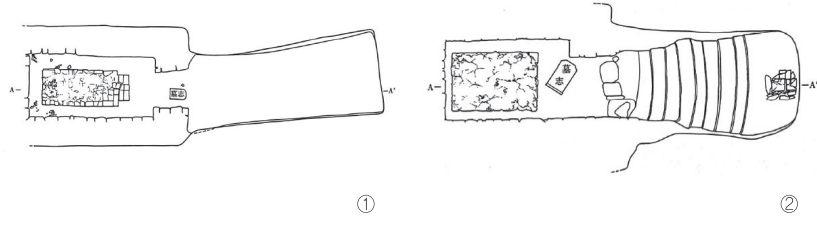
3호무덤은 순목황후묘비가 발견된 무덤이다(그림 6-①). 대형석실묘로 묘도, 묘문, 연도,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의 평면은 세장방형으로 묘실 방향과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갈수록 미세하게 넓어진다. 이는 2호무덤의 묘도가 좁아지는 것과 대조된다. 묘도는 경사져 있고 길이 6m, 너비 2.4~2.75m이다. 내부는 흙과 돌로 채워져 있다. 묘문은 가공된 돌을 사용하고 그 양측은 쪼갠 돌

8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용해 구역 내에서 묘도, 묘문, 연도, 묘실을 갖춘 무덤은 대부분 묘도+묘문+연도+묘실 순서로 축조되어 있다. 2호 무덤만 예외적으로 묘도+연도+묘문+묘실 순서로 보고 있다. 2호 무덤은 묘도로 분류되는 구간과 연도로 분류되는 구간의 벽체 축조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조사단 의견에 따라 묘도와 연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 혹은 묘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사용하여 막았다. 연도는 묘실과 묘도 사이에 위치하며 장방형이다. 길이 1.15m, 너비 1.1m, 높이 1.3m이다. 연도 중앙에서 묘비가 확인되었다. 묘실은 북쪽이 조금 높고 남쪽이 조금 낮다. 장방형이며 길이 4m, 너비 1.85~2m, 높이 1.65m이다. 상부는 5개의 장방형 대형 판석을 사용하여 덮고 틈새는 깬돌을 사용하여 막았다. 묘실 네 벽은 돌을 쌓아 축조하였고 벽체 두께는 0.9m이다. 묘실 바닥은 판석을 깔고 그 위로 황색 진흙을 발라 평평하게 하고 다시 백회를 한 층 발랐다. 관대는 묘실 중앙에서 확인되는데 벽돌을 3층으로 깔아 축조하였다. 장방형의 관대 남쪽으로 '凸'자형으로 벽돌을 2층으로 깔아 돌출되게 만들었다. 또한 묘실 안에서 벽화 잔편과 인골도 출토되었다.

11호무덤은 Ⅴ호대지 중앙에 위치한다. 대형석실묘로 묘도, 묘문, 연도,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는 장방형을 하고 있으나 묘실의 장축 방향(북-남)보다 12호무덤 방향인 북동-남서 방향으로 심하게 꺾여 있다. 길이 6.4m, 너비 1.85~2.6m이다. 묘도는 경사져 있으며 9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 부분에서 목책 형식과 유사한 방어벽이 확인된다. 묘문은 대형 석재 1기를 사용하고 바닥은 석재를 4층으로 쌓아 낮은 보호벽을 구성하였다. 연도는 동서 양측이 비대칭으로 동쪽이 짧고 서쪽이 길다. 묘실은 장방형이고 역시 동서 양측이 비대칭인데 연도와는 반대로 동벽이 길고 서벽이 짧다. 서벽 길이는 3.45m, 동벽 길이는 3.95m, 너비는 2.2m, 높이는 1.75m이다. 상부는 3개의 대형 석재를 사용하여 덮고 있는데 서북과 동북 모서리에서 모줄임천장 구조와



① ②

그림 6 ① 3호무덤, ② 12호무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63·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사한 괴돌이 확인된다. 묘실 네 벽도 돌을 쌓아 축조했으며 정중앙에 돌로 만든 관대가 발견되었다. 남쪽 일부가 훼손된 상태이며 추정 길이 2.4m, 너비 1.35m, 높이 0.25m이다. 인골 일부도 출토되었다.

11호무덤과 짝을 이루는 12호무덤 역시 대형 석실묘이다(그림 6-②). 효의황후묘비가 발견된 곳이다. 묘도, 묘문, 연도,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 길이는 5m, 너비 2.95m이며 내부는 흙과 돌로 채워져 있다. 묘도 바닥은 경사져 있고 계단이 9개 확인된다. 묘도 입구에서 전감(塼龕) 1기가 발견되었다. 묘문은 대형 석재 1개를 세워 사용했으며, 그 하부에는 받침돌이 있다. 연도는 길이 1.25m, 너비 1.65m고 효의황후묘비는 묘실과 연도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좌편재이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길이 3.45m, 너비 2.2m, 높이 1.9m이고 그 상부는 3기의 돌로 덮었다. 묘벽은 돌을 사용하였고 묘실 중앙에 관대가 놓여 있다. 장방형의 대형 판석 1개를 사용했으며 표면과 가장자리는 다듬었다. 관대 길이는 2.45m, 너비 1.6m, 두께 0.25m이다. 묘실 중앙에서는 인골과 동물뼈가 산재하였다.

Ⅵ호대지 중앙에서는 10호무덤 1기가 확인되었다. 다른 대지들에서는 2기 이상의 무덤이 함께 발견되는 것과 달리 1기만 단독으로 확인되었다. 10호무덤은 정효공주무덤과 마찬가지로 대형전실탑묘이다. 지하에 전석혼축묘가 있으며 그 위로 전탑이 올라간 구조이다. 탑은 기단부를 제외하고 모두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탑신은 벽돌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탑의 기단부는 回자형 평면 형태를 띤다. 각 변의 길이는 6m이다. 무덤은 묘실 남벽 중앙에 묘도가 위치하고 있다. 묘도는 계단식으로 경사져 있으며 8개의 계단이 확인되었다. 묘도의 길이는 5.5m, 너비는 1.85~2.25m이다. 묘문은 대형 판석 1기를 사용하여 폐쇄하였다. 묘실과 묘문 사이에는 연도가 있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대형 판석 4기를 사용하여 덮은 구조이다. 남북 길이 3.45m, 동서 너비 1.9m, 높이 2.1m이다. 묘벽은 내·외 두 층으로 구분되는데 외층은 석재를 사용하였고 내층은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바닥 역시 벽돌을 한 층 깔았다. 묘실 중앙에서 관대가 확인되었는데 벽돌을 2층으로 깐 뒤 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부는 백회를 발랐다. 관대 길이는 2.7m이고 너비는 묘실 너비와 같고 높이는 0.2m이다. 묘실 내부에서 약간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구조 면에서 정효공주무덤과 유사하고 무덤 내부에서 조가비(조개 껍데기) 2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화장용품으로 추정된다. 즉, 피장자를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무덤 내부에서 20세 전후의 성년 인골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10호무덤의 묘주를 대흠무와 효의황후의 또 다른 공주일 것으로 추정하였다.[9]

Ⅷ호대지에서는 2기의 석실묘(15, 21호)가 파악되었다. 15호무덤은 동북쪽에, 21호무덤은 서남쪽에 위치한다. 15호무덤은 대형석실묘로 묘도, 묘문, 연도, 묘실로 이루어져 있다. 묘도는 세장방형으로 길이 4m, 동서 너비 0.8~2.3m이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남쪽 일부가 약간 경사져 있다. 바닥에 석재가 한 층 깔려 있으며 그 위는 흙으로 채워져 있다. 묘문을 막고 있는 돌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 묘문과 묘실 사이에 벽돌을 깐 연도가 확인되었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2.8m, 너비 1.6m, 높이 1.4m이다. 묘실 덮개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표면에 돌을 사용한 장방형의 묘역이 형성되어 있다. 규모는 남북 4.25m, 동서 3.4m이다. 묘벽은 돌을 쌓아 축조하였고 묘실 중앙에서 벽돌을 사용한 관대가 확인되었다. 관대 길이는 2.1m, 너비 0.8m, 높이 0.08m이다. 묘실 내부에서 약간의 인골이 산재된 채 발견되었고 특히 벽화의 잔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도안은 확인되지 않지만 붉은색, 흑색, 녹색 등 다양한 안료는 파악되었다.

21호무덤은 현대의 마차도(馬車道)에 의해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도, 묘문, 용도 등은 파악이 불가능하며 묘실 일부만 확인 가능하다. 묘실 덮개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돌을 사용하여 형성한 묘역이 일부 확인되었다. 묘벽은 석재를 쌓아 축조하고 네 벽과 바닥은 모두 백회를 한 층 깔았다. 묘실

9 다만 출토된 인골의 성별은 불분명하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앞의 책, 204, 31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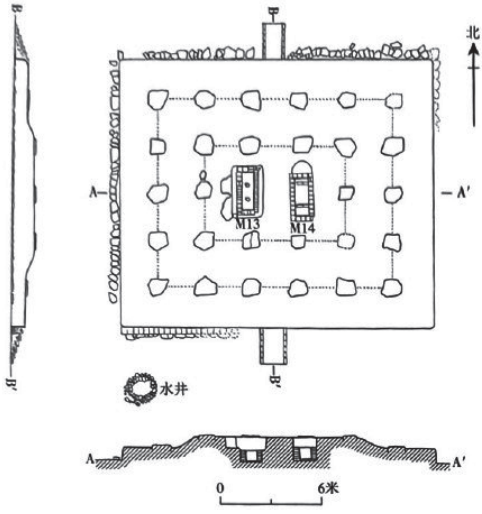


그림 7 13·14호무덤 및 묘상건축 평·단면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120쪽)

중앙에서 관대가 확인되었다. 장방형이며 바닥은 돌을 쌓고 상부는 벽돌을 깔고 표면은 백회를 발랐다. 관대 길이는 1.05m, 너비 0.55m, 높이 0.2m이다.

Ⅷ대지에서는 동봉이혈전곽목관묘(13, 14호)가 발견되었다(그림 7). 이곳은 무덤구역 전체에서 가장 낮은 지대이다. Ⅴ호대지와 비교해보면 높이 차가 44m에 달한다. 대지 중앙부에서 대형의 흙다짐(夯土) 건축 기단이 확인되었으며, 그 상부에서는 규칙적인 배열을 갖춘 초석도 발견되었다. 또한 그 주위에 대량의 기와 등의 건축재료가 대량 출토되었다. 이 건축기단 아래에서 2기의 동봉이혈무덤이 조사되었다. 우선 묘상 건축의 흙다짐 기단은 장방형으로 중앙 부분은 볼록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동서 길이 21.5m, 너비 17.5m, 최고 높이 1.5m이다. 남아있는 초석과 흔적 등으로 등을 보면 回자형 구조로 추정된다. 바깥쪽 줄은 18기, 안쪽 줄은 10기의 초석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정면 5칸, 측면 4칸 구조이다. 지하의 무덤은 회자형 건물지 중앙부 아래에 위치한다. 기단 바깥으로 벽돌, 얇은 판석, 작은 돌을 사용하여 둘렀다. 또한 남쪽과 북쪽 중앙에 계단이 확인되는데 계단의 가장자리는 벽돌을 쌓았다. 기단의 서남쪽으로 약 4m 떨어진 지점에서 우물 1기가 확인되었다.

2기의 무덤은 모두 묘광, 전곽, 목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서쪽에 위치한 13호무덤의 경우 묘광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서벽 바깥으로 반원형의 얕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덩이 2개가 확인되었다. 구덩이의 높이가 전곽의 판석 덮개와 같아 조사단은 무덤 축조 시 편의성 혹은 매장과 관련이 있거나 제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곽은 벽돌을 쌓아 축조하였고 남북 길이 2.36m, 너비 0.8~0.85m, 높이 0.8m이다. 곽실 네 벽 모두 방형의 벽돌을 평적하였다. 동서 양 벽의 상부는 두 겹의 벽돌을 약간 평행하게 쌓았다.

곽의 천장은 4개의 대형 돌과 일부 작고 얇은 판석을 덮개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위로 흑황색의 흙을 사용하여 봉토하였다. 곽실 바깥쪽과 토광 사이의 틈도 흙을 사용하여 채웠다. 전곽 내부에서는 목관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다. 관판 위와 전곽 안에서 목관을 장식하는 금동 관정이 다수 출토되었다. 목관 내부에서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두향을 북쪽으로 둔 앙신직지 일차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두개골과 정강이뼈 사이 아래에서 투공된 방형의 철판 1기가 확인되었는데 원래는 목관 바닥에 못질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 내부에서 금팔찌, 금비녀, 칠함, 칠합, 청동거울, 가위, 빗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묘주는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에 위치한 14호무덤은 묘광의 북단에서 이어지는 얕은 구덩이가 확인되는데 조사단은 이에 대해 13호 서벽에서 확인된 얕은 구덩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14호무덤의 덮개돌은 2층으로 구분되는데 1층은 4개의 크고 얇은 판석을 사용하였고 2층 덮개돌과 사이에는 10cm 두께로 봉토하였다. 2층 덮개돌에도 4개의 크고 얇은 판석을 사용했으며, 전곽의 천장부와 바로 이어진다. 그리고 봉토가 곽 내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틈에 작고 얇은 판석을 놓았다. 전곽의 형식이나 축조 방식은 13호무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13호와 달리 동서 양 벽에 평적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곽 안쪽 남벽 중앙부에서 주황색의 수직선 한 줄이 확인된다. 목관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길이 약 2m, 너비 약 0.7m의 대략적인 규모는 추정 가능하다. 관은 곽 네 벽에 붙어 있다.

전곽의 남단과 북단에 각각 장방형의 벽돌 2개가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데 이는 관 받침석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골은 이미 부패가 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행되었으나 13호무덤과 마찬가지로 앙신직지 일차장으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머리에는 삼엽형 금제관식과 소형 피변(皮弁)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피변에는 2개의 금제 비녀를 사용하여 두발에 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허리 부분에서 금탁옥대(金托玉帶) 등도 발견되었다. 피장자는 남성으로 추정된다. 13호무덤과 쌍을 이루는 부부합장묘로 보인다.

3. 석국구역

석국구역에서는 총 2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그림 8). 그중 남쪽의 1호무덤은 3개의 묘실이 나란히 배치된 삼실묘로 동봉이혈석실묘(M1A, M1B, M1C)이고, 북쪽의 2호무덤은 2개의 묘실이 나란히 배치된 쌍실묘(M2A, M2B)로 역시 동봉이혈석실묘이다.[10] 2호무덤은 1호무덤 북쪽에 위치하며 무덤 간의 거리는 약 10m 내외로 매우 인접해 있다. 각 무덤은 모두 묘도+묘문+묘실 구조이다(그림 8).

우선 1호무덤의 지표에서 확인된 봉석 규모는 동서 14.7m, 남북 12m, 최고 높이 1.96m이다. 봉석 아래로 서쪽부터 M1C, M1A, M1B무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3기 무덤의 선후 관계 파악을 위해 절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M1A, M1B무덤의 묘실과 일부 묘도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큰 묘광 1기를 굴광하여 사용하였고 이 묘광에서 돌을 사용하여 M1A, M1B무덤의 묘실과 제형의 묘도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장방형의 묘도까지 축조하였다. 반면 M1C무덤은 묘광과 묘도를 단독으로 굴광하였다. 무덤 위 봉토 부분에서도 M1A, M1B무덤의 상부는 토석을 쌓은 뒤 다시 흙을 다져(夯土) 한 겹 올렸다. 그다음 M1C무덤의 상부에 흙을 한 층 쌓은 뒤 다시 돌을 쌓았다. 그리고 3기의 묘실 위로 다시 흑갈색 점토를 올린 뒤 석재를 2층으로 쌓아 마무리하였다. 3기

10 발굴보고서에는 2기의 동봉이혈무덤으로 구분하였으나 5기의 개별 고분으로 볼 수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무덤이 나란히 배열되었다고 하나 세부적으로 M1C무덤이 좀 더 북쪽에 위치한다.

M1A무덤은 묘도가 특이하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묘실과 가까운 쪽의 제형 묘도와 그 남쪽으로 이어지는 장방형 묘도로 구분된다. 대략 '⇧' 형태와 비슷하다. 장방형 부분은 남북 길이 2.45m, 동서 너비 1.5m 규모이다. 바닥면은 살짝 경사져 있고 3개의 계단으로 구조되어 있다. 제형 부분은 길이 1.6m, 너비 1.4~2.65m이며 1개의 계단이 확인된다. 동, 서양 벽은 돌을 쌓아 축조하였다. 묘문은 3개의 대형 석재를 세워 봉쇄하였다. 묘도 방향 앞쪽으로 2개의 석재를 양측에 두고 그 중앙은 묘실 방향 안쪽에 세웠다. 묘문과 묘실 사이에는 연도가 확인된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3.65m, 동서 너비 1.55m, 높이 1.5m이다. 묘실 천장에는 덮개돌이 4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북측에 3개만 남아 있다. 묘벽은 모두 돌을 사용하여 축조했으며 그 표면에는 백회를 한 층 발랐다. 조사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로 관대, 장구, 인골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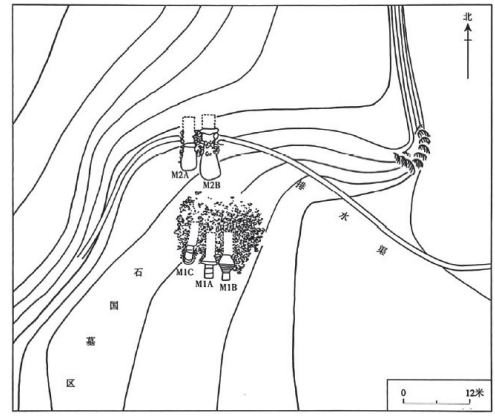


그림 8 석국구역 유적 분포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164쪽)

M1B무덤의 묘도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우선 남쪽 부분은 다시 북단과 남단으로 세분되는데 북쪽은 역제형으로 북쪽이 넓고 남쪽이 높다. 살짝 경사져 있으며 5개의 계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단은 장방형으로 살짝 경사져 있다. 묘도 북쪽 부분은 제형으로 남쪽이 넓고 북쪽이 좁다. 바닥부분 단면은 살짝 곡선을 이룬다. 동서 양측 벽은 돌을 쌓아 축조하였다. 특히 묘도 퇴적토에서 돼지 하악골 1기가 확인되었다. 묘문은 큰 판석 2개를 비스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히 세워 봉쇄하고 그 아래도 돌을 사용하여 받치고 있다. 묘문 안쪽으로 연도가 있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3.65m, 동서 너비 1.55m, 높이 1.55m이다. 지표면의 봉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묘실 내에서 천장 부분을 올려보았을 때 천장 부분은 5개의 덮개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묘실 네 벽은 돌을 쌓고 표면에 백회를 한 층 발랐다. 묘실 바닥은 생토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나 인위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묘실의 정중앙에서 장방형의 관대가 확인되었다. 벽돌을 매우 정연하게 3층으로 쌓아 올렸고 표면에는 역시 백회를 발라 마무리하였다. 관대 길이는 2.85m 너비는 0.9m, 높이 0.2m이다. 도굴로 인해 인골은 산재된 상태였다.

M1C무덤의 묘도는 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3.38m, 동서 너비 1.37~2.15m이다. 바닥은 경사져 있으며 5개의 계단이 확인되었다. 묘문은 대형 판석 2개를 비스듬히 세워 봉쇄하였다. 묘문과 묘실 사이에는 연도가 확인된다. 묘실은 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3.45m, 너비 1.3~1.6m, 높이 1.5m이다. 묘벽은 모두 돌을 쌓아 축조하였다. 지면은 별다른 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바로 생토면이 확인되지만 인위적으로 평탄화한 것으로 보인다. 관대는 묘실 정중앙에서 발견되었으며, 벽돌을 사용하고 표면에는 백회를 발랐다. 장방형으로 길이 2.6m, 너비 1m, 높이 0.2m이다. 묘실 내부에서 인골 일부가 발견되었다. 이미 도굴된 상태였지만 교태베개(絞胎瓷枕)와 금동관식, 금동대장식구 등이 출토되었다.

1호무덤 북쪽에 위치한 2호무덤(M2A, M2B)은 동봉이혈쌍실묘이다. 지표에서 확인된 봉석 아래로 서쪽에 M2A무덤, 동쪽에 M2B무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특히 산에 장방형 굴을 판 뒤 중간에 너비 1m의 석벽을 쌓아 묘실을 2개로 분리한 구조이다. 우선 M2A무덤의 묘도는 설형(舌形)으로 남쪽이 넓고 북쪽이 좁다. 바닥은 경사졌으며 내부는 토석으로 채워진 상태였다. 묘문은 가공되지 않은 판석을 6층으로 평적하여 봉쇄하였다. 그 앞쪽으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돌을 사용하여 방어하였다. 묘실은 말각장방형 형태로 남북 길이 3.1m, 너비 1.6m, 높이 1.55m이다. 천장 북쪽에서 덮개돌이 3개 확인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묘실의 동벽은 M2B무덤과 사이에 있는 사이벽(隔墻)이 존재하는데 돌을 쌓아 축조했으며 나머지 벽과 바닥은 모두 산을 굴착한 후 자연석 그대로 두었다. 사이벽 표면에는 백회를 한 층 발랐다. 2개체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내부에 관정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M2B무덤의 묘도도 설형(舌形)으로 남쪽이 넓고 북쪽이 좁다. 길이 5.2m, 너비 1.7~2.5m이다. 바닥은 경사져 있다. 묘도 안은 흙과 돌로 채워진 상태였다. 묘문은 비슷한 형태의 판석들을 5층으로 평적하여 봉쇄하였다. 특히 그 남측으로 비교적 큰 깬돌을 사용하여 막아두었다. 묘실은 말각장방형으로 남북 길이 3.3m, 동서 너비 1.7m, 높이 1.55m이다. 묘실 북쪽 상부에만 3개의 덮개돌이 남아 있었다. M2A무덤과 마찬가지로 사이벽만 돌을 쌓아 축조하고 나머지 벽과 바닥은 모두 굴착한 뒤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이벽 표면은 백회를 한 겹 발랐다. 묘실 정중앙에 장방형의 관대가 확인되는데 이 역시 산을 파면서 만든 것으로 묘실과 일체형이다. 관대 길이는 2.25m, 너비는 0.72m, 높이는 0.2m이다. M2A무덤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2개체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M2B무덤 역시 내부에서 관정이 출토되어 목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용두산 발해 고분군 묘제의 특징

동봉이혈구조 내부의 무덤을 각각의 개별 무덤으로 인정한다면 용호구역에서 6기, 용해구역에서 21기, 석국구역에서 5기로 총 32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Ⅱ장에서는 조사된 개별 고분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32기의 고분 안에서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묘제에서 보이는 몇 가지 주목되는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고분 축조 재료

축조 재료에 따른 분류는 사실 범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실묘의 경우 봉분, 묘도, 연도, 묘실이 각각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묘실 역시 묘벽과 바닥의 재료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일부는 묘벽 역시 이중으로 벽돌과 돌이 내·외층으로 구분되어 축조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묘실이나 묘광 등 매장 주체부의 축조 재료에 따라 토광묘, 석축묘, 전석혼축묘, 전축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두산고분군에서 현재까지 토광묘는 용호구역에서만 확인되었다. 이 토광묘 4기 역시 세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용호구역 1호무덤에서 북쪽으로 4기의 토광묘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무덤 간의 사이는 2m이고 묘실의 너비는 40cm라는 정도이다. 특히 내부에서 인골 일부와 철제 관정이 출토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토광묘 내부에 목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11]

토광묘는 일반적으로 발해에서 초기에 유행했던 묘제로 인식된다. 이는 도성 혹은 도성 추정 유적 주위에서 확인되는 고분군의 양상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구국지역으로 추정되는 돈화의 대표적인 고분군은 육정산고분군이 있다. 정혜공주무덤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육정산고분군이 이곳에서 발견되면서 이 지역이 구국 추정지로 추정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육정산고분군에서는 현재까지 총 235기 무덤이 확인되었다. 고분군 내에서는 등급이 높은 고분과 함께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은 고분들도 함께 조사되었다. 고분은 축조 재료에 따라 토광묘와 석축묘가 확인되며 석축묘는 다시 석관묘, 석곽묘, 석실묘 등으로 세분된다. 이 중 약 60% 이상이 토광묘로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되었다.[12] 즉, 육정산고분군이 축조될 당시 이 지역에서는 석축묘와 함께 토광묘

---

11 박윤무, 1994, 앞의 책, 3쪽.

1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六頂山渤海墓葬-2004~2009年清理發掘報告』, 文物出版社, 84쪽; 발굴보고서에서는 축조 재료에 일부 석재를 사용했더라도 매장주체부를 포함한 기본구조를 토광묘로 판단했을 때 전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함께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국에서 천도한 현주(顯州)이며, 오경(五京) 중 중경(中京)으로 비정되는 서고성 인근에서는 토광묘의 발견율이 매우 적다. 즉, 명암고분군, 북대고분군, 동남구고분군, 복동고분군, 용해소학교고분군, 장항고분군 등에서는 거의 대부분 석축 무덤만 발견되고 토광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일대에서는 용두산고분군 용호구역에서만 4기가 확인되었을 뿐이다. 그 밖에 하남둔고분군에서는 전축묘가 확인되었다. 이는 바닥과 네 벽 모두 벽돌을 사용한 전곽무덤으로 보인다. 상경성 인근에서도 대부분이 석축무덤이고 일부 전축이나 전석혼축묘가 확인되었으나 토광묘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용호구역에서 발견된 토광묘 4기는 여러 기준에서 예외에 해당된다. 다만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토광묘 4기는 용호구역의 1호무덤에서 좀 더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었고 명확한 발해 시기 출토 유물이 보고된 것도 아니다. 특히 상술하였듯 토광묘는 용두산고분군뿐만 아니라 서고성 일대 다른 발해 고분군에서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사 당시에도 묘실 일부가 물에 의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추후 재조사나 추가 자료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토광묘를 용두산고분군 발해 고분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용두산고분군 내 개별 고분은 축조 재료에 따라 석축묘, 전석혼축묘, 전축묘로 분류될 수 있다.

용두산고분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은 석축무덤이다. 매장주체부의 벽체와 바닥에서도 대부분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용호구역의 1호무덤은 묘벽과 바닥 모두 석축이고 추가로 석광묘 1기가 더 있다. 용해구역의 고분 중 묘벽과 바닥 모두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는 7호무덤, 2·3호무덤이 있다. 7호무덤은 바닥 사방에 돌을 두르고 그 안에 점토와 모래로 채웠으며, 2호무덤 바닥은 석축에 백회를 발라 마무리하였고, 3호무덤은 석재와 진흙을 사용한 후 백회를 발라 마무리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벽체는 돌로 축조하고 바닥은 생

적인 토광묘뿐만 아니라 봉토포석묘, 토광위석묘도 토광묘에 포함시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토면 그대로 평탄화 작업만 하거나, 점토나 백회를 바른 흔적이 확인되는 것들이다. 용해구역의 9호무덤과 석국구역의 5기 무덤은 모두 바닥면을 생토나 자연석 그대로 두었다. 용해구역의 4~6호무덤은 바닥에 황색 점토를 깔았다. 11·12·15·21호무덤은 바닥에 백회를 발랐다. 이처럼 벽체는 석축으로 동일하지만 바닥 부분 구성이 다양하다. Ⅲ호대지의 16~20호무덤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역시 모두 석축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축무덤은 3기가 확인된다. 정효공주무덤인 1호무덤은 벽체는 벽돌을 사용했으며, 바닥은 벽돌을 깔고 그 위에 백회를 발랐다. 13·14호무덤은 전곽목관묘로 토광 안쪽에 바로 맞닿는 벽체가 벽돌로 축조되었으며 그 내부에 목관을 둔 구조이다.

또한 전석혼축묘가 확인된다. 10호무덤은 1호무덤과 같은 전실탑묘이지만 묘실의 벽체 구성이 상이하다. 10호무덤은 묘벽의 바깥 부분은 석축으로 안쪽 부분은 벽돌을 사용하였다. 바닥은 벽돌을 사용하였다. 8호무덤도 10호무덤과 동일하게 묘벽의 바깥은 돌로 안쪽은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바닥은 별도로 벽돌을 깔지 않고 황색 점토를 사용하였다.

2. 고분 구조

용두산고분군 내 개별 고분 묘제는 많은 다양성을 보여준다. 특히 서고성 인근 왕실고분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으며, 조사된 고분은 32기로 수량이 많지 않음에도 각 고분의 구조적 개성이 뚜렷하다. 단일묘와 동봉이혈묘로 구분할 수 있다. 동봉이혈묘로는 용해구역에서는 13·14호가 석국구역에서는 동봉쌍실묘와 동봉삼실묘가 확인되었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혈식 토광묘, 석광묘, 전곽묘, 횡혈식석실묘, 횡혈식전실묘(전석혼축묘, 전실탑묘 포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덤은 장축 방향은 대체로 남-북이지만 일부 약간 남동-북서, 북동-남서로 기울어진 장축 방향도 확인된다.

우선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되는 횡혈실석실묘와 횡혈식전실묘의 경우 연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유무, 묘도와 묘실의 평면 형태, 묘문과 묘도의 위치, 묘도의 경사도 등이 무덤마다 다르게 확인된다. 묘실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지만 일부는 네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처리한 말각장방형 형태도 확인(M2A, M2B)된다.

묘도는 모두 묘실 남쪽 벽에 위치하고 있다. 장방형, 나팔형, 설형, 제형+장방형, 육각형+장방형 등 다양한 평면 형태가 확인된다. 묘도의 위치는 12호무덤만 좌편재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무덤은 묘실의 장축과 묘도의 장축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나 일부는 차이가 있다. 3호무덤의 묘도는 동쪽 방향으로, 11호무덤의 묘도는 서쪽 방향으로 꺾여 있다. 이 묘도의 방향을 근거로 조사단은 피장자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상술하였듯 용두산 고분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각 무덤의 피장자 문제이다. 우선 피장자가 확실한 무덤은 묘비가 발견된 3기의 무덤이다. 즉, 정효공주무덤(1호무덤), 순목황후무덤(3호무덤), 효의황후무덤(12호무덤)이다. 각각의 대지에서 함께 확인되는 무덤군들의 피장자는 연관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중 바로 인접하여 쌍을 이루듯 배치된 무덤들은 좀 더 관련 있는 인물들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순목황후는 간왕의 황후이기 때문에 2호무덤은 발해 제9대 간왕 대명충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11호무덤은 바로 인근에 짝을 이루는 12호무덤의 묘주인 효의황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 분명하고 그 서쪽으로는 문왕의 딸인 정효공주무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흠무의 릉으로 보는 의견[13]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발굴보고서에서는 2호와 3호무덤, 11호와 12호무덤은 위치상 서로 인접해 있고 무덤의 구조도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각각의 두 무덤은 서로 등급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우선 2호와 3호는 규모 차이도 명확하기 때문에 3호무덤보다 2호무덤의 등급이 높아 보인다. 반면 11호무덤은 12호무덤보다 위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지적한 점이 상술한 묘도의 방향이다. 3호무덤 묘도의 방향은 2호를 향해 꺾여 있고 11호무덤의 묘도 방향은 12호를 향해 과도하게 꺾여 있음이 확인된다.

13 劉曉東. 2012,「渤海王陵及相關問題續論」,『北方文物』3, 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를 일종의 종속 관계로 이해하여 11호무덤의 피장자가 대흠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11호무덤 내부에서는 성년 남성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11호무덤이 대흠무가 아니라는 가정 아래 효의황후만큼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하여 짝을 이루듯 무덤을 배치할 수 있을 만한 권력과 위치를 갖고 있는 인물 가운데 조사단은 『新唐書』「渤海傳」에 언급된 일찍 요절한 태자 대굉림(大宏臨)을 지목하였다.[14] 12호무덤은 묘도 위치가 좌편재이고 11호무덤의 묘도는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분되긴 하나 살짝 오른쪽에 치우친 중앙이고 묘도의 방향은 서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무덤의 묘도+묘실 형태가 서로 마주보는 구조로 쌍을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Ⅴ호대지 5기 무덤 가운데 11호무덤은 축조 시 사용된 석재 가공 정도, 묘실과 묘도의 장축 방향의 불일치, 석축 구조의 짜임새 등이 가장 정연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는 모두 문왕 대흠무의 딸이지만 정혜공주묘는 육정산고분군에서 확인되었다. 정혜공주(738~777)는 정효공주(757~792)와 자매이지만 나이 차이가 19살이다. 그리고 효의황후(726~775)와는 12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혜공주는 효의황후의 소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용두산고분군 Ⅴ호대지에 효의황후무덤과 정효공주무덤은 함께 위치하고 정혜공주무덤은 육정산고분군에 따로 매장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또한 대굉림의 생몰연대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1호무덤의 피장자가 대굉림일 경우 어머니 효의황후 인근에 위치하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다만 용두산고분군 내 짝을 이루는 무덤의 경우 부부 합장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간왕(2호무덤)과 순목황후(3호무덤)의 무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13·14호무덤의 경우 정확한 피장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부부묘로 추정된다. 특히 공통적으로 여자가 왼쪽에 남자가 오른쪽에 매장되었다. 다만 11호무덤을 대굉림의 무덤으로 본다면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대굉림의 아내이자 성왕 대화여의 어머니인 태자비 무덤의 존재이다. 다른 무덤들의 양상을 보면 부부묘가 나란히

1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앞의 책, 203~20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인이 아닌 어머니 옆에 있는 이유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15]

또한 주목되는 고분 구조는 동봉이혈묘이다. 총 3기의 동봉이혈묘가 확인되었고 내부의 개별 고분 구조는 모두 상이하다. 우선 용해구역의 13·14호무덤은 동봉이혈전곽목관묘이면서 상부에서 回자형 묘상건축이 확인되었다. 석국구역의 2기의 동봉이혈무덤은 바로 인근에서 확인되지만 차이점이 분명하다. 우선 1호무덤의 M1A·M1B·M1C무덤은 모두 횡혈식 석실묘 구조이다. 상술하였듯 내부에서 축조 시기에 따른 선후 관계는 확인되었지만, 3기 모두 묘실+연도+묘문+묘도 구조를 갖춘 동일한 횡혈식 석실묘이다. 묘도의 평면 형태는 모두 상이하다. 특히 M1A, M1B무덤 묘도의 평면 형태는 발해 시기 다른 석실묘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형태이다. 석국구역 2호무덤인 M2A·M2B무덤은 동봉이혈쌍실묘로 분류되며 횡혈식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도면 및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볼 때 동혈묘(洞穴墓)[16]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무덤은 산을 굴처럼 판 뒤 그 중간에만 석재를 사용하여 사이벽을 만들고 2개의 실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벽돌과 바닥은 산의 자연 석벽을 그대로 두고 천장은 덮개돌로 덮었다. 이처럼 산에 굴을 파듯 만든 무덤 구조는 발해 시기 무덤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

15 보고서의 맺음말 부분에서는 11호무덤에서 출토된 인골 분석을 근거로 성년 남성 1인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고서 내 부록에는 11호와 12호무덤에서 출토된 인골 분석 내용이 추가적으로 실려 있다. 다만 각각 SY01, SY02, SY03으로 불리는 인골의 정확한 출토 위치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하다. 이 중 SY01은 약 20세 여성으로, SY02와 SY03은 성별을 알 수 없는 성년의 인골로 보고되었다.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앞의 책, 204, 311~312쪽.

16 중국에서는 절벽이나 암반을 파서 만든 무덤 형식을 가리켜 애묘(崖墓)라고 부른다. 전국(戰國) 시기부터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 유행하였다. 이후 한대(漢代)에 여러 제후릉급의 무덤에서 다수 확인된다[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item/崖墓/654131)]. '동혈묘'나 '애묘' 등 명칭과 관련하여 석국구역 2호무덤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단어 선택은 추후 재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임시로 '유사 동혈묘'로 지칭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고분의 군집 형성

현재 중국 경내 발해 시기 고분군 중 수백여 기의 개별 고분이 한 곳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대형고분군에는 육정산고분군과 홍준어장고분군 등이 있다. 육정산고분군은 구국 추정지인 돈화에서, 홍준어장고분군은 상경성 인근 영안에서 확인되었다. 이 두 곳의 고분군과 용두산고분군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고분군 내 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군집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육정산고분군은 서쪽의 Ⅰ구역과 동쪽의 Ⅱ구역으로 구역이 분리된다. 정혜공주무덤을 비롯하여 규모가 크고 등급이 높은 고분과 방형건축지는 주로 Ⅰ구역에서도 남쪽에 밀집되어 있다. 다만 무덤의 위계에 따른 완벽한 공간 분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양쪽 구역 모두 토광묘, 석축무덤, 대형석실묘, 건물지 등이 확인된다.

홍준어장고분군은 발해 시기 고분군 가운데 가장 많은 개별 고분이 발견되고 조사된 유적이다. 총 323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고분 구역은 북쪽의 Ⅰ구역, 남쪽의 Ⅱ구역으로 분리되고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무덤, 전축묘, 전석혼축묘, 방형건물지는 모두 남쪽의 Ⅱ구역에서 확인된다.[17] 홍준어장고분에서는 육정산고분군과 달리 토광묘가 1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혜공주무덤과 같은 왕실 구성원급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무덤의 등급이나 선후 관계 파악 역시 모두 석축묘 안에서 추정해볼 수 있다.

용두산고분군은 우선 북쪽의 용호, 가장 남쪽의 석국, 그 사이의 용해구역으

17 현재 통용되는 육정산고분군과 홍준어장고분군의 구역 분리는 발굴조사단에 의한 구역 분리에 해당된다. 육정산고분군 Ⅰ구역의 경우 그 안에서 1호무덤과 2호무덤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을 좀 더 세분할 수도 있다; 김진광, 2018a, 「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발해 건국 집단의 분화·재편과정 검토」, 『인문과학연구』 5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5쪽. 이를 기준으로 Ⅰ구역의 남쪽에 대형고분과 방형건물지가 밀집되어 있다. 홍준어장고분군은 육정산고분군에 비해 현재의 Ⅰ구역과 Ⅱ구역 분리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대형무덤과 방형건물지는 모두 남쪽 Ⅱ구역에서만 발견된다는 특징은 확실하다. 추후 발해 시기 대형고분군들의 구역 분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고분 구역이 분리된다. 또한 상술하였듯 용해구역은 다시 대지에 따라 8개로 공간이 다시 구분된다. 각각의 대지 안에서 발견된 개별 고분들의 관계성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8개의 대지 중 Ⅴ호대지가 가장 높은 곳에, Ⅷ호대지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특히 각 대지 안에서도 2호무덤과 3호무덤, 11호무덤과 12호무덤은 봉분은 달라도 짝을 이루듯 배치되어 있다.

특히 Ⅳ호대지의 6기의 무덤은 같은 대지에 위치하므로 피장자끼리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쪽의 8호와 9호무덤은 6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상부에 형성된 묘역 역시 정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넓게 배치되어 나머지 4기 무덤과 대조된다. 8호와 9호무덤은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7호는 그 동북쪽에, 4~6호무덤은 그 북쪽으로 두르듯이 배치되어 있다. 묘역뿐만 아니라 무덤 구조, 규모, 묘도 길이 등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4~6호 → 7호 → 9호·8호무덤 순으로 등급의 차이를 추정해볼 수 있다. 특히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4~7호무덤은 8·9호무덤의 배장묘로 추정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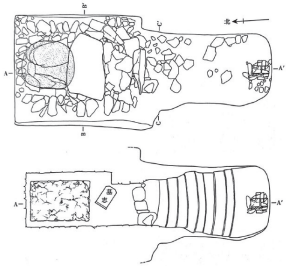
4. 고분의 선후 관계

발굴보고서의 고찰 부분에는 용두산고분군의 각 구역 간 선후 관계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즉, 용해 구역에서 발견된 3기의 묘지명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절대연대 및 출토 유물 분석, 그리고 삼릉둔고분군, 육정산고분군 등 기타 다른 발해 고분들과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조사단은 석국 → 용해 → 용호구역 순으로 고분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용해구역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으로, 석국구역은 묘제 및 출토유물 분석 등을 통해 용해구역보다는 좀 더 이른 시기인 것으로 보아 8세기 중엽이나 그보다도 좀 더 이른 시기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용호구역은 가장 늦은 9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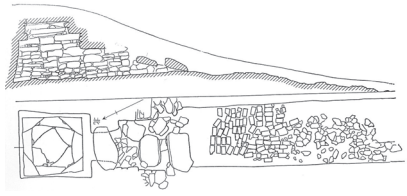
1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앞의 책, 20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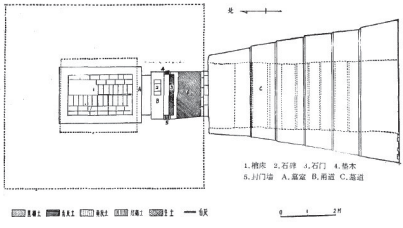
용두산고분군에서는 귀중한 절대연대 자료가 3개 확보되었다. 바로 묘비이다. 현재 육정산고분군의 정혜공주묘비까지 총 4개의 발해 시기 묘비 제작 시기가 파악되었다(그림 9). 효의황후묘비(775), 정혜공주묘비(780), 정효공주묘비(792), 순목황후묘비(829)의 제작 시기를 통해 하나의 기준안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각 고분 형태의 차이만 확인될 뿐 선후 관계 파악은 다소 불분명하다. 전실탑묘인 정효공주무덤을 제외하고 모두 석실봉토묘이다. 그러나 구조만 보면 가장 이른 시기인 효의황후무덤과 가장 늦은 시기의 순목황후무덤이 가장 유사하며 위치도 인접해 있다. 특히 천장구조에서 두 무덤은 평천장으로 상당 부분 유사해 보이나 정혜공주무덤의 천장구조는 삼각고임천장 구조로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묘지명에서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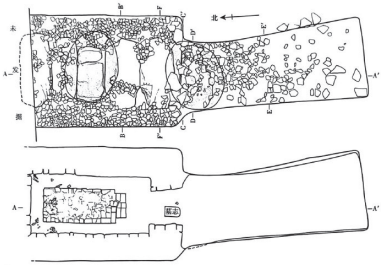
① 효의황후묘(775)



② 정혜공주묘(780)



③ 정효공주묘(792)



④ 순목황후묘(829)

그림 9 묘비 출토 무덤(①, ④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78·63쪽 ②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主編, 1985, 40쪽 ③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主編, 1984, 2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된 절대연대 자료를 바탕으로 유물에 대한 편년 연구도 기대하였으나 특히 토기 출토 수량이 극히 적어 아직은 자료가 부족하다.

5. 묘상 건축[19]

용두산고분군의 일부 고분들에서는 묘상 건축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바로 13·14호무덤 위의 回자형 건물지 기단 및 초석, 1호무덤과 10호무덤 상부의 탑 기단부이다. 回자형 묘상 건축(추정 포함)은 육정산고분군에서 4기(Ⅰ구역 1·3·4·5호), 하남둔고분군에서 1기, 용두산고분군에서 1기, 삼릉둔고분군에서 1기 등이 확인된다. 특히 용두산고분군 13·14호무덤의 묘상 건축은 육정산고분군 Ⅰ구역 3호무덤과 상경성 9호사원지와 유사한 것으로 언급된 바 있다.[20] 그중 육정산고분군 Ⅰ구역 3호무덤의 묘상 건축은 기와 지붕의 토목 건축물로 보이며 초석과 다수의 건축재료가 발견되었다. 조사단은 4면에 회랑이 설치된 벽화가 그려진 방형 건축물로 추정하였다.[21] 초석은 8개가 잔존하고 있었는데 가운데의 5개는 내실에서, 가장자리의 3개는 회랑에서 사용된 초석으로 추정된다. 용두산고분군 13·14호무덤과의 차이점은 육정산고분군 Ⅰ구역 3호무덤은 보고서에 봉토포석묘로 분류된 토광묘로 매장주체부에서 석실이나 전곽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목관의 흔적은 발견되었다. 하남둔고분군도 동봉이혈묘로 두 기의 무덤이 동서 방향으로 배치된 구조이다. 서쪽이 1호무

---

19 고분 위의 건축물을 가리켜 '묘상 건축' 혹은 '총상작옥(冢上作屋)'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특히 육정산고분군 발굴보고서에서는 총상작옥을 사용한다. 이 명칭은 『魏書』「勿吉傳」에서 등장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묘상 건축과 총상작옥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기에 묘상 건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李强, 2007, 「勿吉과 발해의 "冢上作屋"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 『고구려발해연구』 제26집.

20 김진광, 2018b,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선사와고대』 56, 한국고대학회, 70쪽(재인용), 79쪽.

2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앞의 책, 51~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덤, 동쪽이 2호무덤이고 모두 전축묘이다. 장방형의 벽돌을 사용했으며 장축은 남북향이다. 규모나 구조는 서로 대동소이하다. 길이 2.4m, 너비 1.4m, 벽체 높이 0.47m이다. 모두 바닥에 정방형의 벽돌을 깔고 네 벽은 장방형의 벽돌을 쌓아 올린 뒤 백회로 틈을 메꾼 구조이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원래 두 무덤은 8개의 대형 판석을 사용하여 두 층으로 덮개돌이 올라가 있었으며 그 덮개돌 위로 대형의 흙더미(봉분)가 있었다고 한다. 봉분은 장방형으로 동서 길이 28m, 남북 너비 20m 규모이다. 그리고 그 위로 초석이 열을 지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일본 사이토 유우(齋藤優)가 1940년대 조사 당시 궁궐 건축지로 추정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도면을 보면 초석의 배치 형태가 回자형 건물지임을 알 수 있다.[22]

발해 시기 전실탑묘는 정효공주무덤과 용두산고분군 10호무덤, 마적달탑무덤, 영광탑무덤 등이 확인되었다. 지상의 탑과 지하의 묘실 모두 거의 벽돌이 사용되었으나 용두산고분군 10호무덤의 경우 묘벽이 내·외층으로 구분되며 외측은 석재, 내측은 벽돌을 사용한 차이를 보인다. 묘상 건축은 피장자의 신분, 무덤의 등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묘탑은 불교와 관련 있는 구조물로서 당시 시대상이나 피장자의 신앙과도 연관시켜 볼 수 있다.

6. 독특한 구조물

발해 시기 다른 고분들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독특한 구조물들이 확인된다. 우선 12호무덤 묘도 끝에서 확인되는 전감(塼龕)이다(그림 10). 묘도의 가장 높은 계단 위로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크기는 길이 0.6m, 너비 0.35m, 높이 0.25m이다. 바닥, 벽체, 덮개에 벽돌을 사용하고 벽체 바깥은 다시 석재를 사용하여 둘렀다. 내부에서 별다른 유물이 발견된 것 같지는 않으나 바닥에서 탄화된 잔여물 흔적이 확인되었다. 용두산고분군 내뿐만 아니라 발해

22 齋藤優, 1978, 『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史刊行會, 74~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기 고분에서 이런 구조물이 발견된 바 없어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건축물과 관련된 의례 행위 일종인 지진(地鎭) 혹은 진단(鎭壇)과 관련된 구조물일 가능성이다. 지진과 진단은 의식의 순서에 따라 구분된다. 지진이 건축물의 기단을 구축하기 전에 지신(地神)에게 드리는 의식이라면 진단은 건축물을 세운 후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비단 건축물의 기단뿐만 아니라 탑지나 고분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부여 백제왕릉원 서상총(4호)의 묘도에서도 지진구가 확인되었는데 바닥 양쪽에 묻힌 상태로 확인되었다.[23] 다만 12호무덤에서 발견된 전감 내에서는 별다른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지진구 혹은 진단구의 기능을 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혹은 지신과 관계 없이 일종의 매장의례와 관련 있는 장치일 수도 있다. 아울러 효의황후 묘지명을 보면 불교(불법)와 관련된 단어가 여럿 등장한다. 본각(本覺), 진여(眞如), 반야(般若), 열반(涅槃) 등이 확인된다.[24] 황후가

그림 10 12호무덤 전감(塼龕)(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編著, 2025, 383쪽)

23 이현숙, 2022, 「백제 지진구의 현황과 의미」, 『마한·백제문화』 제40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9, 41~42쪽.

24 本覺은 기신론에서 번뇌에 가려 드러나지 않은 청정한 깨달음의 성품을 의미하며 중생이 본디 갖추고 있는 청정한 마음을 가리킨다. 眞如는 모든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자 변하지 않는 진리의 의미이다. 혹은 모든 분별과 대립이 소멸된 마음 상태로 부처의 성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般若는 분별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마음 작용을 뜻한다. 涅槃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심리 상태로 번뇌를 소멸하여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한 경지를 말한다(곽철환, 2003,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불심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감 역시 불교와 관련된 의례 시설로 추정될 수도 있다. 특히 전감과 매장주체부 및 묘도 등과의 축조 선후 관계 역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또 다른 특이한 구조물의 흔적은 11호무덤에서 확인되었다. 묘도의 계단 경사면이 끝나고 묘문으로 이어지는 부분 바닥면에서 '목책 형식의 방어벽' 흔적이 확인되었다. 3개의 기둥자리 같은 흔적이 계단 폭과 동일하게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목재의 흔적은 따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유구로 실제 묘도 계단 끝에 별도의 장치가 또 있었는지 역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Ⅳ. 맺음말

학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용두산고분군 발굴보고서가 드디어 출간되었다. 용호구역과 이미 발굴 성과가 공유되었던 정효공주무덤을 제외하고 용해구역과 석국구역에서 조사된 고분과 출토유물에 대한 성과를 비교적 상세히 담고 있다. 대부분의 고분들이 발굴 당시 이미 도굴된 상태였음에도 무덤과 출토유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순목황후와 효의황후의 묘지명이 드디어 공개되며 피장자에 대한 정보 및 당시의 사회상 등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출간된 발굴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발굴성과를 파악하고, 특히 무덤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용호구역에서는 6기, 용해구역에서는 21기, 석국구역에서는 5기의 발해 무덤이 조사되었다. 우선 총 32기 무덤의 주요 특징은 다양성이다. 토광묘, 석축묘, 전축묘, 전석혼축묘 등 무덤 축조 재료의 다양성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토광묘를 제외하고 석축묘, 전축묘, 전석혼축묘 사이에는 축조 재료에 따른 등급 차이는 크게 확인되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덤 구조에서는 우선 단일묘와 동봉이혈묘가 확인되는데 동봉이혈묘 역시 쌍실묘와 삼실묘로 매장주체부 수량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수혈식석광묘나 전곽묘, 횡혈식 석실묘나 전실묘(전석혼축 포함) 구조로 구분된다. 석광묘나 석실묘의 등급 차이는 분명하나 수혈식과 횡혈식의 등급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13·14호무덤의 경우 묘도가 따로 없는 수혈식의 전곽목관묘이지만 금제관식 등이 출토되어 피장자의 신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묘상에 回자형 건물지나 전탑이 올라간 무덤도 확인된다. 回자형 건물지 주변으로는 기와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재료가 확인된다. 기와 지붕이 올라간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발해도 기와 지붕이 일반적인 지붕 건축이 아니었다. 주로 궁성, 관청, 사찰 등 건축물의 등급이 높거나 특수 목적의 건축에서 기와 지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덤 위의 기와 지붕 건축물의 존재는 피장자의 신분이나 무덤 구조 등급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묘탑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약 160개소 이상의 발해 고분군들[25]에서 묘상 건축이나 묘탑 발견 사례가 극히 적은 것과도 연결된다.

또한 용두산고분군은 구역이 분리되어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용호·용해·석국구역으로 분리되고 용해구역은 다시 8개의 대지로 세분된다. 각각의 대지 내 고분들의 피장자는 서로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바탕으로 피장자를 추정하거나 무덤 간의 선후관계 분석, 주무덤과 배장묘와의 관계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끝으로 다른 발해 시기 고분에서 확인된 적이 없는 독특한 구조물들에 대해 다루었다. 효의황후무덤에서 발견된 전감과 11호 무덤에서 발견된 목책 유사 시설물 등이다. 이는 발해 고분에서 첫 발견 사례로 현재 그 기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후 다른 시기, 다른 국가들의 유사 사례 등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 발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자는 아직 명확하게 고분 구조를 통한 선후 관계나 등급 차이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두산고분군은 왕과

25 2023년 자료 기준. 정석배 외, 2023, 앞의 책, 1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왕실 구성원들의 집단 매장지임은 분명하다. 개별 고분 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공간 분리, 석재와 벽돌을 사용한 묘실 및 묘도 축조 방식, 묘상 건축 등 일부 공통되거나 특수한 시설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글은 용두산고분군 발굴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초보적 연구에 불과하다. 이를 시작으로 추후 다양한 세부 검토 및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출토 유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기대된다. 그동안 발해 유물에 대한 여러 연구성과가 있었다. 다만 형식분류에 따른 편년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용두산고분군의 경우 묘지명 등을 통해 파악된 절대연대 자료가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발해 유물 편년 연구에도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편년 연구에 활용되는 유물은 대표적으로 토기 및 와당 등의 기와류가 있다. 다만 묘비가 출토된 고분의 경우 순목황후무덤에서 토기의 구연부나 동체부, 파수 등이 출토되었으나 확보된 수량이 많지 않다. 와당은 13·14호무덤의 묘상건축과 1호건축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대표적인 발해 기와 문양인 지두문기와나 각종 문양이 있는 암막새(암키와)류 등도 출토되어 다른 유적들에서 출토된 것과 비교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특수기와로 분류되는 치미, 용두, 곱새기와, 착고 등도 출토되었고, 특히 일부 기와 중 부호가 있거나 문자가 있는 문자와도 발견되어 향후 연구가 기대된다. 아울러 기와뿐만 아니라 전실묘, 전실탑묘, 동봉이혈전곽목관묘, 묘상건축물 등이 발견되면서 다수의 발해시기 벽돌도 확인된 상태이다. 벽돌도 문양이 없는 것도 있지만 각종 문양이 새겨져 있거나, 찍혀 있는 것도 있어서 이에 따른 분석 연구도 기대된다. 이 밖에 관식, 평탈 칠합과 칠렴, 삼채도용 등 다양한 유물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었다. 또한 정혜공주무덤이 발견된 육정산고분군, 상경도성 시기 대표적인 왕릉급 무덤군인 삼릉둔고분군, 상경도성 인근 최대 고분군인 홍준어장고분군 등 발해 시기 다른 고분군과의 비교 연구 역시 기대된다. 특히 고분군 내 발견된 방형건물지 역시 육정산고분군이나 홍준어장고분군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으나 연구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곽철환, 2003,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정석배 · 구난희 · 이병건 · 윤재운 · 김은옥 · 김영길 · 최슬기 · 최재경, 2023, 『발해유적총람 Ⅱ -중국지역2』, 예지안.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2021, 『발해고고학』. 진인진.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六頂山渤海墓葬-2004~2009年清理發掘報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 · 吉林大學考古學院 · 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 2004~2005 · 2008年發掘報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主編, 1984, 『和龍縣文物志』.

_____, 1985, 『敦化市文物志』.

魏存成, 2008, 『渤海考古』, 文物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7, 『六頂山與渤海鎭』,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寧安虹鱒魚場-1992~1995年度渤海墓地考古發掘報告』, 文物出版社.

齋藤優, 1978, 『半拉城と他の史蹟』, 半拉城史刊行會.

논문

구난희, 2019, 「발해의 고분 외곽 조영물에 대한 연구」, 『한국고대사탐구』 31권, 한국고대사탐구회.

김은옥, 2025, 「발해 상경성 주변 고분 고찰」, 『인문학연구』 제39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진광, 2012, 「홍준어장고분군의 사회적 지위 및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42, 고구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학회.
_____, 2018a, 「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발해 건국 집단의 분화·재편과정 검토」, 『인문과학연구』 56,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_____, 2018b,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선사와고대』 56, 한국고대학회.
박유정, 2019, 「발해 정효공주묘 전탑 출현의 의미」, 『한국사론』 65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_____, 2025, 「통일신라 및 발해 전탑의 현황과 출현 배경」, 『한국기와학보』 11호, 한국기와학회.
박윤무, 1994, 「룡두산발해구역내의 룡호무덤떼에 대한 고찰과 발굴」, 『발해사연구 4』,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박재복, 2009, 「발해 墓誌 양식의 형성배경과 영향」, 『동양고전연구』 34권, 동양고전학회.
송기호, 2010,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8, 고구려발해학회.
이현숙, 2022, 「백제 지진구의 현황과 의미」, 『마한·백제문화』 제40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최정범, 2019, 「渤海 王陵比定 試論」, 『한국고고학보』 제113집, 한국고고학회.
한정인, 2010, 「발해와 당의 묘제 비교: 정효공주묘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36, 고구려발해학회.

郭文魁, 1973, 「和龍渤海古墓出土的幾件金飾」, 『文物』 8.
金銀玉, 2011, 「寧安虹鱒魚場渤海墓葬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
劉曉東, 2012, 「渤海王陵及相關問題續論」, 『北方文物』 3.
_____, 2013, 「渤海 "珍陵" 問題的再檢討」, 『北方文物』 3.
李强,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6.

田村晃一, 2014, 「渤海王陵·貴族墓論(その2)-(『六頂山渤海墓葬』を讀んで)」, 『青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山史學』 32.

기타 자료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崖墓/6541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용두산 발해 고분군 묘제에 대한 초보적 검토

김은옥

용두산고분군은 발해 서고성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인 발해 시기 고분군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크게 3개의 구역(용호구역, 용해구역, 석국구역)으로 구분된다. 육정산고분군, 홍준어장고분군 등 그동안 발견된 대형급 발해 고분군들에 비해 발견된 개별 고분의 수량이 많지는 않다. 다만 각 고분의 등급과 피장자의 신분이 상당히 높은 무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전실탑묘, 묘상 건축, 묘역 구분, 묘비, 금제 유물, 관식 등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묘비명을 통해 절대연대가 확인된 3기의 무덤을 바탕으로 발해 시기 편년 연구의 기준이 생겼다.

이 글에서는 특히 무덤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축조 재료에 따라 토광묘, 석축묘, 전축묘, 전석혼축묘로 구분된다. 또한 구조 면에서는 수혈식토광묘, 석광봉토묘, 횡혈식석실묘 및 전실묘, 전실탑묘, 전곽목관묘, (유사)동혈묘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배치 형태에 따른 특징을 보인다. 대지에 따라 혹은 대지 안에서도 각각의 무덤이 짝이나 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용해구역은 대지에 따라 크게 군집이 나뉘는데, 그 안에서도 별도의 짝을 이루거나 혹은 위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무덤 간, 혹은 피장자 간의 관계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글은 초보적 연구에 불과하다. 각 무덤의 피장자 문제, 출토 유물 분석, 묘비명 해석, 각 무덤의 선후 관계, 기타 발해 고분군과의 비교 분석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추후 다양한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주제어: 발해, 용두산고분군, 묘제, 석실묘, 전실탑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Burial System of the Longtoushan(龍頭山) Balhae Tombs

Kim Eunok

The longtoushan Tombs Complex is a representative burial site from the Balhae period, located near the Seo-go castle of Balhae. It is broadly divided into three zones from north to south: Long-hu(龍湖), Long-hai(龍海), and Shi-guo(石國). Compared to other large-scale Balhae tomb complexes such as the Liuding-shan(六頂山古墳群) and Hongzun-yuchang(虹鱒魚場古墳群) tomb groups, the number of individual tombs discovered here is relatively small. However, many of the tombs appear to be of high grade and are believed to have belonged to individuals of significant status. This is inferred from features such as a tomb with a brick chamber and pagoda structure(塼室塔墓), structures built atop the tombs(墓上建築), clearly defined tomb precincts, tombstones, gold artifacts, and diadem ornaments.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tombs. Based on construction materials, the tombs are classified into earth pit tombs, stone-constructed tombs, brick tombs, and mixed brick-stone tombs. Structurally, they are categorized as vertical pit tombs, stone-pit mounded tombs, horizontal chamber tombs, brick chamber and pagoda structure(塼室塔墓) and brick-chambered tomb with multiple wooden coffins placed in separate burial pits under a shared mound. The layout of the tombs also shows distinctive patterns. Depending on the terrain, or even within the same plot, the tombs often form pairs or groups. In particular, the Long-hu(龍湖) zone is clearly divided into clusters based on the terrain, and within those clusters, tombs may be paired or show hierarchical differences. These features suggest possible relationships between the tombs or the individuals buried within them.

This study remains at a preliminary stage. There are still many issues to be addressed, includ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tomb occupants, analysis of excavated artifacts, interpretation of tomb inscriptions, determination of chronological relationships among the tombs,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Balhae tomb complexes.

Keywords: Balhae, Longtou-shan Tombs(龍頭山古墳群), Burial System, Stone chamber tomb, Brick chamber and Pagoda structure(塼室塔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03

용두산 고분군 내 묘상건축의 사례와 보고서의 '묘상건축'의 인식에 대한 검토

박유정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I. 머리말
II. 발해 묘상건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
III. 용두산 고분군 내 묘상건축 사례와 특징
IV.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서의 '탑장'과 '묘상건축' 구분에 대한 재고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용두산 고분군은 길림성 화룡시의 두도진(頭道鎭)에서 동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용두산에 소재한 발해 고분군이다. 용두산 고분군은 남쪽부터 석국(石國) 구역, 용해(龍海) 구역, 용호(龍湖) 구역으로 나뉜다.[1]

용두산 고분군은 1980년 용해 구역에서 정효공주묘가 발견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수 차례의 발굴 조사와 정리 등이 진행되며 정효공주묘 이외의 다른 고분 자료들의 양상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용두산 고분군의 구체적인 발굴 정보는 오랜 기간 알 수 없었다. 2009년 간보(簡報)[2] 형태, 즉 약보고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용두산 고분군의 발굴 결과가 공개되었으나 해당 간보에는 석국·용해·용호 구역 중 용해 구역의 정보만 수록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상세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25년 여름, 드디어 지난 발굴 조사 결과의 내용을 모두 담은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2004-2005·2008年发掘报告』(이하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로 약칭)가 간행되어 고분군의 양상과 특징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전 간보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었던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묘지의 전문과 사진 등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정효공주묘는 무덤에서 나온 묘지로 인해 피장자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지만, 그 상

---

* 투고: 2025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2004-2005·2008年发掘报告』, 文物出版社, 1~2쪽.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2009-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의 독특한 형태 역시 학계가 정효공주묘에 주목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정효공주묘의 상부에는 전탑의 기단부가 잔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탑이 무덤의 봉분을 대신하였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덤 상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상면에 시설을 하는 경우가 정효공주묘 이외에도 종종 확인된다는 점이 발해 고분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이처럼 무덤 상부에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묘상건축(墓上建築)'으로 지칭하고자 한다.[3]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에는 정효공주묘를 제외하고도 고분 상면에 봉분 대신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고분이 2기 더 존재한다. 바로 용해구역 M10호묘와 M13·14호묘이다. 이 중 M10호묘는 정효공주묘와 거의 동일한 구조이며 상부에 전탑의 기단부가 남아 있는 것 또한 동일하다. 상면에 초석이 남아 있는 용해구역 M13·14호묘에서는 고구려의 조우관과 유사한 금제 관식을 포함하여 많은 수의 금제 유물 등이 출토되어 처음부터 피장자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M13·14호묘 상면에 어떤 형태나 성격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용두산 고분군의 용해구역과 석국구역의 고분 중에서 묘상 건축물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사례는 상기한 바와 같이 3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봉분을 대신하여 전탑이나 건축물을 축조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고분이 3기나 같은 고분군에서 등장했다는 점은 결코 무시하고 지나가기 어려운 문제이다. 시야를 동아시아 세계로 넓혀 보면 묘상건축 문화가 발해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해 고분의 사례와 같이 현재까지도 건축물이 현존하며 심지어 피장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고분까지 존재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즉, 묘상건축이 용두산 고분군 내에서 차지하는 숫자는 적지만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성격에 대해 고찰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는 말미의 결어 부분에서 '탑장(塔葬)'과 '묘상건축(墓上建築)'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분석하

3 '묘상건축'의 정의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있다. 이는 기존 중국 학계의 연구와는 다소 논조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탑장'과 '묘상건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정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발해 묘상건축의 연구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고분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것이 확실한 용해구역 M10호묘, M13·M14호묘와 다량의 건축재료가 확인된 용해구역 M8, M9호묘의 사례를 정리·검토하고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4] 마지막으로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의 결어 부분 중 '탑장'과 '묘상건축'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고서에서 발해의 묘상건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의 연구를 위해 묘상건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발해 묘상건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

고분의 상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봉분 등의 상면에 시설을 하는 현상은 발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중국에서는 은대(殷代)에 이미 침(寢)의 성격을 띠는 건축물이 고분 상부에 축조된 사례가 확인되었다.[5] 그러나 침의 성격을 띤 건축물은 전한대(前漢代)가 되면 고분의 옆

4 단, 정효공주묘(용해구역 M1호묘)에 대해서는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 상세한 제원이 소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은대(殷代)에 고분 상부에 침(寢)을 축조한 예로는 하남성(河南省) 안양시(安陽市) 은허(殷墟)에 소재한 부호묘(婦好墓)나 대사공촌(大司空村) 11·12·301·311·312호묘, 그보다 늦은 시기의 사례이지만 하남성(河北省) 평산현(平山縣) 삼급향(三汲鄕)의 전국시대 중기 중산왕묘(中山王墓)와 하남성(河南城) 휘현(輝縣) 고위촌(固圍村)에서 발굴된 전국시대 위(魏) 왕릉 3기를 들 수 있다(신용민, 2008, 「中國 古代 帝陵과 三國時代 大形古墳 비교 검토」, 『석당논총』 4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위치가 이동된다.[6] 그렇기에 발해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원류를 은나라의 사례 등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성에 도읍을 두던 시기에 축조된 다수의 고구려 적석총에서는 적석분구의 상부와 주변에서 기와 등이 다량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왕릉급으로 여겨지는 초대형 적석총은 물론 중·대형 규모의 적석총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적석총 상부에 모두 건축물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매장주체부의 형태가 석광(石壙)이나 광실(壙室)을 취하고 있다면 상부에 기와를 사용하는 건축물이 올라가 있다고 상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산하(禹山下) 3319호분 내에서 발견된 '개묘와(盖墓瓦)'라는 명문 와당의 존재를 고려할 때 기와로 분구를 덮고 와당으로 끝을 마감한 '시설 처리'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출토 기와 중에서는 봉분의 상면이 아닌 천장석을 대신하는 것들도 있었다.[7]

고분 상부에 건축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고구려 적석총도 존재한다. 주공(柱孔)이나 철제 연결쇠 등 건축물과 관련된 흔적이나 유물이 발견된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구조상으로도 석실을 갖춘 계단식 적석총으로 기와 등이 사용되는 상당한 무게의 건축물을 지탱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적석총의 상부에 어떤 성격의 건축물이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향당(享堂), 능침(陵寢), 능각(陵閣) 등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나 발해처럼 탑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는 연구는 찾을 수 없다.[8] 또한 평

---

6 楊寬 著, 장인성, 임대희 譯, 2005, 『중국 역대 능침제도』, 서경, 43~45쪽.

7 강현숙, 2009, 『고구려 왕릉 연구』, 진인진, 74쪽; 주홍규, 2017 「고구려 기와로 본 경신리 1호분(소위 "한왕묘")의 조영연대와 피장자 검토」, 『한국사학보』 68, 고려사학회, 242쪽; 박유정, 2018, 「渤海 貞孝公主墓 塼塔 출현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쪽.

8 강현숙, 2009, 『고구려 왕릉 연구』, 진인진, 72~76쪽; 정호섭, 2009, 「高句麗 古墳의 造營과 祭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6~194쪽. 이형구는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의 상부에 향당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다른 고구려 적석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을 것이나 도성이 함락되며 불타거나 도굴로 인해 능각이 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양에 도읍을 하던 시기의 고구려 고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의 적석총 상부에 실제로 건축물이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고구려의 사례를 발해와 직접 연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발해 고분의 상면 등에 시설 혹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지칭할 때 '묘상건축(墓上建築)'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위존성(魏存成)의 경우 '묘상수건축(墓上修建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고,[9] 방학봉은 '묘상건축'이라는 용어로 관련 사례를 논하였다.[10] 후술할 중국 학계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묘상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국내 학계에서도 '묘상건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송기호는 '묘상 건축물', '묘상 시설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고분 상면에 건축물이 남아 있거나, 초석 등이 있어 건축물이 존재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와 등의 건축재료 등이 출토되어 시설물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지칭하였다. 또한 상술한 고구려의 사례를 고려하여 발해의 묘상 건축물은 말갈이 아닌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후 목탑이 상부에 축조되는 사례가 등장하였으며 당나라의 영향으로 전탑이 등장한다고 보았다.[11]

발해 고분은 축조된 지 오래되어 무너지거나 도굴 등으로 훼손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기와·와당·전돌 등의 건축재료가 출토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덤 상부의 시설이나 건축물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게 하는

손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이형구, 1992, 「高句麗의 享堂制度硏究」, 『동방학지』 3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8~11쪽).

9 魏存成, 1981, 「渤海王室貴族墓葬」, 『中國考古學會第3次會議論文集』, 文物出版社.

10 방학봉, 1994, 「10. 발해시기의 묘상건축에 대하여」, 『발해건축연구』, 연변대학출판사.

11 송기호, 2010,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8(2011, 「제 12장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 재수록, 360~36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건축물 혹은 그 기단부나 초석이 잔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재료가 출토되는 경우까지도 묘상건축의 사례로 포함하는 송기호의 개념 정의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에 따라 고분의 봉토 혹은 상면에 기와를 덮는 등의 시설을 하였거나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묘상건축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정영진은 '총상작옥(冢上作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발해의 묘상건축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총상작옥'의 사례로 고분 위에 시설물이나 그 기저부가 잔존하는 경우인 정효공주묘, 마적달탑 고분, 하남둔 고분, 삼릉둔 1호묘는 물론 고분 주변에 담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와 고분 위에서 전돌, 기와 등이 발견되거나 고분 앞에서 석주(石柱) 등이 발견되는 육정산 고분군과 용두산 고분군 내의 사례를 모두 묘상건축의 사례로 포함하였다.[12] 다만, 정영진의 주장처럼 고분 앞이나 주위의 시설물까지 모두 묘상건축의 사례로 포함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뿐만 아니라 능원(陵園)을 구성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중국 연구자들 역시 '총상작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묘상건축의 성격을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총상작옥'이란 『위서(魏書)』 물길전(勿吉傳)에서 등장하는 표현으로 말갈의 전신인 물길(勿吉)의 풍속에 대한 설명 중 "무덤 위에 지붕(혹은 집)을 지어 비에 젖지 않게 한다"라는 구절에서 등장하는 표현이다.[13] 즉, 발해에서 나타나는 묘상건축 전체나 일부의 연원을 말갈과 연결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위존성(魏存成)은 정효공주묘와 마적달탑고분처럼 고분 위에 시설물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경우와, 삼릉둔 1호묘, 하남둔고분 그리고 기와 등이 발견된 육정산 고분군의 일부 무덤에 주목하였다. 그중 주춧돌과 담장이 남아 있는 삼

12 정영진 외, 2006, 「고분 구조로 본 발해 문화의 고구려 계승성」, 『(연구총서 19) 고분으로 본 발해 문화의 성격』.

13 『魏書』 列傳 100 勿吉, "其父母春夏死, 立埋之, 冢上作屋, 不令雨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릉둔(三陵屯) 1호묘와 하남둔고분, 기와 등이 발견된 육정산 고분군의 일부 고분의 경우는 말갈 '총상작옥'의 영향으로, 고분 위에 탑이 있는 정효공주묘와 마적달탑 고분은 중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구분해서 보았다.[14] 유효동(劉曉東)은 본문에서 따로 묘상건축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삼릉둔 1호묘와 하남둔고분을 향당류(享堂類)의 건축으로 파악하며 말갈의 옛 습속이 잔존한 결과이자 동시에 한(漢)·당(唐) 묘제가 발해 묘제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보았다. 정효공주묘와 마적달탑 고분은 고분 상부에 탑을 세운 무덤(建塔)이라고만 밝히고 있다.[15]

화양(華陽)의 경우 대체로 고분의 상부에 시설물이나 그의 기저부, 혹은 고분 주위에 담장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경우를 묘상건축의 사례로 포함시켜 삼릉둔 1호묘, 용두산 M10호묘, 용두산 M13·M14호묘, 하남둔고분, 정효공주묘, 마적달탑고분, 정혜공주묘를 묘상건축의 사례로 보고, 묘상건축이 발해 최상층의 고분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보았다.[16] 왕지강(王志剛)의 경우 시설물이나 그 기저부의 잔존 여부, 기와·와당·벽돌 등의 출토유물, 그리고 고분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묘상건축이 확실한 경우,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세분하였고, 묘상건축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한 경우 역시 전탑[塼塔(磚塔)類]와 방지류(房址類)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왕지강은 육정산 고분군의 Ⅱ구역 M9호묘, 육정산 Ⅰ구역의 M1호묘, M3호묘, M4호묘, M5호묘, 용두산 고분군 용해 구역의 정효공주묘, 용해구역 M10호묘, 용해구역 M13·M14호묘, 하남둔고분, 마적달탑고분, 영광탑고분, 삼릉둔 1호묘, 칠도하촌(七道河村) 건축지를 묘상건축으로, 육정산 Ⅰ구역의 M7, M17과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의 M8을 묘상건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고분으로, 화룡시(和龍市)의 복동(福洞) 고분군과 장항(獐項) 고분군 중 다량의 건축용 기와나 자재가 발

14 魏存成, 1981, 앞의 글; 魏存成, 2008, 『渤海考古』, 文物出版社.
15 劉曉東, 1996, 「渤海墓葬的類型與演變」, 『北方文物』 1996-2.
16 華陽, 2015, 「渤海墓葬研究」, 吉林大學校博士學位論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견되는 경우를 묘상건축의 가능성이 있는 고분으로 보고 있다.[17]

이강(李强)의 경우 물길 총상작옥의 양상을 발해의 고분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18]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물길의 총상작옥, 발해의 묘상건축, 고구려 고분에서의 복와(覆瓦) 현상을 모두 구분해서 보고 있다. 이 중 발해의 묘상건축의 경우 물길과는 달리 계급성 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중원의 탑장문화 및 능침 건축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구려 후기의 왕릉에서는 기와를 덮는 현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해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19]

교우(喬雨)·양회려(梁會麗)는 육정산 고분군에서 묘상건축의 사례를 찾고, 해당 사례를 다시 방옥식(房屋式)과 복개식(覆蓋式)으로 구분하였다. 두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방옥식 묘상건축은 비교적 다량의 기와(암키와)가 발견되고 부분적으로라도 건축 구조가 확인되는 유형으로, 육정산 고분군의 ⅠM1, ⅠM3, ⅠM4, ⅠM5, ⅠM7, ⅠM17 등이 해당된다. 복개식 묘상건축이란 와당 등의 건축 재료가 발견되나 확실한 건축 실체를 보여주는 유적이 없는 것으로 기와 등이 단순히 무덤의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다. 육정산 고분군의 ⅠM2, ⅠM16, ⅡM8, ⅡM9, ⅡM45 등이 해당된다. 기준을 세워 묘상건축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으나 묘상건축의 연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말갈의 '총상작옥'과 중원 문화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20]

묘상건축 연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고분은 피장자와 축조연대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정효공주묘로 2000년대 이후에 정효공주묘에 대한 연구가 본

17 王志剛, 2014, 「"冢上作屋"的考古学诠释—渤海墓上建筑研究」, 『考古』 2014-6.

18 이강 저, 김진광 역, 2007, 「勿吉과 발해의 "冢上作屋"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 『고구려연구』 26.

19 白森·李强, 2015, 「勿吉"冢上作屋"與渤海"墓上建築" -兼談高句麗墓上覆瓦-」, 『慶祝魏存成先生七十歲論文集』, 科學出版社.

20 喬雨·梁會麗, 2022, 「六頂山渤海墓葬墓上建築相關問題研究」, 『黑河學院學報』 6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구체적인 실물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정효공주묘의 구조가 당나라의 갑자형(甲字形) 지궁(地宮)과 유사하며 8세기 당나라 장안 귀족들이 향유하였던 불교 문화인 '묘상수탑(墓上樹塔)' 문화가 발해에 전해진 결과 등장하였다고 보았다.[21]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서 영광탑이나 마적달탑 역시도 고분으로 재분류되기도 하였다. 박유정 역시 묘상건축을 총 세 개의 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그중 발해 묘상건축 중 전탑이 축조되는 경우는 당나라의 불교 문화, 특히 당(唐) 황실에서도 탑으로 분구를 대신하려고 했던 사례가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 당나라 최상층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22] 구난희는 '외곽(외부) 조영물'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분 상부에 건축물이 축조되는 경우를 다루었다. 다만, 돌담형, 탑파형, 금당형, 능원형으로 분류하여 고분 상부뿐만 아니라 고분 주변에 시설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23]

이상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대체로 탑과 같은 건축물 혹은 그 기단부가 잔존하는 경우나 초석이 있어 건축물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없이 묘상건축의 사례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외의 사례들에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소 판단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기와·와당·전돌 등의 건축재료가 발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묘상건축을 정의·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묘상건축의 판단 기준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묘상건축이 확인되는 발해 고분이 발해 최상층의 고분이라는 전제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 묘상건축의 연원을 크게 당(唐)과 물길(勿吉)에서 찾고 있다. 특히 탑이 현존하거나 탑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경우는 중국의 탑장 문

---

21 주경미, 2003,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西谷 正, 2005, 「渤海·塔基墓の背景」, 『東アジアの古代文化』, 大和書房; 한정인, 2010, 「渤海 貞孝公主墓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2 박유정, 2018, 앞의 글.

23 구난희, 2019, 「渤海의 古墳 外廓 造營物에 대한 硏究」, 『한국고대사탐구』 3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를, 초석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향당류 건축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역시 당으로 대표되는 중국 문화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물길의 '총상작옥'이라는 문화적 기반 위에 당나라의 문화가 더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도 강하다. 이는 중국 학계가 발해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국내 연구에서는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강조하지만 전탑이 축조되는 경우에는 당나라의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Ⅲ. 용두산 고분군 내 묘상건축 사례와 특징

용두산 고분은 1980년 연변조선족자치주 박물관이 유적 주변으로 다량의 전돌과 기와가 산재하고 있던 용두산 중턱에 위치한 유적 하나를 조사하면서 발견되었다. 연변박물관과 연변 문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적에 대해 1980년 10~12월, 1981년 5~6월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무덤 내부에서 묘지(墓誌)가 출토되어 발해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무덤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발굴 기간 동안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용두산 고분군은 인공적으로 평탄화한 대지를 몇 군데 조성하고 그곳에 2~3기 정도의 무덤을 축조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후 1985년 봄, 도굴 사건을 통해 석국 구역의 존재를, 1987년에는 용호촌 주민들에 의해 용호 구역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이듬해인 1988년, 석국·용해·용호 구역으로 구성된 용두산 고분군이 제3차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었다. 용두산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정리 작업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24]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두산 고분군의 발굴 결과는 오랜 기다림 끝에 2025년에야 정식 발굴보고서로 간행되었다. 보고서에서는 고분 17기, 건축지

2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앞의 책, 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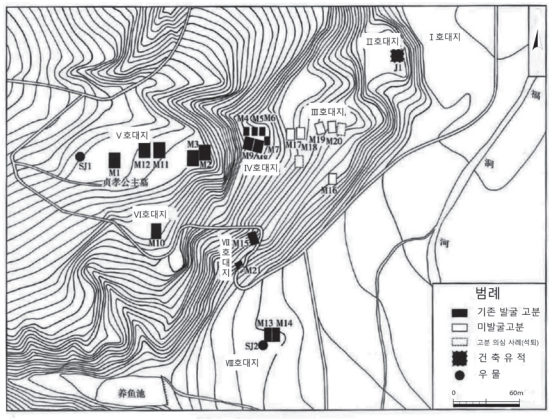


그림 1 용해구역 평면도[25]

1기, 우물 2기 등에 대한 발굴 결과를 구역과 대지에 따라 수록하고 있다.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를 통해 묘상건축물이 있었음이 확실한 2기(M10, M13·M14)의 무덤에 대한 상세한 정황과 제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용해구역 M8, M9호묘의 고분 상면 주변에서는 다량의 기와·전돌·석재 등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에 Ⅲ장에서는 용해구역 M10호묘와 M13·M14호묘 그리고 용해구역 M8, M9호묘의 발굴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용해구역 M10호묘[26]

용해구역 M10호묘는 6호 대지의 중앙에 위치한다(그림 2). 6호 대지에는 M10호묘가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다. 용해구역 M10호묘는 대형전실탑묘로 무

2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책, 12쪽.

2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책, 84~1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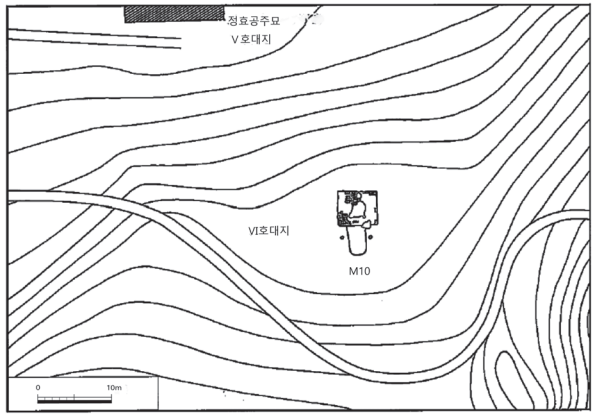


그림 2 용해구역 6호 대지 고분 분포도 및 지형도[27]

덤 상부의 전탑과 탑 아래의 매장주체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전탑은 이미 무너져서 탑기만 남아 있다. 전탑은 청전으로 축조하였는데, 무너진 상부의 전탑 주위로 약 100㎡에 걸쳐 전돌(靑磚)[28] 등이 산재해 있다. 탑기의 평면은 '回자형'이다. 잔존하고 있는 전탑 탑기의 규모는 길이 6m, 북쪽 1.65m, 서쪽 1.4m이다. 동쪽과 남쪽은 파괴가 심하여 규모를 알 수 없다.

전탑의 아래에는 매장주체부가 있다. 묘도의 방향은 183°이다. 묘도의 길이는 5.5m이고 너비는 1.85~2.25m이다. 8개의 계단이 있으며 계단 한 칸의 높이는 0.2m, 너비는 0.5m이다. 묘도는 황화토로 채워져 있었다. 묘도의 북쪽 끝에는 묘문이 있었는데 묘문에는 불규칙한 형태의 도굴갱이 확인된다.

---

2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 · 吉林大学考古学院 · 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책, 85쪽.

28 이 글의 분석 대상인 고분들에 사용된 전돌은 거의 예외 없이 '청전'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전돌로 통일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3 용해구역 M10호묘 탑기 전경[29]

현실의 평면은 장방형을 띠고 방향은 186°이다. 현실의 규모는 남북 길이 3.45m, 동서 너비 1.9m, 높이 2.1m이다. 천장은 4개의 대형 석판을 이용하여 형성하였는데 중앙 부분이 이미 무너져 떨어졌으며 북쪽에는 현대에 생긴 구덩이가 확인된다. 현실의 네 벽은 2개 층으로 나뉘는데 바깥쪽은 석재로 축조하였으나 안쪽은 전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현실의 바닥에도 한 층으로 전돌을 깔았으며 현실 중앙에는 청전을 2개 층으로 깔아 관대를 형성하였다. 관상 위에는 백회를 발랐다. 관상의 규모는 남북 길이 2.7m, 동서 너비는 현실의 규모와 동일하고 높이는 0.2m이다. M10호묘는 도굴로 인해 피해가 컸다. 이로 인해 인골은 크게 교란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내부의 부장품 수량도 많지 않다. 현

2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 · 吉林大学考古学院 · 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앞의 책, 채색도판 5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정효공주묘와 용해구역 M10호묘[30]

(단위: cm)

고분명		貞孝公主墓	용해구역 M10호묘
현실	형태	장방형	장방형
	규모 (길이×너비×높이)	310×210×(140~166)	345×190×210
	시상/관대	240×145×40 (깊이×너비×높이)	270×190×20
	장축 방향	남향 170°	남향 183°
	천장	전돌 3단 평행고임+판석	4장의 대형 판석을 이용해 축조. 중앙 부분은 이미 무너져 떨어짐
	바닥 시설	전돌	전돌(청전)
	축조 재료	판석, 전돌	판석, 전돌
연도	위치	중앙	–
	크기 (길이×너비×높이)	190× [160(南)~170(北)] ×180	–
묘도	형태	계단식	계단식
	위치	중앙	중앙
	크기 (길이×너비)	710×[330(北)~575(南)]	550×(185~225)
탑	형태	空心/方形	空心/方形[31]
	크기 (길이×너비×높이)	565×550×150(잔존)	600×[140(西)~165(北)]×?
	기타	–	파괴가 심하여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움
벽화		有	無
인골		총 31개체 [2人(여성·남성)에 해당]	크게 교란된 상태. 하악골 확인됨
기타		묘문과 묘지가 있음, 탑기만 잔존, 도굴됨	묘문이 존재함. 도굴됨

30 〈표 1〉의 제원은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渤海贞孝公主墓发掘清理简报」,『社會科學戰線』1982-1,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과『용두산 고분군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1 초석의 배치가 回자형이라는『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의 설명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나 전탑의 기단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사진 및 도면상으로는 그 형태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실 내에서는 우선 삼채 도용이 확인되었는데, 복원 가능한 여성 도용 5점, 역시 복원 가능한 남성 도용 1점, 일부 복원이 불가능한 여성 도용 5점, 남성 도용 3점, 도용편 14점 등이다. 도금한 장식품도 27점 확인되는데 형태에 따라 일곱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도금한 청동못은 6점, 옥제 사자 2점, 골기, 칠기 등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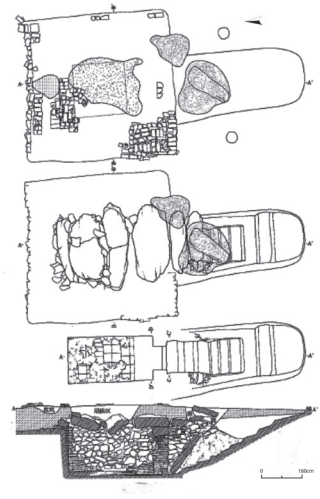


그림 4 용해구역 M10호묘 평·단면도[32]

고분 상부, 탑의 기초부 및 주변 지역에서 다량의 철기와 전돌이 발견되었다. 철제 부재는 11점, 철정은 47점인데 철제 부재 중에는 걸이나 고리 형태를 띠는 것이 있다. 전돌은 47점이 출토되었는데 문양이 없는 무문 방형전부터, 화문 등 다양한 문양을 띠는 방형전 등이 출토되었다. 장방형, 규형의 전돌이나 경사진 형태, 이어진 형태, 부호나 동물의 발톱 문양 등이 있는 전돌 등도 확인되었다.

상세한 제원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정효공주묘와 유사하다고 했던 2009년의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이하 「간보」)의 설명처럼 용해구역 M10호묘는 전반적으로 정효공주묘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다. 현실의 규모는 용해구역 M10호 묘가 조금 더 크다.

3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앞의 책, 8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용해구역 M13·M14호묘[33]

용해구역 M13·M14호묘는 8호 대지에 위치한다(그림 5). 8호 대지는 용해구역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M13·M14호묘에 대해서는 2005년에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사분법을 이용하여 네 구역으로 나누어 발굴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유적의 서쪽으로 2개의 도랑을 십자가 형태로 배치하여 발굴 구역을 일부 확장하였다.

M13·M14호묘는 판축으로 형성된 장방형의 대지 위에 초석이 회자형(回字形)으로 배치되어 있다. 초석은 바깥쪽과 안쪽에서 각각 한 바퀴를 도는 형태로 바깥쪽에 18개, 안쪽에 10개가 배치되어 있다. 대지의 규모는 동서 21.5m, 남북 17.5m, 최고 높이는 1.5m이며, 안쪽 부분이 바깥쪽보다 약간 높다. 매장주체부는 판축 대지의 중앙에 형성되어 있다. 초석의 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직경은 1.25~1.5m, 두께는 0.3m 이상이다. 초석 중 일부는 원래 위치에서 이탈한 것도 있으나 초석의 원래 위치를 알려주는 잔돌 등이 남아 있어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판축 대지의 각 변은 전돌, 얇은 석판, 작은 돌 등으로 덮여 있다. 남쪽과 북쪽 정중앙에는 가장자리가 전돌로 덮인 경사가 진 길이 확인되는데 그 규모는 남쪽 길이 2.2m, 너비 1.6m, 북쪽은 길이 약 2m, 너비 1.5m이다. 다만 훼손이 심해 계단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판축 대지 주변으로는 돌무더기, 우물, 담장 기초부 등이 확인된다.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M13·M14호묘가 남북 길이 43.5m, 동서 너비 46.5m, 둘레 약 180m 규모의 별도 묘역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M13호묘는 토광을 파고 전돌로 곽을 형성하여 매장주체부를 조성하였다. 목관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어 목관을 사용하였던 것도 파악할 수 있다. 매장주

3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책, 109~16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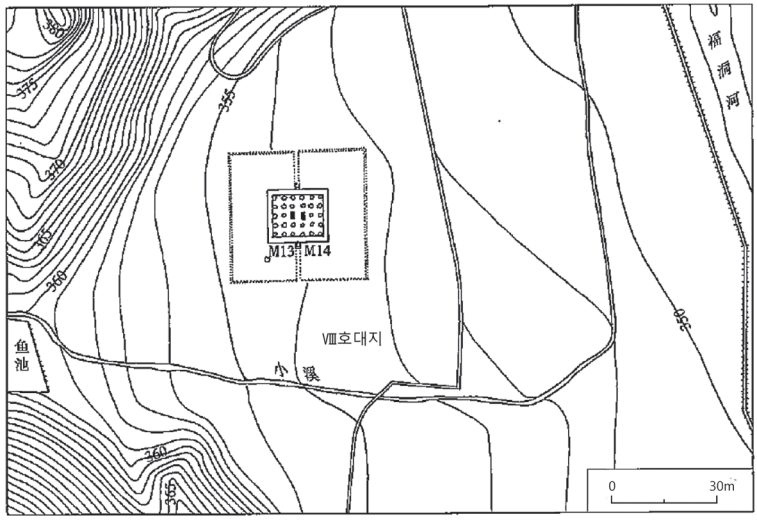


그림 5 용해구역 8호 대지 M13·M14호묘 지형도[34]

체부의 방향은 178°이다. 토광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남북 길이는 3.6m, 동서 너비는 1.9m, 잔존 깊이는 1.7m이다. 서벽 외측에는 반원형의 얕은 갱 2개가 있는데 그 용도는 알기 어렵다.

전곽은 전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 형태는 역시 장방형이고 규모는 남북 길이 2.36m, 동서 너비 0.8~0.85m, 높이 0.8m이다. 전곽의 천장은 얇은 석판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내부에서는 인골이 확인되었다. 금팔찌, 금비녀 등 여러 금제품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부장품 등을 보았을 때 M13호묘의 피장자는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M14호묘는 M13호묘의 동쪽에 위치한다. M13호묘와 M14호묘 사이의 거

3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책, 11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는 1.8m이다. M14호묘의 축조 방법 및 방향은 M13호묘와 동일하다. 토광의 평면은 장방형이며 남북 길이 2.9m, 동서 너비 1.4m, 잔존 깊이 1.6m이다. 북쪽으로 역시 얕은 구덩이가 있으나 그 용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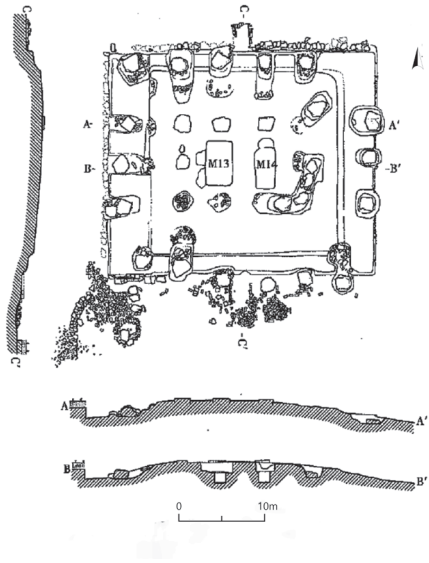


그림 6 M13·M14호묘 묘상건축 평, 단면도[35]

전곽의 형태 및 축조 방식 역시 M13호묘와 동일하다. 규모는 남북 길이 2.3m, 동서 너비 0.8~0.9m, 높이 0.8m이다. 내부에서는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며 인골도 확인된다. 다수의 금제 유물과 옥대 등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M14호묘의 피장자는 남성일 것으로 추정된다.

M13·M14호묘의 판축 대지와 주변부에서는 구연부 등을 포함한 토기편 25점, 삼채토기 3점, 장식(도금제 포함) 16점, 금속기로 철정 79점, 철기 14점, 철도 등이 3점 확인되었다. 또한 묘상건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물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치미가 17점, 짐승머리장식(獸頭)이 편의 형태로 36점, 기타 장식이 3점, 와당이 7개 형식으로 총 87점, 수키와(筒瓦)가 18건, 암키와(板瓦)가 19건, 기타 기와류가 5점 확인되었다. 그리고 방형, 규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진 전돌이 다량 확인되었다.

3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책, 1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M13호 매장주체부 내에서는 금제 혹은 은제 유물이 8점, 동기 106점, 칠기 4점, 철기 250점, 기타 1점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칠기가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M14호의 매장주체부 내에서는 금제 유물이 19점, 옥제 유물이 18점, 철제 유물이 47점 확인되었다.

3. 용해구역 M8, M9호묘[36]

용해구역 M8호묘와 M9호묘는 모두 Ⅳ호 대지 남측에 위치하는데 두 고분 간의 거리는 불과 1~1.6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 M8호묘의 묘도의 평면 형태는 나팔형에 가깝고, 방향은 172°이다. 묘도는 계단식이 아니며 경사도 역시 완만하다. 묘도의 길이는 5.7m, 너비는 1.6~2.3m이고 내부는 흙과 석재로 충전되어 있었다. 묘도 양측에는 한 층의 석벽이 잔존해 있었는데 백회를 발랐으나 대부분 박락되었다.

묘문은 대형 석판 2매를 세워 축조하였다. 봉문석에는 두께 0.65m의 석축 보호벽(擋墻)이 있고, 그 위쪽에는 석판 한 매를 비스듬히 놓아 봉문석에 기대게 하여 봉문석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보호벽 아래에는 전돌을 두 줄로 깔아 바닥을 포장하였고 역시 표면에는 백회를 발랐다. 묘문 안쪽에는 묘도와 묘실을 연결하는 연도가 있으며 바닥은 역시 전돌을 두 줄로 배치하여 포장하였다. 연도의 동서 길이는 0.85m, 남북 너비는 0.75m이다.

현실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길이 3.05m, 너비 1.85m, 높이 1.9m이다. 내·외 2개의 층으로 축조되었는데, 외층은 석축으로 두께는 1.3~2.1m이고, 내층은 전축으로 두께는 0.2m이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보통이며, 동·서 양벽의 상부는 모두 이미 붕괴되었다. 현실의 천장은 직사각형 대형 석판 5매로 덮었으나, 이미 다수가 부서져서 현실 내로 무너져 떨어져 있었다. 현실의 바닥은

3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책, 39~5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평탄하며 황색 점토로 한 층을 깐 것이 확인된다. 현실 내부의 훼손이 심하여 관상이 있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현실 내부에서는 최소 두 개체분으로 파악되는 인골이 확인되었으나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발견 당시에도 인골이 현실 내에 흩어져서 분포해 있었다. 소량의 토기와 철기 등과 장구가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도굴로 인해 교란이 심한 탓에 남아 있는 유물이 많지 않고 인골도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부에서는 후대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숭녕중보(崇寧重寶)' 1매도 출토되었다.

M8호묘 천장 상부 지표면에는 전돌·기와·석재로 축조한 방형에 가까운 묘역이 형성되어 있다. 그 규모는 남북 6.9m, 동서 6.5m이다.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서는 매우 인접하여 축조된 M8호묘와 M9호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부구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각의 무덤이 매장주체부와 봉토를 독립적으로 축조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를 고려할 때 용해구역 M8호묘의 경우 정효공주묘나 용해구역 M10호묘, 용해구역 M13·M14호묘처럼 봉토 대신 건축물을 세웠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봉토 상면에 시설을 했을지도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량의 건축재료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함께 정리하였다.

M9호묘는 Ⅳ호 대지 서남측에 위치하며 M8호묘와 인접한 석실묘이다. 묘도의 평면은 혀 모양이며, 방향은 172°, 길이는 4.55m, 너비는 0.95~1.85m이다. 묘도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내려오다가 중간 부분에 5단의 계단을 조성하였다. 각 단의 너비는 0.6m, 높이는 0.065m이다. 묘도 내부는 토석이 혼합된 충전토로 채워진 상태였다.

묘문은 대형 석판 1매로 봉쇄하였다. 발굴 당시 봉문석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고, 하단부가 미끄러져 현실 내부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봉문석 바깥에는 두 층으로 석재를 쌓아 형성한 낮은 보호벽이 있고 그 위에 석판 1매를 비스듬히 놓아 봉문석에 기대게 하여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묘문 안쪽에는 연도가 있다. 남북 길이는 0.6m, 동서 너비는 0.85m이다.

현실 평면은 장방형으로, 길이는 3.45m, 너비는 2.05m, 높이는 1.75m이다. 현실의 네 벽은 석재를 정연하게 쌓아 축조하였으며, 동벽 두께 약 2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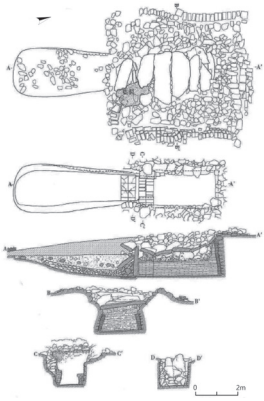


그림 7 용해구역 M8호묘 평·단면도[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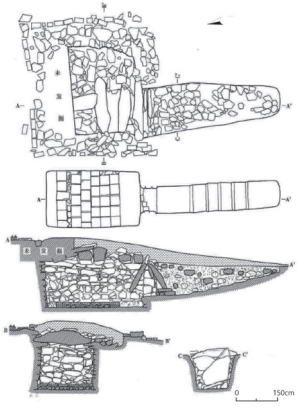


그림 8 용해구역 M9호묘 평·단면도[38]

서벽 두께 약 0.8m로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무덤 천장 북측 일부는 발굴하지 않았으며 발굴된 구간의 천장은 가늘고 긴 석재 4매와 석판 1매로 덮여 있다. 현실의 바닥은 생토면으로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

관대는 현실 중앙에 위치하며,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남북 길이는 2.3m, 동서 길이는 묘실 너비와 동일하며 높이는 0.2m이다. 관대는 전돌, 흙, 석재를 혼합하여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 내부는 도굴로 인해 역시 교란이 심하다. 장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현실의 동북쪽과 서남쪽에서 각각 두개골 1점과 소량의 사지골 등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부장품으로는 소량의 토기 및 철기 잔편 등이 확인되었다.

M9호묘의 천장 상부 지표면에도 M8호묘와 같이 전돌·기와·석재로 축조한 장방형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남북 4.7m, 동서 5.2m이다.

---

3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책, 42쪽.

3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책, 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특징

용두산 고분군 내에서 묘상건축 사례는 용해구역에서만 확인된다. 용해구역 M10호묘와 M13·M14호묘의 경우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으로 축조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정효공주묘(M1)의 경우 다른 무덤들과 함께 존재하지만, 고분군 중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탑 혹은 건축물을 축조하는 묘상건축의 경우 입지 면에서도 다른 고분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효공주묘와 용해구역 M10호묘는 계단식의 묘도, 연도, 그리고 현실을 갖춘 전실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용해구역 M13·M14호묘는 2개의 전곽이 하나의 대지 아래에 조성된 동봉이혈합장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돌을 사용하여 매장주체부를 조성하였으며 벽면이나 바닥, 관대 등에 백회 등을 바른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벽화는 정효공주묘에서만 확인된다.

무덤의 일부는 석재를 활용하여 축조하는 모습 또한 확인된다. 정효공주묘, 용해구역 M10호묘, 용해구역 M13·M14호묘는 모두 현실의 천장을 여러 개의 석판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또한 용해구역 M10호묘의 현실은 벽의 안쪽 면은 전돌로, 바깥쪽 면은 석재로 축조하였다. 즉, 중원의 영향을 받아 전묘 계열이 축조되었으나 석묘의 전통을 일부 계승하였거나 혹은 축조 과정에서 전돌 사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을 석재로 보강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효공주묘와 용해구역 M10호묘의 경우 전탑의 기단부 혹은 탑기 일부가 남아 있어 묘상건축물로 전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해구역 M13·M14호묘의 경우 상부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는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2009년의 「간보」에서는 회자형(回字形)의 초석 배치가 상경성 9호 절터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사찰로 보았다.[39] 구난희 역시 용해구역 M13·M14호묘의 초석 배치와 규

3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앞의 글, 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가 상경성 사찰지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금당형으로 분류하였다.[40] 당나라에서 무덤 위에 탑을 세웠던 문화가 유행했던 점을 고려하여 상부의 건축물을 목탑(木塔)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41] 왕지강은 M13·M14호묘 상부에 전탑이 아닌 건축물(房址類)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건물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42] 용두산 고분군 발굴 보고서에서는 묘상 건축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고, 다만 담장과 정원 그리고 속 시설을 거느린 존재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용해구역 M13·M14호묘의 묘상 건축물의 성격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 등장하여 주목된다.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를 통해 고분에서 출토된 기와 등의 상세 제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용해구역 M13·M14호묘에서는 치미와 용두 등이 출토된 점이 눈길을 끈다. 고분에서 치미, 용두 등이 출토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건물지 혹은 사찰 유적에서 출토된다.[4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해구역 M13·M14호묘의 평면 구조가 발해 상경성의 사찰지와 유사하기도 하다.[44]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용해구역 M13·M14호묘의 상부에는 목탑이 아닌 금당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면 전묘 계열에서 등장하는 발해의 묘상 건축물의 성격은 불교적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과 크게 전탑과 사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묘상 건축물이 축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분의 상면에 봉분을 형성하지 않고 불교적 건축물을 축조한 것에는 당연히 추모의 목적이 강하게 담겨

---

40 구난희, 2019, 앞의 글, 82~86쪽.

41 송기호, 2010, 앞의 책, 363쪽. 박유정 역시 回자형 초석이 반드시 사찰 혹은 금당의 하부구조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박유정, 2018, 앞의 글, 11쪽).

42 王志剛, 2014, 앞의 글, 84쪽.

43 최슬기, 2025,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의 특징과 의의」, 『용두산 발해왕실 고분군 학술분석 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 41~43쪽.

44 구난희, 2019, 앞의 글, 82~8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묘 계열은 통상적으로 중원 문화의 영향을 드러내는 요소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묘상 건축물의 성격이나 매장주체부 모두 당나라로 대표되는 중원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추정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고분의 봉토를 대신해서 탑이나 금당을 축조하는 사례를 당나라의 고고 자료 중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8세기 대 장안 귀족들 사이에서 묘상수탑(墓上樹塔)의 문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그것이 실물로 확인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하며 금당이 축조되는 경우는 더더욱 찾기 어렵다.[45]

다만, 묘상 건축물로 전탑이 등장하는 경우, 해당 고분의 지하구조는 당나라의 갑자형(甲字形) 지궁(地宮)과 거의 동일하고 이러한 갑자형 지궁은 당시 최상층의 무덤 구조, 즉 당나라 황실의 무덤 구조와 형태가 동일하다. 아울러 실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8세기 후반 당나라의 황실에서도 고분의 상부에 봉분 대신 탑을 축조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탑을 축조한 사례가 등장하기도 한다. 당나라 덕종(德宗)이 요절한 자식들인 숙왕(肅王) 상(詳)과 당안공주(唐安公主)를 위해 탑을 짓고자 했거나 실제로 축조에 이르는 모습이 사료상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46]

용해구역 M8호묘의 경우도 현실의 벽체를 내·외의 이중 구조로 나누어 외부는 석재로 내부는 전돌로 축조하였다. 용해구역 M8호묘와 M9호묘의 주변에는 전돌·기와·석재로 축조한 방형 혹은 장방형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어 고분 상

45 상소화(桑紹華)·장온(張蘊)(1988, 「西安出土文安公主等墓志及郭彦塔銘」, 『考古與文物』 1988-4, 陝西省考古研究所)이 보고한 왕유(王維) 어머니의 사례와 곽원성(郭元誠) 부부의 사례가 있으나 이들 역시 실물이 현존하지는 않는다.

4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유정, 2018 앞의 글의 三장을 참조. 다만, 발해 최상층의 고분 중 일부 고분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박유정은 당시 혼란한 정치적·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효공주묘가 축조되었다고 보았다(박유정, 2018, 앞의 글, 38~41쪽). 묘상 건축물이 나타나는 다른 고분들도 이에 준해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며,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이나 그 주변에서 다량의 건축재료가 발견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용해구역 M8, M9호묘 주변에서 발견된 전돌·기와·석재 등의 건축재료는 묘역을 시설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분명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무덤 상부나 봉분의 상면 등에 시설이나 건축물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Ⅳ.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서의 '탑장'과 '묘상건축' 구분에 대한 재고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의 결어 부분에서는 "4-3. 탑장의 문제에 관하여"와 "4-4. 발해 묘상건축의 문제에 관하여"라는 두 부분을 통해 흔히 발해에서 묘상건축이라 지칭되는 존재들의 성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우선 4-3, 4-4 부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3 탑장의 문제에 관하여

① 발해 고분의 숫자는 수천 기에 이르지만 탑장의 형식을 차용한 고분은 용해구역 M1호묘(정효공주묘)와 용해구역 M10호묘에 불과하다.

② 정효공주묘지 및 효의황후묘지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스스로를 '금륜성법대왕'에 비유한 발해 문왕과 그 부인인 효의황후는 불교를 숭신했던 인물로 보인다.

③ 이러한 발해 문왕과 효의황후 성향은 정효공주묘가 탑장을 차용하여 축조되게 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④ M10호묘의 피장자를 알려주는 문자자료는 없지만 도금된 장식 등의 부장품의 수준을 볼 때 문왕과 효의황후의 사이의 다른 공주로 판단되며, 그렇기에 고분의 형식이 정효공주묘와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다.

⑤ 당나라 시기에 세속에서 탑장의 형식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마적달탑이나 영광탑의 지궁 등을 고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정효공주묘와 용해구역 M10호묘, 마적달탑, 영광탑 등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⑥ 그러나 정효공주묘 및 용해구역 M10호묘의 경우 발해 왕실 구성원의 무덤이고 마적달탑과 영광탑의 지궁은 승골(僧骨)을 안치한 곳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4-4 발해 묘상건축의 문제에 관하여

① 용해구역 M13·M14호묘는 판축 대지 가운데에 매장주체부로 전곽을 배치하고 묘도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판축 대치 위에는 건축물을 축조한 형태로 하남둔 고분이나 돈화 육정산 고분군 Ⅰ M3호묘와 유사하다.

② 학계에서는 고분 상부 등에서 건축과 관련 자재 혹은 부재(기와, 초석 등)을 발견한 경우와 용해구역 M13·M14호묘의 유형을 혼동하거나 물길의 총상작옥이나 고구려의 무덤 위에 기와를 덮는 풍습과 섞어 오해하였다.

③ 용해구역 M13·M14호묘는 초석이 있지만 긴 묘도가 함께 발견되는 삼릉둔 1호묘와도 같지 않고, 초석은 있고 묘도는 없으나 묘문이 확인되는 교하 칠도하촌 발해 고분과도 다르다.

④ 이러한 현상은 물길의 '총상작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중원의 높은 등급의 능묘 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후대의 사람이 망자를 위해 능침을 건립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용해구역 M13·M14호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발해 시기의 자료를 잘 보여준다.

4-3과 4-4의 내용을 보면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의 필자는 발해 고분 상부에 탑이 축조되는 경우는 '탑장'이라는 별도의 존재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왕실구성원이 '탑장'을 차용한 경우(정효공주묘, 용해구역 M10호묘)와 승탑 혹은 불탑에 가까운 성격의 존재(마적달탑 고분, 영광탑 고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마적달탑 고분이나 영광탑 고분을 승탑으로 판단할 만한 확실한 근거 역시 부족하다. 발해 고분 중에서 전탑을 세운 것이 확실한 고분이 2기나 발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적달탑과 영광탑 역시 승려가 아닌 발해 최상층의 무덤일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자는 탑장과 묘상건축을 구분하여 보고 있다. '탑'이라는 존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고분의 상부에 봉분을 대신하여 건축물을 축조한다는 점에서는 양자의 프로세스가 동일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의 필자는 묘상건축이 나타나는 경우에서도 세세하게 나누어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용해구역 M13·M14호묘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묘상건축의 예시는 하남둔 고분 및 돈화 육정산 고분군 Ⅰ M3호묘에 그치며, 이 외에 초석이나 건축 자재가 나타나는 고분이라고 할지라도 구조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역시 동일한 유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보고서의 필자는 발해 고분 상부에서 탑이 나타나는 경우는 탑장으로 보고, 용해구역 M13·M14호묘를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능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의 필자가 이처럼 판단한 것은 결어 부분에서는 그 상세한 이유를 읽어내기 어려우나 주편(主編) 이강(李强)의 예전 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강은 2010년의 연구에서까지만 해도 물길의 총상작옥 현상을 발해 고분에서 찾고자 시도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 발해 묘상건축과 물길 문화의 연결성을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2015년 연구에서는 물길의 총상작옥은 보편적인 풍습으로 계급성을 반영하지 않은 문화라고 보았고, 발해의 묘상건축은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계급성을 반영한다고 보았으며, 고구려의 경우 그것이 기와를 덮는 문화(覆瓦)에 그치며 특히 고구려 후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드러내어 발해 묘상건축의 연원을 중원문화와만 관련 짓고 있다.[47]

다만 보고서의 기준과 같이 판단한다면 발해 묘상건축의 사례를 모두 아우르거나 특징을 도출해내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필자가 동일한 유형이라고 판단한 용해구역 M13·M14호묘와 하남둔 고분 그리고 육정산 고

47 白森·李强, 2015, 앞의 글, 31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군 ⅠM3호묘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남둔 고분은 전축한 2개의 매장주체부가 같은 봉토 아래에 위치한 형태이며 현재는 파괴로 인해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 매장주체부 위에 동서 28m, 남북 20m, 높이 2m 정도의 커다란 흙둔덕 위에 동서 방향으로 초석이 30여 개(혹은 20여 개) 놓여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사 당시 고분 앞쪽으로 약 1m 정도 떨어진 수혈에서 건축재료가 출토되었다.[48] 고분 상부의 초석 배치와 매장주체부의 양상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남둔 고분은 용해구역 M13·M14호묘와 거의 유사할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정산 고분군 ⅠM3호묘의 경우 토광묘로 앞의 두 고분과는 축조재료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3기의 무덤을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발해 고분에서는 상부에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지 않더라도 봉토 상면을 덮는 시설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고분이 다수 존재한다. 〈표 2〉는 용해구역 고분군을 제외한 다른 발해의 고분 중 기와·와당·전돌 등이 발견된 경우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와 같이 발해의 고분 중에서는 기와, 와당, 전돌 등이 출토되어 상면에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고분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존성, 왕지강, 교우·양회려 등 역시 일찍부터 묘상건축의 사례에 기와, 와당, 전돌 등이 출토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49] 필자의 기준대로라면 이러한 무덤들은 모두 묘상건축의 사례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와·와당·전돌 등의 건축재료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 묘상건축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고구려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고분의 상면에는 충분히 시설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발해 고분 문화의 특성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의 제목처럼 용두산 고분군의 경우 발해 왕실의 묘

48 송기호, 1998, 『발해를 다시 본다』, 주류성;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 42(중세편 19) 발해의 무덤』, 진인진, 156~157쪽.

49 魏存成, 1981, 앞의 글; 魏存成, 2008, 앞의 책; 王志剛, 2014, 앞의 글; 華陽, 2015, 앞의 글; 喬雨·梁會麗, 2022,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기와·와당·전돌 등이 발견되는 발해 고분[50]

	위치	古墳名	구조	출토된 건축재료	墓上建築의 양상	비고
1	吉林省 蛟河市	七道河村 유적지	석실묘 /석곽묘	다량의 수키와, 암키와, 와당	상부에 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塔址의 평면구조와는 차이가 있음 상면 형태는 아래, 2~4번과 유사함	원래 사찰지로 추정됨
2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 M1	석실봉토묘	수키와(8) 와당(4), 전돌(2),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
3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 M2	석실봉토묘	암키와 (봉토 중), 전돌	봉토 중에서 기와가 섞여 나온 것으로 보아 봉토를 형성하였거나 상면을 덮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貞惠公主墓
4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 M4	석실봉토묘	와당(2), 전돌(1),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
5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 M5	석실봉토묘	수키와(1), 암키와(1), 와당(10), 전돌(6),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
6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 M16	석곽봉토묘	암키와 殘片 (19)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분 구조상 건축물이 존재하기 어려움
7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 M19	광실묘	수키와(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움	–
8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 M28	광실묘	수키와(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움	–
9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Ⅰ M68	토광묘	암키와(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움	–
10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 M1	광실묘	암키와 잔편 (묘실내, 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움	–

50 〈표 2〉는 박유정, 2018, 앞의 글의 [附表 1]을 인용한 것이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용해구역 고분군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王承禮, 1979, 「敦化六頂山渤海墓淸理發掘記」『社會科學戰線』 1979-3, 吉林省社會科學院;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六頂山渤海墓葬-2004~2009年淸理發掘報告』, 北京: 文物出版社; 王志剛, 20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 M8	토광묘	암키와(3), 와당(1)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분 구조상 건축물이 존재하기 어려움
12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 M9	토광묘	수키와(2), 암키와(18)	봉토 상면을 덮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분 구조상 건축물이 존재하기 어려움
13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 M45	토광묘	와당(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움	–
14	吉林省 敦化市	六頂山 고분군 Ⅱ M61	토광묘	암키와(1)	출토 수량이 적어 용도를 논하기 어려움	–
15	吉林省 安圖縣	仲坪 M6호묘	석곽묘	암키와(3), 다량의 기와편	봉토를 형성 / 관이나 곽을 덮음	–
16	吉林省 和龍市	獐項 고분군	석실봉토묘 (2기)	기와, 전돌	장항고성의 유물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17	吉林省 和龍市	福同 고분군	?	다량의 기와편	확인된 3기의 고분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고분에서 다량의 기와편이 발견되었으나 용도 불명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18	吉林省 龍井市	英城 고분군	석곽묘	암키와(1)	고분군 인근의 건축유적 및 성터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총 7기의 고분 중 1기만 보고됨
19	吉林省 龍井市	龍岩 고분군	석실봉토묘 (추정)	기와, 와당 등	인근에 위치하는 발해시대 仲坪遺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지로 유력하게 여겨지는 곳이다. 또한 그 축조연대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문왕 재위기를 거쳐 당나라 등 다양한 문화가 발해

「"冢上作屋"的考古学詮釋—渤海墓上建築研究」, 『考古』 2014-6,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彭善國, 2010, 「蛟河七道河村渤海遺址属性辨析」, 『東北史地』 2010-3, 吉林省社会科学院;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安圖縣文管所, 2007, 「吉林安图县仲坪遗址发掘」, 『北方文物』 2007-4, 黑龍江省: 北方文物杂志社;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4, 『和龍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吉林省文物志編委會 主編, 1983, 『龍井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李正鳳·李强, 1986, 「吉林龍井英城渤海古墓」, 『博物館研究』 1986-1, 吉林省博物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유입되고 시행·변용되기도 한 시기이다. 결국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의 묘상건축 사례가 가장 전성기의 묘상건축 사례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발해의 묘상건축 문화를 범주를 좁게 판단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V. 맺음말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의 간행으로 인해 기존에는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었던 용해구역 M10호묘와 M13·M14호묘의 조사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용두산 고분군 내의 묘상건축 사례인 용해구역 M10호묘와 M13·M14호묘, 그리고 전돌·기와·석재 등이 고분의 주위에서 묘역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 용해구역 M8호묘와 M9호묘의 발굴 상황을 정리하였다.

용해구역 M10호묘와 M13·M14호묘는 하나의 대지 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위계 혹은 상징성을 짐작할 수 있다. 용두산 고분군에서 묘상건축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전묘 계열에 한정되며 묘상 건축물의 성격은 전탑 혹은 금당으로 불교 문화와의 관련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천장이나 현실 벽체의 축조 등에서 여전히 석재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석실묘를 주축으로 하는 발해 고분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거나 현실적인 문제(기술적 문제)로 인해 석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용해구역 M8호묘와 M9호묘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전돌·기와·석재는 묘역 시설을 한 것임이 비교적 분명히 확인되므로 고분 상부에 시설을 하거나 건축물을 세운 묘상건축의 사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보고서는 기존의 묘상건축 연구의 흐름과 달리 탑장을 묘상건축의 범주에서 분리하고, 나아가 묘상건축 내에서도 분류 기준을 아주 세세하게 설정했으며 묘상건축으로는 능침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고분 상부에 봉토 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신에 건축물을 축조했다는 점에서는 탑장이나 묘상건축 모두 공통점이 있으므로 양자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용두산 고분군은 발해가 당나라 등 주변 국가와 활발히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 후에 조성되기 시작한 발해 왕실의 묘지로, 이곳에서 확인되는 묘상건축의 사례는 최전성기의 묘상건축 사례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해의 묘상건축 문화를 판단한다면 발해 고분에서 기와나 전돌 등의 건축 재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발해의 묘상건축이 발해 고분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동 시기 동아시아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아도 발해처럼 묘상 건축물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경우는 쉽게 찾기 어렵다. 피장자와 축조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묘상건축의 사례는 발해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발해의 묘상건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025년, 오랜 시간 기다리던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묘상건축 사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축적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묘상건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강현숙, 2009, 『고구려 왕릉 연구』, 진인진.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조선고고학전서 42(중세편 19) 발해의 무덤』, 진인진

송기호, 1998, 『발해를 다시 본다』, 주류성.

_____, 2010,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楊寬 著, 장인성, 임대희 譯, 2005, 『중국 역대 능침제도』, 서경.

주경미, 2003,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魏存成, 2008, 『渤海考古』, 文物出版社.

논문

구난희, 2019, 「渤海의 古墳 外廓 造營物에 대한 硏究」, 『한국고대사탐구』 31.

박유정, 2018, 「渤海 貞孝公主墓 塼塔 출현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방학봉, 1994, 「10.발해시기의 묘상건축에 대하여」, 『발해건축연구』, 연변대학출판사.

신용민, 2008, 「中國 古代 帝陵과 三國時代 大形古墳 비교 검토」 『석당논총』4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이강 저, 김진광 역, 2007, 「勿吉과 발해의 "冢上作屋"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 『고구려연구』 26.

이형구, 1992, 「高句麗의 享堂制度硏究」, 『동방학지』 3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정영진 외, 2006, 「고분 구조로 본 발해 문화의 고구려 계승성」, 『(연구총서 19) 고분으로 본 발해 문화의 성격』.

정호섭, 2009, 「高句麗 古墳의 造營과 祭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홍규, 2017, 「고구려 기와로 본 경신리 1호분(소위 "한왕묘")의 조영연대와 피장자 검토」, 『한국사학보』 68, 고려사학회.

한정인, 2010, 「渤海 貞孝公主墓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미술사학 과석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喬雨,梁會麗, 2022,「六頂山渤海墓葬墓上建築相關問題研究」,『黑河學院學報』6期.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考古』2009-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吉林大学考古学院·和龙市文物管理所, 2025,『龙头山渤海王室墓地: 1997·2004-2005·2008年发掘报告』, 文物出版社,
白森·李强, 2015,「勿吉"冢上作屋"與渤海"墓上建築" -兼談高句麗墓上覆瓦-」,『慶祝魏存成先生七十歲論文集』, 科學出版社.
王志剛, 2014,「"冢上作屋"的考古学诠释—渤海墓上建筑研究」,『考古』2014-6
魏存成, 1981,「渤海王室貴族墓葬」,『中國考古學會第3次會議論文集』, 文物出版社.
劉曉東, 1996-2,「渤海墓葬的類型與演變」,『北方文物』.
華陽, 2015,「渤海墓葬研究」, 吉林大學校博士學位論文.

西谷 正, 2005,「渤海·塔基墓の背景」,『東アジアの古代文化』, 大和書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용두산 고분군 내 묘상건축의 사례와 보고서의 '묘상건축'의 인식에 대한 검토

박유정

이 글에서는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2004-2005·2008年发掘报告』(이하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 속 묘상건축의 사례를 정리·검토하였다. 우선 기존 묘상건축의 연구 성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의 '탑장'과 '묘상건축'의 정의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용두산 고분군 내에서 묘상 건축물은 모두 전묘 계열에서만 확인된다. 『용두사 고분군 보고서』를 통해 치미와 용두 등이 확인된 것과 초석의 배치를 고려하면 용해구역 M13·M14호묘 상부 건축물의 성격은 금당일 가능성이 높다. 즉, 발해 고분에서 나타나는 묘상 건축물은 전탑 혹은 금당으로 대체로 불교 문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용두산 고분군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의 대체적인 흐름과 달리 '탑장'과 '묘상건축'을 구분했으며, '묘상건축' 역시 일부 고분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고분 상부의 봉분을 건축물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프로세스가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보고서의 필자가 '묘상건축'으로 분류하고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들 역시 고분의 구조를 고려할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주제어: 묘상건축, 용두산 고분군, 용해구역, 정효공주묘, 용해구역 M13·M14호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Review of the Cases and the Perception of '*Myosanggunchuk*' in the Report on the Longtoushan Cemetery

Park Yujeong

This paper organizes and reviews the examples of *Myosanggunchuk*-refers to any construction, building or structure installed on a tomb mound documented in the Report on the Excavation of the Longtoushan Balhae Royal Cemetery: 1997, 2004–2005, 2008 (hereafter, the Longtoushan Cemetery Report). To this end, the paper first briefly summarizes the existing research achievements on tomb superstructures. Furthermore, it examines the definitions of "stupa burial" (塔葬) and "*Myosanggunchuk*" (墓上建築) as presented in the Longtoushan Cemetery Report.

Within the Longtoushan Cemetery, confirmed cases of *Myosanggunchuk* are exclusively limited to brick-chambered tombs. However, even these brick tombs show evidence of mixed construction, utilizing stone materials for certain structural components. Considering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firmed existence of roof-end ornaments(鴟尾) and dragon heads(龍頭) , along with the arrangement of foundation stones, as documented in the Longtoushan Cemetery Report, the nature of the superstructure atop Tombs M13 and M14 in the Yonghai Area is highly likely that of a *Geumdang* (金堂). This suggests that the nature of *Myosanggunchuk* appearing in Balhae royal tombs is generally judged to have a strong association with Buddhist culture.

In the Longtoushan Cemetery Report, contrary to the general trend of existing research, "stupa burials" and "*Myosanggunchuk*" are distinguished, and the application of "*Myosanggunchuk*" is limited to only some tombs. However, there is room to argue that the process is identical for both, as they both substitute the earthen mound above the tomb with an architectural structure. Furthermore, the cases classified by the author as "*Myosanggunchuk*" and judged to be of the same nature also warrant reconsideration given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tombs.

Keywords: *Myosanggunchuk*(墓上建築), Longtoushan Cemetery, Longhai Area , Tomb of Princess Jeonghyo, Longhai Area Tombs M13·M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04

용두산 용해고분군 내 왕릉 비정과 능원

최정범 | 계명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II. 주요 유구의 검토
III. 용해고분군 내 왕릉 비정
IV. 권력 표상으로서의 능원 조성과 왕실 제사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발해 왕실의 핵심능역인 용두산 고분군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 두도진의 용두산 중앙에서 동쪽으로 뻗은 구릉에 위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용두산의 주 능선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 동쪽 구릉의 용해묘구가 이에 해당하며, 동쪽으로 복동하가 남에서 북으로 흐르며 해란강에 합수한다. 북쪽으로 1.3km 떨어져 위치한 용호묘군과 남쪽으로 2.6km 떨어져 위치한 석국묘구가 조성되어 있는데, 용해묘구와 구분되는 배장묘역으로 추정된다. 용해묘구는 1980년 정효공주묘가 발굴[1]된 이래로 2008년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04~2005년 발굴조사에서는 문왕비 효의황후와 간왕비 순목황후의 묘지명이 추가 발견[2]되기도 하였다.

---

* 투고: 2025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발해 왕릉비정에 대한 관심은 2019년 초반경 대학원 재학 시절 同學이던 장주탁(吉林大學)·정승복(南京大學)·배노찬(西北大學) 선생과의 私談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학위 지도교수이신 이희준·박천수(경북대)·권오영(서울대) 교수님의 지도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인성(영남대)·김도영(경북대) 교수님과 김준식(경남연구원)·박유정(서울대) 선생님의 조언과 질정을 바탕으로 2019년 말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만 당시 簡報의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25년 8월 말 보고서의 정식 발간 직후 권은주(동북아역사재단)·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선생님의 지도 및 연구 독려와 조언에 힘입어 논의를 한층 더 진전시킬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김권구·김백철(계명대) 교수님의 배려와 격려는 큰 힘이 되어 주셨다. 이에 지면을 빌려 여러 선생님의 관심과 학은에 깊은 謝意를 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보완과 정교화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1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淸理簡報」, 『社會科學戰線』1期.; 鄭永振·嚴長錄, 2000, 「渤海貞孝公主墓」, 『渤海墓葬硏究』, 吉林人民出版社, 1~39쪽.

2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 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재까지 왕의 묘지가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공주와 황후의 묘비가 발견됨에 따라 용해묘구는 왕실의 핵심 능원임이 확실시되며, 왕릉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문왕 대흠무의 비인 효의황후 울씨의 사망 연대와 간왕 대명충의 비인 순목황후 태씨의 매장 연대로 미루어 보면 용해묘구는 775년부터 829년까지 55년간 묘역의 조성과 점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용두산 용해묘구는 발해 전기 왕실의 고분문화와 피장자의 비정, 능원의 형성 등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며, 2025년 6월 정식 보고서가 출간[3]되면서 그간의 학문적 갈증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발해 왕실 고분 문화의 연구가 가능해졌다.

〈그림 1〉에서 보듯 용해묘구는 용두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가지능선 사이의 대지에 1~6기가 군집을 이루어 조성되어 있다. 가장 높은 5호 대지에는 정효공주묘(M1)와 M11·효의황후(M12), M2·순목황후묘(M3)가 일정 간격을 두고 동서 선상으로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50m가량 떨어진 4호 대지에서는 중심고분인 M8·9호와 그 주변으로 배장묘인 M4~7호가 군집을 이룬다. 동쪽으로 30m가량 떨어진 3호 대지에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M16~20호가 위치한다. 한편, 정효공주묘에서 남쪽으로 60m가량 떨어진 6호 대지에는 M10호가 단독으로 위치하며, 여기서 남동쪽으로 90m가량 떨어진 7호 대지에는 M15·21호가 일정 간격을 두고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용해묘구 내 개별 고분은 자연구릉상의 평탄대지면에 1기 혹은 복수의 군집된 고분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고분군의 조성 당시 모종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지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용두산 용해묘구의 주요 고분과 출토 유물의 검토를 통해 왕릉 비정안을 재차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간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考古』6期.

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學考古學院·和龍市文物管理所, 2025,『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年發掘報告』,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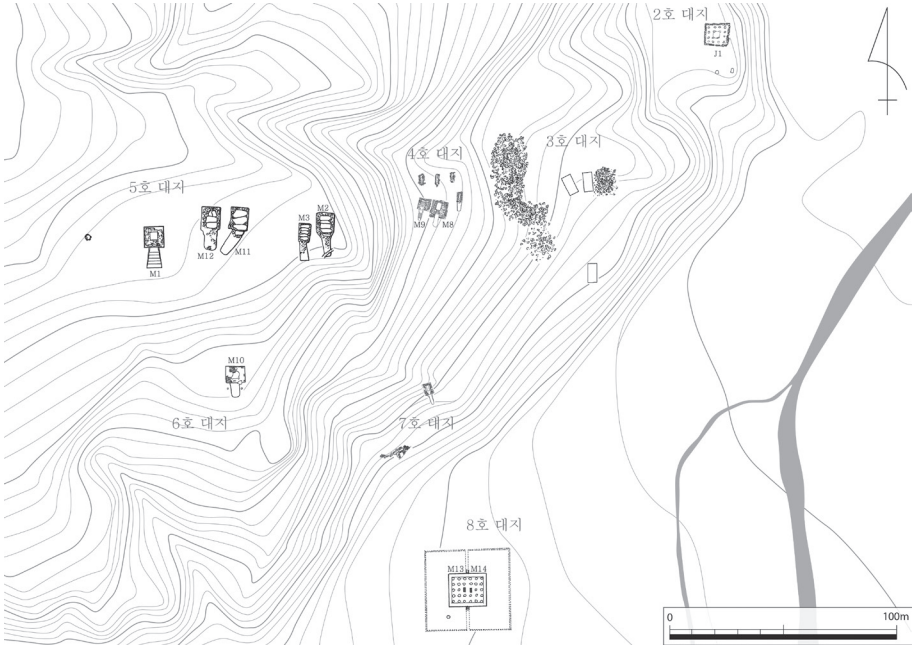


그림 1 용해고분군 유구배치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에서 수정)

보에 공개된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묘지를 바탕으로 초보적인 접근[4]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비정의 연구로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약보고문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므로, 정식 보고서가 출간된 현재에는 좀 더 구체적인 비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발해 전기 왕실 능원의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용두산 용해묘구가 가진 역사·고고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

4 두 황후의 묘지가 발견된 고분을 기준으로 효의황후묘 동쪽에 인접한 M11호를 문왕 대흠무, 순목황후묘 동쪽에 인접한 M2호를 간왕 대명충의 능으로 비정한 정도이다. 劉曉東, 2012, 「渤海王陵及相關問題續論」, 『北方文物』 3期; 윤재운, 2017, 「발해왕족무덤 발굴의 새로운 성과와 역사적 해석」, 『한국고대사와 왕릉고고학』, 제19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한국고대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다. 또한 이하에서는 용두산 용해묘구를 왕실 고분군으로서의 의미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 '용해고분군'으로 지칭함을 덧붙인다.

Ⅱ. 주요 유구의 검토

1. 횡혈식 석(전)실묘와 출토 유물의 연대

용해고분군에서 조사된 고분 중 피장자와 매장 연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구는 3기로 775년의 M12호(효의황후)·792년의 M1호(정효공주)·829년의 M3호(순목황후)로 정리된다. 피장자의 매장 연대가 명확한 자료를 기준에 두고 이와 유사한 속성을 띤 유구를 나열하면 개별 고분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효한 속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 예컨대 효의황후묘와 정효공주묘의 묘도는 계단식이며 순목황후묘는 경사식이다. 또한 효의황후묘와 순목황후묘 상부에는 묘상건축이 없으나, 정효공주묘는 묘상건축이 존재하며 고분 조성에 다량의 전돌이 사용되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개별 고분의 구체적인 속성을 검토해본다. 분석 대상은 묘도를 갖춘 횡혈식 고분으로, 교란 등의 연유로 대부분이 결실된 M21호, 4호 대지의 배장묘인 M4~7호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 1〉을 보면 묘도는 효의황후묘와 정효공주묘를 포함한 5기는 계단식이며 경사도는 14°~32°로 비교적 가파른 편이다. 반면 순목황후묘와 M8·2호의 묘도는 경사식이며 경사도는 10°~12°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효의황후묘와 순목황후묘의 묘도에서 가시적인 차이점이 나타나므로 묘도의 형태와 경사도는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묘상건축이 확인되는 유구는 정효공주묘와 M10·9·8호의 4기가 해당한다. 묘상건축의 존재는 한정적이므로 정효공주묘의 매장이 종료되는 792년을 전후하여 한시적으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앞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주요 유구의 속성(1) (단위: cm)

유구	묘도				묘상건축	
	길이	계단	경사	경사도	있음	없음
M11	640	●		32°		●
M12	500	●		20.6°		●
M1	710	●		19°	●	
M10	550	●		24.8°	●	
M9	455	●		14°	●	
M8	570		●	10.2°	●	
M2	610		●	12°		●
M3	600		●	12°		●

살펴본 묘도의 형식을 염두에 둔다면 묘상건축은 대부분 계단식 묘도와 조합되지만 경사묘도인 M8호에도 확인되므로, 과도적 단계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다음으로 매장주체부 내 벽석과 시상을 살펴본다. 〈표 2〉를 보면 대부분 유구들의 벽석은 할석을 사용하여 조성하였으나, 정효공주묘는 전돌만 사용하여 매장주체부를 조성하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용해고분군 내에서 전돌만 사용하여 고분을 조성한 사례는 정효공주묘가 유일하다. 한편 M10·8호는 할석과 벽돌을 함께 사용하여 매장주체부를 조성하였는데, 먼저 할석을 평적하여 벽석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피장자가 안치되는 매장주체부의 내부는 전돌을 피복하고 회미장하여 마무리하였다. 이에 이 두 고분을 외견상 전실묘로 오인할 수 있으나, M10·8호는 할석을 함께 사용한 면이 달라 정효공주묘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벽석 조성 방법을 볼 때 M10·8호는 정효공주묘보다 뒤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시상은 할석을 사용하거나 전돌을 사용하여 조성하는데, M11호와 효의황후묘를 제외하면 모두 전돌을 사용하였다. 다만 M9호는 시상의 기초를 할석을 사용하여 조성한 다음 외부를 전돌을 피복시킨 점이 다르다. 매장주체부의 바닥은 생토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전돌을 피복시켰는데, 뚜렷한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검토한 속성들은 어느 정도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앞서 775년의 효의황후묘와 829년의 순목황후묘 사이의 간극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주요 유구의 속성(2) (단위: cm)

유구	매장주체부					시상					바닥
	길이	너비	할석	전	혼합	길이	너비	할석	전	혼합	
M11	395	220	●			240	135	●			생
M12	345	220	●			245	160	●			생
M1	310	210		●		240	145		●		전
M10	345	190			●	270	190		●		전
M9	345	205	●			230	205			●	생
M8	305	185			●						생
M2	560	180	●			250	80		●		석
M3	400	200	●			240	115		●		전

55년 정도로 분기로 따지면 2분기가량의 반세기에 해당하여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시간성을 가진 속성들은 묘상건축의 유무, 묘도 바닥의 형태, 매장주체부와 시상 재료의 조합을 지적해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묘도는 계단식에서 경사식 무계단으로 바뀌고, 시상은 석축에서 전축으로 전환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효의황후와 정효공주의 무덤이 조성된 775~792년을 전후한 시점에는 계단식 묘도와 석축의 시상이 조합되는 고분이 조성되다가, 순목황후의 무덤이 조성된 829년경에는 경사식 무계단 묘도와 전축 시상 조합의 고분이 조성되는 양상의 변화가 확인된다.

한편, 정효공주묘가 조성된 792년경에 고분 상부에 묘상건축이 등장하는데, 매장주체부 벽석의 조성 방식 등을 염두에 둔다면 계단식 묘도가 경사식의 무계단으로 전환하는 M8호 단계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용해고분군 내 묘상건축은 장기지속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효공주묘의 조성 이후 어느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등장한 속성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계단식 묘도에서 경사식 무계단 묘도로의 전환, 묘상건축의 한시적 등장, 시상의 재료라는 속성 등은 시간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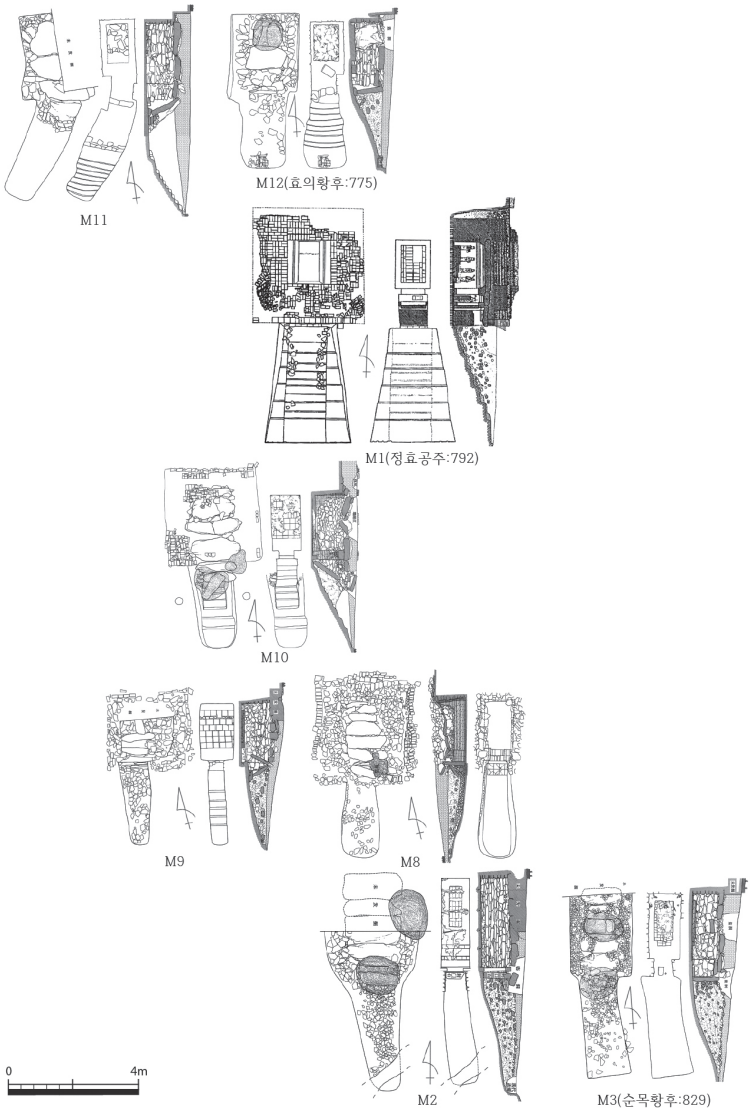


그림 2 용해고분군 내 주요 유구의 선후관계(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에서 재편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M9·8호는 묘상건축이 존재하는 데서 공통되나, 묘도와 매장주체부 내 벽석 조성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형식이 전환되는 과도기 단계의 유구로 판단된다. M9호가 계단식 묘도에 매장주체부가 할석을 평적하여 조성된 반면, M8호는 경사식 무계단 묘도이며 매장주체부 벽석을 할석으로 조성한 다음 전돌로 피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두 고분은 계단식 묘도에 할석과 전석으로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M10호보다 상대적으로 후행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아울러 M8호는 M9호보다 나중에 조성되었지만, 두 고분 간의 시차는 편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차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횡혈식 석(전)실묘는 기년이 명확한 세 고분과 그 외의 고분들에서 보이는 속성들을 종합할 때 〈그림 2〉와 같은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몇 가지 속성의 조합이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용해고분군이 왕실의 핵심 고분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50여 년의 2분기 동안 규격성과 통일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다양한 형식의 공존과 일부 속성의 변화는 고분군 조성 주체의 불안정성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각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연대를 검토해본다. 용해고분군은 일찍이 도굴 피해를 심하게 입어 출토된 유물의 양이 소략한 편이다. 예컨대 M2호에서 출토된 건요(계) 흑유완과 정요(계) 백자편, M8호에서 출토된 숭녕중보 등은 12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도굴 피해를 입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물들의 형식 등을 통해 대략의 연대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본다.

사실 고분 출토 유물의 가장 정확한 연대는 효의황후·정효공주·순목황후의 무덤에 매장된 유물 외에는 절대적인 연대를 도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물의 형식 변천과 기년 고분 출토품과 유사한 자료들의 역연대를 통해 유물들의 연대를 도출해본다. 〈그림 3〉을 보면 유물은 대부분 관정·목관을 장식하는 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3 용해고분군 내 주요 유구의 출토유물(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에서 재편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형 장식구·금동장식판 등이다. 특히 무문양의 반구형 장식구는 모든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형식상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중 금동제 화형(花形) 반구형 장식구는 6개의 잎을 의도하여 제작되었는데, M11호 출토품 화변 사이의 간선에는 돌대가 부가되어 있으며 화변의 가장자리는 편평하게 마무리 지었다. 비교적 꽃잎의 묘사가 사실적이다. M10호 출토품은 화변 사이의 간선만 표시하였으나, 꽃잎의 사실적인 묘사는 유지된 상태이다. 반면 M8·9호 출토품은 6판의 꽃잎을 구분하는 간선만 잔존할 뿐 꽃잎의 묘사보다는 평면 원형의 형태를 보인다. 형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적이고 복합적인 화변의 묘사에서 간략한 형태로의 퇴화라는 상대적 변화상이 고려되므로, 금동제 화형 반구형 장식구는 'M11 → M10 → M8/9'의 변화 서열을 상정해볼 수 있다.

한편, 피장자의 매장 연대가 명확한 효의황후·정효공주·순목황후 묘에서는 편년 도출에 유효한 유물은 소략한 편이다. 그래서 용해고분군 남쪽의 석국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과 교차 검토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석국고분군 M1호는 3기의 석실묘가 연접하여 조성되었다. 〈그림 4〉를 보면 단면 토층조사 결과 M1A·B호의 선후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두 고분이 하나의 봉토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성 연대에 대차는 없다. 반면 M1C호는 M1A호의 서쪽에 연접하여 조성되었는데, M1C호의 개석 상부에 조성된 밀봉토와 적석부는 M1A·B호 봉토의 서쪽 상단에 얹혀 있는 양상으로 퇴적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M1C호의 조성이 후행한다.[5]

M1B호에서는 삼채도용과 반구형 장식구, 관고리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삼채도용은 매장주체부의 북동쪽 모서리에 직치된 상태로 출토되어 최초 고분의 조성 시점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M1C호에서는 교태도침과 금동제 당식 대장식구 등이 출토되어 상대적으로 연대 추론에 유효하다. 교태도침은

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學考古學院·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앞의 책, 164~1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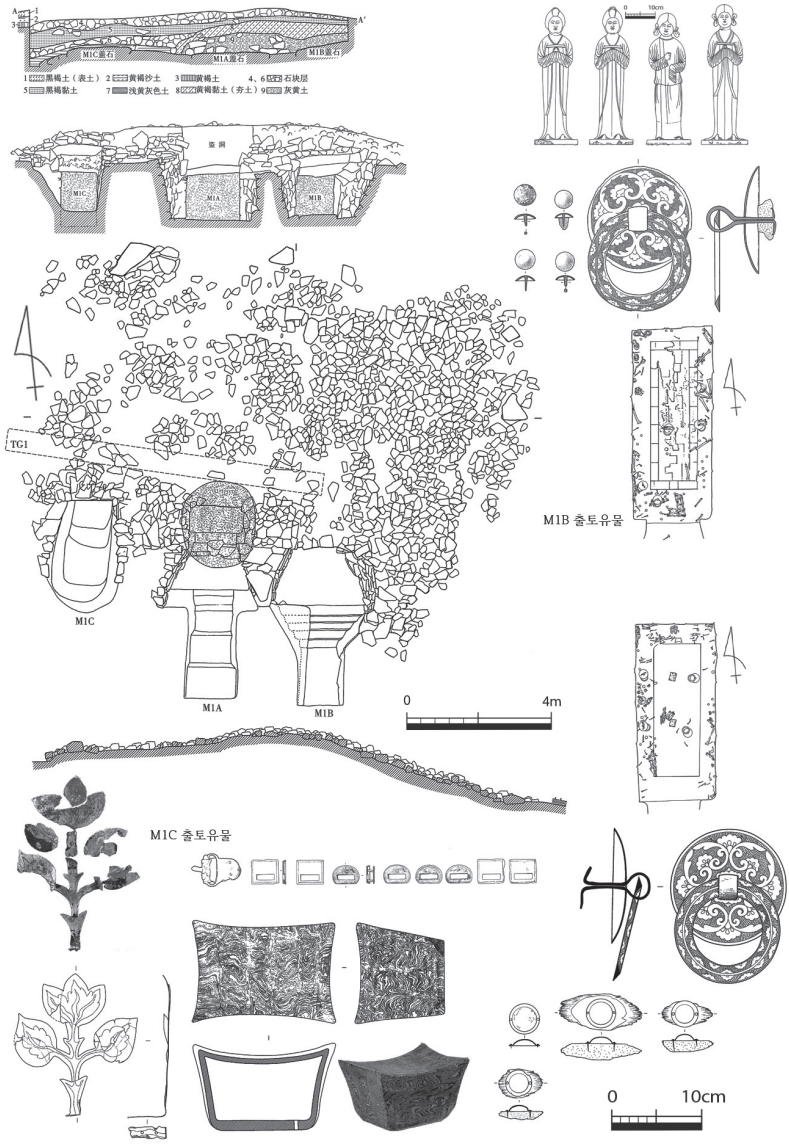


그림 4 석국고분군 M1호의 조성상태와 주요 출토유물(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에서 재편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84~756년경으로 비정되는 하남성 공의시 황야요 3기 전단(前段)층에서 출토된 교태도자[6]들과 비교된다. 따라서 늦어도 8세기 중엽경으로 비정할 수 있다. 당식 대장식구는 과판의 단부가 둔각이며 과판 폭과 수공 폭의 비율이 5.0 미만인 3.8에 해당한다. 조합되는 교구의 교판이 세장하는 형태를 띠므로 8세기 중엽 이후[7]에 해당할 가능성이 고려된다.

M1C호의 매장주체부 내부의 유물 노출 상태를 살피면 시상 중앙에 관고리와 바닥에 놓인 철제 판이 비교적 원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상 주변으로 다수의 관정과 인골편 등이 혼재되어 있어 최소 1회 이상의 추가장이 고려된다. 더욱이 당식 대장식구의 과판은 시상 바깥의 동벽과 서벽 인근으로 밀려 있으며, 교태도침 역시 시상의 북쪽 바닥 바깥으로 치우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태도침의 왼쪽에서 발견된 금동관 장식이 연대 보정에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데, 효의황후묘에서 출토된 금동장식편과 장식기법 등에서 유사성을 띤다.[8]

그렇다면 M1C는 8세기 중~후반경의 어느 시점에 최초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렇다면 M1B호는 봉토의 조성 양상으로 미루어 M1C호가 조성된 8세기 중~후반경보다 선행할 터인데, 관고리와 반구형 장식구 등의 속성이 동일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두 고분의 조성 연대는 편년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대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M1B호가 8세기 중~후엽의 어느 시점에 최초로 조성된 이후 집골과 납관 등의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M1C호가 추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시 용해고분군의 출토 유물을 살피면 석국고분군 M1C 출토 삼채도용은 용해고분군 M10호에서 출토된 여용(女俑)과 비교했을 때 머

6 河南省文物考古研究院 外, 2016, 『鞏義黃冶窯』, 科學出版社.

7 과판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7세기대의 자료로 비추어질 수 있겠으나, 세장화가 관찰되는 교구와 조합하므로 굳이 연대를 소급시켜 봄에는 무리가 따른다.

8 이러한 추론이 맞다면 효의황후묘에도 금동관이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출토된 금동장식의 잔존 사태가 양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소량이어서 적극적으로 추론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 장식의 형태와 복장에 대차가 없다. 이는 두 고분에서 출토된 도용의 제작 및 부장 시점이 근사함을 의미하며, M10호의 조성 및 매장이 8세기 중~후반경에 해당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술하겠으나 M10호는 효의황후와 정효공주묘가 조성된 5호 대지 남쪽의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6호 대지에 조성되어 있으므로 8세기 후반 무렵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M10호에서 공반된 화형 반구형 장식구 역시 8세기 후반 무렵으로 비정해볼 수 있다면, 형태적으로 퇴화된 양상을 보이는 M8·9호의 화형 반구형 장식구는 자연스레 9세기 전반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용해고분군 내 주요 고분과 그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고 나름의 연대 도출을 시도해보았다. 고분의 조성과 피장자의 매장 연대가 명확한 효의황후묘·정효공주묘·순목황후묘를 기준으로 삼아 이 고분들과 유사하거나 차이가 드러나는 속성을 비교하고 선후 관계를 추론해보았다. 대체로 M11호와 효의황후묘가 가장 이른 시기인 8세기 후엽경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 정효공주묘 → M10 → M8·9 → M2호의 순서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순목황후묘가 9세기 중엽경에 최종 조성되며 용해고분군의 점유는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동봉이혈전곽목관묘(同封異穴塼槨木棺墓)

용해고분군이 조성된 용두산 서쪽 구릉의 남쪽은 평지를 이루며 동쪽으로 해란강의 지류인 복동하가 북류한다. 이 지점은 8호 대지로 구분되며 건물지 내에 2기의 전곽이 나란히 조성된 독특한 형태의 고분이 조성되어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21.5m, 남-북 17.5m, 잔존높이 1.5m 규모의 초석 건물지 형태이다. 초석은 대부분 원위치에서 건물 바깥 방향으로 밀린 듯한 상태로 잔존하지만 평면 형태는 회(回)자형이다. 건물지의 주변은 전돌과 판석을 둘렀으며, 북쪽과 남쪽의 중앙에는 출입 시설이 확인된다. 건물지의 중앙에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쪽으로 M13호, 동쪽으로 M14호 전곽이 3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조성되어 있다.

건물지의 남서쪽 모서리 주변에서는 부석 시설과 우물 1기가 조성되었으며, 동쪽 주변에서 부석 시설과 서쪽으로 담장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M13·14호는 담장과 답도시설을 갖춘 하나의 건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지 내부 중심 칸에는 2기의 전곽을 조성하였다. 건물지는 남북으로 출입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남서쪽에는 모종의 의례에 사용하기 위한 우물이 갖추어진 구조이다.

부속시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평면 형태는 상경성 제5·9호 사지와 유사하여 비교된다. 동-서 6개, 남-북 5개의 초석이 배치되고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는 회자형의 평면 형태 등을 염두에 둔다면 M13·14호 상부에 조성된 건물은 불교 사원의 금당을 의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5〉의 오른쪽 상단과 같은 최근 발해 사원지 건축물의 복원 연구 성과[9]를 유념한다면 M13·14호 상부 건물지는 사원과 유사한 형태로 보아도 좋다.

출토 유물은 용두 등의 잡상과 치미편, 다양한 형태의 와당과 소조상·벽전편, 삼채향로편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소조상·벽전편과 삼채향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건물 내부에서 불교와 연관된 장식과 장엄 의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M13·14호의 피장자를 의도적으로 사원 내부에 안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건물지의 구조가 상경성 제5·9호 사지와 유사도가 높은 만큼 M13·14호 상부 건물지도 이와 근사한 시점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경성의 사지들이 마지막 수도로 사용된 794~926년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10]는 견해를 유념한다면 M13·14호 상부 건물지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9 孫岩, 2023,「东北亚文化视角下的渤海上京城佛寺建筑研究」, 哈尔滨工业大学 硕士学位论文, 76~81쪽.

10 양은경, 2010,「渤海 上京城 佛教寺院址의 建立年代와 佛像 奉安의 復原」,『東北亞歷史論叢』27, 동북아역사재단, 10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5 용해고분군 M13·14호 건물지 출토유물과 평면 비교자료(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에서 재편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다. 더욱이 용해고분군의 조성 시점을 염두에 둔다면 794~829년 사이로 조성 및 점유 범위를 좁혀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부 건물지와 두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연대를 검토해본다. 건물지 상부에서 출토된 와당은 〈그림 6〉과 같이 기존의 편년안[11]에 견주어보면 대체로 상경 3식인 8세기 후반~9세기 전반 사이의 자료들과 비교된다. 따라서 늦어도 9세기 전반까지는 적어도 막새를 포함한 기와들이 수즙(修葺)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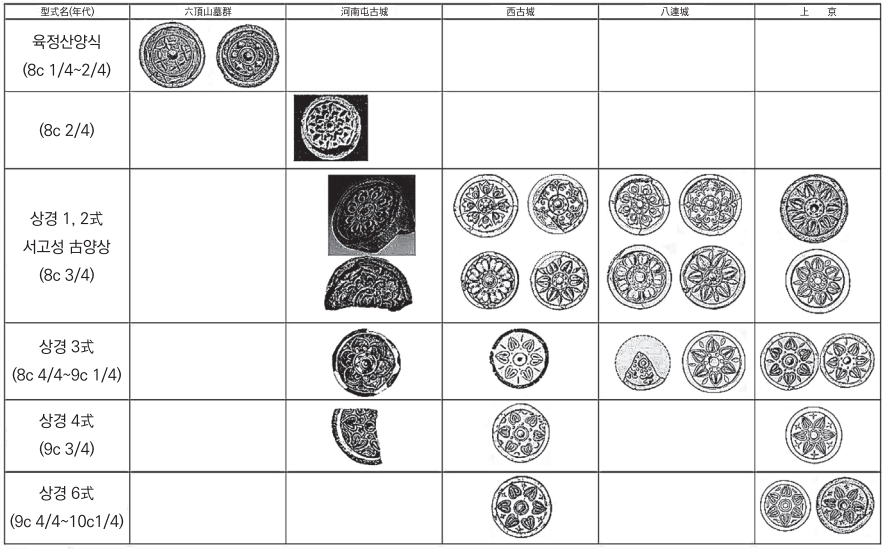


그림 6 발해 수막새 편년안(小嶋芳孝, 2017)

11 小嶋芳孝, 2017, 「瓦當編年으로 본 河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의 評價」,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고구려발해학회, 10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그림 7〉에서 보듯 고분 내에서 연대를 추론해볼 수 있는 자료로 M13호에서 출토된 동경과 화형 반구형 장식 등이 주목된다. 동경은 표면에 은판을 붙인 후 도금하였다. 평면은 8엽의 능화형(菱花形)이며 거울의 꼭지는 두꺼비 모양이다. 두꺼비 주변에는 봉황·사자가 표현되었으며, 그 사이는 가지와 덩굴이 채워져 있다.

이와 견주어볼 만한 자료로 하남성 언사 이경유묘(738)에서 출토된 동경은 주연의 두께·점열문의 유무·은도금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두꺼비 형태의 꼭지·봉황·사자 장식 등에서 공통성을 띤다. 평면 8엽의 능화형·봉황·사자·꽃이 조합된 동경은 하남성 언사 송정묘(706)와 성당기(盛唐期)의 하남성 언사 M1902호에서도 출토[12]된 바 있다. 그렇다면 M13호에서 출토된 동경은 8세기 중엽 이후의 자료로 보아도 좋다. 다만 동경은 은박평탈칠함, 빗 등과 같은 실생활 기물과 공반되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당에서 발해로의 이입과 사용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8세기 중엽의 역연대 보다는 약간 후행하는 시점에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화형 반구형 장식구는 평면 육각형과 원형이 공반되었는데, 꽃잎의 묘사는 사실적이지만 평면 원형의 화형 반구형 장식은 꽃잎의 표현이 흔적기관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화형 반구형 장식구의 꽃잎 묘사가 간략해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그림 3〉의 화형 반구형 장식구 형식의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둔다면 M13호 출토품의 형식은 M10호와 M9호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M13호의 바닥에 평면 방형에 다수의 투공이 뚫린 철판 2매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목관 아래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투공의 존재로 볼 때 목관의 부식 지연 등의 목적을 위해 바닥의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의용품으로 생각된다. 3호 대지의 M7호·석국 M1C호

12 崔正凡, 2022, 「渤海 年代決定資料와 曆年代」, 『한국상고사학보』 118, 한국상고사학회, 127~1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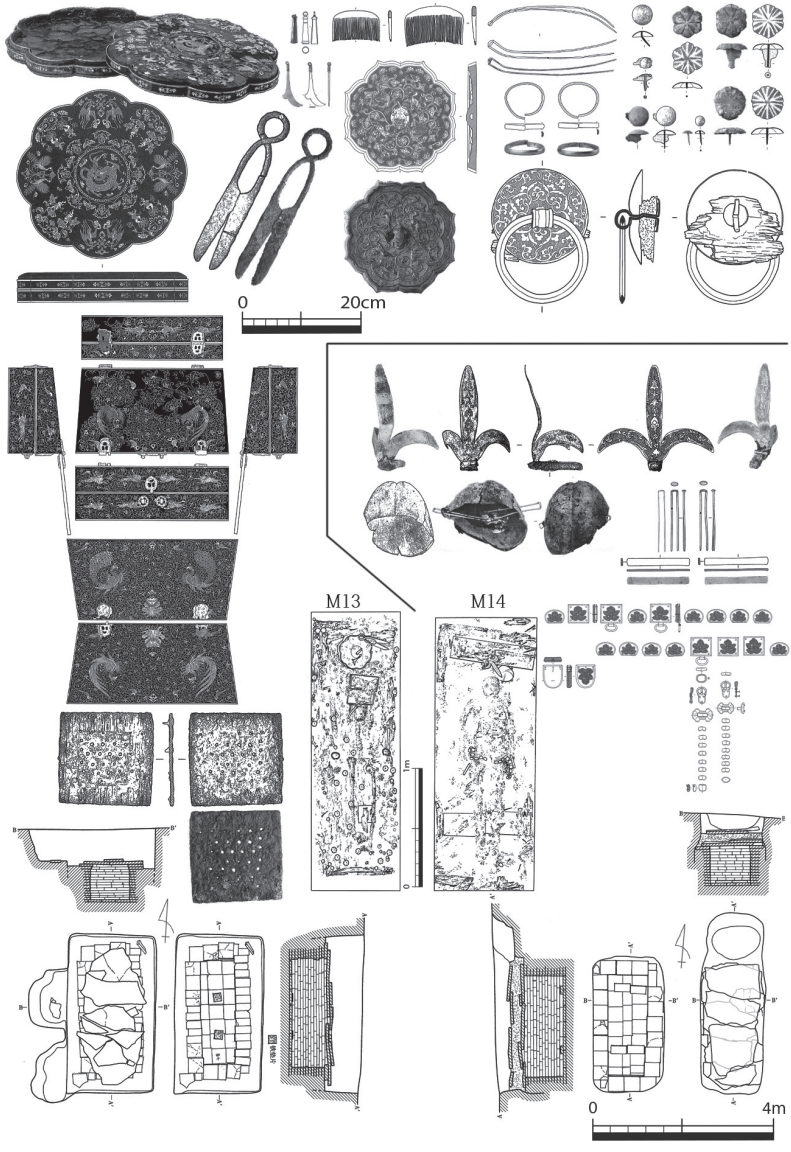


그림 7 용해고분군 M13·14호와 주요 출토유물(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에서 재편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바닥에서도 유사한 철제품이 시상 상부에 놓인 채 출토된 바 있다. 이는 목관을 안치하기 전에 설치된 장의용품으로 왕실 고분군에 한정되어 사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M14호에서는 연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금제 비녀로 고정한 복두와 금제 관장식, 금과 옥을 사용하여 제작된 대장식구와 그에 수하된 금제 장식구, 피장자의 양손에 쥐어진 금정(金鋌, 보고서에서는 金條로 칭함) 등은 그 자체로 피장자의 위계를 짐작케 한다. 옥을 사용한 기물을 소유할 수 있는 계층이 왕실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이 고분은 왕릉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상과 같이 M13·14호에서 출토된 유물과 그 상부 건물지에서 수습된 와당 등의 연대를 종합하면 8세기 후반~9세기 전반 무렵에 전곽과 건물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 특히 금당을 표방한 건물지 내에 불상을 안치한 것이 아니라, 금과 옥을 사용한 피장자 부부를 안치하였다. 이러한 사실 자체는 피장자를 신성시하는 가시적인 권위를 추구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는 피장자를 비정하는 데 큰 참고가 된다.

Ⅲ. 용해고분군 내 왕릉 비정

앞 장에서는 용해고분 내 주요 유구의 속성을 통한 상대 서열과 출토 유물의 연대를 검토해보았다. 출토 유물이 소략하다는 나름의 한계가 있으나 기년이 명확한 효의황후·정효공주·순목황후묘의 사례와 석국고분군 출토 역연대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상대서열을 추론하는 데 무리는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왕릉 비정을 시도한다.

주지하듯 효의황후·순목황후의 매장 연대를 고려하면 용해고분군에 매장될 수 있는 구성원은 문왕계로 압축된다. 즉, 문왕 집권기인 8세기 중엽 이래로 용해고분군의 점유와 조성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에서 비정해 볼 수 있는 왕은 〈그림 8〉에서 보듯 문왕 대흠무·성왕 대화여·강왕 대숭린·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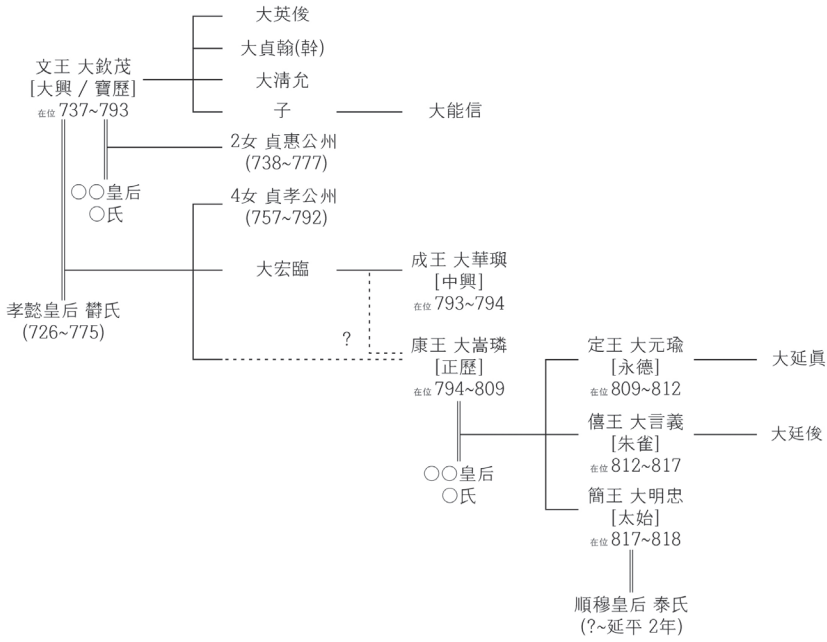


그림 8 문왕계 계보(권은주, 2025, 144쪽을 참고하여 보완)

왕 대원유 · 희왕 대언의 · 간왕 대명충의 6명으로 압축된다.

먼저 793년에 사망한 문왕 대흠무의 능이다. 2025년의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까지 문왕의 능은 암묵적으로 효의황후묘 동쪽에 인접한 M11호로 비정하는 견해가 대부분[13]이었다. 일각에서는 고분군 내 다른 유구가 문왕릉[14]으로 비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9년의 간

13 劉曉東, 2012, 앞의 글; 윤재운, 2017, 앞의 글.

14 田村晃一(2014)는 M10호, 김진광(2018)은 M13 · 14를 문왕릉으로 비정하였다. 田村晃一, 2014, 「渤海王陵 · 貴族墓論(その2)-(『六頂山渤海墓葬』を讀んで)」, 『靑山史學』 32; 김진광, 2018,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 · 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 『先史와 古代』 56, 韓國古代學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에 유독 효의황후묘인 M12호와 M11호의 도면과 조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후 정식 보고서로 확인된 M11호는 효의황후묘의 동쪽에 인접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적극적으로 왕릉이라 보기에는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 입지 자체만 보면 문왕의 능으로 보아야 하지만, 묘도가 좌측으로 심하게 비틀려 있고, 매장주체부의 규모나 조성 상태는 왕릉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지 보고서의 고찰에서 일찍 사망한 문왕의 태자 대굉림의 무덤으로 추론하기도 하였다.

용해고분군 내에서 해발고도가 높아 가시권이 가장 탁월한 5호 대지의 중앙에 효의황후와 정효공주, 그리고 왕릉으로 보기 힘든 M11호가 조성된 점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문왕의 능은 용해고분군 내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M11호에서 수습된 인골의 감정 결과 피장자가 20대 무렵의 여성[15]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최초 용해고분군은 문왕 집권기 후반 효의황후와 정효공주의 장지로 선택된 묘역이기는 하나, 그 자신은 중경현덕부의 치소이자 한때 수도로 기능한 서고성 남쪽의 하남둔을 장지로 택함으로써 왕권의 우월성과 국력 과시를 가시적으로 표출한 것[16]으로 판단된다.

문왕 대흠무 사후 즉위한 왕은 문왕의 족제(族弟)인 폐왕 대원의로 동경에서 국인들에게 피살당한다. 이후 즉위한 성왕 대화여는 대굉림의 아들이자 문왕의 손자로 발해 왕계가 문왕의 직계로 환원되며, 다시 수도를 상경으로 옮겼다. 그렇다면 상경에서 사망한 후 중경현덕부 인근의 용해고분군에 귀장된 것으로 보인다. 귀장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성왕 대화여가 사망한 794년은 8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특히 정효공주보다

15 이는 분석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다. 반면 고찰 파트에서는 성년 남성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추가장이 가능한 횡혈식 묘제임을 염두에 둔다면 합장 혹은 추가장에 따라 최소개체 2구 이상의 피장자가 매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16 최정범, 2021, 「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 의 재인식(再認識) – 평지성(平地城)에서 능원(陵園)으로」, 『東北亞歷史論叢』 7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항렬 아래인 만큼 정효공주묘와 효의황후묘가 조성된 5호 대지보다는 낮은 입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M10호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을 수 있는데, 개석 상부에 길이 6m, 너비 6m가량의 묘상건축이 확인되었다. 〈그림 9〉에 제시한 발굴조사 당시의 모습을 보면 M10호의 상부와 그 주변으로 다량의 전돌이 수습된 정황이 확인된다. 건물지의 규모를 고려할 때 출토된 전돌의 양은 일반 건축물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수량이 매우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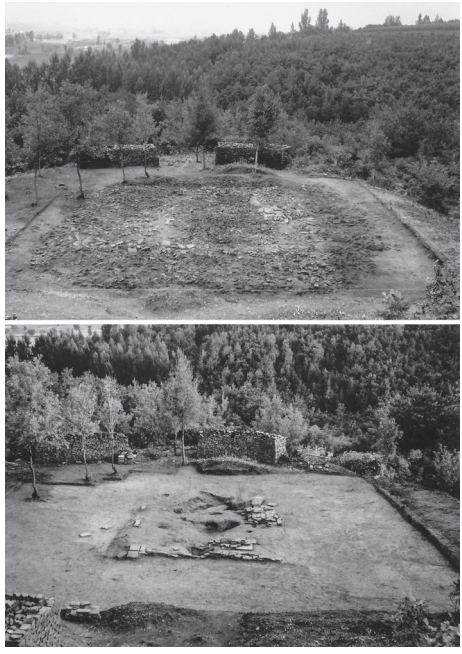


그림 9 M10호와 조사 중 적치된 전돌(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에서 재편집)

이러한 점으로 보아 M10호는 정효공주묘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전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계단식의 경사 묘도를 갖추고 있으며, 매장주체부의 벽석은 할석을 평적한 다음 전돌로 피복함으로써 전실의 형태를 의도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6호 대지에 전실탑묘의 구조를 의도하며 8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M10호는 성왕 대화여의 능으로 비정한다. 이는 고분 내에서 발견된 인골이 20대 무렵의 성년 개체[17]라는 감정 결과

17 보고서에서는 M10호가 정효공주묘와 유사하고 금동장신구 등의 출토유물로 미루어 보아 문왕과 효의황후 소생의 또 다른 공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부록의 인골감정소견서에 따르면 M10호에서 수습된 후두골(occipital bone)과 하악(mandible) 등으로 추측하여 성년으로 연령만 판별하였을 뿐 성별에 대한 언급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 무관하지 않다.

강왕 대숭린은 문왕 사후 직계 국왕 중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인 15년간 재위하였다. 강왕은 폐왕·성왕대의 내분을 극복하고 정국을 안정시킴으로써 국인 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는 왕권 강화를 수반하는 지배체제를 구축[18]한다. 특히 실추된 왕권의 위상을 회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대외교섭을 재개함으로써 위기상황의 타개를 도모한 왕[19]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강왕 대숭린은 정치적 혼란의 수습과 왕권의 확립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왕권의 확립과 정통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당의 책봉호 승급 사실[20]과

없다. 예컨대 후두골의 외후두융기(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의 발달 정도로 남녀 판별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반드시 여성 인골로 단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18 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186~193쪽.

19 安在成, 2021, 「渤海 康王代 對外交涉과 王權强化」, 高麗大學校 大學院 韓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39쪽.

20 『新唐書』 卷219 列傳 第144 北狄 渤海, "欽茂少子嵩鄰立 改年正歷 有詔授右驍衛大將軍 嗣王 建中貞元間凡四來 死 謚康王."
795(貞元 11年)
『舊唐書』 卷13 本紀 第13 德宗 下, "2月… 乙巳 冊渤海大欽茂之子嵩 爲渤海郡王 忽汗州都督."; 『舊唐書』 卷199下 列傳 第149下 北狄 渤海靺鞨 "2月 遣內常侍殷志瞻冊大嵩璘爲渤海郡王."; 『冊府元龜』 卷964 封冊二 "2月 令內嘗侍殷志瞻將冊書往渤海 冊大嵩璘爲渤海王 忽汗州都督 嵩璘 渤海大欽茂之子襲父位也."
798(貞元 14年)
『舊唐書』 卷199下 列傳 第149下 北狄 渤海靺鞨"加銀靑光祿大夫 檢校司空 進封渤海國王 … 及嵩璘襲位 但授其郡王將軍而已 嵩璘遣使敍理 故再加冊命."; 『冊府元龜』 卷964 封冊二 "3月 加渤海郡王兼左驍衛大將軍 忽汗州都督 大嵩璘銀靑光祿大夫 簡較司空 冊爲渤海國王."
805(貞元 21年)
『舊唐書』 卷14 本紀 第14 順宗 "5月 … 甲辰 以檢校司空 忽汗州都督 渤海國王大嵩璘 檢校司徒."; 『舊唐書』 卷199下 列傳 第149下 北狄 渤海靺鞨 "遣使來朝 順宗加嵩璘金紫光祿大夫 檢校司空 元和元年十月 加檢校太尉."; 『冊府元龜』 卷964 封冊二 "5月 加忽汗州都督渤海王大嵩璘金紫光祿大夫 簡校司徒."
806(元和 元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무관하지 않다. 물질자료의 관점에서 강왕 대숭린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자연스레 용해고분군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강왕 대숭린의 즉위 당시 대흠무와 대화여의 시호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21]을 염두에 둔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용해고분군에 대한 정비, 혹은 수릉으로서 자신의 능을 조성함으로써 문왕계 국왕으로서의 계승의식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용해고분군 내 유구의 배치 양상을 보면 5호 대지의 정효공주와 효의황후, 6호 대지의 M10호(성왕 대화여), 8호 대지의 M13·14호가 북서-남동 방향의 축선상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평지에 해당하는 8호 대지는 용두산의 능선뿐만 아니라 선대 왕비와 공주, 국왕의 능을 우러러볼 수 있는 입지에 해당한다. 특히 정효공주와 성왕 대화여의 능 상부 전탑이 조망된다는 점을 유념하면 기념물로서 문왕 직계 왕실 구성원들의 묘역은 그 자체로 가시적 신성함[22]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M13·14상부 건물지에 장식된 와당의 연대가 8세기 후반, 늦어도 9세기 초에 비정되고, M13호 출토 동경 등의 유물이 8세기 중엽 이후에 비정되는 점, M14호의 피장자가 금관이 장식된 복두를 착용하고 양손에 금정을 손에 쥐며 금과 옥을 사용해 제작된 허리띠를 착용하고 매장된 점은 국왕 부부를 제외하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8세기 후반이라는 유물들의 연대, 상부 건물지에서 조망되는 고분군의 경관 등을 염두에 둔다면 강왕 대숭린의 능은 M14호로 비정되며, 자연스럽게 그 황후는 M13호에 비정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사원의 금당을 표방한 M13·14호는 강왕 대숭린이 정통성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

『舊唐書』卷14 本紀 第14 憲宗 上, "9月 … 丙戌 以渤海國王大嵩璘 檢校太尉."; 『舊唐書』卷199下 列傳 第149下 北狄 渤海靺鞨 "10月 加檢校太尉."; 『冊府元龜』卷964 封冊2 "10月 加忽汗州都督渤海國王大嵩璘簡較太尉."

21 『日本逸史』延曆 15年(795) 4月 戊子條, "… 又告喪啓曰 上天降禍 祖大行大王 以大興五十七年三月四日薨 … 孤孫大嵩璘頓首 …."

22 이와 같은 고분의 배치를 염두에 둔다면 강왕 대숭린은 『日本逸史』의 기록과 같이 문왕 대흠무의 손자이자 성왕 대화여의 동생에 해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수릉이다. 이를 통해 문왕계 왕권의 정통성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강왕 재위기간 중의 연호가 정력(正曆)이었음은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강왕 사후 연이어 즉위한 정왕 대원유·희왕 대언의·간왕 대명충은 모두 강왕의 아들이자 형제 관계로, 세 왕의 재위기간은 모두 합쳐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4년가량 재위한 정왕 대원유[23]와 5년가량 재위한 희왕 대언의[24]가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기는 하였으나, 818년 선왕 대인수가 즉위하기 전까지 정국의 불안정은 지속[25]되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정왕·희왕·간왕의 능은 강왕 대숭린의 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있다.

간왕 대명충의 능은 순목황후묘의 존재로 인해 자연스레 M2호에 비정할 수 있다. M11호의 사례와 달리 M2호는 매장주체부의 규모나 벽석의 조성 방식, 무계단의 경사묘도 등 여러 속성이 M3호와 대차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왕 대원유와 희왕 대언의의 능을 어떻게 비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용해고분군의 유구배치 양상을 재차 살펴보면 그 후보는 3호 대지와 4호 대지로 압축된다.

문제는 3호 대지의 경우 유구의 존재만 확인하였을 뿐 발굴조사로 이어지지

---

23 809(元和 4年)
『舊唐書』卷199下 列傳 第149下 北狄 渤海靺鞨, "以嵩璘男元瑜爲銀靑光祿大夫 檢校秘書監 忽汗州都督 依前渤海國王."; 『冊府元龜』卷964 封冊2 "正月 以故渤海國王大嵩璘男元瑜爲銀靑光祿大夫 簡較秘書監 充忽汗州都督 冊爲渤海國王."

24 813(元和 8年)
『舊唐書』卷15 本紀 第15 憲宗 下, "春正月… 庚午 冊大言義 爲渤海國王 授秘書監 忽汗州都督."; 『舊唐書』卷199下 列傳 第149下 北狄 渤海靺鞨 "正月 授元瑜弟權知國務言義銀靑光祿大夫 檢校秘書監 都督 渤海國王."; 『冊府元龜』卷964 封冊2 "正月 以故渤海國王 大元瑜長弟 權知國務言義 爲銀靑光祿大夫 簡較秘書監 忽汗州都督 冊爲渤海國王 遣內侍李重旻充使."

25 김종복, 2009, 앞의 책, 19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않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표면상 정리를 통해 유구가 고분이 확실한지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3호 대지 고분의 존재 여부 등은 현재로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 다만 보고서의 견해를 따라 고분이 존재한다면, 간왕과 순목황후묘의 존재를 고려할 때 정왕 대원유와 그 일족의 묘역으로 점유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하는 데서 그친다. 이는 추후 보완 발굴조사 결과 발표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4호 대지는 희왕 대언의와 그 일족의 묘역으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4호 대지 내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규모가 큰 M8호는 경사식 무계단 묘도이며 매장주체부는 할석으로 구축한 다음 전돌로 피복하였다. 이는 M10호와 유사한 속성이나, 무계단 묘도라는 데서 M10호보다 후행한다. 또한 묘상건축의 흔적이 잔존하므로 형식 변화의 과도적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M8·9호의 조사 과정에서 다량의 전돌이 수습되지 않았으며, 두 고분 간의 거리도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부에 전탑과 같은 고대한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출토 유물은 소량의 관정 정도이며, 이와 공반된 반구형 화형 장식구는 간략화된 형태이다.

한편, M8호 내부에서는 성별 불상의 미성년과 25~30세의 성년 인골이 발견되었고, M9호 내부의 동북쪽에 45세 무렵의 남성, 서남쪽에 성년 여성 인골이 발견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잠정 M8호는 희왕 대언의의 능으로 비정하며, 좌측에 인접한 M9호는 희왕의 황후로 비정할 수 있을 듯하다.

M8호를 희왕 대언의의 능으로 비정한 이유는 간왕비 순목황후의 능이 M3호로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효의황후·정효공주의 5호대지 → 성왕 대화여의 6호 대지 → 강왕 대숭린의 8호 대지'가 북서-남동 축선으로 배치된 데 반해 5호 대지의 동쪽 끝자락에 연접된 강왕 대숭린(M2)과 순목황후(M3)호는 주 능선을 따라 3·4호 대지의 고분들과 동서 축선으로 배치된 양상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왕 사후 정왕 대원유·희왕 대언의·간왕 대명충이 순차로 즉위하였고, 가장 마지막에 즉위한 간왕 부부가 5호 대지에 매장되었기 때문에 능선의 진행 방향과 역행하게 고분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4호 대지는 다른 왕릉과 달리 희왕 대언의(M8)와 그 황후(M9)의 능을 중심으로 소형 석실 4기가 군집을 이루며 배치된 점이 다른 대지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시굴(?)로 5~6기의 고분이 확인된 3호 대지와 유사한 양상이다. 유독 3·4호 대지에 중심이 되는 유구 주변으로 5~6기의 고분이 군집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라 마립간기 왕릉이 권력과 정통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를 축조하는 행위는 불안정한 정국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덤을 크게 하고, 배총을 모으고, 무덤제사를 중시하여 추종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불안한 정국을 타개했다는 것이다.[26] 이를 염두에 두면 왕릉 중심으로 배총이 군집한 3·4호 대지는 정왕과 희왕의 능역으로 인식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강왕 사후 연이어 짧은 기간 재위한 국왕들은 '문왕 일가-강왕' 능의

〈표 3〉 용두산 용해묘구 내 왕릉 비정안

	3대 문왕 대흠무	5대 성왕 대화여	6대 강왕 대숭린	7대 정왕 대원유	8대 희왕 대언의	9대 간왕 대명충
劉曉東(2012)	M11					M2
田村晃一(2014)	M10					
윤재운(2017)	M11					M2
김진광(2018)	M13·14					
崔正凡(2019)	河南屯	M10	M13·14			M2
보고서(2025)						M2
	M11－대굉림 / M10－문왕과 효의황후의 女					
본고 안		M10	M13·14	미발굴?	M8	M2

26 김대환, 2024, 「불안한 권력과 정치적 승계, 그리고 모뉴멘트: 신라 마립간기 왕릉의 역설」, 『고고학으로 본 권력과 공간』, 제4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2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축선과 달리 동-서 축선으로 고분을 조성하였고, 대조영계의 마지막 왕인 간왕 대명충은 3·4호 대지 축선의 진행 방향이자 최초 용해고분군에 안치된 효의황후 일가의 묘역인 5호 대지 끝자락에 안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용해고분군은 선왕 대인수 즉위 이후에는 왕실 고분군으로서의 조성과 점유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선왕 대인수 이래로 발해의 왕은 대조영의 족제(族弟)인 대야발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굳이 용해고분군에 장지를 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간왕 대명충의 비인 순목황후가 사후 선왕 건흥 12년(829)에 용해고분군인 □릉으로 천장되었음은 부왕의 능원이 위치하던 용해고분군에 귀장된 이유와 상응하며, 순목황후의 천장이 이루어진 829년을 마지막으로 용해고분군의 점유는 중단된다. 이상의 왕릉 비정안을 기존 연구 성과와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Ⅳ. 권력 표상으로서의 능원 조성과 왕실 제사

앞에서 논의한 고분의 서열과 왕릉 비정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발해 왕실 능원으로서 용해고분군의 의미를 권력 표상의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잘 알려진 바처럼 왕릉은 단순히 왕을 매장한 무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쌓은 거대한 기념물임과 동시에 죽은 왕을 신격화하여 제사를 지내는 신성시되는 곳이며, 사망한 왕의 권력을 계승한 후계자의 권위를 담보하는 정치적 기념물[27]이기도 하다. 즉, 왕릉은 권력의 표상이며 장례 건축물은 의례와 마찬가지로 헤게모니 서열을 정당화하고 확대[28]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역대 왕들의 능이 밀집된 공간인 용해고분군은 그 자체로서 왕실 권력을 표상하는 능원임이 확실하다.

---

27 都出比呂志 저, 고분문화연구회 역, 2011, 『왕릉의 고고학』, 진인진, 20~22쪽.

28 Mike Parker Pearson 저, 이희준 역, 2009, 『죽음의 고고학』, 사회평론, 36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성왕 이래로 간왕에 이르기까지 발해 국왕들은 용해고분군에 인접한 중경이 아니라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상경용천부에 도읍을 두었고 그곳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도성인 상경용천부 인근이 아니라 굳이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중경 인근의 용해고분군을 장지로 선택하고 그곳에 매장되었다는 것이다. 선비 불이산원에서 빈(殯)이 이루어진 순목황후도 전례에 따라 천장(遷葬)되었다. 그렇다면 문왕계 왕실 구성원들은 용해고분군에 귀장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용해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무덤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면 775년 효의황후릉의 조성을 점유 개시 시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용해고분군이 중경현덕부의 치소인 서고성에 인접한 장소라는 점을 재차 환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경 지역은 백산부(말갈)의 거주지였기에 고구려적 요소가 강할 뿐만 아니라 발해의 특산물로 소개되는 대부분이 몰려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상경은 군사적으로 당이나 변방 세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는 점 외에는 큰 이점이 없는 곳이었다[29]는 견해가 참고된다.

이러한 중경의 지리적 중요성과 함께 서고성의 남동쪽으로 문왕 직계의 왕실 묘역인 용두산 용해고분군, 8세기 중엽경 관인들의 묘역[30]으로 짐작되는 서쪽의 북대고분군이라는 유적의 공간 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석하면 중경 일대는 발해 전기 문왕을 정점으로 하는 왕권의 우월성과 국력의 과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고분군 등의 유적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염두에 두면 문왕의 정치적 의도가 중경 일대에 발현되면서 발해 전기 왕실의 정통성을 표출하는 지방 거점으로 변모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문왕 사후 벌어진 정치적 혼란과 강왕의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 등의 역

29 한규철, 2010, 「발해 '중경'의 의미」, 『高句麗渤海研究』 37, 高句麗渤海學會, 160~164쪽.

30 崔正凡, 2023, 「吉林省 和龍市 渤海 北大古墳群 考察」, 『中央考古研究』 42, 中央文化財研究院.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적 정황을 보면 문왕계 국왕들은 왕실의 정통성 표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용해고분군으로의 귀장[31]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용해고분군에서 매장 의례[32]를 진행함으로써 왕권의 회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문왕계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재확인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용해고분군은 문왕 직계 왕실의 능원으로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이자 점유된 공간으로 보아도 좋다.

한편, 용해고분군은 능원으로서 '진릉'으로 지칭[33]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릉은 육정산고분군 내 정혜공주묘비에도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진릉이 왕릉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34]된 바 있다. 그러나 용해고분군에서 가장 높은 5호 대지에 조성된 효의황후묘의 '진릉대로 천장하였다(遷葬于珍陵臺)'라는 표현을 볼 때 진릉은 특정 장소, 용해고분군을 지칭하는 것[35]으로 보는 것이 타

---

31 780년에 정혜공주가 육정산고분군 내에 매장된 이유와 관련하여 공주 남편의 신분은 발해 건국 집단에 속하는 핵심 지배층의 일원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참고된다(김종복, 2009, 앞의 책, 168쪽).

32 의례는 관습적 행위의 한 형태로서 잘 규정되어 있고 또한 명시적이다. 또 의례에는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뒤엎을 수도 있는 정치적 계기들이 잔뜩 들어 있다. 의례를 거행할 전문적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는 참여자들이 의례 과정에서 헤게모니 서열을 규정하고 그를 차지하려는 권력 협상을 벌이므로 자연스럽게 과시가 되며 또 흔히 그것을 서로 겨누게 된다. 동일한 의례일지라도 어떤 참여자는 공동체를 결속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지위와 대우의 차이를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용해고분군에서 이루어졌을 왕실의 매장 의례는 이러한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Mike Parker Pearson 저, 이희준 역, 2009, 앞의 책, 356쪽).

33 천문령전투 이후 동모산에 자리를 잡은 대조영은 건국 이후 국호를 진국(振國)이라 하였는데, 진(振 zhèn)과 진(珍 zhēn)의 발음이 같으므로 국초의 지명과 유사한 발음의 귀하다는 뜻을 담아 능원의 이름을 지칭한 것은 아닌가 싶다.

34 崔正凡, 2019,「渤海 王陵比定 試論」,『한국고고학보』113, 한국고고학회, 233.235쪽

35 그렇다면 육정산고분군에 매장된 정혜공주 묘지의 '陪葬於珍陵之西原'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로 지적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쪽평원(지방)'이라는 점에 미루어 육정산고분군은 용해고분군(진릉)의 서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왕실 능원이 애초부터 진릉으로 불렸을 가능성이다. 정혜공주는 효의황후보다 2년 뒤에 사망했으므로 전자의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둘 수 있을 듯하다. 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하다. 그렇다면 순목황후 묘지의 '안□릉'은 용해고분군의 조성과 효의황후 묘지에 기재된 진릉대의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진릉'일 가능성[36]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다음으로 용해고분군 내 왕릉의 수릉 문제를 알아본다. 앞서 살펴보았듯 유구와 유물의 연대, 그리고 그에 비정되는 피장자들의 사망 연대에서 약간의 대차가 발생한다. 예컨대 M13·14상부 건물지 와당의 연대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으로 비정되지만 강왕의 사망 연대는 9세기 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당 형태의 건축물이 조성된 M13·14호, 상부 전탑이 조성된 정효공주묘와 M10호[37]는 단기간에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는 데서도 수릉(壽陵)을 의심할 만하다.

발해에서 역대 국왕들의 묘지명은 물론 발해사 관련 문헌에서 왕실의 묘장제도를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황이며, 수릉을 축조한 사례 역시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없다. 다만 정효공주묘비의 기록을 토대로 수릉과 관련된 문제의 실마리에 어느 정도 접근해볼 수 있다.

정효공주묘 묘실에서 수습된 인골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된다. 장구(葬具)는 남아 있지 않으나, 관대 상부에 목관 편의 존재와 인골에서 탄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목관 2기가 병렬로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묘지에서 남

편 후자의 관점을 고려하면 문왕이 효의황후의 장례를 치르며 장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왕실능원으로서의 진릉이 육정산에서 용두산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그렇다면 정혜공주묘의 장지에 대한 설명은 '(새로이) 진릉(으로 지정된 능원) 서쪽(지방)의 육정산고분군에 배장하였다'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사망에서 장례까지의 기간, 정효공주묘의 장지에 대한 설명의 차이(陪葬於染谷之西原) 등 추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므로 이를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6 임상선, 2024, 「발해 역사 속의 變革의 순간들」, 『한국고대사탐구』 4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66쪽.

37 다만 성왕은 즉위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짧아서 사후 강왕 주도로 묘역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특히 성왕의 재위 기간과 연령 등을 고려한다면 2기의 고분을 조성하기보다는 하나의 고분에 합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이 일찍 사망(… 所天早化 幽明殊途 雙鸞忽背 兩劍永孤 …)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남성 인골은 정효공주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정효공주묘의 조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정효공주묘가 그의 생시에 조성되어 먼저 죽은 남편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묘비에 남편의 사망 시점이 기재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론은 불가능하다. 둘째, 먼저 죽은 남편이 모처에 임시로 안치되었다가 정효공주묘가 조성된 이후 합장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인골 노출 당시 목관의 존재 가능성도 제시되었으므로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수릉의 가능성[38]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용해고분군 내 고분 배치 양상을 능원의 조성과 왕실 장례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효의황후묘와 정효공주묘의 5호대지 → 성왕 대화여의 6호 대지 → 강왕 대숭린 부부의 8호 대지는 북동-남서 축을 이루며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강왕 부부는 불상과 마찬가지로 금당을 표방한 건물지에 안치되고, 〈그림 10〉과 같이 그 뒤의 능선을 따라 선대왕과 공주의 탑이 보이는 경관을 의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 상부에 불탑과 금당을 표방한 건물이 조성된 고분이라는 데서 정권의 정당성과 왕권의 강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한 경관이었을 것이다.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왕실 묘역과 불교건축물이 결합된 용해고분군의 경관[39]을 의도한 강왕은 효의황후와

38 용해고분군(진릉)이 왕실 인물들의 귀장지임과 동시에 중경 인근이라는 입지를 유념한다면 중경을 관할하는 지방관에 의해 국왕 생전 혹은 사후에 능묘의 공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편 용해고분군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m 가량 떨어진 지점의 잠두성을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능읍(陵邑) 등 어떠한 형태로든 용해고분군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만하다. 다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므로 추론의 선에서 그치며, 이를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9 오로지 망자를 매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식 구역은 조상들로 이어지는 혈통의 근거로 결정적으로 중요하나 양이 제한된 자원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영속 집단들이 유지할 것이다. 영속 집단의 권한을 망자의 직계 후손 여부로 얻고 정당화하는 정도만큼 그런 집단은 신앙과 그 의례로써 직계 영속 집단임과 그 권한을 정기적으로 재확인한다. 전탑과 금당으로 표출된 묘상건축이 어우러진 경관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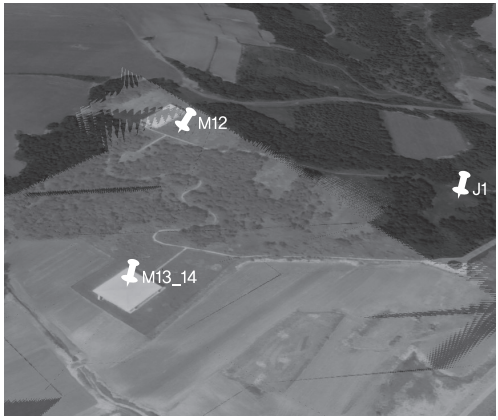


그림 10 M13·14호의 가시권(© Google Earth)

정효공주, 성왕으로 이어지는 '금륜성법대왕'의 후손임을 과시[40]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진릉으로서 용해고분군의 경관은 강왕 대승린이 그동안 실추된 왕권 회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보아도 좋다.

한편, 강왕 사후에는 동-서 방향으로 3·4호 대지에 새로이 고분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분 조성 축선의 변화는 개별 대지 내에 조성된 고분의 수 및 밀집도와 연관된다. 동-서 방향의 3·4호 대지에는 각각 6기가량의 고분이 군집을 이루며 조성되어 있다. 3호 대지의 경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4호 대지에는 M8호를 둘러싼 형태로 M4-7·9호분이 배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용해고분군의 조성 단계에 이르러 왕실 능원으로 진릉이라는 공간인식과 함께 왕릉의 조성 원리와 배장 질서가 형성된 결과로 보아도 좋다. 반면 강왕 사후 다시금 왕권이 약해지는 와중에 문왕계 국왕들은 정통성을 표출하기 위해

이와도 무관하지 않다(Mike Parker Pearson 저, 이희준 역, 2009, 앞의 책, 57, 250쪽).

40 이는 집권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왕이 묘제를 통해 일족을 하나로 규합하며 유대감을 공고히 함과 아울러 왕권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고구려 전기 묘제와 어느 정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강진원, 2021,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231~2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새로이 경관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강왕 대승린 즉위기만큼 왕권이 신장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왕릉 주변으로 복수의 소형 석실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덤제사를 통한 불안정한 정국의 타개라는 명제와도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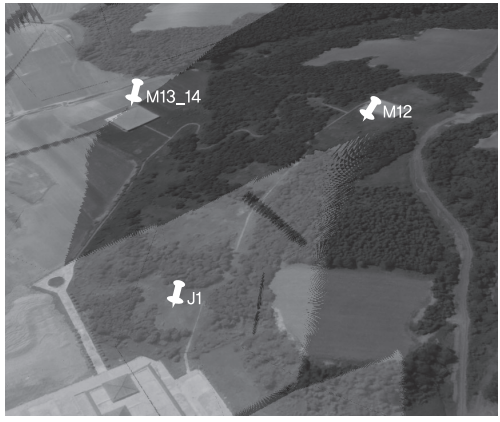


그림 11 J1건물지의 가시권(© Google Earth)

이와 관련하여 능선 말단의 2호 대지에 단독 조성된 1기의 건물지(J1)는 왕실제사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호 대지의 고분들과 축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능선과 대지의 지형 조건을 염두에 두면 동일 선상으로 보아도 좋다. J1 건물지는 평면 방형의 회자형 구조이다. 이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문양으로 볼 때 건물지의 조성 및 점유 연대는 8세기 후반 9세기 전반 이후로 판단된다.

J1 건물지는 남동쪽에 초석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남북 축선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11〉에서 보듯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3·4호 대지와 5호 대지의 동쪽 일부가 조망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건물지는 3·4호 대지에 조성된 고분들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데, 구체적인 건물지의 성격은 빈전(殯殿)이거나 왕실 제사가 이루어진 묘사(廟祀)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건물지 내부의 1칸 규모는 길이와 너비가 3m 정도인데, 〈표 2〉의 시상 규모를 염두에 둔다면 건물지 내부 1칸은 목관이 충분히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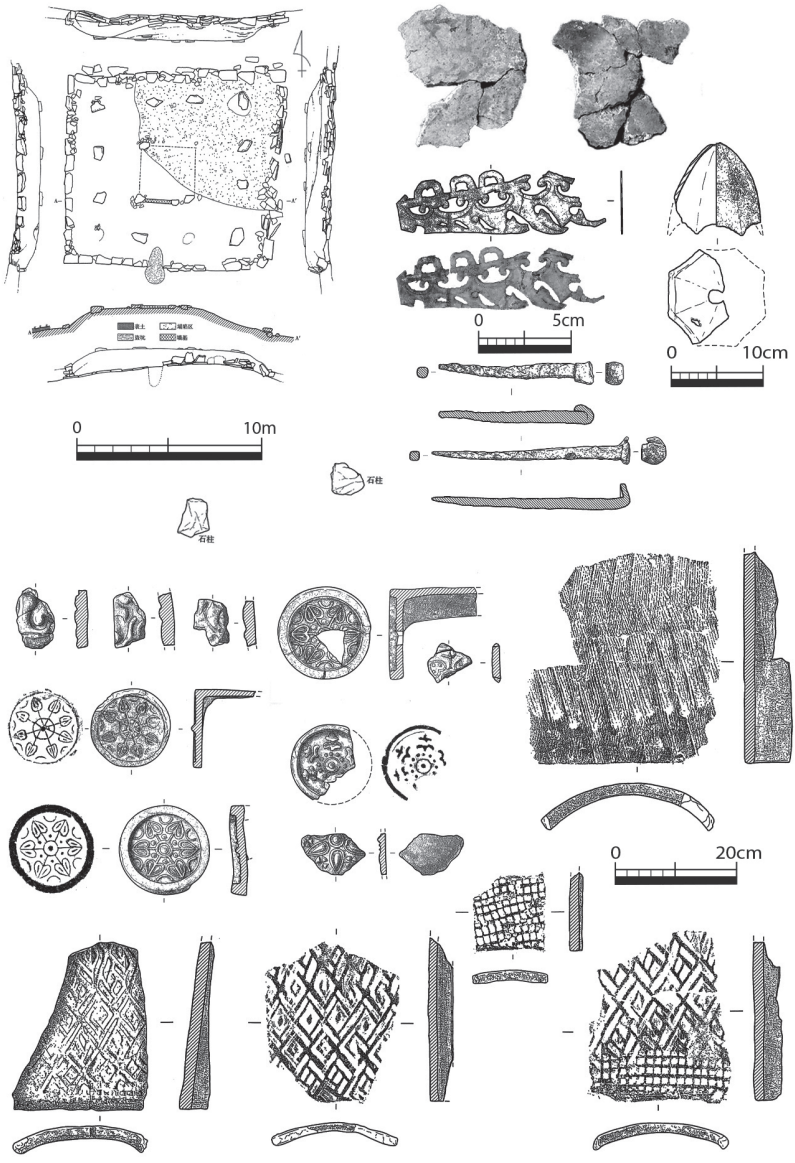


그림 12 2호대지 J1건물지와 주요 출토유물(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25에서 재편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상경에서 용해고분군으로 운구된 왕 혹은 황후의 관이 잠시 안치되는 빈전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기간에 3·4호 대지를 조망하며 왕실 제사를 치르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V. 맺음말

2009년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의 발견 사실이 간보를 통해 보고된 이래 구체적인 추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전공자가 자료 공개에 대한 갈증과 학문적 궁금증을 안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다. 오랜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 2025년 드디어 용두산고분군의 발굴조사 보고서가 정식 출간되면서 전공자들의 학문적 갈증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주제의 자료가 확보되었는데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중에서도 이상에서는 용두산 용해고분군에서 기년이 확인된 정효공주묘·효의황후묘·순목황후묘를 중심으로 주요 고분들의 속성과 출토 유물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여 연대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용해고분군은 효의황후묘가 조성된 775년(8세기 후반)부터 순목황후가 천장된 829년(9세기 전반)까지 고분의 조성과 점유가 이루어졌으며, 묘도에 계단이 부가되었는지의 여부, 매장주체부와 시상의 조성 재료, 묘상건축의 유무 등의 속성이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출토 유물에 대한 검토와 역연대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화형 반구형 장식구 등의 유물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형식의 변천 과정이 유존함을 확인하였다.

유구와 유물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연대와 개별 고분의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해고분군 내 개별 고분에 대한 왕릉 비정을 시도하였다. 용해고분군에서 가장 높은 5호 대지에 효의황후와 정효공주의 묘가 조성된 점으로 보아 용해고분군은 문왕 직계 국왕들과 황후들의 무덤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살펴본 유구와 유물의 연대, 개별 고분의 입지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성왕 대화여는 M10호, 강왕 대승린은 M13호(그 황후는 M14호), 정왕 대원유는 3호 대지의 미발굴지구, 희왕 대언의는 M8호, 간왕 대명충은 M2호로 비정해보았다.

문왕 사후 즉위한 국왕들은 성왕 대화여가 상경으로 천도한 이래로 줄곧 상경에 도읍을 두고 재위하였으나, 사후에는 원거리인 중경 인근의 용해고분군에 매장되었다. 이는 적어도 문왕 직계 국왕들은 귀장이 보편적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왕 사후 벌어진 정치적 혼란과 강왕의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 등의 역사적 정황을 염두에 둔다면 문왕계 국왕들은 왕실의 정통성을 표출하려는 목적 등으로 용해고분군으로의 귀장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효의황후 묘지에 기재된 '진릉대'라는 명칭이 주목되는데, 이는 기왕의 논의와 같이 특정 국왕의 능이 아니라, 왕실 능원이 조성되고 점유된 지역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봄이 타당함을 피력하였다. 즉, 능원으로서의 진릉대는 왕권의 정당성과 후계자의 권위를 담보하는 정치적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이상과 같이 용두산고분군의 발굴조사 결과를 담은 정식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용두산 용해고분군에서 왕릉의 비정을 시도해보았다. 사실 특정 고분과 피장자인 국왕을 매치시키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집중하다 보니 왕실 고분에 드러나는 상장례와 그 절차, 빈장(殯葬)등 왕실의 매장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는 정치하고 치밀하게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2009년 발표된 간보를 통해 추론된 왕릉 비정에서 좀 더 진전된 비정안과 견고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데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 특히 발해 왕실의 상장례 절차와 매장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추후의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日本逸史』.

단행본

강진원, 2021, 『고구려 국가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김종복, 2009,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都出比呂志 저, 고분문화연구회 역, 2011, 『왕릉의 고고학』, 진인진.

Mike Parker Pearson 저, 이희준 역, 2009, 『죽음의 고고학』, 사회평론.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 · 吉林大學考古學院 · 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年發掘報告』, 文物出版社.

河南省文物考古研究院 外, 2016, 『鞏義黃冶窯』, 科學出版社.

논문

권은주, 2025, 「발해 효의황후와 순목황후 묘지명 검토」, 『용두산 발해왕실 고분군 학술분석 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

김대환, 2024, 「불안한 권력과 정치적 승계, 그리고 모뉴멘트:신라 마립간기 왕릉의 역설」, 『고고학으로 본 권력과 공간』, 제4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김진광, 2018,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 · 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 『先史와 古代』 56, 韓國古代學會.

小嶋芳孝, 2017, 「瓦當編年으로 본 河南屯古城 · 西古城 · 八連城의 評價」,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역사재단 · 고구려발해학회.

安在成, 2021, 「渤海 康王代 對外交涉과 王權强化」, 高麗大學校 大學院 韓國史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科 碩士學位論文.
양은경, 2010,「渤海 上京城 佛敎寺院址의 建立年代와 佛像 奉安의 復原」,『東北亞歷史論叢』27, 동북아역사재단.
윤재운, 2017,「발해왕족무덤 발굴의 새로운 성과와 역사적 해석」,『한국고대사와 왕릉 고고학』, 제19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세미나, 한국고대사학회.
임상선, 2024,「발해 역사 속의 變革의 순간들」,『한국고대사탐구』4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崔正凡, 2019,「渤海 王陵比定 試論」,『한국고고학보』113, 한국고고학회.
_____, 2021,「하남둔고성(河南屯古城)의 재인식(再認識)-평지성(平地城)에서 능원(陵園)으로」,『東北亞歷史論叢』72,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渤海 年代決定資料와 曆年代」,『한국상고사학보』118, 한국상고사학회.
_____, 2023,「吉林省 和龍市 渤海 北大古墳群 考察」,『中央考古研究』42, 中央文化財研究院.
한규철, 2010,「발해 '중경'의 의미」,『高句麗渤海研究』37, 高句麗渤海學會.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 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2009,「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考古』6期.
孫岩, 2023,「东北亚文化视角下的渤海上京城佛寺建筑研究」, 哈尔滨工業大學 硕士學位論文.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渤海貞孝公主墓發掘淸理簡報」,『社會科學戰線』1期.
劉曉東, 2012,「渤海王陵及相關問題續論」,『北方文物』3期.
鄭永振·嚴長錄, 2000,「渤海貞孝公主墓」,『渤海墓葬研究』, 吉林人民出版社.

田村晃一, 2014,「渤海王陵·貴族墓論(その2)-(『六頂山渤海墓葬』を讀んで)」,『青山史學』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용두산 용해고분군 내 왕릉 비정과 능원

최정범

용두산고분군으로 잘 알려진 용두산 용해묘구(고분군)는 2025년 정식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구체적인 발해 왕실 고분문화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매장연대가 확실한 효의황후묘(775)·정혜공주묘(792)·순목황후(829)묘를 기준으로 고분들의 속성을 추출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공반 유물의 비교를 통해 연대의 도출하였다. 그 결과 용해고분군은 8세기 후엽부터 9세기 중엽까지 약 55년간 고분군의 점유와 조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 기간은 문왕 직계 왕들의 재위기간과 일치하며, 고분의 구조와 공반유물의 연대, 고분 조성의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왕 대화여는 M10호, 강왕 대숭린은 M14호, 정왕 대원유는 3호 대지의 미발굴지구, 희왕 대언의는 M8호, 간왕 대명충은 M2호로 비정하였다.

문왕 사후 즉위한 국왕들은 상경성에서 사망해도 원거리인 용해고분군에 매장되었다. 국인에 의한 성왕의 즉위와 강왕의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 정왕-간왕에 이르는 불안정한 정국이라는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면, 문왕계 국왕들은 권력의 정당성과 왕권 강화를 표방하기 위해 용해고분군에 귀장되고 의례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효의황후묘에 기재된 '진릉대'는 문왕계 국왕들의 능원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칭하며, 왕권의 정당성을 가시적으로 표출하고 후계자의 권위를 담보하는 정치적 공간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주제어: 발해, 용두산고분군, 진릉(珍陵), 귀장, 능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Royal Tomb Designation and Royal Mausoleum in Longhai Cemetery, Longtoushan

Choi Jungbum

The Yonghae Tomb Complex on Yongdu Mountain, widely known as the *Yongdusan Gobungun*, enabled concrete research on Balhae royal tomb culture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its official report in 2025.

Using tombs with clearly established burial dates, such as those of Empress Hyoui (775), Princess Jeonghye (792), and Empress Sunmok (829), as reference points, the attributes of other tombs were analyzed to trace patterns of change. Through a comparison of associated burial goods, the chronological sequence of the tombs was inferred, confirming that the construction and occupation of the Yonghae Tomb Complex occurred over roughly 55 years, from the late eighth century to the mid-ninth century.

This period corresponds to the reigns of the direct royal descendants of King Mun. Considering the tomb structures, dating of associate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lics, and the spatial arrangement of the tombs, it is tentatively proposed that Tomb M10 corresponds to King Seong (Daehwayeo), Tomb M14 to King Gang (Daesungrin), the unexcavated site on Platform 3 to King Jeong (Daewonyu), Tomb M8 to King Hee (Daeeonui), and Tomb M2 to King Gan (Daemyeongchung).

After King Mun's death, his successors were interred in the distant Yonghae Tomb Complex even when they died in Sanggyeongseong, the capital. Considering the historical context, King Seong's accession supported by national officials, King Gang's efforts to consolidate authority, and the unstable political conditions from King Jeong to King Gan, it is believed that King Mun's descendants chose to be buried in the complex and presided over the rituals to assert their legitimacy and bolster royal power. The term *Jinreungdae*, recorded in the epitaph of Empress Hyoui, refers to the royal mausoleum of King Mun's lineage. It served both as a visible expression of royal legitimacy and as a political space embodying and guaranteeing the successor's authority.

Keywords: Balhae, Longtoushan Cemetery, Zhenling(珍陵), Return Burial, Royal mausoleu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05

발해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의 특징과 의의

최슬기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원

I. 머리말
II.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 현황
III.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 분석
IV.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의 특징과 의의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장식기와는 지붕의 의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와이자, 건물의 위계를 반영하는 기와로 건물의 성격을 추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두산고분 외 장식기와가 출토된 고분으로는 육정산고분이 있지만, 여러 종류의 장식기와가 공반 출토된 유적은 용두산고분이 유일하다. 하지만 자료의 소개는 간보로만 이루어져 자세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기다림 끝에 2025년 정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되면서 학계에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

이 글에서는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기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8세기 중·후반에 조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의 특징과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이 글의 목적은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기와를 관찰하여 특징과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다. 용두산고분 출토 기와의 특징은 기존 연구에서 이해되어온 발해 기와의 특징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특징과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올해 간행된 보고서의 서론에는 앞으로 용두산고분군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유구 및 유물의 명칭과 번호는 이 보고서를

* 투고: 2025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4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2025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學考古學院·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 發掘報告』, 文物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준으로 삼을 것을 밝히고 있다.[2] 이를 따라 이 글에서도 올해 간행된 보고서에 부여된 명칭과 번호로 본문을 서술하고자 한다.

기와의 종류는 한국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바꾸어 지칭하였으나, 세부 문양 및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는 보고서에 기술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보고서의 용어를 그대로 서술하며, 한문 병기가 필요할 경우 이 역시 보고서를 따라 간체자로 표기하였다. 또 이 글에 실린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를 설명한 그림들은 2025년 발간된 『龙头山渤海王室墓地 』보고서에 수록된 도면 또는 도판을 재구성한 것이다.

용두산고분군에서 기와는 정효공주묘(M1호)를 포함하여 모두 4기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그러나 M1호에 관한 조사 내용은 일찍이 1982년 간보로 소개된 바 있어, 이번 보고서에서 이에 관한 재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3] 따라서 정효공주묘에서 출토된 기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수 없기에, 이 글에서는 이를 제외한 4기의 고분에서 출토된 기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용어 정의

용두산고분군 보고서에서 사용한 용어와 한국의 용어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키와(筒瓦)는 단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단부가 있는 수키와는 '미구', 단부가 없는 수키와는 '토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최근 이는 기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형태가 비슷한 물건으로부터 붙여진 명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구'는 유단식수키와로, '토수'는 무단식수키와로 바꾸어 부르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4] 장식기와 중 지붕의 사래 끝에 끼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 · 吉林大學考古學院 · 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위의 보고서, 9~10쪽.

3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简报」, 『社會科學戰線』 1982-1.

4 김성구 · 신은희, 2025, 『와장 김은동-근현대기와와 기와명장』, 학연문화사, 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는 기능의 기와가 '토수'로 불리고, 발해에서는 토수와가 출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이를 무단식수키와, 유단식수키와로 지칭하였다. 보고서에서 단부는 장부 머리라는 뜻의 '순두(榫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무단식수키와는 장부 머리가 없는 '무순두통와(无榫头筒瓦)'로, 유단식 수키와는 단부 형태가 대나무 마디와 유사한 점을 들어 '죽절상순두통와(竹节状榫头筒瓦)'로 지칭하였다.

암키와는 일반적으로 '판와(板瓦)'로 지칭하나 보고서에서는 하단면과 외면의 타날 문양에 따라 '보통판와(普通板瓦)'와 '~문판와(~ 纹板瓦)'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암막새는 '적수(滴水)'로 부른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는 당(唐)대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사용된 둥글고 뾰족한 형태의 막새부를 가지고, 막새에 부착된 수키와의 접합 각도가 직각 또는 둔각인 기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남북조시대까지는 한쪽 하단면이 두껍고 여기에 문양이 장식된 암키와를 처마 끝에 사용한 것으로 이해한다.[5] 즉, 당대를 기준으로 암막새의 형태가 크게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암막새는 처마 끝에 놓이는 암키와라는 뜻의 '첨두판와(檐头板瓦)'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두산고분군 보고서에서는 '첨두(檐头)'의 문양을 근거로 형식을 구분하여 '~문판와(~纹板瓦)'로 설명하고 있다. 발해의 경우 동시기 공존하였던 당, 신라와 달리 내림새가 뚜렷하게 돌출된 형태의 암막새의 출토 사례가 없다. 대신 반건조된 암키와 하단면에 문양을 시문한 것이 많이 확인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문판와(~纹板瓦)'로 설명된 기와를 암막새로 지칭한다.

와당(瓦當)은 처마 끝에 시공되는 기와로 수막새를 뜻한다. 곡배첨두통와(曲背檐头筒瓦)는 추녀 끝에 이어진 모서리나 마루 끝을 장식하는 판형 기와의 상단에 얹는 기와로 마루수막새이다. 마루 처마 끝 모서리를 장식하는 기와인 '수면척두와(兽面脊头瓦)'는 국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귀면와로 지칭하며, 용

5 김성구, 2009, 「중국기와의 變遷과 그 特性」, 제6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와학회, 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와, 수면와로도 불린다. 최근 백제와 신라에서는 귀면문 대신 연화문이 시문되었으며, 귀면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을 들어 이기와의 기능 및 형태를 우선하는 용어를 제안한 연구가 제시된 바 있다.[6] 이 글에서는 이를 따라 마루 끝 판형기와로 부른다.

용마루 좌우에 시공하여 지붕에 웅장함을 더하는 치미는 중국에서 시대별로 다르게 지칭되었다. 치미에 관한 용어가 처음 등장한 기록은 386년이며, 북조와 동진 시기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서는 '치물(鴟吻)'로 지칭하였는데, 중당(中唐, 766~835) 이후 위로 솟은 새의 날개 부분이 물고기 꼬리 형태로 변하고, 두부의 형태는 입을 크게 벌려 용마루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물다'의 뜻을 지닌 '문(吻)'이 들어간 치문으로 바꾸어 부르게 된다.[7] 발해의 경우 치미의 두부가 괴수 형태인 것은 상경지역에서만 확인되며, 후기에 이르러 치미의 두부 형태가 괴수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후기가 되면 동부에 초화문이 장식된 사례가 확인된다.[8]

용두산고분군에서 치미는 모두 잔편으로 발견되어 완형 추정은 어렵다. 하지만 초화문이 장식된 동부편이 확인되고, 고분군의 조영시점 등을 고려한다면 치문으로 지칭한 보고자의 용어 사용에 동의되는 바이다.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이를 모두 통용하여 치미로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기에, 이 글에서는 치문이라는 용어 대신 치미를 사용하기로 한다. 내림마루 끝을 마감하는 장식기와인 용두는 중국에서는'수두(兽头)'로 부른다. '루척(垒脊)'은 적새이며 '당구(当沟)'는 착고이다. 보고서에서 착고는 제작방식에 따라 '개제당구(改制当沟)'와 '예제당구(预制当沟)'로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

6 최영희, 2023, 「古代 三國의 장식기와와 지붕 意匠」, 『先史와 古代』 72.

7 허선영, 2024, 「중국 치미의 문화적 함의와 용어 재고찰」, 『한국기와학보』 9, 95~102쪽.

8 이채경, 2023, 「발해 장식기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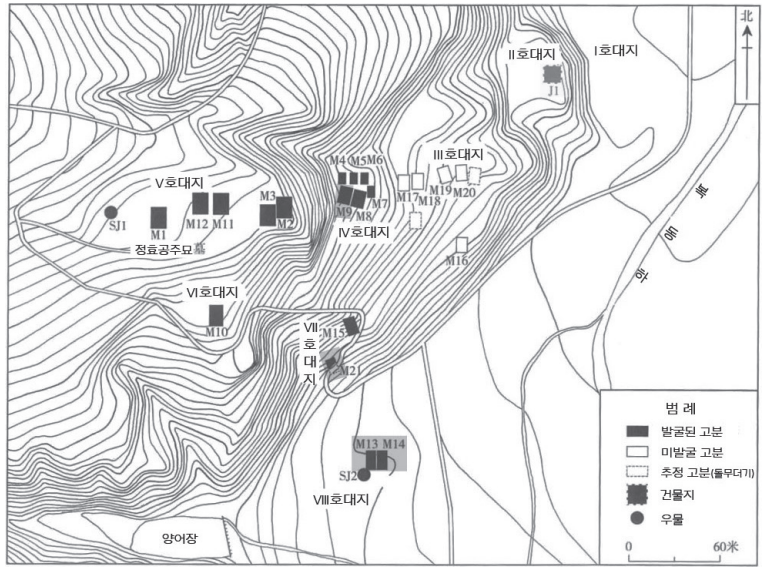


그림 1 용두산고분군 기와 출토 유구(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25, 12쪽)

용두산고분군은 길림성(吉林省) 화룡시(和龍市) 두도진(頭道鎭)에 위치한다. 1970년대 수십기의 고분 및 건물지 1기, 우물 1기가 발견된 이후 1980~1981년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정효공주묘가 확인되며, 용두산고분군은 일찍부터 발해 왕릉으로 인정되었다. 정효공주묘와 함께 발견된 유구들은 용두산의 능선 중앙에 자리한다. 1987년, 1988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용두산의 다른 능선에도 고분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남에서 북으로 석국·용해·용호 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포괄하여 용두산고분으로 부르고 있다. 용두산고분군에서 기와는 J1건물지, M9호, M21호, M13·14호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된다(그림 1, 표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용두산고분군 기와 출토 현황

출토 유구 및 출토 상황			기본기와			장식기와							기능기와	
			무단식수키와	유단식수키와	암키와	수막새	암막새	마루수막새	마루끝판형기와	치미	용두	착고	적새
II호 대지	J1건물지	- 평면 방형(方形) 건물 - 길이 東 약 10.4m, 南 약 11m, 西 약 10.5m, 北 약 11.5m - 기단 내부 판축, 기단 외부 석재 마감 - 기단 위 초석 '回'자 배치 - 와전 건물지 기단 동, 남, 북측에서 출토	20	5	19	20	50		3				
IV호 대지	M9호분	- 대형 석실묘(石室墓) - M8호분과 약 1~1.6m 떨어져 위치. 묘광, 지상 묘역 또한 각각 조영 - 묘도-묘문-연도-묘실 구조 - 사상대 전, 돌로 조영. 장방형전 1매 제외 모두 방형전 사용 - 상부 봉토 둘, 전, 기와를 둘러 장방형 묘역 조성					7						
VII호 대지	M21호분	- 중형 석실묘 - 묘실만 잔존 - 지상에는 돌로 조용한 장방형 묘역 확인. - 석조 묘역에서 음각으로 '本'이 새겨진 암키와 잔편이 2점 수습됨.			(2)								
VIII호 대지	M13·14호분	- 이혈동봉전곽묘(異穴同封塼槨墓) - 지상 묘상건물-지하 전곽묘실 구조 - 기단 위 초석을 통해 지상의 건물은 평면 '回'자형으로 파악 - 출토품을 근거로 M13호분 피장자는 여성, M14호분은 남성으로 추정 - M13호와 M14호분은 전곽 구조, 규모, 축조방식 거의 동일 - 보고된 와전류는 모두 지상의 묘상건물 출토품	5	12	(5)	87	多	4		(26)	(35)	3	多

多 = 비교적 다량 출토. 정확한 유물 수량 보고되지 않은 것

Ⅲ.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 분석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기와는 시공되는 기능과 수량 등을 근거로 기본기와(基本瓦), 장식기와(裝飾瓦), 기능기와(機能瓦)로 구분된다. 지붕을 조영하는 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암키와·수키와가 기본기와에 해당하며, 장식기와는 막새·치미·마루수막새 등과 같이 처마와 마루 끝에 시공되어 지붕의 의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와이다. 기능기와는 마루에 사용되어 지붕 각 면의 연결부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새, 착고가 이에 해당한다.[9]

9 최영희, 2023, 앞의 글, 37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기본기와

1) 암키와

암키와는 네모난 판(板) 모양으로 지붕 바닥에 이어져 기왓골을 형성하는 기본 기와이다.[10] 용두산고분군에서 암키와는 J1건물지, M21호, M13·M14호에서 출토되었다. 용두산고분군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암키와가 출토된 유구는 J1건물지이며, 외면 문양의 다양성이 높은 유구 또한 J1건물지이다. 평면 형태는 대부분 제형이며, 색조는 홍갈색 계열이 주를 이루나 일부 회색 계열도 확인된다.

타날된 문양 종류로는 승문(绳纹), 교차승문(交叉绳纹), 능형복합방격문(形纹复合方格纹)이 있다. J1건물지에서는 외면에 승문, 교차승문, 능형복합방격문 암키와가 출토되었으며, M21호와 M13·14호에서는 외면에 문자 또는 부호가 새겨진 암키와가 확인되었다. 암키와 내면에서는 마점문의 박자가 관찰되는 편도 확인된다. 이는 M13·14호에서 1점 출토되었다. 용두산고분군에서 암키와 타날판으로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승문이다. 발해에서 암키와는 타날 후 외면을 무문화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문양을 무문화하기 전에는 승문 타날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차승문과 능형복합방격문 암키와는 J1건물지에서만 출토되었다. 발해에서 격자문이 타날된 암키와는 육정산고분군, 고구려 온특혁부성·비우성을 제외하면 중앙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목단강 하류, 러시아 연해주, 북한 함경도 일대에서 확인된다.[11] J1건물지에서 출토된 능형복합방격문 암키와와 동일한 타날 문양의 암키와는 온특혁부성 출토품이 유일하다.

내면에는 포목이 확인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좌우 양 측단에는 안에서 밖으로 그은 와도흔이 관찰된다. 파손된 것이 대부분으로 통계적 수치로부터 규격적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암키와가 시공되는 위치를 생각해보면 무문

10 김성구·신은희, 『와장 김은동-근현대기와와 기와명장』, 학연문화사, 19쪽.

11 정동귀, 2015, 「발해 평기와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2~10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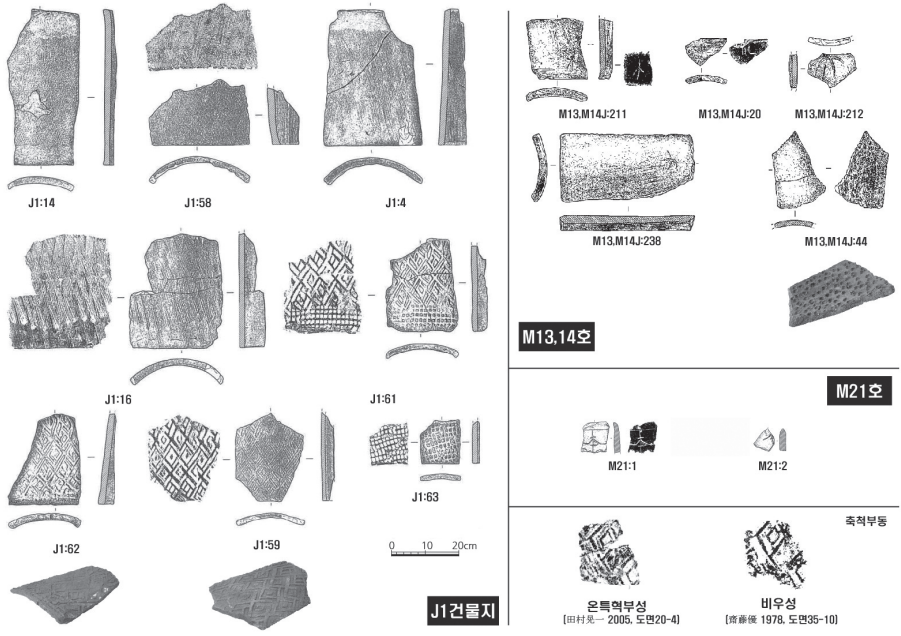


그림 2 용두산고분군 출토 암키와와 비교자료

과 승문 암키와의 경우 하단면에 장식이 있는 끝장식 암키와(암막새) 규격과 연동하여 추론이 가능하다. 평균 길이 약 38~41cm, 너비 31~33cm 크기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두께는 1.6cm이며 2cm로 두꺼운 것도 확인된다(그림 2).

2) 수키와

수키와는 지붕 바닥에 놓인 2매의 암키와 사이에 놓여 기왓등을 형성하는 기본 기와이다. 원목형(圓木形)의 모골에서 성형한 원통기와를 2쪽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단이 있는 것과 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12] 발해 수키와는 먼저 단이

12 김성구·신은희, 2025, 『와장 김은동-근현대기와와 기와명장』, 학연문화사, 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는 유단식과 단이 없는 무단식으로 구분하고, 다시 횡방향 고랑의 유무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13]

용두산고분에서 수키와는 무단식과 유산식이 모두 확인되며, J1건물지와 M13·M14호에서 출토되었다. 무단식수키와는 발해 초중기 와전문화를 대표하는 자료로 파악되었으나,[14] 이는 시공되는 위치 또는 기능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J1건물지에서 유단식 수키와는 단에 1줄 고랑이 있는 형식만 확인된다. J1건물지에서 출토된 무단식 수키와는 평균 약 48cm와 평균 38cm인 것이 확인되며, 유단식수키와의 평균 길이는 이보다 짧은 35cm로 파악된다.

M13·M14호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형식 또한 무단식과 유단식이 모두 확인된다. 그러나 유단식의 경우 고랑이 없는 것과 1줄 고랑만 있는 것이 확인되며, 단부에 문자 또는 부호가 새겨진 것도 확인된다. 단부에 지름 약 1cm 크기의 원형의 못 구멍이 있는 수키와도 보고되었다. 못 구멍 내에는 방형의 못도 잔존한다. 못 구멍이 있는 수키와는 1/2만 잔존하며 막새가 부착된 수키와로 추정된다.[15] 유단식 고랑 수키와는 무단식 수키와와 함께 발해 전 유적에서 확인되는 형식으로, 도성 유적에서도 모두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도성에서는 1줄 고랑만 확인되는 반면, 연해주 일대와 함경도 일대에서는 3~4줄 고랑의 수키와도 확인된다.[16] M13·M14호에서 출토된 무단식 수키와의 평균 길이는 약 37.5cm이며, 유단식 수키와는 38~45cm인 것이 확인된다. 내면에서는 포흔이 관찰되며, 외면은 정면되었다. 고구려 후기 수키와는 외면의 문양을

13 정동귀, 2015, 앞의 글, 43쪽.

1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學考古學院·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앞의 보고서, 200쪽.

15 발해 막새가 부착된 수키와는 종류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하단부 쪽 중앙에 못구멍이 확인된다(정동귀, 2015, 앞의 글, 113쪽).

16 정동귀, 2015, 위의 글, 1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면하여 지운 것이 유행하였다.[17] 발해 수키와 중 외면에 타날문양이 확인되는 사례는 육정산고분군과 일부 유적에서만 확인되며 문양을 지운 것이 대부분이다.[18] 양 측면에는 2~3차례 와도 분할 흔적이 남아 있다. 단부에 문자 또는 부호가 시문된 수키와는 M13·M14호에서만 출토 사례가 확인되며, 문자는 '二', '三', '本', '市'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두 뾰족한 도구로 새겨졌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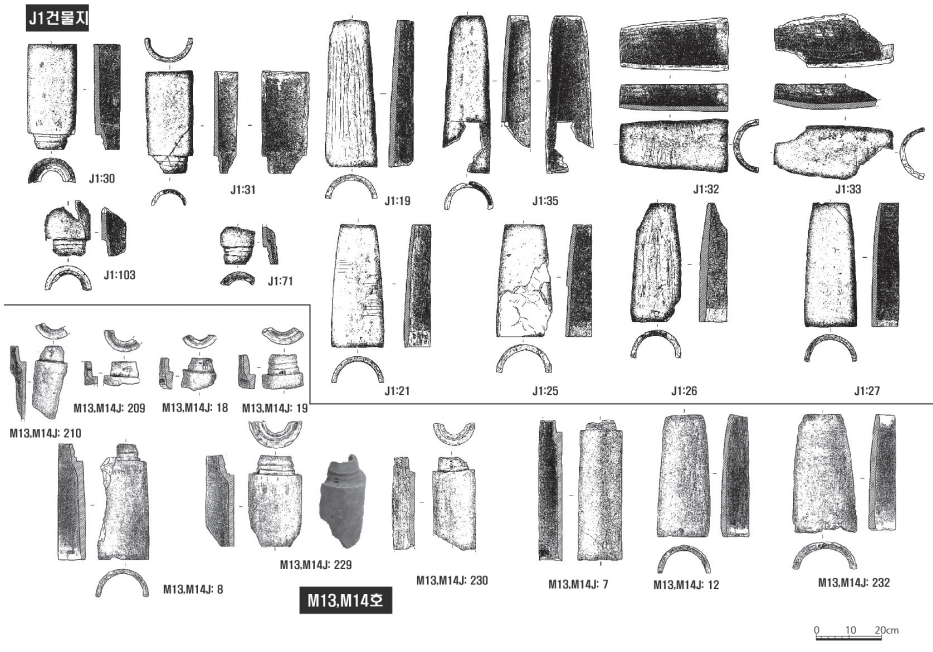


그림 3 용두산고분군 출토 수키와

17 심광주, 2009, 「고구려·백제 평와의 제작기법 비교」, 『백제학보』 2, 7쪽.

18 정동귀, 2015, 앞의 글, 1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장식기와

1) 암막새

암막새는 수막새와 함께 지붕 처마 끝에 놓이는 장식기와이다. 발해의 경우 동시기 공존하였던 당, 신라와 달리 내림새가 뚜렷하게 돌출된 형태의 암막새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반건조된 암키와 하단면에 문양을 시문한 것이 많이 확인된다. 문양이 시문된 단부의 두께가 반대면에 비해 두꺼워 이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암막새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용두산고분에서 암막새는 J1건물지, M9호, M13·14호에서 출토되었다. 평면 형태 대부분 제형이며, 확인되는 문양 종류로는 지두문, 인각문, 선각문이 있다. 지두문 암막새는 세 유적에서 모두 확인되며 다시 외면에서 내면으로 누른 것과 내면에서 외면으로 누른 것으로 구분된다. 용두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지두문 암막새의 크기는 길이 37~41.5cm, 너비 31~31.2cm이다. M9호에서 출토된 암막새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일정 간격 포목이 지워진 것이 있다. 이는 모골의 굴곡을 인위적으로 지우거나 조정한 흔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도성과 연해주 일대 사원지 등 암막새가 출토되는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발해 암키와 제작에는 2~3.5cm 크기의 모골와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5cm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모골이 사용되기도 한다.[19] 도면으로만 보고되어 포 고정흔과 포 연결흔은 파악할 수 없으며, 내면 하단부를 약 3~5cm 정도 횡방향으로 조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인각문 암막새는 J1건물지와 M13·14호에서 확인된다. 문양이 장식된 하단면의 너비는 지두문에 비해 약 1cm 이상 두껍다. 하단면을 2조의 선으로 그어 문양면을 구획한 다음, 상단과 하단에는 각목을 새기고 중앙에는 동그란 형태의 속이 빈 시문구로 인각한 형식만 확인된다. 상단과 하단의 각목은 다른 방향으로 시문되었다. 이 형식의 암막새는 서고성, 상경성, 팔련성, 크라스키노성, 홍

19 정동귀, 2015, 위의 글, 105~10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운건축지, 신안고성, 아브리코스 사원지 등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된다. 발해 선각문 암막새는 선각 형태에 따라 'X'자문, 지그재그문, 'ㅣ'문으로 구분되며 소수 유적에서 소량 확인된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20] 용두산고분에서는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세로 방향으로 'ㅣ' 형태로 그은 형식만 확인되며, J1건물지에서 1점, M9호에서 2점 출토되었다. 이와 동일한 형식의 선각문 암막새의 또 다른 출토 사례로는 서고성 4호궁전지, 크라스키노성 48구역, 하남둔고성 (추정)사원지 출토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각문 암막새의 문양면 단부는 지두문 암막새보다 두꺼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용두산고분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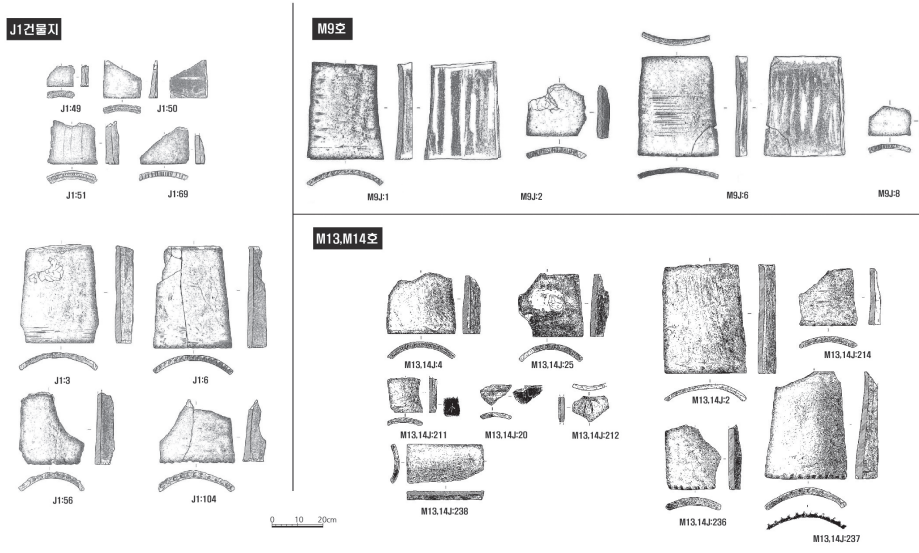


그림 4 용두산고분군 출토 암막새

20 정동귀, 2015, 위의 글, 4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수막새

수막새는 J1건물지와 M13·M14호에서 출토되었다. M13·M14호에서 확인되는 문양 형식이 J1건물지에 비해 많으며, J1건물지에서 확인된 형식은 M13·M14호에서도 대부분 확인된다. 문양 종류로는 연화문, 화초문(花草紋)이 있다(그림 5).

연화문은 다시 연판 형태, 연판 수, 간판, 중방 형태에 따라 5개 형식으로 세분된다. 연판 형태는 발해 문화를 대표하는 도심형(倒心形)[21]을 비롯하여 수적형(水滴形), 측시연화형(側視蓮花形)이 확인되고 연판 수는 8, 6, 4엽인 것이 있다. 도심형 연판과 중방이 1조의 선으로 연결되고, 삭월형 간식과 중앙의 반구형 돌기와 이를 감싼 권선 외부에 6개의 연자가 배치된 중방으로 구성된 6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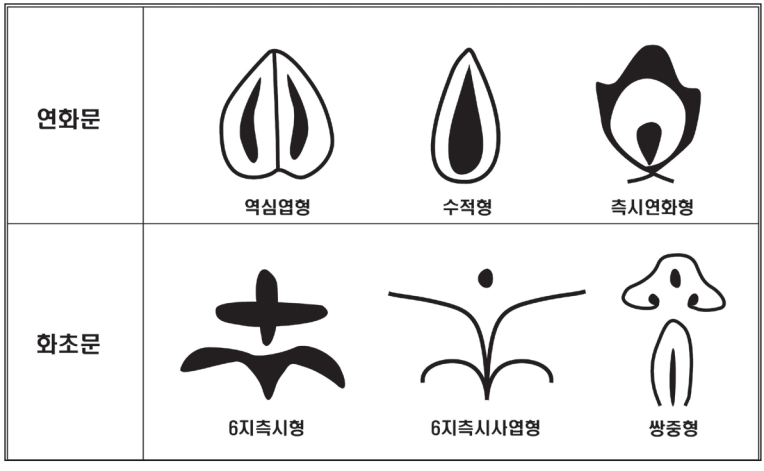


그림 5 용두산고분군 수막새 문양 및 화판 형태(필자 작성)

21 국내 연구에서 도심형 연판은 역하트형, 심엽형, 역심엽형으로 부른다. 크라스키노성에서는 연판의 뾰족한 끝이 중방을 향해 배치된 것과 그 반대인 형식이 모두 확인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연판의 형태뿐만 아니라 배치 방향까지 반영된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막새의 형식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두산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도심형 연판은 연판의 뾰족한 끝이 주연을 향해 배치된 역심엽형 연판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화문 수막새는 J1건물지와 M13·14호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동형의 사례로는 하남둔고성 (추정)사원지와 고산사찰지 출토품이 있다.

용두산고분군 출토 수막새 지름은 약 15.2~16cm이며 하남둔고성 (추정)사원지는 15cm, 고산사찰지는 14.5cm이다. J1건물지 출토 수막새(J1:36) 뒷면에 전사된 흔적을 통해, 이 형식의 수막새는 이면접착기법(裏面接着技法)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22] 중방은 다르나 연판과 간식문양이 동일한 8판 연화문 수막새는 J1건물지에서만 1점 출토되었다. M13·14호에서만 출토된 도심형 연판과 방추형 간식문이 장식된 6판 연화문 수막새는 세 도성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형식으로, 8세기 전엽 서고성에서 출현하여 8세기 후엽까지 세 도성을 중심으로 사용된 형식으로 비정된다.[23] 서고성 출토품의 드림새 평균 직경은 약 16cm로, M13·14호에서 출토품의 크기도 이와 동일하다. M13·M14J:221 뒷면에서 확인되는 수키와 접합부의 형태와 흔적으로 보아 이면접착기법으로 제작된 것이 확인된다. 수적형 연판의 6판 연화문수막새는 J1건물지에서만 확인되며 하남둔고성 (추정)사원지에서 동형이 확인된다.

하남둔고성 (추정)사원지 출토 수막새는 14.8cm이며 J1건물지 출토 수막새는 1/2만 잔존하나 이와 비슷한 크기의 막새로 추정된다. 8엽측시연화문 와당은 M13·14호에서만 출토되었으며 M13·14호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된 형식이다. 막새 지름은 14.5cm이며 이와 동형의 사례는 서고성, 팔련성, 용하남산유적 출토품 등이 있다. 용두산고분군 외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동형 막새의 규격 또한 14~14.6cm이다. J1건물지와 M13·14호에서는 잔편이나 인동문 간판이 장식된 연화문 수막새도 출토되었다.

---

22 이면접착기법은 주연부가 포함되는 접합부에 점토를 얇게 채운 뒤 수키와를 부착하고, 상황에 따라 그 주변에 점토를 덧붙이면서 성형을 완료시키는 기법기법으로 신라에서는 통일 이후 새롭게 출현하여 확산된 접합기법이다(최영희, 2014, 「統一新羅式기와의 成立과 造瓦體制의 變化」, 『영남고고학』 70, 275쪽).

23 최슬기, 2022, 「발해 도성 역심엽형연화문 수막새의 분류와 변천」, 『한국고고학보』 124, 7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초문은 화판 형태로부터 3개 형식으로 세분된다. 6지측시화초문(6枝側視花草纹), 6지측시사엽화초문(6枝側視四叶花草纹), 쌍중화초문(双重花草纹)이 있다. 6지측시화초문은 J1건물지와 M13·14호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며, 출토된 막새의 규격 또한 거의 동일하다. 이 형식 또한 이면접착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이와 동형의 사례는 서고성, 팔련성, 하남둔고분 출토품이 있다. M13,M14J:121의 경우 주연 안쪽으로 목질흔적이 관찰되어 제작에 목범을 사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6지측시사엽화초문 수막새는 M13·M14호에서만 확인되며, M13·M14호에서 8엽측시연화문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인다. 반팔메트잎이 좌우대칭으로 합쳐진 형태의 화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형태의 화판을 지닌 수막새는 인동문 또는 보상화문 수막새로 이해되기도 한다.[24] 이와 유사한 형식의 수막새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상경성, 서고성, 팔련성, 장인유적, 하남둔고성(추정)사원지가 있다. 하지만 M13·M14호 출토 수막새와 동형의 사례는 하남둔고성(추정)사원지에서만 확인된다. M13·M14호 출토 막새 지름은 15.5cm이고, 하남둔고성(추정)사원지 출토품의 지름은 15.4~16cm로 문양 형식뿐만 아니라 크기 또한 거의 동일하다. 쌍중화초문 수막새는 지금까지 발해에서 M13·M14호에서 출토된 2점이 유일하다. 막새 지름은 14cm로 M13·M14호에서 출토된 다른 막새 규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접합된 수키와부가 결실되었으나, 깨진 양상을 통해 이 역시 이면접착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6).

3) 마루수막새

마루수막새의 또 다른 용어로는 곱새기와, 망와, 굴절형 마루 끝 수막새가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헤이조쿄(平城宮)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형태의 장

24 최진호, 2012, 「발해 수막새를 통해 본 발해 문화의 성격」, 『先史와 古代』 36; 정슬주, 2024, 「발해 보상화문 수막새의 변천과정」, 『고구려발해연구』 7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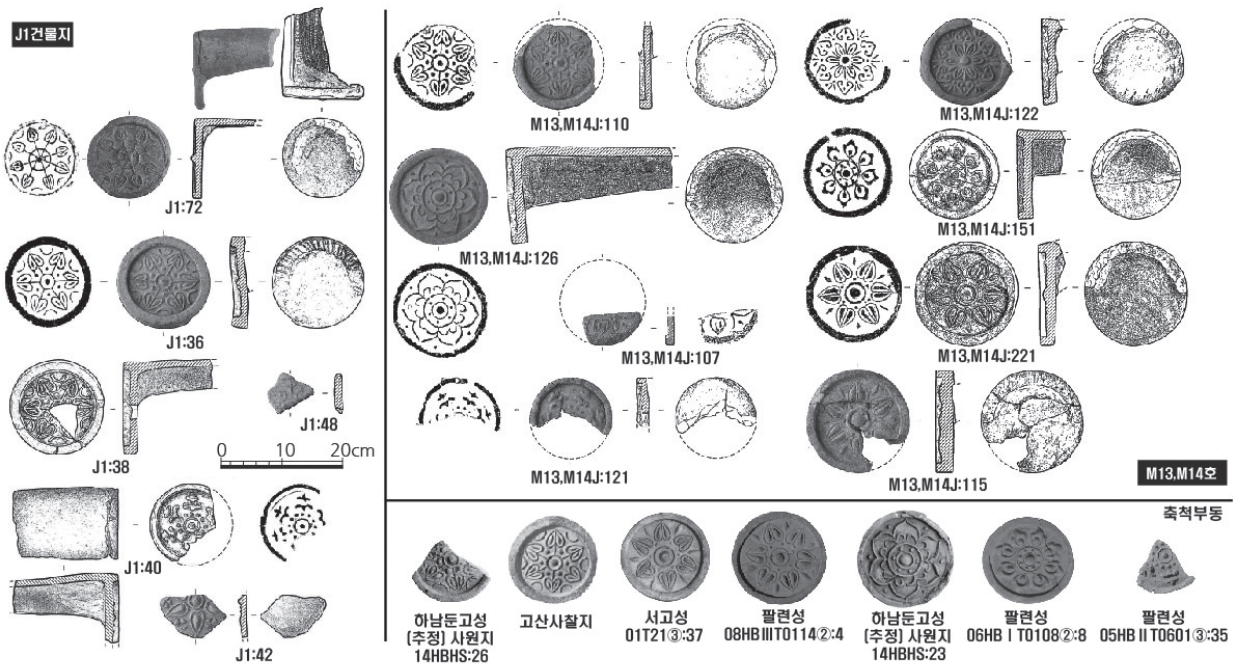


그림 6 용두산고분군 출토 수막새

식기와이다. 현재까지 중국 중원지역에서는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마루수막새는 고구려에서 4~5세기경 처음 제작한 기와로 인정된다.[25] 고구려의 사례로는 환도산성, 평양 대성구역, 평양 정릉사, 한강유역 홍련봉 1호 출토품이 있고, 신라의 사례로는 동궁과 월지가 있다. 최근 백제 대통사지로 비정되는 공주 반죽동유적의 폐기 유구에서 1점의 연화문 마루수막새가 보고되어 백제에서도 마루 수막새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26] 발해의 경우 북한 함경도 일대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랑이 있는 유단식수키와 형태로 출토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발해의 마루수막새는 서고성, 상경성을 비롯하여 칠도하자, 코프이토 사원지, 행산와요지, 하남둔고성(추정)사원지 등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된다.[27]

용두산고분군에서 마루수막새는 M13·14호에서 모두 4점 출토되었다. 4점 모두 연판이 확인되어 연화문 수막새로 파악되며, 문양의 세부 구성요소에 따라 2개 형식으로 세분된다. 연판의 형태는 도심형과 악형(萼形)이 있으며 각 2점씩 출토되었다. 도심형 마루수막새는 연판 아래로는 중방과 이어지는 1조의 선이 있으며, 연판 사이에는 삭월형 간식이 장식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형식의 수막새는 M13·14호에서 3점 출토된 바 있다. 동일한 형식의 수막새와 조합되어 함께 지붕에 얹혔던 것으로 생각된다. 악형은 8엽으로, 연판과 주연 사이에는 1조의 권선이 확인된다. 연판의 형태는 다르나 주연 사이에 1조의 권선이 있는 수막새는 육정산고분군 M3호, 크라스키노 성에서도 확인된다. 악형 연판은 고구려의 무복선(無輻線)연판과 유사하다. 연판과 주연 사이에 배치된 1조의 권선, 문양 구도, 연판 형태는 고구려 연화문 수막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이는 고구려 수막새의 단판연화문 전통이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28]

도심형 마루수막새와 악형 마루수막새의 직경은 14.5~15cm이다. 잔존 수

25 宋玉彬, 2023, 『渤海瓦当研究』, 文物出版社, 215쪽.
26 최영희, 2023, 앞의 글, 386쪽.
27 정동귀, 2015, 앞의 글, 116~117쪽.
28 최진호, 2012, 앞의 글, 7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키와부의 길이는 14~15cm이며 내면에서는 포흔과 보토가 관찰되고, 양 측면에서는 2~3차례의 와도 분할 흔적이 확인된다. 도면에는 수키와가 굴절되는 양 측면에 지름 약 1.6cm 홈이 그려져 있다. 홈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러한 특징은 도성유적, 행산와요지, 보리소브까 사원지 출토품에서도 확인된다.[29]

통일신라의 마루 수막새 중에는 부착된 수키와의 와신 중간 약 측면에 너비 약 15cm의 반원형 홈이 있는 것이 있다. 이는 시공 시 고정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홈을 낸 것이며, 발해 마루수막새에서 관찰되는 홈 역시 고정력을 높이기 위한 용도 또는 마루 끝 판형기와와 조합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M13·14호 출토품에서 관찰되는 홈의 크기로 보아 이는 단순히 수키와부와 막새부를 접합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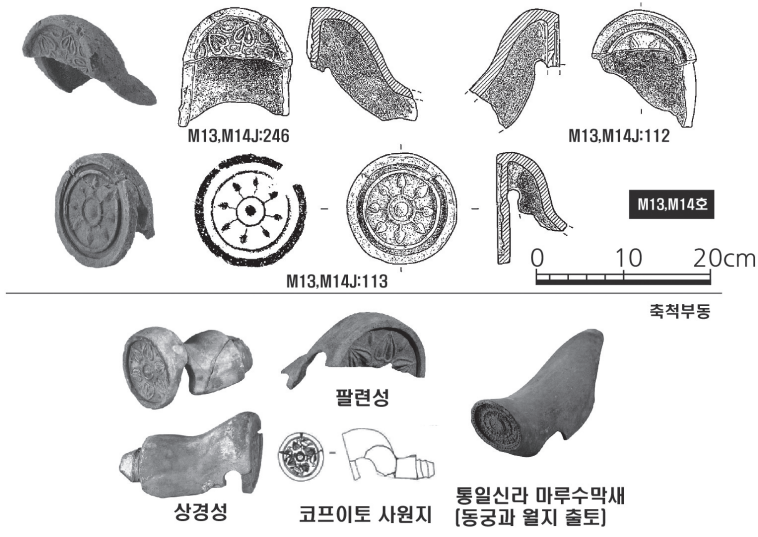


그림 7 용두산고분군 출토 마루수막새와 비교자료

29 정동귀, 2015, 앞의 글, 1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마루 끝 판형기와

마루 끝 판형기와는 내림마루 및 귀마루 끝 모서리에 사용된 기와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모두 확인된다. 고구려에서는 상오리사지와 평양 일대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되며 모두 짐승 얼굴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연화문이 장식되기도 하였으며 백제 사비기 마루 끝 판형기와는 석제도 확인된다.[30] 발해 마루 끝 판형기와는 육정산고분군 M3호 출토품이 대표적이다.[31] 11점 모두 무덤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수면전(兽面砖)으로 보고하였으나, 국내 연구에서 마루 끝 판형기와(귀면와)로 이해한다.[32] 두께가 1.8~3cm인 점, 모두 무덤 상부에서 출토된 점, 다른 국가에서 짐승 얼굴 문양이 장식된 판형기와의 출토 사례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기존 연구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전이 아닌 마루 끝을 장식한 기와로 생각된다. 대부분 황갈색 또는 흑회색으로, 한 면은 원형의 호선을 그리고 나머지 3면은 직선 형태로 문양은 양각으로 표현되었다.[33] 완형의 마루 끝 판형기와(M3:1)는 상부 봉토 동측에서 1점 출토되었으며 길이 26cm, 너비 22cm이다.

용두산고분군에서는 J1건물지에서 3점 출토되었다. 모두 적갈색 잔편으로 정확한 문양 형식과 규격은 파악하기 어렵다. J1:74는 짐승 코 부분으로, J1:76은 왼쪽 이빨 부분으로 보고되었으며, 두께는 2~2.4cm이다. 장식된 문

30 최영희, 2023, 앞의 글, 379~392쪽.

31 『六顶山渤海墓葬2004-2009年清理发掘报告』, 59쪽.
육정산고분군 M3호분 외 크라스키노 사원지, 온특혁부성에서도 짐승얼굴문이 장식된 마루 끝 판형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라스키노성 출토품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용두가 등장하기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박규진·김지혁, 2025, 「발해시기 동물형상 유물에 대한 예비적 연구」, 고구려발해학회 85차 국내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고구려발해학회, 108~109쪽), 온특혁부성의 경우 전해지는 도면이나 도판이 없어 육정산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다(이채경, 2023, 「발해 장식기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쪽).

32 이우섭, 2016, 「발해 기와의 종류와 특징」, 『발해의 불교유물과 유적』, 학연문화사, 232~233쪽; 이채경, 2023, 위의 글.

33 이채경, 2023, 위의 글, 7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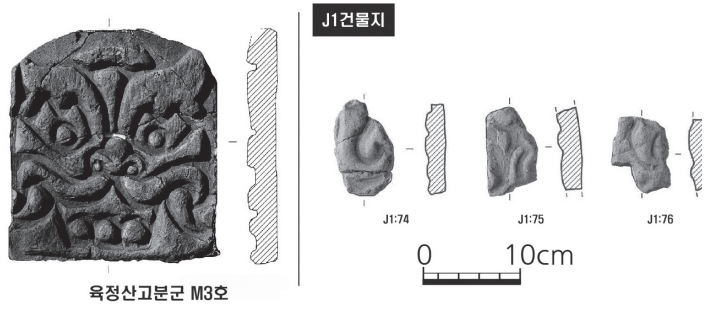


그림 8 육정산고분군 M3호, 용두산고분군 J1건물지 출토 마루 끝 판형기와(축척부동)

양이 짐승 얼굴로 파악되는 점, 문양의 표현이 양각으로 이루어진 점, 육정산고분군 출토품과 두께와 배면 형태가 비슷한 점 등으로 보아 육정산고분군과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8).

5) 치미

치미는 용마루 양 끝에 올라가는 기와로 지붕에 웅장함을 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치미는 고구려 고분 벽화 사례로 보아 4세기 중 후반 정도에 출현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평양성기 이전의 유적에서는 치미가 출토된 바 없으며 안학궁, 정릉사지 등 평양 일대에서 출토된 치미와 그 편들은 형태 등이 발해와 통일신라의 치미와 유사하여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백제와 신라 또한 다수의 유적에서 치미가 출토되나 이는 6세기 이후부터 확인된다. 발해에서 치미는 중앙부인 중경, 동경, 상경, 서경, 솔빈부지역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된다.

용두산고분군에서 치미는 M13 · M14호에서만 확인된다. 발해 고분에서 치미가 발견된 사례는 용두산고분군 M13 · M14호가 유일하다(그림 9). 꼬리, 날개, 동부, 종대 편들로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M13 · 14J: 270는 '치물복부(鴟吻腹部)'로 설명되었는데, 중국 회화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료나 영조법식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새를 쫓기 위해 설치한 거작 흔적이 있는 후부 편으로 이해된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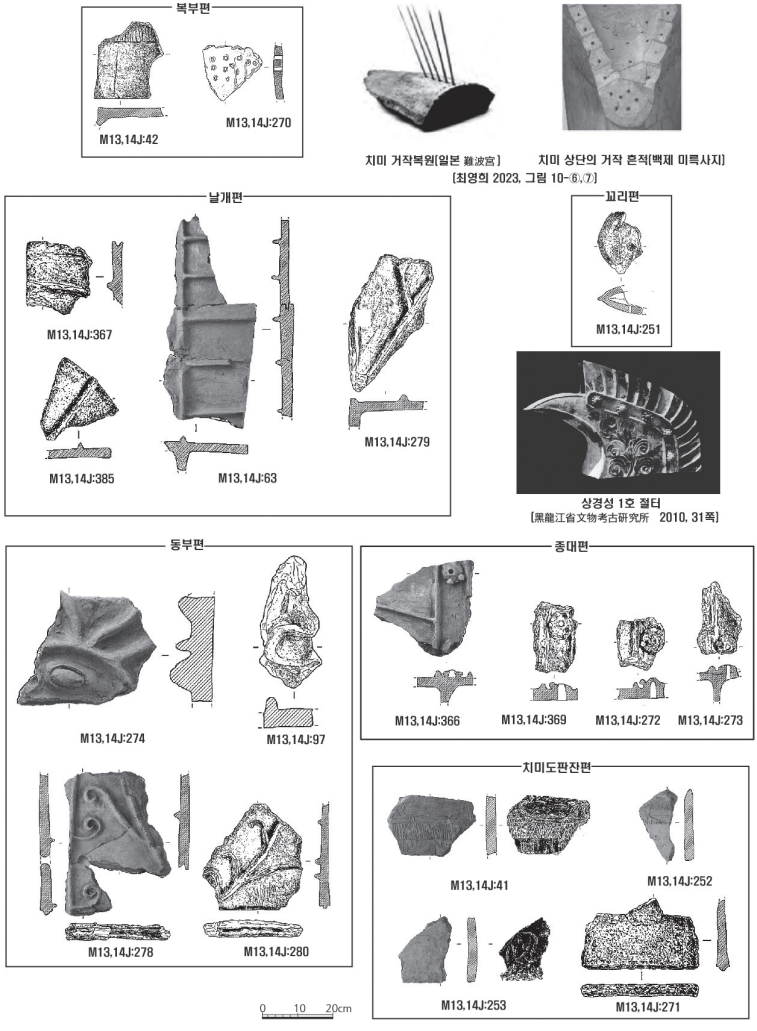


그림 9 용두산고분군 M13·14호 출토 치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발해 도성에서 출토된 치미 가운데 후부에서 거작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 거작을 위해 낸 구멍을 정연하게 제작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그 형태는 방형이며 규칙적인 배열을 보인다. 이와 다르게 M13·M14호 출토 치미편의 경우 거작 구멍이 뾰족한 도구로 무질서하게 찔러낸 형태로 확인된다. 날개 능선의 방향 분석은 잔편인 까닭에 파악이 어렵다. 출토된 치미 동부 편에서는 권초문(卷草紋)이 확인된다. 동부에 초화문이 장식된 또 다른 사례로는 상경성 1호 절터 출토품이 있다. 치미 종대 장식은 중앙에 작은 구멍이 난 대형의 반구형 돌기 위로 5~6개의 작은 연주문이 부가된 형태가 확인된다. 색조는 모두 회색으로 유약이 시유된 개체는 1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이 그려진 치미 잔편 6점도 함께 보고되었는데 건물과 사슴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이 그려진 잔편의 길이는 20.5~35.5cm이고, 두께는 약 2.5~3.5cm로 기본기와보다 두꺼우며 다른 부위의 치미 편들과 비슷하다. 치미에 선각으로 장식을 더한 사례는 백제, 신라 등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M13·M14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밀한 그림이 시문된 사례는 없으며, 발해 치미에서도 이러한 예는 확인된 바 없어 치미편이 아닐 가능성도 고려된다.

6) 용두

용두는 내림마루나 귀마루 위 하단부 또는 귀마루의 상단부를 장식하는 기와이다. 당의 영향으로부터 등장한 것으로 이해되며, 한국 고대 국가 중에서는 발해에서만 확인되는 독창적인 장식기와이다.[35] 발해에서 용두는 8세기 초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발해 중후기에 유행한 것으로 이해된다.[36] 용두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용두산고분군, 서고성, 상경성, 팔련성, 상경성 내 1·9호 사원

34 국립부여박물관, 2018, 『치미-하늘의 소리를 듣다』, 113쪽; 최영희, 2023, 앞의 글, 388쪽.

35 이채경, 2023, 앞의 글, 1쪽.

36 武松, 2019, 『渤海文化来源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14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무학사찰지, 동청사찰지, 오매리절골 사원지, 신안유적, 하남둔고성 (추정) 사원지가 있다.

용두산고분에서 용두는 M13·14호에서만 확인된다(그림 10). 모두 잔편으로 용두의 뿔, 눈, 귀, 코, 볼, 턱편 등이 출토되었다. 부위에 따른 출토 수량을 근거로 보고자는 4개체의 용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발해 용두는 유약이 시유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나, 유약이 시유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용두산고분군 출토 용두편 중에는 유약이 발린 것은 치미와 마찬가지로 1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M13·14호 출토 용두의 눈동자와 눈꺼풀은 모두 원형이다. 발해 용두의 콧구멍은 관통하는 것과 관통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37] M13·14호에서 용두 콧구멍 편은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도면과 유물 형태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진 것은 1점이다. M13·14J:283는 양측에 나팔 형태(喇叭形)의 콧구멍이 각각 1개씩 있고, 바닥에는 1개의 삽입 구멍이 있다고 기술되었다. 관통된 형태의 콧구멍은 구멍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된 형태인 반면, 관통되지 않은 콧구멍은 구멍 주변에 눌리거나 밀려 나온 듯한 흙이 관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M13·14J:283는 관통하지 않은 형태의 콧구멍 편으로 생각된다. M13·14J:287번은 하관 편으로 '田'자형 문양이 있는 어금니가 3개 남아 있다.

M13· 14J:287과 같은 형태의 어금니를 가진 용두는 상경성, 서고성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된다. M13·14호 출토 용두의 형태를 추정하는 데 가장 주목되는 자료는 상경성 출토 용두들이다. 상경성 2, 3, 4호 궁전지와 9호 절터에서 출토된 용두의 어금니에는 '-'자형 문양이 있으며, 눈꺼풀은 2겹을 이루며 원형인 것이 있다. 이 용두들의 코는 돌출된 형태이나 콧구멍은 관통되지 않았다. 코 뒷면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관통하는 고정용 구멍이 있다. 귓바퀴는 앞으로 세워져 정면에서 홈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형태이다. M13·14호에서 출토된 용두 귓바퀴 편(M13· 14J:77) 역시 앞으로 세워져 정면에서 홈이 부분적으로 보

37 이채경, 2023, 앞의 글, 9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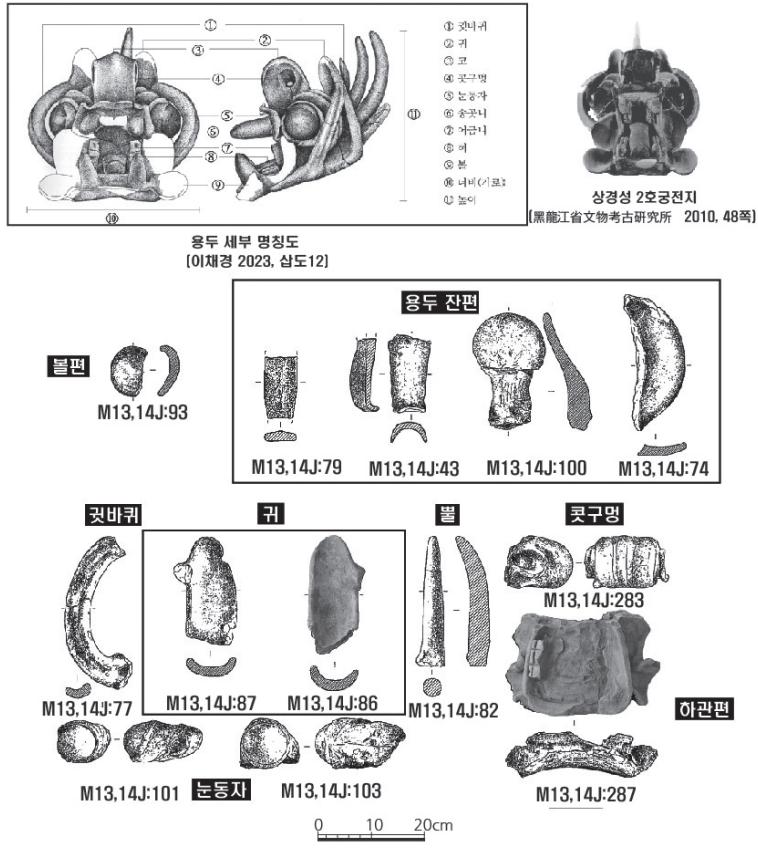


그림 10 용두산고분군 M13·14호 출토 용두

이는 형태이며, 하관 어금니 형태, 눈꺼풀, 눈, 코, 콧구멍 또한 이와 비슷하다. 이는 8세기 초반 십자형 어금니를 지닌 용두가 처음 출현한 이후, 8세기 중반경 변화하여 출현한 형식으로 이해된다.[38]

38 이채경, 2023, 위의 글, 1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기능기와: 마루축조기와

1) 적새

적새는 부고 위에 외면을 상부로 하여 여러 장을 쌓아 올리는 기와이다. 고대 적새는 소성전의 기본기와에 와도분할선을 그어 제작한 것으로, 즙와 시 필요에 따라 적절한 크기와 형태로 파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9] 장방형이 일반적이나 제형, 오각형, 육각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통일신라시대까지는 반제품으로 제작, 공급되어 수요지에서 시공 직전 완성하였으며 고려시대 이후 완제품이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40] 발해 적새는 암키와를 파쇄한 것과 수키와 너비로 제작한 것으로 구분된다. 암키와를 잘라 제작한 적새는 일반적으로 각 유적에서 확인되는 암키와의 절반 정도를 잘라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며, 하단면에 지두문이 시문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수키와로 제작한 것은 각 유적에서 확인되는 수키와와 너비 차이가 거의 없어 적새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41]

용두산고분에서 적새는 M13·14호에서 비교적 다량 출토되었다(그림 11). 그 중 2점만 자세히 보고되었되는데 1점은 완형에 가까우나 1점은 반만 잔존한다. 완형인 개체의 길이는 40cm, 너비는 9.5~10.5cm, 두께는 1.7cm이다. 다른 하나는 잔존 길이 21cm, 너비 8.5cm, 두께 1.9~2.4cm이다. 측면에는 안에서 밖으로 와도를 넣어 절단한 흔적이 관찰되며, 내면에서는 포흔과 조정흔적이 관찰된다. M13·14호에서 출토된 암키와 및 암막새의 평균 크기는 길이 약 41cm, 너비 약 32cm이고, 두께는 1.7cm가 평균이나 2cm 이상인 것도 있다. M13·14호분 출토 적새는 규격으로 보아 완형의 암키와를 종방향으로 두 번 또

39 정원혁, 2020, 「신라 평기와 제작방법의 전개」, 『한국기와학보』 창간호, 26~27쪽.

40 김기민·박다정, 2022, 「창림사지 출토 평기와의 특징과 시기」, 『한국기와학보』 6, 29쪽.

41 정동귀, 2015, 앞의 글, 1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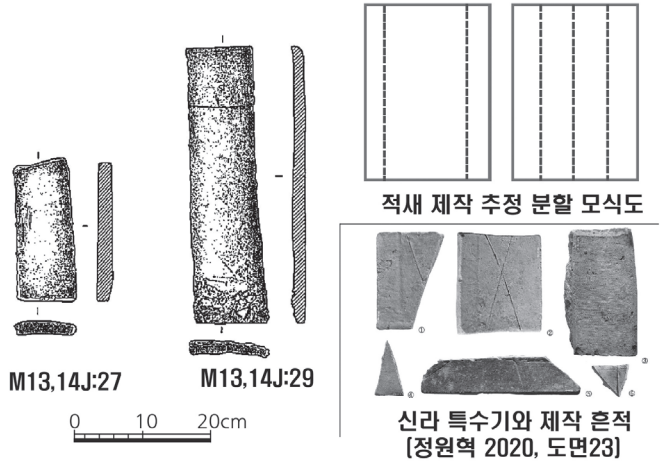


그림 11 용두산고분군 M13·14호 출토 적새

는 세 번 분할하여, 3매 또는 4매의 적새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착고

착고는 지붕의 면과 선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기와로 마루 하단에 기왓등 및 기왓골과 접하여 시공된다. 우진각 지붕 또는 팔작지붕의 경우 용마루와 기와골은 직각을 이루는 데 반해 추녀마루나 귀마루는 사각을 이루며 기와골의 간격은 마루와 가까울수록 점진적으로 넓어진다. 지붕 형태, 각도, 즙와되는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착고가 필요하나, 실제 확인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 다각형 적새가 착고 대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중앙 돌출부가 넓은 착고는 추녀마루나 귀마루 하단에 시설하는 기와로 추정된다.[42]

4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4, 『황룡사 중금당 및 강당 등 와전 고증연구』(내부자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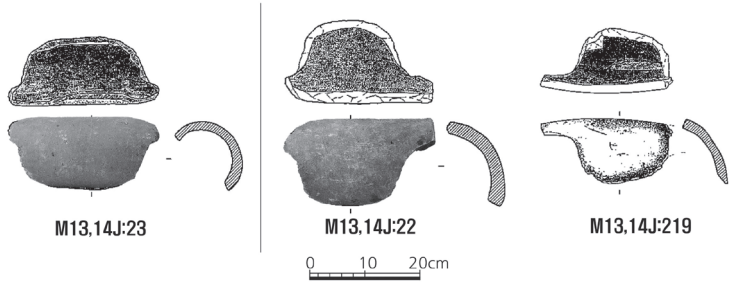


그림 12 용두산고분군 M13·14호 출토 착고

발해의 착고는 수키와를 자르거나 양 측면을 깎아서 만들었다. 백제와 신라의 경우 익산 미륵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초기의 것으로 이해되는 수키와를 잘라 만든 착고는 확인된 바 있으나, 수키와의 측면을 깨뜨려 제작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이에 발해 착고기와의 원형은 고구려로 이해된다.[43]

용두산고분군에서 착고는 적새와 마찬가지로 M13·14호에서만 출토되었다(그림 12). 착고 역시 비교적 다량 확인되었으나 3점만 자세히 보고되었다. 모두 회색 계열로 평면 형태는 혀 모양이다. 제작 방식에 따라 수키와를 깨뜨려 만든 것(M13,14J:23)과 제작 단계에서 미리 계획하여 수키와를 절단해 만든 것(M13,14J:22,219)으로 구분된다. 둘 다 수키와를 2차 가공하여 만든 것은 동일하나 전자는 양 측면이 거칠고, 후자는 와도로 분할되어 매끈한 것이 특징이다. 깨뜨려 만든 것으로 보고된 착고는 높이 13cm, 상단 너비 27cm, 하단 너비 15cm이고, 와도 분할하여 제작한 착고는 높이 15.5~17.5cm, 상단 너비 13~26.5cm, 두께 1.5~2.4cm이다.

61쪽.

43 정동귀, 2015, 앞의 글, 1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의 특징과 의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기와의 특징과 의의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기와가 확인된다(그림 13). 이는 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마루수막새, 마루 끝 판형기와, 착고로부터 알 수 있다.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암키와의 타날 문양으로는 승문, 교차승문, 능형복합방격문이 있다. 평양성기 고구려 암키와에서는 승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되며, 격자문계열과 거치문이 주요 문양을 차지한다.[44] 발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타날판 문양은 승문이며, J1건물지에서 출토된 능형복합방격문 암키와의 문양과 같은 문양의 사례는 고구려 온특혁부성·비우성에서 확인된다.

J1건물지에서 출토된 격자문 암키와는 중경지역에서는 처음 확인된 사례이다. 격자문은 발해 초기 왕실고분군인 육정산고분군, 온특혁부성을 제외하면 중앙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목단강 하류에 위치한 연통립자유적, 러시아 연해주, 북한 함경도 일대에서 확인된다.[45] 격자문 타날이 발해에서 크게 유행하여 사용되지 않은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용두산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암키와의 타날 문양은 고구려의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수키와 외면은 고구려 후기에 유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면의 문양을 지운 것만 확인된다. 지두문 암막새는 고구려, 북위, 수당, 백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북위, 수당, 백제의 지두문 암막새는 지두문이 시문된 문양면 중앙에 1조의 홈이 함께 장식되어 있다. 고구려와 발해에서 지두문과 함께 1조의 홈이 장식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용두산고분군 출토 지두문 암막새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발해 지두문 암막새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46]

---

44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308쪽.

45 정동귀, 2015, 앞의 글, 102~10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루수막새는 중국 중원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장식기와로, 4~5세기경 고구려에서 처음 제작하여 사용한 기와로 인정된다. 용두산고분군에서 마루수막새는 M13·14호에서 4점 출토되었다. 이 중 8엽의 연화문 마루수막새는 고구려 연화문 수막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짐승 얼굴문이 장식된 마루 끝 판형기와는 J1건물지에서 편으로 출토되었다. 짐승 얼굴문이 장식된 기와는 환도산성 출토품 등을 근거로 삼국 중 고구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수키와의 양 측면을 깎아 착고를 제작하는 방식 역시 고구려의 제와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3).

그림 13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 비교 자료(고구려 기와)

46 정동귀, 2015, 위의 글, 122~1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둘째,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기와는 서고성, 상경성, 팔련성에서 확인된다. 기본기와인 암키와, 수키와, 장식기와인 암막새, 수막새, 용두, 치미, 마루수막새, 기능기와인 적새, 착고, 특수기와인 전은 발해 세 도성에서도 사용된 기와이다. 종류뿐만 아니라 확인되는 세부 형식도 거의 동일하며, 동형의 경우 규격 또한 비슷하다.

도성에서 단부에 고랑이 있는 수키와는 1줄 고랑인 것만 확인된다. 수키와 외면에 글자 또는 부호가 인각 또는 선각으로 시문된 사례는 세 도성에서도 확인된다. 용두산고분군에서 유단식 고랑기와는 1줄 고랑 형식만 출토되었다. J1건물지와 M13·14호에서 출토된 인각문 암막새는 상·하단의 각목의 방향은 차이가 있으나 세 도성에서 모두 확인되는 형식이다. 용두산고분군에서 수막새는 연화문, 화초문이 확인되었다.

M13·14호에서만 출토된 도심형 연판과 방추형 간식문이 장식된 6판 연화문 수막새는 세 도성에서 공통으로 확인되어 도성의 중심 형식으로 이해되며, 도성 출토 수막새의 평균 직경은 약 16cm인데 M13·14호 출토품 또한 이와 같다. M13·14호에서만 출토된 8엽 측시연화문 수막새는 서고성, 팔련성에서 동형의 사례가 확인되고, J1건물지와 M13·14호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6지측시사엽화초문 수막새 역시 서고성, 팔련성에서 확인된다. 마루수막새는 팔련성에서는 출토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나, 서고성과 상경성에서는 다수의 개체가 보고되었다. M13·14호 출토품과 동문양의 마루수막새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분에서 치미와 용두가 출토된 사례는 M13·14호가 유일하다. 하지만 모두 편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치미와 용두는 세 도성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장식기와이다. 도성 출토 장식기와 중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도 있으나, 대부분 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이와 달리 M13·14호에서 출토된 치미와 용두 편에서 유약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해에서 유약이 발린 녹유기와는 궁전과 사찰 지붕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배 권력의 시각적 상징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47] 또 서고성, 상경성, 팔련성의 경우 토수가 출토된 반면, 용두산고분군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토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토수의 사용이 건물의 성격에 따라 달랐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붕 구조에 따른 차이인지 추후 이에 주목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성과 마찬가지로 적새와 착고가 사용되었다. 육정산고분군, 하남 둔고분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고분에서 기본기와가 출토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있으나, 마루장식기와가 한 유구에서 일습을 갖추고 출토된 것은 용두산고분군이 유일하다.

셋째, 묘상에서 출토된 기와의 종류를 근거로 묘상 시설의 구조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그림 14). 전실탑묘인 M10호의 매장주체부 상부에서는 전만 출토되었다. 출토된 전의 형태는 방형, 장방형, 규형, 순묘형으로 다양하며, 방형 중에는 대각선으로 융기한 전도 확인된다. 발해 영광탑의 현재 모습을 통해 규형, 순묘형 전은 탑신의 옥개 추녀, 옥개 아래, 탑신 벽면 모서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형태의 전이 출토된 M10호와 달리, M13·14호에서는 기본기와인 암키와·수키와를 비롯하여, 장식기와인 수막새·암막새·마루수막새·치미·용두, 기능기와인 적새·착고가 전과 함께 출토되었다. M13·14호의 묘상 시설을 고구려나 육정산고분에서 확인되는 묘상건축에 연원을 두고 목탑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판축 기단 위 초석의 평면 형태가 回자형인 점 또한 목탑의 평면과 유사하다고 보았다.[48] M13·14호 묘상 시설의 평면은 하남둔 고분, 상경성 제9호 사찰지와도 유사하다.[49] 국내 전탑 중에는 옥개에 기와를 얹은 사례도 있다.[50]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과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에는 기본기와와 합각되는 부분에 놓이는 마루 끝을 막는 장식기와가 놓여

47 양은경, 2025, 「발해 사원지 출토 녹유기와의 지붕 意匠과 大寺」, 『한국고고학보』 135, 427쪽.

48 송기호, 2011, 앞의 책, 363쪽.

49 최정범, 2021, 「하남둔고성의 재인식-평지성에서 능원으로」, 『동북아역사논총』 72, 21쪽.

50 이병건, 2023, 「발해 영광탑과 한국 전탑계 모전석탑의 조영특징 비교」, 『동북아역사논총』 81, 27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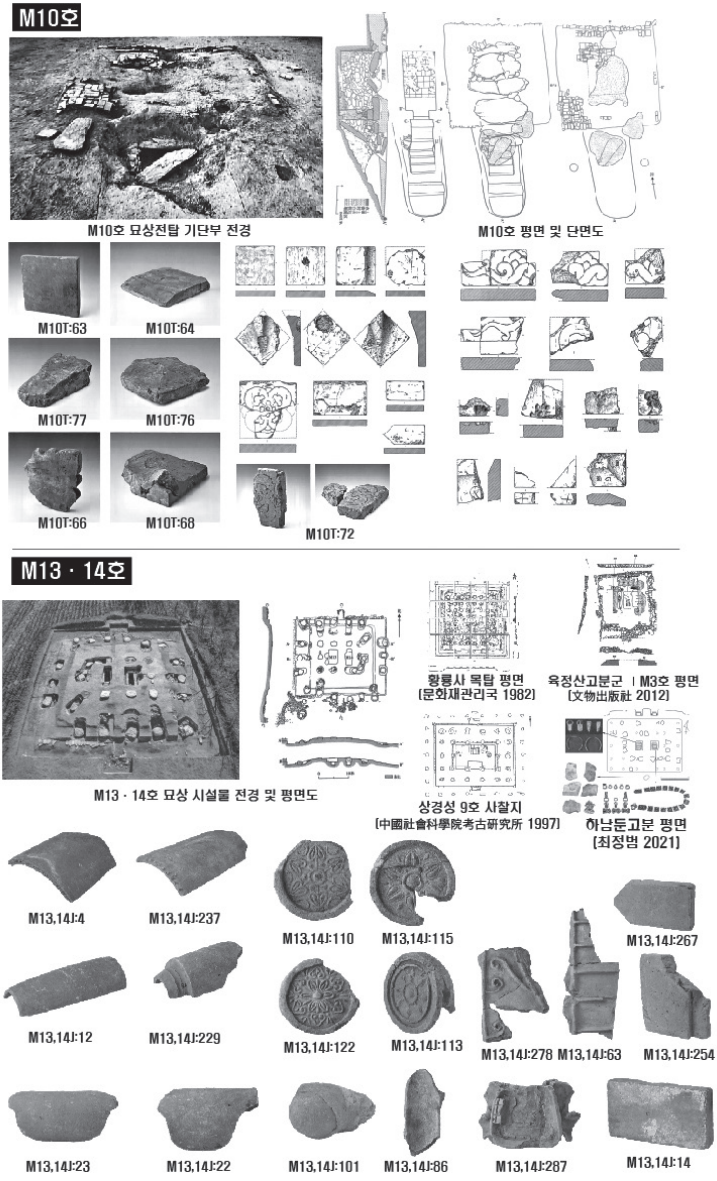


그림 14 용두산고분군 M8호 M13·14호 출토 기와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전탑의 옥개에 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수막새, 마루 수막새, 마루 끝 판형기와는 충분히 시공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목조건물 외 다른 재료의 건축물에 치미가 올라간 사례는 확인 된 바 없다. 목탑의 경우 각 층마다 지붕이 결구되며, 평면 형태에 따라 사모지붕, 팔모지붕 등 모임지붕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1] 치미는 지붕의 가장 높은 수평 마루 양쪽 끝에 얹는 장식기와인 점, 치미와 함께 용두의 출토 사례를 주목한다면 M13·14호분의 묘상시설은 다층의 목탑이 아닌 목조 중층 건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발해 목조건물의 지붕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되었다(그림 15). M13·14호분에서는 건물의 지붕구조가 그려진 치미편들이 보고되었다. M13·14J:41에는 지붕 용마루에 2점의 치미가 올라간 것이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로는 직령창과 판문이 그려져 있다. M13·14J:252에는 2기의 건물 지붕이 앞뒤로 배치되어 확인된다. 이 중 M13·14J:252에 그려진 지붕이 주목되는데, 용마루, 내림마루, 귀마루가 모두 확인된다. 특히 용마루 아래로 1조의 선이 그려져 지붕면이 한 번 끊어지는 점으로 보아 이는 꺾음팔작지붕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 산수문전에는 꺾음팔작지붕의 용마루 좌우에 선이 그려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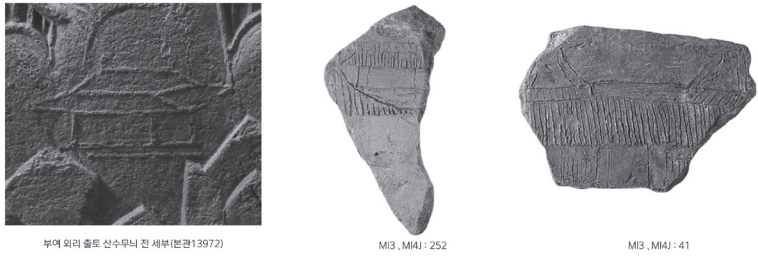


그림 15 용두산고분군 M13·M14호 출토 건물 그림 토제편

51 권종남, 2006, 『한국 고대 목탑의 구조와 의장 皇龍寺 九層塔』, 미술문화, 1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데 이는 치미가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북군동 출토 가형토기는 팔작지붕으로, 용마루 좌우가 결실되었으나 여기에는 치미가 장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돈황석굴에서는 팔작지붕 위에 치미가 그려진 벽화가 여러 점 확인된다. 치미 편에 그려진 그림으로부터 시작된 추론이나, 이상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치미가 올라간 발해 목조건물의 지붕 형태는 팔작 또는 꺾음팔작지붕이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고분의 연대를 추론하고 피장자를 비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주목된다. 발해 기와 연구에서 연대 비정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유물은 수막새이다.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수막새 중 도성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M3·14호분에서 출토된 역심엽형 연판과 방추형 간판을 지닌 6판 연화문수막새는 전술한 바와 같이 8세기 전엽 서고성에서 출현하여 8세기 후엽까지 사용된 형식으로 비정된다. J1건물지와 M3·14호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6지측시화초문수막새는 8세기 초엽부터 9세기 중엽까지 사용된 형식으로 편년된다.[53] 그러나 M13·14호 상부에서 출토된 와당은 모두 8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되기도 하며,[54] 이는 M3·14호의 피장자를 강왕 대숭린과 그 황후의 합장릉으로 비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55] 하지만 M13·14호에서 출토된 용두를 상경성 출토품과 비교 검토한 결과 8세기 중반경 출현한 형식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고분 피장자 비정은 수막새의 편년안만 대상으로 논의되어왔다. 용두의 사례로 보아 지붕에 즙와되는 기와의 조합 관계를 고려하여 출토된 기와의 시기 구분을 보다 자세히 시도할 필요가 있다.

---

52 이왕기, 1994, 「古代 韓國·中國 建築關係史 硏究(Ⅱ)-百濟를 對象으로」, 『建築歷史硏究』3, 37쪽.

53 정슬주, 2024, 앞의 글, 211쪽.

54 小嶋芳孝, 2017, 「瓦當編年으로 본 下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의 評價」,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107쪽.

55 최정범, 2019, 앞의 글, 24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기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관찰 및 분석을 진행하여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의 특징과 의의를 파악해보았다. 용두산고분군에서 기와는 4기의 무덤과 1기의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기본기와인 암키와·수키와와 함께 장식기와인 암막새, 수막새, 마루수막새, 마루 끝 판형기와, 치미, 용두가 출토되었으며, 이 외에 적새, 착고 등의 기능기와도 확인된다.

용두산고분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기와가 사용되었다. 이는 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마루수막새, 마루 끝 판형기와, 착고로부터 알 수 있다. 또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기와는 서고성, 상경성, 팔련성에서 확인된다. 종류뿐만 아니라 확인되는 세부 형식도 동일하며, 동형의 경우 규격도 비슷하다. 하지만 도성에서 사용한 장식기와의 경우 녹유가 시유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 용두산고분군에서는 시유된 개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궁전지에서는 다른 장식기와와 함께 토수가 일반적으로 출토되었으나, 용두산고분군에서 토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M13·14호에서는 기본기와인 암키와, 수키와를 비롯하여, 장식기와인 수막새, 암막새, 마루수막새, 치미, 용두, 기능기와인 적새, 착고가 출토되었다. 고분에서 치미가 출토된 사례는 M13·14호가 유일하며, 고대 치미가 사용된 건물의 지붕 형태로부터 묘상시설의 구조를 추론해보면 이는 중층의 목조건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물이 그려진 토제편은 발해 목조건물의 지붕구조를 이해하는 자료로 주목된다.

기와의 제작에는 상당한 공력이 든다. 성형만이 아니라 점토를 채취하고 이를 수비하는 일에도 상당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까닭에 고대 기와는 권위 건물에만 사용하는 고급 건축 부재였다.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는 8세기 중·후반 발해의 와전 기술과 건축의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지붕에 즙와되는 기와와의 조합관계를 고려하여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기와의 시기 구분이 보다 자세히 시도된다면 고분의 연대와 피장자를 비정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 후 약 20년 만에 정식보고서가 간행되어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였다. 이는 분명 발해 기와 연구에 고무적인 일이나,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자료의 양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판이 더 풍부히 수록된다면 제작기법 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4, 『황룡사 중금당 및 강당 등 와전 고증연구』(내부자료).

국립부여박물관, 2018, 『치미-하늘의 소리를 듣다』.

권종남, 2006, 『한국 고대 목탑의 구조와 의장 皇龍寺 九層塔』, 미술문화

김성구·신은희, 2025, 『와장 김은동-근현대기와와 기와명장』, 학연문화사.

박성형, 2010, 『甓甎』, spacetime.

방학봉, 1998, 『발해의 불교유적과 유물』, 서경문화사.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송기호,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최성은·이송란 외 3인, 2016, 『발해의 불교유물과 유적』, 학연문화사.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敦化市文物管理所, 2012, 『六顶山渤海墓葬2004-2009年清理发掘报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保護中心·吉林大學考古學院·和龍市文物管理所, 2025, 『龍頭山渤海王室墓地): 1997, 2004-2005, 2008 發掘報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馆, 2004a, 『集安高句丽王陵: 1990-2003年集安高句丽王陵调查报告』, 文物出版社.

_____, 2004b, 『丸都山城 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调查试掘报告』, 文物出版社.

宋玉彬, 2023, 『渤海瓦当研究』, 文物出版社.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10, 『海曲華風—渤海上京城文物精華』, 文物出版社.

논문

김기민·박다정, 2022, 「창림사지 출토 평기와의 특징과 시기」, 『한국기와학보』 6.

김성구, 2009, 「중국기와의 變遷과 그 特性」, 제6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 한국기와학회.
김진광, 2018,「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先史와 古代』56.
박규진·김지혁, 2025,「발해시기 동물형상 유물에 대한 예비적 연구」, 고구려발해학회 85차 국내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小嶋芳孝, 2017,「瓦當編年으로 본 下南屯古城·西古城·八連城의 評價」,『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심광주, 2009,「고구려·백제 평와의 제작기법 비교」,『백제학보』2.
양은경, 2025,「발해 사원지 출토 녹유기와의 지붕 意匠과 大寺」,『한국고고학보』135.
이병건, 2010,「발해 영광탑과 한강이남 전탑의 건축형식 비교연구」,『高句麗渤海研究』38.
_____, 2023,「발해 영광탑과 한국 전탑계 모전석탑의 조영특징 비교」,『동북아역사논총』81.
이왕기, 1994,「古代 韓國·中國 建築關係史 研究(Ⅱ)-百濟를 對象으로」,『建築歷史研究』3.
이우섭, 2016,「발해 기와의 종류와 특징」,『고구려발해연구』54.
이채경, 2023,「발해 장식기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동귀, 2015,「발해 평기와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슬주, 2024,「발해 보상화문 수막새의 변천과정」,『고구려발해연구』79.
정원혁, 2020,「신라 평기와 제작방법의 전개」,『한국기와학보』창간호.
최슬기, 2022,「발해 도성 역심엽형연화문 수막새의 분류와 변천」,『한국고고학보』124.
최영희, 2014,「統一新羅式기와의 成立과 造瓦體制의 變化」,『영남고고학』70.
_____, 2023,「古代 三國의 장식기와와 지붕 意匠」,『先史와 古代』72.
최정범, 2019,「渤海 王陵比定 試論」,『韓國考古學報』113.
_____, 2021,「하남둔고성의 재인식-평지성에서 능원으로」,『동북아역사논총』72
최진호, 2012,「발해 수막새를 통해 본 발해 문화의 성격」,『先史와 古代』36
한동수, 2015,「중국 길림성, 장백진 발해 영광탑 답사기」,『건축』59권 제11호.
허선영, 2024,「중국 치미의 문화적 함의와 용어 재고찰」,『한국기와학보』9.

武松, 2019,『渤海文化来源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발해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의 특징과 의의

최슬기

장식기와는 지붕의 의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와이자, 건물의 위계를 반영하는 기와로 건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두산고분 외 장식기와가 출토된 고분으로는 육정산고분이 있지만, 여러 종류의 장식기와가 공반 출토된 유적은 용두산고분이 유일하다. 하지만 자료의 소개는 간보로만 이루어져 자세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기다림 끝에 2025년 정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되면서 학계에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간보로 소개되지 않은 고분 출토 기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묘상 건축에 사용된 기와뿐만 아니라 묘실을 조영하는 데 사용한 전에 대한 보고도 자세히 이루어져 발해의 와전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그 의미가 깊다.

용두산고분군에서 기와는 4기의 무덤과 1기의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기본기와인 암키와·수키와와 함께 장식기와인 암막새, 수막새, 마루수막새, 마루 끝 판형기와, 치미, 용두가 출토되었으며, 이 외에 적새, 착고 등의 기능기와도 확인된다. 용두산고분군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기와가 사용되었다. 이는 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마루수막새, 마루 끝 판형기와, 착고로부터 알 수 있다.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기와는 서고성, 상경성, 팔련성에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확인된다. 종류뿐만 아니라 확인되는 세부 형식도 동일하며, 동형의 경우 규격 또한 비슷하다. 하지만 도성에서 사용한 장식기와의 경우 녹유가 시유된 것이 대부분인 반면, 용두산고분군에서는 시유된 개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궁전지에서는 다른 장식기와와 함께 토수가 일반적으로 출토되었으나, 용두산고분군에서 토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M13·14호에서는 기본기와인 암키와, 수키와를 비롯하여, 장식기와인 수막새, 암막새, 마루수막새, 치미, 용두, 기능기와인 적새, 착고가 출토되었다. 고분에서 치미가 출토된 사례는 M13·14호가 유일하며, 고대 치미가 사용된 건물의 지붕 형태로부터 묘상시설의 구조를 추론해보면 이는 중층의 목조건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물이 그려진 토제편은 발해 목조건물의 지붕구조를 이해하는 자료로 주목된다.

기와의 제작에는 상당한 공력이 든다. 성형만이 아니라 점토를 채취하고 이를 수비하는 일에도 상당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까닭에 고대 기와는 권위 건물에만 사용하는 고급 건축 부재였다. 용두산고분군 출토 기와는 8세기 중·후반 발해의 와전 기술과 건축의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지붕에 즙와되는 기와와의 조합관계를 고려하여 용두산고분군에서 출토된 기와의 시기 구분이 보다 자세히 시도된다면 고분의 연대와 피장자를 비정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용두산고분군, 발해, 기와, 수막새, 장식기와, 발해건축, 묘상건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Roof Tiles Excavated from the Longtushan Ancient Tombs of Balhae

Choi Seulgi

Decorative roof tiles played an essential role in expressing the architectural ornamentation of roofs and signifying the hierarchy of buildings, thereby providing important insight into the nature and status of ancient structures. Among tombs yielding decorative roof tiles, Yukjeong-san Tomb also produced examples, but the Longtushan ancient tombs stand as the only site where multiple types of decorative tiles were found in association. Until recently, however, only a brief preliminary report had been available, limiting our understanding of their detailed contexts. With the publication of the full excavation report in 2025,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roof tiles from the Longtushan ancient tombs has finally become accessible to the academic community. This report newly presents roof tiles previously omitted from the preliminary account an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rovides detailed analysis not only of tiles used for above-ground tomb architecture but also of bricks employed in constructing the burial chambers, offering significant insight into Balhae's roof-tile and brick culture.

Roof tiles from the Longtushan ancient tombs were recovered from four tombs and one building site. In addition to basic tiles such as convex- and concave-shaped roof tiles, decorative tiles including eave-end tiles, ridge-end tiles, ridge-cap tiles, flat plate-like ridge tiles, chimi, and yongdu were also identified, along with functional tiles such as jeoksae and chakgo. The assemblage reflects strong influence from Goguryeo, as evidenced by the forms of both basic and decorative tiles, which closely parallel examples from Seogoseong, Sanggyeongseong, and Pallyeonseong. Not only the types but also the detailed forms and measurements are consistent. However, unlike palace sites where many decorative tiles were coated with green glaze, glazed examples were scarcely identified at Longtushan. Furthermore, while tosu commonly accompanied decorative tiles at palace sites, none were found at the Longtushan ancient tombs.

From Tombs M13 and M14, convex and concave basic tiles were found together with decorative types such as eave-end tiles, eave-front tiles, ridge-end tiles, chimi, and yongdu, as well as functional tiles like jeoksae and chakgo. These tombs represent the only known case where chimi have been recovered from a burial context. Based on the roof form implied by the use of chimi in ancient architecture, the superstructure of the tomb is likely to have been a multi-storied wooden building. Pottery fragments depicting architectura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motifs als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roof construction of Balhae wooden architecture.

Producing roof tiles required substantial labor and technical skill–from clay collection and levigation to molding–rendering them luxury materials reserved for elite architecture in antiquity. The tiles from the Longtushan ancient tombs, dating to the mid–late 8th century, constitute key evidence for reconstructing Balhae's roofing technology and architectural ornamentation. Further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of the tiles based on their combinations and installation patterns may yield important clues for refining the dates of the tombs and identifying their occupants.

Keywords: Longtushan ancient tombs, Balhae, roof tiles, roof-ends tile, decorative roof tiles, Balhae architectur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06

고구려 금석문·문자자료의 출토 현황과 연구 과제

여호규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II. 고구려 금석문·문자자료의 출토 현황과 유형 분류
III. 고구려 금석문·문자자료의 연구 과제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한국고대사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은 문헌사료의 부족인데, 고구려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가 금석문과 문자자료에 주목했다. 금석문과 문자자료는 고구려 당대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문헌사료의 부족함을 메워줄 일급 사료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헌사료에 전하지 않는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많다. 금석문이나 문자자료를 통해 고구려사를 더욱 풍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1]

금석문과 문자자료를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작성 시기 파악도 중요한데, 작성 시기를 알아야 금석문이나 문자자료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석문과 문자자료는 당대인이 작성했으므로 사실만 전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찬자의 생각이나 역사관에 의해 과장·윤색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필자는 고구려 주요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연구 현황을 살펴본 바 있다.[2] 다만 이 논고는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를 총망라했기 때문에 개설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상기 논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출토 현황을 살펴본 후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명문 판독, 작성 시기, 사료 비판 등 유의해

---

* 투고: 2025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4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4-기획연구-10)로 수행된 연구임.

1 고구려 금석문·문자자료의 집성·역주는 許興植, 1984, 『韓國金石全文』(古代) 亞細亞文化社; 韓國古代社會硏究所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고광의, 2023, 『고구려의 문자문화』,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2 여호규, 2024a, 「7장 금석문과 문자자료」, 『고구려통사-총론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종전 연구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연구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출토 현황과 유형 분류

1. 조선 후기~1945년의 출토 현황

고구려 멸망 이후 마지막 도성이었던 평양지역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국경지대가 되어 사실상 폐허 상태가 되었다. 두 번째 도성인 국내성(國內城: 중국의 集安) 지역은 발해시기에는 환주(桓州)가 설치되어 비교적 잘 관리되었겠지만, 이후 금(金)이나 원(元)의 변경으로 변모하며 점차 역사 속으로 잊혀져갔다. 이에 따라 고구려 도성에 남아 있던 무수한 금석문과 문자자료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땅속에 파묻혔다.

고구려 멸망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금석문은 광개토왕릉비이다. 1369년(공민왕 18) 이성계 군대가 원의 동녕부(東寧府)를 공격하려고 국내성 지역을 지나다가 능비를 목격한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용비어천가에 전하는데, 국내성과 능비를 모두 금(金)의 유적으로 여겼다.[3] 이러한 인식은 조선시기 동안 지속되었다. 비석의 존재는 알려졌지만, 광개토왕릉비인 줄 몰랐다는 점에서 진정한 재발견이라 하기 어렵다.[4]

이러한 점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고구려 금석문은 평양성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 할 수 있다. 1766년(영조 42)에 제1석(己丑年銘)이 발견되고, 1829년

3 "平安道江界府西越江古百四十里에 有大野하니 中有古城이요, 諺稱大金皇帝城이라. 城北七里에 有碑하고, 又其北에 有石陵二하다(박창희 역주, 2015, 『역주 용비어천가(상)』, 한국중앙연구원 출판부, 권5 39장, 770~771쪽).

4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노태돈, 1992a, 「광개토왕릉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순조 29)에 평양성 외성 남쪽의 오탄(烏灘: 九壘城)에서 제2석(己酉年銘)과 제3석이[5] 발견되었다. 제1석과 제3석은 실물의 행방을 알 수 없지만, 판독문이 『평양속지』, 『해동금석원』, 『삼한금석록』 등에 전한다. 제2석은 여러 조각으로 깨어진 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깨지기 이전의 탁본이 남아 있다.[6]

광개토왕릉비는 청의 봉금정책 해제로 회인현(懷仁縣)이 설치된 직후인 1877~1880년 무렵에 재발견되었다.[7] 능비 발견 이후 청의 학인(學人)들은 주로 금석학이나 서예사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일본이 초창기 연구를 주도했는데, 대륙침략을 획책하던 육군 참모본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8] 이에 따라 능비는 일제의 대륙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연구 방향이 크게 왜곡되었다.[9] 이러한 가운데 능비는 서구에까지 알려져 고구려 나아가 고대 한국을 대표하는 금석문으로 인식되었다.[10]

일본이 고구려 금석문 연구를 주도하는 상황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만주

---

5 『平壤續志』와 『三韓金石錄』에는 건립 연도의 간지가 '己丑年'으로 나오지만, 月·日이 제2석과 동일하여 '己酉年'으로 추정된다(田中俊明, 1985, 「高句麗長安城城壁石刻の基礎的研究」, 『史林』 68-4, 119쪽).

6 田中俊明, 1985, 앞의 글; 서영대, 1992d, 「제3장 석각」,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09~117쪽.

7 능비의 발견 시점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상한은 懷仁縣이 설치된 1877년 7월, 하한은 초대 知縣 章樾이 李超瓊에게 墨本 2벌을 준 1881년으로 상정된다(이형구·박노희, 1996, 『광개토왕릉비 신연구(제2판)』, 동화출판공사, 32~34쪽).

8 亞細亞協會 편, 1889, 「高句麗古碑文」, 『會餘錄』 5.

9 中塚明, 1971, 「近代日本史學史における朝鮮問題-とくに『廣開土王陵碑』をめぐって」, 『思想』 561; 佐伯有淸, 1972a,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再檢討のための序章」, 『日本歷史』 287;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10 M. Maurice Courant, 1898, "Stele Chinoise du Royaume de KoKouRye", *Journal Asiatique*; Edouard Chavannes, 1908, "Rapport sur les Monuments de L'ancien Royaume Coreen de Kao-Keou-Li", *T'oung Pao*(通報) Ⅱ-Ⅸ; (서길수 번역, 2007, 『한말 유럽학자의 고구려 연구: 모리스 꾸랑, 에두아르 샤반드』, 여유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침략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일본학자들은 일제의 지원 아래 고구려 도성 지역에서 능비를 조사하고, 많은 금석문과 문자자료를 발견했다. 가령 1913년에 능비를 조사하여 당시까지의 탁본에서 제대로 탁출하지 않던 제3면 1행의 존재를 확인했다.[11]

벽화고분 묵서도 다수 조사했다. 평양지역에서는 감신총(1915년), 매산리사신총(수렵총: 1915년), 개마총(1916년), 천왕지신총(1917년), 고산리1호분(1936년)에서 묵서를 조사했는데,[12] 벽화 내용 이해와 고구려인의 사상 규명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집안지역에서는 1935년에 통구사신총과 모두루무덤에서 묵서가 발견되었다.[13] 모두루묘지는 묵서가 많이 지워졌지만 800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모두루가(牟頭婁家)의 내력과 고구려 건국설화, 부여 방면 진출과 지방지배 등의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발견 직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고, 주인공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14]

1913년에는 평양성 내성 동벽에서 각자성석 제4석(丙戌年銘)을 발견했다.[15] 이 각자성석은 북한의 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출토지점이 정확하며 실물이 온전히 전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26년에는 경주 서봉총에서 은합우(銀盒杅) 명문이 발견되었는데, 신라 도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

11 今西龍, 1915,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訂正增補 大日本時代史(日本古代史 下)』, 早稻田大學出版部. 다만 1889년에 제작된 원석탁본을 활용해 능비 판독을 진행한 羅振玉을 비롯한 중국학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제3면 1행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羅振玉, 1909, 「高麗好太王碑釋文」, 『神州國光集』 第9集; 여호규, 2023b, 「광개토왕릉비 제3~4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한국문화』 101, 64쪽).

12 關野貞, 1914, 「滿洲國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一·二)」, 『考古學雜誌』 5-3·4; 小場恒吉, 1937, 「高句麗古墳の調査」, 『昭和11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13 池內宏, 1938, 『通溝(上)』, 日滿文化協會.

14 池內宏·梅原末治, 1940, 『通溝(下)』, 日滿文化協會; 勞幹, 1944, 「跋高句麗大兄冉牟墓誌兼論高句麗都城之位置」, 『歷史言語研究集刊』 11.

15 淺見倫太郎, 1914, 「大洞江岸發見の高句麗古城石刻」, 『朝鮮及滿洲』 8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석문으로 '연수(延壽)' 연호가 명기된 점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16] 한편 1915년에는 충북 충주시 노은면에서 '건흥5년병진'명 금동광배, 1930년에는 황해도 곡산군 화촌면에서 '경4년신묘'명 금동삼존불입상이 발견되었다. '건흥5년병진'명 금동광배는 백제의 광배로 여겨지다가,[17] 연구의 진전에 따라 고구려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

이러한 가운데 1920년대 전반에 당(唐)의 동도(東都)였던 낙양(洛陽)의 북교(北郊) 일대에서 보장왕의 손자인 고진(高震), 연개소문가의 천남생(泉男生), 천남산(泉男産), 천비(泉毖), 천헌성(泉獻誠), 책성도독 고량(高量)의 손자인 고자(高慈) 등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이 다수 발견되었다.[19] 이로써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는 비문, 고분묵서, 석각명문, 불상명문, 유민묘지명 등 다양해졌다. 이에 금석문을 집성하는 작업도 이루어져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20]

2. 1945년~1990년대 전반의 출토 현황

1945년 이후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조사와 연구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해방을 맞은 한국이 조사와 연구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1946년 경주에서

---

16 濱田耕作, 1932,「新羅の寶冠」,『寶雲』第2冊; 1939,『考古學研究』, 座右寶刊行會; 李弘稙, 1954,「延壽在銘新羅銀盒杆에 대한 一·二의 考證」,『崔鉉培博士還甲紀念論文集』; 1971,『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17 黑板勝美, 1925,「朝鮮三國時代に於ける唯一の金銅佛」,『考古學雜誌』15-6.

18 손영종, 1966,「금석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개의 연호에 대하여」,『력사과학』1966-4.

19 羅振玉, 1982,「唐代海東藩閥誌存」,『石刻史料新編』第2集 第15冊, 新文豊出版公司.

20 吳慶錫 草稿, 1858,「三韓金石錄」,『三韓金石錄(外)』(1981, 亞細亞文化社 복간본); 朝鮮總督府, 1919,『朝鮮金石總覽』; 劉喜海 輯錄, 劉承幹 重校, 1922,「高句驪古城石刻」,『海東金石苑(권1)』, 希古樓(1976, 亞細亞文化社 복간본); 葛城末治, 1935 ,『朝鮮金石攷』, 屋號書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호우총 호우명문,[21] 1946년 평양 평천리 폐사지에서 '영강7년'명 금동광배,[22] 1949년 황해도 안악에서 안악3호분과[23] 복사리벽화고분[24] 등이 조사되었다. 호우총 호우명문은 415년에 광개토왕의 제사에 사용된 의례용기가 신라 고분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 안악3호분에서는 벽화를 설명하는 다수의 묵서와 함께 동수(冬壽: 佟壽)라는 실존 인물에 관한 묵서가 확인되어 무덤주인공과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이 조사를 주도하고, 남한은 점차 소외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함께 문화유산 조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에 따라 많은 벽화고분이 조사되는 가운데 1953년에 요동성총,[25] 1976년에 덕흥리벽화고분과[26] 덕화리 2호분,[27] 1988년에 평정리1호분[28] 등에서 묵서가 발견되었다.[29] 요동성총에서는 '요동성(遼東城)'이라는 묵서가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다. 덕흥리벽화고분에서는 벽화 내용을 설명한 수많은 묵서와 함께 묘지(墓誌)가 발견되었는데, 묘주의 국적이나 영역 범위, 지방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

21 김재원, 1948, 『壺杅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第1冊.

22 김우, 1962, 「평양시 평천리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동 유물들」, 『문화유산』 1962-6; 도유호, 1964, 「평천리에서 나온 고구려 부처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4-3.

23 도유호, 1949,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 『문화유물』 창간호(『文物參考資料』 1952-1에 譯載);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58, 『안악 제3호분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24 전주농, 1961, 「최근에 발견된 고구려 벽화무덤」, 『문화유산』 1961-1.

25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58, 「평안남도 순천군 룡봉리 료동성총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제1집(대동강류역고분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26 김용남, 1979, 「새로 알려진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하여」, 『력사과학』 1979-3; 박진욱·김종혁·주영헌·장상렬·정찬영, 1981,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7 리준걸, 1981, 「덕화리2호무덤의 별그림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1-1.

28 한인호, 1989, 「평정리벽화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9-2.

29 다만 평정리1호분에서는 묵서가 아니라 각획 명문이 조사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성곽 석각명문도 잇따라 발견되었다. 1958년에는 평북 태천군에서 농오리 산성 마애석각이 조사되고,[30] 1964년에는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에서 내성의 남벽에 박혀 있던 각자성석 제5석이 발견되었다.[31] 농오리산성 마애석각에서 확인된 '소대사자(小大使者)'는 고구려 관등제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32] 평양성 각자성석 제5석은 성벽에 박힌 채로 발견되어 평양성의 축성 과정이나 구간을 고찰하는 기준점이 되었다.[33]

1974년에는 평양시 동남쪽 22km 거리의 정릉사지에서 토기와 기와 명문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왕릉의 원찰로 '정릉사(定陵寺)'가 있었고, 전동명왕릉을 비롯해 진파리고분군에 왕릉이 분포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34] 1988년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의 절터에서 고구려시기에 제작되어 발해시기까지 전승된 금동판 명문이 출토되었는데, 고구려 왕실의 전통적인 '천손(天孫)' 관념과 불교의 도솔천(兜率天) 사상이 결합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35]

중국에서도 국내성이 자리했던 집안 시가지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가 권운문와당 명문을 다수 출토했다.[36] 대중목욕탕 지점에서 출토된 '태녕사년(太寧

30 김례환·류택규, 1958, 「롱오리 산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석각문」, 『문화유산』 1958-6.

31 최희림, 1967,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32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33 기경량, 2017, 「평양성 출토 고구려 刻字城石의 판독 및 위치 재검토」, 『사학연구』 127.

34 김일성종합대학,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오택현, 2022 「평양 정릉사지 문자자료 검토와 과제」, 『중앙사론』 57.

3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4)』; 노태돈, 1992c, 「신포시 절골터 금동판 명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43~146쪽.

36 李殿福, 1984, 「集安卷雲銘文瓦當考辨」, 『社會科學戰線』 1984-4; 林至德·耿鐵華, 1985, 「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 『考古』 1985-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四年: 326년)'명[37] 권운문와당이나 우산하3319호분에서 출토된 '정사(丁巳: 357)'명 권운문와당은 국내성지의 조영시점이나 적석묘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또 벽화고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묵서를 다수 확인했다. 1970년에 장천1호분에서 '북두칠성(北斗七星)' 묵서를 조사했다.[38] 집안의 산성하332호분(1966년)과[39] 장천2호분(1972년),[40] 환인의 미창구장군묘(1991년)에서는[41] '왕(王)'자 문양이 발견되었다.

남한에서도 고구려 금석문이 발견되었다. 1963년 경남 의령군 대의면에서 금동불상이 거의 완형으로 발견되었는데, 광배에 불상 조성 경위를 기술한 명문이 새겨져 있다. '연가7년명 금동광배'로 일컬어지는 명문에는 '연가(延嘉)'라는 연호와 함께 '고려국낙랑동사(高麗國樂浪東寺)'라는 사찰 이름이 적혀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42]

이러한 가운데 1979년에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이 충북 충주시[당시 지명: 중원군 가금면 용전리 입석부락(立石部落)]에서 충주고구려비(중원고구려비)를 발견했다.[43] 충주비는 남한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점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비문 전체를 온전히 판독하기 힘들어 건립 시기나 비면의 수 등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했지만, 고구려의 남진, 관등제와 지방제도, 외교관계와 천하

37 '太寧四年'은 '太寧三年'의 誤記로 실제 제작 연도는 325년으로 파악된다(각주 97 참조).

38 吉林省文物工作隊, 1982, 「集安長川一號壁畵墓」, 『東北考古與歷史』.

39 李殿福, 1983, 「集安洞溝三座壁畵墓」, 『考古』 1983-4.

40 吉林省文物工作隊, 1983, 「集安長川二號封土墓發掘紀要」, 『考古與文物』 1983-1.

41 武家昌, 1994, 「桓仁米倉溝將軍墓壁畵初探」, 『遼海文物學刊』 1994-2.

42 黃壽永, 1963, 「高句麗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 『美術資料』 8; 김원룡, 1964, 「延嘉七年銘金銅如來像 銘文」, 『考古美術』 5-9; 윤무병, 1964, 「延嘉七年銘金銅如來像의 銘文에 대하여」, 『考古美術』 5-10.

43 정영호, 1979,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硏究展望」, 『사학지』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 등을 고찰하는데 핵심 단서를 제공했다.[44]

금석문과 문자자료를 집성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다.[45] 특히 한국고대사회연구소가 한국고대금석문 전체에 대한 역주(譯註)를 진행하며 고구려편을 간행했는데, 금석문의 발견 경위와 현황, 판독안, 번역과 주석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46] 이로써 금석문과 문자자료를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고구려사 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3.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출토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 조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중국이 고구려 도성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집안지역의 고분과 성곽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자자료가 출토된 것이다.[47] 또 남한지역에서 고구려 성곽이 다수 조사되는 가운데 다양한 문자자료가 출토되었다.[48] 이로써 고구려 국내 도성을 정치하게 연구할 자료를 대거 확보한 가운데, 고구려 금석문 조사에서 소외되었던 남한지역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49]

집안지역에서는 4세기의 권운문와당 명문이 대거 출토되었는데, 국내 도성

---

44 단국대학교 사학과, 1979, 『사학지』 13(중원고구려비 특집호); 장창은, 2006, 「中原高句麗碑의 연구동향과 주요 쟁점」, 『歷史學報』 189.

45 이난영, 1976, 『韓國金石文追補』, 亞細亞文化社; 田中俊明, 1981 「高句麗の金石文」,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8; 허흥식, 1984, 앞의 책.

46 한국고대사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47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 集安市博物館, 2004a, 『國內城』,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 集安市博物館, 2004b,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 集安市博物館, 2004c,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박찬규, 2005, 「집안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고구려 문자자료」, 『고구려연구』 19.

48 심광주, 2009,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출토 명문자료에 대한 검토」, 『木簡과 文字』 4.

49 여호규, 2010, 「1990년대 이후 고구려 문자자료의 출토현황과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조영과정 및 초대형 적석묘의 조영시기와 주인공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했다. 태왕릉에서는 '신묘년호대왕(辛卯年好大王)'이 새겨진 청동 방울이 출토되었는데, 태왕릉의 주인공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평기와 명문도 다수 출토되었다. 천추총 출토 평기와에서는 광개토왕의 연호인 '영락(永樂)'과 함께 '▣랑조장군(▣浪趙將軍)' 명문이 확인되어 낙랑과의 연관성이나 장군호의 시행 여부가 주목받았다.[50] 산성자산성 출토 평기와에서는 '소형(小兄)' 관등이 다수 확인되어 수공업 관리체계와 관련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51]

남한지역의 경우 아차산 일대의 보루에서 토기 명문이 다수 조사되었다. 아차산제4보루에서 출토된 '후부도▣형(後部都▣兄)' 명문의 '후부(後部)'는 도성의 행정구역명으로 추정되는데, 남평양의 행정구역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52] 홍련봉제2보루 출토 접시 명문을 보고자는 간지인 '경자(庚子)'로 판독해 보루의 조영시기와 관련시켰지만,[53] '강자(康子)'나 '호자(虎子)'로 판독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54] 임진강 북안의 호로고루에서도 토제북이나 토기, 기와에 새겨진 명문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토제북에 새겨진 '상고(相鼓)'명, 기와의 수량을 적은 산판(算板) 명문이 대표적이다.[55]

2012년에는 중국의 집안시 마선하(麻線河) 강변에서 집안고구려비가 발견되었다. 집안비는 규형비(圭形碑)로 전면과 후면에 비문을 새긴 2면비인데, 광

50 井上直樹, 2007, 「集安出土文字資料からみた高句麗の支配體制について一考察」, 『朝鮮學報』 203.

51 여호규, 2014a, 「고구려 국내도성의 구성요소와 수공업 생산체계」, 『역사문화연구』 52.

52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275~276쪽.

53 최종택, 2013, 앞의 책, 228~239쪽.

54 김현숙, 2008, 「고구려의 한강 유역 영유와 지배」, 『백제연구』 50, 35~37쪽; 김영관, 2015 「웅진시대 백제의 한강 영유권 연구」, 『백제문화』 52, 138~139쪽; 고광의, 2023, 앞의 책, 374~376쪽. 김현숙은 '康子'와 '虎子'일 가능성을 모두 제시했고, 김영관과 고광의는 '虎子'로 판독했다.

55 심광주, 2009,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토왕릉비와 유사한 내용이 많아 큰 주목을 받았다.[56] 비석의 건립시기와 성격, 비문의 판독과 해석을 둘러싼 연구가 한·중·일 3국 학계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57] 동북공정 이후 다소 소원해졌던 한·중 양국의 학술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58]

2010년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중국과 북한이 남포시 용강군에서 옥도리벽화고분을 조사했는데, 묘주도의 운문 휘장에서 '대(大)'자, '왕(王)'자 묵서가 확인되었다.[59] 한국학자들이 북한의 고구려 유적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기관의 지원을 통한 학술교류의 중요한 사례이다. 2009년과 2011년에는 백암성에서 비편이 출토되었는데, 중국에 소재한 지방 성곽에서 처음 출토된 비석이라는 점이 주목된다.[60]

1980년대 이후 당의 도성이었던 서안(西安)과 낙양(洛陽) 일대에서 고구려와 관련한 묘지명이 대거 출토되었다. 크게 고구려로 유망했던 중국계 망명객과 그 후손의 묘지명, 수·당의 고구려 원정에 참전했던 인물의 묘지명, 고구려 유민의 묘지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묘지명은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관계와 유민의 동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관등이나 관직 등 정치제도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98년에 고현묘지명(高玄墓誌銘)이 국내에 소개된 이래,[61] 수많은 개별 묘지명이 소개되고 검토되었다. 이에 묘지명을 비롯한 고구려 관련 금석문의 출토

---

56 集安市博物館 편저,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部.

57 강진원,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판독과 연구현황」, 『목간과문자』 11; 여호규, 2016, 「한중일 3국 학계의 '집안고구려비' 연구동향과 과제」, 『동방학지』 177.

58 한국고대사학회, 2013, 『한국고대사연구』 70(집안고구려비 특집호).

59 동북아역사재단, 2011,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60 蘇鵬力, 2010, 「燈塔市燕州城城址」,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박대재, 2019, 「【자료소개】 중국 요령성 燈塔市 白巖城 출토 高句麗碑片」, 『韓國古代史研究』 94.

61 송기호, 1998, 「고구려 유민 高玄 墓誌銘」, 『서울대학교박물관연보』 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62] 금석문을 집대성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63] 아울러 고구려 유민 묘지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64] 역주 작업도 이루어졌다.[65]

4. 금석문·문자자료의 유형 분류[66]

금석문과 문자자료는 서사재료와 명문형식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유형은 크게 비문, 석각 명문, 불상 명문, 금속기 명문, 고분 묵서, 묘지명, 인장, 기와·토기·벽돌 명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67] 목간이나[68] 종이문서를[69] 제외한 거의 모든 유형의 금석문과 문자

62 윤용구, 2003, 「중국 출토의 한국고대 유민자료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바이건싱(拜根興), 2008, 「고구려 발해 유민 관련 유적 유물」,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63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곽승훈 외 역주,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권덕영, 2021a,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자료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64 拜根興, 2012,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김수진, 2017, 「唐京 高句麗 遺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5 권덕영, 2021b,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66 이 절은 여호규, 2024a, 앞의 글, 303~311쪽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67 한국고대사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고광의, 2023, 앞의 책 참조.

68 하남 이성산성 제8차 발굴조사에서 고구려 목간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김병모 외, 2000, 『이성산성-제8차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280~288쪽), 일반적으로 신라 목간으로 분류한다(윤재석 편, 2022, 『한국목간총람』, 주류성). 또 2021년 몽촌토성 북문지 안쪽의 集水池에서 고구려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이 출토되었지만(박중균, 2022, 「몽촌토성 집수지 출토 목간」, 『신출토 문자자료의 향연』(한국목간학회 제37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백제 목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안악3호분, 덕흥리벽화고분, 통구사신총, 무용총 등에 목간이나 목독에 글씨 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므로 고구려에서도 목간이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송기호, 2002,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강좌』 제5권; 고광의, 2023, 앞의 책, 94~98쪽).

69 안악3호분에서 省事가 묘주에게 바치는 문서나 통구사신총에서 神人으로 보이는 사람이 작성하는 문서를 종이문서로 파악하기도 한다(송기호, 2002, 앞의 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가 확인되었다.

비문은 고구려를 대표하는 금석문인데, 집안고구려비, 광개토왕릉비, 충주고구려비, 백암성고구려비편이 있다. 집안비는 광개토왕대나 장수왕 초기, 능비는 414년(장수왕 3), 충주비는 5세기 중후반, 백암성비편은 540년이나 600년에 건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문은 분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나 제도, 외교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가 비문을 다각도로 고찰했는데, 명문 판독, 건립시기, 서술내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70]

석각 명문은 후기 평양성에서 5건 발견되었고, 태천 농오리산성에서도 마애석각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집안의 서대묘, 천추총, 태왕릉, 민주유적, 평양 대성산성 등에서 단편적인 석각 명문이 조사되었다. 평양성 석각명문은 6세기 후반에 장안성(長安城)을 축조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축성 개시일, 축성 책임자, 축성 구간 등을 기술했다.[71] 농오리산성마애석각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석각 명문은 이두적 요소나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자문화의 보급과 관련해 주목되며, 역역동원이나 지방제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72] 특히 석각 명문에 나오는 소형(小兄), 상위사(上位使), 소대사자(小大使者) 등은 관등제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73]

불상 명문은 '대화13년(大和13年)'명 석불상(489년?), '영강7년(永康7年)'명 금동광배(6세기 후반), '연가7년(延嘉7年)'명 금동광배(539년 또는 599년), '경4년신묘(景4年辛卯)'명 금동삼존불입상(571년?), '건흥5년병진(建興5年丙辰)'명 금동광배(536년 또는 596년?) 등 5건이 확인되었다. 신포시 절골터 금동판

70 주요 비문의 연구 현황과 논쟁은 여호규, 2024a, 앞의 글, 324~362쪽 참조.

71 田中俊明, 1985, 앞의 글; 기경량, 2018, 「고구려 평양 장안성 출토 각자성석(刻字城石)의 축성 구간 검증」, 『역사와현실』 110.

72 나유정, 2024, 「고구려의 대민편제와 수취체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3 임기환, 2004,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명문(5~7세기)도 불교 관련 명문으로 분류된다.[74] 불교 관련 명문의 제작 주체는 승려나 불교 신자인데, 불교문화와 함께 중원대륙과의 문화교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75]

금속기 명문은 호우총호우명문(415년), 서봉총은합우명문(451년?), 태왕릉청동방울명문(391년 또는 451년), 마선구2100호분 철경(鐵鏡) 명문, 장군총 철련(鐵鏈) 명문 등이 있다. 신라 도성에서 출토된 호우총호우명문과 서봉총은합우명문은 5세기 전반 고구려와 신라의 외교관계와 더불어 신라로 한자문화가 전파되던 양상을 보여준다.[76] 또 태왕릉청동방울명문에는 '신묘년(辛卯年)'이라는 간지와 함께 '호대왕(好大王)' 명문이 있어서 태왕릉의 주인공과 관련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77]

고분 묵서는 18기의 고분에서 확인되었다.[78] 환인지역의 미창구장군묘, 집안지역의 모두루무덤, 장천1호분, 장천2호분, 산성하332호분, 통구사신총을 제외하면 나머지 12기는 서북한 지역에 분포해 있다. 안악3호분(357년)에서는 7행 68자의 묘지를 포함해 16개소에서 100여 자가 확인되었고, 덕흥리벽화고분(408년)에서는 14행 153자의 묘지를 포함해 56개소에서 600여 자가 확인되었다. 또 광개토왕~장수왕 시기에 지방장관을 역임한 모두루 무덤에서는 800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묘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고분 묵서는 벽화의 제재(題材)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

74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고광의, 2023, 앞의 책.

75 양은경, 2005, 「景四年辛卯銘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中國 불상과의 관계」, 『선사와고대』 23; 주수완, 2011, 「삼국시대 年號銘 금동불상의 제작연대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보』 44; 최성은, 2017,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조각을 통해 본 고구려 延嘉7년명 금동여래입상」, 『선사와 고대』 51.

76 주보돈, 2001, 「신라에서의 한문자 정착과정과 불교수용」, 『영남학』 창간호.

77 백승옥, 2005, 「'신묘년명 청동방울'과 태왕릉의 주인공」, 『역사와경계』 56; 井上直樹, 2007, 앞의 글; 여호규, 2010, 앞의 글; 조우연, 2017, 「"太王敎造": 4~5세기 고구려 銘文 器物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7.

78 고광의, 2023, 앞의 책, 482~483쪽의 〈표 5-1〉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 특히 안악3호분과 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는 무덤 주인공의 국적이나 성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79] 묘지 형식이 당시 중원대륙에서 유행하던 묘지와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80] 이에 비해 모두루묘지는 고구려 건국설화를 비롯해 고구려왕의 사적과 모두루가의 내력을 기술했는데, 광개토왕릉비의 서사구조와 흡사하다. 서술 내용도 안악3호분·덕흥리벽화고분의 묘지는 중국계 망명객의 이중 정체성을 담고 있는 반면, 모두루묘지는 전통적인 고구려 귀족의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있다.[81] 고분 묵서를 연구할 때 피장자의 정체성이나 정치의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묘지명은 유민묘지명만 확인되었다. 유민묘지명은 가문의 내력과 본인의 관력과 함께 고구려 멸망이나 부흥운동, 정치제도나 지방지배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까지 고구려 유민묘지명으로 거론된 것은 27개인데, 고요묘, 고제석, 이타인, 천남생, 고현, 천헌성, 고모, 고족유, 고질(고성문)과 고자 부자, 고을덕, 천남산, 천비, 유원정, 고씨부인, 고진, 남단덕 등 17명은 고구려 유민이 명확하다. 고목로, 왕경요, 고흠덕과 고원망 부자, 두선부, 고덕 등 6명은 선조가 중원대륙에서 고구려로 왔다고 하므로 가문 내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고구려 유민 여부가 갈린다. 반면 사선의일, 이인덕, 이은지와 이회 부자 등 4명은 고구려 유민으로 보기 힘든 점이 많다.[82]

2018년 이후 고빈(高賓, 502~572),[83] 환관 고연복(高延福, 661~723),[84] 이인회(李仁晦, 683년경 출생),[85] 여항군(餘杭郡) 태부인 천씨(泉氏, ?~808),[86]

---

79 서영대, 1992a, 「安岳3號墳墨書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59~70쪽; 서영대, 1992b, 「德興里古墳墨書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79~88쪽.

80 공석구, 1989, 「安岳3號墳의 墨書銘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121.

81 여호규, 2024a, 앞의 글, 312~324쪽 참조.

82 김수진, 2017, 앞의 글, 253쪽의 별표.

83 김영관, 2018, 「高句麗 遺民 高賓 墓誌銘에 대한 연구」, 『韓國古代史探究』 28.

84 조범환, 2023, 「재당 고구려 유민 환관 高延福 묘지명의 새로운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충운(高冲雲, ?~774)[87] 등의 묘지명이 소개되었다. 태부인 천씨는 연개소문의 손자인 천헌성의 증손녀이다. 고충운은 구려국(句驪國) 출신으로 고조 고달(高達)은 국내성(國內城)의 왕, 증조 고몽(高蒙)은 국내성 좌상(左相)을 지냈다고 한다. 다만 고빈은 『주서』 열전에도 입전되었지만, 생몰년상 고구려 유민으로 보기 힘들며, 묘지명에 고구려와 관련한 내용도 없다. 고연복과 이인회도 묘지명의 내용만으로 고구려 유민이라고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장은 관인(官印)과 사인(私印)으로 나뉘는데, 고구려 인장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은 없다. 관인으로는 '진고구려솔선읍장(晉高句驪率善邑長)', '진고구려솔선천장(晉高句驪率善仟長)', '진고구려솔선백장(晉高句驪率善佰長)' 등이 출토되었지만, 모두 진이 제작한 것이다.[88] 사인으로는 1962년 3월 집안현(集安縣) 태상향(台上鄕) 동명촌(東明村)에서 출토된 사각형 양면인(兩面印)이 있다. 인문(印文)은 "癸亥年」正月中" 및 "▣天如」郎▣▣"이다. 보고자는 중원대륙의 사인과 다르다며 4~5세기의 계해년(363년, 423년, 483년)에 고구려에서 제작했다고 보았는데,[89]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상태는 아니다.

기와·토기·벽돌 명문은 제작 시기나 출토 지역에 따라 몇 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이들 명문의 내용은 단편적이지만, 한자문화의 보급 양상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집안지역의 권운문와당 명문을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90] 이러한 권운문와당은 4세기 초·중반으로 편년되는데,[91] 한자문화가

85 王連龍·黃志明, 2022, 「唐代高句麗移民 『李仁晦墓志』 考論」, 『文物季刊』 2022-2.

86 拜根興, 2022, 「唐故余杭郡太夫人泉氏墓志」, 『文博』 2022-3.

87 루정호, 2025, 「고구려 유민 고충운(高冲雲) 묘지명에 대한 고찰」(신라사학회 233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025.9.20).

88 이승호, 2012,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印과 高句麗의 對西晉 관계」, 『韓國古代史硏究』 67; 고광의, 2023, 앞의 책, 212~215쪽.

89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244쪽. 고광의는 서체가 광개토왕릉비문과 유사하다며 423년에 제작한 고구려 사인으로 파악했다(고광의, 2023, 앞의 책, 216~2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급되던 초창기 양상 특히 낙랑 유민이나 중국계 망명객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92]

기와 명문은 집안지역의 대형 적석묘나 환도산성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기와를 소성(燒成)하기 전에 명문을 새겼는데, 와공(瓦工)이 명문을 새겼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환도산성에서 '소형(小兄)'명 기와가 16개 출토되었는데, 하위 관등 소지자의 한자 해독력과 관련해 주목된다.[93] 토기 명문은 변경에서 많이 출토되었는데, 임진강과 한강 유역의 보루에서만 50여 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개인용 배식기의 명문은 대부분 소성 이후에 새겼는데, 사용자인 장졸(將卒)이 식자층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94]

이처럼 기와·토기·벽돌 명문을 통해 하급 관등 소지자나 장인, 변경의 장졸도 한자를 해독할 정도로 식자층이 널리 형성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군사제도나 수공업제도뿐 아니라 지방통치도 문서행정에 입각해 운영했을 가능성을 전한다. 이러한 문서행정은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했을 텐데, 각종 금석문의 인명 표기가 '관직명+부명(출신지)+관등명+인명'의 순서로 통일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95]

---

90 기경량, 2016,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권운문 와당 명문의 판독과 유형」, 『高句麗渤海硏究』 56; 고광의, 2023, 앞의 책, 222~254쪽.

91 고구려 지역에서 3세기 중후반의 毌丘儉紀功碑나 西晉의 印章이 출토되었지만, 모두 제작 주체가 중원왕조라는 점에서 고구려 금석문이나 문자자료로 분류할 수 없다.

92 공석구, 2003,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32, 150~151쪽; 여호규, 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100~113쪽.

93 여호규, 2010, 앞의 글, 94~100쪽.

94 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 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소화, 59쪽; 양시은 외, 2009,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95 문자자료에 나타난 한자문화 보급 양상에 대한 논의는 여호규, 2011,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고구려 금석문·문자자료의 연구 과제

1. 금석문·문자자료의 보존 상태와 명문 판독

고구려 금석문·문자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4세기 초·중반의 권운문와당 명문이다. '갑술(甲戌)'명 와당은 314년,[96] '태녕사년(太寧四年)'명 와당은 325년으로[97] 편년된다.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음을 고려하면, 유민묘지명 이외의 고구려 금석문·문자자료는 1,350~1,700여 년의 풍상을 견뎌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견디는 과정에서 많은 훼손을 입었는데, 서사 재료나 보존 환경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

이러한 훼손 양상은 명문 판독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종전에는 대체로 개별 글자 단위로 판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훼손에 따른 크랙과 자획을 구분하지 않아 명문을 잘못 판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박락·마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획의 범위를 잘못 설정하여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98] 이러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박락·마멸 양상을 고려하며 판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분 묵서(墨書)는 밀폐된 고분 내부의 벽면이나 천장에 작성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실제 빗물에 의해 묵서가 많이 지워진

---

96 耿鐵華, 2006, 「集安新出土文字瓦當及釋讀」, 『北方文物』 2006-4, 29쪽.

97 와당 명문은 "太寧四年太歲ΔΔ閏月六日己巳造吉保子宜孫."이다. '太寧四年'은 326년에 해당하지만, '太寧' 연호는 이해 2월에 개원되었고, 특히 326년에는 윤월이 없다. '閏月六日己巳'는 태녕 3년 윤8월 6일의 일간지와 부합한다(『二十史朔閏表』 참조). '太寧四年'은 '太寧三年'의 오기로 파악된다(李殿福, 1984, 앞의 글; 林至德·耿鐵華, 1985, 앞의 글, 644쪽).

98 광개토왕릉비 제2면 9~10행은 비면의 제약으로 상단부에 명문을 새기지 못했고 좌측 부분은 침식·풍화 작용으로 많이 박락·마멸되었는데, 종전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정확하게 판독하지 못했다(여호규, 2023a, 「광개토왕릉비 제1~2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高句麗渤海硏究』 75, 71~7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두루묘지를 제외하면,[99]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한 고분 묵서는 거의 없다. 이 점은 고분 내부에 안치했던 묘지명도 마찬가지이다.

불상과 금속기 명문은 금속이라는 서사 재료의 특성상 잘 마멸되지 않으며, 금속의 마멸·균열에 따른 크랙과 자획을 혼동할 우려도 거의 없다. 기와·토기·벽돌 명문은 서사 재료가 용도 폐기된 이후 대부분 지하에 매몰된 까닭에 마멸이 심하지 않은 편이다.[100] 또 금속기 명문처럼 파손·균열에 따른 크랙과 자획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고분 묵서, 유민묘지명, 불상 명문, 금속기 명문, 기와·토기·벽돌 명문은 서사 재료의 특성이나 양호한 보존 환경으로 인해 훼손이 심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훼손에 따른 크랙과 자획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명문은 잔획(殘劃)만 남은 글자나 이체자(異體字)를 둘러싼 논란을 제외하면 판독상의 이견이 많지 않다.

돌로 제작된 석각 명문은 침식·풍화작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존 환경이 비교적 양호했다. 평양성 각자성석은 성벽,[101] 태천 농오리산성 마애석각은 암석,[102] 서대묘·천추총·태왕릉 석각은 적석묘 계단석으로[103] 둘러싸여

---

99 모두루무덤은 1935년 발견 당시 동남부 봉분이 절반 정도 붕괴했고, 현지 주민이 여러 지점에서 봉토의 흙을 채취한 상태였다(池內宏·梅原末治, 1940, 앞의 책, 79쪽).

100 다만 권운문와당 명문은 대부분 글자를 陽刻했고 燒成溫度도 낮기 때문에 명문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둥그스름하게 마모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101 1964년에 발견한 평양성 각자성석 제5석은 내성 남벽 하단 성돌에 명문을 새겼다(최희림, 1967, 앞의 글). 다른 평양성 각자성석도 크기와 형태로 보아 모두 성돌에 명문을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102 석각은 농오리산성 남문지 안쪽 동북 100m 거리의 커다란 현무암 암벽에 새겼는데, 보고자는 석각면 상부가 碑蓋를 씌운 것 같아 비바람을 가릴 수 있었고, 석각면이 북향이어서 비바람을 적게 받아 명문이 비교적 잘 보존되었다고 보았다(김례환·류택규, 1958, 앞의 글, 53쪽).

103 서대묘의 석각('大吉')은 서측 중단의 장대석 중간 조금 아래쪽에 음각했고, 천추총의 석각('#', '工')은 모두 1층 계단석에 새겼고, 태왕릉 석각('#', '工')도 남측 정중앙의 1층 계단석 가운데 저층 장대석에 새겼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었다. 이에 따라 침식·풍화 작용의 영향을 덜 받았는데, 실제 훼손이 심하지 않아 판독을 둘러싼 논란이 많지 않다.

이에 비해 비문은 대부분 장기간 야외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침식·풍화 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광개토왕릉비는 제1면은 동남쪽, 제2면은 서남쪽, 제3면은 서북쪽, 제4면은 동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제2·3면 모서리는 서향으로 세찬 서북풍에 의한 침식·풍화 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모서리와 인접한 제3면 1행은 재발견 초창기에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마멸이 심했다. 제2면 10행도 명문의 좌측 부분이 많이 박락·마멸되었다.

더욱이 능비는 구성 입자가 균질하지 않고 결합력이 약한 각력응회암이기 때문에 풍화작용에 취약했다. 각력응회암은 입자 크기가 다르고 결합력이 약한 부분에 균열이 집중되어 암편(岩片)이 박리(剝離)되기 쉬운데, 이에 따라 표면에 거칠고 불규칙한 박리층, 곧 풍화피(風化皮)가 많이 형성된다.[104] 실제 능비의 표면은 매우 거칠고 울퉁불퉁한데, 암편의 박리로 인해 풍화피가 많이 형성된 결과로 추정된다.

충주고구려비와 집안고구려비는 화강암으로 제작했는데, 화강암은 석영, 운모, 장석 등 다양한 광물로 이루어져 풍화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화강암은 일교차로 인한 박리, 결빙에 따른 균열 등 물리적 풍화작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장석과 운모 성분은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 물이나 공기와 반응하여 점토광물로 변하기 쉬웠다. 단단한 석영 성분은 풍화작용에 비교적 강하지만, 장석이나 운모가 풍화로 인해 점토광물로 변하면 결속력이 약해져 부스러지거나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105]

館, 2004b, 앞의 책, 98, 177, 222쪽).

104 박성미·이명성·최석원·이찬희, 2008,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의 재질특성과 풍화훼손도 평가」, 『보존과학회지』 24, 30쪽; 박성미·류경석·최희수·이찬희, 2011, 「고창 선운사 도솔암마애불의 암석학적 특성과 손상도 진단」, 『보존과학회지』 27-1, 107~108쪽; 양재혁, 2018, 「동결-융해작용에 따른 암석풍화의 특성 -유문암, 현무암, 응회암을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25-1, 5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안고구려비는 화강암의 침식·풍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전면(前面) 하반부가 강변의 모래흙에 박혀 있고 상반부는 하천 쪽으로 엎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106] 하반부 명문은 비교적 뚜렷하지만 상반부는 많이 마멸되었다.[107] 이는 땅속에 묻혔던 하반부는 침식·풍화 작용의 영향을 덜 받았지만, 상반부는 계곡물에 장기간 노출되어 물에 의한 침식·풍화 작용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파악된다.

충주고구려비는 사각기둥 모양인데, 전면과 좌측면에는 명문이 많이 남아 있다. 후면과 우측면에는 자획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글자가 명확히 판독되는 만큼[108] 명문을 새겼다고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우측면의 비면이 매끄럽고, 세로 방향의 기다란 크랙이 여러 줄 형성된 사실이 주목된다.[109] 이 크랙은 진행 방향과 깊이로 보아 장기간 빗물이나 강물에 노출되어 침식·풍화 작용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정된다. 충주비는 비면에 따라 침식·풍화 작용이 차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명문의 잔존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110]

---

105 권순식, 2009『풍화작용과 지형』, 한국학술정보, 76~78쪽.

106 集安市博物館 편저, 2013, 앞의 책, 9쪽.

107 Ⅰ~Ⅲ행 상단부는 깨어졌고, Ⅳ~Ⅷ행 상단부는 1~4자의 자획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마멸되었다(여호규, 2013,「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한국고대사연구』70, 72쪽 판독문).

108 2020년 4월 24일 한국고대사학회·동북아역사재단 제3차 판독회에서 우측면 1행 10자에 '전(前)'자, 2행 13자에 '부(部)'자를 새긴 사실을 확인했다. 후면 마지막 행 상단에서도 '순(巡)'자를 확인했다(양인호·고태진, 2020,「충주고구려비 공동판독안」,『충주고구려비』, 동북아역사재단, 227~230쪽).

109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충주고구려비』, 동북아역사재단, 25~27쪽 사진 참조.

110 입석마을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충주비는 '대장간의 모퉁이 기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비석의 원위치에서 슬래그와 목탄재가 다량 출토되었다(장준식, 2020,「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회고」,『충주고구려비』, 동북아역사재단, 25~26쪽). 장준식 선생님의 傳言에 따르면 1979년 당시 80세 전후였던 송씨 노인이 "충주비의 전면은 대장간의 벽체, 후면은 안쪽 방향으로 세워졌고, 대장장이가 철기를 벼릴 때 비석을 기둥처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후면은 철기를 벼리는 과정에서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상과 같이 고구려 비문은 자연적인 침식·풍화 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흔적은 박리, 마멸, 균열 등 다양한 형태로 비면에 남겨졌다. 특히 침식과 풍화에 따른 크랙은 자칫 자획과 혼동하기 쉬운데, 종전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판독 논란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양자의 판별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자획과 크랙의 구별은 석제(石製) 금석문·문자자료 판독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문은 인위적 훼손을 겪기도 하고,[111] 탁본 제작 과정에서 왜곡과 변형이 일어나기도 했다. 광개토왕릉비의 탁본 제작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능비는 재발견 직후 이끼를 제거하기 위해 비면에 말똥(馬糞)을 바르고 불태웠는데, 이때 비면이 박리·균열되는 훼손이 발생했다.[112] 이끼 제거 이후에도 비면이 울퉁불퉁하고 워낙 커서 탁본을 제작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처음에는 자획을 본뜬 탁본인 쌍구가묵본·묵수관전본을 제작했는데, 제작자의 주관이 개입된 실물 크기의 판독문이라 할 수 있다.[113]

비면의 원상을 반영한 '원석탁본'은 1887~1889년에 제작되었다.[114] 담광

111 집안고구려비는 圭首形의 2면비로 後面에도 명문을 새겼다고 추정되지만, 자획 흔적만 남아 있고 판독은 불가능하다. 후면 좌측에 '人工鑿損'이 있다고 하는데(集安市博物館 편저, 2013, 앞의 책, 9쪽), 烟戶頭의 子孫이 명문을 훼손했다고 보기도 한다(耿鐵華·董峰, 2013, 「新發現的集安高句麗碑初步研究」, 『社會科學戰線』 2013-5, 10쪽).

112 楊守敬, 1909, 「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碑跋」, 『高麗好太王(1)』; 談國桓, 「手札」, 『奉天通志』; 顧燮光, 1918, 「好太王卑」, 『夢碧簃石言』. 이때 제3면 우하단이 박리되고(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2, 128쪽), 제1면·제2면의 'V'자형 균열이 생겼다고 파악한다(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60~61쪽).

113 葉昌熾의 "탁본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글자를 描寫하여 종종 진실을 잃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葉昌熾, 1909, 「奉天一則」, 『語石』).

114 현재 발견된 원석탁본은 14종인데,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 131~133쪽; 武田幸男,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142~212쪽; 백승옥, 2014,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혜정본의 외형적 특징과 복원」 『혜정 소장본 광개토태왕비 원석탁본』, 18~23쪽 등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談廣慶)이 1887년에 봉천부(奉天府) 독학사(督學使) 양이(楊頤)의 부탁으로 6벌을 제작했고, 청·러 국경회담의 청 대표였던 오대징(吳大澂)을 위해 여러 벌을 제작했다.[115] 1889년에는 베이징의 금석 애호가들이 전문 탁공 이운종(李雲從)을 보내 50벌을 제작했다.[116] 청의 학자 일부가 원석탁본을 활용했지만,[117]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1890년대 이후 탁본 제작의 편의와 선명한 탁본 획득을 위해 비면에 석회를 칠한 '석회탁본(石灰拓本)'이 널리 제작되었기 때문이다.[118] 석회탁본은 제작 과정에서 비면의 괘선이나 마멸 부분뿐 아니라, 글자가 선명하지 않은 여백에도 진흙을 메우거나 석회를 칠했다. 심지어 탁본 제작자가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석회를 발라 글자를 만들기도 했다.[119] 이에 따라 석회탁본은 자획의 변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다.[120]

1938년 괴뢰 만주국이 탁본 제작 금지령을 내린 이후 한동안 탁본이 제작되

115 談國桓, 1909~1925, 「手札」, 『遼東文獻徵略』; 1929, 「好太王碑拓本跋語」, 『遼寧省博物館藏拓本附跋』(王健群, 1984 재수록).

116 羅振玉, 1908, 「好太王陵碑」, 『俑廬日札』; 葉昌熾, 1909, 앞의 글. 청명본 跋記에 李雲從이 탁본을 제작한 경위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임세권, 1997, 「廣開土王碑의 硏究-청명본 원석탁본의 검토-」, 『國史館論叢』 74, 265~267쪽).

117 청명본 跋記에 따르면 鄭文焯(天池舍人)이 1889년 제작 원석탁본을 구입했다고 한다. 또 羅振玉은 『俑廬日札』에서 李雲從 탁본을 활용해 비문을 판독했음을 언급하고 있다(羅振玉, 1908b, 앞의 글).

118 1993년 天津 文運堂에서 1890년대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石灰拓本이 발견되었다. 1890년대 초부터 석회탁본이 제작된 것이다(徐建新, 2006, 앞의 책, 166~170쪽).

119 王健群이 1981년 10월 23일에 석회탁본 제작자였던 初天富(初鵬度)-初均德의 후손을 조사하다가 初均德 조카인 初文泰가 보유한 '手抄本'을 확인했다. 이 '手抄本'에는 1면 1행 29자(世 → 出)나 31자(而 → 子) 등 석회탁본에 의해 변형된 글자와 같은 글자가 다수 나온다. 初天富-初均德 부자가 이 '手抄本'을 바탕으로 비면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변형한 것이다(王健群, 1984, 앞의 책, 17~21쪽).

120 능비의 탁본 제작과정에 대한 고찰은 趙宇然, 2019, 「중국의 광개토왕비 탁본 제작 및 연구」, 『한국사학보』 77, 135~147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않고, 석회도 칠해지지 않았다.[121] 이에 따라 석회가 박락되며 능비가 점차 원상을 회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3년 장명선본(張明善本), 1981년 주운태본(周雲台本)이 제작되었다. 다만 능비는 많이 손상된 상태였고, 여전히 석회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도 엄밀히 말하면 석회탁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122]

그러므로 능비의 탁본 가운데 쌍구가묵본·묵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은 판독을 위한 연구자료로 적합하다고 보기 힘들다. 원석탁본이 가장 중요한 연구자료라 할 수 있다.[123] 다만 원석탁본도 능비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서 제작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석탁본을 활용할 때도 자획과 크랙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24]

제1면 4행 2자는 이를 잘 보여준다. 현재 '혈(頁)'자와 '수(首)'자 판독안이 대립하고 있는데,[125] 자획과 크랙을 다르게 판별한 결과이다. 미즈타니본(水谷本)을 보면 상단 중앙에 점이 2개 있는데, '수(首)'자 판독안에서는 이를 자획으로 판단하고, 하단의 '팔(八)'획을 크랙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북대A본에서 보듯이 상단의 점은 3행 2자(葭) 위쪽에서 이어지는 점열(點列) 모양의 크랙이다. 오

121 武田幸男, 2009, 앞의 책, 348쪽.

122 徐建新, 2006, 앞의 책, 296쪽; 武田幸男, 2009, 위의 책, 378쪽; 여호규, 2019, 「북한의 광개토대왕비 연구와 장명선 탁본」, 『張明善 탁출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국립문화재연구소, 34쪽.

123 이러한 점에서 原石拓本과 雙鉤加墨本·石灰拓本을 구별하고 원석탁본을 바탕으로 명문을 판독한 水谷悌二郎의 연구성과는 매우 중요하다(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 『書品』 100號, 124~135쪽).

124 이러한 점에서 향후 중국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비면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정밀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면 관찰을 통해 명문을 판독한 연구자로는 박시형(1963년 9월), 王健群(1979~1981년), 耿鐵華(1980년대), 박진석(1992년 8~9월) 등이 있다(박시형, 1966, 앞의 책, 53쪽; 王健群, 1984 앞의 책, 241쪽; 耿鐵華, 1994, 앞의 책, 85쪽;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학출판사, 머리말).

125 여호규, 2023b, 앞의 글, 91쪽 〈부표 2-1〉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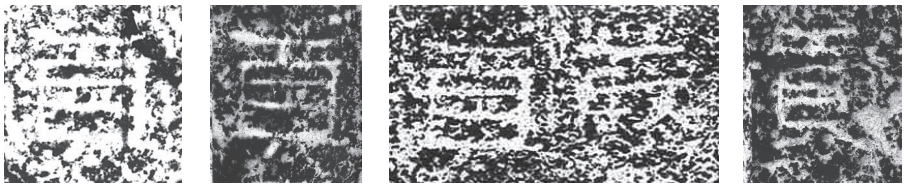


그림 1 광개토왕릉비 제1면 4행 2자 판독 참조자(水谷本과 金子本 탁본: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陵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북대A본 탁본: 임기중, 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동국대학교출판부 참조)

히려 모든 원석탁본에서 하단의 '팔(八)'획이 확인된다. 상단의 '일(一)'획과 중단의 '목(目)'획 사이에는 '삐침(丿)'획도 확인된다. 탁본을 면밀하게 관찰해 자획과 크랙을 구분하면, '혈(頁)'자로 판독할 수 있다.[126]

제1면 9행 13자도 자획과 크랙의 구별, 특히 비면 관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127] 많은 연구자가 이 글자의 하단 자획을 횡장방형(橫長方形)으로 보았는데, 이 경우 횡장방형 자획과 좌측 괘선 사이에 다른 자획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된다. 이에 묵수곽전본이나 석회탁본에서 '氵'변을 좌측 괘선에 걸쳐놓았고, '氵'변이 없다고 판독하기도 했다.[128]

그렇지만 괘선 위에 자획을 새긴 글자는 없다. '氵'변이 괘선에 걸쳐져 있다는 판독안은 성립할 수 없다. 하단 자획을 횡장방형으로 판단한 것은 크랙과 자

126 여호규, 2023b, 앞의 글, 59쪽.

127 여러 판독안은 고광의, 2015, 「廣開土太王碑의 제1면 9행 13자 釋文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7, 151~158쪽; 기경량, 2022, 「광개토왕비 辛卯年條 '來渡海破' 판독의 문제와 그 함의」, 『고구려발해연구』 73, 91~95쪽 참조.

128 福宿孝夫, 1991, 『日本古器銘と好太王碑文』, 中國書店, 77~78쪽; 白崎昭一郎, 1993, 『廣開土王碑文の研究』, 吉川弘文館, 152~154쪽; 耿鐵華, 1994, 앞의 책, 108~1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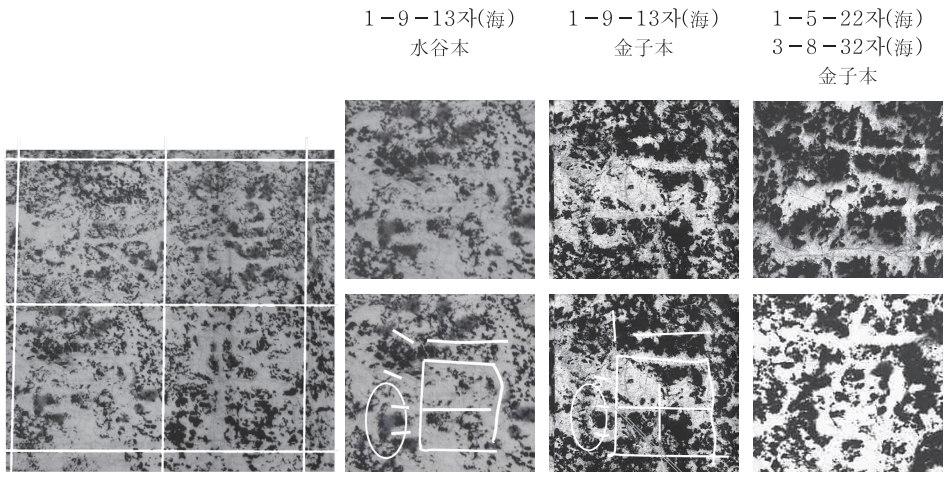


그림 2 광개토왕릉비 1-9-13자 판독과 관련 자료(탁본의 전거는 〈그림 1〉과 동일함)

획을 혼동한 결과이다. 미즈타니본의 좌하단 동그라미 부분은 연결된 자획이 아니며, 가네코본(金子本)에서도 둥그스름한 원호(圓弧)를 이룬다(〈그림 2〉). 종래 '왈(曰)' 획이나 '모(母)' 획의 좌측 종선(縱線)으로 판독한 부분은 박락이나 마멸에 따른 크랙으로 추정된다.

능비의 석재는 각력응회암으로 풍화작용에 의해 암편(岩片)이 박리되어 표면에 풍화피(風化皮)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 〈그림 3〉의 비면 사진에서 보듯이 '왈' 획이나 '모' 획으로 판독한 좌측 부분에 암편이 둥그스름하게 박리된 흔적이 남아 있다. 종래 자획으로 판독한 부분은 풍화피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크랙에 해당한다.[129] 오히려 미즈타니본이나 가네코본에서는 이 크랙 안쪽에 종선

129 기경량, 2020, 「광개토왕릉비문의 신판독과 해석」『고구려발해연구』 68, 48~49쪽에서도 이 부분의 비면이 깨어졌을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확한 자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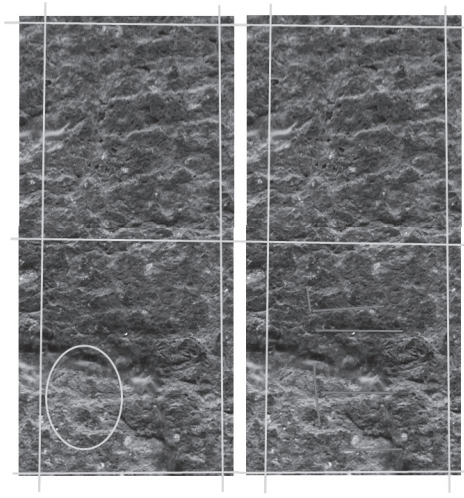


그림 3 광개토왕릉비 1-9-12·13자 사진[130]

이 있고, 이 부분에 '모(母)' 획을 상정할 수 있다. 또 이 자획의 상단에 '丨+一'획이 있다. 이들 자획과 좌측 괘선 사이에 가로 방향의 짧은 선이나 점이 여러 개 확인되는데, '도(渡)'자의 '氵'변과 위치나 형상이 거의 같다. 1-9-13자는 '해(海)'자로 판독할 수 있는데, 자형도 1-5-22자, 3-8-32자 등 다른 '해(海)'자와 거의 같다.[131]

이처럼 1-9-13자의 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했던 이유는 자획과 크랙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원석탁본을 통해 종래 자획으로 판독한 부분은 크랙일 가능성을 상정하고, 비면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화강암제 비문도 자획과 크랙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전술했듯이 화강암에 포함된 장석과 운모 성분은 물이나 공기와 반응해 점토광물로 변하기 쉽고, 석영도 주변의 장석이나 운모가 점토광물로 변하면 결속력이 약해져 부스러지거나 떨어져 나갔다. 이에 따라 화강암제 비문에는 각양각색의 크랙이나 구멍이 생겨 자획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충주고구려비의 판독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충주비는 세 차례 공동 판독

130 이 사진은 2022년 11월 4일 안동대학교 임세권 명예교수의 연구실(유안사랑)을 방문하여 청명본을 검토할 때 제공받은 것이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임세권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31 1-9-13자의 판독에 대한 논의는 여호규, 2023a, 앞의 글, 47~50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회를 진행했는데, 그때마다 전면(前面) 1행 4~10자 판독이 달라졌다. 1979년에는 '高麗大王相王公' 판독안이 우세한 가운데[132] '高麗大王祖王令' 판독안이 제기되었고,[133] 2000년에는 '高麗大王祖王令' 판독안이 널리 받아들여졌다.[134] 그런데 2019년 판독회를 통해 '高麗大王祖王公' 판독안이 통설로 자리 잡았다.[135]

판독안이 달라진 것은 자획과 크랙이 복잡하게 얽힌 1행 8자·10자의 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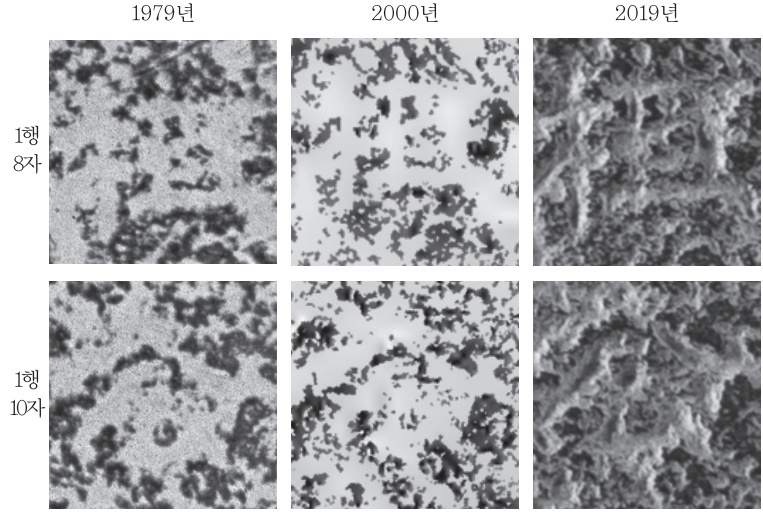


그림 4 충주고구려비 전면 1행 8자(祖)와 10자(公) 탁본(1979년 탁본: 단국대학교 사학과, 1979, 『사학지』 13(중원고구려비 특집호) 참조; 2000년 탁본: 고구려연구회 편, 2000, 『고구려연구』 10(중원고구려비 특집호) 참조; 2019년 탁본: 동북아역사재단, 2021,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132 변태섭, 1979,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사학지』 13, 45쪽.
133 이병도,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사학지』 13, 24쪽.
134 장창은, 2006, 앞의 글, 298쪽.
135 양인호·고태진, 2021, 앞의 글, 22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다르게 판별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1행 8자의 좌변은 1979년 탁본에서는 '木'획에 가깝지만, 2000년 탁본에서는 '礻'에 가깝게 보인다. 이에 1979년에 '相'자 판독안이 우세하다가, 2000년에는 '祖'자 판독안이 우세해졌다. 그런데 2019년에 고해상 디지털 카메라로 비면을 촬영했는데, '礻'변의 '丿'획이 확인되었다. 1행 8자는 '祖'자가 명확한 것이다.

1행 10자는 1979년 탁본에서는 '公'자처럼 보이지만, 2000년 탁본에서는 하단 중앙에 '丨'획처럼 보이는 종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많은 연구자가 '令'자로 판독했다. 그런데 2019년에 자획으로 보았던 좌상의 '丿' 부분은 크랙이고, 그 아래쪽에 '八'획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 '八'획 하단에 'ㅅ'획이 있고, 종전에 '丨'획으로 보았던 종선의 하단 부분은 크랙임을 확인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해상 사진을 촬영한 결과, 자획과 크랙을 명확하게 구분해 글자를 정확하게 판독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처럼 석재로 제작한 비문은 자연적인 침식·풍화나 인위적인 훼손으로 크랙이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획과 크랙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충주비 전면(前面) 상단의 제액(題額) 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액설은 비석 발견 직후 제기되었다가 큰 반향을 얻지 못했는데,[136] 최근 '영락칠년(永樂七年)' 제액설이 제기되면서 다시 첨예한 논쟁으로 부상했다.[137]

---

136 이병도와 손영종이 "建興四"(이병도, 1979, 앞의 글, 22~24쪽; 손영종,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5-2, 28~29쪽), 이호영이 "□熙七年歲辛□□"(이호영, 1979, 「中原高句麗碑 題額의 新讀-長壽王代의 年號 推論-」, 『사학지』 13) 등의 제액이 있다고 판독했다. 정영호와 변태섭도 제액의 존재를 인정했다(정영호, 1979, 앞의 글, 15쪽; 변태섭, 1979, 앞의 글, 41~42쪽). 그렇지만 2000년 판독회에서는 제액을 부정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137 고광의가 "永樂七年歲在丁酉"라는 제액을 판독했는데(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 『韓國古代史硏究』 98, 63~82쪽), 이용현, 이재환, 홍성화가 수용했다(이용현, 2020, 「忠州 高句麗碑 '忌'·'共'의 재해석」, 『韓國史學報』 80, 41~42쪽; 이재환, 2021, 「'영락7년' 판독에 기반한 충주고구려비의 내용 검토와 충주지역의 접경성」, 『목간과문자』 27, 13~17쪽; 홍성화, 2025, 「충주 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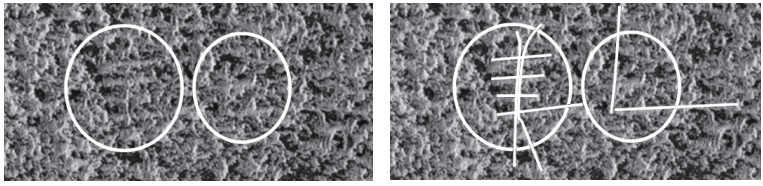


그림 5 충주고구려비 전면(前面) 상단 탁본 부착 사진(동북아역사재단, 2021,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그림 5〉에서 보듯이 전면 상단의 동그라미 부분만 보면 '칠(七)'과 '연(年)'에 해당하는 명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침식·풍화에 따른 크랙이 무수히 형성되어 있다. '칠'자처럼 판독되는 부분도 상하와 좌우 방향의 긴 크랙이 만나는 지점이다. '연'자의 'ㅣ'획처럼 보이는 종선 부분에도 직선과 원호로 이루어진 크랙 2개가 지나간다. '一'획처럼 보이는 횡선 4개는 길이와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 보면 제액으로 판독할 만한 명확한 자획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비문 판독에서는 자획과 크랙의 구별이 중요하지만, 종전에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명문 판독에서는 비면의 박락과 마멸 상황, 특히 글자 주변의 크랙의 진행 방향에 유의해 판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과 AI 기술을 금석문 판독에 접목한다면, 다양한 이체자(異體字) 용례를 비교하는 기법과 더불어 자획과 크랙을 구별하는 판독법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38]

구려비를 통한 고구려의 진출로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77, 104~108쪽). 하시모토 시게루도 '□嘉七年己未'라는 제액을 판독했다(하시모토 시게루, 2022, 「충주 고구려비의 새 판독과 연대」, 『韓國古代史探究』 42, 491~496쪽).

138 자획은 크랙과 달리 새긴 각도와 깊이가 일정할 수 있다. 디지털과 AI 기술을 활용해 자획의 각도나 깊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자획과 크랙을 구별할 판독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금석문·문자자료의 작성 시기와 성격

금석문·문자자료 연구에서는 작성 시기 파악도 매우 중요하다. 작성 시기를 모르면 제작 배경이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거의 모든 연구자가 판독 작업과 더불어 작성 시기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게 된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연호(年號)와 간지(干支)로 연도를 표기했다. 고구려는 4세기 초·중반에는 중원왕조의 연호로 연도를 표기하다가 4세기 후반부터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 국내성지 출토 '태녕사년(太寧四年)'명 권운문와당은 동진의 연호를 사용한 첫 사례이다.[139] 안악3호분 묘지에서도 동진의 연호인 '영화(永和)'를 사용했다(永和 13년; 357년).

현재까지 확인된 최초의 고구려 연호는 광개토왕이 제정한 '영락(永樂)'이다. 광개토왕릉비를 통해 '영락 원년'은 신묘년(391년)이고,[140] 능비의 건립 시기는 '갑인년(甲寅年)' 곧 414년(장수왕 3년)임을 알 수 있다.[141] '영락' 연호는 널리 사용되었는데, 덕흥리벽화고분 묘지에서 피장자의 안장(安葬) 연도를 '영락 18년(408년)'으로 표기했다.

불상 명문의 연호 가운데 북위 연호인 '대화(大和; 太和)'를 제외하면,[142] '영강(永康)', '연가(延嘉)', '건흥(建興)'은 6세기에 사용된 고구려 연호로 파악

---

139 '太寧四年'은 '太寧三年'의 誤記로 실제 제작 연도는 325년으로 파악된다(각주 97 참조).

140 광개토왕릉비의 '永樂五年'을 "영락태왕 즉위 5년째"라고 해석해 '永樂'을 연호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王健群, 1984, 앞의 책, 137~138쪽). 그렇지만 덕흥리벽화고분의 '永樂十八年太歲在戊申' 명문에서 보듯이 정식 연호로 사용되었다.

141 414년은 광개토왕의 시신을 안장한 날이고, 능비는 '호우총 호우 명문'에 나오는 乙卯年(415년)에 건립했다고 보기도 한다(주보돈, 2016, 「광개토왕비와 장수왕」, 『목간과문자』 16, 45~50쪽).

142 '大和十三年'銘 石佛像의 제작 시기를 표기한 "大和十三年歲在」己巳九月壬寅朔十九」日庚申" 명문은 北魏 연호인 太和 13년 8월 19일과 年(己巳年), 月(壬寅), 日(庚申) 간지가 모두 일치한다. '大和'는 북위의 '太和' 연호로 파악된다(서영대, 1992e, 앞의 글, 1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된다.[143] 서봉총은합우명문의 '연수(延壽)'를 신라나[144] 고창국의[145] 연호로 보기도 하지만, 고구려 연호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수 원년 신묘년'을 고국원왕 원년(331년)이나[146] 고국양왕 몰년(391년)으로[147] 보기도 하지만, 장수왕 39년(451년)일 가능성이 높다.

간지만 기재하기도 하는데, 문자자료의 유형이나 다른 사료를 통해 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가령 권운문와당은 4세기 초중반에 유행했기 때문에 고분 출토 기년명 권운문와당은 적석묘의 전개양상을 통해 제작 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서대묘 출토 '기축(己丑)'명 와당은 329년, 우산하992호분 출토 '무술(戊戌)'명 와당은 338년, 우산하3319호분 출토 '을묘(乙卯)'명과 '정사(丁巳)'명 와당은 355년과 357년으로 비정된다.[148]

후기 평양성(장안성)의 각자성석에도 간지만 적혀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양원왕 8년(552년)에 착공해 평원왕 28년(586년)에 천도했다고 하므로 각자성석의 연대는 552~589년 전후로 비정할 수 있다. 제4석의 '병술(丙戌)'년은 566년(평원왕 8년), 제1석·제2석·제3석의 '기유년(己酉年)'은 589년(평원왕

143 손영종, 1966, 「금석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개의 연호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6-4; 양광석, 1988, 「高句麗의 年號」,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정운용, 1998,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의 年號」, 『한국사학보』 5; 이승호, 2020, 「고구려의 칭원법과 연호」, 『사학연구』 138. 다만 '景四年辛卯'명 금동삼존불상의 '景'은 외자이므로 연호로 보기 어렵다. '永康'은 양원왕(손영종, 1966, 앞의 글, 358쪽), '延嘉'는 안원왕(김원룡, 1964, 앞의 글, 156쪽)이나 영양왕(황수영, 1963, 앞의 글), '建興'은 안원왕(손영종, 1966, 앞의 글, 355쪽)이나 영양왕(黑板勝美, 1925, 앞의 글, 6쪽) 등 6세기 연호로 추정한다.

144 이홍직, 1971, 앞의 책, 464~465쪽; 장창은, 2015, 「瑞鳳塚 출토 銀盒의 성격 재검토」, 『한국학논총』 43.

145 박선희, 2006, 「銀盒杆 명문의 연대 재검토에 따른 서봉총 금관의 주체 해명」, 『백산학보』 74.

146 강현숙, 2015, 「高句麗 年號 開始에 대한 考古學的 論意」, 『한국고대사연구』 77.

147 조우연, 2017, 앞의 글, 21~24쪽.

148 상세한 논증은 여호규, 2006, 앞의 글, 103~115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1년)으로 비정된다.[149] 각자성석의 연도 비정을 통해 내성 성벽은 566년에 축조하기 시작했지만, 중성이나 외성 성벽은 장안성으로 천도한 586년 이후에 착공했음을 알 수 있다.[150]

다만 간지만 있고 비교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으면,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태천 농오리산성 마애석각에는 '을해년(乙亥年) 팔월(八月)'이라는 작성 시점이 나오지만, 비교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연도를 알기 어렵다.[151] 평양성 각자성석과 달리 농오리산성 마애석각만으로는 산성의 축조시기를 알기 힘든 것이다.

이처럼 연도 표기는 해당 금석문(문자자료)의 작성 시기와 더불어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의 조성 시기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연도가 표기되지 않았더라도 서술 내용이나 출토 현황을 통해 작성 시기를 파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모두루묘지는 판독되는 부분에서는 작성 시기와 관련한 명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서술 내용상 모두루가 광개토왕 생전에 '영북부여수사(領北夫餘守事)'로 파견되었는데, 현지에서 광개토왕의 사망 소식을 접했고 '노노객(老奴客)'이라 불릴 정도로 장수했다. 모두루묘지는 장수왕이 재위하던 5세기 중반을 전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152]

기와나 토기 명문은 내용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작성 시기를 표기한 경우가 거의 없다. 연호 표기는 천추총 출토 수키와 명문의 '영락(永樂)'이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153] 종래 아차산 홍련봉제2보루 출토 접시의 명문을 '경자(庚子)'로 판

149 현재 행방불명인 제1석과 제3석의 간지는 본래 '己丑年'으로 판독했지만, 제2석과의 비교를 통해 '己酉年'으로 수정 판독한다(田中俊明, 1985, 앞의 글, 119~124쪽; 기경량, 2017, 앞의 글, 179~183쪽). 제1~3석의 출토 지점은 기경량의 수정 견해를 따랐다.

150 기경량, 2018, 앞의 글, 13~29쪽.

151 서영대, 1992e, 앞의 글, 118쪽.

152 武田幸男, 1981,「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 합집; 노태돈, 1992b,「牟頭婁墓誌」,『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5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b, 앞의 책, 193쪽; "Δ / 浪趙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독하고 520년으로 보았지만,[154] 최근에는 '호자(虎子)' 판독안이 우세하다.[155] 이에 단편적인 고분 묵서, 기와·토기·벽돌 명문은 대체로 해당 고분이나 유구의 편년을 통해 작성 시기를 추론한다.[156]

그런데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추론할 만한 유적이나 유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석은 관련 명문이 없으면 작성 시기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충주고구려비나 집안고구려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석은 역사적 사건이나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데, 건립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해가 크게 달라진다. 그런 만큼 비석의 건립 시기를 고찰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충주비는 고구려의 천하관이나 신라와의 외교관계와 관련해 많이 주목받았지만, 건립 시기와 관련한 명확한 명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건립 시기에 대해 광개토왕대설, 421년 전후설, 449~450년설, 장수왕대 후반설, 문자명왕대설, 평원왕대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157] 이 가운데 광개토왕대설에 따르면 고구려가 광개토왕대에 남한강 유역을 석권했다고 보아야 한다. 421년설이나 449~450년설에 따르더라도 고구려가 475년 백제 한성 함락 이전에 충주지역까지 진출했다고 보아야 한다. 충주비의 건립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고구려의 남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158]

軍 / ○未在永樂". '未在'를 '夫任'으로 수정 판독하기도 한다(박찬규, 2005, 앞의 글, 181쪽의 각주 29 및 井上直樹, 2007, 앞의 글, 13~14쪽).

154 최종택, 2013, 앞의 책, 228~239쪽.

155 김영관, 2015, 앞의 글, 138~139쪽; 고광의, 2023, 앞의 책, 374~376쪽.

156 집안지역 초대형적석묘 출토 평기와 명문은 대체로 해당 고분의 조영과 비슷한 시기, 환도산성(산성자산성) 출토 평기와 명문은 평양천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아차산 일대 보루 출토 토기 명문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475~551년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157 서영대, 1992c, 앞의 글, 37~41쪽; 장창은, 2006, 앞의 글; 여호규, 2024a, 앞의 글, 358~362쪽.

158 충주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서술은 여호규, 2020,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 98, 128~135쪽을 수정 보완한 것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므로 충주비의 건립 시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핵심 쟁점은 전면(前面) 상단의 제액 유무, 전면 1행 4~10자의 판독과 해석, 일간지(日干支)가 나오는 전면 7행 15~22자의 판독, 좌측면 3행 7~9자의 판독 등이다. 이 가운데 종래 '신묘년'으로 판독했던 좌측면 3행 7~9자는 '공이백육십(功二百六十)'으로 판독된다.[159] 좌측면 3행 7~9자를 '신묘년'으로 판독하고 건립 시기를 파악한 견해는[160] 성립하기 힘든 것이다.

또 전면 상단에 제액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전술했듯이 명문으로 판독한 부분은 크랙으로 추정된다. 특히 좌측면은 7행 하단에 6자 분량의 공격(空隔)이 있는 반면, 우측면과 후면에서도 명문이 확인된다. 비석을 새긴 순서로 본다면 좌측면이 마지막 면이고,[161] 전면은 우측면에서 이어지는 비면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면 1행 1~3자(五月中) 앞에 표기했을 연도는 우측면 마지막 행에 새겼다고 추정된다. 제액을 근거로 비석의 건립 시기를 파악하는 견해는 성립하기 힘든 것이다.[162]

그러므로 비석 건립 시기는 전면 1행 4~10자와 7행 15~22자를 근거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1행 4~10자는 전면 전반부에 서술한 모년(某年) 5월 사건의 행위 주체를 기재한 구절이다. 이에 종래 많은 연구자가 이 구절을

159 양인호·고태진, 2020, 앞의 글, 229쪽.

160 종래 변태섭(1979) 등 481년 건립설 논자가 좌측면 3행 7~9자의 '辛卯年'을 중시했다.

161 정영호, 1979, 앞의 글, 15쪽; 이기백,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 『사학지』 13, 33~36쪽; 임창순, 1979, 「中原高句麗碑 小考」, 『사학지』 13, 53~54쪽.

162 '永樂七年(397년)' 제액설에 따르면 고구려가 광개토왕대에 충주지역을 점령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충주 탑평리 백제유적이나 황새머리 백제 고분군은 4세기 후반~5세기 전·중반으로 편년된다(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3, 『忠州 塔坪里遺蹟 발굴조사 보고서』; 전혁기·신지향, 2023, 「충주 탑평리 황새머리 백제고분군의 양상과 그 의의」, 『고조선단군학』 51). 고고자료상 백제가 5세기 전반까지 충주지역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큰데, 충주비 건립 시기를 고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대왕상왕공(高麗大王相王公)’이나 ‘고려대왕조왕령(高麗大王祖王令)’으로 판독한 다음, 5월 사건의 행위 주체나 비석 건립 시기를 고찰했다. 그런데 2019년 판독회에서 ‘고려대왕조왕공(高麗大王祖王公)’ 판독안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전 판독안에 근거해 비석 건립 시기를 파악한 견해는 성립하기 힘들어졌는데, 명문 판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고려대왕조왕’은 어법상 ‘고려대왕의 조왕’, ‘고려대왕인 조왕’, ‘고려대왕과 조왕’ 등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163] 다만 ‘고려대왕과 조왕’이라는 해석은 왕이 2명 동시에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164] ‘고려대왕인 조왕’ 해석은 어법상 불가능하지 않지만,[165] 왕호를 2개 병기(倂記)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 구절은 ‘고려대왕의 조왕’으로 해석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166]

전면 전반부에 서술한 모년 5월 사건의 행위 주체가 ‘고려대왕의 조왕(祖王)’이라면, ‘고려대왕’은 이 문장을 기술한 주체 곧 비석 건립 주체라 할 수 있다.

---

163 “고려 태왕이 선조왕님의 뜻을 받들어”(전덕재, 2019, 「충주고구려비를 통해본 5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65, 148쪽), “고려 태왕은 조왕 때부터 공공연하게”(이용현, 2025, 「충주 고구려비의 신고찰-3면비론 제창과 4세기말 고구려의 신라경영」, 『동아시아고대학』 77, 50~51쪽)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고려대왕’과 ‘조왕’ 사이에 ‘받들어’나 ‘부터’에 해당하는 서술어나 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성립하기 힘들다.

164 김현숙, 2002, 「4-6세기경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향방」, 『한국고대사연구』 26;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32쪽.

165 김철준이 이 견해를 피력한 바 있고(단국사학회, 1979, 앞의 책, 117쪽), 손영종, 1985, 앞의 글, 29쪽; 朴眞奭, 2000, 「中原高句麗碑의 建立年代 考証」, 『高句麗渤海研究』 10, 323~325쪽; 이규호, 2025, 「5세기 중엽 고구려의 신라방면 영향력 확대와 충주고구려비」, 『고구려발해연구』 81, 72쪽에서도 같은 견해를 제기했다.

166 김현숙, 2005, 앞의 책, 232~233쪽; 최장열, 2004, 「중원고구려비, 선돌에서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로」,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22~223쪽. 한편, 이 구절 다음의 ‘공(公)’자는 ‘고려대왕 조왕’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라면 ‘널리’나 ‘공평하게’, 인물이라면 ‘고려대왕 조왕’을 수행한 신료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글자가 판독되지 않아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년 5월 사건의 행위 주체와 비석을 건립한 인물이 다른 것이다. 광개토왕릉비에는 '조왕(祖王)'이 광개토왕의 '할아버지 왕'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고려대왕의 조왕'도 '고려대왕의 할아버지 왕'으로 풀이된다. 충주비가 5세기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대왕'은 문자명왕, '고려대왕의 조왕'은 그의 할아버지인 '장수왕'으로 추정된다.[167]

전면 7행 15~22자에는 모년 5월에 이어진 12월 사건의 발생 시점을 명기했다. 통설적 판독안은 '십이월입삼일갑인(十二月卄三日甲寅)'인데, 7행 19자(三)를 '오(五)'자로 읽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 7행 19자를 '칠(七)', 7행 21자(甲)자를 '경(庚)'으로 판독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168] 날짜와 일간지를 전혀 다르게 판독한 것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7행 19자는 '삼(三)'자의 상단 자획은 확인되지 않지만, 중·하단의 '이(二)'획은 명확하다. 종선처럼 보이는 선이 있지만,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크랙의 일부이다. '오(五)'자나 '칠(七)'자의 종선 자획을 인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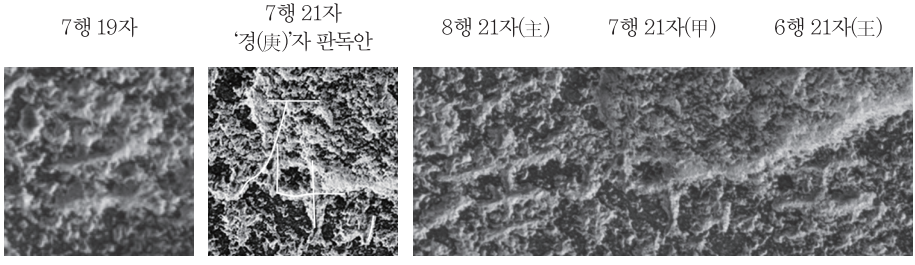


그림 6 충주고구려비 전면(前面) 7행 19자와 21자 판독(동북아역사재단, 2021, 『忠州高句麗碑』,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167 이병도, 1979, 앞의 글, 24쪽; 손영종, 1985, 앞의 글, 29쪽; 김현숙, 2002, 앞의 글, 98~99쪽; 최장열, 2004, 앞의 글, 221~223쪽.

168 고광의, 2020, 앞의 글, 84~89쪽; 이용현, 2020, 앞의 글, 12~13쪽; 홍성화, 2025, 앞의 글, 10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려운 것이다. 특히 '칠(七)'자라면 중단 자획이 하단보다 길어야 하는데, 오히려 '삼(三)'자처럼 하단 자획이 더 길다. 7행 19자는 '삼(三)'자로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7행 21자를 '경(庚)'자로 판독하는 견해는 좌우의 6행 21자(王)나 8행 21자(主)와 비교하면, 글자의 위쪽 폭을 너무 높게 잡았다.[169] 또 '경(庚)'자의 좌측 '삐침(丿)'으로 상정한 획도 이어지는 자획으로 보기 어렵다. 좌우 글자와의 높이 비교나 좌하단 잔획을 보면, 통설처럼 '갑(甲)'자로 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면 7행 15~22자는 '십이월입삼일갑인(十二月卄三日甲寅)'으로 판독된다. 5세기 전후에 "12월 23일이 갑인일"인 연도는 449년(장수왕 37년), 480년(장수왕 68년), 506년(문자명왕 15년)이 있다.[170] 이 가운데 전면의 서술처럼 고구려왕이 신라왕과 복속 의례를 거행할 만한 시점은 449년이 가장 타당하다.[171] 실제 장수왕은 450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내가 대왕과 수호(修好)를 맺어 아주 기뻤다"라고 언급했다.[172]

이처럼 모년 5월과 12월 사건이 449년에 일어났다면, 문자명왕이 492년에 즉위했으므로 전면의 사건 발생과 비석 건립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전면의 '태자 공'과 좌측면의 '대고추가 공'이 주목된다. 양자를 다른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173] 이름이 같고, '고추가'를 칭한 왕족이 다수 확

169 고광의, 2020, 앞의 글, 89쪽에 제시한 도면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임.

170 『二十史朔閏表』; 변태섭, 1979, 앞의 글, 49~50쪽.

171 임창순, 1979, 앞의 글, 57쪽; 김정배,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사학지』 13, 90~92쪽; 정운룡, 1989,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4~8쪽;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0, 「중원고구려비」의 석독과 내용의 의의」, 『사총』 51, 34~36쪽; 임기환, 2000, 「中原高句麗碑를 통해 본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高句麗渤海研究』 10, 428~430쪽.

17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4년(450년), "秋七月 …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 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173 임기환, 2000, 앞의 글, 425~42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되므로[174]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더 높다.[175] '공(共)'은 문자명왕의 아버지인 '고추대가' 조다(助多)로 추정된다.[176]

고구려에서 고추가는 상당한 권위를 갖는 칭호였는데, 조다도 나이가 많아진 이후 '대고추가'를 받았다고 추정된다. 이에 비문 작성 시에 '공'이 젊었을 때는 '태자', 나이가 들었을 때는 '대고추가'로 구별해 표기했다. 좌측면의 "대고추가 공의 군대가 우벌성에 이르렀다"는 사건은 449년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177] 5세기 후반 고구려·신라의 관계 및 좌측면 5행 13~14자의 '신유(辛酉)'라는 간지를 고려하면 481년 신유년에 일어났다고 파악된다.

이상과 같이 충주비의 건립 주체는 문자명왕이지만, 전면과 좌측면의 사건은 장수왕 시기인 449년과 481년 무렵에 일어났다. 문자명왕이 비석을 건립한 경위는 제1면으로 추정되는 후면에 기술했을 것이다. 충주비는 여러 시기에 걸친 사건을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점은 광개토왕릉비, 집안고구려비, 모두루묘지 등도 마찬가지이다. 충주비가 복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특정 단서나 비문의 한 두 구절만으로 건립 시기를 단정하기보다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집안고구려비도 마찬가지이다. 집안비의 서술 내용은 광개토왕릉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에 여러 연구자가 두 비문을 비교해 고구려 건국설화나 수묘제를 고찰했다. 다만 판독 불능자가 많아 건립 시기나 성격을 둘러싸

174 태조왕의 父로 전하는 再思, 미천왕의 父인 咄固, 고국천왕의 동생인 拔奇의 아들 駮位居, 문자명왕의 아버지인 助多 등의 사례가 있다.

175 김창호, 1987, 「中原高句麗碑의 재검토」, 『韓國學報』 47, 141쪽; 박진석, 2000, 앞의 글, 320쪽.

176 김영하·한상준, 1983, 「中原高句麗碑의 建碑 年代」, 『敎育硏究誌』 25(경북대학교 사범대학), 39~41쪽; 김현숙, 2002, 앞의 글, 99~100쪽; 최장열, 2004, 앞의 글, 223~224쪽.

177 김영하·한상준, 1983, 앞의 글, 39~41쪽; 최장열, 2004, 앞의 글, 223~2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논란이 분분하다.[178]

집안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견해는 크게 광개토왕대설과 장수왕대설로 나뉜다. 중국학계는 장수왕대설이 우세한 반면, 한국학계는 광개토왕대설이 우세하다. 다만 광개토왕대설의 경우 중국학계에서는 모두 특정 왕릉의 수묘비('수묘비설'로 약칭)로 파악하는 반면, 한국학계에서는 수묘비설과 특정 왕릉의 수묘비가 아니라는 견해('비수묘비설'로 약칭)로 나뉜다. 장수왕대설은 양국 모두 수묘비설은 없고 비수묘비설뿐이다.

Ⅶ행 9~13자(自戊△定律)에 건립 시기와 연관된 간지가 나오는데, '무자(戊子)'와 '무오(戊午)' 판독안이 대립하는 가운데 '무신(戊申)'으로 판독하기도 한다.[179] 다만 이 간지가 건립 연도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는다. 가장 앞의 '자(自)'자는 기점(起點)을 뜻하므로 비석 건립의 상한 연대를 알려줄 뿐이다.[180]

광개토왕대설과 장수왕대설의 핵심 쟁점은 광개토왕릉비 수묘기사와의 선후 문제이다. 광개토왕대설이 집안비가 능비보다 선행한다고 보는 반면, 장수왕대설은 후행한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두 비문의 용어나 문장을 비교해보면, 집안비에 '연호두(烟戶頭)'처럼 능비보다 앞선 표현이 다수 확인된다.[181] 또 능비의 문장이 집안비보다 세련된 운문식으로 다듬어진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182] 집안비가 먼저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집안비 Ⅷ행 4~8자도 한·중 양국학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178 이와 관련한 상세한 고찰은 여호규, 2016, 앞의 글, 146~154쪽 참조.

179 耿鐵華, 2013a, 「集安高句麗碑考釋」, 『通化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 2013-2, 3~5쪽; 張福有, 2013, 「集安麻線高句麗碑探綜」, 『社會科學戰線』 2013-5, 18~21쪽.

180 徐建新, 2013, 「中國新出'集安高句麗碑'試析」, 『東北史地』 2013-3, 26쪽; 여호규, 2013, 앞의 글, 82쪽.

181 공석구, 2013, 「『집안고구려비』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45.

182 여호규, 2015,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릉비 서두의 단락구성과 서술내용 비교」, 『신라문화』 45, 38~4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다. 중국학자들은 '정묘세간석(丁卯歲刊石)'으로 판독해 장수왕대 건립설의 핵심 논거로 제시했다.[183] 이에 대해 한국학자들은 '호태성왕왈([好太聖]王曰)'로 판독해 광개토왕대 건립설의 주요 논거로 삼고 있다. Ⅶ행 4~5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6~7자는 '간석(刊石)'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Ⅶ-7자는 '왈(曰)' 자임이 거의 명확하다.[184]

Ⅴ행 '국강상태왕(國岡上太王)'도 한·중 양국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장수왕대설을 주장하는 중국학자들은 '국강상태왕'을 광개토왕의 시호로 보는데,[185] 고국원왕의 시호가 '국강상성태왕(국강상왕)'임을 간과한 결과이다. 현전하는 왕호만 보면 Ⅴ행의 '국강상태왕'은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라는 긴 시호를 가진 광개토왕보다 '국강상성태왕(국강상왕)'으로 불린 고국원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비석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묘비설과[186] 비수묘비설로 대별된다.[187] 수묘비

---

183 孫仁杰, 2013, 「集安高句麗碑文識讀」, 『東北史地』 2013-3, 51~53쪽; 張福有, 2013, 앞의 글, 18~21쪽.

184 여호규, 2013, 앞의 글, 70쪽.

185 耿鐵華나 王飛峰은 당시 고구려에서 시호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國岡上太王'을 광개토왕 生時의 尊號(王號)로 보고 광개토왕대 건립설을 주장했다(耿鐵華, 2013b, 「從集安高句麗碑看高句麗是否存在謚法」,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2013-1, 24~25쪽; 王飛峰, 2014, 「關于集安高句麗碑的幾個問題」, 『集安麻線高句麗碑』, 文物出版社, 349~353쪽). 그렇지만 국강상태왕의 '國岡上'이 장지명이라는 점에서 국강상태왕'을 生時의 왕호로 보기는 어렵다. 耿鐵華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그 뒤 '국강상태왕'이 고국원왕인지 광개토왕인지 단정하지 않고 보류했다(耿鐵華, 2015, 「集安高句麗碑的年代與性質」, 『通化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 2015-2, 6~7쪽).

186 특정 王陵에 건립한 墓碑이지만, 守墓定律碑(금경숙, 2013, 「새로 발견된 '지안 고구려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동북아역사문제』 71, 18~22쪽)나 警告碑(朱尖, 2013, 「集安高句麗碑碑文釋讀及其爭議問題」,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 2013-1, 62쪽)의 성격도 지녔다고 보기도 한다.

187 守墓碑와 律令碑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 『한국고대사연구』 72; 홍승우, 2013,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한국고대사연구』 72), 특정 왕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설은 집안비의 "각 선왕의 묘에 비를 건립하여 그 연호두 20명을 새겼다"는 명문이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모든 조선왕을 위해 묘에 비를 건립하고, 그 연호를 새겨 어긋나지 않게 했다"는 능비의 구절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광개토왕이 건립한 수묘비의 하나로 파악한다. 이에 대해 비수묘비설은 특정 왕릉과 관련한 표현이 없고, 수묘제에 관한 일반 법령을 기술했고, 발견 위치가 특정 적석묘와 떨어졌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수묘비설과 비수묘비설은 상반된 논거를 제시했는데, 양자 모두 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수묘비설은 광개토왕이 역대 왕릉에 수묘비를 동시에 건립했다면, 앞면에 동일한 내용, 뒷면에 특정 왕릉과 관련한 사항을 새겼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88] 또한 집안비의 석재는 마선향(麻線鄕) 홍성(紅星) 채석장에서 채석했는데, 각 왕릉 부근에서 석재를 채취해 여러 수묘비를 동시에 건립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묘비설도 비석 발견 위치가 초대형 적석묘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비석이 넘어진 상태에서 발견된 만큼 원위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능역(陵域) 범위도 새롭게 밝힐 필요가 있다. 광개토왕릉을 태왕릉과 장군총 중 어디로 비정하든 능비는 두 고분의 능장(陵墻)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안비의 건립 시기는 광개토왕설이 우세하며, 광개토왕이 건립한 수묘비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광개토왕대설은 집안비의 내용이 능비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유력한 논거로 삼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명확한 논거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장수왕대 건립 논자는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므로 향후 논거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에 건립한 비석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88 김창석, 2015, 「고구려 수묘법의 제정 경위와 포고 방식」, 『동방학지』 169, 8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찬자(撰者)의 인식과 역사적 사실의 관계

금석문과 문자자료는 당대인(當代人)이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사실을 거의 그대로 전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금석문과 문헌사료 사이에 차이가 날 경우, 대부분 금석문을 취신(取信)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능비 찬자는 "왕의 훈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비석을 건립했다"고 했다. 이 경우 찬자가 왕의 훈적을 현창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윤색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 능비는 찬자의 인식과 역사관에 의해 과장·윤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392~395년에 여러 차례 공방전을 벌인 것으로 나오지만, 능비에는 고구려가 영락 6년(396년)에 처음 백제를 공격했다고 서술했다. 능비 찬자가 광개토왕 즉위 초반에 벌어진 백제와의 공방전을 영락 6년조에 통합 기술한 것이다.[189]

영락 5년(395년)조는 패려(거란의 필혈부) 정토와 요동 순수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삼국사기』 광개토왕 즉위년에 거란을 정벌했다고 나오므로 패려 정토는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요동 순수는 실제 사실로 보기 어렵다. 395년에는 후연이 요동평원을 점령하고 있었고, 고구려가 요동 진출을 이룬 것은 400~402년이기 때문이다.[190] 패려 정토와 요동 순수는 중원왕조나 유목국가와 경계를 이루는 가장 서북방 국경지대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능비 찬자가 광개토왕의 무훈 가운데 서북방 국경지대의 활동을 통합해 첫

189 여호규,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현실』 84, 179~200쪽.

190 영락 5년조를 근거로 고구려가 395년에 요동평원을 점령했다고 보기도 하지만(김영하, 1985, 「고구려의 순수제」, 『역사학보』 106, 45쪽; 손영종, 1986, 「광개토왕릉비를 통해본 고구려의 령역」, 『력사과학』 1986-2, 23쪽; 서영수, 1988, 「광개토왕릉비문의 정복기사 재검토(중)」, 『역사학보』 119, 101~104쪽;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212~213쪽), 고구려는 400~402년에 요동 진출을 이루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째 무훈기사인 영락 5년조에 기술한 것으로 추정된다.[191]

영락 9년·10년조에는 신라의 구원 요청과 고구려의 구원이 연이어 일어난 것처럼 기술했지만, 두 사건의 발생 시점이 떨어져 있거나 신라의 구원 요청이 없었을 수도 있다. 능비에는 광개토왕이 399년에 평양으로 순행했다고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408년에 남쪽으로 순행했다고 나오기 때문이다.[192] 능비 찬자가 신라 방면의 군사 활동을 통합 기술하기 위해 양자를 연이어 배치했을 가능성이 크다.[193]

이처럼 능비 찬자가 각 방면의 군사활동을 통합하여 서술했다면, 사건의 발생 연도를 조정하고 내용을 윤색하기도 했을 것이다. 400~402년에 이룩한 요동진출을 광개토왕의 순행으로 둔갑시켜 영락 5년(395년)조에 배치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인위적인 재조정이나 윤색의 기준과 관련해 연대기 무훈기사의 서술항목 구성이 주목된다.

무훈기사의 서술 항목은 크게 8개로 분류된다(표 1 참조). 이 가운데 ⓐ 연도, ⓒ 무훈 총괄, ⓔ 전쟁의 경과와 전과는 공통 항목이며, ⓓ 진군 경로도 8년·9년조 이외에 모두 나온다. 무훈기사의 항목 구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서언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순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각 무훈기사는 완결적인 서술구조를 갖춘 독립 기사이다.

다만 ⓕ 태왕의 은전(恩典) 항목은 왕궁솔형이나 교견형 기사에 관계없이 6년조의 백잔, 8년조의 숙신, 9·10년조의 신라, 20년조의 동부여 등 고구려 영역에 포함되거나 속민이었던 존재를 대상으로 내려지고 있다. 특히 백잔은 6년조까지는 고구려의 속민으로 태왕의 은덕을 베푸는 대상으로 상정되었지만, 태왕과의 맹서를 어기고 왜와 화통한 9년조 이후에는 강력한 응징의 대상으로 변

191 여호규, 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55, 26~38쪽.

192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6 광개토왕 18년 8월조.

193 여호규, 2023c, 「광개토왕릉비 영락 10년조에 나타난 고구려의 군사 활동과 외교 관계」, 『木簡과 文字』 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했다. 태왕의 은전은 능비에 설정된 고구려의 천하질서에 소속될 수 있는 대상에 한정해 내려진 것이다.[194]

이는 능비 찬자가 고구려 중심 천하관에 입각해 무훈기사를 기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능비 찬자가 군사 활동을 중심으로 무훈기사를 작성했지만, 찬술의 주안점은 정복활동이나 영역확장 그 자체보다 고구려 천하질서에 두었다고 파악된다. 광개토왕이 400~402년에 요동방면으로 영역을 크게 확장했음에도 광개토왕의 영역확장을 요동 순수로 둔갑시켜 영락 5년조에 기술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영락 8년조가 주목된다. 영락 8년조의 정토 대상은 '숙신(肅愼)'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실체는 읍루(挹婁)이다. 읍루를 선진(先秦) 시기의 숙신에 처음 비정한 것은 조위(曹魏)이다. 조위는 가장 동쪽의 읍루가 공헌(貢獻)하자, 숙신이 공헌한 것이라며 황제의 덕화(德化)가 천하에 미친 징표라고 내

〈표 1〉 광개토왕릉비 연대기 무훈기사의 서술 항목 구성

기사	親征 여부	ⓐ 연도	ⓑ 출정 배경	ⓒ 무훈 총괄	ⓓ 진군 경로	ⓔ 전쟁(사건) 경과·전과	ⓕ 태왕의 은전	ⓖ 凱旋(旋還)	ⓗ 부가 사항
5년	王躬率	○	○	○	○	○		○	
6년	王躬率	○		○	○	○	○	○	
8년	敎遣	○		○		○	○		
9년	王巡下	○	○	○		○	○		
10년	敎遣	○		○	○	○	○		
14년	王躬率	○	○	○	○	○			
17년	敎遣	○		○	△	○			
20년	王躬率	○	○	○	○	○	○	○	○

194 광개토왕릉비 무훈기사의 서사구조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여호규, 2024b, 「광개토왕릉비 무훈기사의 서술항목과 서사구조」, 『역사문화연구』 92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웠다. 능비 찬자도 조위의 인식을 수용해 읍루를 숙신에 비정한 다음, 만주 일대의 여러 족속이 고구려 천하에 포섭된 것처럼 상정하고, 광개토왕의 덕화가 널리 미쳤다고 과시했다.[195]

이처럼 능비 찬자는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에 입각해 비문을 찬술했다. 신묘년조의 성격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가 신묘년조가 실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196] 신묘년조는 "백잔과 신라는 옛날에 속민(屬民)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조공해왔다"는 전반부, 그리고 "왜가 백잔과 신라를 공격해 신민으로 삼았다"는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391년 이전에 고구려가 백제나 신라를 속민으로 삼은 적이 없으며, 391년을 전후해 왜가 백제나 신라를 공격해 신민으로 삼은 적도 없다. 신묘년조는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허구이다.

그러므로 신묘년조는 능비 찬자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에 입각해 비문을 찬술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허구적 상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묘년조 전반부에 나오는 속민과 조공은 고구려 천하질서를 상정하기 위한 개념 장치이며, 후반부는 고구려와 백잔·신라·왜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백잔과 신라가 속민·조공 관계를 회복해야 할 존재라면, 왜는 타도 대상으로 상정된 것이다.

그런데 신묘년조에 설정된 상황은 영락 9년조에서 크게 변모한다. 백잔이 영락 6년에 항복하며 서약했던 맹서를 어기고 왜와 화통한 것이다. 반면 신라는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백잔은 타도 대상, 신라는 구원해야 할 존재로 변모했다. 영락 9년조가 한반도 중남부의 상황을 새롭게 상정하는 기능

195 여호규, 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 『한국고대사연구』 88, 179~196쪽

196 정인보 이래 많은 남북한 학자가 신묘년조 후반부에 '고구려'나 '광개토왕'을 주어로 補入해 고구려에 유리한 역사적 상황을 서술했다고 해석했는데, 신묘년조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신묘년조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여호규, 2024c, 「광개토왕릉비 신묘년조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207, 49~70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하면서 영락 10년조, 14년조, 17년조에 기술된 무훈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묘년조가 한반도 중남부의 정세에 대한 상황 설정문이라면, 영락 9년조는 이를 바꾼 상황 변경문이라 할 수 있다. 능비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고구려 중심 천하관에 입각해 찬술된 것이다. 능비를 통해 당시 역사적 상황을 규명하려면 먼저 찬자의 인식·역사관에 의해 윤색·과장된 부분부터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능비는 고구려인의 인식이나 천하관이 담긴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197] 또 능비 연구에 현재의 국가나 민족 단위의 역사의식을 투영하지 말고, 고구려인이 작성한 텍스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198] 이와 함께 비문 전체의 서사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능비는 한대(漢代)의 묘비 형식을 빌린 측면과 함께,[199] 과거(서문), 현재(무훈기사), 미래(수묘기사)라는 시간의 흐름까지 의식하여 정치하게 작성한 면모가 확인되기 때문이다.[200] 능비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찬자의 인식과 역사적 사실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찬자의 인식과 역사적 사실의 관계는 특정 인물의 생애를 서술한 묘지(墓誌)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안악3호분의 주인공과 묘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를 잘 보여준다. 안악3호분 서쪽 측실 입구 좌측 벽면에는 동수(冬壽)의 생애와 관력을 기술한 묵서가 있다. 묵서의 내용과 사료를 종합하면 "동수는 333년 모용선비

197 노태돈, 1988, 「5세기 고구려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9.

198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 842; 1996, 「광개토왕비의 立碑目的과 고구려의 수묘역제」,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연구)』 2.

199 정인보,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백낙준박사환력기념 국학논총』, 사상계사; 李成市, 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0; 여호규, 2014b, 「광개토왕릉비의 문장 구성과 서사 구조」, 『영남학』 25.

200 임기환, 2014,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時制 서술법과 역사관」, 『영남학』 2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내분 시에 모용인 측에 가담했다가, 336년 고구려로 망명했고, 357년에 6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파악된다.

이에 안악3호분의 주인공과 동수의 관작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는데, 일개 망명객인 동수를 주인공으로 볼 수 없다는 북한학계의 견해, 동수가 피장자이며 독립왕국이나 독자세력권을 구축했다는 견해, 동수가 고구려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관작 일부를 수여받거나 자칭을 용인받았다는 견해로 나뉜다.[201] 이들 견해는 모두 동수 묘지의 관작이 생시에 기능했다는 전제 아래 제기된 것이다. 동수 묘지가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동수의 관작 가운데 사지절호와 도독제군사호는 고국원왕이 전연으로부터 수여받은 책봉호와 동급이라는 점에서 고구려가 수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생전에 자칭하도록 용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지절호와 도독제군사호는 동수가 죽은 다음, 이상적인 사후세계를 꿈꾸기 위해 자칭했다고 추정된다. 동수가 생전에는 어쩔 수 없이 고구려인으로 살다가, 사후에 중국인으로의 정체성을 되찾아 영생을 누리려 한 것이다.

동수가 출신지를 유주(幽州)에서 평주(平州)가 분리되기 이전인 후한-서진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동수는 중원대륙이 혼란해지기 이전인 후한-서진을 이상세계로 여기며, 사후세계에서는 통일왕조 아래 동방지역을 관장하는 최고위 지방관을 꿈꾼 것이다. 동수 묘지는 5호16국이라는 역동적인 시기에 고구려와 중원대륙을 오가며 살았던 중국계 망명객의 다중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202]

이처럼 당대인이 작성한 금석문과 문자자료도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찬자에 의해 과장·윤색된 경우가 많다. 금석문·문자자료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려면 찬자의 인식과 역사적 사실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01 각 견해의 참고문헌은 여호규, 2024a, 앞의 글, 312~316쪽 참조.

202 여호규, 2009,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 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찬자의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면 당대인의 역사관이나 대외인식을 새롭게 규명할 단서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출토 현황과 연구 과제를 검토했다.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출토 현황을 조선 후기~1945년, 1945년~199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 이후 등 3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문, 석각 명문, 불상 명문, 금속기 명문, 고분 묵서, 묘지명, 기와·토기·벽돌 명문, 인장 등 다양한 금석문과 문자자료가 출토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많이 훼손되었다. 다만 고분 묵서나 묘지명은 보존 환경이 좋아 상대적으로 덜 훼손되었다. 서사재료가 금속이나 흙인 경우에도 크랙과 자획을 구별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에 비해 석재로 만든 비문은 침식·풍화 작용의 영향으로 박락·마멸이 많이 진행되었고, 크랙과 자획을 구별하기도 어렵다. 종전에는 개별 글자 단위로 판독했기 때문에 박락·마멸 양상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탁본이나 비면을 면밀하게 관찰해 크랙과 자획을 구별하며 판독할 필요가 있다.

금석문과 문자자료 연구에서는 작성 시기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작성 시기를 모르면 금석문과 문자자료 제작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술 내용이 방대한 비문의 경우, 건립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역사상 자체가 달라진다. 비문의 건립 시기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금석문과 문자자료는 당대인이 작성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거의 그대로 전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광개토왕릉비 찬자는 왕의 훈적을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해 비석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실제 광개토왕릉비에는 고구려 중심 천하관에 의해 과장·윤색된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 향후 금석문 연구를 더욱 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시키기 위해서는 찬자의 인식과 역사적 사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58, 『안악 제3호분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고광의, 2023, 『고구려의 문자문화』,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5, 『중국소재 고구려관련 금석문 자료집』.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3, 『忠州 塔坪里遺蹟 발굴조사 보고서』.

권덕영, 2021a,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자료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_____, 2021b, 『재당 한인 묘지명 연구』(역주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권순식, 2009, 『풍화작용과 지형』, 한국학술정보.

김병모 외, 2000, 『이성산성-제8차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김일성종합대학,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김재원, 1948, 『壺杅塚과 銀鈴塚』,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第1冊.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동북아역사재단, 2011,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1, 『충주고구려비』, 동북아역사재단.

박시형, 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학출판사.

박창희 역주, 2015, 『역주 용비어천가(상)』 한국중앙연구원 출판부.

서길수, 2007, 『한말 유럽학자의 고구려 연구: 모리스 꾸랑, 에두아르 샤반느』, 여유당.

양시은 외, 2009, 『용마산 제2보루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윤재석 편, 2022, 『한국목간총람』, 주류성.

이난영, 1976, 『韓國金石文追補』, 亞細亞文化社.

이홍직, 1971, 『韓國古代史의 硏究』, 신구문화사.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문화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허흥식, 1984, 『韓國金石全文』(古代), 亞細亞文化社.
황수영, 1989, 『한국의 불상』, 문예출판사.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國內城』, 文物出版社.
_____, 2004b,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_____, 2004c,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拜根興, 2012, 『唐代高麗百濟移民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王健群, 1984, 『好太王碑硏究』, 吉林人民出版社.
集安市博物館 편저,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部.

葛城末治, 1935, 『朝鮮金石攷』, 屋號書店.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_____, 2009, 『廣開土王碑墨本の硏究』, 吉川弘文館.
白崎昭一郎, 1993, 『廣開土王碑文の硏究』, 吉川弘文館.
福宿孝夫, 1991, 『日本古器銘と好太王碑文』, 中國書店.
濱田耕作, 1939, 『考古學硏究』, 座右寶刊行會.
徐建新, 2006, 『好太王碑拓本の硏究』, 東京堂出版.
水谷悌二郎, 1977, 『好太王碑考』, 開明書店.
李進熙, 1972, 『廣開土王陵碑の硏究』, 吉川弘文館.
朝鮮總督府, 1919, 『朝鮮金石總覽』.
_____, 1922, 『朝鮮金石總覽(補遺)』, 補遺 서울.
池內宏, 1938, 『通溝』(上), 日滿文化協會.
池內宏·梅原末治, 1940, 『通溝』(下), 日滿文化協會.

논문

강진원,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판독과 연구현황」, 『목간과문자』 11.
강현숙, 2015, 「高句麗 年號 開始에 대한 考古學的 論意」, 『한국고대사연구』 7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1958, 「평안남도 순천군 룡봉리 료동성총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제1집(대동강류역고분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고광의, 2015, 「廣開土太王碑의 제1면 9행 13자 釋文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7.
_____, 2020,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 -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硏究』 98
공석구, 1989, 「安岳3號墳의 墨書銘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121.
_____, 2003,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32.
_____, 2013, 「『집안고구려비』의 발견과 내용에 대한 고찰」, 『고구려발해연구』 45.
곽승훈 외 역주,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 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 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소화.
금경숙, 2013, 「새로 발견된 '지안고구려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동북아역사문제』 71.
기경량, 2016, 「집안 지역 출토 고구려 권운문 와당 명문의 판독과 유형」, 『高句麗渤海硏究』 56.
_____, 2017, 「평양성 출토 고구려 刻字城石의 판독 및 위치 재검토」, 『사학연구』 127.
_____, 2018, 「고구려 평양 장안성 출토 각자성석(刻字城石)의 축성 구간 검증」, 『역사와현실』 110.
_____, 2020, 「광개토왕릉비문의 신판독과 해석」, 『고구려발해연구』 68.
_____, 2022, 「광개토왕비 辛卯年條 '來渡海破' 판독의 문제와 그 함의」, 『고구려발해연구』 73.
김례환·류택규, 1958, 「롱오리 산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석각문」, 『문화유산』 1958-6.
김수진, 2017, 「唐京 高句麗 遺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 『한국고대사연구』 72.
김영관, 2015, 「웅진시대 백제의 한강 영유권 연구」, 『백제문화』 52.
_____, 2018, 「高句麗 遺民 高賓 墓誌銘에 대한 연구」, 『韓國古代史探究』 28.
김영하, 1985, 「고구려의 순수제」, 『역사학보』 106.
김영하·한상준, 1983, 「中原高句麗碑의 建碑 年代」, 『敎育硏究誌』 25(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용남, 1979, 「새로 알려진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하여」, 『력사과학』 1979-3.
김우, 1962, 「평양시 평천리에서 발견된 고구려 금동 유물들」, 『문화유산』 1962-6.
김원룡, 1964, 「延嘉七年銘金銅如來像 銘文」, 『考古美術』 5-9; 1987 『韓國美術史研究』 一志社.
김정배,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사학지』 13.
김창석, 2015, 「고구려 수묘법의 제정 경위와 포고 방식-신발견 집안고구려비의 분석」, 『동방학지』 169.
김창호, 1987, 「中原高句麗碑의 재검토」, 『韓國學報』 47.
김현숙, 2002, 「4-6세기경 소백산맥 이동지역의 영역향방」, 『한국고대사연구』 26.
_____, 2008, 「고구려의 한강 유역 영유와 지배」, 『백제연구』 50.
나유정, 2024, 「고구려의 대민편제와 수취체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풍현, 2000, 「忠州高句麗碑文의 解讀과 吏讀的 性格」, 『高句麗研究』 10.
노태돈, 1988, 「5세기 고구려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9.
_____, 1992a, 「광개토왕릉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_____, 1992b, 「牟頭婁墓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한국고대사회연구소.
_____, 1992c, 「신포시 절골터 금동판 명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단국대학교 사학과, 1979, 『사학지』 13(중원고구려비 특집호).
도유호, 1949, 「안악에서 발견된 고구려 고분」, 『문화유물』 창간호(『文物參考資料』 1952-1에 譯載).
_____, 1964, 「평천리에서 나온 고구려 부처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4-3.
리준걸, 1981, 「덕화리2호무덤의 별그림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1-1.
바이건싱(拜根興), 2008, 「고구려 발해 유민 관련 유적 유물」, 『중국학계의 북방 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박대재, 2019, 「【자료소개】 중국 요령성 燈塔市 白巖城 출토 高句麗碑片」, 『韓國古代史研究』 94.
박선희, 2006, 「銀盒杅 명문의 연대 재검토에 따른 서봉총 금관의 주체 해명」, 『백산학보』 74.
박성미·류경석·최희수·이찬희, 2011, 「고창 선운사 도솔암마애불의 암석학적 특성과 손상도 진단」, 『보존과학회지』 2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박성미·이명성·최석원·이찬희, 2008,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의 재질특성과 풍화훼손도 평가」, 『보존과학회지』 24.
박중균, 2022 「몽촌토성 집수지 출토 목간」, 『신출토 문자자료의 향연』(한국목간학회 제37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朴眞奭, 2000, 「中原高句麗碑의 建立年代 考証」, 『高句麗渤海研究』 10.
박진욱·김종혁·주영헌·장상렬·정찬영, 1981, 『덕흥리고구려벽화무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박찬규, 2005, 「집안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고구려 문자자료」, 『고구려연구』 19.
백승옥, 2005, 「'신묘년명 청동방울'과 태왕릉의 주인공」, 『역사와경계』 56.
_____, 2014,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혜정본의 외형적 특징과 복원」, 『혜정 소장본 광개토태왕비 원석탁본』.
변태섭, 1979,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사학지』 13.
서영대, 1992a, 「安岳3號墳墨書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_____, 1992b, 「德興里古墳墨書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_____, 1992c, 「中原高句麗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_____, 1992d, 「제3장 석각」,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_____, 1992e, 「제3장 불상명문」,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손영종, 1966, 「금석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개의 연호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6-4.
_____, 1985,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5-2.
_____, 1986, 「광개토왕릉비를 통해본 고구려의 령역」, 『력사과학』 1986-2.
송기호, 1998, 「고구려 유민 高玄 墓誌銘」, 『서울대학교박물관연보』 10.
_____, 2002, 「고대의 문자생활」, 『강좌 한국고대사강좌』 제5권.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啓方), 2000, 「중원고구려비」의 석독과 내용의 의의」, 『사총』 51.
심광주, 2009, 「남한지역 고구려유적 출토 명문자료에 대한 검토」, 『木簡과 文字』 4.
양광석, 1988, 「高句麗의 年號」, 『溪村閔丙河敎授停年紀念史學論叢』.
양은경, 2005, 「景四年辛卯銘 금동삼존불의 새로운 해석과 中國 불상과의 관계」, 『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와고대』 23.
양인호 · 고태진, 2020, 「충주고구려비 공동판독안」, 『충주고구려비』, 동북아역사재단.
양재혁, 2018, 「동결-융해작용에 따른 암석풍화의 특성 -유문암, 현무암, 응회암을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25-1.
여호규, 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_____, 2009, 「4세기 고구려의 낙랑 · 대방 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53.
_____, 2010, 「1990년대 이후 고구려 문자자료의 출토현황과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_____, 2011,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현실』 84.
_____,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70.
_____, 2014a, 「고구려 국내도성의 구성요소와 수공업 생산체계」, 『역사문화연구』 52.
_____, 2014b, 「광개토왕릉비의 문장 구성과 서사 구조」, 『영남학』 25.
_____, 2015,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릉비 서두의 단락구성과 서술내용 비교」, 『신라문화』 45.
_____, 2016, 「한중일 3국 학계의 '집안고구려비' 연구동향과 과제」, 『동방학지』 177.
_____, 2017,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 『한국고대사연구』 88.
_____, 2019, 「북한의 광개토대왕비 연구와 장명선 탁본」, 『張明善 탁출 광개토대왕릉비 탁본』,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20,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한국고대사연구』 98.
_____, 2023a, 「광개토왕릉비 제1~2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高句麗渤海研究』 75.
_____, 2023b, 「광개토왕릉비 제3~4면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한국문화』 101.
_____, 2023c, 「광개토왕릉비 영락10년조에 나타난 고구려의 군사 활동과 외교관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木簡과 文字』 30.
_____, 2024a, 「7장 금석문과 문자자료」, 『고구려통사-총론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4b, 「광개토왕릉비 무훈기사의 서술항목과 서사구조」, 『역사문화연구』 92.
_____, 2024c, 「광개토왕릉비 신묘년조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 207.
吳慶錫·草稿, 1858, 「三韓金石錄」, 『三韓金石錄(外)』(1981, 亞細亞文化社 복간본).
오택현, 2022, 「평양 정릉사지 문자자료 검토와 과제」, 『중앙사론』 57.
윤무병, 1964, 「延嘉七年銘金銅如來像의 銘文에 대하여」, 『考古美術』 5-10.
윤용구, 2003, 「중국 출토의 한국고대 유민자료 몇 가지」, 『한국고대사연구』 32.
이규호, 2025, 「5세기 중엽 고구려의 신라방면 영향력 확대와 충주고구려비」, 『고구려발해연구』 81.
이기백, 1979,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 『사학지』 13.
이병도,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사학지』 13.
李成市, 1996, 「광개토왕비의 立碑目的과 고구려의 수묘역제」, 『고구려연구(현 고구려발해연구)』 2.
_____, 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0.
이승호, 2012,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 印과 高句麗의 對西晉 관계」, 『韓國古代史硏究』 67.
_____, 2020, 「고구려의 칭원법과 연호」, 『사학연구』 138.
이용현, 2020b, 「忠州 高句麗碑 '忌'·'共'의 재해석」, 『韓國史學報』 80.
이재환, 2021, 「'영락7년' 판독에 기반한 충주고구려비의 내용 검토와 충주지역의 접경성」, 『목간과문자』 27.
이형구·박노희, 1996, 『광개토왕릉비 신연구(제2판)』, 동화출판공사.
이호영, 1979, 「中原高句麗碑 題額의 新讀 -長壽王代의 年號 推論-」, 『사학지』 13.
이홍직, 1954, 「延壽在銘新羅銀盒杆에 대한 一·二의 考證」, 『崔鉉培博士還甲紀念論文集』.
임기환, 2000, 「中原高句麗碑를 통해 본 高句麗와 新羅의 關係」, 『高句麗渤海硏究』 10.
_____, 2014,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時制 서술법과 역사관」, 『영남학』 26.
임세권, 1997, 「廣開土王碑의 硏究-청명본 원석탁본의 검토-」, 『國史館論叢』 74.
임창순, 1979, 「中原高句麗碑 小考」, 『사학지』 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준식, 2020,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 회고」, 『충주고구려비』, 동북아역사재단.
장창은, 2006, 「中原高句麗碑의 연구동향과 주요 쟁점」, 『歷史學報』 189.
_____, 2015, 「瑞鳳塚 출토 銀盒의 성격 재검토」, 『한국학논총』 43.
전덕재, 2019, 「충주고구려비를 통해본 5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65.
전주농, 1961, 「최근에 발견된 고구려 벽화무덤」, 『문화유산』 1961-1.
전혁기·신지향, 2023, 「충주 탑평리 황새머리 백제고분군의 양상과 그 의의」, 『고조선단군학』 51.
정영호, 1979, 「中原高句麗碑의 發見調査와 硏究展望」, 『사학지』 13.
정운룡, 1989,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_____, 1998,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의 年號」, 『한국사학보』 5.
정인보,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백낙준박사환력기념 국학논총』, 사상계사.
조범환, 2023, 「재당 고구려 유민 환관 高延福 묘지명의 새로운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4)』.
조우연, 2017, 「"太王敎造": 4~5세기 고구려 銘文 器物 재검토」, 『고구려발해연구』 57.
_____, 2019, 「중국의 광개토왕비 탁본 제작 및 연구」, 『한국사학보』 77.
주보돈, 2001, 「신라에서의 한문자 정착과정과 불교수용」, 『영남학』 창간호.
_____, 2016, 「광개토왕비와 장수왕」, 『목간과문자』 16.
주수완, 2011, 「삼국시대 年號銘 금동불상의 제작연대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보』 44.
최성은, 2017, 「중국 남북조시대 불교조각을 통해 본 고구려 延嘉7년명 금동여래입상」, 『선사와 고대』 51.
최장열, 2004, 「중원고구려비, 선돌에서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로」,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최희림, 1967,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하시모토 시게루(橋本 繁), 2022, 「충주 고구려비의 새 판독과 연대」, 『韓國古代史探究』 42.
한인호, 1989, 「평정리벽화무덤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198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홍성화, 2025,「충주 고구려비를 통한 고구려의 진출로 고찰-廣開土王碑」,『日本書紀』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동아시아고대학』77.
홍승우, 2013,「'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한국고대사연구』72.
황수영, 1963,「高句麗延嘉七年銘金銅如來立像」,『美術資料』8.
_____, 1964,「고구려 금동불상의 新例二座」,『이상백박사회갑기념논총』.

耿鐵華, 2006,「集安新出土文字瓦當及釋讀」,『北方文物』2006-4.
_____, 2013a,「集安高句麗碑考釋」,『通化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2013-2.
_____, 2013b,「從集安高句麗碑看高句麗是否存在謚法」,『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通化師範學院 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中心) 2013-1.
_____, 2015,「集安高句麗碑的年代與性質」,『通化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2015-2.
耿鐵華·董峰, 2013,「新發現的集安高句麗碑初步研究」,『社會科學戰線』2013-5.
顧燮光, 1918,「好太王卑」,『夢碧簃石言』(『奉天通志』 재수록).
吉林省文物工作隊, 1982,「集安長川一號壁畵墓」,『東北考古與歷史』.
_____, 1983,「集安長川二號封土墓發掘紀要」,『考古與文物』1983-1.
羅振玉, 1908,「好太王陵碑」,『俑廬日札』(『遼東文獻徵略』;『輯安縣志』;『奉天通志』 재수록).
_____, 1909,「高麗好太王碑釋文」『神州國光集』第9集(王健群, 1984,『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재수록).
_____, 1982,「唐代海東藩閥誌存」,『石刻史料新編』第2集 第15冊, 新文豊出版公司.
勞幹, 1944,「跋高句麗大兄冉牟墓誌兼論高句麗都城之位置」,『歷史言語研究集刊』11.
談國桓, 1909~1925,「手札」,『遼東文獻徵略』(『輯安縣志』;『奉天通志』 재수록).
_____, 1929,「好太王碑拓本跋語」,『遼寧省博物館藏拓本附跋』(王健群, 1984 재수록).
武家昌, 1994,「桓仁米倉溝將軍墓壁畵初探」,『遼海文物學刊』1994-2.
拜根興, 2022,「唐故余杭郡太夫人泉氏墓志」,『文博』202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徐建新, 2013,「中國新出'集安高句麗碑'試析」,『東北史地』2013-3.
蘇鵬力, 2010,「燈塔市燕州城城址」,『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孫仁杰, 2013,「集安高句麗碑文識讀」,『東北史地』2013-3.
楊守敬, 1909,「高句麗廣開土好太王談德碑跋」,『高麗好太王(1)』.
葉昌熾, 1909,「奉天一則」,『語石』, 振新書社(『遼東文獻徵略』;『奉天通志』 재수록).
王連龍·黃志明, 2022,「唐代高句麗移民『李仁晦墓志』考論」,『文物季刊』2022-2.
王飛峰, 2014,「關于集安高句麗碑的幾個問題」,『集安麻線高句麗碑』, 文物出版社.
劉喜海 輯錄, 劉承幹 重校, 1922,「高句驪古城石刻」,『海東金石苑』(권1) 希古樓(1976, 亞細亞文化社 복간본).
李殿福, 1983,「集安洞溝三座壁畵墓」,『考古』1983-4.
_____, 1984,「集安卷雲銘文瓦當考辨」,『社會科學戰線』1984-4.
林至德·耿鐵華, 1985,「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考古』1985-7.
張福有, 2013,「集安麻線高句麗碑探綜」,『社會科學戰線』2013-5.
朱尖, 2013,「集安高句麗碑碑文釋讀及其爭議問題」,『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2013-1.

關野貞, 1914,「滿洲國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一·二)」,『考古學雜誌』5-3·4
今西龍, 1915,「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訂正增補 大日本時代史(日本古代史 下)』, 早稻田大學出版部.
武田幸男, 1981,「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 합집.
濱田耕作, 1932,「新羅の寶冠」,『寶雲』第2冊.
小場恒吉, 1937,「高句麗古墳の調查」,『昭和11年度古蹟調查報告』, 朝鮮古蹟研究會
水谷悌二郎, 1959,「好太王碑考」,『書品』100號.
亞細亞協會 편, 1889,「高句麗古碑文」,『會餘錄』5.
李成市, 1994,「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思想』842.
田中俊明, 1981,「高句麗の金石文」,『朝鮮史研究會論文集』18.
_____, 1985,「高句麗長安城城壁石刻の基礎的研究」,『史林』68-4.
井上直樹, 2007,「集安出土文字資料からみた高句麗の支配體制について一考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朝鮮學報』203.
佐伯有清, 1972a,「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再檢討のための序章」,『日本歷史』287.
中塚明, 1971,「近代日本史學史における朝鮮問題-とくに『廣開土王陵碑』をめぐって」,『思想』561.
淺見倫太郎, 1914,「大洞江岸發見の高句麗古城石刻」,『朝鮮及滿洲』83.
黑板勝美, 1925,「朝鮮三國時代に於ける唯一の金銅佛」,『考古學雜誌』15-6.

Chavannes, Edouard, 1908, "Rapport sur les Monuments de L'ancien Royaume Coreen de Kao-Keou-Li", *T'oung Pao*(通報), Ⅱ-Ⅸ(서길수 번역, 2007b,「한국의 고대 왕국 고구려 유적에 관한 보고서」,『한말 유럽학자의 고구려 연구: 모리스 꾸랑, 에두아르 샤반드』, 여유당).
Courant, M. Maurice, 1898, "Stele Chinoise du Royaume de KoKouRye", *Journal Asiatique*(서길수 번역, 2007a,「고구려 왕국의 한문 비석」,『한말 유럽학자의 고구려 연구: 모리스 꾸랑, 에두아르 샤반드』, 여유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고구려 금석문·문자자료의 출토 현황과 연구 과제

여호규

이 글은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출토현황을 살펴보고, 연구과제를 검토한 것이다. 먼저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출토 현황을 조선 후기~1945년, 1945년~1990년대 중반, 1990년대 후반 이후 등 3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문, 석각 명문, 불상 명문, 금속기 명문, 고분 묵서, 묘지명, 기와·토기·벽돌 명문, 인장 등 다양한 금석문과 문자자료가 출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고구려 금석문과 문자자료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많이 훼손되었다. 다만 고분 묵서나 묘지명은 보존 환경이 좋아 많이 훼손되지 않았다. 서사재료가 금속, 토기, 기와, 벽돌인 경우에는 자획과 크랙을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에 비해 석재로 만든 비문은 자획과 크랙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 앞으로 비문 판독에서는 비면의 박락과 마멸 상황, 특히 글자 주변의 크랙 양상과 진행 방향에 유의해 자획과 크랙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금석문과 문자자료의 작성 시기 파악도 중요하다. 작성 시기를 모르면 금석문과 문자자료 제작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술 내용이 방대한 비문의 경우, 건립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 역사상 자체가 달라진다. 비문의 건립 시기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금석문과 문자자료는 당대인이 작성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광개토왕릉비 찬자는 광개토왕의 훈적을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해 비석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실제 광개토왕릉비에는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에 의해 과장되거나 윤색된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향후 금석문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찬자의 인식과 역사적 사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구려, 금석문, 문자자료, 명문 판독, 건립 시기, 찬자의 인식, 역사적 사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Excavation Status and Research Tasks of Goguryeo Inscriptions and Written Materials

Yeo Hogyu

This paper examines the excavation status of Goguryeo inscriptions and written materials and reviews future research tasks. First, the excavation status of Goguryeo inscriptions and textual materials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the late Joseon Dynasty to 1945, 1945 to the mid-1990s, and the late 1990s onwards. The results reveal that various inscriptions and written materials have been unearthed, including stele inscriptions, stone carvings, Buddhist statue inscriptions, metal vessel inscriptions, tomb inscriptions, tombstone inscriptions, inscriptions on roof tiles, pottery, and bricks, as well as seals.

Goguryeo inscriptions and written materials have suffered significant damage over the long passage of time. However, tomb inscriptions and epitaphs have been well-preserved due to favor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When the inscription medium is metal, pottery, roof tiles, or bricks, distinguishing between characters and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racks is generally not very difficult. In contrast, distinguishing between characters and cracks on stone steles is extremely difficult. In future stele deciphermen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engraved characters and cracks by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ditions of flaking and abrasion on the stele surface, particularly the appearance and direction of cracks around the characters.

In the study of inscriptions and written materials, determining the date of creation is also crucial. Without knowing the date of creation, it is impossible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inscription or written material's production, or the nature of its narrative content. Particularly for inscriptions with extensive narratives,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ontext changes depending on when the erection date is considered to be. Therefore, the erection date of an inscription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various circumstances.

Inscriptions and written materials are often thought to convey historical facts as they were written by contemporaries. However, the author of the King Gwanggaeto Stele explicitly stated that the monument was erected to widely disseminate King Gwanggaeto's military exploits to future generations. Indeed, the Gwanggaeto Stele contains numerous sections that appear exaggerated or embellished by the Goguryeo-centric worldview. Therefore, to deepen future epigraphic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xamine more clos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s perception and historical facts.

Keywords: Goguryeo, Inscriptions, Written Materials, Characters Decipherment, Date of Creation, The Author's Perception, Historical Fact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07

고구려·발해 T자 단병 등자의 특징과 사용 시기 문제

정석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I. 머리말
II. T자 단병 등자 발견 현황
III. T자 단병 등자의 특징과 편년 문제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고구려(기원전 37~서기 668) 등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병부(柄部)의 형태가 |자형, 中자형, T자형인 것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발해(698~926)의 것으로 보고된 등자들에도 똑같이 |자형, 中자형, T자형 병부가 확인된다.

여기에서 병부 |자형 등자란 기하학적인 형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병부의 형태가 |자 모양으로 곧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현수공(懸垂孔)이 있는 병두(柄頭)와 목(頸)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예로는 칠성산 1096호분[1] 출토품을 들 수 있다(그림 1-1). 병부 中자형은 병부의 윗부분 네모꼴 병두(柄頭) 위에 송곳 모양의 뾰족한 돌기가 있는 형식이다. 병부가 아래에서 위로 목, 현수공이 있는 네모꼴 병두, 뾰족한 돌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로는 오녀산성 출토품을 들 수 있다(그림 1-2). 병부 T자형 등자는 병부가 목과 현수공이 있는 네모꼴의 병두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고구려와 발해 것 모두 장병(長柄)과 단병(短柄)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국내성 노도덕회 유적 출토품을(그림 1-3), 후자의 예로는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4구역 3호 무덤 출토품을(그림 1-4) 들 수 있다.

---

* 투고: 2025년 10월 14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1 칠성산 1096호분은 처음 칠성산 96호분으로 보고되었다(集安縣文物保管所, 1979, 「集安縣丙座高句麗積石墓的清理」, 『考古』 1). 그런데 『洞溝古墓群 1997年 調查側繪報告』에는 칠성산 0096호분과 1096호분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2002, 『洞溝古墓群 1997年 調查側繪報告』, 科學出版社, 126쪽과 138쪽 텍스트, 252쪽과 259쪽 도면). 이후 국내 학계에서는 '칠성산 1096호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339쪽). 다만 중국 연구자들은 여전히 '칠성산 96호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田立坤, 2013, 「古镫新考」, 『文物』 11, 5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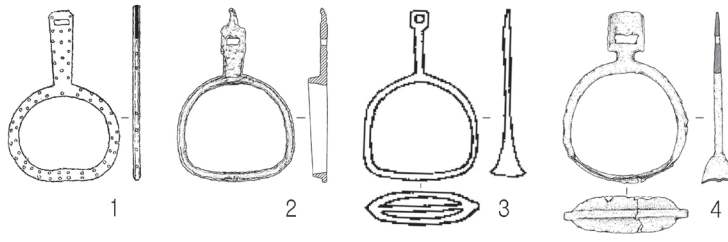


그림 1 고구려·발해 시기 등자 병부 형태의 예: 1–칠성산 1096호분(集安縣文物保管所, 1979), 2–오녀산성(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3–국내성 노도덕회유적(董峰, 1993), 4–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4구역 3호 무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고구려 등자는 오랫동안 특정 형식의 등자만 연구 대상이었는데, 바로 T자형 장병 등자이다. 이 형식의 등자는 등자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2] 혹은 전연,[3] 가야·신라,[4] 마한·백제[5]의 동일 형식 등자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고구려와 발해 병부 中자형 등자 연구 성과도 발표된 것이 있으며,[6] 또한 고구려 등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글이 러시아어 학술지에 게재된 것

2 강인욱, 2006, 「고구려 등자의 발생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북방사논총』 12; 최병현, 2014, 「초기 등자의 발전」, 『중앙고고연구』 14; 최병현, 2021, 「한국 고대의 單鐙子 자료와 그 의의」, 『고고학』 20-1; 김일규, 2021, 「한·중 마구 비교를 통한 삼국시대 고고학 편년 조율」, 『고고광장』 29.

3 장윤정, 2014, 「馬具로 본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방의 교류」, 『문물연구』 25; 양시은, 2022, 「고분과 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문화교류 양상」, 『고고학』 제21권 제2호; 전기쁨, 2025, 「고구려 마구의 변천과 영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최병현, 1983, 「古新羅 鐙子考」, 『崇實史學』 1; 신경철, 1985, 「古式鐙子考」, 『釜大史學』 9; 신경철, 1994, 「加耶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 18; 김두철, 2000, 「한국 고대 마구의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병현, 2014, 앞의 글.

5 권도희, 2024, 『馬韓·百濟 地域 馬具 硏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있어 주목된다.[7]

이 글에서는 고구려와 발해의 병부 T자형 단병 등자에 특히 주목해보고자 한다. T자 단병 등자는 돌궐 문화권에서 크게 유행하여 '돌궐식 등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 형식의 등자는 알타이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아사나 돌궐이 남긴 것으로 여겨지는 서기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크즐-타쉬 단계부터 키르기스 강성시대에 해당하는 9세기 후반~10세기 전반 쿠라이-야코누르 단계까지 사용되었다.[8] 중국에서는 이 형식의 실물 등자가 고원(固原) 북주(北周: 557~581) 이현부부묘(李賢夫婦墓)[9]에서 처음 확인되며, 당나라(618~907)[10]와 요나라(916~1125)[11]까지의 시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고구려와 발해의 T자형 단병 등자는 고구려 시기의 것인지 혹은 발해 시기의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T자 단병 등자가 출토된 석자대산성 주변 고분군을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 만기[12] 혹은 고구려 중만기[13]에 조성된 것으로 보았지만, 강현숙은 고분의 세부 특징과 출토 유물

---

6 스토야킨 막심(Stoyakin Maksim), 2024, 「"오녀산성"식 등자에 대한 검토」, 『고구려·발해·북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Ⅴ(제5회 전국고구려발해학대회)』, 고구려발해학회, 37~39쪽.

7 М. А. Стоякин, 2024, "Стремена Когурё на север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Маньчжурии: тупик или эволюция?", *Народы и религии Евразии*. Т. 29, No 3.

8 정석배, 2025a, 「알타이지역 등자의 특징과 기원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82.

9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寧夏固原博物館, 1985, 「寧夏固原北周李賢夫婦墓發掘簡報」, 『文物』 11, 16~17쪽; 齊東方, 1993, 「中國早期馬鐙的有關問題」, 『文物』 4, 8쪽; 정석배, 2025b,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등자의 특징과 변천에 대해」, 『호남고고학보』 81, 124쪽 그림 15 참조.

10 王鐵英, 2002, 「馬鐙的起源」, 『歐亞學刊』 2; 馬卉, 2020, 「唐代馬鐙」, 『文史知識』 4.

11 김영길, 2022, 「요금대(遼金代) 등자에 대한 단편적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78; 楊丫, 2022, 「遼墓出土馬鐙研究」, 『華夏考古』 4.

12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2004年度 瀋陽石臺子山城高句麗墓葬發掘簡報」, 『北方文物』 2, 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석을 통해 고구려 고지의 발해 고분으로 판단하였다.[14] 하지만 중국 학계[15]는 물론이고 한국 학계[16]도 여전히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출토 등자를 고구려 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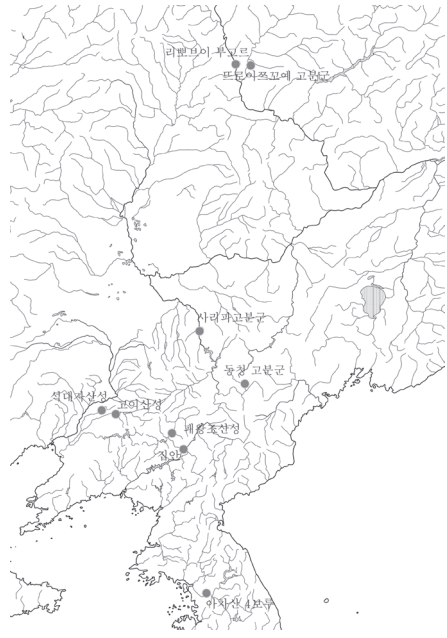


그림 2 고구려·발해 T자 단병 등자 발견 위치(필자 작성)

필자가 볼 때 고구려 것으로 소개된 몇몇 다른 T자 단병 등자도 발해 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구려·발해 T자 단병 등자가 고구려 시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발해 시기에 속하는지 편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분석 대상 T자 단병 등자에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고구려 유적과 발해유적에서 발견된 것 외에도 트로이츠코예 문화에 속하는 아무르강 북쪽의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및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출토품도 포함하였다. 트로이츠코예 문화를 발해가 건국된 다음 발해 속말말갈인들이 이주하여

1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石臺子山城(上)』, 文物出版社, 349, 367쪽.

14 강현숙, 2009, 「고구려 고지의 발해 고분-중국 요녕지방 석실분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72, 182쪽.

15 武松, 2019, 「渤海文化來源研究一以考古資料爲中心」,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100쪽.

16 중앙문화재연구원 묶음,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3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남겼다는 의견과,[17] 말갈 사모부가 남겼다는 의견이 있고,[18] 또 발해가 9세기 초 이후 사모부를 포함하는 흑수제부를 복속시킨 다음에는 이 지역이 발해의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19]

Ⅱ. T자 단병 등자 발견 현황

지역적으로 압록강 유역, 혼하 유역, 제2 송화강 유역, 한강 유역, 제야-아무르강 유역이 구분된다(그림 2).

1. 압록강 유역

집안 패왕조산성(霸王朝山城). 길림성 집안시 재원진(財源鎭) 패왕촌(霸王村) 동북쪽 약 4.3km 거리의 높은 산에 위치한다. 이곳은 압록강 지류인 혼강 중류 지역에 해당한다. 평면이 부정 사다리꼴이며, 둘레 길이 1,260m이다(그림 3-1).[20] 2015~2018년에 발굴했는데, 2015~2016년 발굴보고서에는 등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21] 따라서 등자는 2017~2018년 발굴 시에 출토된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정식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산성 출토 철제 등자 2점의 사진이 학술 세미나 발표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1점은 中자형 병부 등자이고(그림 3-2), 다른 1점은 T자 단병 등자이다(그림 3-3). 등자가 발견된 유구 및

17 С. П. Нестеров, 1998, *Народы Приамурь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Новосибирск, pp. 44, 67~70, 95.

18 馮恩學, 2006, 「黑水靺鞨思慕部探索」, 『中國邊疆史地研究』 2, 84~85쪽.

19 정석배, 2024, 『발해 강역 연구』, 예지안, 342~346쪽.

20 方起東, 1962, 「吉林解安高句麗霸王朝山城」, 『考古』 11.

2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馆, 2021, 「吉林集安市霸王朝山城2015~2016年發掘簡報」, 『考古』 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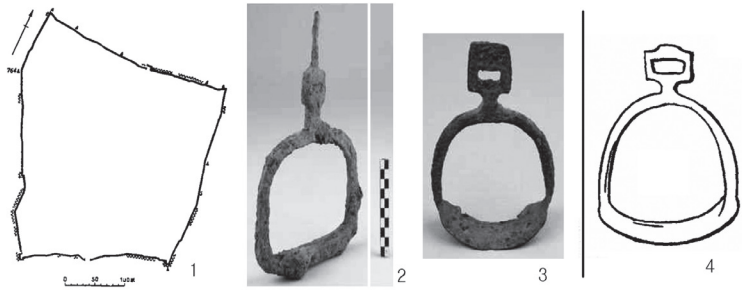


그림 3 압록강 유역 발견 등자와 유적: 1-패왕조산성 평면도(方起東, 1962), 2, 3-패왕조산성 출토 등자(趙俊傑, 2024), 4-집안 발견 등자(柳涵, 1959)

공반 유물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패왕조산성 남문지와 북문지의 방사성탄소연대가 6세기 말~7세기 초임을 밝히고 있어 등자도 고구려 것임을 시사한다.[22]

집안 발견 수습품. 집안에서 발견된 철제 등자 1점이다. 등자의 크기나 발견된 유적의 명칭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도면만 제시되었다. 고구려 등자로 소개되었다(그림 3-4).[23]

2. 혼하 유역

심양(沈陽)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 주변 고분군 제4구역 3호 무덤.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4구역은 심양시 기반산수고(棋盤山水庫) 북안 석대자산성 북쪽 대양산(大洋山) 주봉 서쪽 부근의 비교적 완만한 등성이에 위치한다. 다만 이 무

22 趙俊傑, 2024, 「桓仁與集安地區高句麗山城防禦體系的形成」, 『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교류』(2024년도 한중 역사·고고학 분야 학술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 72~73쪽.

23 柳涵, 1959, 「北朝的鎧馬騎用」, 『考古』 2, 圖1-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덤이 속한 구역 및 번호와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한데, 2006년에 발표된 보고 논문에서는 제3구역 4호 무덤(2004SSM4)으로 지칭하였고,[24] 2012년에 발간된 정식 발굴보고서에서는 제4구역 3호 무덤(ⅣM3)으로 지칭하여[25] 혼동을 일으킨다. 두 곳 모두 이 무덤에 대한 보고내용은 동일하다. 이 글에서는 이 무덤을 정식 발굴보고서에 따라 제4구역 3호 무덤으로 부르기로 한다.

제4구역 3호 무덤은 지표 아래 약 20cm 깊이에 바닥이 있다. 중앙연도 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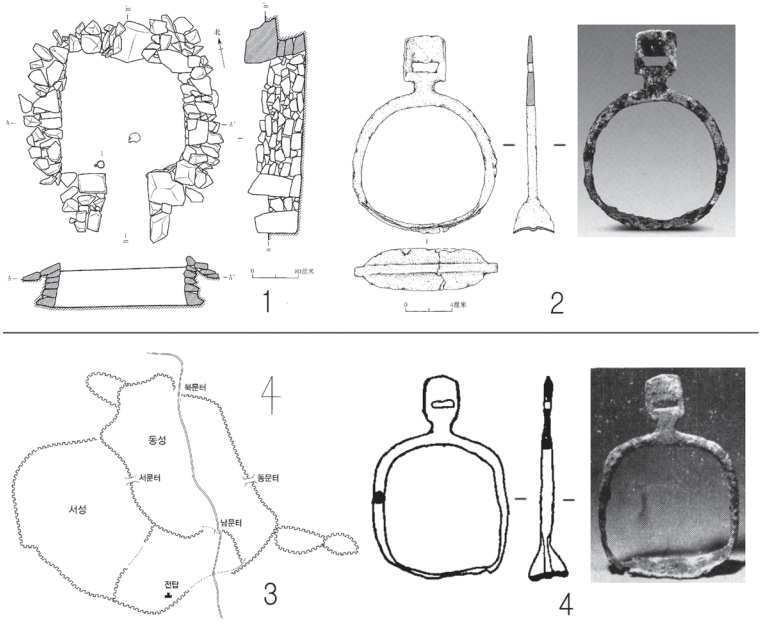


그림 4 혼하 유역 발견 등자와 유적: 1, 2–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4구역 3호 무덤 평·단면도 및 출토 등자(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3–고이산성 평면도(이성제 편, 2006), 4–고이산성 발견 등자(撫順市文化局文物工作隊, 1964)

24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앞의 글.

2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앞의 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혈식 석실봉토묘이다(그림 4-1). 연도는 평면이 나팔형이고, 양쪽에 높이 1.04m의 돌을 세워놓았다. 묘문은 너비 0.7m, 높이 0.9m이다. 네 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조금씩 축약된다. 묘실은 길이 2.16m, 너비 2.25m, 잔존 높이 0.8~1m이다. 무덤 바닥은 평탄하게 한 다음에 황토를 깔았다. 장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골은 두개골 하나만 발견되었는데 나이나 성별은 파악되지 않았다. 부장품은 철제 등자 1점이 유일하다(그림 4-2). 등자는 전체 높이 17cm, 답환(윤부) 폭 12.6cm, 두께 0.8cm, 병부 길이 3.9cm, 폭 3.6cm, 두께 0.4cm, 발판(답수부) 길이 9.4cm, 폭 4.2cm, 두께 0.1cm이다.

2006년 보고자는 이 무덤을 비롯하여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의 무덤들은 모두 고구려 만기로 편년하였다.[26] 그런데 2012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이 고분군을 고구려 중만기로 판단하였다.[27] 다만 강현숙은 이 고분군을 중심 연대가 8세기 후반 무렵인 발해유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28]

무순(撫順) 고이산성(高爾山城). 무순시 북쪽의 고이산에 위치한다. 이곳은 혼하(渾河)의 북쪽이다. 고이산성은 둘레 길이 4km이며, 동성, 서성, 북위성, 남위성, 동남 2중 성곽으로 구성된 복곽식 산성이다(그림 4-3).[29] 1963년에 산성 내 서파(西坡)에서 철제 등자 1점이 발견되었다(그림 4-4). 전체 높이는 17.5cm, 답환 폭 10.5cm, 발판 길이 10cm 폭 4cm이다. 이 산성은 고구려 시기에 축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0]

한편, 강현숙은 이 등자가 동청 1호 무덤 출토 등자와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

26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앞의 글, 24쪽.

2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앞의 책, 349, 367쪽.

28 강현숙, 2009, 앞의 글, 182쪽.

29 이성제 편, 2006, 『고구려성 사진 자료집: 중국 요녕성·길림성 서부』, 동북아역사재단, 354쪽.

30 撫順市文化局文物工作隊, 1964, 「遼寧撫順高爾山古城址調查簡報」, 『考古』 12, 616~61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적하면서 고구려 유물이라는 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31]

3. 제2 송화강 유역

영길(永吉) 사리파(查里巴)고분군 7호 무덤. 길림성 영길현 오랍가진(烏拉街鎭) 사리파촌(查里巴村)의 남쪽에 위치한다. 유적은 1985년, 1987~1988년에 조사되었다. 7호 무덤은 토광묘이며, 크기는 3.3×1.6m, 깊이 0.4m이다. 무덤의 사진과 도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장구의 흔적은 없고, 단인장 화장 무덤이다. 부표(附表)에 제시된 무덤 일람에는 7호 무덤에서 청동 팔찌, 철제 등자 2점, 철제 버클(鐵帶卡), 철제 화살촉 6점, 'VIII통형관(Ⅷ筒形罐)'이 출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보고논문 텍스트와 도면 캡션에는 청동 띠꾸미개 1점도 7호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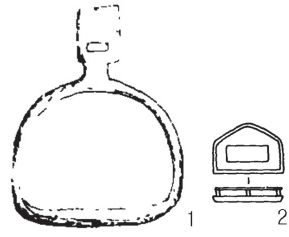


그림 5 제2 송화강 유역 사리파 7호 무덤 출토 등자(1)와 띠꾸미개(2)(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

유물 도면은 철제 등자 1점과 청동 띠꾸미개 1점만 제시되었을 뿐이다(그림 5). 철제 등자는 전체 높이 17.5cm이며, 답환은 타원형, 현수공은 장방형, 발판은 조금 좁은 타원형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청동 띠꾸미개는 크기가 2.8×1.8cm, 두께 0.8cm이다.

보고논문에서 사리파고분군은 수말·당초~당대 중기로 편년되었다.[32]

안도 동청(東淸)고분군 1호 무덤. 길림성 안도현(安圖縣) 영경향(永慶鄕) 동

31 강현숙, 2009, 앞의 글, 176쪽.

3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 「吉林永吉查里巴靺鞨墓地」, 『文物』 9, 43, 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촌(東清村) 북쪽에 위치한다. 1990년에 발굴되었다. 동청 1호 무덤은 방단석광봉토묘(方壇石壙封土墓)로 보고된 무덤이다(그림 6-1). 평면 모양은 횡혈식석실을 연상시키나, 천장을 만들지 않고 바로 막돌과 흙을 쌓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사 횡혈식 석실묘[33]로 볼 수 있다. 무덤은 경사면의 안쪽을 0.6~0.7m 깊이로 파고 수평이 되게 고르고 조성하였다. 평면 모양은 거의 정방형인데, 규모가 남북 길이 2.7m, 동서 너비 2.6m이다. 무덤 벽체(보고서에는 기단으로 표현)는 양쪽 가장자리는 큰 돌로 쌓고 안쪽은 막돌로 채웠다. 서벽은 너비가 3m, 길이가 5.6m, 높이가 0.9m이며, 남벽은 너비가 0.6~0.8m이다. 북쪽과 동쪽에는 벽체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묘실의 바닥과 남쪽 입구 연도에는 두께 5cm의 판석을 깔았다. 다만 남벽 바로 안쪽에는 판석을 깔지 않았는데 배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묘실에서 모두 17개체에 속하는 인골이 발견되었다. 인골은 상하 2층이 구분되었다. 하층에는 널판 3개를 나란히 배치하였다(그림 6-3). 주변에 철제 못이 발견되어 목관을 못으로 고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운데 목관은 길이 1.9m, 너비 0.9cm이며, 서쪽 목관보다 약 10cm가 더 높게 놓여 있었다. 중간 목관에는 두개골을 포함하는 3개체의 인골이 흩어져 있었다. 서쪽 목관은 평면이 사다리꼴로서 너비가 북쪽은 0.8m, 남쪽은 0.62m이다. 서쪽 목관의 동쪽 판재는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잔존 높이가 0.1~0.15m였다. 북쪽 부분에 2개의 두개골이 있었고, 사지 뼈는 거의 없었다. 36~40세의 남녀로서 2차 부부합장으로 판단되었다. 동쪽 목관에는 2개체의 것으로 보이는 인골이 있었다. 관널 아래에는 고임돌을 두 군데 놓았다.

상층은 하층 위로 20cm 두께로 흑갈색 흙을 다지고 만들었다. 상층에서는 모두 10개체의 인골이 흩어져 있었는데, 서북쪽 모서리에 4개체, 서남쪽 모서

33 강현숙은 '기단봉토분'으로 지칭하였다(강현숙, 2021, 「중국 길림성 안도 동청 고분군」,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송기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진인진, 65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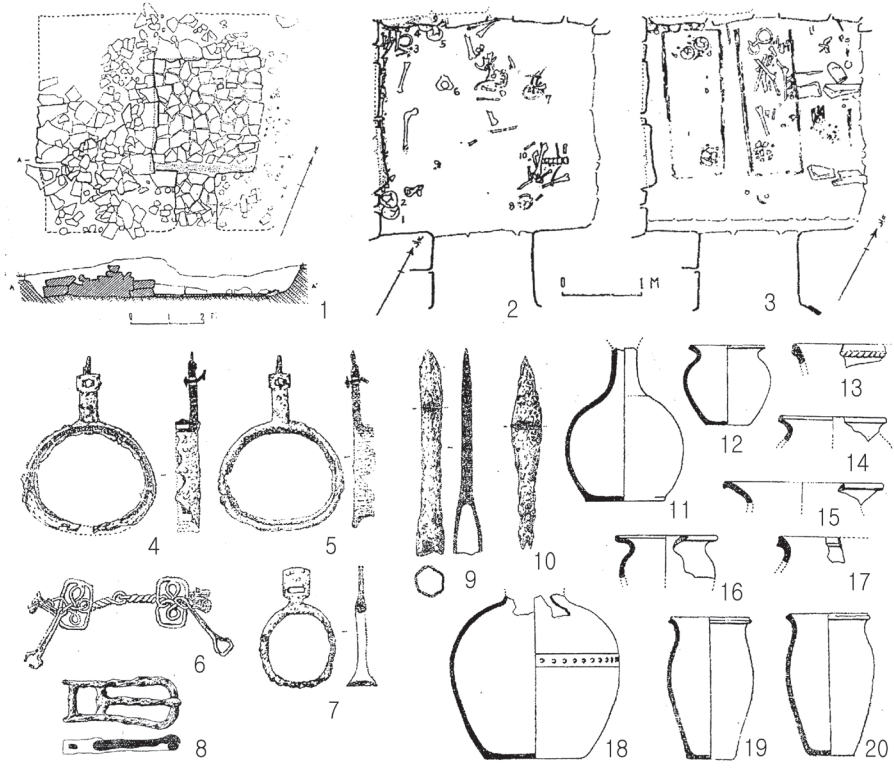


그림 6 제2 송화강 유역 안도 동청고분군 1호 무덤 평·단면도(1), 묘실 상층(2) 및 하층(3) 현황도, 출토 등자(4, 5, 7), 재갈(6), 버클(8), 창(9, 10), 토기(11~20)(鄭永振·嚴長錄, 2000)

리에 2개체, 동남쪽과 중간에 각각 2개체가 있다(그림 6-2). 모두 2차장이다.

유물은 무기, 마구, 띠 부속품, 구슬, 장신구, 토기 등이 대부분 하층에서 출토되었다. 봉분에서도 철제 창 2점과 다수의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철제 화살촉 등 무기류와 등자, 재갈 등 마구류는 서쪽 목관의 북쪽 바깥에서, 병, 호 등 토기는 목관 안 인골의 머리 위쪽과 발치에서 각각 출토되었다(그림 6-4~20). 장신구는 주로 인골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철제 등자는 3점이 출토되었다. 2개 형식으로 구분되었는데 1형식으로 구분된 1점은 T자 단병 등자이다(그림 6-7). 발걸개, 즉 답환은 높이는 12cm, 폭 11cm이다. 발디딤판, 즉 발판은 길이 9cm, 폭 4.8cm의 버들잎 모양이며, 밑면에 폭 1cm가량의 등살, 즉 척농(脊隴)이 있다. 다만 실측 도면에는 척농이 표현되지 않았다. 등자의 윗부분에 현수공이 있는 길이 4.5cm, 폭 4cm의 등병(鐙柄) 혹은 '드리움대'가 있다고 하였는데, 목을 포함한 길이인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등자의 전체 높이는 16.5cm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형식으로 구분된 2점은 中자 병부 등자이다(그림 6-4~5). 전체 높이 25.8cm, 답환 높이 16cm, 폭 18.5cm이다. 답환 테에 못과 5.5~8.5cm 간격의 못 구멍이 2개씩 있다. 현수공은 크기 1.0×1.2cm이고 못이 들어 있다. 현수공부 위 돌기는 길이 3.4cm이다. 답환 안에 나무를 넣고 못으로 고정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목심철판피 등자로 추정되었다.[34]

발굴보고자는 동청고분군을 전체적으로 발해 조기에 속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1호 무덤은 8호 무덤보다는 조금 늦을 것으로 추정하였다.[35]

동청 1호 무덤 출토 병부 中자형 등자와 관련해서 최근 스토야킨 막심은 목심철판피 등자는 고구려에서 5세기에 유행한 형식이며, 고구려 시기인 5~6세기에 제작되어 당시에 부장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36]

4. 한강 유역

구리 아차산 제4보루.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에 위치한다. 보루는 평면 긴 타원형이며, 둘레 길이는 약 210m이다. 1998년에 철제 등자 1점이 S8W2 그리

34 연변박물관, 1994,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 『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鄭永振·嚴長錄, 2000, 『渤海墓葬研究』, 吉林人民出版社.

35 鄭永振·嚴長錄, 2000, 위의 책, 269쪽.

36 스토야킨 막심(Stoyakin Maksim), 2024, 앞의 글, 37~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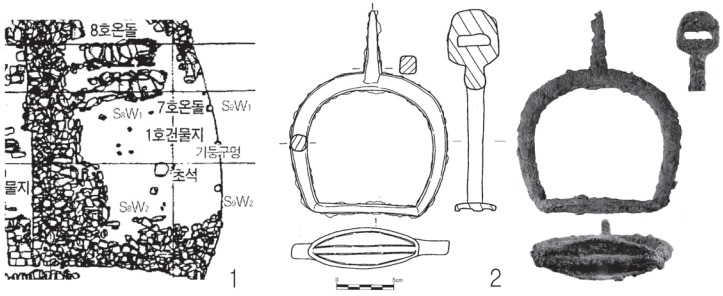


그림 7 한강 유역 아차산 제4보루 1호 건물지(1)와 출토 등자(2) (서울대학교박물관 외, 2000)

드에서 출토되었는데, 바로 보루의 남쪽 부분에 위치하는 1호 건물지 내부에 해당한다(그림 7-1). 등자의 전체 높이는 17.6cm, 답환 폭 13.5cm, 병부 길이 5.5cm, 현수공 크기 2.9×1.0cm, 답환 최대 두께 1.5cm, 발판 길이 9.0cm 최대 폭 3.6cm이다(그림 7-2). 유적의 연대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475년과 나제 연합군에 의해 한강 유역을 상실한 551년 혹은 553년 사이의 약 80년간에 해당할 것이나, 아차산 4보루 출토 고구려 토기가 대부분 6세기 이후인 점을 감안하여 중심 연대는 6세기일 것으로, 상한은 5세기 중반, 하한은 6세기 중반일 것으로 판단되었다.[37]

5. 제야-아무르강 유역

아무르주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아무르주 이바노브카 지구 트로이츠코예 마을 서쪽에 위치한다. 1969년에 발굴한 제1구역에서 4점의 철제 등자가 출토되었다. 그중 2점은 제1구역 예(E) 섹터 6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37 서울대학교박물관 외, 2000,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169, 2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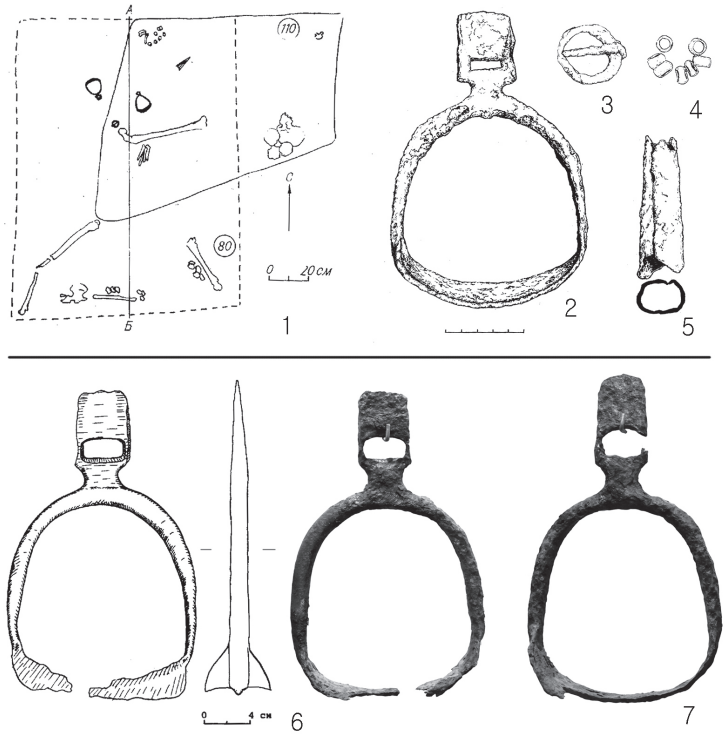


그림 8 제야-아무르강 유역 발견 등자 발견 유적과 유물: 1~5-트로이츠코예 고분군 5호, 6호 무덤 현황도 및 6호 무덤 출토 유물(Деревянко, Е. И., 1977), 6, 7-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출토 등자[Болотин, Д. П. 외, 1997; 블라고베셴스크 교육학대학교 박물관(필자 촬영)]

6호 무덤은 나중에 만든 5호 무덤과 겹 놓인 관계이며, 평면이 부정 사각형이다(그림 8-1). 길이는 120cm, 폭은 70~80cm, 깊이는 110cm이다. 무덤 바닥에서 사람의 두개골, 철제 버클, 철제 등자 2점, 철제 찰갑편들, 철제 창 일부, 그리고 청동 구슬(목걸이 알) 7점이 출토되었다. 철제 등자는 'T'자 단병 등자 1점과 8자형 등자 1점이다. 유물 도면은 'T'자 단병 등자, 철제 버클, 철제 창, 청동 구슬이 제시되었다(그림 8-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고분군에서는 그 외에 제1구역 하층 베(Б) 섹터 17-К(카) 방안 및 26-Е(예) 방안에서 8자형 등자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발굴조사 보고자는 이 유적을 6~8세기로 편년하였다.[38] 이후 이 고분군 내의 다른 무덤들에서 채취한 시료 방사성탄소연대가 7~9세기로 검출되었고, ±2σ 보정연대는 8세기 4/4분기~9세기 전반로 확인되었다.[39]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S. P.네스테로프는 이 고분군이 속하는 서아무르 지역의 트로이츠코예 문화를 발해가 건국한 다음에 발해 속말말갈인들이 이주하여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40]

아무르주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아무르주 세르게예브카 마을과 미하일로브카 마을 사이에 위치한다. 1996~1997년에 발굴한 14기의 무덤에서 'T'자 단병 철제 등자 2점(그림 8-6~7), 철제 재갈, 철제 활통 고리, 옥환, 골제 버클, 구연 아래와 동체에 돌대문이 있는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다만 각 무덤 기술 내용과 각 유물이 출토된 구체적인 무덤 번호가 보고되지 않아 유물 간의 공반 관계를 알 수 없다. 매장방식과 토기, 마구 등의 유물이 트로이츠코예 고분군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유적은 8~10세기로 편년되었다.[41]

그런데 블라고베셴스크에 소재하는 블라고베셴스크 교육학대학교 박물관에는 이 고분군 출토품이 분명한 철제 등자 2점이 전시되어 있다(그림 8-6~7). 등자는 2점이 형태와 구조가 거의 비슷하지만, 1점은 높이가 조금 더 높다.

---

38 Е. И. Деревянко, 1977, *Троицкий могильник, Новосибирск*, pp. 18, 20, 42, 161.

39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08, 『트로이츠코예 고분군(본문편)』, 156~157쪽.

40 С. П. Нестеров, 1998, 앞의 책, pp. 94~95.

41 Д. П. Болотин, Сапунов, Б. С., Зайшев, Н. Н., Сапунов, И. Б., 1997, "Новый могильник эпох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в Приамурье",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Том III*,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Новосибирск; 정석배·박규진, 2023, 『발해유적총람Ⅳ-러시아지역』, 예지안, 258~25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T자 단병 등자의 특징과 편년 문제

1. 특징과 분류

고구려·발해 T자 단병 등자는 병두의 넓은 면이 대부분 정면을 향하지만, 아차산 제4보루 출토품은 예외적으로 측면을 향한다. 병두 자체는 기본적으로 세로 장방형이다. 다만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출토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긴 것도 확인되며, 집안 수습품의 경우는 병두가 가로 장방형에 가깝고 위 가장자리의 가운데 부분이 조금 돌출하였다.

현수공은 기본적으로 가로 장방형이며 병두의 아랫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다만 집안 수습품과 같이 병두가 가로 장방형에 가까운 것에는 현수공이 병두의 거의 가운데 부분에 배치되었다.

답환은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다. 아차산 제4보루 출토품은 어깨가 넓은 터널형이고, 고이산성 등자는 모 둥근 세로 장방형에 가까우며, 동청 1호 무덤 및 패왕조산성 등자는 짧은 세로 타원형에 가깝다.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4구역 3호 무덤 등자는 어깨가 조금 축약된 원형에 가깝다.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6호 무덤 등자는 어깨가 조금 축약된 짧은 세로 타원형에 가깝다. 집안에서 발견된 등자는 답환 형태가 모 둥근 삼각형에 가깝다.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등자는 답환이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달걀 형태에 가깝다. 사리파고분군 7호 무덤 등자는 어깨가 조금 축약된 가로 타원형이다.

발판은 도면이 제시된 것은 모두 답환 테보다 폭이 넓다. 발판 밑면에는 아차산 제4보루,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고이산성,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등자의 경우 모두 도면에 척농이 표시되어 있다. 동청 1호 무덤 등자에는 도면에는 척농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 내용을 보면 발판 밑면에 '등살'이 있다고 하여 척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등자에는 척농이 도면에도 표시되지 않았고, 또 척농의 존재가 전혀 기술되지 않았지만, 다른 예들을 볼 때 모두 척농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차산 제4보루 등자는 밑면의 가운데 척농 외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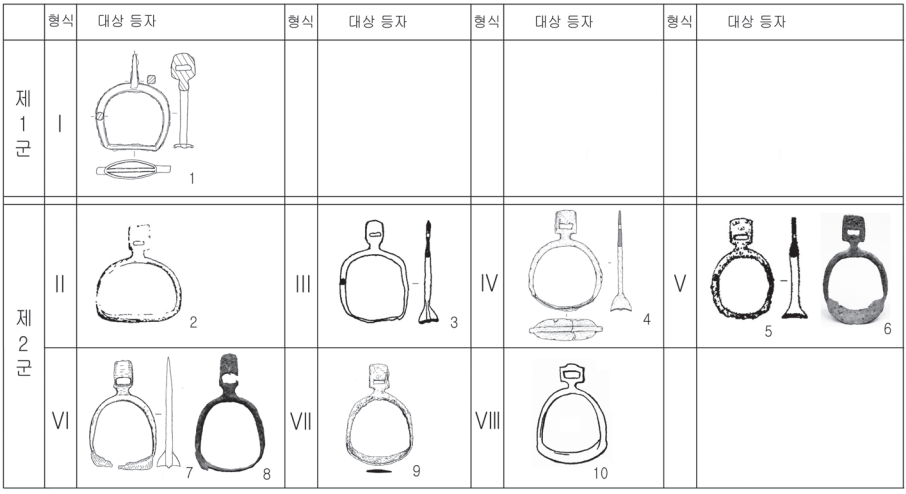


그림 9 고구려·발해 T자 단병 등자 형식분류표(필자 작성): 1-아차산 제4 보루, 2-사리파 7호 무덤, 3-고이산성, 4-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4구역 3호 무덤, 5-동청 1호분, 6-패왕조산성, 7~8-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9-트로이츠코예 고분군 6호 무덤, 10-집안 수습

양쪽 가장자리도 돌대를 이루고 있어 다른 등자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고구려·발해 T자 단병 등자는 아차산 제4보루 출토품을 제외한다면, 예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두의 형태와 현수공의 위치 그리고 발판의 구조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병두 넓은 면의 방향을 기준으로 2개의 군(群)을 나누고 답환의 형태를 기준으로 세부 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1군은 병두의 넓은 면이 측면을 향하고, 제2군은 정면을 향한다. 등자 답환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형식은 8개가 구분된다. I형식은 어깨가 넓은 터널형인데 무게중심이 상부 어깨 부분에 있다. Ⅱ형식은 어깨가 조금 축약된 가로 타원형이며 무게중심이 하부에 있다. Ⅲ형식은 모 둥근 세로 장방형에 가까우며 무게중심의 중부에 있다. Ⅳ형식은 어깨가 조금 축약된 원형에 가까우며 무게중심이 중부 아래에 있다. Ⅴ형식은 짧은 세로 타원형으로서 무게중심이 중부에 있다. Ⅵ형식은 어깨가 조금 축약된 세로 타원형으로서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달걀 형태에 가까우며 무게중심이 하부 발판이 시작되는 곳 부근에 있다. Ⅶ형식은 답환의 형태가 Ⅵ형식과 비슷하나 조금 짧다. Ⅷ형식은 답환의 윗부분이 Ⅵ형식 및 Ⅶ형식보다 더 축약되어 모 둥근 세로 삼각형에 가깝다(그림 9).

2. 편년 문제

제1군 1형식 등자는 아차산 제4보루 출토품 1점이 있다(그림 10-1). 이 등자는 정면에서 본 답환의 모양이 569년 고원(固原) 북주(北周) 이현부부묘(李賢夫婦墓)(그림 10-2)[42] 출토 등자와 거의 같다. 또한 570년 태원(太原) 북제(北齊) 누예묘(婁叡墓)(그림 10-3)[43] 및 571년 태원(太原) 북제(北齊) 서현수묘(徐顯秀墓)(그림 10-4)[44] 벽화에 표현된 등자 답환의 형태와도 서로 일치한다.

아차산 제4보루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475년과 나제 연합군에 의해 한강 유역을 상실한 551년 혹은 553년 사이로, 중심 연대는 6세기로, 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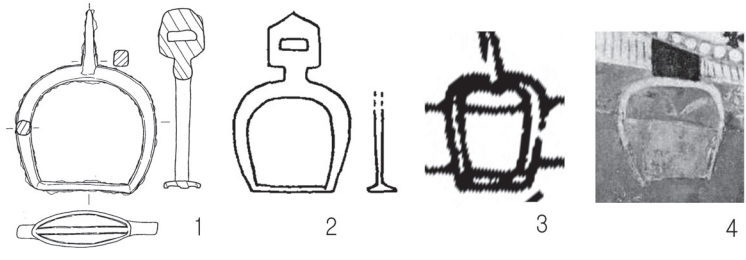


그림 10 제1군 1형식 등자 비교 자료: 1-아차산 제4 보루, 2-북주 이현 부부묘(齊東方, 1993), 3-북제 누예묘(山西省考古研究所 외, 1983), 4-북제 서현수묘(山西省考古研究所, 2003)

42 齊東方, 1993, 앞의 글, 8쪽.

43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 1983, 「太原市北齊婁叡墓發掘簡報」, 『文物』 10, 21쪽.

44 山西省考古研究所, 2003, 「北齊徐顯秀墓發掘簡報」, 『文物』 10, 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5세기 중반, 하한은 6세기 중반으로 판단된 바 있다.[45] 그런데 상기한 북주 고분 출토 실물 등자 및 북제 고분 벽화의 도상 등자의 연대를 염두에 둔다면, 아차산 제4보루 등자는 가장 늦은 하한에 해당하는 6세기 중엽 550년 전후가 타당한 연대로 생각된다.

제2군 Ⅱ형식 등자로는 영길 사리파고분군 7호 무덤 출토품이 있다(도면 11-1). 사리파고분군은 수나라(581~618) 말부터 당나라(618~907) 초~중기까지로 폭넓게 편년되었지만,[46] 7호 무덤을 비롯하여 개별 무덤들에 대한 편년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T자 단병 등자 중에서 답환이 가로 타원형인 것은 알타이지역 아사나 부족 돌궐이 남긴 것으로 여겨지는 크즐 타쉬 단계(5세기 후반~6세기 전반) 카라-코바 1 고분군 86-1-1호 위석(그림 11-3) 및 86-1-2호 위석(그림 11-4) 출토품[47]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카라-코바 1 고분군 출토 이 2점의 등자는 병부의 형태가 차이가 있고, 또 답환이 가로 타원형이기는 하나 무게중심이 가운데 부분에 있어 무게중심이 아랫부분에 있는 사리파 7호 무덤 등자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카라-코바 1 고분군 등자는 가로 타원형 답환이 T자 단병 등자 중에서는 이른 시기의 속성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영길 사리파 고분군 7호 무덤과 출토 등자의 편년 설정에는 공반 출토된 청동 띠꾸미개가 도움을 준다.

사리파 7호 무덤 출토 청동 띠꾸미개는 평면 오각형이며, 가로 장방형의 넓은 수공이 있고, 덮개판의 단부는 둔각이다(그림 11-2).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띠꾸미개는 691년 고연안 무덤(그림 11-5)[48]과 664~675년으로 편년된 하남

45 서울대학교박물관 외, 2000, 앞의 책, 169, 247쪽.

4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 앞의 글, 43, 45쪽.

47 В. А. Могильников, 1994, “Культовые кольцевые оградки и курганы Кара-Кобы I”,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 фольклорные источники по истории Алтая*, Горно-Алтайск; 정석배, 2025a, 앞의 글, 83쪽, 도면 3: 4~5.

48 朝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9, 「遼寧朝陽唐代庫延安墓發掘簡報」, 『文物』 5, 2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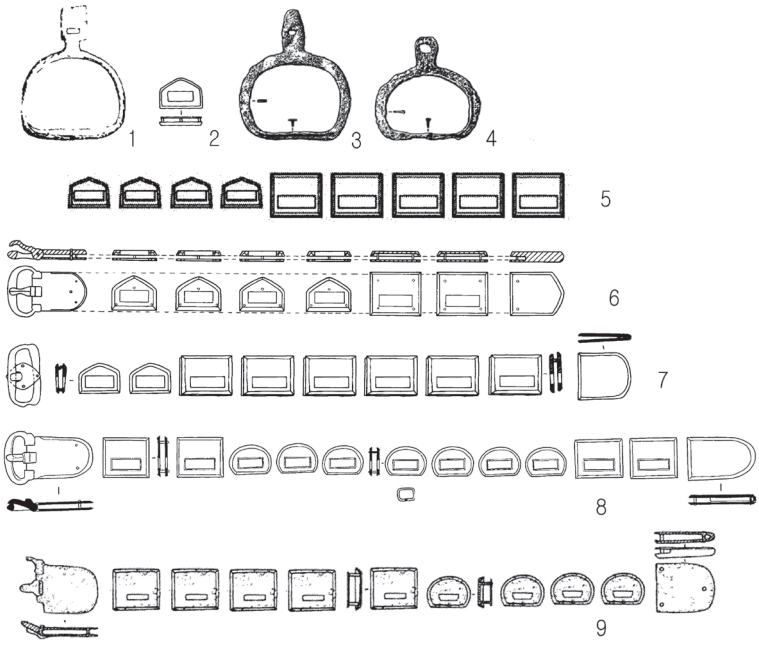


그림 11 제2군 II형식 등자와 편년 비교 자료: 1, 2-사리파 7호 무덤, 3-카라-코바 1 고분군 86-1-1호 위석(Могильников, В. А. 1994), 4-카라-코바 1 고분군 86-1-2호 위석(Могильников, В. А. 1994), 5-조양 고연안 무덤(朝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9), 6-하남 공의 지전 13호 무덤(88HGZM13)(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3), 7-북경 유리하유적 1호 무덤(F13M1)(北京市文物研究所 외, 2000), 8-임분 서조촌 45호 무덤(北京市文物研究所 외, 2000), 9-정주 손화 무덤(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2011)

공의(鞏義) 지전(芝田) 13호 무덤(88HGZM13)(그림 11-6)[49]에서 각각 출토된 바 있다. 그 외에도 북경 유리하유적 1호 무덤(F13M1)(그림 11-7)에서도 동일 특징의 띠꾸미개가 출토되었다. 이 무덤은 모 둥근 호선 방형 단실묘 구조가 산서 장치 691년 풍곽묘(馮廓墓) 및 북경 753년 기관묘(紀寬墓)와 비슷한 것으로 지적

49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3, 『鞏義芝田晋唐墓葬』, 科學出版社, 178, 295~29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었고, 또 띠꾸미개 등 유물의 비교를 통해 전체적으로 621년부터 성당(盛唐) 시기(713~755)까지로 폭넓게 편년되었다.[50]

이후의 기년이 있는 청동 띠꾸미개를 살펴보면 704년 임분(臨汾) 서조촌(西趙村) 45호 무덤 출토품(그림 11-8)[51]에는 이미 오각형 대신 반원형(직기원형)의 띠꾸미개가 사용되며, 798년 정주(鄭州) 손화(孫和) 무덤 출토품(그림 11-9)[52]에는 오각형 띠꾸미개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원형 및 방형 띠꾸미개에서 수공 형태가 세장한 장방형이 되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오각형 띠꾸미개가 공반된 사리파 7호 무덤 등자는 발해 건국 전후인 7세기 말~8세기 초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2군 Ⅲ형식 고이산성 등자의 연대 문제와 관련하여 강현숙은 동청 1호분 등자와 특징이 비슷하다고 지적하면서 고구려 유물이라는 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53]

고이산성 출토 등자는 답환의 형태가 모 둥근 세로 장방형에 가까운 점이 특징적이다(그림 12-1). 답환의 위 양쪽 어깨와 아래 발판 쪽 모 둥근 부분이 상하 대칭을 이루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형태의 답환을 가진 등자는 681~697년으로 편년되는 조양(朝陽) 고연안묘(庫延安墓)[54] 출토품(그림 12-2)이 있다. 이 등자는 병두의 위 가장자리가 위로 조금 볼록한 점도 서로 닮았다. 698년으로 편년되는 서안(西安) 당 독고사정묘(獨孤思貞墓)[55] 출토 등자는 정면 사진이나

50 北京市文物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中國 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0, 「1997年琉璃河遺址墓葬發掘簡報」, 『文物』 11, 36~38쪽.

51 山西省考古研究所·臨汾市文物考古工作站, 2015, 「山西臨汾市西趙村唐墓發掘簡報」, 『考古』 6.

52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2011, 「鄭州市區西北部兩座唐墓發掘簡報」, 『中原文物』 4.

53 강현숙, 2009, 앞의 글, 176쪽.

54 朝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9, 앞의 글, 27쪽.

5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0, 『唐長安城郊隋唐墓』, 文物出版社, 2, 29, 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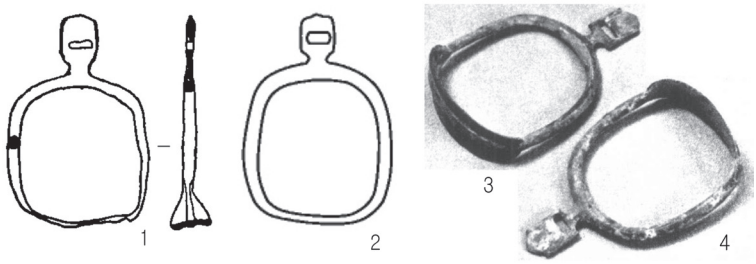


그림 12 제2군 Ⅲ형식 등자 비교 자료: 1–고이산성, 2–고연안묘(朝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9), 3, 4–독고사정묘(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0)

도면이 없지만, 뉘어 놓고 비스듬하게 찍은 사진(그림 12-3~4)을 보면 고연안묘 출토품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다만 병두의 위 가장자리가 고이산성 등자와 고연안묘 등자는 좌우는 직선이면서 가운데가 볼록한 독고사정묘 출토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고이산성 등자와 마찬가지로 발판 아래에 척농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알타이지역에는 이와 같은 답환을 가진 등자가 보이지 않는다.[56] 고이산성 출토 등자는 고연안묘 및 독고사정묘 출토 등자를 참고할 때 발해 건국 전후 7세기 말~8세기 초로 편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2군 Ⅳ형식 등자로는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출토품이 있다(그림 13-1). 이 고분군은 발굴 보고자에 의해 고구려 만기[57] 혹은 고구려 중만기[58]로 각각 판단된 바 있다. 그런데 강현숙은 이 고분군에서 확인된 석실보강석, 수혈식 석곽, 다인합장, 동물 뼈 순장, 단병식 등자, 추형의 수식이 달린 귀걸이 등은 다른 고구려 고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발해 고분에는 특징적인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56 정석배, 2025a, 앞의 글, 도면 참조.

57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앞의 글, 24쪽.

5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앞의 책, 349, 3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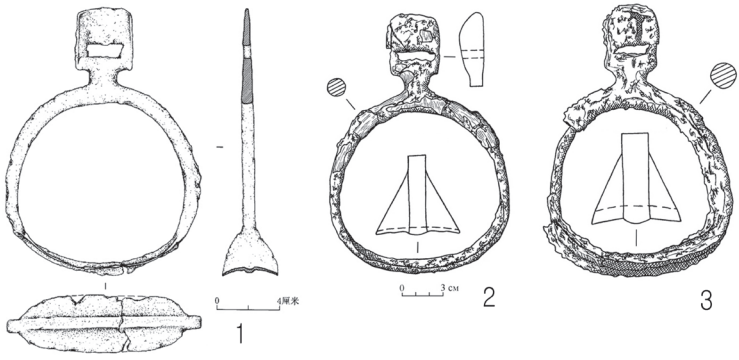


그림 13 제2군 Ⅳ형식 등자 비교 자료: 1-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3구역 4호 무덤, 2, 3-유스트드-12 고분군 28호 쿠르간(Кубарев, Г. В., 2005)

이 고분군을 중심 연대가 8세기 후반 무렵인 발해유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등자가 출토된 제3구역 4호 무덤을 8세기 후반을 전후한 어느 시기일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리파 27호분 및 대해맹 3기층 17호분에서 당 중기에 유행한 뒷면에 초승달 모양의 월문(月紋)이 있는 개원통보(開元通寶)가 출토되었고, 따라서 사리파나 대해맹 3기층의 말갈계 토기가 부장된 목관, 목곽묘들 중 개원통보가 출토된 무덤은 하한을 8세기 후반경까지 내려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등자가 발견된 사리파 7호분은 동청 1호분 등자와 대비하여 8세기 후반경에서 연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같은 형태의 등자가 출토된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3구역 4호 무덤도 8세기 후반을 전후한 어느 시기일 것이라는 논리이다.[59] 다만 사리파 7호분에서는 개원통보가 출토되지 않아 사리파 27호분과 동일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사리파 7호분(그림 9-2), 동청 1호분(그림 9-5),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3구역 4호 무덤(그림 9-4) 출

59 강현숙, 2009, 앞의 글, 18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토 등자는 모두 병부 T자형 단병 등자라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답환의 형태는 3점이 모두 서로 차이가 있다.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3구역 4호 무덤 출토 등자는 고르느이 알타이지역 돌궐 제2제국 시기(680~745)에 속하는 카탄다 단계 등자 중에서 유사품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유스트드-12 고분군 28호 쿠르간 출토 철제 등자(그림 13-2~3)는 장방형 병두, 병두에서 현수공의 위치, 정면에서 본 답환의 형태, 단면이 둥그스름한 답환 테, 척농의 존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60] 다만 병두의 단면이 두껍게 그려져 있는데 녹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돌궐 제2제국이 680~745년에 존속한 것을 감안하면,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등자는 8세기 전반으로 편년하는 것이 무난하다.

제2군 Ⅴ형식 등자는 동청 1호 무덤(그림 14-1) 및 패왕조산성(그림 14-2) 출토 2점이 있다. 동청 고분군은 발굴 보고자에 의해 발해 조기에 속하는 것으로, 1호 무덤은 8호 무덤보다는 조금 늦을 것으로 각각 판단된 바 있다.[61] 강현숙도 동청 고분군을 발해 초기로 판단하였다.[62] 그런데 최근 스토야킨 막심은 동청 1호 무덤 출토 병부 中자형 등자(그림 6-4~5)가 고구려 시기인 5~6세기에 제작되어 당시에 부장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함께 출토된 병부 T자형 단병 등자(그림 6-7; 그림 14-1)는 돌궐이나 발해 시기에 유행한 등자 형식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전체적으로 동청 1호 무덤이 고구려 중·후기에 처음 축조되었고, 나중에 발해가 이 무덤을 재활용하여 목관 3개를 안치하였으며, 그 이후에 다시 발해가 그 위로 2차장 무덤을 조성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 무덤에 세 번에 걸쳐 매장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63] 과연

60 Г. В. Кубарев, 2005,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ков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정석배, 2025a, 앞의 글, 88쪽 도면 5: 1, 2.

61 鄭永振·嚴長錄, 2000, 앞의 책, 269쪽.

62 강현숙, 2021, 앞의 글.

63 스토야킨 막심(Stoyakin Maksim), 2024, 앞의 글, 37~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발해인들이 고구려 무덤을 다시 재활용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스토야킨 막심 스스로 병부 T자형 단병 등자만큼은 발해 시기의 것으로 인정한 만큼, 무덤의 재활용 문제에 관해서는 굳이 이 글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청 1호 무덤이 발해 시기의 무덤인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이 무덤에서 출토된 말갈계 심발형 토기가 발해 시기의 것이 분명한 윤제로 보이는 토기들과 공반하는 사실로서도 알 수 있다(그림 6-11~20).

동청 1호 무덤(그림 14-1) 및 패왕조산성(그림 14: 2) 등자는 정면에서 본 답환의 형태가 짧은 세로 타원형이다. 이 형태의 등자는 돌궐 제2제국 시기(680~745) 카탄다 단계에 속하는 고르느이 알타이 카탄다-2 고분군 11호 쿠르간 출토품(그림 14-3)[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청 1호 무덤 출토 등자 그림에는 발판 아래에 척농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아래에 '등살', 즉 척농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패왕조산성 출토 등자는 사진만 제시되어 발판 아래의 면이 보이지 않지만, 답환 테와 발판의 연결부분 상태로 보아 척농이 있다고 생각된다. 답환이 짧은 세로 타원형인 등자는 돌궐 제1제국 시기(552~630)에 해당하는 쿠드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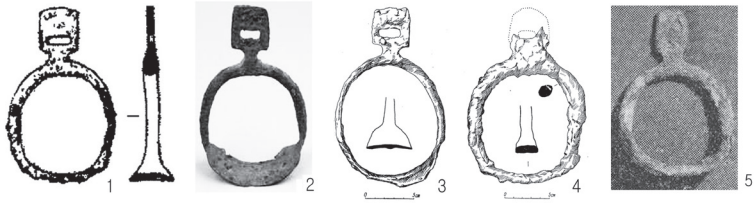


그림 14 제2군 V형식 등자 비교 자료: 1-동청 1호 무덤, 2-패왕조산성, 3-카탄다-2 고분군 11호 쿠르간(Гаврилова, А. А. 1965), 4-쿠드르게 고분군 2호 쿠르간(Гаврилова, А. А. 1965), 5-영태공주묘(陕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64)

64 А. А. Гаврилова, 1965, *Могильник Кудыргэ как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алтайских племен*, М.-Л.: Наука; 정석배, 2025a, 앞의 글, 88쪽 도면 5: 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단계 쿠드르게 고분군 2호 쿠르간 출토품(그림 14-4)[65]에도 있지만, 답환 테 기준 발판의 상대적 폭이 상당히 좁아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답환이 있는 등자가 706년에 매장된 당 영태공주(永泰公主)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그림 14-5).[66] 동청 1호분 출토 T자 단병 등자와 영태공주묘 출토 등자는 세장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무게중심이 답환의 중간 부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동청 1호 무덤과 패왕조산성 출토 짧은 세로 타원형 답환을 가진 T자 단병 등자는 고르느이 알타이에서 돌궐 제2 제국 시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고, 또 8세기 초 당 영태공주묘에서 비슷한 것이 출토되어 돌궐 제2 제국 시기 중의 발해 시기와 겹치는 8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제2군 Ⅵ형식 등자는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출토품 1쌍이 있다(그림 15-1~2). 답환의 모양이 위가 조금 좁고 아래가 넓은 달걀 형태에 가깝다. 답환의 최대폭이 중간보다 더 아래에, 답환 테를 상하로 3등분하였을 때 아래 1/3보다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한다. 답환 최대폭이 발판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는 점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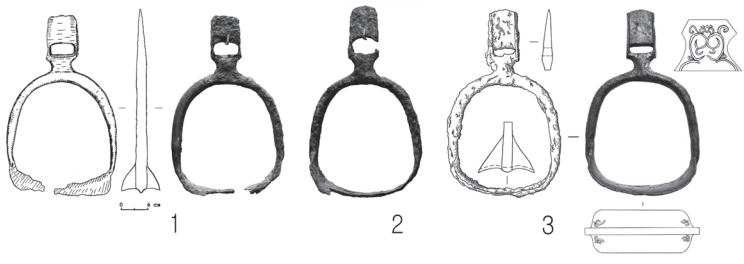


그림 15 제2군 Ⅵ형식 등자 비교 자료: 1~2-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3-발릭-소옥 1 고분군 11호 쿠르간(Кубарев, Г. В., 2005)

65 А. А. Гаврилова, 1965, 위의 책; 정석배, 2025a, 앞의 글, 86쪽 도면 4: 5.

66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64, 「唐永泰公主墓發掘簡報」, 『文物』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목된다. 병두가 다른 고구려·발해의 T자 단병 등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쭉하다. 이런 특징을 가진 등자는 돌궐 제2제국 시기(680~745)에 속하는 발릭-소옥 1 고분군 11호 쿠르간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그림 15-3),[67] 다른 시기 유적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등자의 사용 시기는 7세기 말~8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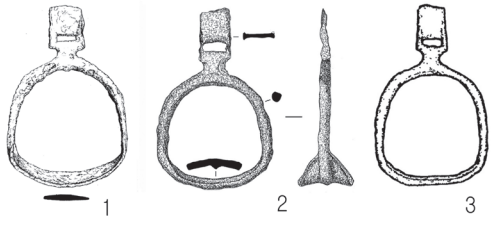


그림 16 제2군 Ⅷ형식 등자 비교 자료: 1-트로이츠코예 고분군 6호 무덤, 2-쿠라이카 2 고분군 1호 쿠르간(Константинов, Н. А. 외, 2021), 3-우준탈 1 고분군 2호 쿠르간(Савинов, Д. Г., 1982)

제2군 Ⅷ형식 등자는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6호 무덤 출토품(그림 16-1)이 있다.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6호 무덤 출토 철제 등자는 어떻게 보면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출토 등자와 형태가 유사하기도 하다. 길쭉한 장방형 병두의 모양은 물론이고, 답환의 최대폭이 중간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는 점, 답환 최대폭이 발판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답환의 세로 타원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와 같은 모양의 답환을 가진 T자 단병 등자는 알타이지역에서는 위구르 칸국(745~840) 시기에 속하는 투엑타 단계(8세기 후반~9세기 전반)와 키르기스 칸국(9세기 후반~11세기) 강성시대에 속하는 쿠라이-야코누르 단계(9세기 후반~10세기 전반)에 유행하였다. 투엑타 단계의 등자는 쿠라이카 2 고분군 1호 쿠르간 출토 철제 등자(그림 16-2)를,[68] 쿠라이-야코누르 단계의 등자는 우준탈 1

67 Г. В. Кубарев, 2005, 앞의 책; 정석배, 2025a, 앞의 글, 88쪽 도면 5: 13.

68 Н. А. Константинов, Серегин Н.Н., 2021, Погребально-помин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Курайка-2 (Юго-Восточный Алтай):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к истории тюрок в эпоху уйгурского каганата", *Сибирские исто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분군 2호 쿠르간(그림 16-3)[69] 출토 철제 등자를 각각 예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쿠라이-야코누르 단계에는 유스트드 14 고분군 2호 쿠르간 출토품(그림 17-4)[7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발판이 투공 문양으로 장식되는 예가 있어, 발판에 투공이 없는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6호 무덤 출토 등자는 알타이지역 투엑타 단계에 속하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2군 Ⅷ형식 등자는 집안 수습 1점이 있다(그림 17-1). 이 등자는 답환의 어깨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약되어 세로 길쭉한 모 둥근 삼각형을 연상시키고, 또 답환의 최대폭이 발판이 시작되는 곳 가까이 위치한다.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청동 등자가 742년이라는 기년을 가진 당 혜릉(惠陵) 양제(讓帝) 이헌(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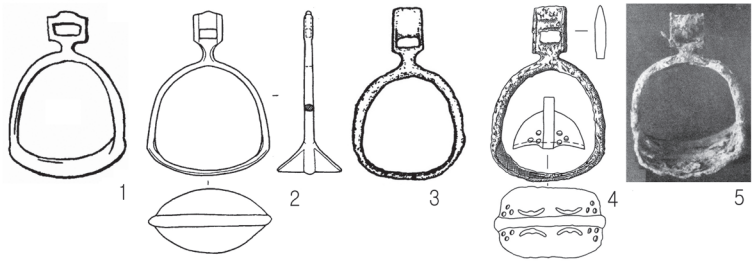


그림 17 제2군 Ⅷ형식 등자 비교 자료: 1-집안 수습품, 2-당 혜릉 양제 이헌 부부묘(陝西省考古研究所 編著, 2005), 3-우준탈 1 고분군 2호 쿠르간(Савинов, Д. Г., 1982), 4-유스트드 14 고분군 2호 쿠르간(Кубарев, Г. В., 2005), 5-적봉 대영자 1호 묘(前热河省博物館籌備組, 1956)

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4; 정석배, 2025a, 앞의 글, 91쪽 도면 16: 2.

69 Д. Г. Савинов, 1982, "Древнетюркские курганы Уэунтала (к вопросу о выделении кур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хеология Северной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정석배, 2025a, 앞의 글, 92쪽 도면 8:7.

70 Г. В. Кубарев, 2005, 앞의 책; 정석배, 2025a, 앞의 글, 92쪽 도면 8: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憲) 부부묘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그림 17-2).[71] 다만 이헌 부부묘 출토 등자는 재질이 청동이고 답환의 아랫부분이 집안 수습품에 비해 더 넓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집안 수습품은 고르느이 알타이 우준탈 1 고분군 2호 쿠르간 출토품(그림 17-3)[72] 및 유스트드 14 고분군 2호 쿠르간 출토품(그림 17-4)의 예로서 알 수 있듯이 고르느이 알타이의 키르기스 강성시대 쿠라이-야코누르 단계(9세기 후반~10세기 전반)에 속하는 철제 등자들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유스트드 14 고분군 2호 쿠르간 출토 등자는 발판이 투공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10세기 중엽 요나라 등자들에도 959년 요 부마증위국왕묘(駙馬贈衛國王墓)로 알려진 내몽골 적봉(赤峰) 대영자(大營子) 1호 묘 출토품(그림 17-5)[73]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발판에 투공이 출현한다. 따라서 투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집안 수습 등자는 요나라 이전 발해 후기 9세기 후반~10세기 1/4분기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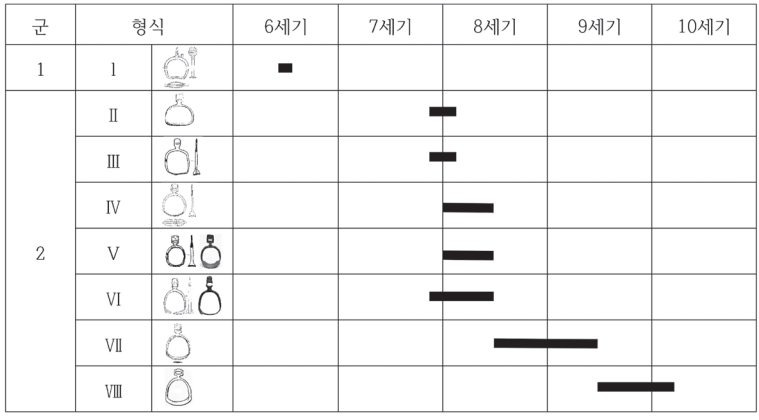


그림 18 고구려·발해 유적 발견 T자 단병 등자 편년표(필자 작성)

71 陝西省考古研究所 編著, 2005, 『唐李憲墓發掘報告』, 科學出版社.

72 Д. Г. Савинов, 1982, 앞의 글; 정석배, 2025a, 앞의 글, 92쪽 도면 8: 5.

73 前热河省博物館籌備組, 1956, 「赤峰縣大營子遼墓發掘報告」, 『考古學報』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상의 편년 설정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18〉과 같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고구려와 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T자 단병 등자의 현황, 특징과 분류, 편년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구려·발해 시기로 보고된 T자 단병 등자는 압록강 유역 패왕조산성 출토 1점 및 집안 수습 1점, 혼하 유역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4구역 3호 무덤 출토 1점 및 무순 고이산성 수습 1점, 제2 송화강 유역 영길 사리파 고분군 7호 무덤 출토 1쌍 2점 및 안도 동청 고분군 1호 무덤 출토 1점(병부 中자형 등자 2점과 공반 출토), 한강 유역 아차산 제4 보루 출토 1점, 제야-아무르강 유역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6호 무덤 출토 1점(8자형 등자 1점과 공반 출토) 및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출토 2점 등 모두 11점이 집계되었다. 다만 사진 혹은 도면은 10점이 확인된다. 모두 철제이다.

고구려와 발해 유적 발견 T자 단병 등자는 현수공이 있는 병두의 넓은 면이 대부분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측면을 향하는 것도 1점 있다. 측면으로 향하는 것은 제1군, 정면으로 향하는 것은 제2군으로 구분하였다. 현수공은 기본적으로 가로 장방형이며 병두의 아랫부분에 위치한다. 병두는 정면이 세로 장방형이나, 상대적으로 긴 것과 짧은 것이 구분된다. 병두 아래의 목, 즉 병경(柄頸)은 모두 짧다. 발판의 아랫면에는 확인되는 것은 모두 척농이 있다. 사실 T자 단병 등자는 이와 같은 특징을 대부분 공유한다. 그런데 답환의 정면 형태는 다양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답환의 형태를 기준으로 형식을 구분하였다. 제1군 1형식은 무게중심이 상부 어깨 부분에 있는 터널형이다. 제2군 Ⅱ형식은 어깨가 조금 축약된 가로 타원형이며 무게중심이 하부에 있다. 제2군 Ⅲ형식은 모 둥근 세로 장방형에 가깝다. 제2군 Ⅳ형식은 어깨가 조금 축약된 원형에 가까우며 무게중심이 중부 아래에 있다. 제2군 Ⅴ형식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짧은 세로 타원형이며 무게중심이 중부에 있다. 제2군 Ⅵ형식은 어깨가 조금 축약된 세로 타원형으로서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달걀 형태에 가깝다. 제2군 Ⅶ형식은 Ⅵ형식과 비슷한 형태이나 조금 짧다. 제2군 Ⅷ형식은 어깨가 많이 축약되어 모 둥근 삼각형에 가깝다.

각 형식 등자의 편년은 대부분 알타이 및 중국지역 등자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설정하고, 그 외에 대장식구와 같은 공반 유물도 함께 검토하였다. 중국지역의 기년명이 있는 자료들은 편년 설정에 특히 큰 도움이 된다. 제1군 1형식 아차산 제4보루 출토 등자는 550년 전후, 즉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제2군 Ⅱ형식 영길 사리파 7호 무덤 출토 등자와 Ⅲ형식 고이산성 발견 등자는 발해 건국 전후인 7세기 말~8세기 초로, Ⅳ형식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4구역 3호 무덤 출토 등자와 Ⅴ형식 안도 동청 1호 무덤 및 패왕조산성 출토 등자는 8세기 전반으로, Ⅵ형식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출토 등자는 7세기 말~8세기 전반으로, Ⅶ형식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6호 무덤 출토 등자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으로, Ⅷ형식 집안 수습 등자는 9세기 후반~10세기 1/4분기로 편년된다.

이 사실은 아차산 제4보루 출토 철제 등자만 확실히 고구려 것이라고 단정짓게 한다. 고구려 것이라는 혹은 발해 것이라는 논쟁이 있었던 고이산성 등자와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4구역 3호 무덤 등자는 모두 발해 시기에 속함이 틀림없다. 고구려 패왕조산성에서 출토된 T자 단병 등자도 발해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안 수습 T자 단병 등자는 고구려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해 시기 중에서도 후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발해 유적에서 출토된 병두의 넓은 면이 정면을 향하는 T자 단병 등자는 발해 건국 전후의 것을 포함한다면 모두 고구려 시기가 아니라 발해 시기의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08, 『트로이츠코예 고분군(본문편)』.

서울대학교박물관 외, 2000,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이성제 편, 2006, 『고구려성 사진 자료집: 중국 요녕성·길림성 서부』, 동북아역사재단.

정석배, 2024, 『발해 강역 연구』. 예지안.

정석배·박규진, 2023, 『발해유적총람Ⅳ-러시아지역』, 예지안.

중앙문화재연구원 묶음,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著, 2002, 『洞溝古墓群 1997年 調查側繪報告』, 科學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4, 『五女山城 -1996~1999, 2003年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2, 『石臺子山城(上)』, 文物出版社.

鄭永振·嚴長錄, 2000, 『渤海墓葬研究』, 吉林人民出版社.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3, 『鞏義芝田晋唐墓葬』, 科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0, 『唐長安城郊隋唐墓』, 文物出版社.

Гаврилова, А. А., 1965, *Могильник Кудыргэ как источник по истории алтайских племен*, М.-Л.: Наука. (가브릴로바 A. A., 1965, 『알타이 종족들의 역사 자료로서의 쿠드르게 고분군』, 모스크바-레닌그라드: 나우카).

Деревянко, Е. И., 1977, *Троицкий могильник*, Новосибирск. (데레뱐코 E. I., 1977,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노보시비르스크).

Кубарев, Г. В., 2005,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ков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쿠바레프 G. V., 2005, 『알타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고대 튀르크 문화. 고분 유적 자료를 통해』, 노보시비르스크).
Нестеров, С. П., 1998, *Народы Приамурь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Новосибирск. (네스테로프 S. P., 1998, 『중세 초기 아무르강 유역의 민족들』, 노보시비르스크).

논문

강인욱, 2006, 「고구려 등자의 발생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북방사논총』 12.
강현숙, 2009, 「고구려 고지의 발해 고분-중국 요녕지방 석실분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72.
_____, 2021, 「중국 길림성 안도 동청 고분군」, 『한국고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송기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진인진.
권도희, 2024, 「馬韓·百濟 地域 馬具 硏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두철, 2000, 「한국 고대 마구의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길, 2022, 「요금대(遼金代) 등자에 대한 단편적 고찰」, 『동북아역사논총』 78.
김일규, 2021, 「한·중 마구 비교를 통한 삼국시대 고고학 편년 조율」, 『고고광장』 29.
스토야킨 막심(Stoyakin Maksim), 2024, 「"오녀산성"식 등자에 대한 검토」, 『고구려·발해·북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Ⅴ(제5회 전국고구려발해학대회)』, 고구려발해학회.
신경철, 1985, 「古式鐙子考」, 『釜大史學』 9.
_____, 1994, 「加耶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 18.
양시은, 2022, 「고분과 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와 모용선비의 문화교류 양상」, 『고고학』 제21권 제2호.
연변박물관, 1994,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 『발해사연구』 3,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장윤정, 2014, 「馬具로 본 우리나라와 중국 동북지방의 교류」, 『문물연구』 25.
전기쁨, 2025, 「고구려 마구의 변천과 영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석배, 2025a, 「알타이지역 등자의 특징과 기원 문제」, 『고구려발해연구』 82.
_____, 2025b,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등자의 특징과 변천에 대해」, 『호남고고학보』 8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趙俊傑, 2024,「桓仁與集安地區高句麗山城防禦體系的形成」,『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교류』(2024년도 한중 역사·고고학 분야 학술세미나), 동북아역사재단.
최병현, 1983,「古新羅 鐙子考」,『崇實史學』1.
_____, 2014,「초기 등자의 발전」,『중앙고고연구』14.
_____, 2021,「한국 고대의 單鐙子 자료와 그 의의」,『고고학』20-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吉林永吉查里巴靺鞨墓地」,『文物』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馆, 2021,「吉林集安市霸王朝山城2015~2016年發掘簡報」,『考古』11.
董峰, 1993,「國內城中新發現的遺蹟和遺物」,『高句麗研究論文集』, 延邊大學出版社.
馬卉, 2020,「唐代馬鐙」,『文史知識』4.
武松, 2019,「渤海文化來源研究一以考古資料爲中心」,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撫順市文化局文物工作隊, 1964,「遼寧撫順高爾山古城祉調查簡報」,『考古』12.
方起東, 1962,「吉林輯安高句麗霸王朝山城」,『考古』11.
北京市文物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中國 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0,「1997年琉璃河遺址墓葬發掘簡報」,『文物』11.
山西省考古研究所, 2003,「北齊徐顯秀墓發掘簡報」,『文物』10.
山西省考古研究所·臨汾市文物考古工作站, 2015,「山西臨汾市西趙村唐墓發掘簡報」,『考古』6.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 1983,「太原市北齊婁叡墓發掘簡報」,『文物』10.
陝西省考古研究所 編著, 2005,『唐李憲墓發掘報告』, 科學出版社.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64,「唐永泰公主墓發掘簡報」,『文物』1.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2004年度 瀋陽石臺子山城高句麗墓葬發掘簡報」,『北方文物』2.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寧夏固原博物館, 1985,「寧夏固原北周李顯夫婦墓發掘簡報」,『文物』11.
楊丫, 2022,「遼墓出土馬鐙研究」,『華夏考古』4.
王鐵英, 2002,「馬鐙的起源」,『歐亞學刊』2.
柳涵, 1959,「北朝的鎧馬騎用」,『考古』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田立坤, 2013,「古镫新考」,『文物』11.
前热河省博物館籌備組, 1956,「赤峰縣大營子遼墓發掘報告」,『考古學報』3.
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2011,「鄭州市區西北部兩座唐墓發掘簡報」,『中原文物』4.
齊東方, 1993,「中國早期馬鐙的有關問題」,『文物』4.
朝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9,「遼寧朝陽唐代庫延安墓發掘簡報」,『文物』5.
集安縣文物保管所, 1979,「集安縣两座高句麗積石墓的清理」,『考古』1.
馮恩學, 2006,「黑水靺鞨思慕部探索」,『中國邊疆史地研究』2.

Болотин, Д. П., Сапунов, Б. С., Зайцев, Н. Н., Сапунов, И. Б., 1997, "Новый могильник эпох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в Приамурье",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этнографии, антропологии Сибири и сопредельных территорий, Том III*,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Новосибирск. (볼로푸 D. P., 사푸노프 B. S., 자이체프 N. N., 사푸노프 I. B., 1997,「아무르 유역 중세시대의 새로운 고분군」,『시베리아와 인접지역의 고고학, 민족지학, 형질인류학의 문제들』 권 III,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소 고고학민족학연구소 출판부, 노보시비르스크.).

Константинов, Н. А., Серегин Н. Н., 2021, "Погребально-помин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Курайка-2 (Юго-Восточный Алтай):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к истории тюрок в эпоху уйгурского каганата", *Сибирские истор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4. (콘스탄티노프 N. A., 세료긴 N. N., 2021,「쿠라이카-2 매장-추도 복합체(남동 알타이): 위구르 칸국 시대 튀르크 역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시베리아 역사 연구』No 4).

Могильников, В. А., 1994, "Культовые кольцевые оградки и курганы Кара-Кобы I",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 фольклорные источники по истории Алтая*, Горно-Алтайск. (모길니코프 V. A., 1994,「카라-코바 1 유적의 숭배 위석과 쿠르간들」,『알타이 역사 관련 고고학 및 민담 자료들』, 고르노-알타이스크).

Савинов, Д. Г., 1982, "Древнетюркские курганы Узунтала (к вопросу о выделении кур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Археология Северной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사비노프 D. G., 1982,「우준탈의 고대 튀르크 쿠르간들(쿠라이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분리 문제에 대해)」, 『북아시아의 고고학』, 노보시비르스크).

Стоякин, М. А., 2024, “Стремена Когурё на север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Маньчжурии: тупик или эволюция?”, *Народы и религии Евразии*. Т. 29, No 3. (스토야킨 М. А., 2024, 「한반도 북부와 만주의 고구려 등자: 막다른 골목 혹은 진화?」, 『유라시아의 민족들과 종교들』, Т. 29, No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고구려·발해 T자 단병 등자의 특징과 사용 시기 문제

정석배

T자 단병 등자는 고구려와 발해 시기에 사용한 등자의 한 종류이다. 그런데 고구려 것으로 소개된 T자 단병 등자 중에는 발해 시기에 사용되었다고 주장되는 것들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구려·발해 유적에서 발견된 T자 단병 등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 분석과 분류 작업을 하였으며, 고구려 시기에 사용된 것인지 발해 시기에 사용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편년 작업도 하였다.

고구려·발해 T자 단병 등자는 모두 11점이 집계되었다. 등자 발견 현황은 압록강 유역, 혼하 유역, 제2 송화강 유역, 한강 유역, 제야-아무르강 유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병두의 넓은 면이 측면을 향하는 것을 제1군, 정면을 향하는 것을 제2군으로 구분하고, 답환의 형태를 기준으로 모두 8개 형식을 설정하였다. 각 형식 등자의 편년은 대부분 알타이 및 중국지역 등자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설정하고, 그 외에 대장식구와 같은 공반 유물도 함께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제1군 1형식 등자, 즉 아차산 제4보루 출토 등자는 6세기 중엽, 제2군 Ⅱ형식과 Ⅲ형식 등자, 즉 사리파 7호 무덤 및 고이산성 등자는 발해 건국 전후인 7세기 말~8세기 초로, Ⅳ형식과 Ⅴ형식 등자, 즉 석대자산성 주변 고분군 제4구역 3호 무덤 및 동청 1호 무덤과 패왕조산성 등자는 8세기 전반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Ⅵ형식 등자, 즉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등자는 7세기 말~8세기 전반으로, Ⅶ형식 등자, 즉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6호 무덤 등자는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으로, Ⅷ형식 등자, 즉 집안 수습 등자는 9세기 후반~10세기 1/4분기로 편년되었다.

이 사실은 제1군 1형식 등자만 분명한 고구려 시기 등자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고구려·발해 유적에서 출토된 병두의 넓은 면이 정면을 향하는 제2군 T자 단병 등자는 발해 건국 전후의 것을 포함한다면 모두 고구려 시기가 아니라 발해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등자, 마구, 고구려, 발해, 알타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Chronological Issues of Goguryeo and Balhae T-shaped Short Handle Stirrups

Jung Sukbae

The T-shaped short handle stirrup is a type of stirrups used during the Goguryeo and Balhae periods. However, among the T-shaped short handle stirrups introduced as artifacts of Goguryeo, there are some that are argued to have been used during the Balhae period. In relation to this issue,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shaped short handle stirrups discovered at Goguryeo and Balhae sites,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classified them into types, and conducted chronological studies to determine whether they were used during the Goguryeo or Balhae periods.

A total of 11 Goguryeo and Balhae T-shaped short handle stirrups were recorded. The discovery sites were examined by region: the Amnokgang (Yalu) River basin, the Hunhe (Honha) River basin, the Second Songhua River basin, the Hangang River basi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Zeya-Amur River basin. The stirrups with head-loop facing the side were classified as Group 1, facing the front was classified as Group 2. Based on the shape of the bow, a total of eight types were established. The chronology of each type of stirrups was mostly deter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stirrups from the Altai and Chinese regions, while associated artifacts such as the belt decorations we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As a result: Group 1, Type I stirrup, such as that from the 4th Fortress of Achasan, was dated to the mid-6th century; Group 2, Types II and III stirrups, such as those from tomb No. 7 of Chaliba (Saripa) ancient burial ground and Gaoer (Goi) mountain Fortress, were dated to the late 7th to early 8th century around the founding of Balhae; Types IV and V stirrups, such as those from tomb No. 3 in the 4th section of the ancient burial ground nearby Shitaizi (Seokdaeja) mountain Fortress, the tomb No. 1 of Dongqing (Dongcheong) ancient burial ground and Bawangchao (Paewangjo) mountain Fortress, were dated to first half of 8th century; Type VI stirrups, such as those from the Lipovi Bugor ancient burial ground, were dated to the late 7th to first half 8th century; Type VII stirrup, such as that from tomb No. 6 of the Troitskoye ancient burial ground, was dated to second half of 8th to first half of 9th century; Type VIII stirrup, that is, the stirrup from the Jian (Jiban), was dated to second half 9th to first quarter of 10th century.

This indicates that only Group 1, Type I stirrups clearly belong to the Goguryeo period. Therefore, the Group 2 T-shaped short handle stirrups with the head-loop facing forward which were excavated in Goguryeo and Balhae sites are considered to have been used during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Balhae period, including those dating before and after the founding of Balhae, rather than during the Goguryeo period.

Keywords: Stirrup, Horse harness, Goguryeo, Balhae, Altai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08

5~6세기 백제·왜 관계와 이와이의 난

이태호 | 동국대학교 석사졸업

I. 머리말
II. 5세기 한반도-규슈지역의 정세
III. 6세기 초 백제의 대외전략과 이와이
IV. 이와이의 난과 백제의 대응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6세기 초반 일어났던 이와이(磐井)의 난은 왜를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었다. 난 이전의 왜는 독자성이 강한 수장연합체제로 각 지역 수장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외부와 독자적으로 교섭하였다. 그러나 이와이의 난을 거치면서 왜에서는 쿠니노미야즈코(國造)제 실시, 미야케(屯倉) 설치 등 대왕이 지방을 직접 통치할 발판이 마련되었고,[1] 한편으로 대왕이 외교권을 주도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하였다.[2]

이와이의 난에 대한 종전 인식은 고대 일본 내부의 반란으로 보는 견해가 강했으나,[3] 점차 연구가 진행되면서 규슈를 독립정권으로 보는 시각이 대두하였다.[4] 이는 이와이의 난이 국가형성을 지향하는 이와이가 게이타이(繼體) 정권에 대항하여 일으켰던 전쟁이었다는 견해로 발전하였다.[5] 최근에는 게이타이

---

* 투고: 2025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4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이태호, 2025「5~6세기 백제·왜 관계와 이와이의 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1 小田富士雄, 1975,『古代の日本 3 -九州-』, 角川書店, 173~174쪽; 熊谷公男, 2001,『大王から天皇へ(日本の歷史 3)』, 講談社, 170~173쪽.

2 九州歷史資料館, 2016,『八女の名宝』, 46쪽; 高田貫太, 2022「考古学による日朝関係史から見た「磐井の乱」」,『国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31, 260~262쪽.

3 藤間生大, 1951,『日本民族の形成』, 岩波書店, 210~214쪽; 田村圓澄, 1992,『筑紫の古代史』, 學生社, 135~137쪽.

4 山尾幸久, 1998,「文獻から見た磐井の乱」,『古代最大の內亂 磐井の亂』, 118쪽; 연민수, 2000,『고대한일관계사』, 혜안, 278쪽.

5 이러한 인식은 한국에서도 공유되어 이와이 측의 규슈 독립론과 신라 측의 왜국 분할론이 결탁하여 촉발된 사건으로 보는 견해(이재석, 2012,「6세기 초 筑紫國 磐井의 난과 신라」,『신라사학보』25, 75~76쪽)가 제기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권이 대외교섭권 및 외교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6] 한편, 한국학계에서는 백제·신라의 대리전이란 구도 속에서 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7]

이상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일본 학계에서는 이와이의 난을 고대 일본 국가 형성과정에서 일어난 고대 일본의 내부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우세한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이와이 난의 성격을 외부의 개입, 특히 백제·신라의 대리전으로 보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측 사료에서는 이와이의 난 당시 백제의 역할을 찾기 어렵다. 학계에 제시된 기왕의 논의에서도 백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이의 난을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 혹은 국가에 준하는 세력 간의 전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각 세력 간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은 부족하였다.

그런데 근래 규슈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고고학적 성과는 이 지역에 존재하던 다양한 세력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가능케 한다. 5세기 규슈에서는 쓰쿠시(筑紫)·토요(豊)·히(火)지역을 중심으로 백제·신라 관련 유적·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를 활용하여 분석한다면 5~6세기 규슈 내에서 백제·신라와 쓰쿠시·도요·히의 각 수장 세력 및 이와이와 왜 왕권의 구체적인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규슈에서 나타나는 고고학적인 동향을 적극 활용하여 5~6세기 규슈의 정세를 파악하고 이 지역에서 백제의 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와이의 난에서 백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6 柳沢一男, 2014, 『筑紫君磐井と「磐井の乱」, 岩戸山古墳』, 新泉社. 84쪽; 강은영, 2020, 「6세기 전반 계체왕조의 성립과 대외정책」, 『세계 역사와 문화연구』 57, 220~222쪽.

7 정효운, 2002, 「6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磐井의 乱」」, 『일어일문학연구』 43, 353쪽; 홍성화, 2019, 「『일본서기』 계체·흠명기에 보이는 신라와 왜의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51, 205쪽; 위가야, 2023, 「연동하는 전쟁, 6세기 삼국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한국고대사연구』 112, 22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5세기 한반도-규슈지역의 정세

5세기 백제의 규슈 진출 흔적은 주로 치쿠젠(筑前)·히젠(肥前)과 도요의 일부 지역, 즉 지금의 후쿠오카현 북부지역과 사가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이 중 백제계 유적으로 주로 언급되는 곳은 크게 네 곳으로 스키자키(鋤崎) 고분,[8] 로지(老司) 고분,[9] 가쓰우라미네노하타(勝浦峯ノ畑) 고분, 구도(久戸) 고분군이다. 이 외에 당시 치쿠젠 지역에는 백제 관련 취락 유적이 다수 존재하며, 이 취락 유적에서 마한계·백제계 토기도 다수 출토되어 백제와 왜의 교섭이 치쿠젠을 통하여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히젠에서도 다니구치(谷口) 고분과 요코타시모(横田下古墳) 고분 등 백제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유물·유적이 확인되는데,[10] 이로 보아 462년 무령왕 탄생 전승과 무령왕이 태어났을 당시 곤지가 규슈에서 1개월간 머물면서 지역 수장층과 교섭하였다는 설 역시 수긍할 만하다.[11] 다만 이 시기 규슈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백제 관련 고분들은 백제 묘제

8 吉田東明, 2017,「유적 유물상세, 후쿠오카현」,『일본 속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52~253쪽; 서현주, 2017,「유물 개관, 고분유적」,『일본 속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4, 37~39쪽; 정재윤, 2021,『무령왕 신화에서 역사로』, 푸른역사, 119~120쪽. 이 고분의 축조시기는 4세기 말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며, 백제 중앙의 영향을 받아 출현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출토 유물 또한 한반도 남서부에서 분포하는 양이직구부호가 출토되었다.

9 박천수, 2011,『일본 속의 고대 한일 문화』, 진인진, 204~206쪽; 吉田東明, 2017, 앞의 글, 245~247쪽; 서현주, 2017, 위의 글, 33, 37~39쪽; 정재윤, 2021, 앞의 책, 120~121쪽. 축조시기는 대체로 5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으며, 백제 중앙의 무덤 축조 기법을 수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백제의 영향 속에 축조된 규슈 최초의 횡구(혈)식 석실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환두병두도자는 유사 사례가 백제에서 많이 확인되어 백제를 경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0 佐賀県立博物館, 2020,『佐賀県立博物館50周年特別展 THIS IS SAGA』, 29쪽.

11 정재윤, 2007,「웅진시대 백제와 왜의 관계에 대한 예비적 고찰」,『백제문화』37, 7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수용하면서도 장송 의례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12] 관련 유적에서 출토되는 백제 유물도 토기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무나카타(宗像) 지역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 소재한 가쓰우라미네노하타 고분과 구도 고분군에서는 각각 금동제형관(金銅製形冠) 파편과 삼엽 둥근 고리칼 등이 출토되었다. 금동제형관 파편은 후술할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 고분, 공주 수촌리 4호분 등과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엽 둥근 고리칼은 청주 신봉동 12호분 등 한반도 백제 고분에서 유사 사례가 출토되고 있다. 무나카타 지역은 후술하겠지만 5세기 왜 왕권으로부터 다량의 갑주를 사여받았던 지역으로 당시 왜 왕권의 백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던 지역으로 판단된다. 이로 볼 때 5세기 초·중반 백제는 자국을 지원하였던 지역 수장들에게는 금동제형관 등 위세품을 사여하면서 각별히 신경 써 교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백제의 규슈 교섭이 개시된 5세기에 영산강 유역 세력 또한 규슈로 대규모 이주·정착하는 양상이 포착된다. 주로 치쿠젠의 무나카타 지역,[13] 도요의 미야코평야(京都平野)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무나카타에서는 아라지(在自) 유적군과 누야마부시하라(奴山伏原) 유적, 미야코평야에서는 이케노구치(池の口)·오니쿠마(鬼熊) 유적을 대표적인 유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주목할 점은 마한계 토기와 마한계 주거지인 사주식 주거지, 'ㄱ' 자 부뚜막·배수구와 같은 마한계 난방시설의 대량 유입 현상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14] 이러한 생활양식은 백제 문화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마한과 백제는 구별되는 별개의 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백제는 무나카타

12 서현주, 2017, 앞의 글, 37쪽.

13 무나카타에서는 특히 5~6세기 무나카타씨 일족의 유력자들이 묻힌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쓰야자키(津屋崎) 고분군 일대에서 많은 양의 마한 관련 유적·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14 전형민, 2023, 「고대 호남지역과 규슈지역의 주거지」, 『왕인박사 시기의 한·일 교류 고고학』, 주류성, 159~17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역과의 관계를 각별히 신경을 썼고, 후술하겠지만 6세기 초에는 미야코평야 지역과의 교섭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렇기에 해당 지역에 정착한 영산강 유역 집단이 백제와 대립하는 세력이었다면,[15] 백제의 규슈 교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규슈에서 나타나는 영산강 유역 세력과 백제인의 고고학적 흔적은 대립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양자의 주거지가 인접하는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16] 또한 규슈 지방호족 고분에서 백제계 위세품과 마한계 토기들이 공반되는 경우가 빈번히 확인된다.[17]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당시 백제의 규슈 교섭에서 영산강 유역 세력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 호남지역의 정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세기를 전후하여 호남지역에서는 고고학적 양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서해안과 영산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묘제들이 도입되며[18] 백제식 토기의 확산이 진행되는[19] 동시에 고창계 토기와 같이 지역색이 드러나는

---

15 김낙중, 2011, 「남해안지역 석실묘의 등장배경」,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35, 74쪽. 고분 축조는 피장자가 현지에 정착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당시 영산강 유역 세력이 반백제 세력이었다면, 옹관묘를 통해 백제와 구별되는 점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규슈에서 옹관묘가 드물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영산강 유역 세력이 백제에 구별되는 세력이었을지 의문스럽다.

16 히젠의 세부리산(背振山) 일대 노다(野田) 유적(백제계)과 우라타(浦田) 유적(마한계)이 그 사례이다. 두 유적은 백제계 금공품이 매납되어 백제와 연관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 세키교마루(関魚丸) 고분과도 인접해 있다.

17 무나카타 지역의 가쓰우라미네노하타 고분과 구도 고분군, 이케노우치 유적 인근에 반즈카 고분, 에다후나야마 고분이 대표적 사례이다.

18 최성락, 2017,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와 백제에 의한 통합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20, 23쪽; 서현주, 2014, 「출토유물로 본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 -5~6세기 토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1, 83쪽.

19 서현주, 2011, 「영산강유역 토기문화의 변천 양상과 백제화과정」, 『백제학보』 6, 9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지토기들이 등장한다.[20] 취락 또한 마한식에서 백제식으로 대체되는 모습이 나타난다.[21] 이를 대표하는 유적이 5세기 중반 조영된 광주 동림동 유적이다. 동림동 유적은 대형 창고군 65동과 주거 단위, 부대시설의 배열이 기획적으로 조성된 지방도시이다. 이 유적에서는 왜·소가야 토기를 비롯한 3,500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22] 이로 볼 때 당시 동림동 유적은 영산강 유역의 물산을 한성으로 보내는 물류 거점이자, 백제 중앙과 영산강·왜·소가야를 연결하는[23] 무역거점이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같은 시기 영산강 중하류 지역은 독자적인 묘제가 나타나고[24] 출토 토기에서도 백제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 양식의 유물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은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5세기 중반 이후 백제로부터 위세품을 사여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2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초고왕의 남정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은 영산강 유

---

20 김낙중, 2017, 「고대 고창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 56, 177~178쪽. 고창계 토기는 영산강 유역과 전체적인 기종 구성이 유사하지만 일부 특징적인 기종과 호류의 세부적인 기형·양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토기로만 놓고 보면 범(凡)영산강 유역권에서 나름 구별되는 문화적 독자성을 보여준다.

21 최성락, 2017, 앞의 글, 23쪽; 정일, 2023, 「영산강유역의 취락과 교통로에 대한 검토」, 『백제학보』 43, 55쪽.

22 이영철, 2016, 「백제 지방도시의 성립과 전개」, 『한국고대사연구』 81, 139~145쪽.

23 김규운, 2019, 「소가야」,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국립중앙박물관, 170쪽. 한성기 백제 권역에서 출토되는 가야계 유물은 거의 소가야 양식 토기이며, 이 소가야 양식 토기들은 왜계 유물들과 상당수 공반된다.

24 4세기 중엽, 영산강 유역 옹관의 변화(U자형)는 백제의 영역 확장에 맞서 마한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던 흔적이라 볼 수 있다(김낙중, 2004, 「영산강유역 옹관고분 발생배경」, 『문화재』 37, 56~59쪽).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U자형 옹관묘 등으로 나타나는 독자성을 고수한 지역과 백제적 성향을 보이는 지역이 함께 출현하였다(서현주, 2011, 「영산강유역 토기문화의 변천양상과 백제화과정」, 『백제학보』 6, 97쪽).

25 김태식, 2007, 「가야와의 관계」,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58~15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은 이후 점진적으로 백제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대 금석문이나 문헌기록에서도 당시 영산강 유역의 정치체들은 별도의 국명(國名)으로 등장하지 않는데,[26] 이를 두고 당시 마한의 해체와 백제로의 편입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27] 이로 볼 때 당시 영산강 유역 세력의 규슈 이주는 백제에 대한 반발로 이주한 집단도 있었겠지만, 백제의 지배에 협조하거나 백제화 된 세력들이 백제 중앙세력과 함께 규슈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28] 특히 백제 중앙은 후술할 미야코평야와 같은 유력 지역에 정착한 영산강 유역 세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세력과 교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당시 영산강 유역 세력과 백제는 긴밀한 협력 관계, 즉 사실상 하나의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시기 규슈 중남부의 치쿠고(筑後)와 히고(肥後)에서는 각각 쓰쿠시노키미(筑紫君) 세력과 히노키미(火君) 세력이 자신들을 상징하는 석제품(石製品)과 장식고분 등을 공유하며 수장 연합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와이 가문인 쓰쿠시노키미 일족의 근거지 야메(八女) 고분군은 5세기부터 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

26 366년 백제와 왜의 통교 과정에서 마한 사회는 일절 등장하지 않았다가 369년 근초고왕의 남정 당시 '남만(南蠻)'으로서 공격을 받는다. 이후 478년에 왜왕 무가 유송(劉宋)에 보낸 표문에서 "가는 길이 백제를 거쳐야 하므로 배를 준비하였는데"라고 하였다. 만약 이 지역이 백제와 구별되었다면, 왜왕 무는 표문에서 백제가 아닌 영산강 유역의 지명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또한 왜왕 무를 포함한 왜5왕들이 유송에 도독제군사호(都督諸軍事號)를 청구할 때 '모한(慕韓)'이라는 애매한 명칭 대신 영산강 일대 국명을 청구하려 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27 박찬규, 2010, 「문헌을 통해서 본 마한의 시말」, 『백제학보』 3, 18쪽. 비문에 기록된 "百殘南居韓"을 "백제 남쪽에 거주하는 (마)한"으로 해석하여, 4세기 후반 이미 마한지역이 전쟁에 동원되었다고 본다. 노중국, 2014, 「백제 한성도읍기 중앙과 지방의 성립과 지방통치」,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157~159쪽; 김기섭, 2021, 「4~5세기 백제의 인구와 남방영역」, 『한국고대사연구』 102, 244~247쪽.

28 특히 5세기 중반에 이르면 동림동 유적 건설, 백제의 무나카타 세력 교섭, 영산강 중하류 지역에 백제의 위세품 사여가 동시에 일어난다. 또한 규슈에서 옹관묘 축조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백제와 가까웠던 영산강 상류는 물론 비교적 독자성을 나타내는 영산강 중하류 지역 역시 백제와 큰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영되었다. 이 중 5세기 초반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피장자가 이와이의 조부로 여겨지는 세키진산(石人山) 고분은 치쿠고 일대 최초의 전방후원분으로 평가된다. 이 고분은 5세기 규슈에 등장하는 횡혈(구)식 석실분의 이른 사례로, 석관에 그려진 직호문(直弧文)과 원문(圓文) 등의 문양은 규슈에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 장식고분의 성격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장식고분은 '제마진혼(除魔鎭魂)'적 성격을 담고 있는데, 4~5세기 무렵 기나이·산인(山陰) 지방에서 시작되어 5세기에 규슈의 장식고분으로 발전하였으며,[29] 규슈에서는 구마모토 남서부 야쓰시로해(八代海)를 시작으로 아리아케해(有明海) 일대에서 유행하였다. 그러나 같은 아리아케해에서도 직호문과 원문 문양을 장식하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히고에서는 횡혈식석실에 문양을 새겼던 반면 치쿠고 지역에서는 가형석관(家形石棺)에 문양을 새겼다. 세키진산 고분 석관의 사례도 이에 속한다.[30] 한편, 세키진산 고분 석관은 구마모토현 아소산을 중심으로 퍼진 아소석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즉, 쓰쿠시노키미 세력은 왜 왕권과 관계를 맺고 있던 히노키미 세력으로부터 묘제와 장법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31]

『치쿠고국풍토기(筑後國風土記)』에서는 이와이의 무덤인 이와토야마(岩戶山) 고분에 석인(石人)·석마(石盾) 등 돌과 관련한 유물들이 많았다고 전하는데,[32] 실제로 유적에서는 수백여 점의 석제품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석제품들은 수장층 무덤인 전방후원분에서 대거 나타나는데, 야메 고분군에서는 전술한 세

29 小田富士雄, 1987, 『九州の古代文化12講』, 文榮出版, 110~111쪽; 東京國立博物館編, 2024, 『特別展 はにわ』, 55, 63, 242~245쪽. 기나이의 경우 직호문과 원문등의 문양은 하니와에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4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방패형 하니와(奈良市 佐紀陵山畿 고분 출토), 그리고 5세기로 추정되는 화살통 하니와(大阪府 墓山 고분 출토)가 있다.

30 柳沢一男, 2022, 『裝飾古墳ガイドブック』, 新泉社, 18~21쪽.

31 柳沢一男, 2022, 위의 책, 54~57쪽.

32 "上妻縣 縣南二里, 有筑紫君磐井之墓. 墳高七丈, 周六十丈, 墓田南北各六十丈, 東西各卅丈. 石人, 石盾各六十枚, 交陣成行, 周匝四面.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키진산 고분에서 처음 등장한다. 지역적으로는 이와이 세력의 근거지 치쿠고와 히노키미 세력권인 히고, 즉 아리아케해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이를 상징하는 석제품은 이들이 몰락한 이후인 6세기 말까지 지속된다는 견해가 있다.[33] 그래서 이 석제품의 분포 양상을 근거로 규슈를 기나이와 별개의 세력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한편, 신라 또한 5세기 초부터 북규슈와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미사흔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고위급 인물의 도왜(渡倭)가 이루어졌는데,[34]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고고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5세기 초반 후쿠오카현 온가가와 일대의 가호(嘉穗) 분지와 다가와(田川) 분지에서는 신라계 도왜인의 이주·정착 정황이 포착된다. 가호 분지에서는 하제야마(櫨山) 고분과 오바사니시(小正西) 고분이, 다가와 분지에서는 세스도노(セスドノ) 고분과 네코자코(猫迫) 고분이 대표적이다. 이들 고분에서는 금제대금구(金製帶金具), 등자, 마구(馬具) 펜던트 등 신라의 위세품들이 주로 출토되고 있다. 5세기 중반 이후 신라는 아사쿠라(朝倉), 우키하(浮羽) 등 치쿠시노키미 세력의 근거지인 치쿠고 지역과도 교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고분으로는 쓰쓰미하스마치(堤蓮町) 1호분과 쓰키노오카(月岡) 고분이 있으며, 이들 고분에서는 삼루환두(三累環頭)와 용문조금대금구(龍文彫金帶金具)

33 柳沢一男, 2014, 앞의 책, 54~59쪽.

34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實聖尼師今 元年 3月;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2年; 『日本書紀』 권 9, 神功皇后 5年 3月. 미사흔으로 대표되는 인물의 도왜 지역을 두고 諸說이 존재한다. 이 시기 기나이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사흔 파견 이후에도 왜의 침입이 지속된 점, 평서장군 倭隨와 이와이 등 규슈가 기나이와 별개의 세력으로 여겨질 만큼 규슈의 영향력도 대단했다는 점, 이와이 난의 종결 이후에서야 외교 교섭권이 단일화된 점 등을 볼 때, 당시 미사흔 혹은 그에 상응하는 인물은 기나이보다는 북규슈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사흔이 도왜한 지역을 규슈로 보는 견해로는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김택균, 1990, 「『삼국사기』 신라의 對倭 관계 기사 분석」, 『강원사학』 6, 30~31쪽; 연민수, 2000, 앞의 책, 387~394쪽; 조한정, 2011, 「박제상과 5세기 신라정치」, 『동아시아고대학』 25, 55~56쪽; 채미하, 2012, 「堤上의 未斯欣 구출 과정과 신라의 성장」, 『신라사학보』 25, 3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등이 출토되었다. 정리하면 신라는 5세기 전반부터 치쿠젠과 도요는 물론 쓰쿠시노키미 세력권인 치쿠고 인근에서도 활발히 교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점은 출토 유물들이 당시 신라에서 최상위 계급들만 사용하던 위세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분의 피장자는 정치적 배경을 지닌 신라계 도왜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후일 신라와 이와이의 동맹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5세기 말 양자의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한 정황은 『풍토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히젠·부젠(豊前)·치쿠젠 지역의 『풍토기』에는 신라 관계 기사가 등장하는데, 특히 치쿠젠 지역의 『풍토기』 기록 거의 대부분은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신라 침공 전승이 대부분이다. 해당 기사들을 문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통해 당시 치쿠젠을 중심으로 하는 북규슈와 신라와의 긴밀한 연결성을 엿볼 수 있다.[35]

한편, 부젠의 미야코평야[36]에서는 독특한 동향이 포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간다마치에 소재한 이시즈카야마(石塚山) 고분이다(총길이 130m). 이 고분은 3세기 후반 규슈 최초로 기나이식 묘제를 '정형화'된 양식 그대로 수용한 사례로 주목된다.[37] 또한 『일본서기』에는 게이코덴노(景行天皇)의 규슈 순행 기사에서 미야코평야의 유래에 대해 전하는데, 이를 통해 왜 왕권이 이 지역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38] 이러한 왜 왕권의 미야코 평야 중시 경향은 5세기에

35 『肥前国風土記』, 『風土記逸文 豊前国』, 『風土記逸文 筑前国』; 연민수, 2000, 위의 책, 392~394쪽. 또한 17세기 조선통신사의 일기에 의하면 후쿠오카현 하카타만 인근에 박제상의 무덤이 있었고 이에 정몽주, 신숙주 등이 일본에 사신으로 올 때 참배하였다고 한다. 전승에 불과하지만 미사흔의 사례와 당시 규슈에서의 고고학적인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신라와 북규슈지역의 깊은 관계를 추측해볼 수 있다.

36 미야코평야는 현 후쿠오카현 미야코군 칸다마치, 유쿠하시시, 치쿠조군(築上郡)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37 苅田町郷土史研究会, 2016, 『豊前 石塚山古墳 復刻板』, 苅田町郷土史研究会, 6쪽.

38 『日本書紀』 권 7, 景行天皇, "十二年 九月, … 天皇遂幸筑紫, 到豊前國 長峡縣, 興行宮而居. 故號其處曰京也.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이어지는데, 5세기 당시 기나이 정권이 하위 세력에게 분배하던 갑주의 매납 사례를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기나이, 다음으로는 규슈가 꼽힌다. 규슈에서는 치쿠고·무나카타·미야코 평야에서 출토된 갑주가 규슈 출토 갑주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밀집되어 출토된다.[39] 이러한 갑주 출토 양상을 통해 본다면 미야코평야 지역의 여러 세력들은 5세기 초에도 왜 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왜 왕권의 백제 지원[40] 당시에도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동원 과정에서 이들은 백제 왕권과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양자 간의 관계는 후술할 백제의 반즈카 고분 세력 포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41]

이후 5세기 말을 전후로 하여 규슈를 비롯한 주변 세력의 동향이 급변하기 시작한다. 한성 함락(475) 이후 백제·신라·가야는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 연대[42]

---

39 行橋市教育委員會, 2012, 『大王に仕えた豊の豪族』, 4쪽.

40 『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 아신왕은 397년 태자 전지를 왜에 파견하였다(『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아신왕 6년). 이어 402년에는 백제가 왜에 사신을 보냈고(『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아신왕 11년), 403년에는 왜가 백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아신왕 12년). 한편, 「광개토왕비문」에 의하면, 399년 백제는 왜와 和通한 후 가야까지 끌어들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했고, 고구려는 400년에 步騎 5만 명을 파견하여 백제·왜·가야 연합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또한 404년에는 왜의 병력이 대방 일대를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백제의 요청에 따른 공격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장미애, 2024, 「4세기 후반 ~5세기 초 백제-고구려 전쟁과 백제-왜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80, 89쪽). 따라서 아신왕 재위기(392~405) 동안 왜 왕권은 백제의 요청에 따라 최소 세 차례 이상 병력을 파견했다고 볼 수 있다.

41 전술하였던 이케노우치 유적에서는 5세기 초반에 마한계 주거양식과 난방시설이 도입된 후 5세기 중반이 되면 취락의 다수를 점한다(전형민, 위의 책, 2023, 161쪽). 또한 반즈카 고분 근처 오니쿠마 유적에서는 마한계 토기가 출토하였다(吉田東明, 2017, 「유적 유물상세, 후쿠오카현」, 『일본 속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01~302쪽). 이로 볼 때 백제는 對고구려전 당시 이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 이후에는 영산강 유역 세력을 통해 이들을 포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42 『三國史記』, 「新羅本紀」 권 3 炤知麻立干 三年(481)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였으나 이러한 3국의 연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웅진천도 이후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였던 동성왕은 한성함락으로 인해 상실한 경제적 기반확충과 안정적인 대왜교섭로 개척을 위해 남진을 시도하였는데 이때 섬진강 유역을 주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지역을 통해 활발한 대왜교섭을 진행하던 대가야와 충돌[43]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에 동성왕은 섬진강유역 대신 영산강 유역으로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유역은 한성 함락 이후 일시적으로 백제의 통제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만, 백제는 동림동 유적을 중심으로 지배 체제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진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료 A-1에 등장하는 지명은 대체로 백제가 한성기 말 진출했던 지역[44]과 일정 정도 일치한다. 고고학적으로도 5세기 말~6세기 초 나주 랑동·다시들 유적에서 백제계 취락·유물이 확인되는데, 두 유적에서 나타나는 백제식 주거양식과 부뚜막 등은[45] 동성왕이 영산강 유역으로 남진했을 가능성을 더해준다.

A-1 … 영삭장군 면중왕 저근은 … 가행관군장군·도장군·도한왕으로, 건위장군·팔중후 여고는 … 가행영삭장군·아착왕으로, 건위장군 여력은 … 가행용양장군·매로왕으로, 광무장군 여고는 … 가행건위장군·불사후라 하였습니다.” … 건무 2년(495) … 지금 임시로 사법명을 행정로장군·매라왕으로, 찬수류를 행안국

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43 487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기생반숙녜의 난(『日本書紀』 권 15, 顯宗天皇 3年)을 백제와 가야의 충돌로 보는 견해가 많다(신가영, 2020, 「4~6세기 加耶 諸國의 동향과 국제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9~110쪽; 김병남, 2006,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군사』 61, 38~43쪽; 연민수, 1998, 앞의 책, 169~172쪽). 기생반숙녜의 난의 결과는 백제의 승리로 귀결되지만, 이후에도 대가야가 섬진강을 통해 활발히 대왜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 궁극적으로 동성왕의 섬진강 유역 진출은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44 김태식, 2007, 앞의 책, 166~170쪽.

45 이영철, 2016, 앞의 글, 129~1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군·벽중왕으로, 해례곤을 행무위장군·불중후로 삼았고, 목간나는 … 행광위장군·면중후로 삼았습니다. …[46]

A-2 병관좌평 진로가 죽자 달솔 연돌을 병관좌평으로 삼았다.[47]

A-3 왕이 탐라가 공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직접 정벌하려고 무진주에 이르니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빌었으므로 그만두었다. …[48]

한편, 백제는 493년 신라와 혼인동맹[49]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후 사료 A-1과 사료 A-2 사이 시점에 양국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496년 고구려는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해[50] 함락시켰는데,[51] 백제는 이를 방관하였다. 이후 동성왕은 사망하기 전까지 신라를 경계하였는데,[52] 여기서 사료 B가 주목된다.

---

46 『南齊書』 권 58, 列傳 39, 百濟. (前缺), "… 寧朔將軍·面中王姐瑾, … 今假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 建威將軍·八中侯餘古, … 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建威將軍餘歷, …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廣武將軍餘固, … 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建武二年, 牟大遣使上表曰: … "今假沙法名行征虜將軍·邁羅王, 贊首流爲行安國將軍·辟中王, 解禮昆爲行武威將軍·弗中侯, 木干 … 爲行廣威將軍·面中侯."

47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東城王, "十九年(497), 夏五月, 兵官佐平眞老卒, 拜達率燕突爲兵官佐平."

48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東城王, " 二十年(498)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

49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炤智痲立干, 十五年 三月;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東城王, 十五年 三月.

50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炤智痲立干 十八年 7月; 『三國史記』 권 19, 高句麗本紀 7, 文咨王 5年 7月.

51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炤智痲立干 19年 8月; 『三國史記』 권 19, 高句麗本紀 7, 文咨王 6年 8月.

52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東城王 20年 7月;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東城王 23年 7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 가야국이 흰 꿩을 보냈는데, 꼬리 길이가 5척이었다.[53]

사료 B는 대체로 대가야의 접근을 신라가 받아들여 양국이 관계 개선을 한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54] 당시 신라는 대가야와 백제의 불화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신라가 대가야의 접근을 받아들인 모종의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와이의 동향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5세기 말 왜 왕권에서는 동성왕과 밀접했던 유라쿠계(雄略系)가 몰락하고 유라쿠계와 악연이 깊었던 가쓰라기계(葛城系)가 재집권하는 왕통변동이 진행되었다.[55]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아 극심한 혼란[56]이 수반되었고, 왜 왕권의 지방 통제력도 약화되어 왜 각지에서 지방 세력들이 대두하였다.

이때 치쿠고의 이와이는 왜의 입구에 해당하는 쓰쿠시를 장악하여 대외교섭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하지만 백제는 이와이가 아닌 전통적인 교섭창구인 기나이와의 교섭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57] 이에 이와이는 백제의 기나이 교섭을 방해하여 기나이를 비롯한 왜 내부 사회의 경쟁자들이 선진 문물을 입수할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러한 이와이의 행보는

---

53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炤智麻立干, "十八年(496), 春二月,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54 박민경, 2017,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왜관계-개로왕·동성왕대를 중심으로」, 『사림』 60, 146쪽; 김병남, 2019, 「496년 고구려의 우산성 공격 의미와 나·제의 대응」, 『전북사학』 56, 24쪽.

55 이재석, 2004, 「5세기 백제와 왜국의 관계」, 『백제연구』 39, 58~59쪽.

56 都出比呂志, 2013, 『전방후원분과 사회』, 학연문화사, 400~406쪽. 고고학적으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그리고 다시 '6세기 초'에 단기간에 두 번이나 전방후원분 수장 계보에 단절이 확인된다.

57 동성왕대 파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다랑의 사망 기사(『日本書紀』 권 16, 武烈天皇 3년 11월)나 기나이 일대에서 5세기 후반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백제계 횡혈식석실분인 다카이다(高井田山) 고분 등을 볼 때 5세기 말 백제와 기나이의 교섭은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柏原歷史資料館, 2023, 『百済の王族が眠る? 高井田山古墳』, 柏原歷史資料館, 30~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가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가야는 5세기 후반 이후 대왜교섭로인 섬진강유역과 여수·순천반도를 장악하였고 이 지역을 통해 광범위한 대왜교섭을 활발히 전개해나갔다.[58] 하지만 백제 또한 대왜교섭을 할 때 여수·순천반도를 통과하여야 했기 때문에 백제와 대가야의 긴장 관계는 심화되었을 것이다. 대가야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와이 세력과 제휴하여 백제를 견제하는 동시에 신라와의 관계개선에 나선 것이 아닐까 싶다. 소지마립간 시기 신라는 왜의 침입을 지속적으로 받았다.[59]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를 통해 왜의 침입을 막고 싶었겠지만, 당시 왜의 집권 세력과 불편한 관계였던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반면 당시 대가야는 활발한 대왜교섭을 통해 왜의 지방 세력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신라는 이러한 대가야를 주목하여 대가야의 관계개선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외교섭로를 장악하여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세를 점하려는 이와이와, 백제를 견제하면서 활발한 대왜교섭을 유지하려는 대가야의 이해가 일치하여 양 세력이 백제의 기나이교섭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가야·이와이의 방해로 기나이교섭이 어려워진 동성왕은 때마침 신라와

---

58 박천수, 2023, 『고대한일교류사』, 경북대학교출판부. 495~507쪽. 특히 구마모토현의 에다후나야마 고분과 사이타마현의 이나리야마(稲荷山) 고분의 경우 피장자가 왜 왕권의 신하임이 명문된 대도가 출토되어 왜 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볼 수 있는데, 해당 고분에서 대가야계 토기·위신재가 다량 부장된 점이 확인된다. 이로 볼 때 당시 왜에서 대가야의 영향력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시기 대가야는 이와이 세력과의 직접 교섭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이의 근거지인 야메지역에서 가야계 위세품이 등장한다(柳沢一男, 2014, 앞의 책, 83~84쪽). 야메지역에서 백제·신라계 위세품의 등장사례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이와이 세력과의 깊은 연계성도 찾아볼 수 있다.

59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4年(482) 5月;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8年(486) 4月;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19年(497) 4月;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22年(500) 3月. 대가야와 관계개선이 있었던 496년 이후 497년과 500년에 왜군의 침입이 있었지만 500년 이후로 왜군의 침입기사는 사라진다. 이로 볼 때 여러 과정을 거쳐 최소한 500년 무렵부터 신라와 북규슈와의 우호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가야의 관계가 긴밀해지자 신라의 진의를 의심하였고, 나아가 나제동맹을 통해 한강 유역을 회복한다는 전략에도 회의를 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오히려 왜의 지원을 통해 고구려와 맞서려 하지 않았을까 싶다. 대왜교섭로인 영산강 중하류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병권을 장악하였던 진로 생전에는 신라 구원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하다가, 진로 사후 연돌을 병관좌평으로 직접 임명한 후(A-2), 탐라의 조공 불이행을 명분으로 동성왕이 친정을 시행하였다(A-3). 이때의 친정으로 백제는 영산강 전역을 영향력 아래 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호남 동부를 장악한 대가야의 존재는 여전히 왜 왕권과 원활한 교섭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를 보여주는 기사가 후술할 사료 C-1이라 생각된다. 이에 동성왕은 섬진강 유역 장악을 다음 목표로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왕의 이러한 구상은 한강 유역 회복이라는 국시(國是)를 중요시하는 남래 귀족과 왕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동성왕의 시해로 좌절되었다.

Ⅲ. 6세기 초 백제의 대외전략과 이와이

무령왕은 즉위 이후(501) 동성왕 말기 퇴색되었던 한강 회복의 기치를 다시 내걸고 10여 년간 고구려와 교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신라와 냉랭한 관계는 계속되어 결국 백제 단독으로 고구려와 교전을 치르는 형국이었다. 무령왕은 이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외교적 고립을 우려하였고, 이에 왜의 동향에 촉각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장에서 보았듯 이와이와 대가야의 방해로 백제와 기나이 간의 소통은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에 무령왕은 이와이에 포섭되지 않았던 규슈의 지방 세력을 비롯한 왜의 지방 정권들과 우선적으로 교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통해 이와이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포섭·규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1 10월에 백제국이 마나군을 보내어 조(調)를 바쳤다. 천황은 백제가 몇 년 동안 조공하지 않았다고 여겨 사자를 억류하여 놓아주지 않았다.[60]

C-2 4월에 백제왕이 사아군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별도로 "지난번에 조공한 사신 마나는 백제국주의 골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가 사아를 보내어 조정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표를 올렸다.[61]

C-3 2월, 사신을 백제에 보냈다. …[62]

백제는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기나이와의 접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계 개선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다. 문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해 동안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백제 사절을 '억류'했다는 표현이 등장(사료 C-1)하기 때문이다.[63] 이에 무령왕은 골족[64] 사아군(斯我君)을 사신으로 파견하여(C-2),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즉위한 게이타이 덴노는 백제에 선제적으로 사신을 파견했으며(C-3), 이를 기점

60 『日本書紀』 권 16, 武烈天皇, "六年(504) 冬十月, 百濟國遣麻那君進調. 天皇以爲, 百濟歷年不脩貢職. 留而不放."

61 『日本書紀』 권 16, 武烈天皇, "七年(505) 夏四月, 百濟王遣斯我君進調. 別表曰, 前進調使麻那者, 非百濟國主之骨族也. 故謹遣斯我, 奉事於朝. 遂有子, 曰法師君. 是倭君之先也."

62 『日本書紀』 권 17, 繼體天皇, "三年(509) 三年 春二月, 遣使于百濟 …."

63 이를 두고 동성왕 시기 소원했던 양국 관계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민경, 2015, 「6~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42쪽). 그러나 전하는 자료의 맥락상 磐井 세력과 대가야의 방해로 인해 수년간 원활한 교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힐난과 백제가 자신들에 앞서 지방 세력과 교섭한 것을 두고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단순히 양국 관계가 소원해진 것만을 구실로 사신을 억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64 노중국, 2008, 「백제의 骨族 의식과 骨族 범위」, 『한국고대사연구』 50, 209쪽. 당시 骨族의 범위는 同高祖 8촌 이내라는 견해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 우호 관계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백제가 비(非)이와이 세력과의 교섭을 강화하였다면, 당시 백제와 연결된 세력은 어디였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주목되는 지역은 히젠이다. 백제의 히젠 진출은 462년 곤지의 체류를 획기로 지목할 수 있다. 곤지 체류 이후 가라쓰시에서 시마다즈카(島田塚) 고분이, 사가시에서는 세키교마루 고분이 조영되었고, 해당 고분들에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되었던 금동관·금동완 등과 유사한 금공품이 출토되었다.[65] 이들 고분의 축조 시기가 5세기말~6세기 초라는 점에서 이러한 고고학적 양상을 통해 당시 백제 왕권과 히젠 지역 수장세력 간의 교섭·교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키교마루 고분이 소재한 세부리산 일대에는 노다 유적, 우라타 유적 등 백제계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유적들도 확인된다. 이로 볼 때 백제계 도왜인들의 이주·정착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으로 도요 지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세기 말~6세기 초에 간다마치에서는 반즈카 고분(총길이 50m)이 등장하는데 이 고분에서는 괘갑(挂甲)이 출토되었다. 왜에서 당시 괘갑 매납 사례는 희소하여 규슈에서도 네 곳의 전방후원분에서만 출토되었는데,[66] 그중 한 사례가 반즈카 고분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야코평야의 여러 고분군에서는 단갑(短甲) 위주의 사례가 이어진다.[67] 이를 종합한다면 규슈에서 반즈카 고분 피장자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세력은 드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반즈카 고분에서 친백제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유물이 등장한다. 6세기 초로 추정되는 반즈카 고분의 2차장 단계에서

---

65 渕ノ上隆介, 2017, 「유적 유물상세, 佐賀縣」, 『일본 속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54~356쪽; 박천수, 2011, 앞의 책, 188~189, 191~192쪽; 佐賀県立博物館, 2020, 앞의 책, 30쪽.

66 行橋市教育委員會, 2012, 앞의 책, 19쪽. "규슈 후쿠오카현 후쿠츠시의 勝浦井ノ浦 고분(무나카타), 우키하시의 塚堂 고분(치쿠고), 佐賀縣 目達原 고분군에서 5기(히젠), 간다마치의 반즈카 고분(부젠)을 포함하여 7~8기의 전방후원분에서 출토되었다."

67 行橋市教育委員會, 2012, 위의 책, 19~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목관과 관정, 꺾쇠가 출토되었다. 이는 반즈카 고분 세력이 규슈에서 백제의 장송 의례를 최초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주목된다.[68]

백제가 반즈카 고분 세력과의 교섭을 시도한 배경에는 이 지역 세력들과 백제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전술하였듯이 5세기 초 규슈의 미야코 평야 세력 및 무나카타 등의 세력은 백제에 파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무나카타의 가쓰우라미네노하타 고분의 경우는 백제가 금동제형관까지 하사할 정도로 각별히 신경을 쓰며 교섭을 이어나간 모습을 보여준다. 미야코 평야의 경우 천혜의 입지를 갖춘 항구로 기나이와의 교섭에서 아주 중요한 중간 기착지였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이 지역 유력자들과 교섭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69] 그런데 이와이의 축자 장악 이후 백제·왜 왕권 간 교류가 어려워지자, 왜 왕권과 백제는 이와이를 견제하기 위해 반즈카 고분 피장자에게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곧 양자의 접근을 반즈카 고분 세력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괘갑과 '백제식 목관'이 매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무령왕은 대가야 방면 진출도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성왕 시기와는 달리 주변국과 외교 교섭을 마친 후 대가야로의 진출을 시도한다. 무령왕은 512년 4월에 대양(對梁) 교섭을 추진하였고,[70] 9월을 기점으로 백제·고구려 양국은 10여 년간 전투를 멈추게 된다. 이후 백제는 12월에 가야 문제를 두고 왜와 교섭을 마친 뒤,[71] 513년부터 임나 4현·기문·다사진을 두고 본격적으로 대가야와의 교전을 치렀다.

> D. 보통 2년(521), …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하여 이제 비로소 (고구려와) 통호를 맺었다. … [72]

---

68 吉田東明, 2017, 앞의 글, 249~250쪽; 박천수, 2011, 앞의 책, 255~256쪽; 정재윤, 2021, 앞의 책, 126~127쪽; 서현주, 2017, 앞의 글, 37~38쪽.

69 行橋市教育委員會, 2016, 『発掘された港町－延永ヤヨミ園遺跡』, 3쪽.

70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武寧王 12年 4月.

71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6年 12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편, 백제가 10여 년이나 남진에 집중하였음에도 고구려가 해당시기 백제를 공격하지 않았던 점이 의아하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의 대양 교섭 기사(사료 D)를 주목해볼 수 있다. 백제가 양에 보낸 표문에서 백제의 통호(通好) 대상을 두고 학계에서는 고구려[73]와 양으로 보는 견해[74]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백제와 양은 이미 512년에 첫 교섭을 가졌었기 때문에 통호를 다시 언급하기는 어색하다. 반면 고구려와 백제는 512년 9월 전투를 끝으로 충돌 기사가 확인되지 않고,[75] 이후 백제는 가야 방면 진출에 주력하였다. 이로 볼 때 백제와 고구려는 512년 9월 전투 이후 어느 시점에 화호를 맺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76] 이와 함께 백제가 양과 교섭한 512년과 521년은 가야 진출의 시작(513) 및 종결(522)과 연동하여 추진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즉, 백제가 가야 진출을 위해 왜·양·고구려 3국과 교섭하며 북변 안정과 국제적 공인을 함께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E. 11월 5일, 백제의 저미문귀, 사라의 문득지, 안라의 신이해 및 분파위좌, 반파의 기전해와 죽문지 등을 조정으로 불러 칙명을 받들어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72 『梁書』 권 54, 列傳 48, 百濟, "普通二年(521), … 稱累破句驪, 今始與通好 …."

73 서보경, 2003, 「5세기 말~6세기 초 한반도 제국과 왜국의 관계」, 『선사와 고대』 18, 223~224쪽; 박찬우, 2022, 「백제의 외교문서와 남북조 외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0~202쪽.

74 노중국, 2012, 「무령왕대 백제의 동아시아 상에서의 위상」, 『백제문화』 46, 21쪽; 위가야, 2019, 「백제 무령왕대 '更爲强國'설의 재검토」, 『韓國古代史硏究』 95, 88~97쪽.

75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武寧王 12年 9月; 『三國史記』 권 19, 高句麗本紀 7, 文咨王 21年 9月.

76 선행 연구에서는 512년 당시 고구려가 신라의 성장을 경계하여 백제와 和好를 통해 신라의 팽창을 저지하려 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당시 백제의 주 관심은 남방 진출이었는데, 이는 고구려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신라에게는 직간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즉, 신라에 대한 고구려와 백제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합치하자 양국이 和好를 맺었다는 해석이다(서보경, 2003, 앞의 글, 223~22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었다. 같은 달, 반파국이 집지를 보내어 진보(珍寶)를 바치고 기문의 땅을 청하였으나, 끝내주지 않았다.[77]

한편, 대가야는 백제의 침공을 막기 위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E에서 윤색을 제거하고 보면, 해당 기사는 513년 백제의 기문 진출을 둘러싸고 백제·가야·왜·안라·신라가 참석한 국제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78]

이 회의에서 대가야는 끝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되는 점은 대가야의 '진보(珍寶)' 제공에도 불구하고 왜가 백제에 공조한 점이다. 당시 대가야가 왜에 보냈던 '진보'는 5세기 중반 이후 대가야가 왜 전역에 사여하였던 금공품과 철제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5세기 말이 되면 가야계 금공품은 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9] 반면, 당시 게이타이 정권은 국가를 통합하고 나아가 대왕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유교·불교로 대표되는 선진문화를 필요로 하였던 것 같다. 즉, 게이타이 정권 입장에서 대가야의 '진보'는 매력적으로 생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당시 백제는 양과의 교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오경박사제를 운영하였다.[80] 즉, 백제는 게이타이 정권이 원하던 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게이타이 정권이 대가야 대신 백제를 지지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77 『日本書紀』 권 17, 繼體天皇, "七年(513)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庭,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跛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 滯沙, 賜百濟國." "是月, 伴跛國, 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78 위가야, 2016, 「백제의 기문·대사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사림』 58, 192~197쪽.

79 高田貫太, 2021, 『アクセサリーの考古学』, 吉川弘文館, 182쪽. 5세기 말 에다후나야마 고분에 매납된 금동수이식이 큰 틀에서는 가야계이지만, 왜로 건너오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변화하여 '왜풍'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80 양기석, 2013, 「백제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 『백제문화』 49, 1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후 514년 대가야는 신라를 공격하였고,[81] 신라는 515년 백제의 저미문귀가 왜에서 신라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것을 묵인한다.[82] 한편, 가야 제국은 백제의 동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백제의 외교가 성공한 반면, 대가야의 외교는 실패하여 임나 4현과 기문 지역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동시에 백제는 아리아케해 수장 연합의 핵심인 히노키미 세력에 대한 포섭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와이 세력을 우회하여 히노키미 세력 하고만 교섭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에다후나야마 고분과 다이보(大坊) 고분으로 이들 고분은 당시 히노키미 세력과 백제, 그리고 왜 왕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에다후나야마 고분은 최소 2차장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1차장 단계에서 출토된 철검에 유라쿠덴노(雄略天皇)이 언급되어 1차장 시기를 5세기 후반~6세기 초반으로 볼 수 있다.[83] 또한 철검에는 '전조인(典曹人)' 등의 표현도 확인되어 피장자는 왜왕의 관인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84] 이 밖에도 가야계 위세품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추가장 단계에서는 백제계 금동관[85]과 금동식리[86]·금제수이식 등이 출토되었는데, 금동관에서 보이는 용봉문 문양은 백제에서도 최고위급 수장층에게만 사여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87] 백제가 고분

81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8年 3月.

82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9年 二月.

83 연민수, 2014, 『고대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 역사공간, 429쪽.

84 쓰데 히로시, 2013, 앞의 책, 98~102쪽.

85 5세기 초중반에 제작되었다는 설(이훈, 2012, 「金銅冠을 통해 본 百濟의 地方統治와 對外交流」, 『백제연구』 55, 105~107쪽)과 6세기 초반 제작 설(박천수, 2023, 앞의 책, 249쪽)이 있다.

86 박천수, 2023, 위의 책, 255쪽; 小田富士雄, 1987, 앞의 책, 306쪽; 持田大輔, 2019, 「고대 일본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88~290쪽. 6세기 초반 제작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87 이한상, 2017, 「일본 규슈지역 백제계 금공품」, 『일본 속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피장자를 상당히 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동식리 역시 일상용이 아닌 장송의례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88] 이러한 유물 출토 양상은 피장자가 당시 한반도 정세에 밝았던 인물이었음을 시사한다.[89] 한편, 다이보 고분에서는 백제계 금제수이식과 가야계 은제수이식이 출토되었다.[90] 당시 금제 장신구는 왕이나 왕족 등 최상위계층만 사용하였다고 볼 때, 백제가 '금제' 장신구를 에다후나야마 고분과 다이보 고분 피장자에게 사여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두 고분에서는 무구류·무기류 등의 유물도 함께 출토되는데, 이로 보아 이들은 군사적 업무에도 관여하였으며 왜 왕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91] 특히 히노키미 세력은 게이타이 정권과도 관계가 깊었는데, 게이타이덴노릉으로 추정되는 이마시로즈카(今城塚) 고분 발굴 결과 히고 지역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석관이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게이타이 정권의 주요 핵심 인사들 또한 이와 같은 석관을 채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92] 이후에도 양자는 해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히노키미 세력이 왜 왕권·게이타이 정권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화연구원, 178쪽.

88 高田貫太, 2021, 앞의 책, 64쪽; 이한상, 2018, 「일본 규슈 출토 백제양식 금공품 연구」, 『한국문화연구』 35, 29~30쪽.

89 이한상, 2017, 앞의 글, 185쪽.

90 이한상, 2017, 위의 글, 178~182쪽; 矢野裕介, 2017, 「유적 유물상세 구마모토현」, 『일본 속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14~416쪽.

91 矢野裕介, 2017, 앞의 글, 418~420쪽; 박천수, 2011, 앞의 책, 266~272쪽.

92 柳沢一男, 2014, 앞의 책, 67~70쪽: 김규운, 2020, 「한반도의 왜계석실과 전방후원분의 성격」, 『장고분의 피장자와 축조배경』, 학연문화사, 15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이와이의 난과 백제의 대응

이상과 같이 6세기 초 백제의 외교적 노력으로 규슈에서 이와이 세력의 고립은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515년 게이타이 정권의 백제 파병[93]은 이와이에게 위기감을 고조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 파병되었고 실질적인 활약도 미미했지만, 게이타이 정권은 이를 통해 백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백제와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였다.

여기서 당시 게이타이 정권으로부터 파병된 무사 집단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히젠의 세키교마루 고분·시마다즈카 고분과 도요의 반즈카 고분 등의 석실 내부 형태가 해남 조산 고분 및 거제 장목 고분과 유사하다는 점, 해당 고분들에서 이와이를 상징하는 석제품 부장이 미비한 반면 백제 왕권과 왜 왕권의 위신재가 공반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백제와 지속적으로 교섭·교류하였던 히젠 지방 세력과 도요 지역의 반즈카 고분 세력이 이때 참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반즈카 고분 세력은 자신의 하위 세력들까지 이끌고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94]

---

93 『日本書紀』 권 17, 繼體天皇 9年 2月, "九年 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 副物部連[闕名.], 遣罷歸之[百濟本記云, 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伴跛人, 懷恨銜毒, 恃强縱虐. 故物部連, 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9年 4月,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跛興師往伐. 逼脫衣裳, 劫掠所齎, 盡燒帷幕. 物部連等, 怖畏逃遁. 僅存身命, 泊汶慕羅[汶慕羅嶋名也]."

94 대표적인 사례로 다케나미 횡혈묘군이 꼽힌다. 당시 백제의 중심지인 웅진·사비 일대에는 횡혈묘군이 조영되는데 공주 단지리 횡혈묘군과 다케나미 횡혈묘군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서현주, 2017, 앞의 글, 42쪽; 국립나주박물관·미야자키현립 사이토바루 고고박물관, 2021, 『한·일 고대 횡혈식석실분묘와 횡혈묘 2. 고대 일본 규슈 횡혈식석실분묘와 횡혈묘』, 국립나주박물관·미야자키현립 사이토바루 고고박물관, 206~213쪽). 단지리 고분군에서 무기·무구류가 출토되지 않은 점(김길식, 2013, 「백제지역 횡혈묘의 철기부장 습속·장법의 계통과 조묘집단의 성격」, 『백제문화』 48, 204~205쪽)과 다케나미 횡혈묘군에서 무기·무구류가 극히 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매장되지 않은 점(行橋市教育委員會, 2012, 앞의 책, 19~21쪽) 역시 양 고분군의 유사한 모습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컨대, 당시 게이타이 정권은 515년 백제 파병을 통해 이와이의 독자적인 대한반도 교섭을 견제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이와이 측에서는 규슈의 비(非)이와이 세력들이 백제로 건너가 대가야 공격에 참전하는 것을 보며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동서로는 반즈카 고분 세력과 히젠, 남으로는 히노키미 세력이 백제 및 왜 왕권과 연결되어 자신을 포위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이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신라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였다. 신라 또한 이와이의 접근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사료를 통해서 그러한 정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F-1. 9월에 왕이 남쪽 변방의 새로 개척한 영토를 순행하러 나갔는데, (이때) 가야국의 왕이 와서 만났다.[95]

F-2. 3월, 백제왕이 … "청컨대 가라의 다사진을 신이 조공하는 통로로 삼게 해 달라"고 하였다. … 같은 달, 모노노베노이세노무라지치치네(物部伊勢連父根)와 기시노오키나(吉士老) 등을 보내어 진을 백제왕에게 주었다. … 이로 말미암아 가라는 신라와 결당(結黨)하고 일본을 원망하였다. 가라왕은 신라의 왕녀를 취하여 드디어 자식을 낳았다. 신라가 처음 왕녀를 보낼 때, 같이 100명을 파견하여 왕녀의 시종으로 삼았다. 가야는 이들을 받아들여 각 현에 나누어 배치하고 신라의 의관을 착용토록 하였다. 아리사등은 그들이 옷을 바꾸어 입은 것에 분개하여 사자를 보내어 모두 모아 돌려보냈다. …[96]

---

9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十一年(524) 十一年, 秋九月, 王出巡南境拓地, 加耶國王來會."

96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二十三年(529) 春三月, 百濟王 … 請, 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 新羅初送女時, 幷遣百人, 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 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飜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旣若斯, 請, 還王女. …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제의 다사진 장악 이후 대가야는 신라에 혼인동맹을 제안하였고 신라도 이를 받아들였다.[97] 대가야는 이 동맹을 단순히 백제 견제의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신라와의 '대등한 혼인 관계'가 성사된 사실을 가야 여러 나라에 알림으로써 대가야 왕이 대신라 외교의 주도자임을 가야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신라의 종자(從者) 파견과 분산 배치를 수용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야 제국의 입장은 달랐다. 특히 신라 종자가 가야 사회 내부에서 첩보 활동 및 친신라화를 기도하자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후 반신라 진영 세력들은 종자들의 '변복'을 빌미로 반발하였다.[98]

반발의 직접적 원인은 524년에 진행되는 남경척지(南境拓地)이다(F-1). 백제와의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신라와의 동맹을 추진하였던 대가야는 신라의 영역확장 기도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결국 남경척지 당시 가라왕[99]의 내회(來會)도 신라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신라는 가야 제국의 맹주인 가라왕을 통해 남부지역 영역화에 대한 승복을 받아내는 한편, 백제와 가야 제국(諸國)에게도 이를 공식화하는 이중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100]

이때 신라가 남경척지한 지역은 탁기탄으로 추정되며, 지금의 밀양·양산 지역으로 비정된다.[101] 성왕의 회고담[102]에서는 탁기탄이 가라와 신라의 경계에 있었는데 수년에 걸친 공격으로 멸망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라가 남경척지를 단행한 524년은 탁기탄을 공격하기 시작한 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

9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9年 3月.

98 위가야, 2020, 앞의 글, 290~292쪽.

99 연민수, 2000, 앞의 책, 199~200쪽. '남경척지'의 대상을 금관국으로 보아 이때부터 532년까지 신라가 서서히 금관국을 잠식해나갔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다사진까지 진출한 이상 백제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는 금관국보다는 대가야와의 동맹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된다.

100 박민경, 2023, 앞의 글, 86~88쪽.

101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188쪽.

102 『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2年 4月, "… 聖明王曰 … 別汝所獎, 恐致卓淳等禍, 非新羅自强故, 所能爲也. 其喙己呑, 居加羅與新羅境際, 而被連年攻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反)신라 진영 세력들은 현실에 순응한 가라왕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마침 변복 사건이 발생하자 신라 종자를 추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103] 즉, 신라는 자국에 대적할 수 없었던 대가야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야 내부 진출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이와이와의 제휴를 통해 백제 견제라는 전략적 목적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와 이와이의 제휴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나카타씨 세력권인 오키노시마(沖ノ島)에서 신라의 유리제품·금제반지[104] 등 금공품 위주의 위세품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당시 신라와 북규슈 세력이 무나카타 세력을 매개로 교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05] 실제로 해당 지역이 가스야노미야케(粗屋屯倉)과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가 인접한 곳인 점을 감안하면, 이와이가 무나카타 세력을 매개로 신라와 동맹을 맺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한 기록이 『국조본기』에 등장하는 이와이의 '종자', '신라해변인' 관련 기사라 할 수 있다.[106]

기존 연구에서는 부젠국 가미쓰케(上毛)의 수장이었던 가미쓰케누노아타히(上毛布直)가 이와이의 난 당시 게이타이 정권의 편에 서서 '신라해변인'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이키시마노미야쓰코(伊吉嶋造)가 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107] 즉, 신라가 이와이의 난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108] 박민

103 박민경, 2023, 앞의 글, 85~89쪽.

104 高田貫太, 2021, 앞의 책, 70~71, 242~245쪽. 당시 (금제) 반지류는 신라를 제외하고는 출토 사례가 드물다고 한다.

105 박광춘, 2009, 「오키노시마 출토 신라 유물의 연구」, 『문물연구』 16, 34~47쪽; 박천수, 2023, 앞의 책, 628~630쪽.

106 『國造本紀』 伊吉嶋造條. 磐余玉穗(繼體天皇) 시기에 石井의 종자 新羅海邊人을 토벌한 天津水凝의 후예 上毛布直의 造.

107 山尾幸久, 1999, 『筑紫君の戰爭』, 新日本出版社, 46~48쪽.

108 이재석, 2012, 앞의 글, 61~63쪽. 이를 인용하여 이와이의 난 이전부터 이와이와 신라가 결탁하였고, '신라해변인'은 양자의 유대관계를 매개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은 가미쓰케누노아타히가 신라해변인을 토벌한 공로로 이키시마노미야쓰코가 된 점을 볼 때, 신라해변인을 복수의 인원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와이(石井)의 종자에 대해서는 신라의 왕녀가 가야에 거느리고 온 종자 100인(F-2)으로 이해하고 이를 '침략부대',[109] '행정적 내지 군사적 지도원'[110]으로 보는 견해들을 참고하여 이와이의 난이 일어나자 신라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복수의 '군사적 지원부대'[111]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신라의 이러한 '종자'·'신라해변인'의 파견은 "남경척지"(F-1)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가야에 '종자' 100인을 보내는 동시에 이와이에게도 '뇌물'[112]로서 표현된 '종자'를 파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들이 온가가와 및 아사쿠라·우키하 일대 신라계 도왜인 집단을 이끌며 이와이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게이타이 정권과 백제는 '불온한 움직임'으로 파악하였다. 525년 백제는 신라의 복심을 파악하고자 교빙(交聘)을 진행하였으나,[113] 신라는 교빙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한편, 가야를 압박하는 형세를 취하였다.[114] 그러자 백제 또한 이와이의 움직임에 대비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와이의 난 전후로 백제와 관련한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은 무령왕 승하(523)와 성왕 즉위 기사(524)만 확인된다. 국내 사료에서 확인되는

109 武田幸男, 1974, 「新羅法興王代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店, 101쪽.

110 大山誠一, 1999,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吉川弘文館, 49쪽.

111 박민경, 2023,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Homo Migrans』 29, 91~92쪽.

112 『日本書紀』 권 17, 繼體天皇, "二十一年(527) 夏六月壬辰朔甲午, 近江毛野臣, 率衆六萬, 欲住任那, 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喙己呑, 而合任那. 於是, 筑紫國造磐井, 陰謨叛逆, 猶預經年. 恐事難成, 恆伺間隙. 新羅知是, 密行貨賂于磐井所, 而勸防遏毛野臣軍."

113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三年(525) 二月, "與新羅交聘."

114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十二年(525) 二月, "以大阿湌伊登爲沙伐州軍主."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제 측 동향은 고구려의 재침에 대비하는 상황[115]이 포착되며, 이 외에도 성을 수리하고 전방지역에 책을 쌓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116] 즉, 이와이의 난 전후로 백제의 군사적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나이에서는 이와이의 수년간에 걸친 행보가 아스카 호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에 게이타이 정권과 아스카 호족들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게이타이 정권의 입경이 성사되었다.[117]

같은 시기 게이타이 정권의 입경 직후 어수선함과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백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이와이 측은 최소한 백제의 개입은 배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527년 마침내 난을 일으켰다. 이와이는 난의 초기 신라의 지원과 치쿠고평야의 높은 생산력에 기대어 야메 지역에서 장기간 항쟁하였다. 한편, 전술하였듯이 백제는 이와이의 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으나, 규슈의 친백제 성향 세력들은 이와이에 호응하지 않고 중립 혹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와이를 압박하여 곤란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히젠 세력[118]의 동향을 짚어볼 수 있다. 친백제 성향 호족 세력과 백제계 도왜인이 포진해 있던 사가시 일대에서 치쿠고카와만 건너면 야메시에 닿을 정도로 두 지역의 거리는 가까웠다. 그리고 이와이와 토벌군의 교전이 전개된

115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元年(523) 八月; 『三國史記』 권 19, 高句麗本紀 7, 安臧王 十一年(529) 十月;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聖王, 七年(529) 十月.

116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聖王, 四年(526) 十月, "修葺熊津城, 立沙井柵." 사정책의 위치로 보아 백제의 신라 견제책으로 이해된다.

117 이재석, 2012, 앞의 글, 73~74쪽.

118 사가현의 세부리산 일대에서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 백제계 유물·유적이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5세기 말 세부리산 일대의 니시하라(西原古墳) 고분에서 쓰쿠시노키미를 상징하는 석제품 또한 발견되었다. 다만 석제품은 니시하라 고분 이외에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볼 때 5세기 말 백제와 왜 왕권의 혼란이 가중되었을 당시 일시적으로 쓰쿠시노키미 세력의 히젠 진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세기 초 이후 쓰쿠시노키미 세력의 진출은 무산된 반면 백제계 세력의 영향력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미이군(御井郡)은 야메시 바로 위인 구루메시(久留米市)였다. 즉, 난이 발발하였을 당시 이와이는 히젠 지역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이의 난 당시 히젠 세력에 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이로 볼 때 히젠 지역은 이와이 세력과 대치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이 입장에서는 히젠 세력의 움직임을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와이 난의 실패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528년 12월 미이군 전투를 기점으로 게이타이 정권으로 전세가 기울게 된다. 『일본서기』에서는 미이군 전투에서 이와이가 전사하였고, 이후 그 아들 구즈코(葛子)가 왜 왕권에 가스야노미야케을 헌납하고 항복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풍토기』에서는 이와이가 도요로 도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119] '종자'의 성격과 온가가와·아사쿠라·우키하 일대 신라계 도왜인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보면, 이와이는 자신의 '지지기반'이 포진해 있던 '도요' 지역으로 후퇴한 뒤 농성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120]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도요 지역의 반즈카 고분 세력이 주목된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반즈카 고분 피장자는 왜 왕권과 백제에게 각각 괘갑과 목관을 사여받았을 정도로 왜 왕권 및 백제와 정치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세력이었다. 당시 고분이 소재한 미야코평야에는 내륙까지 해안선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121] 그중에서 현재 간다마치·유쿠하시시(行橋市) 일대에는 7세기 즈음 가야노쓰(草野津)로 추정되는 항구가 들어설 만큼 항구로서의 입지도 최적이었다고 분석된다.[122]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반즈카 고분이 위치한 간다마치는 왜 왕권의 토벌군과 친백제 세력의 거점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협이 되는 반즈카 고분 세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와이가 토요로

119 "… 知勢不勝, 獨自遁于豐前國上膳縣, 終于南山峻嶺之曲. 於是, 官軍追尋失蹤. …."

120 玉名歷史研究会, 2002, 『東アジアと江田船山古墳』, 雄山閣, 150~152쪽.

121 行橋市教育委員會, 2012, 앞의 책, 5쪽.

122 行橋市教育委員會, 2016, 앞의 책, 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퇴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구즈코가 가스야노미야케를 바친 사건을 주목해볼 수 있다.[123] 후술하겠지만, 치쿠고 지역은 왜 왕권에 맞서 대란(大亂)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야케가 설치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쓰쿠시노키미 세력은 최소 7세기까지 존속하였다.[124] 이로 볼 때 구즈코는 이와이와의 관련을 부정하고 가스야노미야케를 바쳐 죄에 연좌되지 않았고, 치쿠고에서 쓰쿠시노키미 세력의 존속도 인정받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히고에서 히노키미 세력이 가졌던 영향력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고고학적 정황으로 볼 때, 이와이의 난 당시 에다후나야마 고분으로 대표되는 히노키미 세력권에서는 백제와 왜 왕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문헌상으로는 히노키미가 친백제 세력과 왜 왕권에 협조한 정황을 볼 수 없지만, 이와이를 지지했던 모습도 찾기 어렵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할 때 히고의 히노키미 세력은 난이 발생한 뒤 이와이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들은 이와이 세력과 혼인동맹을 맺은 정황도 보이는 만큼,[125] 중립을 지키며 이와이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였거나 비협조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히노키미의 모호한 행보는 이와이를 곤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와이 입장에서는 히젠의 친백제계 세력과 도요의 반즈카 고분 세력의 존재를 신경 써야 했고, 여기에 더해 아들 구즈코의 항복과 토벌군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후방의 히노키미 세력 움직임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

123 『日本書紀』 권17, 繼體天皇, 二十二年 十二月.

124 이와이의 난이 종결된 뒤로도 이와이의 후손으로 보이는 피장자의 고분이 7세기까지 이어진다. 전하는 기록에서도 쓰쿠시노키미 세력은 관산성 전투에서 위덕왕을 구하는 공적을 세우거나(『日本書紀』 권19, 欽明天皇 15年 12月), 백제부흥운동 과정에서도 모습을 보이는 등(『日本書紀』 권27, 天智天皇 10年 11月) 7세기 후반까지 그 동향이 확인된다.

125 小田富士雄, 1987, 앞의 책, 335~336쪽; 山尾幸久, 1998, 앞의 책, 111쪽. 후대 사례이지만, 히노키미 세력은 이와이 세력과 혼인 동맹까지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이와이를 도요로 퇴각하게 만들었고, 이와이 난이 실패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G. … 筑紫國의 穗波屯倉, 鎌屯倉, 豊國의 膝碕屯倉, 桑原屯倉, 肝等屯倉, 大抜屯倉, 我鹿屯倉, 火國의 春日部屯倉을 두었다. … [126]

한편, 이와이의 난 이후로 왜 왕권이 지방 지배를 본격화해 나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127] 그러나 왜 왕권이 이후 규슈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미야케 설치에서도 드러나는데(사료 G 및 그림 1), 535년 규슈에는 8곳의 미야케가 설치된다. 이 시기 미야케 설치를 전후 수습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하고,[128] 미야케가 대왕의 정치·

1. 미사키노미야케 2. 오호누쿠노미야케 3. 가토노미야케 4. 구라하라노미야케 5. 아카노미야케 6. 가마노미야케 7. 호나미노미야케 8. 가스카베노미야케

그림 1 미야케 설치지역(이태호, 2025「5~6세기 백제·왜관 계와이 와이의난」, 동 국대학교석 사학위논문, 50쪽.)

126 『日本書紀』 권18, 安閑天皇, "二年(535) 五月丙午朔甲寅, 置筑紫穗波屯倉·鎌屯倉, 豊國膝碕屯倉·桑原屯倉·肝等[取音讀.]屯倉·大抜屯倉·我鹿屯倉[我鹿, 此云阿柯.], 火國春日部屯倉 … ."

127 熊谷公男, 2001, 앞의 책, 173~176쪽. 구니노미야즈코는 대체로 이와이의 난 이후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왜 왕권에 의해 임명되어 지역을 지배하던 재지호족으로, 왕권이 승인한 국의 영역 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존재였다. 구니노미야즈코의 주요 임무는 조세 및 물자의 조달, 징발·징병 등 왕권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구니노미야즈코의 영역 내에 반드시 왜 왕권의 미야케 또는 부(部)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다.

128 이재석, 2012, 앞의 글, 5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군사적 거점임을 감안한다면,[129] 미야케가 규슈의 어느 지역에 주로 설치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도요의 스오나다(周防灘)에는 네 곳에 설치되었다. 미사키노미야케(膝碕屯倉)[130]는 현 후쿠오카현 북규슈시 모지쿠(門司區) 지역, 구하하라노미야케(桑原屯倉)[131]는 반즈카 고분 남쪽인 후쿠오카현 치쿠조군 치쿠조마치(築上町) 지역, 가토노미야케(肝等屯倉)[132]는 반즈카 고분 세력이 있는 후쿠오카현 미야코군 간다마치, 오호누쿠노미야케(大抜屯倉)[133]는 반즈카 고분의 북쪽인 북규슈시 고쿠라미나미구(小倉南區)에 위치한다. 공교롭게도 미야케는 대부분 반즈카 고분의 소재지를 거점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왜 왕권이 항구로서 또한 교통의 관점에서 최적의 요지인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지역은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의 최서단에 속한 지역으로 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외교섭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렇기에 이전부터 왜 왕권에 협조적이었던 반즈카 고분 세력을 구니노미야즈코로 임명하고 미야케를 설치하여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134] 결국 반즈카 고분 세력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미야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왜 왕권과 백제가 이와이의 난 발발 이전

---

129 柳沢一男, 2014, 앞의 책, 87쪽; 熊谷公男, 2001, 앞의 책, 177~179쪽. 미야케는 왜 왕권이 다양한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니노미야즈코의 영내에 설치한 거점으로, 평시에는 구니노미야즈코 일족이 이를 관리하였다. 그러나 왕명이 전달되거나 직무 감찰을 감찰할 때에는 중앙에서 사자가 파견되어 해당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왜 왕권은 미야케를 매개로 지방관제를 운영하고, 필요한 물자의 조달·집적·징발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30 연민수 編, 2013, 『역주 『日本書紀』 2』, 319쪽, 56번 주석.

131 연민수 編, 2013, 위의 책, 319쪽, 57번 주석.

132 연민수 編, 2013, 위의 책, 319쪽, 58번 주석.

133 연민수 編, 2013, 위의 책, 319쪽, 59번 주석.

134 이후 이 지역에 가야노쓰가 들어서고 8세기에 관도(官道)가 이어지고, 부젠국의 국부(國府)와 국분사(國分寺)가 들어서는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젠국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반즈카 고분 세력을 매개로 하여 그 주변 토착 세력과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온가가와 일대는 세 곳에 미야케가 설치되는데, 다가와 지역에는 아카노미야케(我鹿屯倉),[135] 가호 지역에는 호나미노미야케(穗波屯倉)[136]와 가마노미야케(鎌屯倉)가 있다. 주목할 점은 이곳의 미야케가 신라계 도왜인들이 밀집하였던 지역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볼 때 도요로 도주하였다는 이와이가 도달한 곳은 이 온가가와 일대가 아닌가 싶다.[137] 즉, 미야케 설치를 통해 이와이와 함께 마지막까지 저항하였던 이 지역 호족들에 대한 중앙 지배를 관철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영향력 배제를 목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히고 지역에서는 한 곳에 미야케가 설치되었다. 이는 그들이 이와이의 난 당시 중립을 지키며 난에 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다. 다만 야쓰시로 일대에 미야케가 설치된 것은 왜 왕권이 야쓰시로 지역을 통해 대외교섭을 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외에 이와이의 난에 깊이 관여되어 있으면서도 미야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와이의 난의 발발지역인 치쿠고 지역이다. 이와이의 난의 책임을 물어 미야케가 설치되어야 했겠지만, 이와이의 아들 구즈코의 항복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시 가야지역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장기간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쓰쿠시노키미 일족을 활용하여 가야 지역 정세에 개입할 것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일단 미야케 설치를 유보하고 이 지역에 대한 회유를 했을 것으로 파악된다.[138] 히젠 지역 또한

135 연민수 編, 2013, 위의 책, 319쪽, 60번 주석.

136 연민수 編, 2013, 위의 책, 319쪽, 54번 주석.

137 "… 昔者, 新羅國神, 自度到來, 住此河原. 便即, 名曰鹿春神." 특히 부젠 지역은 신라의 국신이 넘어왔다는 기록이 등장할 정도로 신라와의 강한 연결성을 찾을 수 있다.

138 앞서 언급하였듯이(주석 107번)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태자 여창(위덕왕)을 구하는 인물로 쓰쿠시 '구니노미야즈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점을 볼 때 이후 가까운 시기에 이 지역에 미야케를 설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35년 당시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이후 이 지역의 쓰쿠시노메타(竺志米多), 마쓰라(羅末), 후지쓰(葛津) 지역에 구니노미야즈코 설치가 확인된다. 당시 미야케 설치가 전후처리 성격임을 감안하고, 이 지역의 강한 친백제 성향과 이와이의 난 당시 게이타이 정권에 협조적이었던 곳임을 감안한다면 미야케 설치를 당장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139]

V. 맺음말

그동안 이와이의 난은 내전 혹은 대리전 등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한 결과, 보다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5세기 초중반 백제와 신라의 대(對)규슈 교섭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백제는 마한 세력과 함께 대규슈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계 도왜인은 주로 치쿠젠·히젠 일대에 이주·정착하였고, 백제는 이들을 통해 북규슈 해안지대의 중요 거점과 대고구려전 당시 자국을 도왔던 세력들을 대상으로 교섭을 전개하였다. 마한 세력은 치쿠젠·히젠과 더불어 무나카타·미야코 평야 등 백제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지역에도 정착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백제의 대규슈 교섭에 협조하였다.

반면, 신라는 왕족 혹은 그에 버금가는 계층이 온가가와 일대 등 내륙 요충지에 이주·정착하였고, 나아가 치쿠고 지역과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규슈 교섭은 5세기 말부터 조금씩 갈등의 국면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이와이가 축자를 장악할 무렵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대가야와 이와이 세력의 견제로 인해 왜 왕권(기나이)과의 교섭이 어려워졌다. 이때 신

139 이와 다르게 이미 5세기 후반 무렵부터 모노노베(物部)씨의 북규슈 진출이 진행되었고, 527년 모노노베노 아라카히(物部麁鹿火)가 이와이의 난을 진압하고 치쿠고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았다고 한다(박재용, 2015, 「『日本書紀』에 보이는 왜계백제 관료」, 『백제학보』 15, 34~35쪽). 그렇다면 이 지역에 구니노미야즈코 및 미야케 설치는 모노노베씨의 몰락 이후인 6세기 말 이후일 수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가 대가야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백제가 신라의 진의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백제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이에 백제는 무령왕 즉위(501) 이후부터 이러한 외교적인 고립을 와해시키기 위해 비(非)이와이 세력에 대한 교섭은 물론 이와이의 동맹 세력인 히노키미 세력까지 포섭을 시도하는 등 20여 년에 걸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신라 역시 이와이와 동맹을 맺고 종자를 파견하며 이와이를 지원하는 등 이와이 세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규슈에서 전개된 백제와 신라의 외교전은 이와이 난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와이 난의 전개 양상을 보면 이와이는 신라를 의지하였던 반면, 백제 측과 교섭하였거나 친백제 세력이 다수 포진하였던 히젠·히노키미 세력은 이와이에 호응하지 않고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였다. 이것은 곧 이와이의 난이 실패로 귀결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당시 규슈 지역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이와이의 난을 왜의 내부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고, 상위 세력의 사주를 받아 싸우는 대리전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이와이의 난은 백제와 게이타이 정권 vs 신라와 이와이 두 연합 세력이 서로 교전을 벌인 국제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古事記』, 『國造本紀』, 『日本書記』, 『風土記』.

『宋書』, 『梁書』.

단행본

강용자, 2012, 『풍토기』, 지식을만드는지식.

국립나주박물관·미야자키현립 사이토바루 고고박물관, 2021, 『한·일 고대 횡혈식석실분묘와 횡혈묘 2. 고대 일본 규슈 횡혈식석실분묘와 횡혈묘』, 국립나주박물관·미야자키현립 사이토바루 고고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19,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국립중앙박물관.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마한연구원, 2020, 『장고분의 피장자와 축조배경』, 학연문화사.

박천수, 2011, 『일본 속의 고대 한일 문화』, 진인진.

_____, 2023, 『고대한일교류사』, 경북대학교출판부.

연민수, 2000,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연민수 編, 2013, 『역주 日本書紀 1, 2』,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4, 『고대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 역사공간,

박광순 編, 2023, 『왕인박사 시기의 한·일 교류 고고학』, 주류성.

정재윤, 2021, 『무령왕 신화에서 역사로』, 푸른역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백제문화사대계연구총서 9, 백제의 대외교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_____, 2018, 『일본 속의 百濟. 3. 九州지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성백제박물관, 2014, 『백제의 왕권은 어떻게 강화되었나』, 한성백제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高田貫太, 2021,『アクセサリーの考古学: 倭と古代朝鮮の交涉史』, 吉川弘文館.
九州歷史資料館, 2016,『八女の名宝』.
大山誠一, 1999,『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吉川弘文館.
東京國立博物館編, 2024,『特別展 はにわ』.
藤間生大, 1951,『日本民族の形成』, 岩波書店.
柏原歷史資料館, 2023,『百済の王族が眠る? 高井田山古墳』, 柏原歷史資料館.
山尾幸久, 1999,『筑紫君磐井の戰爭』, 新日本出版社.
小田富士雄, 1975,『古代の日本 3 -九州-』, 角川書店.
_____, 1987,『九州の古代文化12講』, 文榮出版.
苅田町鄕土史研究会, 2016,『豊前 石塚山古墳 復刻板』, 苅田町鄕土史研究会.
玉名歷史研究会, 2002,『東アジアと江田船山古墳』, 雄山閣.
熊谷公男, 2001,『大王から天皇へ 日本の歷史3』, 講談社.
柳沢一男, 2014,『筑紫君磐井と「磐井の乱」, 岩戸山古墳』, 新泉社.
_____, 2022,『裝飾古墳ガイドブック』, 新泉社.
田村圓澄, 1992,『筑紫の古代史』, 學生社.
田村圓澄 編, 1998,『古代最大の內亂 磐井の亂』, 大和書房.
秋本吉郎, 1958,『風土記』, 岩波書店.
佐賀県立博物館, 2020,『佐賀県立博物館50周年特別展 THIS IS SAGA』.
行橋市教育委員會, 2012,『大王に仕えた豊の豪族』.
_____, 2015,『発掘された港町-延永ヤヨミ園遺跡展』.
黑板勝美, 1936,『(新訂增補) 國史大系 7』, 吉川弘文館.

논문

강은영, 2020,「6세기 전반 계체왕조의 성립과 대외정책」,『세계역사와 문화연구』57.
김기섭, 2021,「4~5세기 백제의 인구와 남방영역」,『한국고대사연구』102.
김길식, 2013,「백제지역 횡혈묘의 철기부장 습속, 장법의 계통과 조묘집단의 성격」,『백제문화』48.
김낙중, 2004,「영산강유역 옹관고분 발생배경」,『문화재』37.
_____, 2011,「남해안지역 석실묘의 등장배경」,『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35.
_____, 2017,「고대 고창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호남고고학보』5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병남, 2006「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군사』61.
_____, 2019,「496년 고구려의 우산성 공격 의미와 나·제의 대응」,『전북사학』56
_____, 2021,「백제의 남방 확장과 가야 접경의 변화」,『마한·백제문화』38.
김택균, 1990,「『삼국사기』신라의 對倭 관계 기사 분석」, 강원사학 6.
노중국, 2008,「백제의 骨族 의식과 骨族 범위」,『한국고대사연구』50.
노중국, 2012,「무령왕대 백제의 동아시아 상에서의 위상」,『백제문화』46.
박광춘, 2009,「오키노시마 출토 신라 유물의 연구」,『문물연구』16.
박민경, 2015,「6~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7,「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왜관계-개로왕·동성왕대를 중심으로」『사림』60.
_____, 2020,「'안라국제회의'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검토」,『지역과 역사』47.
_____, 2023,「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Homo Migrans』29.
박재용, 2015,「『日本書紀』에 보이는 왜계백제관료」,『백제학보』15.
박찬규, 2010,「문헌을 통해서 본 마한의 시말」,『백제학보』3.
박찬우, 2022,「백제의 외교문서와 남북조 외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보경, 2003,「5세기 말~6세기 초 한반도 제국과 왜국의 관계」,『선사와 고대』18.
서현주, 2011,「영산강유역 토기문화의 변천양상과 백제화과정」,『백제학보』6.
_____, 2014,「출토유물로 본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 -5~6세기 토기를 중심으로-」,『백제학보』11.
양기석, 2013,「百濟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백제문화』49.
위가야, 2016,「백제의 기문·대사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사림』58.
_____, 2019,「백제 무령왕대 '更爲强國'설의 재검토」,『韓國古代史硏究』95.
_____, 2023,「연동하는 전쟁, 6세기 삼국과 동아시아 국제관계」,『한국고대사연구』112.
이영철, 2016,「백제 지방도시의 성립과 전개」,『한국고대사연구』81.
이재석, 2001,「5세기말 곤지의 도왜 시점과 동기에 대한 재검토」,『백제문화』30.
_____, 2004,「5세기 백제와 왜국의 관계」,『백제연구』39.
_____, 2012,「6세기 초 筑紫國 이와이의 난과 신라」,『신라사학보』25.
이태호, 2025「5~6세기 백제·왜 관계와 이와이의 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한상, 2018.「일본 규슈 출토 백제양식 금공품 연구」,『한국문화연구』3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장미애, 2024, 「4세기 후반 ~5세기 초 백제-고구려 전쟁과 백제-왜 관계」, 『고구려발해연구』 80.
정일, 2023, 「영산강유역의 취락과 교통로에 대한 검토」, 『백제학보』 43.
정재윤, 2007, 「웅진시대 백제와 왜의 관계에 대한 예비적 고찰」, 『백제문화』 37.
정효운, 2002, 「6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이와이의 乱」」, 『일어일문학연구』 43.
조한정, 2011, 「박제상과 5세기 신라정치」, 『동아시아고대학』 25.
지민주, 2008, 「백제지역 횡혈묘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미하, 2012, 「堤上의 未斯欣 구출과정과 신라의 성장」, 『신라사학보』 25.
최성락, 2017,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와 백제에 의한 통합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20.
홍성화, 2010, 「고대 영산강 유역 세력에 대한 검토」, 『백제학보』 51.
_____, 2019, 「『日本書紀』 계체·흠명기에 보이는 신라와 왜의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51.

高田貫太, 2022, 「考古学による日朝関係史から見た『磐井の乱』」,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31.
武田幸男, 1975, 「新羅法興王代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5~6세기 백제·왜 관계와 이와이의 난

이태호

5세기 초중반 백제와 신라는 북규슈를 중심으로 규슈의 여러 세력과 교섭하였고 나아가 자국인 집단의 이주·정착을 추진하였다. 백제는 주로 북규슈 해안지대의 중요거점과 대(對)고구려전에서 자국을 도왔던 세력들을 중심으로 교섭하였다. 이때 마한 세력은 백제의 규슈 교섭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신라는 내륙 지역인 온가가와 일대에 이주·정착하였고, 나아가 치쿠고 지역과의 교섭도 시도하였다. 중부 규슈에서는 아리아케해를 거점으로 치쿠고의 쓰쿠시노키미와 히고의 히노키미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수장연합세력이 등장하였다. 북동부 규슈에서는 미야코평야를 거점으로 왜 왕권이 신뢰하는 군사집단이 등장한다. 5세기 말이 되면 규슈와 그 주변 지역에서 정세 변화가 나타나는데, 왜 왕권이 왕통 변동으로 혼란을 겪던 와중에 치쿠고의 이와이가 쓰쿠시를 장악하였다. 이때 백제는 이와이보다는 전통적인 교섭창구인 기나이와 교섭을 중시하였고, 이에 대외교섭로를 장악하여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세를 점하려는 이와이와 대왜(對倭) 교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대가야 양 세력이 백제의 기나이교섭을 방해하였다. 이때 백제는 이와이보다는 전통적인 교섭창구인 기나이와 교섭을 중시하였고, 이에 대외교섭로를 장악하여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세를 점하려는 이와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 대왜교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대가야 양 세력이 백제의 기나이교섭을 방해하였다.

백제 무령왕은 이러한 이와이의 행보를 경계하며 비(非)이와이 세력을 결집·포섭하고 이와이의 동맹 세력인 히노키미 세력까지 포섭을 시도하였다. 또한 한반도 내 이와이의 교섭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야 공략에 집중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와이는 신라와 동맹을 모색하였고 신라 또한 이에 호응하며, '종자'·'신라해변인'을 규슈로 파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와이의 난 당시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던 규슈의 지방호족·백제계 도왜인들은 난에 호응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와이를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갔다. 이에 이와이는 지지기반이 상당하였던 도요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왜 왕권·히젠·반즈카 고분 세력의 압박과 아들 구즈코의 항복, 그리고 히노키미의 중립 행보를 목도한 도요의 호족들 간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결국 이와이는 몰락하였다.

주제어: 백제, 신라, 왜 왕권, 규슈, 아리아케해, 이와이, 히노키미, 미야코평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Relations between Baekje and Wa in the 5th to 6th Century and the Iwai's Rebellion

Lee Taeho

In the early to mid-5th century, Baekje(百濟) and Silla(新羅) engaged in relations with various polities in Kyushu(九州), centering on northern Kyushu, and further promoted the migration and settlement of their own people there. Baekje primarily interacted with key coastal strongholds in northern Kyushu and with groups that had supported it in its campaigns against Goguryeo(高句麗). During this period, some Mahan(馬韓) groups also cooperated with Baekje's diplomacy toward Kyushu. Silla, for its part, migrated and settled in the inland region around the Ongagawa River(遠賀川) and attempted to establish contacts with the Chikugo(筑後) area. In central Kyushu, a coalition of chieftains emerged around the Ariake Sea(有明海), led by the Chikushikimi(筑紫君) of Chikugo and the Kakimi(火君) of Higo(肥後). In northeastern Kyushu, a military group trusted by the Wa(倭) royal authority arose, based in the Miyako(京都) Plain. By the late 5th century, political changes began to unfold in Kyushu and its surrounding regions. While the Wa royal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uthority was experiencing turmoil due to a dynastic transition, Iwai(磐井) of Chikugo seized control of Chikushi. At this time, Baekje prioritized maintaining relations with the Kinai(畿内) region-its traditional diplomatic channel-over forming ties with Iwai. Consequently, Iwai, who sought to gain dominance among his rivals by controlling foreign trade routes, and Daegaya(大伽倻), which aimed to preserve its leadership in diplomacy with Wa, both obstructed Baekje's efforts to communicate with Kinai.

King Muryeong(武寧王) of Baekje regarded Iwai's movements with caution. He sought to consolidate and absorb anti-Iwai factions and even attempted to win over Iwai's allies, including the Kakimi group. To neutralize Iwai's diplomatic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Baekje concentrated its efforts on subjugating Gaya. Feeling threatened, Iwai sought an alliance with Silla, which responded positively by dispatching subordinates and coastal personnel to Kyushu in preparation for a potential conflict. During Iwai's rebellion, local Kyushu chieftains and Baekje-descended migrants who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Baekje either refrained from supporting the uprising or remained neutral, placing Iwai in a difficult situation. Iwai eventually fled to Toyo(豊), where he still had considerable support. However, faced with pressure from the Wa royal authority and the forces associated with Hizen(肥前) and the Banzuka(番塚) tumuli, as well as the surrender of his son Katsuko(葛子) and the neutrality of the Kakimi, internal strife broke out among the chieftains of Toyo. Ultimately, Iwai was overthrown.

Keywords: Baekje, Silla, Wa royal authority, Kyushyu, Ariakekai, Iwai, Hinokimi, Miyako plai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09

당 정관 연간 경관(京官) 640원(員)의 함의

—정원 감축과 결원, 겸직의 제도적·재정적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열 | 공주대학교 한국역사교육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II. 경관(京官) 정원과 640원(員)
III. 3성 장관의 공석과 재상급 겸직의 대체
IV. 직사관의 겸직 빈발
V. 정원 감축과 겸직의 제도적·재정적 배경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정관의 치’라는 선정을 베풀고 신하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당 태종 이세민을 유가의 이상적인 군주라고 일컫는다.[1] 그러나 위징(魏徵)이 태산(泰山) 봉선(封禪)을 반대하며 낙양(洛陽) 동쪽부터 바다까지, 즉 황하 중하류 지역이 아직 인적이 드물고 농토도 드문 상태였음을 지적하였다. 실제 정관(貞觀) 13년(639)의 호구 통계가 3,041,871호와 12,351,681구였다.[2] 이 호구 통계가 건국한 지 20년이 지났어도 전란의 상처를 여전히 복구하지 못한 증거이며, 수나라 인구의 1/4~1/3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진 이세민의 치세를 과연 이상적인 태평성대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세민의 선정으로 포장된 조치 가운데 경관, 즉 중앙정부의 관리 정원을 줄인 조치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이세민이 정관 원년(627)에 방현령(房玄齡)의 건의를 받아들여 문무 관원(文武官員)을 640명으로 줄였다고 기록하였고,[3] 『자치

---

* 투고: 2025년 10월 8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5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1 최진열, 2024, 「당 태종 ‘정관(貞觀)의 치’와 가정(苛政): 645년 고당 전쟁 이전 조세·요역 수탈의 실상」, 『대순사상논총』 49, 365~399쪽.

2 梁方仲, 1980,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3 『貞觀政要』(吳兢 編著, 1978,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卷3 「擇官」, 87쪽, “貞觀元年, 太宗謂房玄齡等曰: ‘致治之本, 惟在於審. 量才授職, 務省官員. 故書稱: 『任官惟賢才.』 又云: 『官不必備, 惟其人.』 若得其善者, 雖少亦足矣; 其不善者, 縱多亦奚為? 古人亦以官不得其才, 比於畫地作餠, 不可食也. 詩曰: 『謀夫孔多, 是用不就.』 又孔子曰: 『官事不攝, 焉得儉?』 且『千羊之皮, 不如一狐之腋.』 此皆載在經典, 不能具道. 當須更並省官員, 使得各當所任, 則無為而治矣. 卿宜詳思此理, 量定庶官員位.’ 玄齡等由是所置文武總六百四十員. 太宗從之, 因謂玄齡曰: ‘自此倘有樂工雜類, 假使術逾儕輩者, 只可特賜錢帛以賞其能, 必不可超授官爵, 與夫朝賢君子比肩而立, 同坐而食, 遣諸衣冠以為恥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통감(資治通鑑)』에서 643명으로 기록하였다.[4] 『통전·직관전』에서 두 사서 기록보다 5년 후인 정관 6년(632)에 내관(內官)을 대폭 줄이고 문무관의 정원을 643명으로 정했다고 기록하였다.[5] 반면 『신당서』「백관지」에 정관 연간 내외관(內外官), 즉 내관(중앙정부)과 외관(지방관)을 730명이라고 기록하였다.[6] 네 사서에서 관원을 대폭 줄인 시기와 정원 수에 대한 기록이 다르지만, 정관 연간 초기에 벌어졌음이 분명하다. 개설서에서 이를 미담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수천 명이 근무해야 할 중앙정부 각 관청에 640여 명이 근무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 연간에 경관을 640명[7]으로 줄인 배경을 제도사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당나라 중앙정부 소속 관리의 정원 또는 숫자와 관리 임명 사항을 검토하여 당 태종의 조치를 제도사와 재정사의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Ⅱ장에서 당 태종이 줄인 경관(京官) 640명이 당시 3성 6부를 포함한 중앙행정조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검토한다. Ⅲ장에서 태종 시기 3성(상서성·중서성·문하성) 장관의 임명 추이와 재상급 겸직의 추이를 분석한다. Ⅳ장에서 3성 장관 이외의 하위 관품과 다른 직책의 겸직 현상을 검토한다. Ⅴ장에서 정원 감축과 겸관을 제도사와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맺음말에서 정원 감축과 겸직 출현 현상을 재정 문제의 시각에서 정리한다.

---

4 『資治通鑑』 卷192 「唐紀」8 太宗貞觀元年十二月戊申條, 6043쪽, "上謂房玄齡曰: '官在得人, 不在員多.' 命玄齡併省, 留文武總六百四十三員."

5 『通典』 卷19 「職官」1 歷代官制總序, 471쪽, "大唐職員多因隋制, 雖小有變革, 而大較不異. 貞觀六年, 大省內官, 凡文武定員, 六百四十有三而已."

6 『新唐書』 卷46 「百官志」1, 1181쪽, "初, 太宗省內外官, 定制為七百三十員, 曰: '吾以此待天下賢材, 足矣.' 然是時已有員外置, 其後又有特置, 同正員. 至於檢校·兼·守·判·知之類, 皆非本制."

7 官文書를 참조한 『通典』과 역대 사료를 교감한 『資治通鑑』에서 기록한 643員이 정확한 숫자일 가능성이 크지만 본문에서 이미 개설서에서 표기한 640員을 쓰고 경우에 따라 양자의 숫자를 병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경관(京官) 정원과 640원(員)

태종이 즉위 후에 경관 문무 관원을 640명 또는 643명으로 줄인 조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당육전(唐六典)』에 기록된 관청과 직사관(職事官)의 수를 살펴보자.

『당육전』에 기록된 품관(品官)의 직사관이 모두 1,771명이었다.[8] 이는 환관과 궁녀, 친왕부(親王府)·친왕국(親王國)·공주읍사(公主邑司)의 속관을 제외한 관원 수치이다. 여기에 일부 감(監) 등의 수치가 누락되었지만 1,771명이 현종 시기 삼성 육부와 9시(九寺), 제감(諸監), 동궁관(東宮官) 등 중앙 관청의 대략적인 품관 숫자이다. 정관 연간 640명 또는 643명이 1,771명의 36.1% 또는 36.3%에 해당한다. 또 『통전·직관전』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당나라의 관원이 18,805명이며 이 가운데 내관(內官)이 2,621명이었으므로[9] 정관 원년 경관(京官)의 정원이 24.4% 또는 24.5%로 축소되었다.

혹자가 현종 시기 편찬된 『당육전』의 관제가 당 고종 이후 증가한 관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 연간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나라와 유사한 관제를 지닌 수 양제 시기의 관원 수를 살펴볼 필요가

---

8 『唐六典』에 따르면 三師·三公 6인, 尙書都省 21인, 吏部 24인, 戶部 25인, 禮部 18인, 兵部 24인, 刑部 24인, 工部 19인, 門下省 38인, 中書省 42인, 祕書省 58인, 殿中省 99인, 御史臺 26인, 太常寺 94인, 光祿寺 37인, 衛尉寺 22인, 宗正寺 10인, 太僕寺 56인, 大理寺 37인, 鴻臚寺 28인, 司農寺 115인, 太府寺 62인, 國子監 28인, 少府監 80인, 將作監 82인, 左右衛 72인, 左右驍衛 58인, 左右武衛 57인, 左右威衛 55인, 左右領軍衛 55인, 左右金吾衛 55인, 左右監門衛 22인, 左右千牛衛 16인, 左右羽林軍 49인, 太師三師·三少·太子賓客 10인, 太子詹事府 91인, 太子家令寺 13인, 太子率更寺 3인, 太子僕寺 6인, 太子左右衛率府 44인, 太子左右司御率府 32인, 太子左右淸道率府 32인, 太子左右監門率府 14인, 太子左右內率府 12인 등이 있었다(『唐六典』(李林甫 等撰, 陳仲夫 點校, 1992(2005重印), 北京: 中華書局)을 참조했으며 구체적인 卷首와 쪽수는 생략한다). 이를 합하면 1,771인이다.

9 『通典』 卷19 「職官」1 要略·官數條, 481쪽, "大唐一萬八千八百五員(內官二千六百二十一, 外郡縣官一萬六千一百八十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수서』「백관지」에 나열된 수 양제 시기 각 관청의 관원을 합하면 2,164명이다.[10] 『수서』「백관지」에 대업 연간 각 관청 인원에 삼공, 상서·문하·내사 3성의 장관과 상서, 기존의 여러 관청과 왕부(王府)의 관원 수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이 수가 수나라 경관 정원의 최소 수치이며, 『당육전』에 기록된 1,771명보다 많다. 이연(李淵)이 당나라를 세운 후 수나라의 관제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명목상 경관의 수가 최소 2,164명 이상이었다. 이는 정관 연간 640명 또는 643명의 2.38배 또는 2.36배 더 많다. 『통전·직관전』에 따르면 수의 관원 12,576명 가운데 내관, 즉 경관은 2,581명이었다.[11] 『수서』「백관지」에 누락된 삼공과 삼성의 장·차관 등을 포함하면 이 수치에 근접할 것이다. 고조와 태종 시기 수대 관제를 바꾸었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관 연간에 경관을 640명 또는 643명으로 줄인 조치가 큰 폭의 관원 삭감이었음이 분명하다.

앞에서 당 현종과 수 양제 시기 경관 관원 총수를 살펴보았다. 당 태종 시기 중앙정부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관 원년(627)에 국자학을 국자감으로 고치고 장작감(將作監)을 나누어 소부감(少府監)으로 나누어 3감(三監)으로 칭했고 일부 관직의 품계를 바꾸었으며 태사·태부·태보를 삼사(三司)로 칭하는 등 6성(六省) 1대(一臺) 9시(九寺) 3감(三監) 12위(十二衛) 동궁 제사(東宮諸司)의 관제를 완비하였다고 기록한 『구당서』「직관지」 기사[12]를 보면 현종 시기 편찬된 『당육전』의 관청과 관원 수

---

10 『隋書』「百官志」에 따르면 隋代에 尙書省 六曹 26인, 內史省 14인, 殿內省 64인, 祕書省 125인, 御史臺 20인, 謁者臺 626인, 司隸臺 60인, 8寺의 卿·少卿 24인, 太常寺 69인, 大理寺 74인, 鴻臚寺 22인, 國子監 18인, 少府監 4인, 長秋監 10인, 十二衛 86인, 左右領左右府와 左右備身府 94인, 左右監門府 734인, 門下坊 6인, 典書坊 12인, 左右內率 16인, 左右監門率 60인이다(『隋書』 卷28「百官志」下, 794~801쪽).

11 『通典』 卷19「職官」1 要略·官數條, 481쪽, "隋一萬二千五百七十六員(內官二千五百八十一, 外郡縣官九千九百九十五)."

12 『舊唐書』 卷42「職官志」1, 1783쪽, "貞觀元年, 改國子學為國子監, 分將作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당회요』를 검토하면 정관 연간에 일부 기구의 통폐합 또는 분리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없앤 기구와 관원을 살펴보자. 정관 원년에 태상시(太常寺)의 의관서(衣冠署)를 없애고[13] 군기감(軍器監)을 없앤 후 소부감(少府監)에 통합하고[14] 정관 6년(632)에 도수감(都水監)을 설치하고 장작감(將作監)을 없앴다.[15] 또 정관 원년에 태부소경(太府少卿) 2명을,[16] 정관 2년(628)에 사농소경(司農少卿) 4명 가운데 2명을[17] 각각 없앴다. 모두 2감을 줄이고 1감을 설치하였다. 장작감에서 장관인 장작감 1명(종3품), 장작소감 2명(종4품하), 승 4명(종6품하), 주부 2명(종7품하), 녹사 2명(종9품상), 좌교서(左校署)의 령 2명(종8품하), 승 4명(정9품하), 감작 10명(종9품하), 우교서(右校署)의 2명(종8품하), 승 3명(정9품하), 감작 10명(종9품하), 중교서(中校署)의 령 1명(종9품하), 승 3명(정9품하), 감사 4명(종9품하), 견관서(甄官署)의 령 1명(종9품하), 승 2명(정9품하), 감작 4명(종9품하), 백공·취곡·고곡·사곡·태음·이양감에서 각각 감 1명(정7품하), 부감 1명(종7품

少府監, 通將作為三監. 八年七月, 始以雲麾將軍為從三品階. 九月, 以統軍正四品下, 別將正五品上. 十一年, 改令置太師·太傅·太保為三師. 其三公已下, 六省·一臺·九寺·三監·十二衛·東宮諸司, 並從舊定. 又改以光祿大夫為從二品, 金紫光祿大夫為正三品, 銀青光祿大夫為從三品, 正議大夫為正四品上, 通議大夫為正四品下, 太中大夫為從四品上, 中大夫為從四品下, 中散大夫為正五品上, 朝議大夫為正五品下, 朝請大夫為從五品上, 朝散大夫為從五品下. 其六品下, 唯改通議郎為奉議郎, 自餘依舊. 更置驃騎大將軍, 為從一品武散官; 輔國·鎮軍二大將軍, 為從二品武散官; 冠軍將軍加大字; 及雲麾已上, 游擊已上, 改為五品已上武散官. 又置昭武·振威·致果·翊麾·宣節·禦武·仁勇·陪戎八校尉副尉, 為六品已下武散官."

13 『唐會要』 卷65 「太常寺」 衣冠署條, 1340쪽, "貞觀元年省."

14 『唐會要』 卷66 「軍器監」 書算學條, 1376쪽, "武德元年置, 貞觀元年三月十日廢, 併入少府監."

15 『唐會要』 卷66 「都水監」, 1377쪽, "武德八年, 置都水署, 隸將作監. 貞觀六年八月六日, 置監, 罷將作監."

16 『唐會要』 卷66 「太府寺」 少卿條, 1364쪽, "武德初, 置二人. 貞觀元年, 省兩員."

17 『唐會要』 卷66 「司農寺」 少卿條, 1356쪽, "武德初, 四員. 貞觀二年, 減兩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 승 1명(정8품사), 녹사 1인과 감작 4명(종9품하)[18] 등 모두 105명, 군기감에서 군기감(정4품상),[19] 군기감승(정7품상),[20] 군기감 주부(정8품상)[21] 3명, 의관서에서 의관서령(정8품상)[22] 1명, 태부소경 2원과 사농소경 2명(종4품상)[23] 등 모두 113명을 감원하였다. 반면 새로 설치한 도수감에 사자 2명(정5품상), 승 2명(종7품상), 주부 1명(종8품상), 주즙서(舟楫署)의 령 1명(정8품하), 승 2명(정9품하), 하거서(河渠署)의 령 1명(정8품하), 승 1명(정9품하), 제진(諸津)의 령 1명(정9품상), 승 1명(종9품하) 등[24] 최소 관원 12명이 늘었다. 양자를 합하면 최대 101명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새로 추가한 기관이나 관원이다. 위위시(衛尉寺)의 무기서(武器署)가 정관 연간에 분리되어 동도(東都)에도 설치되었다.[25] 무기서에 령 1명(정8품하), 승 2명(정9품하), 감사 1명(종9품하) 등 3명[26]이 새로 두어졌다. 당 건국 후에 없앤 소부감(少府監)이 정관 원년에 태부시의 5서(五署)를 분리하여 다시 설치되고 장작감·국자감과 합쳐 3감이라고 불렀다.[27] 5서를 이양받았으므로

---

18 『唐六典』 卷23 「將作監」, 593~598쪽; 『舊唐書』 卷44 「職官志」3 將作監條, 1895~1897쪽.

19 『舊唐書』 卷42 「職官志」1 正第四品上階條, 1793쪽.

20 『舊唐書』 卷42 「職官志」1 正第七品上階條, 1797쪽.

21 『舊唐書』 卷42 「職官志」1 正第八品上階條, 1799쪽.

22 『舊唐書』 卷42 「職官志」1 正第八品上階條細注, 1799쪽, "鈎盾·右藏·織染·掌冶, 武德令有衣冠署令."

23 태상소경을 제외한 8시의 소경이 종4품상이었다(『舊唐書』 卷42 「職官志」1 從第四品上階條, 1793~1794쪽, "祕書少監·八寺少卿·殿中少監·太子左右衞·司禦·清道·內率·監門副率·太子親勳翊衞中郎將·太子家令·太子率更令·太子僕·內侍·大都護親王府長史·太中大夫·宣威將軍·輕車都尉.").

24 『唐六典』 卷23 「將作監」, 598~600쪽.

25 『唐會要』 卷65 「衛尉寺」 武器署條, 1340쪽, "貞觀年中分東都置."

26 『唐六典』 卷23 「衛尉寺」 武器署條, 464쪽.

27 『唐會要』 卷66 「少府監」, 1365쪽, "武德初, 以兵革未定, 置軍器監, 廢少府監. 貞觀元年正月, 分太府中尚方·左尚方·右尚方·織染方, 掌冶方五署, 置少府監. 通將作·國子為三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감 1명(종3품), 소감 2명(종4품하), 승 4명(종6품하), 주부 2명(종7품하), 녹사 2명(종9품하) 등[28] 11명이 새로 두어졌다. 서산학(書算學)이 정관 2년에 설치되어 국자학(國子學)에 속하였다.[29] 국자학, 즉 국자감에 서학박사 2명(종9품하)과 산학박사 2명(종9품하)[30] 등 4명이 새로 두어졌다. 무기서, 소부감, 서산학의 설치로 모두 18명이 새로 늘어났다.

일부 관서가 새로 설치되거나 부활된 것처럼 관원도 늘어났다. 무덕 7년에 없어진 이부시랑(吏部侍郎)이 정관 2년에 다시 설치되었다.[31] 이부시랑이 폐지된 후 이부낭중(吏部郎中)이 정4품상으로 승격되었다가 정관 2년에 이부시랑을 다시 설치하면서 품계와 직장이 이전대로 바뀌었다.[32] 비서성의 경우 정관 4년에 비서소감(祕書少監) 1명을 추가하고[33] 정관 13년 윤십이월에 문하성에 사관(史館)을 설치하였다.[34] 어사대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가 정원 4명에서 정관 22년에 2명이 늘어났다.[35] 정관 2년에 8명이었던 감찰어사(監察御史)의 정원이

---

28 『唐六典』 卷22 「少府監」, 571~572쪽.

29 『唐會要』 卷66 「廣文學」 書算學條, 1375쪽, "貞觀二年十二月二十一日置, 隸國子學."

30 『唐六典』 卷21 「國子監」, 562~563쪽.

31 『唐會要』 卷58 「尙書省諸司」上 吏部侍郎條, 1179쪽, "武德初, 因隋舊制, 至七年二月省. 貞觀二年正月十日, 復置."

32 『唐會要』 卷58 「尙書省諸司」上 吏部郎中條, 1180쪽, "武德元年, 因隋舊號為選部郎. 三年, 加'中'字. 至五年六月一日, 又改為吏部郎中. 七年廢侍郎, 加郎中秩正四品上, 掌流內選事. 貞觀二年, 復置侍郎, 乃降依本秩, 亦罷掌選事."

33 『唐會要』 卷65 「祕書省」 少監條, 1327쪽, "武德初, 因隋舊制, 號祕書少令, 七年省. 貞觀四年十一月, 復置一員, 以虞世南為之."

34 『唐會要』 卷65 「祕書省」 著作郎條, 1328쪽, "本四員, 開元二十六年正月二十八日, 減兩員, 掌修史. 貞觀二十三年閏十二月, 置史館於門下省, 宰臣監史, 自是著作罷史任."

35 『唐會要』 卷60 「御史臺」上 殿中侍御史條, 1240쪽, "隋末不置. 武德五年三月二十二日, 置四員. 貞觀二十二年十二月九日, 大夫李乾祐奏增兩員, 以李文禮·張敬一為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명 더 늘었다.[36] 정관 22년 십이월 구일에 대리시(大理寺)의 평사(評事)를 10명 두었고 후에 2명을 추가하여 12명으로 늘어났다.[37] 정관 6년에 동도국자감(東都國子監)에서 없앴던 사업(司業)을 다시 1명 두었다.[38] 새로 설치된 관원을 합하면 모두 17명이었다.

무기서, 소부감, 서산학의 설치와 이부시랑 등의 설치로 늘어난 관원이 모두 35명이었다. 여기에 감소 인원 최대 101명을 빼면 최소 66명의 관리가 줄어들었다. 『당육전』의 삼성육부, 9시, 제감(諸監), 12위, 태자관 등의 관원 1,771명을 기준으로 보면 1,705명으로 줄었을 뿐이다. 『당회요』나 기타 사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관청이나 관직의 삭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640명 또는 643명과의 차이가 심하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Ⅲ장에서 살펴보자.

Ⅲ. 3성 장관의 공석과 재상급 겸직의 대체

정관 연간에 어떤 벼슬을 삭감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삼공과 3성의 장관, 재상과 동격인 인물 또는 관직의 임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은 정관 연간 삼공과 상서성의 사실상 장관인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와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중서성의 장관인 중서령(中書令), 문하성의 장관인 시중(侍中)뿐만 아니라 재상급으로 칭해지는 각종 직함을 가진 인물을 연대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먼저 재상의 정의를 살펴보자. 당대 재상이 처음에 수

36 『唐會要』 卷60 「御史臺」上 監察御史條, 1241~1242쪽, "武德初, 因隋舊制, 置八員. 貞觀二年二月九日, 御史大夫李乾祐奏加兩員, 以李義琛·韋務靜為之."

37 『唐會要』 卷66 「大理寺」 評事條, 1356쪽, "貞觀二十二年十二月九日, 置十員, 掌出使推覆, 後加二員, 為十二員."

38 『唐會要』 卷66 「東都國子監」 司業條, 1368쪽, "武德初省. 貞觀六年二月二日. 置一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정관 연간 삼공과 3성 장관, 재상급 임명표[39]

연도	三公	尙書左僕射	尙書右僕射	侍中	中書令	기타 관명(겸직)
무덕 9년 (626, 팔월)	裴寂(司空)		封德彝	陳叔達(시월, 免) 高士廉	房玄齡 宇文士及	
정관원년 (627)	裴寂	蕭瑀(칠월 이임)	封德彝(유월 卒) 長孫無忌(칠월)	高士廉(팔월 전출)	宇文士及(구월 罷) 房玄齡	杜淹(檢校吏部尙書 參預朝政)
정관 2년 (628)	裴寂		長孫無忌(정월 罷)	杜如晦 王珪(십이월 守侍中)	房玄齡 李靖(정월 檢校中書令)	杜淹(시월 죽음)
정관 3년 (629)	裴寂(정월 罷)	房玄齡(이월 임명)	杜如晦(이~십이월)	杜如晦(이월 이임) 王珪	房玄齡(이월 승진)	魏徵(이월, 祕書監 參預朝政)
정관 4년 (630)		房玄齡	李靖(팔월 임명)	王珪(이월 正拜)	溫彦博(이월 임명)	魏徵 蕭瑀(이~칠월, 御史大夫 參預朝政) 戴胄(이월, 吏部尙書 參預朝政) 侯君集(십일월, 兵部尙書 參預朝政)
정관 5년 (631)		房玄齡	李靖	王珪	溫彦博	魏徵 戴胄 侯君集
정관 6년 (632)		房玄齡	李靖	王珪 魏徵(오월 檢校侍中)	溫彦博	魏徵(오월, 侍中) 戴胄 侯君集
정관 7년 (633)	長孫無忌(司空, 십일월)	房玄齡	李靖	王珪(삼월 전출) 魏徵(正拜) 楊恭仁	溫彦博	戴胄(유월, 卒) 侯君集
정관 8년 (634)	長孫無忌	房玄齡	李靖(십일월 罷)	魏徵 楊恭仁	溫彦博	侯君集 李靖(시월~십일월, 門下中書平章政事
정관 9년 (635)	長孫無忌	房玄齡		魏徵 楊恭仁(구월 전출)	溫彦博	蕭瑀(십일월, 特進 參預朝政) 侯君集
정관 10년 (636)	長孫無忌	房玄齡	溫彦博(팔월)	魏徵(유월 罷) 楊師道(유월)	溫彦博(유월 승진)	蕭瑀(십이월 전출) 侯君集 魏徵(特進 知門下省事)

39 萬斯同, 1955(1998重印), 「唐將相大臣年表」, 二十五史刊行委員會 編, 『二十五史補編』, 中華書局, 7218~72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도	三公	尙書左僕射	尙書右僕射	侍中	中書令	기타 관명(겸직)
정관 11년 (637)	長孫無忌	房玄齡	溫彦博 (유월 죽음)	楊師道 (魏徵)		侯君集 魏徵
정관 12년 (638)	長孫無忌	房玄齡	高士廉 (칠월)	楊師道 (魏徵)		侯君集 魏徵
정관 13년 (639)	長孫無忌	房玄齡	高士廉	楊師道 (십일월 이임) (魏徵)	楊師道(십일월)	侯君集 魏徵 劉洎(십일월, 黃門侍郎 參知政事)
정관 14년 (640)	長孫無忌	房玄齡	高士廉	(魏徵)	楊師道	侯君集 魏徵 劉洎
정관 15년 (641)	長孫無忌	房玄齡	高士廉	(魏徵)	楊師道	侯君集 魏徵 劉洎
정관 16년 (642)	長孫無忌 (칠월, 司空 → 司徒) 房玄齡 (칠월, 司空)	房玄齡 (칠월 승진)	高士廉	(魏徵, 구월 罷)	楊師道	侯君集 魏徵 劉洎 岑文本(中書侍郎 專典機密)
정관 17년 (643)	長孫無忌 (司徒) 房玄齡 (司空)		高士廉		楊師道 (사월, 罷)	高士廉(同中書門下三品平章政事) 蕭瑀 · 李世勣(同中書門下三品) 侯君集(4월 伏誅) 劉洎 岑文本 張亮(刑部尙書 參預朝政)
정관 18년 (644)	長孫無忌 (司徒) 房玄齡(司空)		高士廉	劉洎(팔월)	岑文本(팔월) 馬周(八月, 中書侍郎 守中書令)	高士廉 蕭瑀 · 李世勣 劉洎(팔월 승진) 岑文本(팔월 승진) 張亮 褚遂良(黃門侍郎 參預朝政)
정관 19년 (645)	長孫無忌 (司徒) 房玄齡 (司空)		高士廉	劉洎(십이월 賜死) 長孫無忌(攝侍中)	岑文本 (사월, 卒) 馬周 楊師道 (삼월–십일월, 吏部尙書 攝中書令)	蕭瑀 · 李世勣 張亮 褚遂良 許敬宗 · 高季輔 · 張行成(모두 팔월, 同掌機務)
정관 20년 (646)	長孫無忌 (司徒) 房玄齡 (司空)		高士廉	長孫無忌	馬周	蕭瑀(사월 罷) 李世勣 張亮(삼월 伏誅) 褚遂良 許敬宗 · 高季輔 · 張行成
정관 21년 (647)	長孫無忌 (司徒) 房玄齡 (司空)		高士廉 (정월 卒)	長孫無忌	馬周	李世勣 褚遂良(시월 罷) 許敬宗 · 高季輔 · 張行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도	三公	尙書左僕射	尙書右僕射	侍中	中書令	기타 관명(겸직)
정관 22년 (648)	長孫無忌 (司徒) 房玄齡(司空, 칠월 卒)			(長孫無忌)	馬周(정월 卒) 長孫無忌(司徒 檢校中書令) 褚遂良(구월)	李世勣 褚遂良(이월~구월) 許敬宗 · 高季輔 · 張行成 崔仁師(정월 中書侍郎 參知機務, 이월 除名) 長孫無忌(정월 檢校中書令 知尙書門下三省事)
정관 23년 (649, 오월)	長孫無忌 (司徒)				長孫無忌 褚遂良	李世勣(同中書門下三品 → 이월 좌천) 許敬宗 · 高季輔 · 張行成

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3성(三省)의 장관인 중서령, 시중, 상서령이었지만 이세민이 즉위 전에 상서령을 역임했기 때문에 즉위 후에 신하들이 취임하지 않아 복야가 상서성의 장관이 되어 시중·중서령과 함께 재상이라고 불렸다.[40]

〈표 1〉에서 삼공과 좌복야·우복야를 임명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음이 눈에 띈다. 수대부터 삼공인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을 늘 임명하지 않았고, 정관 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1명만 임명했다가 정관 4~6년(630~632)에 1명도 임명하지 않았고 정관 16~22년(642~648)에 2명(장손무기와 방현령)을 두었다. 사실상의 상서성 장관인 상서좌복야가 즉위한 해인 무덕 9년(626), 정관 원년 칠월부터 정관 3년(629) 이월, 정관 16년 칠월부터 정관 23년 오월(643~649), 상서우복야가 정관 2년(628) 정월부터 정관 3년(629) 이월, 정관 3년(629) 십이월(629.12.20~630.1.18)부터 정관 4년(630) 팔월, 정관 8년(634) 십일월부터 정관 10년(636) 팔월, 정관 11년(637) 유월부터 12년(638) 칠월, 정관 21년(647) 정월부터 23년(649) 오월까지 빈자리였다. 후임자 인선을 위한 조사 기간이라고 보기에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다. 진왕 이세민이 역임

40 『新唐書』 卷46 「百官志」1 宰相之職條, 1182쪽, "宰相之職, 佐天子總百官·治萬事, 其任重矣. 然自漢以來, 位號不同, 而唐世宰相, 名尤不正. 初, 唐因隋制, 以三省之長中書令·侍中·尚書令共議國政, 此宰相職也. 其後, 以太宗嘗為尚書令, 臣下避不敢居其職, 由是僕射為尚書省長官, 與侍中·中書令號為宰相, 其品位既崇, 不欲輕以授人, 故常以他官居宰相職, 而假以他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는 이유로 상서성의 장관인 상서령을 임명하지 않은 후에 각각 1명인 상서좌복야와 상서우복야가 사실상 상서성의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관직이었지만,[41] 이세민이 법령과 달리 상서좌복야와 상서우복야를 늘 임명하지 않고 각각 약 8~9년과 6~7년 동안 비워두었다. 심지어 정관 21~23년(647~648)에 상서좌복야와 상서우복야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즉, 율령의 규정과 달리 삼공과 상서좌우복야를 반드시 임명하지 않았다. 이세민이 정관 3년(629)에 상서좌복야 방현령과 상서우복야 두여회에게 자세한 사무를 상서좌승과 상서우승에게 맡기고 인재 천거에 힘쓰라고 지시하였다.[42] 여기에서 실무를 상서좌승과 우승이 처리하면서 좌복야와 우복야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이를 핑계로 이세민이 좌복야와 우복야를 궐석으로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서성 장차관의 결원이 중서성과 문하성의 장관에도 보인다. 시중의 정원이 2명이었지만[43] 〈표 1〉에서 정원인 2명이 임명된 시기가 정관 2~3년(628~629), 정관 6~10년(632~636), 정관 19년(645)이었다. 정관 23년(649)도 2명이었지만 고종 즉위 후에 임명되었다. 〈표 1〉에서 정관 10년(636)부터 정관 16년(642)까지 괄호 안에 위징을 넣었는데, 이는 「당장상대신연표(唐將相大臣年表)」의 저자 만사동(萬斯同)이 정관 10년(636) 시중 위징이 특진(特進)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에 임명된 기사[44]를 여전히 시중의 직함으로 해석했지만, 필

41 『舊唐書』 卷43 「職官志」2 尚書都省條, 1816쪽, "左右僕射各一員, 掌統理六官, 綱紀庶務, 以貳令之職. 自不置令, 僕射總判省事. 御史糾劾不當, 兼得彈之."; 『新唐書』 卷46 「百官志」1 尚書省條, 1185쪽, "左右僕射, 各一人. 從二品, 掌統理六官, 為令之貳, 令闕則總省事, 劾御史糾不當者."

42 『唐會要』 卷57 「尚書省諸司」上 左右僕射條, 1161쪽, "三年三月十日, 太宗謂房玄齡·杜如晦曰: '公為僕射, 當須廣開耳目, 求訪賢哲. 有武藝謀略才堪撫眾者, 任以邊事; 有經明德修通悟性理者, 任以侍臣; 有明幹清慤處事公平者, 任以劇務; 有學通古今識達政術者, 任以治人. 此乃宰相之宏益也. 比聞聽受詞訟, 日不暇給, 安能助朕求賢哉?' 因敕尚書, 細務屬于左右丞, 惟枉屈大事合聞奏者, 關於僕射."

43 『舊唐書』 卷43 「職官志」2 門下省條, 1842쪽, "侍中二員."

44 『舊唐書』 卷3 「太宗紀」下 貞觀十年六月條, 46쪽, "夏六月, 以侍中魏徵為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가 시중에서 면직되고 종2품의 문산관(文散官)인 특진의 자격으로 문하성의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지문하성사가 관직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45] 위징이 정관 16년(642)에도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임명되고 여전히 문하성이 관장하는 사무, 즉 지문하성사를 맡았다.[46] 따라서 위징이 지문하성사의 직함으로 문하성의 사무를 관장했을 때는 시중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를 포함하여 정관 원년(627), 정관 4~6년(630~632), 정관 10~16년(636~642), 정관 18년(644), 정관 19년(645.12.24~646.1.21) 십이월~정관 22년(648) 정월에 시중 1명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정관 17~18년(643~644), 정관 22년(648) 정월~정관 23년(649) 오월에 시중이 없었다. 정관 22년(648) 정월부터 정관 23년(649) 오월까지 시중이 공석이었던 가운데 사도(司徒)인 장손무기가 정관 22년 정월에 검교중서령(檢校中書令) 지상서문하삼성사(知尙書門下三省事)에 임명되었다.[47] 이세민의 처남이었던 장손무기가 삼공과 중서령을 겸했고 상서성과 문하성을 관장하여 삼성을 모두 총괄하였다. 지상서문하삼성사가 관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석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예에서 정원이 2명인 시중이 약 16년 동안 1명만 있었고, 약 4년 사이에 1명도 없었다. 중서령도 시중처럼 2명이 임명되어야 했지만[48] 정관 3~10년(629~636), 정관 13년(639), 정관 14~19년(640~645), 정관 20~22년(646~648) 약 16년 동안 1명만 존재하였고 정관 11년(637)부터 정관 13년(639) 십일월까지 중서령 자리가 비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서성과 문하성, 중서성의 장관이 늘 임명된 것이 아

進, 仍知門下省事."

45 관직 또는 관청 앞에 "知"字를 붙이는 임용 형식이 宰相에도 적용되었다(張東光, 2007, 「唐代任官形式中的知判問題」,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0-1, 86오른쪽~87오른쪽). 魏徵의 직함인 知門下省事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

46 『舊唐書』 卷3 「太宗紀」下 貞觀十六年條, 54쪽, "九月丁巳, 特進·鄭國公魏徵為太子太師, 知門下省事如故."

47 『新唐書』 卷61 「宰相表」上 貞觀二十二年正月丙午條, 1637쪽, "丙午, 无忌檢校中書令, 知尚書·門下三省事."

48 『舊唐書』 卷43 「職官志」2 中書省條, 1848쪽, "中書令二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라 정원보다 적은 1명이 임명되거나(시중과 중서령) 임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 상서좌복야와 상서우복야가 각각 1명, 시중과 중서령이 2명이었지만,[49] 최소한 정관 연간에 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 이를 연도별로 확인하기 위해 삼공과 3성 장관의 결원수를 정리하여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에서 괄호 안의 숫자가 그해 중간에 새로 임명되거나 면직되어 변동된 수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결원 수가 최솟값과 최댓값으로 표시되는 해가 많다.

〈표 2〉를 보면 정관 연간에 1~3품에 해당하는 삼공과 3성 장관이 정원 모두 임명된 해가 없었다. 결원이 가장 적었던 해가 정관 3년(629)으로 2명이며 정관 10년(636), 정관 17년(643), 정관 22년(648)에 최대 7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당대 관제에서 1품과 2품의 직사관이 실제 정무를 처리하지 않는 명예직이므로 삼공과 상서성의 차관이지만 실질적인 장관이 된 상서좌복야와 상서우복야의 결원이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론을 논박하기 위해 조칙 초안 작성과 정책 결정을 맡은 중서성과 이를 검토하는 문하성 장관의 결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관 연간 시중과 중서령의 결원이 없었던 해가 없으며, 부분적으로 정관 2년(628)과 3년(629)과 4년(630), 19년(645)에 일시적으로 몇 달 동안 결원 없이 정원대로 모두 임명했던 짧은 시기가 있었을 뿐이다. 시중과 중서령의 결원이 정관 10년(636)까지 1~2명 수준이었다가 정관 11년(637)부터 18년(644)까지 3명을 유지하다가 일시적으로 4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략한 정관 19년(645) 이후 1~2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시중과 중서령을 임명하지 않는 조치가 정관 연간에 '상례'가 되었다. 그러나 조칙 작성과 정책 결정이라는 중요한 일을 책임지는 시중과 중서령의 결원이 큰 문제였다. 이세민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정관 원년(627) 이부상서 두엄(杜淹)에게 '참예조정(參預朝政)'의 직함을 주어 중서성과 문하성의 사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즉, 중서성과 문하성의 장

49 『舊唐書』 卷43 「職官志」2 中書省·中書令條細注, 1849쪽, "武德·貞觀故事, 以尚書省左右僕射各一人及侍中·中書令各二人, 為知政事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을 절반으로 임명하거나 1명도 임명하지 않으며 생긴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재상급 직함이었다. 다른 벼슬의 관리가 '참의조정(參議朝政)', '평장국

〈표 2〉 정관 연간 삼공과 3성 장관 결원수[50]

연도	三公	左僕射	右僕射	侍中	中書令	결원 총수	시중·中書令 결원	재상급(겸직) 수
무덕 9년(626)	2	1	0	0(1)	0	3(4)	0(1)	0
정관원년(627)	2	0	0	1	0	3	1	1
정관 2년(628)	2	1	0(1)	1(0)	1(0)	4(5)	2(0)	1(0)
정관 3년(629)	2	0	0	0(1)	0(1)	2(4)	0(2)	0(1)
정관 4년(630)	3	0	1(0)	1(0)	1(0)	6(3)	2(0)	1(4)
정관 5년(631)	3	0	0	1	1	5	2	3
정관 6년(632)	3	0	0	1(0)	1	5(4)	2(1)	3(2)
정관 7년(633)	3(2)	0	0	0	1	4(2)	1	2(1)
정관 8년(634)	2	0	0(1)	0	1	3(4)	1	1(2)
정관 9년(635)	2	0	1	0(1)	1	4(5)	1(2)	1(2)
정관 10년(636)	2	0	1(0)	1	1(2)	5(7)	2(3)	3(2)
정관 11년(637)	2	0	0(1)	1	2	5(6)	3	2
정관 12년(638)	2	0	1(0)	1	2	6(5)	3	2
정관 13년(639)	2	0	0	1(2)	2(1)	5	3	2(3)
정관 14년(640)	2	0	0	2	1	5	3	3
정관 15년(641)	2	0	0	2	1	5	3	3
정관 16년(642)	1	0(1)	0	2	1	4(5)	3	4
정관 17년(643)	1	1	0	2	1(2)	5(7)	3(4)	7(6)
정관 18년(644)	1	1	0	2(1)	2(0)	6(3)	4(3)	8(6)
정관 19년(645)	1	1	0	1(0)	0	3(2)	1(0)	4(7)
정관 20년(646)	1	1	0	1	1	4	2	7(5)
정관 21년(647)	1	1	0(1)	1	1	4(5)	2	5(4)
정관 22년(648)	1(2)	1	1	2	0(1)	5(7)	2(3)	7(5)
정관 23년(649)	2	1	1	2	0	6	2	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계(平章國計)', '전전기밀(專典機密)', '참의정사(參議政事)' 등의 명의를 가지면 재상급이 되었다. 정관 17년 태자첨사(太子詹事) 이적(李勣)이 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의 직함으로 정사에 참여한 것처럼 복야(僕射)나 다른 관리가 이 직함을 지니고 정사에 참여하였다. 무주(武周) 시대 이후 동중서문하삼품(同中書門下三品) 또는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의 직함을 가진 관리가 중서성·문하성의 관리와 함께 재상이 되었다.[51] 정관 연간에 이부상서 두엄이 '참의조정'으로, 비서감 위징이 '참예조정'의 직함으로 정사에 참여하였으며, '참의득실(參議得失)', '참의정사(參議政事)' 등의 직함도 재상으로 간주되었다. 고종 이후에 동중서문하삼품이란 직함이 재상으로 간주되었다. 영순 원년(永淳元年) 이후 황문시랑(黃門侍郎) 곽대거(郭待擧)와 병부시랑(兵部侍郎) 잠장천(岑長倩)이 임명된 동중서문하평장사가 재상의 직함이 되었다.[52] 『구당서』「직

50 萬斯同, 1955(1998重印), 앞의 글, 7218~7221쪽.

51 『舊唐書』 卷43 「職官志」2 中書省·中書令條細注, 1849쪽, "武德·貞觀故事, 以尚書省左右僕射各一人及侍中·中書令各二人, 為知政事官. 其時以他官預議國政者, 云與宰相參議朝政, 或云平章國計, 或云專典機密, 或參議政事. 貞觀十七年, 李勣為太子詹事, 特詔同知政事, 始謂同中書門下三品. 自是, 僕射常帶此稱. 自餘非兩省長官預知政事者, 亦皆以此為名. 永淳中, 始詔郭正一·郭待擧·魏玄同等, 與中書門下同承受進旨平章事. 自天后已後, 兩省長官及同中書門下三品并平章事, 為宰相. 其僕射不帶同中書門下三品者, 但釐尚書省而已. 總章二年, 東臺侍郎張文瓘, 西臺侍郎戴至德等, 始以同中書門下三品著之入銜. 自是相承至今. 永淳二年, 黃門侍郎劉齊賢知政事, 稱同中書門下平章事, 自後兩省長官, 及他官執政未至侍中書令者, 皆稱同中書門下平章事也."

52 『新唐書』 卷46 「百官志」1 尚書令條細注, 1182~1183쪽, "自太宗時, 杜淹以吏部尚書參議朝政, 魏徵以祕書監參預朝政, 其後或曰'參議得失'·'參知政事'之類, 其名非一, 皆宰相職也. 貞觀八年, 僕射李靖以疾辭位, 詔疾小瘳, 三兩日一至中書門下平章事, 而'平章事'之名蓋起於此. 其後, 李勣以太子詹事同中書門下三品, 謂同侍中·中書令也, 而'同三品'之名蓋起於此. 然二名不專用, 而佗官居職者猶假佗名如故. 自高宗已後, 為宰相者必加'同中書門下三品', 雖品高者亦然; 惟三公·三師·中書令則否. 其後改易官名, 而張文瓘以東臺侍郎同東西臺三品, '同三品'入銜, 自文瓘始. 永淳元年, 以黃門侍郎郭待擧·兵部侍郎岑長倩等同中書門下平章事, '平章事'入銜, 自待擧等始. 自是以後, 終唐之世不能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지」와 『신당서』 「백관지」에서 재상 직함이 생긴 이유를 기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표 2〉를 보면 시중과 중서령의 결원과 비례하여 재상급 직함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는 관원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보인다. 정관 11년(637)부터 18년(644)까지 시중과 중서령 정원 4명 가운데 1명만 임명했던 동안 재상급 직함을 지닌 관리 수를 2~3명으로 유지했지만 정관 17~18년(643~644)에 6~8명으로 폭증하였다. 이후 정관 22년(648)까지 4~7명의 재상급 직함의 관리들이 존재하였다. 정관 3년 이후 시중과 중서령의 결원수보다 재상급 직함을 가진 겸관의 수가 같거나 많은 해가 많았다. 정관 11~13년에만 시중·중서령 결원수보다 적은 재상급 직함의 겸관이 있었을 뿐이다. 즉, 〈표 1〉과 〈표 2〉에서 보이는 추세를 종합하면 상서좌복야, 상서우복야, 시중, 중서령이 결원이 있더라도 '참예조정', '문하중서평장정사(門下中書平章政事)', '참지정사', '전전기밀', '동중서문하삼품평장정사(同中書門下三品平章政事)', '동중서문하삼품', '동장기무(同掌機務)', '참지기무(參知機務)', '지상서문하삼성사' 등의 직함을 지난 관리가 재상의 자격으로 국정에 참여하였다. 요컨대 이세민이 3성 장관의 결원을 다른 관리에게 재상 직함을 주어 겸직하게 하여 결원을 보충한 것이다. 그렇다면 3성 장관의 결원을 재상급 직함을 주어 시중이나 중서령의 임무를 겸직하게 하는 관행이 다른 관직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Ⅳ장에서 검증해 보자.

Ⅳ. 직사관의 겸직 빈발

이세민이 3품 이상의 고관을 정원대로 뽑지 않고 결원이 생기도록 방치한 것처럼 4품 이하의 관원들도 일부 정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직사관의 겸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정관 연간 직사관의 겸직을 정리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정관 연간 직사관의 겸직 사례[53]

이름	시기	본직	겸직 벼슬	기타
戴胄	貞觀 3년	諫議大夫(정5품상)	民部尙書(정3품)와 兼檢校太子左庶子(정4품상), 兼攝吏部尙書)	參預朝政[54]
盧承慶		民部侍郎(정4품하)	兵部侍郎(정4품하)	5品 選事를 관리[55]
李大亮	貞觀 17년	左衛大將軍(정3품)	太子右衛率(정4품상)과 工部尙書(정3품)[56]	
溫彦博	貞觀 2년	御史大夫(종3품)	檢校中書侍郎事(정4품상)[57]	
高士廉	貞觀 12년	상서우복야	攝太子少師[58]	
長孫無忌	貞觀 19년	司徒(정1품)	太子太師(종1품), 시중(攝侍中, 정3품)	
	貞觀 21년	사도(정1품)	시중(정3품), 양주도독(揚州都督, 종2품)[59]	
李靖	貞觀 2년	刑部尙書(정3품)	중서령(兼檢校中書令, 정3품)	
	貞觀 3년	兵部尙書(정3품)	中書令(정3품)[60]	
李勣	貞觀 17년	太子詹事(정3품)	태자좌위솔(兼左衛率)	同中書門下三品[61]
尉遲敬德	645년	본관(夏州都督?)	太常卿(정3품)[62]	
程知節	643년	左屯衛大將軍(정3품)	檢校北門屯兵[63]	
王珪		黃門侍郎(정4품상)	兼太子右庶子(정4품하)[64]	
戴胄		尙書左丞(정4품상)	간의대부(領諫議大夫, 정5품상)[65]	
岑文本	貞觀元年	祕書郎(종6품상)		兼直中書省[66]
杜正倫	貞觀 2년	給事中(정5품상)	兼知起居注[67]	
		散騎常侍(종3품)	行太子右庶子(정4품하), 兼崇賢館學士[68]	
	貞觀 10년	中書侍郎(정4품상)	太子左庶子(정4품상)[69]	
虞世南	태종 즉위 이후	著作郎(종5품상)	兼弘文館學士[70]	
李百藥	貞觀 10년	散騎常侍(종3품)	太子左庶子(정4품상)[71]	
姚思廉	貞觀초	著作郎(종5품상)	弘文館學士[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름	시기	본직	겸직 벼슬	기타
令狐德棻	貞觀 6년	禮部侍郎(정4품하)	兼修國史[73]	
孔穎達	貞觀 6년	太子右庶子(정4품하)	兼國子司業(종4품하)[74]	
	貞觀 12년	國子祭酒(종3품)		侍講東宮[75]
馬嘉運	貞觀 11년	太學博士(정6품상)	弘文館學士[76]	
劉洎	645년 전후	侍中	太子左庶子(정4품상), 檢校民部尙書(정3품)[77]	
馬周	貞觀 15년	治書侍御史(어사중승으로 개칭, 정5품상)	兼知諫議大夫(정5품상), 兼檢校晉王府長史	
		中書侍郎(정4품상)	太子右庶子(정4품하)	
	貞觀 18년	中書令(정3품)	太子右庶子(정4품하)[78]	
	645년	中書令(정3품)	攝吏部尙書(정3품)[79]	
崔仁師	645년 이후	中書舍人(정5품상)	兼檢校刑部侍郎(정4품하)[80]	
韋挺		行黃門侍郎(정4품상)		兼魏王泰府事[81]
楊纂	貞觀 8년 이후	太常少卿(정4품상)	雍州別駕	
		太僕卿	雍州別駕[82]	
劉德威	貞觀 11년과 17년 사이	刑部尙書(정3품)	雍州別駕[83]	
崔義玄	貞觀 초	左司郎中(종5품상)	兼韓王府長史(종4품상)	行州府事[84]
于志寧	貞觀 초	散騎常侍(종3품)	太子左庶子(정4품상)[85]	
	貞觀 14년	散騎常侍(종3품)	太子詹事(정3품)[86]	
高季輔	貞觀 18년	太子右庶子(정4품하)	兼吏部侍郎(정4품상)	
	貞觀 22년	中書令(정3품)	吏部尙書(정3품), 監修國史)[87]	
張行成	645년 고구려 침략 이전	刑部侍郎(정4품하)	太子少詹事(정4품상)[88]	
	645년 고당 전쟁 이후	刑部侍郎(정4품하)	太子少詹事, 兼檢校尙書左丞(정4품상)[89]	
	貞觀 23년	侍中(정3품)	兼刑部尙書(정3품)[90]	
褚遂良	貞觀 15년	諫議大夫(정5품상)		兼知起居事[91]
	貞觀 21년	본관(諫議大夫)	檢校大理卿(종3품)[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름	시기	본직	겸직 벼슬	기타
來濟	貞觀 18년	太子司議郎(정6품상)	兼崇賢館直學士[93]	
盧承慶	貞觀 말	雍州長史	尙書左丞(정4품상)[94]	
許敬宗	貞觀 8년	著作郎(종5품상)	兼修國史[95]	
	貞觀 10년과 17년 사이	給事中(정5품상)	修國史[96]	
	貞觀 19년	본관(給事中)	中書侍郎(정4품상)[97]	
李義府	貞觀 8년	監察御史(정8품상)		겸 시진왕(兼侍晉王)
		太子舍人(정6품상)	崇賢館直學士[98]	
劉子翼		著作郎(종5품상)	弘文館直學士[99]	
良醞	貞觀 5년	檢校左領軍大將軍事(정3품)	雍州牧, 左領軍大將軍[100]	
李思摩(阿史那思摩)	貞觀 20년	右武衛大將軍, 정3품)		檢校屯營事[101]

53 萬斯同, 1955(1998重印), 앞의 글, 7218~7221쪽.

54 『舊唐書』 卷70 「戴胄傳」, 2533쪽, "三年, 進拜民部尙書, 兼檢校太子左庶子. 先是, 右僕射杜如晦專掌選擧, 臨終請以選事委胄, 由是詔令兼攝吏部尙書, 其民部·庶子·諫議並如故. 胄雖有幹局, 而無學術, 居吏部, 抑文雅而奬法吏, 甚為時論所譏. 四年, 罷吏部尙書, 以本官參預朝政, 尋.進爵為郡公."

55 『舊唐書』 卷81 「盧承慶傳」, 2748~2749쪽, "累遷民部侍郎. 太宗嘗問歷代戶口多少之數, 承慶敍夏·殷以後迄于周·隋, 皆有依據, 太宗嗟賞久之. 尋令兼檢校兵部侍郎, 仍知五品選事. 承慶辭曰: '選事職在尙書, 臣今掌之, 便是越局.' 太宗不許, 曰: '朕今信卿, 卿何不自信也?'"; 『新唐書』 卷106 「盧承慶傳」, 4047쪽.

56 『舊唐書』 卷62 「李大亮傳」, 2389쪽, "後拜左衞大將軍. 十七年, 晉王為皇太子, 東宮僚屬皆盛選重臣, 以大亮兼領太子右衞率, 俄兼工部尙書, 身居三職, 宿衞兩宮, 甚為親信."

57 『舊唐書』 卷61 「溫大雅傳附弟彥博傳」, 2361쪽, "貞觀二年, 遷御史大夫, 仍檢校中書侍郎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8 『舊唐書』 卷65 「高士廉傳」, 2444쪽, “十二年, 與長孫無忌等以佐命功, 並代襲刺史, 授申國公. 其年, 拜尚書右僕射. 士廉既任遇益隆, 多所表奏, 成輒焚稿, 人莫知之. 攝太子少師, 特令掌選.”

59 『舊唐書』 卷65 「長孫無忌傳」, 2453~2454쪽, “十九年, 太宗征高麗, 令無忌攝侍中. 還, 無忌固辭師傅之位, 優詔聽罷太子太師. 二十一年, 遙領揚州都督.”

60 『舊唐書』 卷67 「李靖傳」, 2479쪽, “太宗嗣位, 拜刑部尚書, 并錄前後功, 賜實封四百戶. 貞觀二年, 以本官兼檢校中書令. 三年, 轉兵部尚書.”

61 『舊唐書』 卷67 「李勣傳」, 2486쪽, “十七年, 高宗為皇太子, 轉勣太子詹事兼左衞率, 加位特進, 同中書門下三品.”

62 『舊唐書』 卷68 「尉遲敬德傳」, 2500쪽, “太宗不納, 令以本官行太常卿, 為左一馬軍總管, 從破高麗於駐蹕山.”

63 『舊唐書』 卷68 「程知節傳」, 2503쪽, “十七年, 累轉左屯衞大將軍, 檢校北門屯兵, 加鎮軍大將軍.” 左右屯衛는 高宗 龍朔 연간에 左右威衛로 바뀌었다(『舊唐書』 卷44 「職官志」3 武官 · 左右威衞條, 1900쪽, “隋為左右屯衞, 龍朔改為威衞, 光宅改為左右豹韜衞, 神龍復為威衞.”). 左屯衛大將軍이 南衙禁軍인 十二衛의 하나인데 程知節이 十二衛인 左屯衛大將軍과 더불어 북아금군인 北門屯兵을 지휘하여 2개의 武將을 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程知節墓誌」에서 貞觀 12년에 左屯衛大將軍에 제수되고 北門에서 屯兵을 檢校했다고 기록하여(「程知節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 · 趙超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麟德019, 151쪽, “明年, 追授左屯衛大將軍, 於北門檢校屯兵. 惟彼北營羽林之騎, 選兼七萃, 任重八屯. 載居其職, 彌見忠謹.”) 『舊唐書』 「程知節傳」의 기사와 연도 차이가 심하다.

64 『舊唐書』 卷70 「王珪傳」, 2528쪽, “珪每推誠納忠, 多所獻替, 太宗顧待益厚, 賜爵永寧縣男, 遷黃門侍郎, 兼太子右庶子.”

65 『舊唐書』 卷70 「戴胄傳」, 2533쪽, “時尚書左僕射蕭瑀免官, 僕射封德彝又卒, 太宗謂胄曰: ‘尚書省天下綱維, 百司所稟, 若一事有失, 天下必有受其弊者. 今以令 · 僕繫之於卿, 當稱朕所望也.’ 胄性明敏, 達於從政, 處斷明速, 議者以為左右丞稱職, 武德已來, 一人而已. 又領諫議大夫, 令與魏徵更日供奉.”

66 『舊唐書』 卷70 「岑文本傳」, 2536쪽, “貞觀元年, 除秘書郎, 兼直中書省.”

67 『舊唐書』 卷70 「杜正倫傳」, 2542쪽, “二年, 拜給事中, 兼知起居注.”

68 『舊唐書』 卷70 「杜正倫傳」, 2542쪽, “尋加散騎常侍, 行太子右庶子, 兼崇賢館學士.”

69 『舊唐書』 卷70 「杜正倫傳」, 2543쪽, “十年, 復授中書侍郎, 賜爵南陽縣侯, 仍兼太子左庶子.”

70 『舊唐書』 卷72 「虞世南傳」, 2566쪽, “及即位, 轉著作郎, 兼弘文館學士.”

71 『舊唐書』 卷72 「李百藥傳」, 2577쪽, “十年, 以撰齊史成, 加散騎常侍, 行太子左庶子, 賜物四百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2 『舊唐書』 卷73 「姚思廉傳」, 2593쪽, "貞觀初, 遷著作郎·弘文館學士."

73 『舊唐書』 卷73 「令狐德棻傳」, 2598쪽, "六年, 累遷禮部侍郎, 兼修國史, 賜爵彭陽男."

74 『舊唐書』 卷73 「孔穎達傳」, 2602쪽, "六年, 累除國子司業. 歲餘, 遷太子右庶子, 仍兼國子司業."

75 『舊唐書』 卷73 「孔穎達傳」, 2602쪽, "十二年, 拜國子祭酒, 仍侍講東宮."

76 『舊唐書』 卷73 「孔穎達傳附馬嘉運傳」, 2603쪽, "十一年, 召拜太學博士, 兼弘文館學士, 預修文思博要."

77 『舊唐書』 卷74 「劉洎傳」, 2611쪽, "太宗征遼, 令洎與高士廉·馬周留輔皇太子定州監國, 仍兼左庶子·檢校民部尚書."

78 『舊唐書』 卷74 「馬周傳」, 2619쪽, "十五年, 遷治書侍御史, 兼知諫議大夫, 又兼檢校晉王府長史. 王為皇太子, 拜中書侍郎, 兼太子右庶子. 十八年, 遷中書令, 依舊兼太子右庶子. 周既職兼兩宮, 處事精密, 甚獲當時之譽."

79 『舊唐書』 卷74 「馬周傳」, 2619쪽, "太宗伐遼東, 皇太子定州監守, 令周與高士廉·劉洎留輔皇太子. 太宗還, 以本官攝吏部尚書."

80 『舊唐書』 卷74 「崔仁師傳」, 2622쪽, "太宗還至中山, 起為中書舍人, 尋兼檢校刑部侍郎. 太宗幸翠微宮, 仁師上清暑賦以諷, 太宗稱善, 賜帛五十段. 二十二年, 遷中書侍郎, 參知機務."

81 『舊唐書』 卷77 「韋挺傳」, 2670쪽, "尋改授銀青光祿大夫, 行黃門侍郎, 兼魏王泰府事."

82 『舊唐書』 卷77 「楊纂傳」, 2673쪽, "後歷太常少卿·雍州別駕, 加銀青光祿大夫, 復為尚書左丞, 遷太僕卿, 檢校雍州別駕, 遷戶部尚書."

83 『舊唐書』 卷77 「劉德威傳」, 2677쪽, "數歲, 遷刑部尚書, 兼檢校雍州別駕."

84 『舊唐書』 卷77 「崔義玄傳」, 2688쪽, "貞觀初, 歷左司郎中, 兼韓王府長史, 行州府事."

85 『舊唐書』 卷78 「于志寧傳」, 2693쪽, "貞觀三年, 累遷中書侍郎. 太宗命貴臣內殿宴, 怪不見志寧, 或奏曰: '敕召三品已上, 志寧非三品, 所以不來.' 太宗特令預宴, 即加授散騎常侍, 行太子左庶子. 累封黎陽縣公."

86 『舊唐書』 卷78 「于志寧傳」, 2694쪽, "十四年, 兼太子詹事."

87 『舊唐書』 卷78 「高季輔傳」, 2703쪽, "十七年, 授太子右庶子, 又上疏切諫時政得失, 特賜鍾乳一劑, 曰: '進藥石之言, 故以藥石相報.' 十八年, 加銀青光祿大夫, 兼吏部侍郎, 凡所銓敍, 時稱允當. 太宗嘗賜金背鏡一面, 以表其清鑒焉. 二十二年, 遷中書令, 兼檢校吏部尚書·監修國史, 賜爵蒲縣公."

88 『舊唐書』 卷78 「張行成傳」, 2704쪽, "轉刑部侍郎·太子少詹事."

89 『舊唐書』 卷78 「張行成傳」, 2704쪽, "駕還京, 為河南巡察大使. 還稱旨, 以本官兼檢校尚書左丞."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에 『구당서』와 『신당서』의 열전, 묘지명의 관직 기록을 정리하였다. 중복될 경우 『신당서』와 묘지명의 인용을 생략하였다. 영성(零星)한 집계이긴 하지만 『구당서』 열전과 묘지명에서 35명이 2개 이상의 관직을 겸한 51개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대총관과 행군총관 등 전쟁 때 임시로 임명되는 무관의 겸직을 제외한 수이다. 또 탁지사(度支司)가 전국의 이해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라서 낭조(郎曹)가 비어도 충원하지 못하자 방현령이 스스로 탁지사의 직책을 겸직한 예가 있다.[102] 겸직한 관직이 탁지낭중인지 탁지원외랑인지 『수당가화』에서 기

90 『舊唐書』 卷78 「張行成傳」, 2705쪽, "二十三年, 遷侍中, 兼刑部尚書."

91 『舊唐書』 卷80 「褚遂良傳」, 2729~2730쪽, "其年, 遷諫議大夫, 兼知起居事."

92 『舊唐書』 卷80 「褚遂良傳」, 2738쪽, "二十一年, 以本官檢校大理卿, 尋丁父憂解."

93 『舊唐書』 卷80 「來濟傳」, 2742쪽, "十八年, 初置太子司議郎, 妙選人望, 遂以濟為之, 仍兼 崇賢館直學士."

94 『舊唐書』 卷81 「盧承慶傳附承業傳」, 2749쪽, "貞觀末, 官至雍州長史·檢校尚書左丞."

95 『舊唐書』 卷82 「許敬宗傳」, 2761쪽, "貞觀八年, 累除著作郎, 兼修國史, 遷中書舍人."

96 『舊唐書』 卷82 「許敬宗傳」, 2761쪽, "累遷給事中, 兼修國史."

97 『舊唐書』 卷82 「許敬宗傳」, 2761~2762쪽, "十九年, 太宗親伐高麗, 皇太子定州監國, 敬宗與高士廉等共知機要. 中書令岑文本卒於行所, 令敬宗以本官檢校中書侍郎."

98 『舊唐書』 卷82 「李義府傳」, 2765~2766쪽, "貞觀八年, 劍南道巡察大使李大亮以義府善屬文, 表薦之. 對策擢第, 補門下省典儀. 黃門侍郎劉洎·持書御史馬周皆稱薦之, 尋除監察御史. 又敕義府以本官兼侍晉王. 及昇春宮, 除太子舍人, 加崇賢館直學士, 與太子司議郎來濟俱以文翰見知, 時稱來·李."

99 『舊唐書』 卷87 「劉禕之傳」, 2846쪽, "母卒, 服竟, 徵拜吳王府功曹, 再遷著作郎·弘文館直學士, 預修晉書, 加朝散大夫."

100 「楊溫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趙超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貞觀021, 23쪽, "九年, 拜雍州牧. … 貞觀五年, 檢校左領軍大將軍事."

101 「李思摩墓誌」, 『唐代墓誌彙編續集』 貞觀050, 38쪽, "廿年, 蒙授右武衛大將軍, 檢校屯營事."

102 『隋唐嘉話』(劉餗 撰, 程毅中 檢校, 1997, 北京: 中華書局) 卷中, 18쪽, "梁公以度支之司, 天下利害, 郎曹當闕, 求之未得, 乃自職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 3〉에서 제외하였다. 필자가 분석하지 못한 묘지명과 사서의 열전에 누락된 사례를 포함하면 겸직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103]

대표적인 인물이 대주(戴胄), 노승경(盧承慶), 이대량(李大亮)이다. 대주가 간의대부(諫議大夫, 정5품상)인 상태에서 정관 3년(629) 민부상서(民部尙書, 정3품)와 태자좌서자(兼檢校太子左庶子, 정4품상)를 겸임하였고 이어서 이부상서(정3품)를 겸하여(兼攝吏部尙書) 모두 4개의 직사관(職事官)을 겸하였으며 '참예조정'의 직함으로 재상의 자격으로 국정에 참여하였다.[104] 즉, 대주가 정관 3년(629) 5개의 벼슬을 받아 5개 기관의 사무를 동시에 처리하였다. 노승경이 민부시랑(民部侍郎, 정4품하)에 임명된 후 역대 호구수를 묻는 이세민의 물음에 잘 대답하여 병부시랑(兵部侍郎, 정4품하)을 겸하였고 5품선사를 관리하였다.[105] 지5품선사(知五品選事)는 5품관의 인사관리를 맡는다는 뜻이며, 본래 이부(吏部)의 사무였다. 즉, 노승경이 민부시랑(훗날의 호부시랑)과 병부시랑을 겸하면서 이부의 사무까지 처리하여 6부 가운데 최소 3개 부(민부, 병부, 이부)의 관직을 겸하였다. 이대량도 좌위대장군(左衛大將軍, 정3품)인 상태에서 정관 17년(643) 태자우위솔(太子右衛率, 정4품상)과 공부상서(工部尙書, 정3품)를 겸하여 세 관직을 겸하고 양궁, 즉 이세민과 태자 이치의 궁전을 숙위하였다.[106] 이사마(아사나사마)가 정관 20년(646)에 남아금군인 12위(衛)의 장관인 우무위대장군(右武衛大將軍, 정3품)과 북아금군인 둔영(屯營)을 관리하는 검교둔영사(檢校屯營事)를 겸하였다.[107] 이는 북아금군과 남아금군을 동시에 지휘한 것이며, 이는

---

103 唐 前期 墓誌銘을 읽어보면 北魏를 비롯한 北朝 墓誌銘처럼 墓主의 관직 임명 연도를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정관 연간 관직 여부과 불확실한 경우 모두 제외하였다.

104 『舊唐書』 卷70 「戴胄傳」, 2533쪽.

105 『舊唐書』 卷81 「盧承慶傳」, 2748~2749쪽; 『新唐書』 卷106 「盧承慶傳」, 4047쪽.

106 『舊唐書』 卷62 「李大亮傳」, 2389쪽.

107 「李思摩墓誌」, 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세민이 이사마를 신뢰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구당서』와 『신당서』, 묘지명에서 직사관의 겸직 사례가 빈출한다.

〈표 3〉을 보면 겸직 사례가 삼공과 삼성 장관 2회, 중서령과 6부 상서 4회, 시중과 6부 상서 1회, 어사대와 중서성·문하성 관원 겸직 2회, 상서좌승과 문하성 관리 1회, 비서랑과 중서성 관리 1회, 중서사인과 6부 시랑 1회, 12위와 북아 금군 1회, 저작랑과 홍문관 학사·직학사 3회, 사관(감수국사, 수국사, 기거주 등)과 타관 겸직 6회, 경관과 옹주목·옹주별가 겸직 4회, 동궁관과 타관 겸직 18회였다. 이 가운데 경관과 동궁관의 겸직이 가장 많았다. 진왕(晉王) 이치가 태자가 된 후 명사가 궁관(宮官)을 겸한 예가 많았고 잠문본도 태자관을 겸했다는 사례[108]를 보면, 당시 태자관이 주로 겸관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감수국사·수국사·기거주의 겸직이 6회로 많았으며, 재상의 감수국사 겸직이 이후 관례가 되었다.[109] 중서령·시중과 6부 상서의 겸직이 5회에 상서좌승과 문하성 관리 겸직 1회를 더하면 6회로 많은데, 이는 삼성의 상호 견제라는 삼성육부 제도의 취지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유학자들이 본관과 문학관학사(文學館學士)를 겸한 예가 많았음이 확인된다.[110] 이러한 예를 종합하면, 이세민 재위 시기에 겸직이 일반화되었으며 재상직뿐만 아니라 4품 이하의 관직 겸직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경관과 지방관의 겸직도 존재하였다. 경관과 옹주목·옹주별가의 겸직이 4회였다. 경관의 겸직 횟수에서 제외했지만, 소우(蕭瑀)가 이세민 즉위 후에 중서령(정3품)에 임명되고 본관을 지닌 채 양주도독(涼州都督)을 겸하였다.[111] 이적이 정관 11년(637) 행병주대도독부장사(行并州大都督府長史)와

108 『舊唐書』 卷70 「岑文本傳」, 2538쪽, "是時, 新立晉王為皇太子, 名士多兼領宮官, 太宗欲令文本兼攝."

109 『舊唐書』 卷43 「職官志」2 中書省·史館·條, 1852쪽.

110 『舊唐書』 卷72 「褚亮傳」, 2582쪽.

111 『舊唐書』 卷63 「蕭瑀傳」, 241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태자좌위솔을 겸하였다.[112] 옹주가 수도 장안이었으므로 경관이 지방관을 겸하더라도 수도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양주도독과 병주대도독부장사가 해당 지방에 부임해야 하였다. 따라서 소우와 이적의 겸직을 실제로 임지에 부임하지 않는 요령(遙領)으로 해석해야 한다.

V. 정원 감축과 겸직의 제도적·재정적 배경

1. 결원과 겸직의 변칙적 운영

이 절에서 제도사 측면, 구체적으로 정원 삭감과 장기간 결원, 겸직 문제를 살펴본다. 640명 또는 643명을 정원관(正員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대에 검교·지·판·원외·원외동정·내공봉 등 다양한 명칭의 관리 임용 방식이 있었다.[113] 640명 또는 643명이 정원관이고 나머지 관리들을 일종의 비정원관인 검교·지·판·시·섭·원외 등으로 임명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Ⅳ장의 〈표 3〉에서 검교관이 8회, 섭관(攝官)이 3회이다. 특히 검교관이 겸직의 의미뿐만 아니라 정원관 임명 전의 단계였다. 정관 연간에 검교·지·판·시·섭의 방식으로 임무를 맡기면 정원관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관 연간 640명 또는 643명이 정원관이라고 해석하면 검교관과 섭관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결원과 겸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3장에서 삼공과 3성 장관의 정원을 모두 임명하지 않는 현상이 정관 연간뿐

112 『舊唐書』 卷67 「李勣傳」, 2486쪽.

113 杜文玉, 1993, 「論唐代員外官與試官」, 『陝西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2-3, 90~97쪽; 淸木場東, 1997, 「正官以外の祿」, 『帝賜の構造 -唐代財政史硏究 支出編-』, 福岡: 中國書店, 172~176쪽; 張東光, 2007, 앞의 글, 86왼쪽~90오른쪽; 夏麗梅, 2012, 「隋唐檢校官制度初探」, 『靑海社會科學』 2012-3, 154~157, 1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만 아니라 고종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무주(武周) 시대에 정원을 모두 채우는 추세였으나, 다시 당 중종 이후 삼공과 3성 장관 일부를 결원으로 남겨두는 관행이 지속되었다. 특히 현종 치세에 시중과 중서령을 1명씩 임명하는 관행이 유지되었다.[114] 수 양제 시기인 609년 9,073,926호와 46,019,956구의 호구를 초과하여[115] 이세민 치세보다 외형상 재정 수입이 증가한 현종 때까지 관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정관 연간의 관행을 유지하였다. 이는 고조와 태종 시기의 변칙적인 관리 임용 방식이 일시적인 편법이 아니라 후세 황제들에게 조법(祖法)으로 받아들여져서 변칙이 정상적인 인사 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직사관의 관직 겸직 현상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현종의 후궁 양귀비의 친척인 양국충이 검교탁지원외랑(檢校度支員外郎) 겸 시어사(兼侍御史)에 임명되어 수운·육운과 사농(司農), 전물(錢物)의 출납 등을 감독하고 소모검남건아등사(召募劍南健兒等使)를 겸하였다. 또 탁지낭중(度支郎中)으로 승진하고 기년(期年)이 되기도 전에 15여 개의 사직을 겸했으며 급사중(給事中) 겸 어사중승(兼御史中丞) 판탁지사(判度支事)에 임명되었다.[116] 탁지원외랑과 시어사가 각각 종6품상과 종6품하[117]의 직사관(職事官)이었다. 급사중과 어사중승이 모두 정5품상인 직사관이었다. 즉, 양국충이 2개의 직사관을 겸직했으며 다수의 '영외사직'도 겸하였다. 왕홍(王鉷)도 종3품의 어사대부와 종3품의 경조윤을 겸하였다.[118] 어사대부가 관리의 감찰을 맡은 어사대의 장관이고, 경조윤이

114 萬斯同, 1995(1998 重印), 앞의 글, 7221~7237쪽 참조.

115 王育民, 1989, 「唐代人口考」, 『上海師範大學學報』 1989-3, 111~112쪽의 表一 貞觀十三年(639)-天寶十四年(755)戶口.

116 『舊唐書』 卷106 「楊國忠傳」, 3242쪽, "驟遷檢校度支員外郎, 兼侍御史, 監水陸運及司農·出納錢物·內中市買·召募劍南健兒等使. 以稱職遷度支郎中, 不期年, 兼領十五餘使, 轉給事中·兼御史中丞, 專判度支事."

117 侍御史는 본래 從8品下였으나, 武周 시대에 從6品下으로 승격되었고 唐도 이를 따랐다(『舊唐書』 卷42 「職官志」1 從第六品下階·侍御史條細注, 1797쪽, "舊從七品上, 垂拱令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도 장안과 주변 지역을 관할한 지방관이었으며 양자 모두 직사관이었다. 이후 양국충이 왕홍을 모함하여 그의 관직인 어사대부와 경조윤을 겸직하였다. 천보 10재에 양국충이 권지촉군도독부장사(權知蜀郡都督府長史)와 검남절도부대사(劍南節度副大使), 지절도사(知節度事)를 겸직하였다.[119] 촉군도독부장사가 직사관의 지방관이었으며 나머지 두 관원이 영외사직이었다. 이후 재상 이림보가 죽은 후 우상(右相)으로 승진하였고 이부상서(吏部尙書), 집현전대학사(集賢殿大學士), 태청태미궁사(太淸太微宮使), 판탁지(判度支), 검남절도사(劍南節度使), 산남서도채방사(山南西道採訪使), 양경출납조용주전등사(兩京出納租庸鑄錢等使)도 겸하였다.[120] 우상과 이부상서, 집현전대학사가 직사관, 나머지가 영외사직이었다. 이러한 겸직은 그가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종이 총애하는 후궁 양귀비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시어사에서 재상으로 승진할 때까지 40여 개의 사직을 거느렸지만 무능하여 서리들이 대신 사무를 처리하였다.[121] 이 사례에서 직사관을 겸직할 경우 해당 관리가 아닌 서리들이 사실상 직무를 대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세민이 경관(중앙정부) 관원의 640명 또는 643명만 남겨둔 것도 행정 사무를 품관이 아닌 서리, 즉 유외관에 맡겨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행정의 실무를 서리가 처리하고 유내관(품관)이 이들을 감독했기 때문에 여러 관직을 겸직할 수 있었다.

---

118 『舊唐書』 卷106 「楊國忠傳」, 3243쪽, "王鉷為御史大夫, 兼京兆尹, 恩寵侔於國忠, 而位望居其右."

119 『舊唐書』 卷106 「楊國忠傳」, 3243쪽, "國忠忌其與己分權, 會邢縡事泄, 乃陷鉷兄弟誅之, 因代鉷為御史大夫, 權京兆尹, 賜名國忠. … 十載, 國忠權知蜀郡都督府長史, 充劍南節度副大使, 知節度事, 仍薦仲通代己為京兆尹."

120 『舊唐書』 卷106 「楊國忠傳」, 3243쪽, "會林甫卒, 遂代為右相, 兼吏部尙書·集賢殿大學士·太淸太微宮使·判度支·劍南節度·山南西道採訪·兩京出納租庸鑄錢等使並如故."

121 『舊唐書』 卷106 「楊國忠傳」, 3244쪽, "國忠自侍御史以至宰相, 凡領四十餘使, 又專判度支·吏部三銓, 事務軼掌, 但署一字, 猶不能盡, 皆責成胥吏, 賄賂公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재정 지출과 봉록 삭감

다음으로 재정적 의미를 살펴보자.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세민이 경관을 640명 또는 643명으로 줄인 조치는 봉급 액수의 삭감 효과도 있었다.[122]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수나라 말기의 관제 및 현종 시기 정비된 『당육전』의 경관, 즉 중앙정부 관원 수를 보면, 이세민이 줄인 640명 또는 643명의 경관 수는 적은 수임이 분명하다. 경관 축소가 수 양제 시기 구수의 26.8%(12,351,681구), 호수의 34.1%(3,041,871호)에 불과한 인구에서 거둘 수 있는 재정수입으로 관리들의 봉급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취해진 조치일 것이다. 혹자는 인구와 재정수입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당대 과역(조용조)이 정(丁)마다 조(租) 2석, 조(調)로 시(絁)나 견(絹) 2장, 면(緜) 3량 또는 포 2장 5척, 마 3근, 요역 20일이었다. 즉, 성인 남성인 정에게 정액을 징수했으므로 외형상 재정 총수입이 국가 권력이 파악한 인구 중에 과역을 부과할 수 있는 과정(課丁)의 수에 비례하였다.

현재 현종 시기를 제외한 재정 수입 총액과 세부항목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639년(貞觀 13) 3,041,871호와 12,351,681호의 인구통계로 대략적인 정관 연간의 재정수입을 추산할 수 있다. 즉, 수말과 비슷한 중앙정부의 관리 수를 유지하려면 수 양제 시기보다 재정수입 대비 3~4배의 봉록을 지출해야 하였다. 봉록의 삭감 이유가 봉록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현종(玄宗) 시기의 통계이지만 관리들의 각종 봉록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558.2만 관(貫)으로 추산되며 전체 재정지출의 24.75%를 차지하였다.[123] 봉록이 전체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관 연간에도 같았다면, 수대(隋代)에 비해 인구가 급감하여 재정수입이 감소했으므로 관리 봉급 감액이 재정지출을

122 汪籛, 1981, 「唐太宗」, 『王籛隋唐史論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00쪽.

123 李錦綉, 2007, 『唐代財政史稿』 第三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95쪽, 表1-1 唐前期供國支用估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줄이는 쉬운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연이 무덕원년(618)에 수대(隋代)의 급록(給祿)보다 감액하였고 외관(外官), 즉 지방관에 녹(祿)을 지급하지 않았다.[124] 정관 2년(628)에 고과가 좋은 지방관에게 녹을 주고, 후에 점차 지방관에게 녹봉을 주었지만,[125] 정관 8년(634)에도 여전히 지방관에게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다.[126] 이는 지방관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아 재정 지출을 줄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세민이 문무 관원을 『통전·직관전』에 기록된 당의 내관(경관) 총수인 2,621명의 24.5%인 640명으로 줄인 조치 역시 산술적으로 관원 봉급의 약 24.5%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전한 원시 2년 호구의 20%로 인구가 감소했던 후한 광무제도 군현 통폐합과 불필요한 중장정부 기구와 관원의 삭감을 통해 재정지출을 줄였지만,[127] 삼공·구경을 정점으로 한 관원을 공석으로 두거나 겸직을 남발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면 중앙정부 관원 정원의 1/4 수준으로 줄인 이세민의 조치가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당 전기 조용조(租庸調)라고 불리는 과역(課役)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대(隋代) 호수와 구수의 34.1%와 26.8%에 불과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과 궁전 건축 등을 위해 과역(조용조)이라는 정규 조세만으로 충당할 수 없자 정관 연간에 이미 지조(地租), 지세(地稅), 잡조

---

124 『新唐書』 卷55 「食貨志」 5, 1393쪽, "武德元年, 文武官給祿, 頗減隋制, 一品七百石, 從一品六百石, 二品五百石, 從二品四百六十石, 三品四百石, 從三品三百六十石, 四品三百石, 從四品二百六十石, 五品二百石, 從五品百六十石, 六品百石, 從六品九十石, 七品八十石, 從七品七十石, 八品六十石, 從八品五十石, 九品四十石, 從九品三十石, 皆以歲給之. 外官則否."

125 『通典』 卷35 「職官」 17 俸祿·祿秩條, 962쪽, "貞觀二年制, 有上考者乃給祿. 其後遂定給祿俸之制."

126 黃惠賢·陳鋒 主編, 1996, 『中國俸祿制度史』,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73~174쪽.

127 崔珍烈, 2022a, 「후한시대(後漢時代) 내군(內郡) 군병(郡兵)의 존재와 운용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도위관(都尉官) 폐지의 실상-」, 『동북아역사논총』 75, 63~131쪽; 崔珍烈, 2022b, 「後漢 光武帝의 官制·행정조직 개편과 그 배경-인구 및 재정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大同文化硏究』 119, 5~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雜調), 임시별차과(臨時別差科) 등을 신설하였다. 게다가 관리들의 봉록을 과역(조용조)이라는 정규 재정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자 백성들에게 지조(地租)를 거두어 지급하고 동전을 공해전(公廨錢)으로 거둔 이익으로 충당하였다.[128]

진한시대부터 전조와 산부(인두세) 또는 호조(戶調)로 거둔 수입으로 관료 봉록을 포함한 모든 지출을 충당하였다. 정규 수입 이외에 다른 방법, 즉 현대의 용어로 특수목적세를 징수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관리의 봉급을 지급한 현상이 당나라의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후 공해본전(公廨本錢)을 없앴지만, 대신 호세(戶稅)나 청묘전(靑苗錢), 기타 방식(永徽元年 調庸腳直, 建中 연간의 戶部 除陌錢, 戶部 別貯錢)으로 거둔 세금으로 관리들에게 봉급을 주었다.[129] 공해본전과 호세 등 별도의 세금을 거둔 것이 당 전기 급감한 인구와 비례한 재정 수입 감소로 국고가 비었기 때문이다.[130]

이세민이 관원의 수를 줄이고 고조가 실시한 지방관에게 봉록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를 고수한 것도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고육책이었다. 이세민이 종실 군왕(郡王) 수십 인을 군공(郡公)으로 강봉하여 최소 식읍 70,000호를 줄이고 곡물(粟) 140,000석과 비단 140,000장(35,000匹), 면(綿) 210,000량을 국고 수입으로 귀속하고 500경(頃)의 영업전을 삭감할 수 있었다. 또 많은 도독부와 주, 현을 없애 지방행정 비용을 줄였다. 그러나 각종 비용을 줄여 재정수입의 부족을 막으려는 이세민의 조치가 결국 실패했으며, 결국 지조, 지세, 잡조(雜調), 임시별차과(臨時別差科) 등을 신설하였다. 이는 낙양궁(洛陽宮), 구성궁(九成宮), 취미궁(翠微宮), 옥화궁(玉華宮) 건설과 새로 점령한 고창에 설치한 서주(西州)

128 『通典』 卷35 「職官」17 俸祿·祿秩條, 962쪽, "貞觀二年制, 有上考者乃給祿. 其後遂定給祿俸之制: 以民地租充之. … 其俸錢之制, 京司諸官初置公廨, 令行署及番官興易, 以充其俸."; 『新唐書』 卷55 「食貨志」5, 1395쪽, "自後以地租春秋給京官, 歲凡五十萬一千五百餘斛."

129 閻守誠, 1982, 「唐代官吏的俸料錢」, 『晉陽學刊』 1982-2, 26~28쪽.

130 張美玲, 2021, 「唐前期諸司經費經營管理研究」, 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 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지키기 위한 비용 증가, 잦은 순행으로 인한 부담 등 재정지출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세민이 제2 수도인 낙양궁을 건설하기 위해 정규 세금만으로 부족하여 지조(地租)를 따로 거두자 황보덕참이 무거운 세금이라고 비판하였다.

피서를 위한 별궁인 구성궁을 건설하기 위해 수도 장안으로부터 2,000리 안의 백성을 징발한 명령도 백성에게 가혹한 조치였다. 따라서 '정관의 치'가 개설서의 과장이고 실제로 이세민의 일부 시기에 가렴주구도 존재하였다.[131] 반면 광무제가 낙양궁 이외의 별궁을 만들지 않고 대외원정을 지양하고 국경을 지키는 현상 유지 정책을 실시하였다.[132] 이처럼 재정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었으므로 광무제가 관리를 임명하지 않거나 겸직시키는 방법으로 관리의 봉록을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관의 봉록을 삭감했지만 하급 관리의 봉록을 늘리며 정규 관리 정원을 모두 채웠다.[133] 후한 초기와 비교하면 이세민이 재정 문제를 스스로 초래했으며, 정원의 대폭 삭감과 장기간 관직 결원, 겸관이 봉록 삭감을 위한 변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인구가 증가했지만 당대 인구의 절정기에 달한 현종 때에도 과역(조용조)으로 거둔 정규수입으로 관리들의 봉급을 지급하기보다 이전에 있던 조치, 즉 지세, 공해본전, 호세 등 별도의 세금을 거두어 지급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전조(田租)와 산부(算賦)를 징수해 관리들에게 봉록을 지급한 진한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대 봉록 제도가 변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칙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당나라 이후의 역대 왕조에서 정규 조세 이외에 각종 가연잡세로 재정 수입에 충당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식되었다.

---

131 최진열, 2024, 앞의 글, 365~399쪽.

132 廖伯源, 2010, 「論東漢定都洛陽及其影響」, 『史學集刊』 2010-3, 20~34쪽(廖伯源, 2018, 「論光武帝定都洛陽」, 『秦漢史論叢續編』, 中華書局, 51~74쪽에 재수록); 廖伯源, 2018, 「論漢代徙置邊疆民族于塞內之政策」, 『秦漢史論叢續編』, 中華書局 3~34쪽(原載: 『中國中古史研究』 7, 臺北: 蘭臺出版社, 2007, 1~34쪽).

133 최진열, 2022b, 앞의 글, 5~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Ⅵ. 맺음말

이세민이 중앙정부(京官)의 문무 관원을 640명(『정관정요』) 또는 643명(『통전』과 『자치통감』)으로 줄였다. 640명 또는 643명이 『당육전』의 3성 6부 9시 등 주요 관청 관리 정원 1,771명의 36.1% 또는 36.3%에 해당한다. 또 『통전·직관전』에 따르면, 당나라의 내관(內官)이 2,621명이었으므로 정관원년 경관(京官)의 정원이 24.4% 또는 24.5%로 축소되었다. 또 『수서』「백관지」에 나온 양제 시기의 대략적인 관원 2,164명의 29.6% 또는 29.7%이다. 3성 장관의 결원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세민이 다른 관리들에게 '참예조정', '문하중서평장정사', '참지정사', '전전기밀', '동중서문하삼품평장정사', '동중서문하삼품', '동장기무', '참지기무', '지상서문하삼성사' 등의 직함을 주어 재상의 자격으로 국정에 참여시켜 상서좌복야, 상서우복야, 시중, 중서령의 결원을 보충하였다. 3성의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직의 겸직도 발견된다.

『구당서』 열전에서 35명이 2개 이상의 관직을 겸한 51개 사례가 확인된다. 여기에 대총관과 총관 등 전쟁 때 임의로 임명되는 무관의 겸직, 묘지명과 사서의 열전에 누락된 사례를 포함하면 겸직 사례가 더욱 늘어난다. 경관의 1/4에 불과한 640명 또는 643명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서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 먼저 640명(또는 643명)을 정원관으로 해석하면 관명 앞에 검교·지·판·시·섭 자가 붙은 대리 또는 임시직을 제외한 정식 관원의 수로 파악하는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원관이 없어도 서리들이 실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해당 관직을 임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양국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내관인 직사관이 여러 관직을 겸직하며 서리들에게 실무를 맡기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며 유지했을 것이다. 수 양제 시기의 호구의 26.8% 또는 34.1%에 불과하여 재정수입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세민이 관원을 대폭 축소하여 관리의 봉록을 줄임으로써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당나라처럼 왕조 초기에 인구가 대폭 감소한 후한 광무제가 일부 부서와 관리를 줄이기는 했지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한시대의 삼공·구경을 정점으로 한 관료 조직을 유지하면서 관리들도 정상적으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이세민의 조치가 다른 왕조와 비교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정관 연간 이후에도 당 전기에 관리들이 2개 이상의 직사관을 겸직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결원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삼공과 3성·어사대·구시의 장관 앞에 '검교'를 붙인 검교관이 지방에 할거하는 절도사들을 회유하는 직함으로 사용되었다.[134] 요컨대 재정수입 부족 때문에 율령에 기재된 직사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타관이 겸직하는 관행이 당 전체 시기에 유행하였으며, 이는 율령관제를 파괴하고 직사관의 유명무실(階官化), '영외사직'의 출현과 남발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는 5대 10국시대와 송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34 夏麗梅, 2012, 앞의 글, 155~15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사료

『舊唐書』.

『唐代墓誌彙編續集』(周紹良 · 趙超 主編, 200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唐六典』[李林甫 等撰, 陳仲夫 點校, 1992(2005重印), 北京: 中華書局].

『唐會要』.

『大唐新語』(劉肅 撰, 1997, 北京: 中華書局).

萬斯同, 1955(1998重印), 「唐將相大臣年表」, 二十五史刊行委員會 編, 『二十五史補編』, 中華書局.

『隋唐嘉話』(劉餗 撰, 程毅中 檢校, 1997, 北京: 中華書局).

『隋書』.

『新唐書』.

『資治通鑑』.

『貞觀政要』(吳兢 編著, 1978,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通典』.

단행본

梁方仲, 1980, 『中國歷代戶口 · 田地 · 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李錦綉, 2007, 『唐代財政史稿』 第三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黃惠賢 · 陳鋒 主編, 1996, 『中國俸祿制度史』,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논문

崔珍烈, 2022a, 「후한시대(後漢時代) 내군(內郡) 군병(郡兵)의 존재와 운용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도위관(都尉官) 폐지의 실상-」, 『동북아역사논총』 75.

_____, 2022b, 「後漢 光武帝의 官制 · 행정조직 개편과 그 배경 -인구 및 재정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大同文化硏究』 119.

_____, 2024, 「당 태종 '정관(貞觀)의 치'와 가정(苛政) : 645년 고당 전쟁 이전 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요역 수탈의 실상」, 『대순사상논총』 49.

杜文玉, 1993, 「論唐代員外官與試官」, 『陝西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2-3.

汪籛, 1981, 「唐太宗」, 『王籛隋唐史論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閻守誠, 1982, 「唐代官吏的俸料錢」, 『晉陽學刊』 1982-2, 1982.

廖伯源, 2010, 「論東漢定都洛陽及其影響」, 『史學集刊』 2010-3(廖伯源, 2018, 「論光武帝定都洛陽」, 『秦漢史論叢續編』, 中華書局, 51~74쪽에 재수록).

_____, 2018, 「論漢代徙置邊疆民族于塞內之政策」, 『秦漢史論叢續編』, 中華書局(原載: 『中國中古史研究』 7, 臺北: 蘭臺出版社, 2007, 1~34쪽).

王育民, 1989, 「唐代人口考」, 『上海師範大學學報』 1989-3.

張國剛, 1994, 「唐代階官與職事官的階官化」,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臺北: 文津出版社.

張東光, 2006, 「唐代的檢校官」, 『晉陽學刊』 2006-2.

張美玲, 2021, 「唐前期諸司經費經營管理研究」, 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

夏麗梅, 2012, 「隋唐檢校官制度初探」, 『青海社會科學』 2012-3.

清木場東, 1997, 「正官以外の祿」, 『帝賜の構造 -唐代財政史研究 支出編-』, 福岡: 中國書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당 정관 연간 경관(京官) 640원(員)의 함의

– 정원 감축과 결원, 겸직의 제도적·재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최진열

당 태종이 즉위 다음 해에 경관(京官), 즉 중앙정부의 문무 관원을 640명(『정관정요』) 또는 643명(『통전』과 『자치통감』)으로 줄였다. 이는 개설서, 통사에서 관리 수를 줄인 잘된 관제 개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640명 또는 643명을 중앙정부 관리의 비율로 계산하면 사정이 다르다. 경관 640명 또는 643명이 『당육전』의 3성 6부 9시 등 주요 관청 관리 정원 1,771명의 36.1% 또는 36.3%에 해당한다. 『통전·직관전』에 따르면, 당나라의 내관(內官)이 2,621명이었으므로 정관원년 경관(京官)의 정원이 24.4% 또는 24.5%로 축소되었다. 또 『수서』 「백관지」에 나온 양제 시기의 대략적인 관원 2,164명의 29.6% 또는 29.7%이다. 정원보다 적은 관리를 임명하면 정부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세민이 다른 관리들에게 '참예조정', '문하중서평장정사(門下中書平章政事)', '참지정사', '전전기밀(專典機密)', '동중서문하삼품평장정사(同中書門下三品平章政事)', '동중서문하삼품', '동장기무(同掌機務)', '참지기무(參知機務)', '지상서문하삼성사(知尙書門下三省事)' 등의 직함을 주어 재상의 자격으로 국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참여시켜 상서좌복야, 상서우복야, 시중, 중서령의 결원을 보충하였다. 3성의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직의 겸직도 발견된다.

『구당서』 열전에서 35명이 2개 이상의 관직을 겸한 51개 사례가 확인되며, 대총관과 총관 등 전쟁 때 임의로 임명되는 무관의 겸직, 묘지명과 사서의 열전에 누락된 사례를 포함하면 겸직 사례가 더욱 늘어난다. 경관 640명 또는 643명을 정원관으로 해석하여 나머지 관직이 검교·시·지·판·섭 자가 들어가는 비정원관으로 임명했거나 결원의 직무를 서리들이 대신 처리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한편, 봉급 액수의 삭감 효과도 있었다. 즉, 이세민이 문무 관원을 『통전·직관전』에 기록된 당의 내관 총수인 2,621명의 24.5%인 640명으로 줄인 조치 역시 산술적으로 관원 봉급의 약 24.5%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겸직이나 서리를 이용한 결원의 행정사무 처리가 임시변통이 아니라 후세 황제들에게 조법(祖法)으로 받아들여져서 5,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회복한 당 현종 시기뿐만 아니라 말기까지 이어졌다.

주제어: 경관(京官), 640원(員), 『정관정요』, 3성 장관의 결원, 다른 관리의 3성 장관 겸임, 봉급 총수의 삭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Reinterpretation of Tang Taizong's Cutback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s 640 or 643 Members and It's Financial and Demographic Significance

Choi Jinyeol

In 627, Emperor Taizong, the second emperor of Tang dynasty, reduced the number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in the central government to 640 according to *Essentials for government from the Zhenguan period callend Zhenguan Zhengyao* in Chinese, or 643 according to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callend *Zizhi Tongjian* in Chinese. Li Shimin's action was evaluated as a successful reform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by scholars, and historians of the present and the past, reducing the number of officials. However, calculating the percentage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may lead to different conclusions. The year of 640 or 643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correspond to 36.1% or 36.3% of the 1,771 officials in the three provinces, six ministries, and nine offic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corded in the *Tang institutions of six administrative divisions* callend *Tang liudian* in Chinese.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Compendium of Institutions callend Tongdian* in Chinese, the number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in the Tang Dynasty was 2,621, so the number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in 627 was reduced to 24.4% or 24.5%. I found the vacancy in the head of the three departments, that is to say, Department of the State Affairs, Secretariat, and Chancellery during the reign of The fake sage emperor praised by scholars. To fill this void, he gave other officials titles such as office of participating in state affairs, the third-rank officials equal to the president of the Secretariat-Chancellery, etc., and allowed them to participate in state affairs with the qualifications of prime ministers, filling the vacancies of the vice-president of the Department of State Affairs, the president of the Chancellery, and president of the Secretariat. In addition to the ministers of the three departments, concurrent positions of other officials are also found. In the biographies of the *old history of Tang*, the history book that records the history of the Tang Dynasty compiled during the Five Dynasties Period, 51 cases of 35 officials holding multi positions are confirmed, and if you include cases omitted from the biographies of the epitaphs and historical records, the number of concurrent positions increases even more. The administrative reformer's measure to reduce the number of cnntral government officials to 640 or 643, which is 24.5% of the total number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2,621), would also have had the mathematical effect of reducing the salaries of officials by approximately 24.5%. However, the administrative handling of vacancies through the use of concurrent positions o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emporary positions was not only a temporary measure, but was also accepted as ancestral law that are more authoritative than the Constitution and must be followed by later emperors, and continued not only during the reign of Xuanzong, sixth emperor who restored the population to over 50 million, but also until the end of the Tang dynasty and even until the Song dynasty.

Keywords: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Jingguan), Central government management of 640 members, vacancy in the head of the three departments, the officials' holding an additional post of the head of the three departments, Cut in total management salari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10

일본의 불교사서 편찬과 그 역사적 양상

정천구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연구교수

I. 머리말
II. 13~14세기의 불교사서 편찬
III. 17~18세기의 불교사서 편찬
IV. 편찬의 특성과 역사적 양상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머리말

일본의 사학사(史學史)는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720)가 편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일본서기』 이후로 『속일본기(續日本紀)』(797)부터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901)까지 다섯 종의 국사가 잇달아 편찬되었다. 이 여섯 국사는 모두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사건을 편년체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런 정치사 중심의 역사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형태로 저술되어 오늘날까지 방대한 양이 전한다.[1]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중세는 불교의 시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6세기 중반에 일본에 전해진 불교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일상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2]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불교사를 기술한 역사서, 곧 불교사서(佛教史書)도 적지 않게 편찬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간행된 『대일본불교전서(大日本佛教全書)』(仏書刊行会, 1912~1922)를 보면, 일본의 불교사서가 대거 수록되어 있다.[3]

---

* 투고: 2025년 10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6076036).

1 일본의 역사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坂本太郎 저, 박인호·임상선 역, 1991, 『일본사학사』(원저는 坂本太郎, 1958, 『日本の修史と史学』, 至文堂), 첨성대 참조.

2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때를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는 552년으로, 『간고지가란엔기(元興寺伽藍緣起)』에서는 538년으로 적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末木文美士, 1996, 『日本仏教史』, 新潮社, 19~20쪽 참조.

3 『대일본불교전서』는 일본에서 찬술된 모든 전적들(953부 3396권)을 집대성해서 28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록한 것으로, 본편 150권, 목록 1권, 별권 10권 등 모두 161권이다. 이 가운데서 '사전부(史傳部)'인 권98~권116에 일본의 불교사서 대부분이 실려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편찬되어 전하고 있는 불교사서는 모두 18종 238권이다.[4] 이 정도라면 사학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아직 이 불교사서들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별적인 연구도 드문 편이다.[5] 그것은 불교사서를 주로 역사학이나 불교학의 사료로 간주하고 역사서로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일본의 사학사에서도 대부분의 불교사서가 배제되었다.[6] 일본의 중세사가 불교사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편향이다. 이 글은 그런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이자 불교사학(佛教史學)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편찬된 불교사서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소개하면서 편찬의 역사적 양상과 특성을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불교사서들을 두루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특이하게도 불교사서의 편찬이 13~14세기와 17~18세기 두 시기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두 시기로 나누어서 각 불교사서의 편찬 의도나 목적, 체재와 구성, 내용 등을 간략하게 살피며 대략적인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불교사서 편찬의 전반적인 양상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총괄해서 논의한다.

Ⅱ. 13~14세기의 불교사서 편찬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때로부터 200여 년 뒤인 엔랴쿠(延曆) 7년(788)에 도래승인 사탁(思託)이 일본 최초의 불교사서인 『연력승록(延曆僧錄)』을 저술했다.[7]

---

4 중국에서 편찬된 불교사서는 48종, 900여 권이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검토는 정천구, 2024, 「중국의 불교사서 편찬과 그 역사적 양상」, 『동북아역사논총』 84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였다.

5 각 불교사서에 대한 개별 연구의 성과는 본문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다.

6 坂本太郎, 1991, 앞의 책에서도 불교사서로는 『원형석서』만 중요하게 다루었다.

7 사탁은 당나라 출신이며, 스승인 감진(鑑眞, 688?~763)이 753년에 일본으로 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현재 『연력승록』 자체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1134), 『부상략기(扶桑略記)』(12세기 초?), 『일본고승전요문초(日本高僧傳要文抄)』(1251) 등 다른 문헌에 적지 않게 인용되어 있어 그 전모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8]

『연력승록』에는 일본의 초기 불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두루 실려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34명의 전기를 보면, 사문(沙門)이 15명, 거사(居士)가 9명, 보살(菩薩)이 10명이다. 여기서 보살은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572~621)를 비롯해 불교를 적극 지지하거나 후원한 천황과 황후를 가리킨다. 인물들을 그 처지와 신분으로 구분했을 뿐, 중국에서 확립된 고승전의 십과(十科)처럼 행위나 업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9] 이는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지 오래지 않아 고승의 수가 적었던 데다 재가자들도 포함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탁은 이방인으로서 일본의 불교사 파악이 필요하여 『연력승록』을 저술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5세기 말부터 불교사서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10] 그러나 일본의 승려들은 사탁과 달리 오래도록 불교사서 편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가 끝날 때쯤에야 본격적으로 편찬하기 시작했다.

(1) 『삼국전등기(三國傳燈記)』(3권, 1173), 서지체, 가쿠켄(覺憲)[11]

(2) 『일본고승전요문초(日本高僧傳要文抄)』(3권, 1251), 열전체, 소쇼(宗性),

너올 때 따라왔다.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蔵中 進, 1974, 「思託: 一渡来僧の生涯と文学」, 『日本文学』 23권 1호, 日本文学協会, 62~78쪽 참조.

8 어떤 문헌에 어떤 전기가 인용되어 있는지는 蔵中 進, 1974, 위의 글, 71~75쪽 참조.

9 십과가 혜교(慧皎)의 『양고승전』에서 처음 마련된 뒤 고승전의 기본 체재가 된 내력에 대해서는 정천구, 2022, 「중국 고승전의 체재 변화와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43집, 대순사상학술원 참조.

10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정천구, 2024, 앞의 글, 184~190쪽 참조.

11 여기에서는 成田貞寬, 1971, 「覺憲撰『三國傳燈記』の研究」, 『佛教大學大學院研究紀要』 2호, 佛教大學學會, 219~241쪽에 수록된 활자본을 참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101

(3) 『남도고승전(南都高僧傳)』(1권, 13세기), 열전체, 저자 미상, D101

(4) 『삼국불법전통연기(三國佛法傳通緣起)』(3권, 1311), 서지체, 교넨(凝然), D101

(5) 『원형석서(元亨釋書)』(30권, 1322), 기전체(십과), 시렌(師錬), D101

(6) 『본조승보전(本朝僧寶傳)』(2권, 1400?), 열전체, 저자 미상, D111[12]

『삼국전등기』는 일본인 승려가 저술한 최초의 불교사서다. 가쿠켄(覺憲, 1131~1212)이 1173년에 법상종(法相宗)의 대본산인 고후쿠지(興福寺)에서 강연했던 원고를 그의 제자 신켄(信憲)이 필사한 것이 전한다. 현재는 상권과 하권만 남아 있고 중권은 빠져 있다. 상권에서는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난 과정,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전해진 내력이 서술되어 있다. 상권의 내용으로 보아 중권에서는 일본의 팔종(八宗)을 중심으로 불교사를 기술한 듯하다.[13] 하권에서는 말법(末法) 시대에 대해 길게 논의하면서 호법(護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14] 여기서 저자의 저술 동기를 알 수 있다.[15] 이렇게 인도에서 일본까지 불법이 전래되고 유통된 과정을 기술하고 당대의 말법 사상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이는 기전체(紀傳體) 역사서에서 제도, 지리, 경제 등 특정한 주제를 정해 서술한 서(書)나 지(志)에 해당된다. 따라서 『삼국전등기』는 '서지체(書志體)' 불교사

12 영문 D는 '대일본불교전서(大日本佛教全書)'(1911~1922)를, 숫자는 권수를 가리킨다.

13 일본에서 팔종(八宗)은 나라 시대(奈良時代, 710~794)에 성립된 삼론종(三論宗)·성실종(成實宗)·구사종(俱舍宗)·화엄종(華嚴宗)·법상종(法相宗)·율종(律宗) 등 여섯 종파와 헤이안 시대의 천태종(天台宗)·진언종(眞言宗)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이 팔종은 교단이라기보다는 학파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14 일본에서는 1052년을 말법 원년이라고 하는 말법사상이 10세기부터 점점 퍼지더니 11세기에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심해지면서 널리 유행했다. 이에 대해서는 末木文美士, 1996, 앞의 책, 127~138쪽 참조.

15 하권 말미에서 가쿠켄은 "(모든 이들이) 불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른 마도에서 벗어나 다시 불교를 지키게 된다"(還歸佛法, 早出魔道, 更護佛教)라고 썼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라 할 수 있다.

화엄종 승려 소쇼(宗性, 1202~1278)가 편찬한 『일본고승전요문초(日本高僧傳要文抄)』(3권)는 고승들의 전기를 모은 것으로, 열전체(列傳體)에 해당된다. 소쇼는 중국 양(梁)나라 보창(寶唱, 466?~518?)의 『명승전(名僧傳)』(30권)에서 39명의 전기를 가려 뽑아 편집한 『명승전초(名僧傳抄)』(1235)를 먼저 내놓았다.[16] 소쇼가 『양고승전』이 아닌 『명승전』에 주목한 까닭은, "이것은 미륵과 인연을 맺은 앞선 자취를 수습하고 또 도솔천에 왕생한 옛 자취를 기술하기 위함이다"[17]라고 밝혔듯이 불교사보다는 미륵신앙과 관련된 인물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18] 이는 『일본고승전요문초』에도 이어졌다.

『일본고승전요문초』는 권1에 8명, 권2에 7명, 권3에 27명 등 모두 42명의 고승과 거사의 전기를 싣고 있다. 각 전기는 "바라문승정전에 나온다(婆羅門僧正傳云)", "홍법대사전 상권에 나온다(弘法大師傳上云)" 등으로 시작되는데, 기존의 개별 전기들에서 주요 내용을 가려 뽑아서 편집했다는 뜻이다.[19] 특히 권3에서는 24명의 전기를 사탁의 『연력승록』에서 끌어 왔다. 『명승전초』처럼 제목에 '요문초(要文抄)'가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책의 말미에, "이것으로써 내원에 태어날 업인(業因)을 힘써 꾀하고, 이 뜻에 따라 용화세계에서 법을 듣는 향

16 『명승전』은 당대(唐代) 이후에 중국에서는 사라졌는데, 다행히 소쇼의 『명승전초』를 통해 그 면모를 일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명승전초』에는 『명승전』 30권의 전체 목록이 제시되어 입전된 승려 425명의 명단도 알 수 있다. 『명승전초』에 대한 자세한 서지 사항과 그 특성에 대해서는 釋定源, 2021, 「關於《續藏經》的底本問題 以《名僧傳抄》為例」, 『佛光學報』 新七卷·第一期, 佛光大學佛教研究中心, 157~188쪽 참조.

17 『名僧傳抄』. "是則爲拾彌勒結緣之先蹤, 爲記兜率往生之舊跡."

18 중국에서는 『명승전』(30권)이 『양고승전』(14권)에 밀려 사라졌는데, 불교사서로서 체재나 구성의 미흡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천구, 2024, 앞의 글, 185~186쪽 참조.

19 이 불교사서의 편찬에 대해서는 平岡定海, 1957, 「鎌倉時代に於ける僧傳の編纂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제5권 제2호, 日本印度学仏教学会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로운 인연을 맺고 싶을 따름이다"[20]라는 내용이 나온다. 내원은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의 거처이며, 용화세계는 미륵불의 정토다. 소쇼가 불교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도솔천에 왕생하게 해줄 공덕을 짓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21]

『일본고승전요문초』가 편집되던 때에 『남도고승전(南都高僧傳)』(1권)이 편찬되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제목에 명시된 대로 '남도(南都)' 곧 헤이조쿄(平城京)를 중심으로 융성했던 팔종(八宗)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반부에는 이 종파들의 개조에 해당되는 고승들의 전기가 서술되고, 후반부에는 각 종파의 전법(傳法) 계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성이 엉성하고 서술 방식도 일관되지 않아 미완의 불교사서로 보인다.

1311년에는 소쇼의 제자인 교넨(凝然, 1240~1321)이 『삼국불법전통연기(三國佛法傳通緣起)』(3권)를 저술했다. 교넨은 상권에 「천축불법전통(天竺佛法傳通)」과 「진단불법전통(震旦佛法傳通)」을 두었고, 중권과 하권에 「대일본국제종전통(大日本國諸宗傳通)」을 두었다. 「천축불법전통」에서는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성도(成道)하고 설법하며 입멸한 일, 갖가지 경전과 논서의 성립, 종파들의 등장 따위를 간결하게 서술했다. 「진단불법전통」은 중국에서 13개 종파가 인도의 경전들과 논서들을 한역하고 해석하면서 등장한 내력을 서술한 부분이다.[22] 「대일본국제종전통」에서는 일본에서 번성한 팔종의 성립과 추이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했다.[23] 『삼국전등기』와 마찬가지로 서지체 형식인데, 더 짜임새 있고 자세하다.

---

20 『日本高僧傳要文抄』 권3, "以此勤擬內院受生之業因, 願依此志結龍華聽法之芳緣而已."

21 소쇼는 『미륵여래감응초(彌勒如來感應抄)』(1235)도 저술했는데, 그 목적은 동일하다.

22 중국의 열세 종파는 비담종(毗曇宗), 성실종, 율종, 삼론종, 열반종(涅槃宗), 지론종(地論宗), 정토종, 선종, 섭론종,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진언종 등이다.

23 교넨은 1268년에 이미 여덟 종파의 역사와 교리를 간명하게 서술한 『팔종강요(八宗綱要)』를 내놓았다. 이 책은 일본의 불교 교학 연구에서 반드시 거론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런데 일본에 불교를 전한 나라가 백제이며 고구려와 신라의 역할 또한 매우 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교넨이 한반도의 삼국에 관한 항목을 따로 두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24] 일본에서 번성한 종파들을 중심으로 불교사를 서술하려던 의도가 직접적인 이유였으리라 생각된다.[25] 특히 12세기 초부터 일본에서는 한반도를 제쳐두고 인도와 중국, 일본을 '삼국(三國)'이라 일컬으며 불교의 전래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널리 퍼졌는데, 그 영향도 받았다고 볼 수 있다.[26]

불교사서의 꼴을 비로소 갖춘 『삼국불법전통연기』에 이어 곧바로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독자적인 형식의 『원형석서(元亨釋書)』(30권)가 나왔다.[27] 저자는 임제종의 선승인 고칸 시렌(虎關師錬, 1278~1346)이다. 그가 『원형석서』를 천황에게 올리면서 쓴 표문(表文)을 보면, 사마천의 『사기』와 구양수의 『신당서』 그리고 중국의 『양고승전』·『속고승전』·『송고승전』 등을 거론하며 일본에는 이 역사서들에 견줄 만한 승사(僧史)가 없음이 안타까워 자신이 그 책무를 감당

24 『三國佛法傳通緣起』 卷中. "佛法初傳漢地之後三百餘年, 佛法從漢傳百濟國. 厥後百濟一百餘年壬申之年法傳日本. 是故日域佛法濫觴從百濟來." 여기서 백제가 일본에 불법을 전했다고 하는 임신년(壬申年)은 『일본서기』에서 말한 552년이다.

25 교넨이 종파적 관점에서 불교사를 인식했다는 사실은 Mark Blum, 1999, 「凝然の歷史觀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제47권 제2호, 日本印度学仏教学会에서 검토한 바 있다.

26 12세기 초의 『금석물어집(今昔物語集)』, 1173년의 『삼국전등기』 등이 대표적인 문헌이다. 이 시기의 '삼국' 개념에 관해서는 Mark Blum, 위의 글, 232~233쪽 참조.

27 『원형석서』는 주로 일본의 불교사 및 불교문화 연구를 위한 사료로 활용되었다. 불교사서로는 胡照汀, 2022, 『元亨释书研究』, 郑州大学出版社; 정천구, 2025, 「13~14세기 동아시아 불교사서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53집, 대순사상학술원 등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호조정은 『원형석서』의 체제와 내용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석했으며, 정천구는 중국의 『석문정통(釋門正統)』, 한국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과 비교해 『원형석서』의 특성을 고찰했다. 이 글에서는 사학사적 관점에서 논의해 이들 연구를 보완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28] 『사기』와 『신당서』는 유교의 정사(正史)로서 기전체 역사서이며, 중국의 세 고승전은 기전체의 '열전(列傳)'을 본받아 십과(十科)라는 체재로 서술한 불교사서다. 시렌은 그 두 가지 형식을 아울렀다.

『원형석서』는 권1~권19의 십전(十傳), 권20~권26의 「자치표(資治表)」, 권27~권30의 십지(十志)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전'은 「전지(傳智)」, 「혜해(慧解)」, 「정선(淨禪)」, 「감진(感進)」, 「인행(忍行)」, 「명계(明戒)」, 「단흥(檀興)」, 「방응(方應)」, 「역유(力遊)」, 「원잡(願雜)」 등 10개의 과목을 이르는데, 중국 고승전의 십과를 거의 그대로 따랐다.[29] 다만 「원잡」 아래에 「고덕(古德)」, 「왕신(王臣)」, 「사서(士庶)」, 「니녀(尼女)」, 「신선(神仙)」, 「영괴(靈怪)」 등 여섯 항목을 더 두어서 승려들 외에 다양한 부류의 인물과 토착신을 입전해 불교가 토착 전통이나 신앙과 융합하는 양상들을 보여주었다.[30]

'십전'에 이어 「자치표」가 배치되어 있다. 「자치표」는 불교적 사실을 천황의 재위 연대에 따라 서술한 것이다. 시렌은 「자치표」 서두에서 "옛날에 중니(仲尼, 공자)는 『춘추』를 지어 연월에 따라 엮어서 말을 덧붙였다"[31]고 썼는데, 이는 「자치표」를 '본기'처럼 서술했다는 뜻이다. 「자치표」는 불교사가 정치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자치표」에 이어지는 '십지'는 「학수(學修)」, 「도수(度受)」, 「제종(諸宗)」, 「회의(會儀)」, 「봉직(奉職)」, 「사상(寺像)」, 「음예(音藝)」, 「습이(拾異)」, 「출쟁(黜爭)」, 「서설(序說)」 등 10개의 항목을 가리키는데, 불교의 다양한 제도와 문화, 풍습 등을 서술한 것이다.

---

28 『元亨釋書』, 〈上元亨釋書表〉, "昔者, 漢武之雄略也, 子長纂史記焉; 宋仁之寬厚也, 永叔修唐書焉. … 我金仙氏之道, 雖方外塵表之詮, 至有撰編者, 靡不繇旃矣. 嘉祥之創梁也, 逢高祖之仁裕矣; 西明之續唐也, 遭太宗之緝熙矣. 及天壽之成端拱也, 皆泰平之標幟矣."

29 중국 고승전의 십과에 대해서는 정천구, 2022, 앞의 글 참조.

30 「원잡」의 독특성에 주목한 연구로는 石塚 薫, 2005, 「『元亨釋書』に関する一考察」, 『佛教大學大學院紀要』 33, 佛教大學大學院이 있다.

31 코칸 시렌 저, 정천구 역, 2010, 『원형석서 하』, 씨아이알, 2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형석서』는 고승전의 십과를 품은 '기전체' 형식의 불교사서다.[32] 시렌이 이런 복합적인 형식을 채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일본에 불법이 전래되고 7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별전(別傳)이나 소기(小記) 등이 나왔으나, 모두 통사(通史)는 아니었다"[33]고 했다. 책명을 '원형석서'라 한 까닭에 대해서도, "옛 전(중국의 세 고승전)이 편전(偏傳)이라면, 지금 이 책은 전사(全史)이기 때문에 책명을 고쳤다"[34]라고 했다. 특정한 시대나 지역, 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통사이자 전사를 지향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원형석서』에 이어 1400년 즈음에 『본조승보전(本朝僧寶傳)』(2권)이 편찬되었다.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85~1333)에 융성했던 선종 가운데 임제종의 쇼이치 국사(聖一國師, 1202~1280)와 무소 소세키(夢窓疎石, 1275~1351)의 유파를 중심으로 한 선승들의 전기를 수록한 선종사서(禪宗史書)다. 저자를 알 수는 없으나, 책명이 혜홍(慧洪)의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30권, 1211)과 비슷한 점으로 볼 때 선승일 공산이 크다. 서술 내용을 보면, 상권에서는 류긴파(龍吟派), 가이조파(海藏派), 산세이파(三聖派) 등 17개 유파를 연 개조(開祖)들의 간략한 전기와 각 유파에 속한 승려들의 법명을 나열했고, 하권에서는 20여 선승의 개별 전기를 실었다. 전기에서는 각 선승의 행장(行狀), 어록(語錄), 연보(年譜), 탑명(塔銘) 등에서 하나를 선택해 그대로 옮겨 실었고, 윤색하거나 가필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짜임새 있게 배열하거나 구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조승보전』은 일본의 초기 선종사, 특히 임제종의 형세를 엿볼 수 있는 자료집으로서 불교사서라 할 수 있다.

32 『원형석서』의 기전체 불교사서로서 특성은 정천구, 2025, 앞의 글, 259~265쪽 참조.

33 코칸 시렌 저, 정천구 역, 2010, 앞의 책, 593~594쪽.

34 코칸 시렌 저, 정천구 역, 2010, 위의 책, 59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17~18세기의 불교사서 편찬

『본조승보전』 이후로는 거의 200여 년 동안 불교사서가 편찬되지 않았다. 1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센코쿠 시대(戰國時代)의 정치적 변동과 사회적 혼란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에도 막부(江戶幕府, 1603~1868)가 들어서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불교사서의 편찬도 재개되었는데, 특히 1675년부터 1727년까지 50여 년 사이에 무려 11종의 불교사서가 쏟아져 나왔다. 이 시기의 불교사서 편찬을 주도한 인물은 중국에서 건너온 선승 고천성돈(高泉性潡, 1633~1695),[35] 일본의 임제종 선승인 만겐 시반(卍元師蠻, 1626~1710) 두 승려다.

(7) 『부상선림승보전(扶桑禪林僧寶傳)』(10권, 1675), 열전체, 성돈(性潡), D109

(8) 『연보전등록(延寶傳燈錄)』(41권, 1678), 열전체, 시반(師蠻), D108-109

(9) 『속부상선림승보전(續扶桑禪林僧寶傳)』(3권, 1686), 열전체, 성돈, D109

(10) 『동국고승전(東國高僧傳)』(10권, 1687), 열전체, 성돈, D104

(11) 『율원승보전(律苑僧寶傳)』(15권, 1687), 열전체, 에켄(慧堅), D105

(12) 『일역동상제조전(日域洞上諸祖傳)』(2권, 1693), 열전체, 지초(自澄), D110

(13) 『초제천세전기(招提千歲傳記)』(9권, 1701), 기전체, 기초(義澄), D105

(14) 『본조고승전(本朝高僧傳)』(75권, 1702), 열전체(십과), 시반, D102-103

(15) 『속일역동상제조전(續日域洞上諸祖傳)』(4권, 1708), 열전체, 료코(良高), D110

35 성돈은 중국 북건성(福建省) 복주(福州) 출신으로, 열세 살 때 출가해 황벽산에 머물며 수행했다. 1661년에 성돈은 앞서 1654년에 일본에 간 은원(隱元, 1592~1673)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다른 승려 네 명과 함께 일본에 갔고, 그 뒤로 일본에 머물며 활동하다가 1692년에 병으로 죽었다. 성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廖肇亨, 2017, 「高泉與溫泉: 從高泉性潡看晚明清初渡日華僧的異文化接觸」, 『法鼓佛學學報』 20期, 法鼓文理學院, 5~44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6) 『중속일역동상제조전(重續日域洞上諸祖傳)』(4권, 1717), 열전체, 료키(良機), D110

(17) 『일본동상연등록(日本洞上聯燈錄)』(12권, 1727), 열전체, 슈초(秀怊), D110

(18) 『속일본고승전(續日本高僧傳)』(11권, 1867), 열전체(팔과), 도케이(道契), D104

성돈은 1675년에 『부상선림승보전(扶桑禪林僧寶傳)』(10권)이라는 선종사서를 내놓았다. 그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내가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온 뒤로 『원형석서』를 훑어보고 또 여러 사찰의 불교 의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시렌 국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물어보면 대꾸할 수 있는 이가 드물었다.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새로 쓴) 전기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또 『원형석서』에서는 대체로 교종의 승려를 많이 싣고 선승은 아주 적게 실었다. 이런 까닭에 외람되게도 내가 그것을 잇겠다는 뜻을 세웠다."[36] 『원형석서』 이후의 일을 기록한 불교사서가 없었다는 점, 선종의 승려들에 대한 기록이 적었다는 점 등이 『부상선림승보전』을 저술한 동기임을 알 수 있다.

성돈은 또 도선(道宣)의 『속고승전』(645), 혜홍(慧洪)의 『선림승보전』(1121), 영각원현(永覺元賢, 1578~1657)의 『건주홍석록(建州弘釋錄)』(1630) 등을 거론하며 모두 사마천의 재주를 갖춘 이들이 썼다고도 했다.[37] 이는 그가 역사가로

---

36 『扶桑禪林僧寶傳』 권1, 〈序〉, "予自東渡以來, 嘗閱釋書, 嘗隨喜諸, 刹詢及國師之後, 罕能對者. 此無他, 未有傳記故. 予甚惜之. 又釋書所載, 率多教門之師而禪宗實寡. 予由是有續貂之意."

37 『扶桑禪林僧寶傳』 권1, 〈序〉, "南山道宣律師著高僧傳於唐; 石門寂音尊者作禪林僧寶傳於宋; 石鼓永老人編建州弘釋錄於明. 身居世外, 具有司馬氏之才, 發揮先德前言往行, 昭著天下, 使天下之人, 易轍而趨, 望標而進." 『건주홍석록』(2권)은 영각이 당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복건성(福建省) 건주 지역에서 활동한 선승들의 전기를 「달본(達本)」·「현화(顯化)」·「숭덕(崇德)」·「보교(輔教)」 네 항목에 나누어 실은 책이며, 대부분의 전기가 다른 고승전과 전등록 등에서 인용한 것이다. 성돈은 복건성 출신이어서 이 책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이 불교사서를 저술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에이사이(榮西)와 도겐(道元)을 비롯해 일본의 선승 117명의 전기를 연대순으로 서술했을 뿐, 이미 중국의 선종사서들에서 중시한 전법(傳法)의 계보에 따라 서술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선종사를 대강이나마 정리하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686년에는 속편으로 48명의 전기를 실은 『속부상선림승보전(續扶桑禪林僧寶傳)』을 저술했다.

성돈은 두 선종사서를 보완하려고 1687년에 『동국고승전(東國高僧傳)』(10권)을 편찬했다. 쇼토쿠 태자를 필두로 지겐 대사(慈眼大師, 1536?~1643)까지 모두 336명의 전기를 연대순으로 나열했다. 이 책의 성격은 진언종 승려인 하쿠뇨 운쇼(泊如運敞, 1614~1693)가 쓴 서문에 잘 나와 있다. "『원형석서』는 승속(僧俗)과 남녀(男女)를 따지지 않고 석문(釋門)과 관련된 이라면 모두 끼워 넣었다. 이 책은 그렇지 않아서 오로지 가사를 걸친 승려만 취했기에 제목에 '고승'을 내걸었고, 순전히 교종에서 뛰어난 이들만 실었다."[38]

성돈은 중국과 일본의 불교사서들을 두루 알고 있었던 승려다. 그럼에도 십과 체재나 계보에 따른 구성이 아니라 연대기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그가 도래승이어서 천년이 넘는 일본 불교사와 무수한 일본 승려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또 오래도록 끊어졌던 불교사서 편찬의 명맥을 잇는 일 자체에 의의를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돈과 거의 동시에 만겐 시반도 독자적으로 불교사서를 편찬하고 있었다. 그 역시 1678년에 선종사서인 『연보전등록(延寶傳燈錄)』(41권)을 먼저 저술했다.[39] 일본의 선종은 에이사이와 도겐이 각자 임제종과 조동종을 열면서 번성했으나, 시반이 "(에이사이가 송에서 돌아온) 겐큐(建久, 1190~1199) 때부터 지금까지 500여 년이 흘렀으나 모아서 기록할 사람이 없어 현명하고 거룩한 분들이

38 『東國高僧傳』 권1, 〈序〉, "然而釋書不問皂白男女, 有係釋門者盡編入焉. 今則不然, 單取方袍, 故題以高僧, 純教門之魁也."

39 『연보전등록』에 대해서는 荻須純道, 1970, 「延宝伝灯録について」, 『禅文化研究所紀要』 2, 禅文化研究所에서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라지고 알려지지 않게 되었으니, 문헌이 결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40]고 했듯이 선승들이나 선종사에 관한 체계적인 기록이 오랫동안 없었다. 그리하여 시반은 중국의 『경덕전등록』에 견줄 만한 자국의 선종사서를 저술하려 했다. 『경덕전등록』처럼 책명에 '연보(延寶, 1673~1681)'라는 연호를 쓴 것도 그 때문이다.

『연보전등록』은 선승과 거사 1,200여 명의 전기와 법어, 게송 등을 수록하고 있다. 권1에서 권34까지는 임제종과 조동종 두 종파의 선승들이 계보에 따라 서술되었고, 권35에는 천황과 황후, 거사 등의 전기가 서술되었다. 권36부터 권40까지는 제방광어(諸方廣語), 염고(拈古), 송고(頌古), 게찬(偈讚)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권1의 앞에 있는 목록까지 합치면 모두 41권이다. 이런 구성도 『경덕전등록』을 본뜬 것이다.

시반은 1702년에는 『본조고승전(本朝高僧傳)』(75권)을 내놓았다.[41] 25년에 걸쳐 저술한 이 책의 서문에서, "도후쿠지의 고칸 화상은 『원형석서』 30권을 저술했으나, 입전된 승려의 수는 500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빠진 분들이 매우 많다"[42]고 밝힌 대로 『원형석서』에서 빠뜨린 고승들 및 그 후 400여 년 동안 활동한 고승들을 두루 그러모았다. 그리하여 이 고승전에는 무려 1,662명의 전기가 수록되었다.

시반은 "이제 옛 법식을 따라 과목을 나누고 제목을 달았다. 과목의 명칭은 좀 다르지만, 그 의의는 같다"[43]고 했는데, 여기서 옛 법식은 중국의 고승전에서 확립된 십과를 가리킨다.[44] 과목의 명칭이 다르다고 한 것은 『본조고승전』의 십

40 『延寶傳燈錄』 권1, 〈序〉, "自建久迨于今, 五百餘載, 緝錄無人, 致俾名賢聖德湮沒無聞, 可謂闕典矣."

41 시반의 『본조고승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荻須純道, 1974, 「師蛮の本朝高僧伝について」, 『禅文化研究所紀要』 6, 禅文化研究所 참조.

42 『本朝高僧傳』 〈序〉, "東福虎關和尙著釋書三十卷, 僧員不盈五百, 漏網尙多."

43 『本朝高僧傳』 〈凡例〉, "今隨舊例, 分科立題. 科目少異, 取義同焉."

44 『양고승전』의 십과는 「역경(譯經)」·「의해(義解)」·「신이(神異)」·「습선(習禪)」·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가 「법본(法本)」(권1~권4), 「정혜(淨慧)」(권5~권18), 「정선(淨禪)」(권19~권45), 「감진(感進)」(권46~권56), 「정률(淨律)」(권57~권63), 「단흥(檀興)」(권64~권65), 「정인(淨忍)」(권66), 「원유(遠遊)」(권67), 「독송(讀誦)」(권68), 「원잡(願雜)」(권69~권75) 등이기 때문이다. 또 「원잡」에는 「응화(應化)」, 「낙방(樂邦)」, 「선덕(先德)」, 「신선(神仙)」, 「감괴(感怪)」 등 5개 하위 항목이 더 있다. 이렇게 과목의 명칭이 다르고 「원잡」에 하위 항목이 설정된 것은 모두 『원형석서』의 십전(十傳)을 본뜬 결과다. 다만 고승전을 표방했으므로 『원형석서』의 「자치표」와 십지는 빠졌다. 『본조고승전』은 일본에서 십과 체재로 저술된 최초의 고승전이다.

성돈과 시반이 불교사서를 거듭 편찬하는 동안에 다른 승려들도 불교사서를 편찬하고 있었다. 진언율종(眞言律宗)의 승려 가이잔 에켄(戒山慧堅, 1649~1709)은 1687년에 『율원승보전(律苑僧寶傳)』(15권)을 저술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계율을 지키는 데 뛰어났던 대덕들의 전기를 「진단제사(震旦諸師)」(권1~권9)와 「부상제사(榑桑諸師)」(권10~권15) 둘로 나누어 연대순으로 서술한 율종의 고승전이다.[45] 「진단제사」에 220여 명, 「부상제사」에 130여 명이 입전되어 있어 중국 쪽의 비중이 더 크다.

에켄이 중국과 일본을 아우른 까닭은 서문에 밝혀져 있다. "내가 양·당·송의 승사와 우리나라의 『원형석서』에서 기록한 것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율종에 덕이 높은 승려의 수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독자적인 정전이 아직 없으니, 문헌이 거의 결여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원형석서』 이후로 3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훌륭한 행실이 날마다 사라지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하다."[46] 중국의 세 고승전에는 「명률(明律)」이, 『원형석

「명률(明律)」·「망신(亡身)」·「송경(誦經)」·「흥복(興福)」·「경사(經師)」·「창도(唱導)」 등이고, 당과 송의 두 고승전에서는 「역경」·「의해」·「습선」·「명률」·「호법(護法)」·「감통(感通)」·「유신(遺身)」·「독송」·「흥복」·「잡과(雜科)」 등 약간 변형시킨 십과를 세웠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천구, 2022, 앞의 글 참조.

45 '부상(榑桑)'은 일본을 달리 일컫는 말인데, '부상(扶桑)으로도 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에는 「명계(明戒)」가 있어 율학에 밝거나 계율을 잘 지키는 승려들이 꽤 많이 올라 있다.[47] 불교의 기본 교리인 삼학(三學)에도 율학(律學)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율종의 불교사서가 따로 없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포괄했던 것이다.[48] 주목할 점은 에켄도 성돈이나 시반처럼 『원형석서』를 불교사서 편찬의 준거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에켄에 이어 기초(義澄)도 1701년에 『초제천세전기(招提千歲傳記)』(9권)라는 율종의 불교사서를 편찬했다. 제목의 '초제(招提)'는 율종의 총본산인 '도쇼다이지(唐招提寺)'를 가리킨다. 일본에 계율을 전한 감진(鑑眞) 화상에게 조정에서 759년에 하사한 절이며, 성쇠를 거듭하면서 에도 시대까지 존속했다. 기초는 일본의 율종을 대표하고 또 상징하는 이 절을 중심으로 율종의 천년 역사를 서술하려 했다.

『초제천세전기』는 모두 19개의 편목으로 구성되며, 권9의 말미에 종파도(宗派圖)가 덧붙어 있다. 편목들은 크게 전(傳)과 지(志)로 나뉜다. 권1~권3의 「전률(傳律)」, 권4~권5의 「명률(明律)」, 권6의 「왕신(王臣)」, 「거사(居士)」, 「니녀(尼女)」 등 다섯 편은 전이며, 권7의 「전당(殿堂)」, 권8의 「구사(舊事)」, 권9의 「구적(舊跡)」, 「영보(靈寶)」, 「영상(靈像)」, 「법사(法事)」, 「지원(枝院)」, 「찬술(撰述)」, 「봉록(封祿)」, 「변와(辨訛)」, 「견의(遣疑)」, 「이설(異說)」, 「습유(拾遺)」, 「연명(連名)」 등 열네 편은 지에 해당한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하나는 「전률」에서 감진을 율종의 태조(太祖)로 하여 65세(世)인 지도 쇼호(智堂照峰)까지 계보를 따라 서술한 점이며, 이는 선종사서인 전등록을 본받은 것이다.

---

46 『律苑僧寶傳』 권1, 〈序〉, "予嘗觀三代僧史幷本邦釋書所載, 宗門碩德不可以一二數. 然未見有一家之正傳, 得無幾於闕典歟! 矧又元亨之後三百餘霜, 其間不可謂無人, 柰景行日泯, 良可惜也."

47 세 고승전의 「명률」에 모두 95명, 『원형석서』의 「명계」에 10명이 입전되어 있어 모두 100여 명이 넘는다.

48 중국에서는 1765년이 되어서야 원량(源諒)이 『율종등보(律宗燈譜)』(8권)를 편찬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천구, 2024, 앞의 글, 206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른 하나는 「구사」를 기전체 역사서의 '본기'처럼 서술해서 계율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과 천황의 통치를 결부시킨 점이며, 이는 『초제천세전기』가 선종사서의 계보를 수용한 '기전체' 형식의 불교사서임을 말해준다.

1693년에는 단겐 지초(湛元自澄, ?~1699)가 『일역동상제조전(日域洞上諸祖傳)』(2권)을 저술했다. 일본 조동종의 승려 70명의 전기를 연대순으로 서술한 선종사서다. 지초는 서문에서 "(도겐 선사께서) 처음 일본에 조동종을 연 뒤로부터 법등의 불꽃이 계속 타올랐으므로 빼어난 안목을 갖춘 이들이 낱낱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전기들은 버려지고 잊혀져 그 훌륭한 행실들을 알기 어렵게 되었다. 근래에 승사에서 기록하기는 했어도 겨우 10여 명에 불과하다.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49]라며 이 책을 편찬한 까닭을 밝혔다. 지초가 언급한 승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부상선림승보전』(1675)이나 『연보전등록』(1678)은 분명히 아니다. 이 두 선종사서에는 조동종의 선승이 꽤 많이 입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록의 부족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 이면에는 조동종보다 더 번성하면서 훨씬 많은 선승을 배출하고 있던 임제종을 의식해 조동종의 종파적 우월성과 정통성을 주장하려던 의도가 있었다.

지초의 『일역동상제조전』이 나온 뒤로 그 속편도 계속 편찬되었다. 도쿠오 료코(德翁良高, 1649~1709)는 1708년에 『속일역동상제조전(續日域洞上諸祖傳)』(4권)을 저술해 지초가 빠뜨린 선승 80여 명의 전기를 실었다. 료코는 "선림에 사전(史傳)이 있는 것은 세속에 국사가 있는 것과 같다"[50]고 말했다. 이는 선종사서의 편찬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다. 그런데 "각 종파에서는 스승으로 받들 만한 분을 드러내서 빛나게 하는데, 오직 우리 조동종에서는 실천만 일삼으며 행적을 기록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예부터 전해줄 수 있는 이가 있기도

49 『日域洞上諸祖傳』 권1, 〈序〉, "初闢曹洞正宗於日域, 自後燈燈續焰, 能爲人天眼目者不可枚擧. 然年代寢邈而傳記遺佚, 難識其行實之大全. 故雖近世有僧史之所錄, 僅不過十員耳. 豈可不惜乎?"

50 『續日域洞上諸祖傳』 권1, 〈序〉, "禪林之有史傳也, 是猶世典之有國史."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고 없기도 해서 자세하게 알 수 없다"[51]고 했다. 기록의 소홀로 말미암아 조동종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말이다. 료코는 지초가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일역동상제조전』을 저술했다고 여겨 자신도 그 뒤를 잇는다고 했다. 료코의 제자인 료키(良機, ?~1727) 또한 스승의 뜻을 이어서 1717년에 『중속일역동상제조전(重續日域洞上諸祖傳)』을 편찬해 94명의 선승을 추가했다.

지초부터 료키까지는 30년이 채 안 되는데도 보완하는 속편이 거듭 나왔다. 그런데 세 저자 모두 선종사서의 핵심이라 할 전등(傳燈)의 계보에 따라 서술하지는 않았다. 기록의 결여나 부실을 바로잡느라 계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1727년에 『일본동상연등록(日本洞上聯燈錄)』(12권)을 저술한 레이난 슈조(嶺南秀恕, 1675~1752)도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연보전등록』은 대대로 이어지는 계통을 분명하게 서술했으나, 『일역동상제조전』을 비롯한 세 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들을 앞세우고 아비를 뒤로 두기도 하고, 형과 아우의 위치가 바뀌기도 했다. 또 계승한 일이 자세하지 않거나 계승의 계보가 잘못되기도 해서 극도로 어지럽다."[52]

『일본동상연등록』에는 743명의 전기가 실려 있다. 일본 조동종의 승려를 총망라한 셈이다. 앞서 나온 세 선종사서를 비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슈조는 계보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다. "능인씨(석가모니)는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를 대구씨(대가섭)에게 부촉했고, 대구씨는 그것을 아난에게 전했다. 이로부터 서천에는 28명, 동토(중국)에는 6명이 번갈아서 서로 이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마치 한 그릇의 물을 다른 그릇에 옮기듯이 해서 조계에 이르렀다."[53]

---

51 『續日域洞上諸祖傳』 권1, 〈序〉, "各家顯耀師宗, 獨吾洞門, 專事持撿, 疎交鉛槧. 故從上來可傳者, 若有若亡, 不可得而詳也."

52 『日本洞上聯燈錄』 권1, 〈凡例〉, "延寶傳燈一書, 敍世系明矣, 洞上三傳不及之. 所以或有先子後父者, 或有兄弟易位者. 又有不詳嗣承者, 又有誤系嗣承者, 紊亂極矣."

53 『日本洞上聯燈錄』 권1, 〈自序〉, "能仁氏以無上正眞之道囑大龜氏大龜傳之阿難. 自爾西天四七東土二三遞代相承. 一人傳一人如一器水傳一器而泊至曹溪."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리하여 슈조는 개조인 도겐을 필두로 '영평하일세(永平下一世)'부터 '영평하이십오세(永平下二十五世)'까지 계보에 따라 전기들을 서술했다. 그리고 각 권의 말미에는 〈고증(考證)〉을 두어 『일역동상제조전』 같은 이전의 선종사서에 있는 오류나 부족한 점을 바로잡고 보충하려 했다. 『일본동상연등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일본 조동종에서 가장 중요한 선종사서이자 사료다.

이렇게 조동종 계통의 선종사서가 계속 편찬된 것과 달리, 임제종에서는 이에 견줄 만한 선종사서를 전혀 편찬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반이 『연보전등록』(41권)에서 임제종 승려들을 대거 실으며 잘 정리해두었기 때문이다. 『연보전등록』은 권1~권32가 전기인데, 권1, 권7~권9, 권27에만 조동종 승려가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임제종 승려다. 현실에서도 임제종의 교세가 더 대단했으므로 따로 선종사서를 저술해 종파적 우월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50여 년 사이에 11종의 불교사서가 한꺼번에 편찬되었으니,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다고 할 만하다. 그러고는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140년이 지난 1867년에 마지막 불교사서라 할 『속일본고승전(續日本高僧傳)』(11권)이 편찬되었다. 저자는 진언종 승려인 도케이(道契, 1816~1876)다. 제목에 '속(續)'이 붙어 있는데, 시반의 『본조고승전』을 이었기 때문이다. 도케이는 『본조고승전』의 '본조'가 본디 조정(朝廷)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부적절하다며 '일본'이라 고쳐 썼다.[54]

『속일본고승전』은 「법본(法本)」, 「정혜(淨慧)」, 「정선(淨禪)」, 「정률(淨律)」, 「낙방(樂邦)」, 「감진(感進)」, 「단흥(檀興)」, 「원잡(願雜)」 등 여덟 과목에 238명의 전기를 수록하고 있다. 도케이는 『본조고승전』의 십과에서 「정인(淨忍)」, 「원유(遠遊)」, 「독송(讀誦)」 세 과목을 뺐는데, 해당되는 고승이 없기 때문이라 했다.[55] 본래 「원잡」의 하위 항목이었던 「낙방」을 끌어올려 여덟 과목에 포함시

54 『續日本高僧傳』, 〈凡例〉, "國朝本朝, 係朝廷之稱矣. 師蠻謬題本朝高僧傳, 予雖續于蠻史, 改題續日本高僧傳."

55 『續日本高僧傳』, 〈凡例〉, "缺淨忍遠遊讀誦三科, 皆乏專門人故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키고는 「원잡」에 따로 하위 항목을 두지는 않았다. 그리고 시반은 각 과목의 말미에 '총론(總論)'을 두어 마무리했으나, 도케이는 속편이라는 점을 들어 생략했다.[56]

도케이는 진언종 승려임에도 정토종(90명), 조동종(57명), 진언종(37명), 임제종(20명), 황벽종(黃檗宗, 16명), 천태종(13명), 화엄종(2명), 일련종(日蓮宗, 1명), 정토진종(淨土眞宗, 1명) 등 여러 종파를 아우르는 고승전을 저술했다. 『본조고승전』 이후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속일본고승전』은 불교의 시대가 저물면서 불교사서 편찬 또한 더 이상 역사적 의의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했다.

Ⅳ. 편찬의 특성과 역사적 양상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불교사서는 모두 18종 238권이다. 여기서는 그 불교사서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대체적인 양상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18종의 불교사서 가운데서 서지체가 2종, 기전체가 2종, 열전체가 14종이다. 열전체가 압도적으로 많다. 양나라 혜교가 기전체의 '열전'을 본떠서 십과 체재를 마련해 저술한 『양고승전』에서 불교사서 편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불교가 교단을 형성하기는 했어도 근본적으로 수행과 득도, 교화가 모두 승려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열전체가 대부분인 것은 당연하다. 48종의 불교사서가 편찬된 중국에서도 38종이 열전체였다.[57]

일본에서 주목할 점은 서지체 불교사서인 (1)과 (4) 2종이다. 각각 헤이안 시

56 『續日本高僧傳』, 〈凡例〉, "蠻史十科之尾, 每附總論. 今傳不作總論, 以續篇故也."

57 중국에서 편찬된 48종 가운데서 열전체가 38종, 편년체가 7종, 기전체가 2종, 기사본말체가 1종이었다(정천구, 2024, 앞의 글, 209쪽). 일본에서는 편년체와 기사본말체가 없고, 그 대신에 서지체가 있어 차이를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 말기와 가마쿠라 초기에 편찬되었고, 공통적으로 헤이안 시대에 번성했던 팔종(八宗)이 성립되는 과정과 추이를 집중적으로 서술했다. 이는 팔종을 중심으로 한 교학불교(敎學佛敎)가 일본의 초기 불교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인식한 결과다.[58] 기전체 불교사서인 (5)에서 십지(十志) 아래에 「제종(諸宗)」을 두고 각 종파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한 사실도 팔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는 (1)과 (4)가 서지체 형태로 서술된 것이 적절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서지체 불교사서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두 나라 저자들의 불교사 인식이 달랐을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불교사의 전개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불교사서는 모두 한문으로 쓰였다. 중세에 동아시아 각국이 한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어느 나라에서든 지식인이라면 한문을 익혀야 했고, 각국의 승려들 또한 한역 경전과 논서를 바탕으로 수행하고 글을 써야 했으므로, 특이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불교사서의 편찬도 중국이 주도하며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불교사서의 편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12세기부터 정치사를 다룬 역사서를 자국어인 가나(假名)로 쓰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59] 불교계에서도 가마쿠라 시대에 선종이 종파로서 자리를 잡은 뒤로 선승들의 어록은 대부분 자국어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선종사서를 포함해 모든 불교사서를 한문으로 계속 썼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고칸 시렌이 『원형석서』를 저술하면서 보여준 인식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에서는 불교사서의 편찬을 자국의 불교사와 불교학 수준, 나아가 일본의 역사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일

58 일본의 초기 불교가 팔종을 중심으로 한 교학불교임은 대부분의 일본 불교사 저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Daigan & Alicia Matsunaga, 1971, *Foundation of Japanese Buddhism*, Vol. 1, Buddhist Books International; 末木文美士, 1996, 앞의 책, 1장과 2장; Kazuo Kasahara, 2001, *A History of Japanese Religion*, Kosei Publishing Co., 2장과 3장 등을 보라.

59 이에 대해서는 坂本太郎 저, 박인호·임상선 역, 1991, 앞의 책, 73~91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셋째, 일본의 불교사서 편찬자는 모두 승려다. 중국의 경우에는 명나라 황제인 영락제(永樂帝) 주체(朱棣, 1360~1424), 거사인 주시은(朱時恩, 1564~?)과 팽제청(彭際淸, 1740~1796) 등 승려가 아닌 저자들이 있었다.[60] 자국어가 일찍 발달하고 보급된 일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승려들이 불교사서 편찬을 도맡아 했다는 것은 한문을 익힌 지식인으로서 그들의 위상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도래승들의 역할이다. 8세기에 도래한 사탁과 17세기에 도래한 성돈 둘뿐이지만, 그들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일본에서 불교사서의 가치와 편찬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사탁은 일본 최초의 고승전을 저술했다. 비록 그의 저술은 전하지 않으나, 후대의 문헌들에 대거 인용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시되었음을 말해준다. 성돈은 주요한 불교사서를 3종이나 편찬해 그전의 오랜 공백기를 단번에 메우면서 불교사서 편찬의 도화선 구실을 했다. 일본의 불교사에서는 도래승들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탁과 성돈을 통해 불교사학에서도 그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불교사서의 편찬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사탁이 8세기에 저술한 『연력승록』을 제쳐두면, 첫 번째 시기는 (2)~(6)의 5종이 차례로 저술된 13~14세기다. 이 시기는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던 가마쿠라 시대에 해당된다. 두 번째 시기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 사이의 50여 년인데, 이 기간에 (7)~(17)의 11종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찬되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화와 안정의 시대로 접어든 에도 막부의 전반기에 해당된다.

일본에서는 불교가 6세기 중반에 전래된 뒤로 오래도록 융성했으나, 불교사서의 편찬은 13세기 즈음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꽤 늦은 편인데, 이는 교

60 주체는 『신승전(神僧傳)』(9권)을, 주시은은 『거사분등록(居士分燈錄)』(2권)과 『불조강목(佛祖綱目)』(41권)을, 팽제청은 『거사전(居士傳)』(56권)과 『선여인전(善女人傳)』(2권)을 각각 저술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천구, 2024, 앞의 글, 203~208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교학(敎學)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1), (3), (4), (5)에서 팔종을 주요하게 서술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사실 불교는 깨달음을 얻거나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로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유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학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61] 교학의 중시는 학승을 중심으로 한 국가불교 및 귀족불교로 나아가는 주요한 토대였을 뿐 아니라, 밀교가 수용되어 현밀불교(顯密佛教)가 성립되는 바탕이기도 했다.[62]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서면서 불교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선종, 정토종, 일련종 등 새로운 종파가 등장해 서로 경쟁하면서 교리적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또 교학보다 수행이나 신앙을 중시하는 실천적인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전의 왕실과 귀족 중심에서 벗어나 민중 속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변화는 외래종교인 불교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자국의 불교사에 대한 인식도 주체적인 해석의 한 양상인데, 그런 인식을 (5)의 『원형석서』가 잘 보여준다. 다만, (6)의 『본조승보전』은 불교사 인식보다 불교사적 전환기의 산물로 보인다.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막 등장한 선종이 새로운 시대의 새 종파임을 선언하는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는 에도 막부의 안정기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불교계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에도 막부는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면서 불교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일본 전국의 불교 종파들과 사원들, 승려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쇼슈지인핫토(諸宗寺院法度)라는 법령을 제정했으며, 동시에 혼마쓰제도(本末制

61 중국에서 위진시대(魏晉時代, 220~420)에 불교의 사상이나 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격의(格義)가 나타났던 일에서도, 또 중국의 고승전들이 십과 체재에서 교리의 해석에 뛰어난 승려들을 입전한 '의해(義解)'를 첫 번째의 '역경(譯經)'에 이어 두 번째에 늘 배치한 데서도 교학의 중요성은 확인된다.

62 현밀불교 또는 현밀체제(顯密体制)는 구로다 도시오(黑田俊雄)가 제창한 학설인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란에 대해서는 末木文美士, 1998, 『鎌倉仏教形成論』, 法藏館, 27~103쪽에서 자세하게 정리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度)를 정비해 사원들을 본사와 말사로 수직적으로 계열화해 통제하고 지단제도(寺檀制度)를 활용해 사원과 단가(檀家, 보시하는 신도들)의 관계를 고정시켜 민중을 지배하려고 했다.[63] 특히 지단제도로 말미암아 신도들의 장례식에 승려가 파견되는 일이 정례화되었는데, 이로써 일본 불교는 장례불교화되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동시에 점점 형식화되고 사원과 승려도 타성에 젖게 되었다.

불교계를 통제하기 위한 막부의 정책은 간분(寬文) 연간(1661~1673)에 거의 완성되었다.[64] 이때 유학자들이 불교의 세속초월주의와 엄격한 윤리성의 결여를 비판하는 배불론으로 불교의 위상을 뒤흔들었고, 불교보다 하위에 있던 신토(神道)가 이론적으로 불교에서 독립해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역시 배불론에 합세했다. 불교계는 큰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음에도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비판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여 실제로 계율부흥을 꾀하거나 불교의 입장에서 세속윤리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65] 두 번째 시기에 율종의 역사를 서술한 (11)과 (13)이 편찬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율종의 불교사서가 저술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두 번째 시기에는 특정 종파의 불교사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 7종의 선종사서가 편찬되었는데, (7)~(9) 3종은 임제종과 조동종을 아우른 것이며, (12)와 (15)~(17) 4종은 오로지 조동종의 역사를 기술한 것이다. 선종사서가 많은 까닭은 무가 정권과 함께 선종이 불교계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선종 내에서도 교세가 임제종보다 약했던 조동종에서 집중적으로 선종사서를 저술했다는 사실이다. 율종의 불교사서와 조동종의 선종사서를 아울러 생각해보면, 종파적 위상과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불교사서가 유용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63 혼마쓰제도와 지단제도를 통해 불교계를 통제한 일에 대해서는 圭室文雄, 1971, 『江戶幕府の宗教統制』, 評論社 참조.

64 末木文美士, 1996, 앞의 책, 236~238쪽 참조.

65 末木文美士, 1996, 위의 책, 25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맺음말

일본에서는 12세기 말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18종 238권의 불교사서를 편찬했다. 서술 방식 또는 체재는 서지체와 기전체, 열전체 세 가지였다. 서지체는 (1)과 (4) 2종이며, 일본의 초기 불교사를 서술하는 데 적합해서 채택된 것으로 중국의 불교사서들에서는 볼 수 없던 형식이다. 기전체 또한 (5)와 (13) 2종뿐인데, 모두 독특한 형태다. (5)의 『원형석서』는 정사의 '본기'에 해당되는 「자치표」를 두어서 왕권과 불법, 정치사와 불교사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13)의 『초제천세전기』는 고승전의 십과와 전등록의 계보를 아우르는 형태로 율종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열전체는 모두 14종인데, 중국의 고승전에서 이미 확립된 십과 체재는 (14)의 『본조고승전』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조고승전』의 십과는 중국의 고승전이 아니라 『원형석서』의 십전(十傳)을 본받은 것이다. 나머지 13종의 열전체는 인물들의 전기를 연대순으로 서술하거나 계보에 따라 서술한 것이다. 계보에 따른 서술은 주로 선종의 불교사서에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전등록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체로 열전체에서는 독창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불교사서가 특정한 두 시기에 편찬되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시기는 막부 정권이 탄생하고 신불교가 등장하던 때로서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가 민중적인 불교로, 교학불교에서 실천과 신앙의 불교로 전환하던 때였다. 두 번째 시기는 막부에서 불교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일본의 불교가 장례불교로 나아갈 징후가 나타나던 때였다. 정치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나 전환의 시기에 불교사서들이 대거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불교사서 편찬이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불교계 내부의 변화나 외부에서 닥친 위기에 맞서 대응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코칸 시렌 저, 정천구 역, 2010, 『원형석서 하』, 씨아이알.

大日本佛教全書(D), 1912~1922, 佛書刊行會.

成田貞寶, 1971, 「覺憲撰『三國傳燈記』の研究」, 『佛教大學大學院研究紀要』 2호, 佛教大學學會.

단행본

坂本太郎 저, 박인호·임상선 역, 1991, 『일본사학사』, 첨성대.

胡照汀, 2022, 『元亨释书研究』, 郑州大学出版社.

圭室文雄, 1971, 『江戸幕府の宗教統制』, 評論社.

末木文美士, 1996, 『日本仏教史』, 新潮社.

_____, 1998, 『鎌倉仏教形成論』, 法藏館.

Kasahara, Kazuo, 2001, *A History of Japanese Religion*, Kosei Publishing Co..

Matsunaga, Daigan & Matsunaga, Alicia, 1971, *Foundation of Japanese Buddhism*, Vol. 1, Buddhist Books International.

논문

정천구, 2022, 「중국 고승전의 체재 변화와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43집, 대순사상학술원.

_____, 2024, 「중국의 불교사서 편찬과 그 역사적 양상」, 『동북아역사논총』 84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5, 「13~14세기 동아시아 불교사서 비교 연구」, 『대순사상논총』 53집, 대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상학술원.

釋定源, 2021,「關於《續藏經》的底本問題 以《名僧傳抄》為例」,『佛光學報』新七卷·第一期, 佛光大學佛教研究中心.

廖肇亨, 2017,「高泉與溫泉: 從高泉性潡看晚明清初渡日華僧的異文化接觸」,『法鼓佛學學報』20期, 法鼓文理學院.

石塚 薫, 2005,「『元亨釋書』に関する一考察」,『佛教大學大學院紀要』33, 佛教大學大學院.

成田貞寛, 1971,「覺憲撰『三國傳燈記』の研究」,『佛教大學大學院研究紀要』2호, 佛教大學學會.

蔵中 進, 1974,「思託: 一渡来僧の生涯と文学」,『日本文学』23권 1호, 日本文学協会.

荻須純道, 1970,「延宝伝灯録について」,『禅文化研究所紀要』2, 禅文化研究所.

_____, 1974,「師蛮の本朝高僧伝について」,『禅文化研究所紀要』6, 禅文化研究所.

平岡定海, 1957,「鎌倉時代に於ける僧傳の編纂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제5권 제2호, 日本印度学仏教学会.

Blum, Mark, 1999,「凝然の歴史観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제47권 제2호, 日本印度学仏教学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일본의 불교사서 편찬과 그 역사적 양상

정천구

불교사서는 어떤 형태나 구성으로든 불교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서다. 일본에서는 12세기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불교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전하는 것이 18종 238권이다. 세속의 정치사를 기록하거나 기술한 역사서보다는 수가 적으나, 중세가 불교의 시대였기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의 불교학에서는 역사서로서 중시되지 않고 사료 정도로 취급되어왔으며, 사학사에서도 불교사서가 거의 배제되어왔다. 이를 시정하고 불교사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과 의의를 알리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일본의 불교사서에서 볼 수 있는 체재는 서지체(書志體), 열전체(列傳體), 기전체(紀傳體) 세 가지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서지체다. 이것은 일본의 초기 불교가 남도(南都)의 팔종(八宗)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융성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데 적합한 형태였다.

일본에서는 불교사서 편찬이 두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체 18종 가운데서 5종이 13~14세기에, 11종이 17~18세기에 편찬되었다. 13~14세기는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는데, 그때 불교계 또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국가불교, 교학불교의 경향이 짙었던 이전의 팔종(八宗)과 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리 민중적이고 실천적인 경향이 강한 종파들이 새롭게 등장해 서로 경쟁하며 각자 종파적 정당성과 교리적 정통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시기에 불교 문헌들을 정리하고 불교사를 서술할 필요성을 인식한 이들이 불교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했다. 17~18세기는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집권적 체제가 확립되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 그러나 막부는 불교계를 세속의 정치와 사회 질서에 맞게 재편하려 했고, 새롭게 등장해 막부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선 유학자들이 배불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교 교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불교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불교사서들이 대거 편찬되었다. 요컨대, 일본의 불교사서들은 정치적·사회적 변혁에 맞서 불교계에서 주체적인 대응으로 내놓은 결과물이었다.

주제어: 불교사서(佛教史書), 사학사(史學史), 서지체(書志體), 열전체(列傳體), 기전체(紀傳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Compilation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in Japan and Their Historical Aspects

Jung Chunkoo

Buddhist historical text(佛教史書), in whatever form or structure, illustrates the flow of Buddhist history. Japan began compiling Buddhist historical text relatively late, in the 12th century, and the current extant collection comprises 238 volumes in 18 titles. While fewer Buddhist historical texts exist than historical texts documenting or describing secular political history, they are invaluable, as the Middle ages were a period of Buddhism. Despite this, Buddhist historical texts have been largely ignored in Japanese Buddhist studies, being treated as mere historical sources. Furthermore, they have been largely excluded from history of historiography(史學史).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rectify this situation and highlight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conducting a full-scale study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three formats found in Japanese Buddhist historical texts are the Monographies and treatises(書志體), the Ranked biographies(列傳體), the Annals and biographies(紀傳體). The Monographies and treatises is particularly noteworthy. It was a suitable format for demonstrating the fact that early Japanese Buddhism developed and flourished around the eight sects(八宗) of Nanto(南都).

In Japan, the compilation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was concentrated in two periods. Of the 18 sects, five were compiled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and 11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The 13th and 14th centuries were periods of great instability, marked by political division and social turmoil. The Buddhist community also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during these periods. Unlike the previous eight sects, which tended to be state-oriented and doctrinal, new sects with strong popular and practical tendencies emerged, competing with each other to assert their own legitimacy and doctrinal orthodoxy. During this period, those who recognized the need to organize Buddhist texts and document their history began compiling Buddhist historical text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ith the rise of the Edo shogunate and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system, witnessed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However, the shogunate attempted to reorganize Buddhism to align with secular politics and social order, and the newly emerged Confucian scholars who spearheaded the shogunate's power advocated for the exaltation of Buddhism. In this context, a large number of Buddhist historical texts were compiled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Buddhist order and secure Buddhism's historical legitimacy. In short, these Buddhist historical texts in Japan were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roduct of a proactive response from the Buddhist community to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Keywords: Buddhist historical text, history of historiography, the Monographies and treatises, the Ranked biographies, the Annals and biographi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11

백단대전(百團大戰)의 평가와 공적 서사

—자발성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손장훈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II. 백단대전의 딜레마와 그 해석
III. 백단대전의 공적 서사: 자발성의 딜레마, 그 가공 및 전달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백단대전(百團大戰)은 1940년 8월 20일부터 1940년 12월 5일까지 국민혁명군 소속 팔로군(八路軍)이 펑더화이(彭德懷)의 지휘 아래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일본군과 벌인 전투다. 일본군 북지나방면군(北支那方面軍)이 진지위루 변구(晋冀豫魯辺區)를 봉쇄하자 류보청(劉伯承) 휘하 팔로군이 반격했고 곧 펑더화이의 지휘 아래 진차지변구(晋察冀辺區)와의 연합 작전으로 화베이(華北) 일본군 철도 거점을 파괴하는 대규모 공세로 발전했다.

중일전쟁(中日戰爭) 전체를 놓고 볼 때 백단대전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해당 전쟁에서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 이후 중공(中共)으로 약칭]의 역할 자체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37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일본의 항복까지 이른바 '8년 항전(八年抗戰)'에서 전면전을 담당했던 것은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었다. 상하이 방어전, 난징 방어전, 쉬저우 회전, 우한 회전, 창사 회전 등 대규모 전역은 모두 국민혁명군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중공은 당시 역량의 한계 그리고 국민당과의 정치적 긴장 관계로 인해 항일 전쟁의 방법론이 제한되어 있었다.[1] 중공의 군사 작전은 대부분 소규모 '유격전'이었고 이는 당시 국민당도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중공만의 특수한 전술은 아니었다.[2]

그럼에도 백단대전은 고찰해볼 가치가 있다. 특히 백단대전이 중공의 대표

---

* 투고: 2025년 9월 29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결과물임(NAHF-2024-기획연구-17).

1 Yang Kuisong, 2011, "Nationalist and Communist Guerilla Warfare in North China", in Mark Peattie, Edward J. Drea & Hans van de Ven eds., *The Battle for China: Essays on the Military History of the Sino-Japanese War of 1937-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308~327.

2 Yang Kuisong, 2011, 위의 책, pp. 326~3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적인 항일 전역임에도 그 내부에서조차 위상이 고정되지 않았던 사실은 몹시 흥미롭다. 전역이 진행되었던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주더(朱德) 등 중공 지도부는 백단대전을 전국의 침체를 타파하고 중국인의 항일 의지를 높인 결점 없는 승리로 예찬했다. 하지만 1945년 2월 화베이 공작좌담회(華北工作座談會)부터 결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1945년 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천이(陳毅)는 백단대전에 일정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960년 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백단대전은 정치적으로 투항주의, 군사적으로는 모험주의에 해당하며 조직적으로는 중앙의 지시를 어기고 발동한 것으로 항일의 역사에서 일본인을 도와 항전역량을 소멸시킨 범죄 활동'으로 본격적으로 비난받기에 이르렀다.[3] 평가의 급격한 변천은 해당 전역을 지휘한 펑더화이의 정치적 운명과 그 궤를 같이한다. 1959년 루산회의(廬山會議)에서 펑더화이가 실각하고 이후 1966년부터 197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의 경력이 전면 부정되었다가 4인방이 타도된 이후 명예가 복권되었다. 이 격변이 그가 주도한 백단 대전에 대한 평가에 굴곡을 가져온 것이다.

이 글의 집필 의도는 '백단대전'의 사실 관계, 이를테면 공인된 전과나 손실의 정확성에 대한 탐색이 아니다. 대신 문화대혁명 이후 현대 중국의 '백단대전'에 대한 평가와 공적 서사(public narrative)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백단대전의 해석에서 논쟁을 초래하는 '자발성'의 딜레마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와 비정부의 경계가 모호한 중국이기 때문에 공적(국가) 영역의 해석과 사적(학계) 영역의 해석 역시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 그렇지만 이 사실이 다면적 인식을 통해 객관성을 추구하려는 노력까지 부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백단대전은 당 내부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전역이기에 이 노력은 명확한 형태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이 글에서는 여기서 발생한 딜레마가 어떻게 공적 서사(public narrative)로 전환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작업은 기념관, 국정 교과서, 그리고 미디어(영

3 宍戸寛, 1983, 「百團大戦の評価問題」, 『中國研究月報』 423號, 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를 고찰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 탐구의 궁극적 목적은 밝혀낸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이지만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이 작업은 정치적 필요성, 민족주의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백단대전의 딜레마는 어떤 가공을 거쳐 공적 서사가 되어 대중과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사실이 손실되지는 않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백단대전에서 나타나는 현대 중국의 역사 주조(鑄造)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백단대전의 딜레마와 그 해석

백단대전에 대한 평가는 변천해왔다. 전역을 주도한 펑더화이의 정치적 행보 및 그에 따른 실각과 재평가가 그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그가 책임졌던 또 하나의 전쟁인 한국전쟁[소위 '항미원조(抗美援朝)']은 백단대전의 행보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역에 대한 논쟁을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펑더화이의 자술(自述)

전역을 주도하였던 펑더화이는 문화대혁명 당시 백단대전에 대해 진술하였다.[4] 이를 정리해보면 백단대전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40년 2월부터 장제스의 국민정부를 중심으로 중공의 팔로군이 일본군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었다. 한편,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팔로군 근거지에서 게릴라들을 색출하기 위한 '치안강화(治安强化)' 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교통선을 이용한 봉쇄정책인 '수롱정책(囚籠政策)'[5]을 전개하고 있었다. 상황 변화에

4 彭德怀, 1981, 『彭德怀自述』, 北京: 人民出版社, 234~242쪽.

5 철도를 기둥으로, 고속도로를 쇠사슬로, 막사를 자물쇠로 삼아 점령지 내부의 게릴라 준동 지역을 철로 된 새장처럼 봉쇄한다는 군사 계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응하기 위해 1940년 3월부터 화북(華北)의 항일 근거지들은 빠르게 즉각적인 군사 행동이 가능한 유격구(遊擊區)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괴뢰군[왕징웨이(汪精衛) 정부군]이 봉쇄 작전 과정에서 토치카를 지나치게 많이 지으면서 그 병력을 분산시켰고 상대적으로 교통선에 대한 수비 태세가 취약해졌다. 그리고 팔로군 총사령부로 일본군이 8월 시안(西安)으로 진공하여 중공중앙 군사위원회가 위치한 옌안(延安)과 다른 항일 근거지들과의 연계를 차단하려 든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팔로군은 펑더화이의 주도 아래 교통선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군사 작전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후 백단대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팔로군 총사령부는 1940년 7월 상순 화북의 일본군 및 괴뢰군 점령 지역의 철로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공격을 준비하면서 8월 상순을 작전 개시일로 삼았다. 목표는 정타이(正太), 핑한(平漢), 퉁푸(同蒲), 바이진(白晉) 철도를 공격, 장악하여 적을 여섯 구역으로 분산시키고 그 봉쇄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작전 부대는 총 22개 단(團)으로 진차지변구(晉察冀邊區)에서 10개, 129사(師)에서 8개, 120사(師)에서 4개를 동원했다. 이후 7월 22일 각 군구(軍區) 군사위원회에 지령을 발신하여 교통선 인근의 적 토치카부터 공격하기로 하고 이와 동시에 군사위원회에 해당 작전을 보고했다. 그런데 각 지역의 부대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해 예정보다 10일 정도 빠르게 준비를 완료했다. 이를 알아차린 팔로군 총사령부는 급습으로 적을 공황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보고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예정보다 10일 앞당겨 7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초반 기습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괴뢰군이 패퇴하는 모습을 목격한 각 근거지의 무장 병력들이 자발적으로 전투대열에 합류하면서 동참한 부대(단[團])가 무려 104개에 이르렀다(여기서 백단대전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펑더화이는 이에 대해 공산당 지도하의 군대가 발휘하는 고도의 적극성과 자발성의 표출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백단대전의 결과로 일본군은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정타이와 핑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선은 1개월 동안 운영이 정지되었으며 팔로군은 총 40개에서 50개에 이르는 현(縣)을 탈환하였다고 진술했다. (백단대전이 종결되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26개 현이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전과(戰果) 외에도 ① 적의 교통 및 운수에 타격을 입히고, ② 일본군의 대중국 군사작전을 방해했으며, ③ 중국인들에게 항일전의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④ 만연한 투항주의를 불식시켰으며, ⑤ 장제스의 국민정부가 유포시킨 '팔로군은 싸우지 않는다'는 유언비어가 헛소문임을 입증하였고, ⑥ 특히 중공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평판을 크게 제고시켰는데 장제스의 부대는 후방 보급과 국제 원조를 받으면서도 패배하는데 팔로군은 일체의 원조 없이 적의 영역 안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며, ⑦ 중공의 근거지가 실전 경험을 축적하여 무장 공작대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백단대전의 전과로 거론했다. 펑더화이는 당시 연안에 있던 마오쩌둥이 백단대전이 '사람들을 감격시켰으며' '이런 전투를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지' 물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해당 전역의 정당성과 위대함을 역설한다.

이후 비로소 백단대전이 지닌 오류에 대해 자아비판하기 시작하는데 펑더화이는 먼저 해당 전역이 시기상조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전역을 준비할 때 일본군의 위에한(粤漢) 철도와 샹구이(湘桂) 철도 개통을 시안(西安)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옌안(延安)의 당 지도부와 연락이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해당 작전을 급속히 진행하였는데 정작 적의 목표는 웨이한 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방 진출이었다. 즉, 적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한 채 작전을 지나치게 서둘렀으며 결국 장제스 정권에 대한 적의 압박만 줄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해당 전역은 1939년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야만적인 삼광(三光) 작전과 화북 근거지에 대한 토벌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전역의 후반에 접어들며 펑더화이는 자신이 아군의 피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빠른 속도의 공격을 지시하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자아비판했다.

진술의 말미에서 펑더화이는 설령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백단대전을 향해 문화대혁명 당시 쏟아지고 있던 '장제스의 지배를 옹호했다'라거나 '부르주아 사상의 전략방침'이라는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펑더화이는 백단대전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철저하게 마오쩌둥의 인민전쟁사상을 바탕으로 얻은 성과라는 말로 해당 전역에 대한 술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2. 중국 역사학계의 백단대전 해석

문화대혁명이 종료된 1976년부터 중국은 백단대전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1940년대에는 동시성(同時性)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이념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거리두기와 객관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때부터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과 1997년 일본의 우익 단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으로 인한 반일주의의 강화까지를 중국의 백단대전 연구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백단대전은 문화대혁명의 이념적 매도로부터 벗어났으며 '항일'의 명분 아래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받지도 않았다.

이 시기 중국의 백단대전 연구는 항일전쟁사, 근대 군사사, 근거지사(根據地史)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부분[6]은 세 지점이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백단대전 인가 여부, 유격전 원칙에 반하는 전면공세의 필요성, 그리고 전역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백단대전을 중공중앙에 대한 항명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학계에 분명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대전이 중공중앙에 보고만 했을 뿐 비준은 받지 않은 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쑤어스훼이(索士暉)는 당시 당 중앙이 비준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전역 자체는 철저한 중공중앙의 지시 아래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1940년 7월 22일, 8월 31일, 9월 2일 펑더화이가 중앙군사위원회의 마오쩌둥, 주더에게 군사 행동에

6 과거의 연구 성과 및 백단대전의 실태를 규명하며 그 주된 논쟁의 여지를 정리한 작업으로는 傅式東, 1981, 「關于百團大戰的一些情況」, 『歷史教學』 1981-2; 何定, 1985, 「百團大戰和彭德懷」, 『北京師範大學學報』 1985-4; 張宏志, 1989, 「澄清對百團大戰的三点批評」, 『人文雜志』 1989-3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한 계획을 보고했고 9월 10일에는 중앙군사위원회가 산둥에서도 백단대전의 예를 따라 대규모의 군사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마오쩌둥과 중공중앙은 백단대전을 경축하는 대회도 열었다.[7] 진춘밍(金春明)은 팔로군 지휘부가 중앙의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전역을 개시한 것은 중대한 기율 위반이지만 그럼에도 중공중앙과 마오쩌둥이 백단대전의 전개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 슈슌위안(舒舜元)은 펑더화이가 군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비준이 즉각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백단대전처럼 적이 명확하여 정치적 성격이 복잡하지 않은 전역은 전략구(戰略區) 책임자의 전권 아래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비준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9]

백단대전이 당시 군사위원회의 비준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한 옹호는 마오민슈(毛敏修)의 논조가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는 중공중앙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과 보고 후 비준을 얻지 않고 군사행동에 착수한 것을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백단대전이 일본을 공격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중공에 대한 배신이 아니므로 그 회신을 기다리지 않고 개시했다는 사실을 항명으로 간주할 수 없다. 백단대전이 개시된 이후 중공의 태도를 보면 이 점이 명백해진다. 당 서기국은 화중에서 대규모 공격 계획을 세우고 화북에서도 백단대전의 선례를 따라 전역을 확대하여 일본군의 봉쇄를 타파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마오쩌둥은 백단대전의 종결을 반포하지 말고 이를 이용해 국민당의 흑색선전과 대치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즉, 중공은 백단대전을 부정하지 않았다. 마오민슈에 따르면 중공은 유물주의적 태도로 전역의 신속한 발동과 그 자발성을 명령 불복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공정함을 발휘한 것이다.[10]

---

7 索士暉, 1980,「百團大戰應充分肯定」,『近代史研究』1980-3, 48쪽.

8 金春明, 1979,「還百團大戰以本來面目」,『遼寧大學學報』1979-6, 61쪽.

9 舒舜元, 1997,「對百團大戰評價何以大起大落」,『炎黃春秋』1997-1, 17쪽.

10 毛敏修, 1981,「對百團大戰的一點看法」,『錦州師範學院學報』1981-2, 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단대전에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두 번째 지점은 이 전역이 당시 마오쩌둥의 지구전 사상 및 유격전 중심 원칙과 위배되는 대규모 공세라는 점이다. 류자궈(劉家國)[11]는 지구전이란 상황에 따라 기동전(運動戰) 혹은 진공(進攻)으로 전환이 가능하기에 원론적으로 백단대전은 마오쩌둥의 방침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허리(何理)[12] 역시 백단대전은 봉쇄돌파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으며 마오쩌둥과 중공중앙이 유격전과 방어전을 지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완전 기습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의 기동전조차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제(蔣杰)[13]는 당시 중공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전이었는데 백단대전은 대규모의 기동전과 적 진지에 대한 공성전이었으므로 이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오쩌둥의 군사전략은 유격전을 중심으로 유리한 조건 아래 기동전을 실시하는 것인데 적이 아군을 봉쇄한 상황에서 실시한 백단대전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항일전쟁 시기 중공의 또 다른 승전인 핑싱관 전투와 비교하여 백단대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차이루웨이(蔡如渭)[14]는 유리한 산악 지형을 이용하여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되 기동전(運動戰)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중공중앙의 방침을 충실히 지킨 핑싱관 전역에 비해 유격전쟁 중의 운동전, 그리고 방어전 중심의 기동전과 진공이라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백단대전은 분명한 착오라고 지적한다.

백단대전의 결과 역시 분분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백단대전은 당시 당-군 조직이 벌인 최대 전역이며 일본군의 봉쇄를 분쇄하고 적 철도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공산군은 세력 확장에만 골몰한다'는 유언비어를 불식시킨 성공적

11 劉家國, 1985,「百團大戰是否違背了遊擊戰爲主的戰略方針」,『思想戰線』1985-3. 11쪽.

12 何理, 1982,「論百團大戰的戰略指導思想及歷史作用」,『南開學報』1982-3. 23쪽

13 蔣杰, 1979,「百團大戰問題的探討」,『近代史研究』1979-1. 88쪽.

14 蔡如渭, 1981,「對'百團大戰'評價的一点意見」,『教學與研究』1981-3. 56~5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 군사적 작전이라고 평가하는 긍정파[15]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해당 전역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이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백단대전이 실패한 군사작전이라고 보는 논자들은 우선 철로 파괴를 통해 저지하려고 했던 일본군의 서북 진공계획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오히려 남쪽(南洋) 진출을 노리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둘째, 일본군의 봉쇄는 백단대전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주요 목표는 팔로군이 아니라 국민당이었다. 그리고 팔로군의 역량이 봉쇄를 와해시키기에는 미약했는데도 선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일본군을 자극하여 소탕(掃蕩) 및 삼광(三光) 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항일 근거지에 큰 손실을 입혔다. 또 백단대전을 시작한 주요 명분인 투항주의의 확산은 장제스가 이미 항일노선을 선택했기에 심각한 우려 사항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대전을 기획하여 해방구와 팔로군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크게 축소되는 위기를 불러왔다. 한편, 이 전역은 장제스에게로 향하는 압력을 줄여주었다. 먼저 일본군이 장제스를 치게 하고 중공이 장제스를 도와야 항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백단대전은 이런 전략적 사고를 무시했고 정작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은 백단대전을 관망만 했다. 마지막으로 백단대전으로 철도를 파괴했지만 일본군이 바로 이를 수복하면서 그 성과가 공고화되지 못했다.[16]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백단대전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우선 일본군이 팔로군과 근거지를 상대로 진행한 각종 파괴 공작은 백단대전 이전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었기에 항일 근거지가 1940년 이후 입은 피해를 백단대전에게 묻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일본군은 이미 1938년 10월 우한(武漢)을 점령했을 때

15 蔣杰, 1979, 앞의 글; 索士暉, 1980, 앞의 글; 何理, 1982, 앞의 글.

16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서는 郭玉堂, 1986, 「百團大戰淺析」, 『鄭州大學學報』 1986-5; 朱錫通, 1980, 「關于百團大戰的探討」, 『南京大學學報』 1980-4; 王三欣, 1983, 「關于百團大戰的幾个問題」, 『黨史研究資料』 1983-10; 李新認, 1985, 「晉冀魯豫抗日根據地的建立,鞏固和發展」, 『中國抗日根據地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터 전선 후방의 중공 해방구를 탄압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백단대전 이후 해방구의 위기는 해당 전역으로 인한 일본의 공세보다는 점점 심각해져가던 국민당의 견제와 봉쇄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백단대전이 국민당을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백단대전을 긍정하는 연구자들은 항일 시기의 주요 모순은 일본이라는 민족 모순이지 장제스가 아니라고 반론한다.[17]

백단대전의 결과에 대한 긍정과 부정 양측의 의견 중 어느 쪽이 보다 객관적 평가에 가까운지 알아보기 위해 일본 측 연구를 참조해보자. 일본의 중일전쟁 연구에 의하면 일본군은 1940년까지 현지의 생산력 향상과 자원 개발을 시도했으나 백단대전을 기점으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물자의 수취, 식량의 강제징발이 시작되었다.[18] 또 백단대전 이후 일본의 중의원이 『개조(改造)』라는 잡지에서 "중일전쟁의 신속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군대 역량에 의거해 공산당의 역량을 소멸시키려면 백 년이 걸려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 내부에서도 중공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19] 이를 보면 백단대전으로 인해 중공의 근거지가 겪어야 했던 후유증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연구자 시시도 히로시(宍戸寛)가 백단대전의 성과를 베트남 전쟁 당시 '테트(tết) 공세'[20]와 비교하여 '인민전쟁'으로서의 완성도를 평

17 何理, 1982, 앞의 글, 28쪽; 金春明, 1979, 앞의 글, 68쪽; 張洪祥 · 高德福, 1980, 「關于百團大戰的評價的幾点商榷」, 『南開史學』 1980-2, 12쪽.

18 波多野澄雄 · 戸部郎一 編, 2006, 『日中戰爭の軍事的展開』,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73~174쪽.

19 北京市高校黨史協作組, 1980, 『中共黨史專題報告彙編』, 北京: 中國人民大學黨史系資料室, 138쪽.

20 흔히 구정공세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대규모 군사 공세 중 하나로 베트남 인민군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1968년 1월 30일 개시한 작전이다. 베트남 공화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베트콩은 주요 도시들을 습격하여,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군사 기지를 점령했다. 결국 베트콩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지만, 주사이공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여 오랜 전쟁에 지쳐 있던 미국 내에 격렬한 반전 시위를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한 저작이 있어 소개한다. 시시도 히로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민전쟁은 열세로부터 시작하여 전투 속에서 인민을 조직하여 훈련시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장기적인 지구전 전략이다. 테트 공세나 백단대전 모두 이 지구전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공세였다. 또한 테트 공세는 참가한 전력 대부분을 손실하고 남베트남 인민 사이에 구축한 공산주의 운동의 위신과 역량 대부분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도 백단대전과 비슷하다. 그러나 정치적 범주에서 보면 두 전역은 완전히 다르다. 테트 공세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미군 20만 명의 증파가 취소되고 베트남 폭격이 정지되었으며 휴전 교섭 개시가 결정되었다. 미국의 전의를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테트 공세는 '위대한 승리'인 반면 백단대전은 일본군에 대해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팔로군이 예상 외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한 일본군이 1941년부터 '치안강화운동'을 전개했고 이는 팔로군을 굉장한 곤경으로 몰아넣었다. 따라서 백단대전은 정치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인민전쟁의 사례다.[21]

Ⅲ. 백단대전의 공적 서사: 자발성의 딜레마, 그 가공 및 전달

백단대전에 대한 중국학계의 평가는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뤄루이칭(羅瑞卿)[22]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문화대혁명 이전 중공중앙의 평가와 일치하는 원론적 입장이기도 하다.

---

21 宍戸寛, 1983, 앞의 글, 9~11쪽.

22 "검토해보면 백단대전은 정당했다. 백단대전이 자신의 역량을 지나치게 폭로하고 적을 자극한 면은 있지만 그 군사적 수확, 특히 민심을 분기시키고 국내의 타협, 투항의 분위기를 타격한 위대한 의의는 말살할 수 없을 것이다", 「在太行分局一次高幹會的發言」, 索士暉, 1980, 앞의 글, 131쪽에서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중 과(過)는 중국학계에서 논쟁이 되었던 백단대전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앞서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그 딜레마란 백단대전 과정에서 존재했던 팔로군과 그 지휘관인 펑더화이의 독단이다. 전역의 개시와 확전 단계에서 펑더화이는 중공중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결단을 내렸고 이는 백단대전의 양면적인 결과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었다. 이는 중공의 핵심 정치 이데올로기인 '자발성(voluntarism)'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파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중공의 영도에서 참여(participation)와 자발성은 핵심 개념이다. 군중을 향해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중공중앙은 권위적 지도력(authoritative leadership)으로 영도하지만 동시에 인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분권화 역시 추구한다. 분권화란 결정 과정에서 인민들의 직접적 개입을 보장한다기보다 인민들이 당이 결정한 노선 및 정책의 집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당의 직접적인 지시와 관여는 명령주의(commandism)로 배격한다는 의미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중공은 전통적으로 정치를 지도자와 인민 간의 상호 교류로 인식해왔다.[23] 중공은 일방적 지시와 피동적 복종이라는 구조를 원하지도 허락하지도 않는다.

중공의 핵심 정치기제인 자발성은 전쟁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앞서 펑더화이의 진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백단대전의 전역이 개시,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팔로군이 발휘한 자발성의 소산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백단대전이 보여주듯이 자발성은 전장에서 하나의 난제가 된다.

앞서 규명한 백단대전의 딜레마를 검토해보자. 많은 논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백단대전에 일선 지휘관 펑더화이와 그가 지휘하는 팔로군의 독단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대전의 개시와 확전 단계에서 펑더화이와 팔로군은 중공중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결단을 내렸고 이는 해당 전역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었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단대전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독단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라는 딜

23 James R. Townsend, 1986, *Politics in Chin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pp. 331 ~3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레마 때문이다. 딜레마를 적합하게 해결하는 데 실패할 경우 대중에게 상당히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법령이나 지시의 부재 속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독단을 자발성으로 찬양한다면 이는 중공의 장악력 저하와 정치,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백단대전에 관한 연구들이 규명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중공의 대표적인 항일전역으로서 백단대전이 차지하는 지위 때문에 해당 전역을 비판하는 인상을 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백단대전이 공적 서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가공을 거쳐야 한다.

그 가공법을 확인해볼 수 있는 곳은 대중과 백단대전이 만나는 다양한 매개물이다. 역사 교과서, 역사 도서, 다양한 역사 교육, 기념일, 기념행사, 기념비, 기념관, 추도시설, 박물관, 그리고 근래 영향력이 커진 다큐멘터리, 영화, TV 드라마, 소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그중 국가의 입장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① 기념관, ② 역사 전람관, ③ 교과서, ④ 주선율(主旋律) 영화를 통해 중국 당국이 백단대전의 '자발성' 딜레마를 공적 서사로 어떻게 변환시켰는지 고찰할 것이다.

1.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과 중국공산당역사전람관(中國共產黨歷史展覽館)

기념관은 역사가 기억으로 변환되는 장소다. 기념관이 기념 대상을 소재로 하여 주조해낸 내러티브와 이미지는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으로 승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억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 지향성은 기념관 건립에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된다.[24] 따라서 백단대전의 공적 서사를 살펴보는 데 베이징의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은 중요한 장소다.

이 기념관의 중심 서사는 '애국주의'다. 항일전쟁기념관은 개혁개방 이후 퇴

24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19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할 애국주의를 시각적으로 구현화한 '애국주의 교육 기지'다.[25] 개혁개방 이후 시진핑 정권 이전까지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체재로서 항일전쟁이 부각되었던 것이다.[26] 특히 중국 침략을 '진출'로 표현한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파동이 애국주의의 반향을 대대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1987년의 기념관 건립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항전 기념관은 역사 기억 속의 '적대자'로서 일본을 지목하고 반일정서를 자극하는 서사를 중심으로 잡고 있다.[27]

반일(反日)이 해당 기념관의 중심 서사이므로 백단대전은 전적으로 긍정되어야 한다. 이 전역은 중공이 항일전쟁 당시 일본군을 상대로 올렸던 가장 큰 전과이기 때문이다. 항일전쟁기념관에서 백단대전은 제5부 '피로 물든 강토에 울린 민족의 장엄한 노래' 에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 측의 백단대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940년 8월부터 팔로군은 화북에서 일본군을 향해 대규모의 진공작전을 개시하였는데 참전 부대는 105개 단(團) 20여만 명에 달하였고 그렇기에 백단대전이라 명명되었다. 이 전역은 산둥을 제외한 화북 전체 지구(地區)의 주요 교통선을 목표로 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로서 전국 군(軍)과 민(民)의 항전과 승리를 향한 신념이 고취되었으며 일본군 병력을 제약하고 정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장(戰場)을 지원하며 일본과 타협하자는 목소리를 억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28]

---

25 이동률, 2001, 「90년대 중국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 『중국학연구』 21, 323~328쪽.

26 아라이 신이치 저, 김태웅 역, 2006,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미래 M&B, 216쪽.

27 박경석, 2009, 「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 갈등: '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1, 176~1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단대전이 '정면 전장을 지원'하는 성격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의 진공작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과 중공중앙의 지구전(持久戰) 및 유격전 방침과 백단대전이 서로 상충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백단대전은 기념관 구역 중 5부에 위치하는데, 평형관에서 팔로군의 대승, 신구·태원 방어전, 송호회전, 태아장 혈전, 무한회전, 팔로군이 전개한 화북지역 유격전, 화중에서 신사군의 악전고투, 적 후방에서 타오른 화남지역의 봉화와 함께 전시되어 있다. 중일전쟁에서 중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항일 주체인 국민당과 국민혁명군의 활동은 축소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국민당이 중일전쟁 기간 담당했던 '정면 전장에서의 대규모 격전'도 관람객의 시선으로부터 소외된다. 이로 인해 '정면 전장을 보조한' '대규모 공세' 백단대전 역시 다른 유격전보다 중요성이 낮은 전투 혹은 유격 전략의 일부로서 그 위상이 정해진다.

집권 세력이 국민에게 제시한 공적 서사를 중국인민항일전쟁 기념관보다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는 중국공산당역사전람관(中國共產黨歷史展覽館)[이후 당사전람관(黨史展覽館)으로 약칭]이다. 따라서 이 전람관이 백단대전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시의 주체인 중공이 집권당이자 역사적 사건을 국가와 사회의 배타적인 집단 기억으로 구성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29] 당사전람관에서 백단대전은 총 3층 9개 전시실의 구성 중 1층 '중국공산당을 건립하여 신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에 위치해 있다. 이에 대한 전람관 측 설명은 다음과 같다.

---

28 "從1940年8月開始, 八路軍在華北對日軍發動了一次大規模進攻作戰, 參戰部隊達到105個團20餘萬人, 故名百團大戰. 這次戰役覆蓋了除山東以外的整個華北地區的主要交通線, 取得重大戰果, 振奮了全國軍民爭取抗戰勝利的信心, 牽制了日軍兵力, 對支持正面戰場作戰, 遏制妥協暗流, 起到了積極的作用."

29 전진성, 2005, 앞의 글, 19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40년 8월 20일부터 다음해 1월 24일까지 팔로군 총부는 화북에서 일본군을 향한 대규모 진공 작전을 발동하여 여기에 참전한 부대가 105개 단(團) 20여만 명에 달하였기에 역사는 이를 백단대전으로 부른다. 백단대전은 전국에서 항전이 시작된 이래 팔로군이 화북에서 일으킨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지속된 전략적인 진공이 이루어졌던 전역이다. 일본군의 '수롱(囚籠)' 정책에 큰 타격을 주고 대규모 일본군 병력을 제약하였으며 침략해온 일본군의 기세에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공산당과 팔로군의 명망을 드높이고 전국의 민심을 고무시켰다.[30]

당사전람관 역시 백단대전이 '전략적인 진공'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항일전쟁기념관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기술하는데 그것은 바로 백단대전이 일본군 후방의 항일 근거지를 겨냥한 봉쇄 작전, 이른바 수롱 정책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항일전쟁기념관의 언급과 비교해보면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해주지만, 항일전쟁기념관과 마찬가지로 백단대전이 당시 중공 전체의 형세 및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 전역이었음을 강조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 측의 설명에서 모두 현장지휘관 '펑더화이'의 존재가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그 전역의 독단성을 소거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2. 교과서

백단대전의 공적 서사를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자. 2017년 시진핑 집권 제2기 이래 중국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본격화했

30 "1940年8月20日至翌年1月24日, 八路軍總部在華北發動一次大規模的對日軍的進攻, 陸續參戰的部隊達到105個團20餘萬人, 史稱百團大戰. 百團大戰是全國抗戰以來八路軍在華北發動的規模最大, 持續時間最長的一次帶戰略性進攻的戰役. 給日軍的"囚籠"政策以沉重打擊,鉗制了日軍大量兵力, 打擊了日軍的侵略氣焰, 提高了共產黨和八路軍的威望, 振奮了全國民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데 이후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백단대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31]

> 항일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해 일본군은 '수롱 정책'을 실행하여 도로, 철로를 이용하여 항일 근거지를 향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
> 1940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일본군이 적 후방 항일 근거지를 겨냥하여 진행하던 '소탕'과 봉쇄를 분쇄하고 항전을 위해 군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팔로군 총부는 펑더화이의 지휘 아래 100여 개의 단(團)을 조직하여 화북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향해 대규모 진공작전을 발동했는데 이를 역사에서는 '백단대전'이라고 부른다.
>
> 이 전역의 주요 목표는 일본군의 교통선을 파괴하고 적의 교통선 양측 그리고 항일 근거지 내에 자리 잡은 일본군 괴뢰의 거점을 타격하는 것이었다. 백단대전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전과가 눈부셔서 일본군의 침략 기세를 꺾고 공산당과 팔로군의 위망을 제고(提高)하였으며 전국 군민의 항전 승리를 향한 믿음을 고무했다.
>
> 일본군은 타격을 받은 이후 즉각 대규모 병력을 조직하여 팔로군 및 항일 근거지를 겨냥해 보복성 '소탕'을 벌였고 팔로군 역시 이에 대응하여 반 '소탕' 작전에 착수했다.[32]

서두에서 백단대전이 일본군의 봉쇄 정책에 대항한 반소탕(反掃蕩) 작전이

---

31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7,『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八學年(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04~105쪽.

32 "為了消滅抗日根據地, 日軍實行'囚籠政策'依託公路, 鐵路, 對抗日根據地進行封鎖與蠶食. 1940年8月至次年1月, 為了粉碎日軍對抗日根據地的'掃蕩'和封鎖, 振奮抗戰軍民的士氣, 八路軍總部在彭德懷指揮下, 組織100多個團, 在華北廣闊的地域, 對日軍發動了一場大規模進攻, 史稱'百團大戰'. 這次戰役的主要目標是破襲日軍交通線, 摧毀敵人交通線兩側及抗日根據地的日偽據點. 百團大戰歷時數月, 戰果輝煌, 有了打擊了日軍的侵略氣焰, 提高了共產黨和八路軍的威望, 振奮了全國軍民爭取抗戰勝利的信心. 日軍遭受打擊后, 立即組織重兵對八路軍及抗日根據地實施報復性'掃蕩', 八路軍隨即轉入反'掃蕩'作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해당 전역의 지휘자가 펑더화이라는 점과 대규모의 진공 작전이었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적시되었으며 그 성과로 ① 일본군의 침략 저지, ② 공산당과 팔로군의 위망 제고(提高), ③ 전국의 항전 분위기 고무를 거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단대전의 결과 일본군이 소탕을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 역시 서술했다. 백단대전 이후 항일 근거지의 위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백단대전 연구가 거둔 학술적 성과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교과서는 백단대전에 관한 내용 바로 전에 '마오쩌둥의 〈논지구전(論持久戰)〉 그리고 항일 근거지의 건립과 발전(毛澤東〈論持久戰〉和抗日根據地的建立與發展)'을 위치시켜놓았다. 이 구성에서는 지구전 방침과 상충하는 '대규모의 진공작전'으로서 백단대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다. 해당 절의 후반부, 즉 백단대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직전을 살펴보면 마오쩌둥의 지구전 전략에 따라 일본군 후방에 중공의 항일 근거지들이 건립되었고 그곳에서 군과 민이 합동으로 지뢰전, 수상 유격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거해왔다는 설명과 함께 일본군이 항일 근거지를 겨냥한 봉쇄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후 백단대전을 설명하며 서두에 '일본군의 봉쇄 타파가 그 목적이었음'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백단대전은 펑더화이의 독단이 아닌 마오쩌둥의 '지구전' 전략 중 일부가 되었다. 지구전 전략으로 항일 근거지가 세워졌고 그 항일 근거지를 공격하기 위해 봉쇄 전략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타파하려는 목적으로 백단대전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33]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백단대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항일 전쟁이 지구전의 양상으로 들어가며 일본군은 '수롱정책'을 통해 항일 근거

33 教育部組織 編, 2019,『歷史 必修 中外歷史綱要 (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104~10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를 절멸시키려 했다. 1940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팔로군은 일본군의 화북 교통선 파괴를 주요 목표로 삼아 첫 번째 대규모 진공 작전을 개시했다. 전역이 전개되면서 팔로군에 참전하는 부대는 105개 단(團), 약 20여 만 명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이를 '백단대전'이라고 부른다. 백단대전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1,800여 차례 벌어져 일본군, 괴뢰군에게 2만여 명의 사상자를 안겼으며 474킬로미터의 철로와 1,500여 킬로미터의 도로를 파괴하여 적의 거점을 크게 격파하고 대량의 총기, 물자를 노획하여 일본군의 '수롱'을 타파하였다. 적 후방의 전장은 점차 전국 항전의 주요 전장이 되어갔다.[34]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수치가 구체적이며 팔로군의 전공이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도 역시 백단대전이 일본군의 봉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수미쌍관으로 강조했다. 백단대전에 관한 내용이 실린 절은 '적 후방 전장의 항거(敵後前場的抗戰)' 인데 앞 절인 '정면전장의 항전(正面戰場的抗戰)'과 대조를 이룬다. 국민당과 국민혁명군의 전장은 '정면'으로, 중공과 팔로군의 전장은 '후방'으로 명시적으로 구분지었으며 '정면 전장의 항전' 마지막 부분에서 마오쩌둥의 지구전 전략을 강조했다. 이후 곧바로 중공의 항일은 유격전이 핵심으로 그 주요 형태가 항일 선전과 파업이었음을 서술했다. 이로 인해 식민통치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어 일본군은 봉쇄를 통한 항일 근거지 소탕에 나섰으며 그 대응책이 백단대전이었다고 설명한다. 고등학교 교과서도 백단대전을 '적 후방의 유격전'이라는 중공의 거시적인 군사전략과 인과관계를 맺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

34 "日軍圖謀以'囚籠政策'消滅敵後抗日根據地. 1940年8月至次年1月, 八路軍以破襲日軍華北交通線為主要目標, 發動了一次大規模的進攻作戰. 隨着戰役的展開, 八路軍參戰部隊達到105個團, 約20餘萬人, 稱為'百團大戰. 百團大戰共進行大小戰鬥1800多次, 斃傷日, 偽軍2萬多人, 破壞鐵路474千米, 公路1500多千米, 摧毁大量敵人據點, 繳獲大批槍炮, 物質, 打破了日軍的'囚籠'. 敵後戰場逐漸成為全國抗戰的主戰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미디어: 영화 〈백단대전〉

2015년 8월 23일 개봉한 영화 〈백단대전(百團大戰)〉은 중국에서 해당 전역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유일한 영화이자 대표적인 주선율 영화이다. 주선율이란 당과 국가 이데올로기의 선전에 주력하는 영상물로 항일전쟁은 2021년 영화 〈장진호〉의 흥행으로 '항미원조'[35]가 주목받기 전까지 사실상 주선율을 대표하는 장르[36]였다. 영화 〈백단대전〉은 항일전쟁을 주제로 한 주선율 중에서도 항일전쟁승리 70주년인 2015년 전승절인 9월 3일[37]을 기념하여 제작된 특별한 영화였다. 그리고 항일전쟁승리 70주년 전승절은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 주변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대대적인 열병식과 행사를 거행할 정도로 거국적인 행사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백단대전'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중공에게 중요한 선전 수단이었으며[38] 해당 전투를 공적 서사로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담긴 작품이기도 했다.

---

35 '항미원조(抗美援朝)'란 미국과 싸워 북조선(북한)을 도와준 전쟁이라는 의미로 중국 측에서 한국전쟁을 명명하는 방식이다. 중공은 한국전쟁(항미원조)을 미국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둔 전쟁으로 선전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 본격적인 미-중 경쟁 관계의 형성과 함께 주선율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36 중국 영화 시장에서 주선율 장르의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및 건국 과정을 다룬 역사물, 둘째, 혁명적 모범인물을 조명한 전기물, 셋째, 앞의 두 유형을 조합하여 영웅적 이미지를 만들어낸 픽션이다. 백지운, 2023, 『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창비, 48~49쪽.

37 대한민국과 다르게 미국은 전함 미주리호의 함상에서 일본이 항복 문서에 공식 서명한 9월 2일을 '대일승전일(Victory over Japan Day)'로 기념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 다음 날인 9월 3일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승리한 '항전승리기념일(抗戰勝利紀念日)'이다. 당시 미주리함에서는 국민정부 쉬융창(徐永昌) 군령부장이 중국 대표로 참석하여 미국 대표인 체스터 니미츠 제독에 이어서 서명하였다.

38 실제로 당시 당 중앙 선전부와 교육부, 국가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총국이 영화의 흥행 성적을 과장되게 보도하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동원해 관객석을 채워넣고 있으며 영화관 측에도 달성해야 흥행 수익 목표를 배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본단, 「中 전승절 영화 '백단대전' 흥행 뻥튀기 의혹」, 『헤럴드 경제』, 2015.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1940년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이 어려운 시기에 접어든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유럽 전장에서 나치 독일은 폴란드, 네덜란드에 이어 프랑스까지 점령했고 중국에서는 국민당군이 일본군에게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다. 화북에 이어 화중 지방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고 왕징웨이가 난징에 괴뢰 정부를 수립하며 투항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이 영화에서 핵심은 다음 장면이다. 옌안(延安)에서는 마오쩌둥, 주더를 포함한 지도부가 중국의 운명을 걱정하며 이때야말로 중공의 지도 아래 있는 팔로군과 신사군이 항복의 논리를 깨뜨리고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어 반파시스트 전쟁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이후 본격적인 전투 장면으로 진입하며 팔로군 사령부와 일본의 북지나방면군 사령부 간의 전략 대결을 보여준다. 일본군은 팔로군을 봉쇄하기 위해 철도, 도로, 벙커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여 항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롱 작전을 수립한다. 동시에 그들은 유격대의 근거지를 초토화하기 위해 살육, 방화, 약탈과 같은 비인도적인 섬멸전을 실행한다. 팔로군의 펑더화이와 줘취안(左權)은 중공 중앙의 정신을 실행에 옮겨 큰 전투로 적의 수롱 작전을 격파하고 중국이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증명하기로 결의한다.

영화는 백단대전을 중공중앙의 결정으로 묘사한다. 마오쩌둥을 포함한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전역을 지시하는 장면은 없지만 옌안에서 화북으로 곧장 시점이 이동하면서 펑더화이가 중공중앙의 결의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긴다는 인상을 준다. 펑더화이가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전역의 개시를 명령하는 장면이나 각지의 유격대가 자의적으로 전장에 가세하면서 전역의 규모가 확대된 사실은 묘사되지 않는다.

이후 일본군과 팔로군 간의 전투 장면에서는 주선율 영화의 전형적인 서사 구조가 등장한다. 팔로군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이 일본군의 비행기, 전차와 맞선다. 영화는 일본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사의 공격을 감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후 소시민(老百姓) 출신 팔로군의 용맹함을 보여준다. 옌샨(染山), 야오샹우(姚尚武)와 같은 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들은 스스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일본군의 중장비를 파괴하고 팔로군의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다. 죽음마저 각오한 그들의 공격은 기차를 일본군 장갑차에 충돌시키는 창의성과 기지로 연결된다. 평범한 병사들이 제국주의의 강력한 화력에 맞서 승리를 거두는 서사는 '항미원조'까지 포함해 주선율 영화들이 보여주는 서사적 특징이다. 앞서 마오쩌둥과 중공중앙이 나오는 장면과 연결되어 백단대전은 인민들이 당의 영도에 자발적으로 호응하여 승리를 거둔 위업으로 승화된다.

4. '자발성' 딜레마의 해결: 대중노선(大衆路線)의 역학

백단대전을 공적 서사로서 대중에게 전달할 때 가장 주의하여 가공해야 할 부분은 펑더화이의 독단과 100개가 넘는 부대의 자의적인 행동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중국공산당 역사 전람관, 교과서, 그리고 영화 〈백단대전〉을 통해 펑더화이가 언급한 소위 '자발성'이라는 민감한 부분이 공적 서사 속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필자가 보기에 백단대전의 자발성을 인민대중에게 '적합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중국 당국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노선' 이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중노선은 백단대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확립된 정치적 방법론으로 연안의 정풍운동 경험을 통해 1943년 6월 마오쩌둥이 작성한 「영도방법에 관하여(關於領導方法的若干問題)」라는 문건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중노선이란 중공의 지도적 역할을 대중의 창의성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대중으로부터 나와 대중에게로 들어간다(從郡衆中來, 到群衆中去)'는 방법론으로 중공중앙을 포함해 명령을 내리는 간부들은 관료주의적으로 지시를 하달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요구와 바람을 파악하여 끊임없이 그 지시를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시를 실천하는 대중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필요와 기대에 걸맞는지 확인하고 창의적인 행동과 진취적인 의견 제시를 통한 당국과의 상호 소통으로 이를 바꿔나가야 한다. 즉, 대중노선은 대중의 창조성이 당의 판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영감을 부여하게 하기 위한 이념적 절차이다.[39]

백단대전에서 펑더화이가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기다리지 않고 작전을 개시한 것은 현장에서 말 그대로 100개의 부대(團)가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적 진지와 교통선을 공격하며 작전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대중노선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현지 인민이 주축이었던 이 부대들은 항일이라는 당의 대의에 공감했기에 능동적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격전 방침을 어기고 중공중앙의 비준조차 받지 않은 대규모 공세지만 현지 인민의 대중노선이 발휘한 창의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덩샤오핑의 말처럼 마오쩌둥과 중공중앙의 방침은 방향성을 제시할 뿐 그에 맞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인민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40] 따라서 현지 부대들이 일본군을 자발적으로 공격하며 발생한 백단대전은 대중노선의 체현과 다름없다.

한국전쟁(소위 '항미원조' 전쟁) 당시 마오쩌둥은 전쟁에서 이런 대중노선이 당의 영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실제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은 승리를 위해 이를 장려해야 한다.[41] 같은 맥락에서 백단대전도 '인민이 스스로 방법을 생각했고' 당은 그러한 인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지하여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것이 100개가 넘는 부대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선 사건을 공적 서사로 변환시키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현대 중국의 공적 서사들은 모두 이 '대중노선'의 이념으로 백단대전을 해석하여 중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항일전의 원칙은 중공중앙이 확립했고 백단대전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라는 것이다. 항일은 중공의 영도 아래 유격전을 통한 수롱 전략 분쇄로 정해져 있었다. 중공의 '항일'을 향한 방침과 결

39 대중노선의 기원 및 이념의 상세에 관해서는 Mark Selden, 1971, *The Yenan Way in Revolutionary China*,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40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1983, 『鄧小平文選(1975-1982)』, 北京: 人民出版社, 217쪽.

41 백지운, 2023, 앞의 글, 19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가 현장에 전달되어 인민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호응한 성과가 백단대전이다. 이 설명에서 현장 지휘관 '펑더화이'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생략된다. 이와 같은 가공은 확실하게 백단대전 당시 '펑더화이의 독단'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은장(隱葬)한다.

대중노선으로 백단대전의 딜레마인 '자발성'을 수용 가능한 공적 서사로 가공한 방법은 영리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 핵심인 인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이라는 개념은 일정하게 곡해되었다. 마오쩌둥의 대중노선에서 당의 역할은 인민의 자발성을 유인(誘引)하고, 동시에 유도된 창의성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즉, 대중노선의 본질에서 정치적 주체는 당이 아니라 인민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중국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백단대전에서 인민은 중공의 호소에 호응하고 지지하며 복종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바뀌었다. 마오쩌둥의 대중노선은 당 중앙이 인민의 창의성에 기대어 그 영도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백단대전에 대한 현대 중국의 해석은 중공중앙의 영도를 순종적으로 따르는 인민을 상정하고 있다. 이 곡해는 1982년 12차 당대회를 전후한 대중노선의 축소에 기인한다. 1982년 12차 당대회는 인민의 자발성을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신시기의 사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정치적 주체를 인민으로부터 당 관료-엘리트 중심으로 재편했다.[42] 이때가 백단대전의 연구 및 재정의에서 결정적이었던 시기와 겹친다[43]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Ⅳ. 맺음말

역사가 공적 서사로 변환되어 대중과 만나는 과정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42 그 상세에 대해서는 賀照田, 2020, 『革命-後革命: 中國屈起的歷史, 思想, 文化省思』, 新竹: 國立交通大學出版社, 111~123쪽 참조.

43 이 글의 2장 2절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 객관적으로 규명된 역사라고 해도 대중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알 수 없으며 또 그 객관화 자체가 대중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 '백단대전'일 것이다. 백단대전은 중일전쟁 당시 팔로군의 대표적인 전과이지만 중공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그 평가에서 다양한 굴곡을 겪어왔다. 전역을 지휘한 펑더화이가 문화대혁명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루산회의 전후 펑더화이의 정치적 신분이 급락하며 백단대전은 철저하게 부정되었다. 1978년 12월 11기 3중 전회 이후 문화대혁명이 공식적 청산되고 펑더화이가 복권되어 백단대전의 재정의를 시도한 중국 연구자들은 이 전역이 세 가지 딜레마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백단대전에서 펑더화이와 팔로군이 중공중앙의 비준 없이 전역을 개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백단대전은 당시 마오쩌둥과 중공중앙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던 유격전 방침과 상충하는 대규모 공세였다는 점이다. 셋째, 백단대전은 그 성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컸다는 점이다.

딜레마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백단대전은 항일전쟁에서 중공이 거둔 대표적인 전승임에도 그 과정에서 펑더화이와 현지 팔로군의 독단이 명백히 존재했으며 이 독단은 이 전역의 부정적인 측면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 딜레마는 중공의 중요한 정치 이념인 '자발성(voluntarism)'이 개인과 조직의 독단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곡해될 위험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백단대전이라는 영광을 공적 서사로 변환시켜 대중에게 전달할 때는 특수한 가공이 필요하다. 이 가공법은 기념관, 전시관, 교과서, 그리고 미디어(영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중공은 각종 매개물에서 백단대전을 공적 서사로 전환시킬 때 이 '자발성'의 딜레마를 전통적인 대중노선의 원리로 해석하여 그 위험성을 희석시켰다. '인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당은 인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지하여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중노선은 백단대전을 적합한 공적 서사로 변환시켰다. 기념관과 전시관, 교과서, 그리고 주선율 영화에서 백단대전은 중공중앙이 확립한 항일전쟁의 원칙에 대한 인민대중의 적극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인 호응으로 해석되었다. 중공의 영도 아래 항일은 유격전을 통해 일본군의 봉쇄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정해져 있었다. 백단대전도 그 일부에 불과하다. 단지, 중공의 굳건한 영도에 팔로군으로 대표되는 인민들이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호응하는 과정에서 확대 도출된 결과일 뿐이다.

백단대전에 대한 현대 중국의 공적 서사는 펑더화이의 독단과 그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대중노선에 부합하는 형태로 영리하게 가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핵심인 인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은 순종과 복종으로 곡해되었다. 원래 마오쩌둥의 대중노선은 당이 아닌 인민을 정치적 주체로 삼았지만, 백단대전의 공적 서사에서는 중공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인민이 강조된다. 따라서 백단대전의 공적 서사는 사실의 재현이라기보다 정치적 기획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자료

教育部組織編纂 張海鵬, 徐藍 總主編, 2019,Œò 必修 中外歷史綱要 (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教育部組織編纂 齊世榮 總主編, 2017,『義務教育教科書 中國歷史 八學年 (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北京市高校黨史協作組, 1980,『中共黨史專題報告彙編』, 北京: 中國人民大學黨史系資料室,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編, 1983,『鄧小平文選(1975-1982)』, 北京: 人民出版社,

彭德怀, 1981,『彭德怀自述』, 北京: 人民出版社.

단행본

백지운, 2023,『항미원조: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창비.

아라이 신이치 저, 김태웅 역, 2006,『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동아시아 역사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미래 M&B.

전진성, 2005,『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賀照田, 2020,『革命-後革命: 中國屈起的歷史, 思想, 文化省思』, 新竹: 國立交通大學出版社,

波多野澄雄·戶部郎一 編, 2006, 『日中戰爭の軍事的展開』,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Selden, Mark, 1971, *The Yenan Way in Revolutionary China*,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Townsend, James R., 1986, *Politics in Chin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박경석, 2009,「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 갈등: '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을 중심으로」,『중국근현대사연구』41.

이동률, 2001,「90년대 중국 애국주의 운동의 정치적 함의」,『중국학연구』21.

郭玉堂, 1986,「百團大戰淺析」,『鄭州大學學報』1986-5.

金春明, 1979,「還百團大戰以本來面目」,『遼寧大學學報』1979-6.

毛敏修, 1981,「對百團大戰的一點看法」,『錦州師範學院學報』1981-2.

索士暉, 1980,「百團大戰應充分肯定」,『近代史研究』1980-3.

舒舜元, 1997,「對百團大戰評價何以大起大落」,『炎黃春秋』1997-1.

王三欣, 1983,「關于百團大戰的幾个問題」,『黨史研究資料』1983-10.

劉家國, 1985,「百團大戰是否違背了遊擊戰爲主的戰略方針」,『思想戰線』1985-3.

宍戸寛, 1983,「百團大戰の評価問題」,『中國研究月報』423號.

李新認, 1985,「晉冀魯豫抗日根據地的建立,鞏固和發展」,『中國抗日根據地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北京:中國檔案出版社.

蔣杰, 1979,「百團大戰問題的探討」,『近代史研究』1979-1.

張宏志, 1989,「澄淸對百團大戰的三点批評」,『人文雜志』1989-3.

張洪祥, 高德福, 1980,「關于百團大戰的評價的幾点商榷」,『南開史學』1980-2.

傳式東, 1981,「關于百團大戰的一些情況」,『歷史教學』1981-2.

朱錫通, 1980,「關于百團大戰的探討」,『南京大學學報』1980-4.

蔡如渭, 1981,「對'百團大戰'評價的一点意見」,『教學與研究』1981-3.

何理, 1982,「論百團大戰的戰略指導思想及歷史作用」,『南開學報』1982-3.

何定, 1985,「百團大戰和彭德懷」,『北京師範大學學報』1985-4.

Kuisong, Yang, 2011, "Nationalist and Communist Guerilla Warfare in North China" in Mark Peattie, Edward J. Drea & Hans van de Ven eds., *The Battle for China: Essays on the Military History of the Sino-Japanese War of 1937-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기타 자료

구본단,「中 전승절 영화 '백단대전' 흥행 뺑튀기 의혹」,『헤럴드 경제』, 2015.9.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백단대전(百團大戰)의 평가와 공적 서사

– 자발성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

손장훈

백단대전은 전역을 지휘한 펑더화이가 문화대혁명에 연루되며 현대 중국의 딜레마가 되었다. 문화대혁명이 공식적으로 청산된 이후 펑더화이는 복권되었지만 중국 학계는 이 전역을 두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속적인 논쟁을 벌여왔다. 논쟁 과정에서 중국 학계는 ①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군사행동, ② 유격전 방침과 어긋나는 대규모 공세, ③ 백단대전의 결과라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그 결과를 종합해볼 때 백단대전에서 펑더화이 및 현지 부대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적 서사로 전달해야 하는 난관을 중공은 대중노선(大衆路線)의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했다. 기념관, 전람관, 교과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백단대전 과정에서의 독단은 중공중앙의 거시적 전략방침에 호응한 현지 병력의 자발성으로 해석되었다. 그리하여 백단대전의 공적 서사는 인민의 주체성을 강조한 본래의 대중노선을 왜곡시켜 적용함으로써 당의 지도를 따르는 수동적 인민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기획이 되었다.

주제어: 백단대전(百團大戰), 펑더화이(彭德懷), 자발성(自發性), 대중노선(大衆路線), 공적 서사(公的敍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Evaluation and Public Narrative of the Hundred Regiments Offensive: Focusing on Dilemmas of Voluntarism

Sohn Janghun

The Hundred Regiments Offensive became contemporary dilemma in China as its overall commander, Peng Dehuai, was implicated in the Cultural Revolution. Although Peng was politically rehabilitated after the official conclusion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campaign continued to be the subject of debate among Chinese scholars especially throughout the 1980s and 1990s. These debates revolved around three main issues: (1) the unauthorized military action conducted without the approval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2) the large-scale offensive that deviated from the principle of guerrilla warfare; and (3) the overall results of the campaign. A synthesis of these discussions confirms that Peng Dehuai and local units acted based on 'voluntarism' during the opera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ereafter CCP) sought to resolv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e challenge of shaping Hundred Regiments Offensive into a viable public narrative by utilizing the principle of the mass line. Through memorial halls, museum, school textbooks, and movie, the Hundred Regiments Offensive was reinterpreted as a voluntarism of local troops for the CCP Central Committee's broader strategic vision. As a result, the public narrative of the campaign was constructed as a political project-one that erased people's subjectivity in Mao Zedong's mass line, and instead highlighted a passive people who unconditionally follow the Party's leadership.

Keywords: Hundred Regiments Offensive, Peng Dehuai, voluntarism, mass line, Public Narrativ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12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기억정치와 학문지형

—한일 및 영미 연구동향 비교분석(2015~2025)

양지혜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I.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갈등
II. 한국: 한일갈등의 진단과 역사부정 대응
III. 일본: 강제동원·노동 비판에서 근대화 일반 비판으로
IV. 영미: 일본정부의 기억표백 비판과 풀뿌리 기억의 강조
V. 일본 근대산업유산, 오래된 미래에 대한 기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갈등

어느 사회에서나 근대 이후의 산업화가 남긴 유산은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각국에서 대규모로 개발된 공장·창고·광산·발전소·도로·운하 등의 산업시설은 분명 해당 사회만의 독특한 '산업화'의 역사를 담은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 역사의 다양성만큼 이 시설들의 보존과 재생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역시 거듭되고 있다. 이 산업시설들에 담긴 '어떤' 역사를 전승해야 하는가, 이때 그 서사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며, 관광과 개발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기억·성찰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근대 산업유산은 역사의 해석과 기억의 주도권을 둘러싼 역사갈등의 핵심적 무대가 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유산을 둘러싼 논의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좋은 참고처가 되어 왔다.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각종 산업시설을 유산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국가·지자체·주민 등 각 주체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1] 그 결과 현재까지도 한국은 물론,[2] 캐나다,[3] 프랑스,[4]

---

* 투고: 2025년 9월 15일, 심사 완료: 2025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25년 11월 11일

** 2023년과 2025년 이 글의 초고를 발표할 기회를 주신 민족문제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에 감사드린다. 또한 귀중한 심사평을 전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특별히 감사를 전한다.

1 강동진·이석환·최동식, 2003,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국토계획』 38-2.

2 박재민·성종상, 2012,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1(통권 80), 72쪽.

3 A. Hashimoto & D. J. Telfer, 2017, *Transformation of Gunkanjima (Battleship Island): From a coalmine island to a modern industrial heritage tourism site in Japan. J. Herit. Tour*, 12, pp. 107~124.

4 Kensuke Nakao and Tomonori Kawano, 2019, "History of Kitakyushu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5] 스코틀랜드,[6] 이탈리아[7] 등 세계 각국의 산업유산 관련 정책·전략 수립에서 일본은 가장 유력한 자료원이자, 산업유산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15년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 철강·조선·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큰 반향을 초래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메이지산업유산은 당초 규슈와 야마구치 등 일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었다.[8] 2000년대 지역 주민운동에서 출발한 관련 구상은 2009년 이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강제동원과 같은 부정적 역사를 유산 설명에서 누락시킨 채, '아시아 최초의 산업혁명'과 같은 긍정적 역사만 내세우며 유산의 등재 심사를 강행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 등 근대 일본의 식민과 점령을 겪은 여러 인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2015년 7월 5일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한국인과 여타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보센터 등을 설립해 피해자들을 기념하는 설명 전략"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등재를 성사시켰다. 같은 자리에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정부에 '역사 전체'를 해설하는 설명 전략을 추후 제시하도록

---

along with the great divergence in Anthropocene: An implication for possible periodization", *Bulletin du Centre Franco-Japonais d'Histoire des Sciences*(Kitakyushu-Paris), 13(1), pp. 37~49.

5 Zhengyuan Zhao and Zhigao Liu, 2021, "Development Path of Industrial Heritage Tourism: A Case Study of Kitakyushu (Japan)," *Sustainability*, 13(21).

6 J. Atterton, et al., 2022, "Japan island depopulation: lessons for Scotland", Scottish Government.

7 Roberta Varriale, Barbara Aldighieri, and Laura Genovese, 2023, "Dismissed Mines: From the Past to the Future", *Heritage*, 6(2), pp. 2152~2185.

8 이하, 등재 관련 경과는 趙雨龍, 2021,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비롯한 본문 Ⅱ장의 '등재 경과' 관련 각 연구를 참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같은 해 7월 14일 해당 발언을 번복하며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했다.

2017년, 2019년, 2022년 유네스코에 제출한 관련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일본정부는 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강제·강압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9] 2020년 3월 도쿄 신주쿠에 메이지유산을 홍보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설했지만, 이 시설에도 조선인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를 전시해 물의를 빚었다.[10]

메이지산업유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2년 이후 관련 논쟁은 더 심화되었다. 일본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에도시대에 한정하여 사도광산의 '자랑스러운 역사'만 등재하고자 했지만, 한국 언론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조선인 강제동원과 같은 '부정적 역사' 역시 유산 등재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11] 거듭된 논란을 거쳐 2024년 7월 사도광산은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등재와 동시에 한국정부는 해당 유산 인근에 일제 말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을 명시하는 전시를 설치하도록 일본정부와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관련 전시물에서 '강제성' 관련 설명은 누락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강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12]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사도광산의 등재 1주년이자,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1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도 큰 이변 없이 거듭되었다.[13]

---

9 2023년 9월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위 "日, 군함도 관련국과 대화하라"…정부 "이행 기대"」, 『연합뉴스』, 2023.9.15. 참고.

10 「일본 군함도 홍보관 '조선인 차별 없었다' 왜곡 추가」, 『한겨레』, 2023.9.21. 참고.

11 「일본 언론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할 듯"」, 『MBC뉴스』, 2022.1.28.

12 「日 '사도광산 강제성 명시' 수용 안했는데…韓, 세계유산 등재 동의 '굴욕 외교 논란'」, 『세계일보』, 2024.8.7; 「일본, 사도광산 '강제' 표기 묵살…들통난 윤 정부 굴욕외교」, 『한겨레』, 2024.8.7.

13 대표적으로 2025년 여름 발표된 한국 언론의 다음 기사들을 참고할 수 있다. 「5년간 개선 없는 日산업유산정보센터…"군함도에 강제 없어"」, 『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처럼 한국에서 산업유산 활용의 모범사례로 알려졌던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은 2015년 메이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새로운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 글은 2015년 전후부터 2025년 2월까지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발표된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국·일본·영미 학계의 학문지형을 파악해볼 것이다.[14] 이를 통해 각 학계에서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등재가 일으킨 파장을 가늠해보고, 구체적으로는 메이지산업유산 등재 이후 일본 근대산업유산을 둘러싼 각국의 평가·인식·전망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언어 학술자료를 제공하는 '구글 학술검색(scholar.google.com)'을 이용하여 한국어·일본어·영어로 구분해 '일본산업유산', '메이지산업유산', '군함도(하시마)', '사도광산(사도금산)' 등의 주요 키워드를 반영하는 정치학·외교학·인류학·역사학·유산학·문화연구 성과를 검토하였다.[15] 기존에 각 국가별·언어별 논쟁에 머물렀던 관련 논의를 교차검토함으로써 각국의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이 어떻게 경합하고 때로는 수렴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향후 일본정부의 새로운 후속 사업 기획이 점쳐지는 상황에서,[16] 지난 10년간 일본근대산업유산 사업이 국내외 학계에

2025.7.2; 「'앞마당 이웃' 일본과의 관계, 이재명 정부에 부여된 과제들」, 『시사인』, 2025.8.18.

14 이 글은 작성 언어별로 한국어는 한국 학계, 일본어는 일본 학계, 영어는 영미 학계를 우선 독자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각 언어별 학문 지형도를 탐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작성 언어의 '출발점'이 아닌 '도착점'을 주목했다. 즉, 발표된 글의 '도착 언어'를 기준으로 해당 언어의 '독자공동체'를 상정하며 각 언어별로 학계를 구분했다. 점차 초국화되어가는 학계의 흐름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언어별 학계 구분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향후 보완할 과제로 남겨둔다.

15 검색어와의 관련도를 중심으로 검토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각 언어와 연구 수록 매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구글스콜라) 내 노출빈도의 편중과 편향이 반영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별 연구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구글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나, 향후 보다 높은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다국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된다면 이를 다각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16 2006~2007년 일본정부는 각 지자체의 근대산업유산 중 세계유산 등재를 원하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으킨 논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후의 관련 대응과 연구를 위한 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한국: 한일갈등의 진단과 역사부정 대응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노동의 피해국으로, 한국정부와 언론·시민단체는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신청 당시부터 해당 유산시설 내 조선인 등의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명시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특징 속에 전개되었다. 첫째, 등재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 서사의 문제점 비판, 둘째, 역사부정론에 대한 체계적 반박, 셋째, 다층적 기억을 강조하는 대안 서사의 모색이다.

1. 등재 경과와 서사 분석

먼저 등재 과정 관련 분석의 특징을 살펴본다. 유산학 연구에서는 2015년 강동진이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심사 이전에 이미 해당 유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를 발표했다.[17] 그는 강제동원 및 전쟁 관련 유산이 신청서 내용에서 누락된 점, 메이지시기 핵심산업이었던 방직·방적업 관련 유적이 누락된 점, 시설의 관련 역사 전체가 아닌 '메이지기'로 시기를 국한한 점, 유적지 경관 일대(완충구역)가 아닌 화석화된 시설 일부만 등재 신청했다는 점 등을 세계유산으로서

지역을 조사하여, 이 중 군함도를 비롯한 규슈·야마구치 지역의 유산군과 현재 심사 중인 사도광산 등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선정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당시 선정에서 탈락된 26개의 지자체 중 61%가 여전히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雪村まゆみ, 2023, 「世界遺産を目指す活動が地域の文化資産の保存と活用に及ぼす影響」, 『関西大学社会学部紀要』 55-1),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17 강동진, 2015,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과 논점 분석」, 『국토계획』 5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등재 자격에 미달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등재 이후에는 메이지유산의 등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둘러싼 관련 국제 갈등의 경과를 소개하는 연구가 유산학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18] 특히 2024년 사도광산의 등재 이후에는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이후부터 일본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제도의 두 가지 특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주목을 요한다.[19] 강동진과 김성용은 첫째, 일본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과정 자체가 '국가 간 거래' 내지는 '타협'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세계유산제도는 당초 진실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공의로운 등재 과정을 표방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정치적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비평한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가 메이지산업유산에 이어 사도광산 등재에서도 '연속유산 등재'라는 유산의 집합적 등재 절차의 현실적 허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즉, 강제동원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유산은 '등재 신청 목록'에서 삭제해 논란을 피했지만, 현장에 관광했을 때는 관련 유산이 가장 가시화되기 때문에 경관상의 이점은 취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정치학 연구자들은 세계유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을 정치외교적 맥락에서 접근한 심층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먼저 거시 정치적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를 살펴본다. 이상현은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경과를 분석하며,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통한 일본정부의 공공연한 역사 왜곡 전시가 문재인 정부

18 김소담, 2017, 「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국제정치」,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趙雨龍, 2021,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나연, 2021, 「세계유산 해석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외에 역사학자 황선익이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부터 관련 이행경과보고서 제출, 사도광산 등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였기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황선익, 2016,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동북아 역사갈등」, 『일본공간』 19; 황선익, 2021, 「일본'메이지산업혁명유산'의 등재 후 쟁점과 전망: 유산보존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30; 황선익, 2024,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상 쟁점과 과제」, 『한일관계사연구』 83.

19 강동진 · 김성용, 2025,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나타난 논점 고찰: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과 사도광산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위안부합의 무효화와 2018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이었다고 분석했다.[20] 즉, 한국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이후 일본 정계와 사회에 퍼진 '혐한론'을 반영하는 조치라는 분석이었다.

박희경은 일본 내의 맥락을 주목하며,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가 중앙정계에 만연한 역사수정주의 기조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장기 불황의 타개를 목표로 추진된 사회정책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했다.[21] 한국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관련 서술의 부족함을 지적하지만, 일본은 자국 내 우수 문화재의 수월성을 유산 해석의 중심으로 두었다는 분석이었다.

한편, 보다 미시적으로 이 과정을 일본정부의 '기억정치'로 해석하는 연구도 이어졌다. 이영진은 메이지산업유산의 서사가 서구중심적 근대화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같은 산업화의 핵심적 요소에 대한 시각을 결여하고, 아시아침략주의나 식민주의 같은 부정적 요소를 배제했음을 지적했다.[22] 그는 각 유산 소재 지역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자발적 역사운동, 즉 조선인 등에 대한 강제동원 위령탑·위령비·묘지 등의 시설이나, 광산촌·공장촌 등의 거주 공간의 흔적을 배제하며 자산가나 정치가 등 특별한 엘리트의 '영웅주의'를 강조하고 아래로부터와 축적된 자발적인 기억 문화의 자취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억을 '소비상품'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접근을 넘어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산업유산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한 역시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산업유산 관련 정책의 변화상을 추적하여 일본정부가 산업유산을 '내셔널리즘'의 수단으로 고착시키는 방향을 택해왔음을 지적

20 이상현, 2022,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둘러싼 한일갈등: 1965년 체제가 초래한 한일 유산외교」, 『한림일본학』 40.

21 박희경, 2022,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지역 창생과 한일관계-OUV 해석 차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94.

22 이영진, 2020,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에 관한 일고찰」, 『아세아연구』 6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했다.[23] 그 역시 일본정부의 개입 속에 일본 근대산업유산이 가진 진정한 역사적 성찰과 화해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차단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윤지환·김숙진, 김민철은 일본정부가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시설에 담긴 기억의 다층성과 경합성을 외면하고, 유산을 둘러싼 긍정적 기억만 선택적으로 해설에 반영했음을 지적했다.[24] 이들은 호주의 울루루 카타 추타 국립공원이 1987년 탁월한 자연미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1994년 해당 시설과 원주민의 전통신앙과의 관련을 고려해 확장 등재된 사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역사물에서 '역사적 정의'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층적 기억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2. 역사부정의 논박

조선인 강제동원을 둘러싼 역사부정 문제는 관련 논란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왔다. 한일 양국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둘러싼 역사부정 논란은 거듭되어왔다. 관련 논쟁이 심화된 시작점은 1991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공개 증언 이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시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의 서술에서 전시하 일본의 침략과 가해 사실에 대한 분량을 늘렸다. 이에 대응해 강제동원은 '날조'라고 주장하며,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일본 국내에서 집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5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23 박진한, 2024,「일본의 산업유산 담론 변화와 국가 공인화 과정에 관한 연구: '산업기념물'에서 '근대화유산' 그리고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도시연구』35.

24 윤지환·김숙진, 2020,「기억의 선택적 재현과 다층적 기억 해석을 둘러싼 갈등-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중심으로」,『문화역사지리』32-2; 김민철, 2024,「동아시아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일본 산업유산과 강제동원 문제」,『역사비평』1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 내 강제동원 부정주의자들과 연합하여 그 세력을 강화해오고 있다.[25]

한일 양국의 역사부정주의자들은 부분적 사실로 본질을 부정하면서 애매하게 만들고, 선별적 자료 인용을 통해 전체 상황을 왜곡하거나, 특정 자료만 부각시켜 상반된 증거를 배제하는 선택적 논증 방식을 취하거나, 모든 전쟁은 괴롭다, 모든 노동은 위험하다는 방식으로 전시하의 강제동원, 노동의 역사성과 범죄성을 희석하는 전략을 취해왔다.[26]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이후 이들은 그 초국적 연대를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일례로 2022년 일본정부가 사도광산의 등재를 추진하자, 같은 해 3월 23일, 7월 9일, 7월 10일 등 수차례에 걸쳐 전시하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한일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2023년 5월 23일에는 한일 공동으로 '사도광산은 강제노동 현장이 아니었다'라는 공동성명문을 유네스코에 제출하기도 했다.[27] 이들의 논의는 『산케이신문』 등 일본의 극우 미디어와 일본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이끌고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 센터장 가토 고코(加藤康子) 등의 유력 인사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빚어왔다.[28]

이에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일본 근대산업유산을 둘러싼 역사부정에 대응하

---

25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반론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책에 자세하다. 정혜경 외, 2019, 『반대를 론하다』, 선인;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기획, 김정인 외, 2020,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푸른역사.

26 역사부정주의자의 강제동원부정론에 대한 논박 및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역사부정주의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했다. 김민철, 2020, 「강제동원 강제노동부정론 비판」, 『역사문제연구』 44; 강성현, 2020,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반일종족주의' 현상 비판』, 푸른역사, 73~75쪽.

27 일본역사인식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harc.tokyo/)

28 가토 고코의 역사수정주의(역사부정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Nikolai Johnsen, 2021.12.1, "Katō Kōko'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 Forgetting forced labor to celebrate Japan's World Heritage Sites – Part 1",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9-23을 참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연구가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29]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메이지산업유산과 사도광산 시설에서의 강제동원 실태를 규명한 공동 연구성과를 다국어(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로 발표하였으며,[30]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등이 오랜 기간 추적해온 피해자 증언도 새롭게 소개되었다.[31] 이와 함께 기존 연구와 관련 문헌, 증언자료를 요약한 자료집·대중서 형태의 책자도 다수 발간되었다.[32]

---

29 관련해서 영화 〈군함도〉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일본 근대산업유산 관련 문학·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으나, 원고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국문·영문·일문 연구 모두 문화콘텐츠 관련 소개는 생략했다.

3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2,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윤지현, 2013, 『파도가 지키는 감옥섬』, 선인;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2017,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생각정원;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2017,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2022,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노동(한일시민공동조사보고서)』, 민족문제연구소.

31 피해 증언집으로는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저, 박수경·전은옥 역, 2017, 『군함도에 귀를 기울이면』, 선인; 이혜민, 2018, 『기록되지 않은 기억, 군함도』, 선인 참고.

32 정혜경, 2019,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혜경·허광무, 2021,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 선인; 정혜경, 2022,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로 본 미쓰비시(三菱)광업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43; 정혜경, 2023, 「『사도광산사 고본(佐渡鑛山史 稿本)』(1950, 미출간)」, 『한일민족문제연구』 44; 정혜경, 2023, 『팩트로 보는 일제 말기 강제동원(2)』, 선인.
이들 성과는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지속해온 히로세 데이조(広瀬貞三)·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 등 일본 내 관련 연구·활동가와의 교류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미하다. 이들의 관련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広瀬貞三, 2000,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 3; 広瀬貞三, 2022, 「資料紹介: 朝鮮人労働者と佐渡鉱山, 三菱鉱業の史料 (1)」, 『福岡大学人文論叢』 54-1; 竹内康人, 2022,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 岩波書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복수(複數)의 기억: 대안·대항서사의 가능성

한편, 일본정부가 만든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국가중심적 서사를 넘어 그 대안·대항서사를 고민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3년 박수경·조관연은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하 오카마사하루기념관)과 군함도자료관의 전시를 비교하여, 평화자료관이 무명의 존재로서 일본인 전쟁피해자와 조선인 전쟁피해자의 연대를 추구한 반면 군함도자료관은 우경화된 역사 서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33]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기억의 공존을 통해 인류 공통의 서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관련 연구는 메이지산업유산이 국가 중심의 서사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는 일본 연구자 기무라 시세이의 연구가 논문으로 번역·소개되었다.[34] 2000년대부터 군함도의 산업유산화를 연구한 그는 이 논문에서 다카시마석탄자료관·오카마사하루기념관·군함도자료관·군함도디지털뮤지엄의 전시를 비교하고, 군함도를 둘러싼 서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즉, 일본정부가 만든 메이지산업유산의 공식서사의 한편에서, 각 전시관의 기획자, 나아가 그 전달자인 해설자(가이드)와 수용자인 관람객 각각이 유산을 둘러싼 나름의 서사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이를 '복수(複數)'의 진정성이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식민지에 의한 근대화라는 동아시아적 기억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기억을 교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2017년에는 한정선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모임'의 활동과 서사를 오카마사하루기념관과 비교했고,[35] 2022년에는 이영진과 안민화가 메

33 박수경·조관연, 2013, 「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 『일본어문학』 61.

34 키무라 시세이 저, 송숙정 역, 2016, 「'진정성' 구축과 복수성: 동아시아 군함도(軍艦島) 사례에서」, 『아시아리뷰』 6-1.

35 한정선, 2017, 「군함도, 산업유산과 지옥관광 사이에서」, 『역사비평』 1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지산업유산 중 하나인 미이케탄광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쿠호탄광을 분석하며, 이들 두 지역에서 1980년대 이후 추진되어온 다양한 기억실천을 조명했다.[36] 이 시민운동들은 전후의 노동운동이나 공해,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패전 이전의 조선인·중국인 등의 강제동원·노동과 같은 산업화 과정의 역사를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는 반전·평화정신 속에서 접근해왔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폐쇄적인 서사를 넘어 풀뿌리의 대안·대항서사의 역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2023년 박진한은 메이지산업유산에 포함된 기타큐슈의 야하타제철소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지역주민이 주도해온 다층적인 기억의 전승을 분석했다.[37] 그는 메이지유산의 국가 중심적 서사 등으로 인해 해당 유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낮은 상태이지만, 2015년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1950년대 초 야하타'를 다룬 소설이 발간되면서 지역 내에 제철소를 둘러싼 추억을 말하는 장이 만들어졌음을 소개했다. 이러한 장에서는 일본정부가 만든 국가주의적 서사가 아닌, '기업마쓰리'와 같은 문화적 요소가 더 빈번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국가주의적 서사를 확장시키려고 할수록 박제된 설명에 대한 주민의 외면은 커질 것이고, 그에 포섭되지 않는 다층적인 기억이 계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36 이영진, 2022, 「빛의 역사와 어둠의 기억: 세계문화유산 미이케 탄광의 '부의 유산'을 둘러싸고」, 『아시아리뷰』 12-2; 안민화, 2022, 「강제징용에 대한 한일의 기억의 교환 (불)가능성: 영화, 〈군함도〉, 〈기록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의 저항抗い記録作家 林えいだい〉의 '텍스트의 도박'과 '대항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4.

37 박진한, 2023, 「일본 야하타(八幡)제철소의 세계유산 등재와 산업유산 연구의 의의」, 『역사비평』 14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일본: 강제동원·노동 비판에서 근대화 일반 비판으로

이처럼 한국 학계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의 세계유산 정치에 대한 비평과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역사부정 문제를 논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일본 학계의 연구 경향은 한국 학계와 대조적 특징을 보였다. '서사'의 진실성·진위성 문제보다는 관련 등재 운동이나 관광사업의 '주체'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으며, 강제동원 문제보다는 근대화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을 강조했다.[38]

1. 국가 vs. 주민의 이분법: 서사에서 주체로

먼저 일본 학계에서 특히 주목한 근대유산 사업의 '주체' 문제를 살펴본다. 2017년 와세다대의 린 테이웬(林廷玟)·고토 하루히코(後藤春彦)·야마무라 다카시(山村崇)는 일본경제산업성이 선정한 '근대화산업유산군'을 주목하고, 기존에 지자체가 발행한 관광지도에 표기된 유적과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유산의 차이를 비교했다.[39] 이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행한 지도에는 강제동원·노동 위령비나 순직노동자 위령탑, 연합군 포로용소 터 등을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시설은 경제산업성의 지정 유산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경제산업성의 근대화산업유산군은 문화청의 근대화유산과 함께,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의 등재를 추진하기에 앞서 각 지역의 산업유산을 전수조사하는 일종의 '일본 국내 예비전(豫備戰)'의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 이 연구들은 일본정부가 이미 근대화산업유산군의 지정 단계부터 유산 지정과 해설에서 '어두운 역사'를 둘러싼 갈등 요소를 원천적

38 일본 학계의 연구 중 역사부정론에 대항한 관련 연구는 이 글의 주석 28에 소개한 한일 공동 연구성과로 갈음한다.

39 林廷玟·後藤春彦·山村崇, 2017, 「近代化産業遺産の集合的保存における「認定外遺産要素」の位置付けと価値: 足尾銅山関連遺産を代表事例として」, 『都市計画論文集』 5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차단했음을 지적했다.

2018년 오차노미즈여대의 고미부치 노리쓰구(五味渕典嗣) 역시 일본 문화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아시오광산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와 지자체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40] 그는 이 지역에서도 아시오광산의 공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성공사'만 유일한 서사로 제시되고 있으며, 과거 1980년대부터 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조선인·중국인 강제동원·노동에 대한 조사나, 관련 위령·추모비 건설 등의 역사는 모두 누락되었음을 비판했다.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내셔널리즘을 앞세워 부정적 기억은 철저히 배제한 '살균표백한 기억'만 강조하며, 나아가 관광이라는 일시적인 소비를 통해 슬픔이나 연민마저 짧게 해소하고 지나치는 '기억의 자본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다만, 주목할 점은 많은 일문연구가 근대산업유산 등재 문제에서 일본정부의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면서도, 그 기본적 논의 구조를 '국가 대 주민'으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2013년 일본 문화청의 '근대화유산' 지정을 분석한 야마모토 리카(山本理佳)는 산업지대인 기타큐슈와 군사지대인 사세보가 각각 유산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문화적 통치전략이 기존의 지역적 움직임과 길항관계를 이루었다는 점을 비판했다.[41] 코난여대의 기무라 시세이(木村至聖) 역시 2014년 군함도의 산업유산화 과정을 분석하며, 지역과 국가의 길항 속에서 군함도를 둘러싼 다양한 기억과 실천의 스케일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42] 즉, 일본정부 차원의 세계유산 등재와는 별개로, 군함도를 '고향'으로 바라보며 2000년대 초부터 자생적인 운동을 이어온 지역 차원의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17년 미이케탄광에서의 산업유산화 과정을 연구한 나가요시

40 五味渕典嗣, 2018, 「対抗的記憶とナショナリズム」, 『人間生活文化研究』 28, 2018, 541~548쪽.

41 山本理佳, 2013, 『「近代化遺産」にみる国家と地域の関係性』, 古今書院.

42 木村至聖, 2014, 『産業遺産の記憶と表象:「軍艦島」をめぐるポリティクス』, 京都大学学術出版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모루(永吉守) 또한 1999년 이래 지역 NPO 차원의 자발적 시민운동에서 출발한 산업유산운동이 2009년 일본정부 차원의 세계유산 등재 운동으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했다.[43] 즉,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이 정부 주도의 정치적 운동으로 바뀌면서 지역민은 소외되고, '메이지일본'을 향한 통합성만 강조되었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 대 주민으로 관련 주체를 한정하고, '유산의 서사' 자체가 아닌, 국가에 의한 주민의 배제 또는 국가 주도 권력구조 속에서 중층적으로 유산에 개입하고 국가와 길항하는 주민이라는 '유산을 둘러싼 주체의 주도권' 문제로 논점을 이동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 내부 정치에서는 유의미한 문제 제기이지만, 관련 국제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쟁의 폭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 근대화 일반을 비판하는 대안·대항 서사

서사보다는 주체를 강조하는 구도 위에서 일본 학계 역시 현재의 서사를 대신할 대안·대항 서사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한국 학계의 연구에서도 자주 소개된 패전 이후 이어져온 풀뿌리 민중사운동에 대한 논의이다. 2018년 규슈대의 마쓰우라 유스케는 미이케탄광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폭발사고 위령, 포로 및 조선인·중국인 강제노동 위령, 오무타시의 '목소리의 박물관사업' 등을 소개했다.[44] 2020년 가와마쓰 아카리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쿠호탄광 일대의 기억수집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했다.[45] 1906년부터 1955년까지 탄광일을

43 永吉守, 2017, 「「ユネスコ世界遺産」をめぐり政治化される「文化」: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登録過程の経験より」, 『日本文化人類学会研究大会発表要旨集』, 日本文化人類学会第51回研究大会.

44 松浦雄介, 2018, 「負の遺産を記憶することの(不)可能性—三池炭鉱をめぐる集合的な表象と実践—」, 『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 17, 149~163쪽.

45 川松あかり, 2020, 「ナラティヴ研究と「日常的な民俗誌実践」: 日本の旧産炭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거쳐 1957년 폐광의 야광경비로 일하며 탄광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무학(無學)의 기록가 야마모토 사쿠베를 비롯해, 여성 광부의 이야기를 채록한 모리사키 가즈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기록한 하야시 에이다이, 그리고 이들의 영향 속에서 강제동원·노동에 대해 오랫동안 역사를 채록해온 학교 교사와 향토 사학자까지 이들이 수집한 기록은 국가가 만든 폐쇄적인 서사와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기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들의 연구는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마쓰우라는 현재의 논의 구도가 긍정적 유산만 전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채록된 이러한 기억이 다음 세대로 전승될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표했다. 가와마쓰는 TV다큐멘터리 또는 드라마와 같은 과거의 기억 실천을 영상매체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이 산업유산을 둘러싼 새로운 방식의 기억 채록과 전승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이 연구들은 과거 민중사운동 속에서 추진된 기억실천과 현재의 기억실천 사이에 분명 일정한 '단절'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가 이러한 '과거'의 기억실천에서 대안적 서사 구축의 가능성을 찾는다면, 일본 학계에서는 '현재'의 기억실천에서 어떻게 대안적 서사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여러 연구에서 대안·대항서사의 주제 역시 '근대화 일반'으로 설정하는 점 역시 주목을 요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학계에서는 강제동원 문제를 대안·대항서사의 일차적 과제로 설정했다. 반면 일본 학계의 연구에서는 산업지대로서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징 또는 산업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간사이대의 고가 히로시는 강제동원·노동 문제를 강조하면 오히려 정치적 논쟁으로 논의가 끝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46] 그는 대안·대항서사를 '산업화란 무엇이었나'와 같은 근

筑豊における遺産と記憶」, 『日常と文化』 8, 19~33쪽(이영진의 국문 번역본을 다음의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다. jstage.jst.go.jp)

46 古賀広志, 2022, 「ダークツーリズムからみた軍艦島の意義」, 『エキシビションとツーリズムの転回』, 293~33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 산업화에 대한 논의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난여대의 기무라 시세이 또한 대안·대항서사가 강제동원 문제가 아닌, 구(舊) 탄광지대가 가진 '내부식민지'적 맥락 자체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7] 그는 메이지 이후의 중앙집권적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일본의 탄광촌이 '중앙'의 필요에 따라 부흥하고 쇠퇴하는 '내부식민지'였다고 정의했다. 결국 유산에 대한 새로운 해설은 이들 지역의 역사적 문제, 즉 중앙을 위한 지방의 희생을 지적하는 것이 더 포괄적 과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일본 학계의 경향성은 관련 논쟁이 국제적으로 비화되는 과정의 비생산성을 지적하고, 일본 국내에서 보다 생산적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관련 국제 갈등이 거듭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학문 교류와 연대를 통해 관련 논의를 보다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Ⅳ. 영미: 일본정부의 기억표백 비판과 풀뿌리 기억의 강조

영미 학계의 접근은 한일 양국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영미권 연구에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를 넘어선 보편적 가치 문제에 대해 강하게 강조했고, 나아가 일본정부의 정책을 국제사회적 맥락에서 평가하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2019년 미국 하버드대의 앤드류 고든이 밝힌 소회는 상징적이다. 그는 일본정부의 메이지산업유산과 다크투어리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소회를 밝혔다. 첫째, 일본정부가 메이지기의 산업화에 대해 부정적 측면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실망, 둘째, 이 문제가 그 중요성에 비해 영미 언론과 학계에서 거듭 무시되어왔다는 점에 대한 놀라움이었다.[48] 이후 영문으로 집필된 관련

47 木村至聖, 2017,「地域の歴史の"闇"をまなざすのは誰か」,『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111, 37~59쪽.

48 Andrew Gordon, 2019.3.5, "Introduction: Dark Tourism and the History of Imperial and Contemporary Japan", *Asia-Pacific Journal: Japa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 왕성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국제갈등과 대항서사 문제를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1. 일본정부의 기억표백과 국제 갈등

일본정부가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기억(역사)을 '살균·표백'하는 수준으로 통제하였다는 지적,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국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은 2015년 이후 매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관련 동향을 연구의 발표 연도 및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2015년 미국의 독립연구자인 윌리엄 언더우드는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결정에 앞서 일본정부가 그 유산을 틀에 갇힌 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식민주의와 전쟁의 역사를 외면한 채 경제적 성공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49] 한편, 같은 해에는 독일의 신문기자인 마르크 지몬스의 기사를 번역 수록해, 독일정부가 나치독일하에 수감되었던 소련 병사 일부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일본정부의 대응이 대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50] 아베 정권 이후 일본정부가 역사수정주의를 반영해 보수화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해 남겨진 역사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같은 해 일본 나가사키대의 다카자네 야스노리 역시,[51] 영문 연구를 발표해

Focus, 17-6.

49 William Underwood, 2015.6.29, "History in a Box: UNESCO and the Framing of Japan's Meiji Era",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3-26.

50 William Underwood and Mark Siemons, 2015.6.29, "Island of Horror: Gunkanjima and Japan's Quest for UNESCO World Heritage Statu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3-26,

51 Takazane Yasunori, 2015.7.13, "Should 'Gunkanjima' Be a World Herit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처를 망각한 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우슈비츠처럼 유산의 서사에는 부정적 역사를 반영해야 하며, 특히 각 이해당사국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유네스코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템플대 도쿄캠퍼스의 제프 킹스턴은 이 문제를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의 국제 로비정치와 공공외교와 관련시켜 분석했다.[52] 그는 일본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한 외교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동시에 역사수정주의를 강화하며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는 역사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국제적 평판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일본의 공공외교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2017년에는 대만 국립원린과학기술대의 양개청이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정기학술회의에서 메이지산업유산 관련 중국·한국·일본 내 언론보도 분석 결과를 영문으로 발표했다.[53] 그는 메이지산업유산이 남성중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근대화 서사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에는 일본정부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주변국의 비판에 협업하고, 유산 해설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2018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괴테대학의 이오안 트리푸와 독일 보흠루르대학의 레기네 마티아스가 관련 논의를 분석했다. 이오안 트리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을 주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점차 '국민

---

site? The Forgotten Scars of Korean Forced Labor,"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3-28,

52 Jeff Kingston, 2016.5.1, "The Japan Lobby and Public Diplomacy",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4-9.

53 Kae-Cherng Yang, 2017, "Heritage in the Middle of Political Conflict: A Discourse Analysis of Mixed Reactions in Response to the Nomination of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n: *ICOMOS 19th General Assembly and Scientific Symposium "Heritage and Democracy"*, 13~14th December, New Delhi, Indi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가 내의 통합'과 '각국의 경제적 이익(관광수익)'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54] 그는 일본정부가 보다 포용적인 서사를 마련해야 하며,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유산 해설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기네 마티아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규슈 북부 3개의 탄광지역, 지쿠호·미이케·군함도의 유산 등재 과정을 주목했다.[55] 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역 내에서 산업유산을 둘러싼 지역정체성 형성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었지만, 일본정부가 국가중심적인 서사를 지속하는 한 지역정체성의 마련이나 지역활성화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19~2021년에는 일본 가나자와대의 나카노 료코, 호주 호주국립대의 주위제, 한국 서울대의 이현경, 대만 국립대만대의 슈메이 황 등이 불편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동아시아 내 갈등을 다룬 여러 영문 성과를 발표했다.[56] 이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정부의 식민지 감옥 세계유산 공동 등재 프로젝트의 추진과 좌절, 중국정부의 난징대학살기록의 기록유산 등재와 일

54 I. Trifu, 2018, "Dealing with a Difficult Past: Japan, South Korea and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Rodenberg, J., Wagenaar, P. (eds) Cultural Contestation, Palgrave Macmillan.

55 Regine Mathias, 2018, "Regional identity in the making? Industrial heritage and regional identity in the coal region of Northern Kyūshū in Japan", *Industrial Heritage,* Routledge, pp. 136~167.

56 Shu-Mei Huang & Hyun-Kyung Lee, 2019, "Difficult heritage diplomacy? Re-articulating places of pain and shame as world heritage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5:2, pp. 143~159; Hyun Kyung Lee, 2019, *'Difficult Heritage' in Nation Building*,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Ryoko Nakano & Yujie Zhu, 2020, "Heritage as soft power: Japan and China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6:7, pp. 869~881; Ryoko Nakano, 2021, "Mobilizing Meiji nostalgia and intentional forgetting in Japan's world heritage pro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18:1, pp. 27~4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정부의 메이지산업유산 등재 과정에서 벌어진 국제 갈등을 주목했다.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불편유산이 초국적 '협력'의 장으로 활용되는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간 장벽을 높이고 각국이 서로 다른 '희생자서사'를 강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2022년에는 일본 소피아대의 스벤 잘러과 호주 디킨대학의 로건(W. Logan), 한국 전통문화대의 김영재가 일본정부의 유산외교를 분석했다.[57] 이들은 동아시아가 세계유산 갈등의 축소판이 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연성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위압'이 아닌 '반성'적 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 동아시아 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산업유산 문제를 주목한 데 반해, 2021~2022년 영국 소아스(SOAS)의 니콜라이 욘센과 일본 규슈대의 에드워드 보일이 조선인 강제동원·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산업유산을 다룬 점은 특기할 만하다.[58] 먼저, 니콜라이 욘센은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과정에서

57 Sven Saaler, 2022, "Japan's soft power and the "History Problem", *Remembrance-Responsibility-Reconciliation: Challenges for Education in Germany and Japan*.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 45~66; W. Logan, 2022, "Heritage interpretatio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global issues in microcosm",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2:1, pp. 5~18; Young Jae Kim, 2022, "Pursuing sustainable conservation of Hashima/Gunkanjima Island as an authentic heritage sit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8. pp. 11~12.

58 Nikolai Johnsen, 2021.12.1, "Katō Kōko'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 Forgetting forced labor to celebrate Japan's World Heritage Sites – Part 1",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pp. 19~23; 2021.12.15, "Katō Kōko's Meiji Industrial Revolution-Forgetting forced labor to celebrate Japan's World Heritage Sites-Part 2",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9-24; 2022.3, "The Sado Gold Mine and Japan's 'History War' Versus the Memory of Korean Forced Laborer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5; Edward Boyle, 2022, "Shifting borders of memory: Japan's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re",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2:1, pp.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토 고코를 비롯한 일본정부 내외의 등재 추진 리더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수정주의를 전면화시켰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자세가 사도광산의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거듭되며, 문화유산 국제정치에서 일본은 '불량국가'가 되었으며, 강제동원·노동에 대한 명시 없이 사도광산의 등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에드워드 보일은 일본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가 메이지산업유산 그 자체에 대한 해설이 아닌, 한국에서 제기된 '강제동원·노동 주장'에 대한 '대항서사'로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즉, 일본정부가 한국의 강제동원역사관의 전시나 여러 매체에 등장한 군함도 관련 한국인의 증언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정작 원래의 센터 건립 목적이었던 메이지산업유산에 대한 '기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2. 대안서사와 실천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일본정부가 제안한 메이지산업유산 서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비추어 현재 서사를 재구축하기 위한 대안서사와 실천을 소개하는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2017년 미국 미네소타대의 히로미 미즈노는 오키나와의 작은 섬인 '라사섬'을 메이지기 산업화에 대한 '대안서사'를 들려주는 예로 제시했다.[59] 그는 근대화의 부정적 측면은 '부산물'이 아닌 '필수재'였다며, 성공의 역사, 기술자와 사업가 등의 엘리트에 대한 상찬을 넘어 근대화의 부정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라사섬은 메이지기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인산염 채굴지로, 일본의 산업화가 식민지 팽창과 전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

19~31.

59 Hiromi Mizuno, 2017.1.1, "Rasa Island: What Industrialization To Remember and Forget",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 또한 비료와 화약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화학산업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철강이나 조선산업만 강조하는 근시안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패전 이후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전개된 풀뿌리 기억실천 운동을 주목하는 연구도 이어졌다. 일본 도쿄대의 미야모토 다카시, 한국 고려대의 한정선, 독일 보흠루르대의 레기네 마티아스, 미국 하버드대의 헤수스 솔리스, 일본 규슈대의 마쓰우라 유스케 등이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60] 이 연구들은 1950년대 일본의 대학과 각 지역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 일본의 주요 산업지대에서 전개된 '민중사운동'에 주목했다. 이 운동은 1950년대 일본 대학가에 만연했던 사회주의적 비전, 1968년 유럽의 68혁명과 그에 따른 자기역사쓰기 운동의 흐름, 1990년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에서 촉발된 강제동원·노동사에 대한 조명 등 일련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다.[61] 이 과정에서 대학생, 노동자, 주부, 교사, 학생,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산업화의 빛과 어둠, 즉 전쟁, 산업재해, 공해, 강제동원·노동 등의 역사에 대해 연구했고, 그에 따라 지역 단위의 많은 구술·문

60 Miyamoto Takashi, 2017.1.1, "Convict Labor and Its Commemoration: the Mitsui Miike Coal Mine Experience",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5-1; Jung-Sun Han, 2017.1.1, "The Heritage of Resentment and Shame in Postwar Japan",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5-1; Regine Mathias, 2018, "Regional identity in the making? Industrial heritage and regional identity in the coal region of Northern Kyūshū in Japan", *Industrial Heritage*, Routledge, pp. 136~167; Jesús Solís, 2019.3.15, "From "Convict" to "Victim": Commemorating Laborers on Hokkaido's Central Road",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7-6; YUSUKE MATSUURA, 2019, "World heritage and the local politics of memory: the Miike coal mine and fu no isan", *Japan Forum*, 31-3, pp. 313~335.

61 이 운동에 대해서는 광산촌운동, 서클촌운동, 풀뿌리 기억운동, 일상적 민속지실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일본 역사학계의 정의에 따라 '민중사운동'으로 통칭했다. 최근의 관련 연구로 양지혜, 2022, 「공해병과 '식민지'라는 질문: 미나마타병사건 이후의 역사쓰기와 '식민지 조선'」, 『도시연구』 31을 참고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헌 자료와 추모비·묘 등의 기념 시설이 남을 수 있었다. 이 연구들은 메이지산업유산에 등재된 미이케탄광의 수인노동 및 강제동원·노동, 산업재해, 노동운동에 대한 구술채록을 비롯해 홋카이도 중앙로의 수인노동에 대한 추모사업의 역사, 나가노의 마쓰시로 지역의 대본영 지하벙커 건설공사장 및 오사카의 다카쓰기 다치소 전적 등의 여러 시설에서 원한과 수치의 역사에 대한 유산 만들기가 이어져오고 있는 모습을 다루었다. 이에 대해 헤수스 솔리스는 일본정부가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인하고, 일본 기업이 관련 책임을 피하고 있지만, 일본의 지역주민들은 이미 자신들의 대항역사를 통해 일본정부의 '유죄'를 고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기억을 선택적으로 서술하는 한, 그 서사는 계속해서 도전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쓰우라 유스케는 세계유산 등재가 기존에 지역민들이 만들어온 노동운동 등에 대한 지역적 기억을 배제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는 다른 일부 지역민의 경우 '그렇게라도' 산업재해의 역사와 같은 부정적 기억이 향후 전승될 가능성을 얻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정선 역시 2000년대 이후 세대 재생산의 실패, 일본사회 전반의 진보적 흐름 약화, 재일한국인 조직의 붕괴 등으로 인해 기존의 풀뿌리 역사운동이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호주 멜버른대의 데이비드 팔머는 연합군 포로의 경험과 증언을 재구성하며 관련 서사의 확장을 제안했다.[62] 그는 이미 2018년 군함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을 '전 인류'의 유산이 아닌 '일본정부'의 내셔널리즘을 위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63] 2023년에는 메이지산업

62 David Palmer, 2021.7.1, "Japan's World Heritage Miike Coal Mine – Where prisoners-of-war worked "like slave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9-13.

63 David Palmer, 2018.1.1, "Gunkanjima: Battleship Island, Nagasaki – World Heritage, Historical Site or Urban Ruins Tourist Attraction?",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6-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산이 조선인 강제동원·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며 한국인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64] 2021년에는 호주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연합군 포로의 개인기록(일기, 비망록, 사진 등 소장)들을 바탕으로 메이지산업유산의 여러 시설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포로의 경험을 재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현장에서는 구타와 괴롭힘, 극단적인 식량부족과 그에 따른 영양실조가 만연했으며, 산업재해의 일상적 위험, 장시간 근로와 같은 총체적인 전쟁범죄가 발생했다. 그는 이를 '노예노동'으로 정의하고 전후(戰後)에도 그에 따른 PTSD를 호소한 기록을 제시하며,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이지산업유산의 역사 서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역사수정주의와 기념물정치, '지속 가능성 vs. 환금 가능성'

이 외에 일본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발표된 여러 연구 중 특기할 만한 두 가지 주제가 남아 있다. 그 하나는 역사수정주의에 의한 군마 기념비 반대운동을 분석한 일본 소피아대 스벤 잘러의 연구이다.[65] 2001년 군마현은 현립공원 내에 '조선인 강제징용희생자추도비'의 건립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우익 정치인과 인터넷언론, 역사수정주의를 지지하는 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연합하면서 동상철거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군마현은 추도비의 신속한 철거를 결정했고, 2022년에는 '추도비를 지키는 시민모임'이 낸 제소가 일본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는 이러한 일련의 현상이 일본 중앙정계가 주도한 메이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서 확립된

64 David Palmer, 2023, "Ignoring the History of Foreign Forced Labour at Japan's 'Sites of the Meiji Industrial Revolution'", *Routledge Handbook of Trauma in East Asia*, Routledge, pp. 143~157.

65 Sven Saaler, 2022.9, "Demolition Men: The Unmaking of a Memorial Commemorating Wartime Forced Laborers in Gunma(Japan)",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1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사수정주의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과거 풀뿌리 기억운동을 통해 설립된 각종 기념물의 철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하나는 사도섬과 세계유산에 대한 일본 도쿄대 야마가시 아야카의 연구이다.[66] 그는 2011년 사도가 일본 최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지정된 이래 사도의 변화를 다루었다. 그에 따르면 사도는 생태계 다양성과 생태친화적 경관을 보유하여, 일본의 전통농업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아 이 유산에 지정되었다. 그러나 농업유산 지정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도시는 농업유산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즉, 농업유산은 소비중심적 관광, 수익형 관광과 같은 즉각적인 환금성·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도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사도가 농업유산이라는 지속 가능성을 향한 자원을 가지고도, 세계유산 지정을 통해 수익형 관광의 활성화만으로 지역재생의 활로를 찾으려 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V. 일본 근대산업유산, 오래된 미래에 대한 기대

이처럼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지난 10여 년간 한국, 일본, 영미 각 학계에서는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공통적으로는 각 학계 모두 문화유산 외교와 국가주의적 서사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유산서사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강조된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한편, 한국 학계에서는 강제동원 부정론에 대한 반박을, 일본 학계에서는 주민자치와 지역재생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세계유산의 활용을, 영미 학계에서는 일본정부의 국가주의적 유산정치에 대한 반박

66 Yamagishi Ayaka, 2020, "From global to local: site-based analysis of GIAHS's management system and local implementation as a rural revitalization measure in Japan - case study in Sado City",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Toky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집중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각 언어별로 예상독자와 학문장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공통된 편중과 공백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거듭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시하 강제동원·노동유산을 둘러싼 국제적 비교 연구의 공백이다. 국제적으로 일본정부와 학계의 태도 전환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향후 참고할 만한 국제 사례의 비교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67] 흔히 과거사 반성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 역시 제2차 세계대전하에서 자국민이 경험한 폭력에 대한 유산의 보존과 전시는 활발한 반면, 식민지배와 관련한 부정적 유산의 관리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향후 관련 유산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쟁·학살·인종청소 등의 부정적 유산, 특히 전시하 식민지·점령지민의 강제동원·노동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 증언의 공백이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쟁과 대비해, 일본 근대산업유산 관련 연구에서 피해자 증언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관련 자료 자체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한계와 함께, 관련 논의가 역사수정주의와의 길항 속에 전개되면서 '증언'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는 전략에 따른 결과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증언'의 부정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한 '기억연구'의 방법론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방 후 각지에서 수집된 피해자 증언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보다 실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강제동원·노동을 비롯해, 항일유적, 한센병 특수시설 유적 등,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와 관련해 국경을 넘는 유산군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공동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점차 국경의 장벽을 높여가고 있는 동아시아 유산정치의 국가중심적 경향을 넘어 평화의 연대를 향한 유산연구를 확대할

67 최근 한국에서 영국·독일·프랑스·미국 등의 산업유산 활용과 한일 양국의 산업유산 활용 사이 차이점을 주목한 공동연구 결과가 출간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박진한 외, 2024, 『근대의 기억, 산업유산: 폐산업시설은 어떻게 '문화유산'이 되는가』, 역사비평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세계유산제도 그 자체에 대한 고민과도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본문에서도 검토한 바와 같이, 세계유산제도는 유네스코라는 전문적 권위를 통해 특정 국가나 문화권의 유산이 국제적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경제적 목표 속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속 불가능한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세계유산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유산과 그에 대한 기념과 기억의 문화를 만들 지혜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각 학계의 공동 연구의 확대, 둘째, 시민사회의 기억실천 활동 지원, 셋째, 정부 차원의 역사대화 재구축, 넷째, 지역주민과 국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유산 해석 프로그램 개발 등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강성현, 2020,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푸른역사.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저, 박수경·전은옥 역, 2017, 『군함도에 귀를 기울이면』, 선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2,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하시마(端島)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2017a,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생각정원.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2017b,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2022,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노동(한일 시민공동조사보고서)』.

박진한 외, 2024, 『근대의 기억, 산업유산: 폐산업시설은 어떻게 '문화유산'이 되는가』, 역사비평사.

윤지현, 2013, 『파도가 지키는 감옥섬』, 선인.

이혜민, 2018, 『기록되지 않은 기억, 군함도』, 선인.

정혜경, 2019, 『일본지역 탄광·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_____, 2023, 『팩트로 보는 일제 말기 강제동원(2)』, 선인.

정혜경 외, 2019, 『반대를 론하다』, 선인.

정혜경·허광무, 2021,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 선인.

木村至聖, 2014, 『産業遺産の記憶と表象:「軍艦島」をめぐるポリティクス』, 京都大学学術出版会.

山本理佳, 2013, 『「近代化遺産」にみる国家と地域の関係性』, 古今書院.

竹内康人, 2022,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 岩波書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Lee, Hyun-Kyung, 2019, *'Difficult Heritage' in Nation Building*,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논문

강동진, 2015,「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과 논점 분석」,『국토계획』50-2.

강동진·김성용, 2025,「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나타난 논점 고찰: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과 사도광산을 중심으로」,『일본비평』32.

강동진·이석환·최동식, 2003,「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국토계획』38-2.

김민철, 2020,「강제동원 강제노동부정론 비판」,『역사문제연구』44.

_____, 2024,「동아시아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일본 산업유산과 강제동원 문제」,『역사비평』146.

김소담, 2017,「유네스코 유산 등재의 국제정치」,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민·성종상, 2012,「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건축역사연구』21-1(통권 80).

박수경·조관연, 2013,「나가사키 하시마(군함섬)를 둘러싼 로컬 기억의 생산과 정치」,『일본어문학』61.

박진한, 2023,「일본 야하타(八幡)제철소의 세계유산 등재와 산업유산 연구의 의의」,『역사비평』143.

_____, 2024,「일본의 산업유산 담론 변화와 국가 공인화 과정에 관한 연구: '산업기념물'에서 '근대화유산' 그리고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으로」,『도시연구』35.

박희경, 2022,「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지역 창생과 한일관계-OUV 해석 차를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94.

양지혜, 2022,「공해병과 '식민지'라는 질문: 미나마타병사건 이후의 역사쓰기와 '식민지 조선'」,『도시연구』31.

윤지환·김숙진, 2020,「기억의 선택적 재현과 다층적 기억 해석을 둘러싼 갈등-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중심으로」,『문화역사지리』32-2.

이나연, 2021,「세계유산 해석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현, 2022,「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둘러싼 한일갈등: 1965년 체제가 초래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일 유산외교」, 『한림일본학』 40.
이영진, 2020,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에 관한 일고찰」, 『아세아연구』 63-2.
_____, 2022, 「빛의 역사와 어둠의 기억: 세계문화유산 미이케 탄광의 '부의 유산'을 둘러싸고」, 『아시아리뷰』 12-2.
안민화, 2022, 「강제징용에 대한 한일의 기억의 교환 (불)가능성: 영화, 〈군함도〉, 〈기록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의 저항抗い記録作家 林えいだい〉의 '텍스트의 도박'과 '대항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4.
정혜경, 2022, 「「조선인 연초배급명부」로 본 미쓰비시(三菱)광업 사도(佐渡)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43.
_____, 2023, 「사도광산사 고본(佐渡鑛山史 稿本)(1950, 미출간)」, 『한일민족문제연구』 44.
조우룡, 2021,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무라 시세이 저, 송숙정 역, 2016, 「'진정성' 구축과 복수성: 동아시아 군함도(軍艦島) 사례에서」, 『아시아리뷰』 6-1.
한정선, 2017, 「군함도, 산업유산과 지옥관광 사이에서」, 『역사비평』 121.
황선익, 2016,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동북아 역사갈등」, 『일본공간』 19.
_____, 2021, 「일본'메이지산업혁명유산'의 등재 후 쟁점과 전망: 유산보존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공간』 30.
_____, 2024,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상 쟁점과 과제」, 『한일관계사연구』 83.

広瀬貞三, 2000, 「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1939~1945)」,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 3.
_____, 2022, 「資料紹介: 朝鮮人労働者と佐渡鉱山, 三菱鉱業の史料 (1)」, 『福岡大学人文論叢』 54-1.
木村至聖, 2017, 「地域の歴史の"闇"をまなざすのは誰か」, 『立命館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 111.
雪村まゆみ, 2023, 「世界遺産を目指す活動が地域の文化資産の保存と活用に及ぼす影響」, 『関西大学社会学部紀要』 5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松浦雄介, 2018,「負の遺産を記憶することの(不)可能性－三池炭鉱をめぐる集合的な表象と実践－」,『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17.
永吉守, 2017,「「ユネスコ世界遺産」をめぐり政治化される「文化」:「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登録過程の経験より」,『日本文化人類学会研究大会発表要旨集』, 日本文化人類学会第51回研究大会.
五味渕典嗣, 2018,「対抗的記憶とナショナリズム」,『人間生活文化研究』28.
林廷玟·後藤春彦·山村崇, 2017,「近代化産業遺産の集合的保存における「認定外遺産要素」の位置付けと価値: 足尾銅山関連遺産を代表事例として」,『都市計画論文集』52-3.
川松あかり, 2020,「ナラティヴ研究と「日常的な民俗誌実践」: 日本の旧産炭地筑豊における遺産と記憶」,『日常と文化』8.

Atterton, J. et al., 2022, "Japan island depopulation: lessons for Scotland." Scottish Government.
Boyle, Edward, 2022, "Shifting borders of memory: Japan's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re",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2:1.
Gordon, Andrew, 2019.3.15, "Introduction: Dark Tourism and the History of Imperial and Contemporary Japan",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7-6.
Han, Jung-Sun, 2017.1.1, "The Heritage of Resentment and Shame in Postwar Japan",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5-1.
Hashimoto, A. & Telfer, D. J., 2017, "Transformation of Gunkanjima (Battleship Island): From a coalmine island to a modern industrial heritage tourism *site in Japan", J. Herit. Tour.*, 12-2.
Huang, Shu-Mei & Lee, Hyun-Kyung, 2019, "Difficult heritage diplomacy? Re-articulating places of pain and shame as world heritage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5:2.
Johnsen, Nikolai, 2021.12.1, "Katō Kōko's Meiji Industrial Revolution－Forgetting forced labor to celebrate Japan's World Heritage Sites－Part 1",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9-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_____, 2021.12.15, "Katō Kōko's Meiji Industrial Revolution－Forgetting forced labor to celebrate Japan's World Heritage Sites－Part 2",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9-24.

_____, 2022.3, "The Sado Gold Mine and Japan's 'History War' Versus the Memory of Korean Forced Laborer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5.

Kim, Young Jae, 2022, "Pursuing sustainable conservation of Hashima/Gunkanjima Island as an authentic heritage site",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8.

Kingston, Jeff, 2016.5.1, "The Japan Lobby and Public Diplomacy",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4-9.

Logan, W., 2022, "Heritage interpretatio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global issues in microcosm",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2:1.

Mathias, Regine, 2018, "Regional identity in the making? Industrial heritage and regional identity in the coal region of Northern Kyūshū in Japan", *Industrial Heritage and Regional Identities*, Routledge.

MATSUURA, YUSUKE, 2019, "World heritage and the local politics of memory: the Miike coal mine and fu no isan", *Japan Forum*, 31-3.

Miyamoto, Takashi, 2017.1.1, "Convict Labor and Its Commemoration: the Mitsui Miike Coal Mine Experience",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5-1.

Mizuno, Hiromi, 2017.1.1, "Rasa Island: What Industrialization To Remember and Forget",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5-1.

Nakao, Kensuke & Kawano, Tomonori, 2019, "History of Kitakyushu along with the great divergence in Anthropocene: An implication for possible periodization." *Bulletin du Centre Franco-Japonais d'Histoire des Sciences*(Kitakyushu-Paris), 13.1.

Nakano, Ryoko, 2021, "Mobilizing Meiji nostalgia and intentional forgetting in Japan's world heritage pro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tudies*, 18: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akano, Ryoko & Zhu, Yujie, 2020, "Heritage as soft power: Japan and China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6:7.

Palmer, David, 2018.1.1, "Gunkanjima: Battleship Island, Nagasaki World Heritage, Historical Site or Urban Ruins Tourist Attraction?",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6-1,

_____, 2021.7.1., "Japan's World Heritage Miike Coal Mine-Where prisoners-of-war worked "like slave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9-13.

_____, 2023, "Ignoring the History of Foreign Forced Labour at Japan's 'Sites of the Meiji Industrial Revolution", *Routledge Handbook of Trauma in East Asia*, Routledge.

Saaler, Sven, 2022, "Japan's soft power and the "History Problem"", *Remembrance-Responsibility-Reconciliation: Challenges for Education in Germany and Japan*.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_____, 2022.9, "Demolition Men: The Unmaking of a Memorial Commemorating Wartime Forced Laborers in Gunma(Japan)",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0-16,

Takazane, Yasunori, 2015.7.13, "Should 'Gunkanjima' Be a World Heritage site? The Forgotten Scars of Korean Forced Labor",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3-28,

Underwood, William & Siemons, Mark, 2015.6.29, "Island of Horror: Gunkanjima and Japan's Quest for UNESCO World Heritage Status",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3-26.

Underwood, William, 2015.6.29, "History in a Box: UNESCO and the Framing of Japan's Meiji Era",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3-26,

Varriale, Roberta, Aldighieri, Barbara, & Genovese, Laura, 2023, "Dismissed Mines: From the Past to the Future," *Heritage*, 6.2.

Yamagishi, Ayaka, 2020, "FROM GLOBAL TO LOCAL: SITE-BASED ANALYSIS OF GIAHS's MANAGEMENT SYSTEM AND LOCAL IMPLEMENTATION AS A RURAL REVITALIZATION MEASURE IN JAPAN-CASE STUDY IN SAD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ITY", THE UNIVERSITY OF TOKYO, Master's Thesis.

Yang, Kae-Cherng, 2017, "Heritage in the Middle of Political Conflict: A Discourse Analysis of Mixed Reactions in Response to the Nomination of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n: *ICOMOS 19th General Assembly and Scientific Symposium "Heritage and Democracy"*, 13~14th December, New Delhi, India.

Zhao, Zhengyuan & Liu, Zhigao, 2021, "Development Path of Industrial Heritage Tourism: A Case Study of Kitakyushu (Japan)." *Sustainability*, 13.21: 1209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문초록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기억정치와 학문지형

– 한일 및 영미 연구동향 비교분석(2015~2025) –

양지혜

이 글에서는 일본 근대산업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기억정치와 역사논쟁을 분석했다. 특히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및 영미권 연구 동향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일본의 메이지산업유산과 사도광산 등재 과정은 한일 양국에서 큰 논란을 초래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응해 발표된 한국과 일본, 영미권 학계의 다양한 비판과 대항서사를 소개했다. 주로 한국 학계에서는 역사부정에 대한 비판과 국제 갈등을 초래한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으며, 일본 학계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근대화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영미권에서는 일본정부의 기억표백과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초국적 협력을 통한 대안적 유산서사 구축을 촉구하는 흐름이 나타났음을 주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논의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기억과 유산을 둘러싼 협력과 논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일본 근대산업유산, 조선인 강제동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억정치, 역사부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Politics of Memory and Academic Landscape Surrounding the UNESCO World Heritage Inscription of Japan's Modern Industrial Heritage: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Japanese, and Anglophone Scholarship Research Trends (2015~2025)

Yang Jihye

This article analyzes the politics of memory and historical debates surrounding the inscription of Japan's modern industrial heritage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research trends on the issue of Korean forced labor in Korea, Japan, and Anglophone scholarship. The inscription process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sites and Sado Gold Mine provoked significant controversy between Korea and Japan. In response, diverse forms of critique and counter-narratives have emerged across academic circles. Korean scholarship has primarily focused on criticizing historical denialism and condemning the Japanese government fo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rovoking international disputes. Japanese scholarship, by contrast, has often shifted the discussion toward emphasizing the autonomy of local residents and civil society, or toward broader critiques of modernization itself. In the Anglophone context, critical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ward the Japanese government's "whitewashing" of memory and historical revisionism, alongside calls for constructing alternative heritage narratives through transnational cooperation. These scholarly debates, emerging on the eve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inscription of Japan's modern industrial heritage, offer important insights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testation surrounding memory and heritage.

Keywords: Japan's modern industrial heritage, Korean forced labor, UNESCO World Heritage, politics of memory, historical denialis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13

조선식민지전쟁—갑오농민전쟁부터 관동대지진까지

—『朝鮮植民地戦争 甲午農民戦争から関東大震災まで』(愼蒼宇, 有志舎, 2024)

송연옥 |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명예교수

I. 머리말
II. 내용 소개
III. 이 책의 의의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제국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6,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학살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려는 식민주의의 욕망은 여전히 건재하다. 도쿄도는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주최하는 단체에 매년 보내오던 추도문을 2017년부터 보내지 않았다. 고이케(小池) 도지사에 따르면,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세기에 들어와 조선을 표적으로 삼은 일본의 인종주의가 더욱 노골화되면서 제노사이드를 연상시키는 '폭도', '불령선인'이라는 말이 난무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를 반영하듯, 2025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슬로건으로 내건 배외주의 정당(참정당)이 약진하였다.

고 강덕상은 생전에 "관동대지진 당시의 학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조선 지배에 이르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연속되는 가운데 형성되어온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적대 사상이 지진 당시 학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의 수집에 힘써왔다. 강덕상과 함께 조선인 학살을 조사하고 연구해온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실을 알고 추도하는 가나가와(神奈川) 실행위원회〉는 강덕상의 소장 자료 가운데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어 공개하였다.[1] 그 결과 가나가와현 피해자 145명 가운데 대부분이 요코하마(横浜) 시내에서 학살

---

* 이 글은 박정애가 번역하였으며, 송연옥이 검수하고 최종 검토하였다.

1 공개 사료는 당시 가나가와현 지사 야스코치 아사키치(安河内麻吉)가 1923년 11월 21일 자로 내무성 경보국장 앞으로 보낸 문서이다. 제목은 「지진에 수반한 조선인과 지나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상황 기타 조사에 관한 건」이다(『신문 아카하타 전자판(しんぶん赤旗電子版)』, 2023. 9. 5). 이를 바탕으로 강덕상·야마모토 스미코 공동편집(姜徳相·山本すみ子 共編), 『가나가와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계 자료(神奈川県 関東大震災 朝鮮人虐殺関係資料)』, 산이치쇼보(三一書房)를 간행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미 100년이 지난 오늘날, 지진 당시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된 진상을 밝히는 학문적 작업은 일본 식민주의의 본질을 드러내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 과제에 응답하는 연구로서 신창우의 『조선 식민지 전쟁』이 대지진 101년째를 맞는 2024년에 출간되었다. 열쇠말인 '식민지 전쟁'이라는 용어는 주권국가 간의 해외 영토 획득을 위한 전쟁을 의미하는 한편,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무력 행사와 주민 집단 사이의 비대칭적인 전쟁 또한 가리킨다. 특히 후자의 시각을 통해 "본국의 평화 상태와 상반되는 식민지의 전쟁 상태 지속이라는 세계질서를 되묻는 관점과, 제국들이 식민지 주민에게 사용한 최신 기술이 이후 세계대전의 '실험' 성격을 띤다는 구조가 제시되어, 식민지 지배 책임론과 전쟁 책임론으로도 이어지는 주제"이다.[2]

일본사 연구에서 식민지 전쟁의 관점을 처음 도입한 인물은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인데, 그의 연구는 1894년부터 1915년까지의 시기로 한정되어 있다.

Ⅱ. 내용 소개

이 책은 일본 근대사 연구에서 아직 '부재' 상태에 있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식민지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묻고자 하는 연구이다. 역사학 연구서를 주로 출판해온 유시샤(有志舎)에서 '끊임없이 묻는 민중사(問いつづける民衆史)'라는 시리즈로 기획된 첫 번째 성과물이다. '간행사'에는 "권력관계의 하위나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민중)에 주목하지 않으면 사료를 생성하는 쪽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역사로 넘쳐나면서 그곳에 있었을 폭력이나 억압이 보이지 않게 된다.

---

2 北村嘉恵, 2022, 「'植民地戦争'再-台湾先住民族の歴史記憶再構築の地点から」,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7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불가시성을 극복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민중사를 사회사 양 측면에서 다시 묻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리즈의 관점은 이 책이 첫 번째 권으로 출간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갑오농민전쟁에서 시작된 제국 일본의 국가폭력이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로 귀결되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목차와 쪽수는 다음과 같다.

서장 조선 식민지 전쟁이란 무엇인가(18쪽)
제1장 조선 왕조 시대의 민중 반란의 진압과 형벌(28쪽)
제2장 조선 식민지 시대의 전쟁(47쪽)
제3장 축적된 식민지 전쟁 경험 ①(55쪽)
제4장 축적된 식민지 전쟁 경험 ②(56쪽)
제5장 의병과 조선사회(39쪽)
제6장 불온에서 '소요'로 가는 전조(33쪽)
제7장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29쪽)
종장 끝나지 않은 조선인 식민지 전쟁(35쪽)

책 마지막 부분의 '연구 안내'에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한 참고문헌이 소개되어 있어 유익한 길잡이가 된다.

일본에서 혐오 발언 속에 '불령선인'이라는 차별어가 여전히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듯이, 일본 배외주의의 핵심에 위치한 대상은 조선이다. 저자는 이 책의 핵심 열쇠말인 '식민지 전쟁'을 서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조선에서 전개된 군사 폭력을 장기적·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둘째, 일본과 조선의 전쟁은 '비대칭 전쟁'이라는 점, 셋째, 저항하는 쪽의 관점이 불가결하다는 점, 넷째, 전시와 평시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책이 다루는 대상은 갑오농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3·1 운동, 시베리아 간섭 전쟁[3]과 간도 학살,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관동대지진 당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조선인 학살이다. 이 책의 독자성은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온 폭력의 실태를 경험이 축적된 식민지 전쟁으로서 밝혀냈다는 점이다. 식민지 근대론은 지배와 저항의 이항 대립을 비판하려다 결과적으로 저항의 영역을 역사의 정식무대에서 주변화시켜버렸다. 이에 견주어 식민지 전쟁이라는 관점은 지배와 저항, 일상과 비일상, 전시와 평시의 관계성을 다시 묻기에 적합한 장을 제시한다.

식민지 전쟁에 접근하는 관점은 첫째, 통치권력의 폭력 행사에 관한 이론과 방법이다. 둘째, 식민지 전쟁과 일본 관민의 관계이다.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전국으로 유언비어가 전파되어 피해가 지역적으로 확대되어갔다는 점에서 ① 육군 상층부, ② 육군 사단·부대별 경험 ③ 총후(銃後) 가담을 각각 추적해가면서, 관민을 총동원하여 축적한 식민지 전쟁 경험의 실상에 다가간다. 셋째, 조선 식민지 전쟁이 조선 사회에 준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1) 제노사이드, 확대되는 대상자와 지역

청일전쟁은 근대 국가 사이의 전쟁과 식민지 전쟁이 복합된 것이었지만, 동학농민전쟁은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의 "전부 살육할 것"이라는 명령 아래에서 제노사이드가 수행된 최초의 식민지 전쟁이다. 이어지는 러일전쟁은 선전포고 이전의 서울 군사점령에서 시작되어, 조선의 병참화에 따라 조선민중에게 막대한 부담을 강요하는 한편, 친일파 형성을 추진하여 민족 내부에 균열을 가져온 전쟁이다.

의병전쟁(후기 의병, 1907~1915)에서는 의병장이 각국 영사관에 스스로를 정식 전쟁 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이들을 '폭도', '불령선인'으로 간주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폭도 진압의 위탁"을 받아,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조선주차군 사령관)에게 군사 행동을 명령하

3 [역주]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출병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시베리아 내전, 시베리아 출병, 시베리아 간섭 전쟁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용어 정립이 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원문대로 표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군사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헌병대를 늘려 파견하는 한편, "식민지 토병(土兵)"으로서 조선인 헌병 보조원을 창설하였다. 1908년 시점에서 헌병대 8,066명에 대하여 헌병 보조원은 4,601명에 이르렀고, 1907년 이후 5년 동안 일본군과 의병의 충돌은 약 14만 명에 달했으며, 의병 1만 7,778명이 살해되었다.

제노사이드는 1919년 3·1 운동에서 그 대상이 더 확대되었다. 일본 정부는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 조선주차군 사령관에게 "적극적으로" 조선 각지에 군대를 분산 배치하여 "미연 방압(未然防圧)"을 표방하면서 "주민 전부"가 폭도라고 정의하였다.

시베리아 간섭 전쟁(1918~1922, 1925)에서 일본은 군의 과반에 해당하는 사단을 동원할 정도로 최대의 군대 파견국이 되었다. 우쓰노미야 다로는 우수리(연해주)로 조선을 파견하는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인 7만 명에 대한 단속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주·조선에서 활동하는 '과격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浦潮派遣軍)을 연해주에 주둔시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일본군의 시베리아 철병 때에는 조선과 중국 국경 부근의 독립군을 탄압한다는 명목으로 훈춘사건(琿春事件, 1920년 가을), "일본의 식민지 방위 전쟁"을 명분으로 간도 학살을 자행하였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은 이와 같이 축적해온 제노사이드 경험에서 귀결된 것이다.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내란 사실이 없음에도 계엄령이 발령되어 조선인 6,00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 강덕상은 "계엄령은 조선인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임시 진재구호사무국 경비부의 중추는 식민지 전쟁의 제일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첨병이다"라고 지적해왔다. 이를 이어 신창우는 관동대지진 당시의 육군 수뇌와 계엄사령부 산하 경비부대 등의 군력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조선인 학살 사건이 조선 식민지 전쟁의 축적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표 18 관동계엄사령부·지방사단장·보병 연대장의 주요 경력). 그 결과 학살에 관여한 자들 가운데 다수가 시베리아 간섭 전쟁, 조선 주둔군의 경험자였음을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일본군의 명분·이론·수법

① 평시·전시 편성의 수비대에 의한 군사 행동

의병전쟁에 대한 일본군의 군사 행동의 위치는 '한국 주차·파병', '폭도 토벌'로 설정되었다. 의병전쟁 초기에는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평시 편성으로 사용되었으나 예상 이상의 격렬한 의병의 전투 양상에 따라 병력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1908년 5월에 군비를 2개 사단까지 증강하였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평시'와 '전시'의 구분은 애매했지만, 고전 끝에 '전시'에 가깝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병합' 후의 무단통치하에서도 조선 민중에 대한 무력 행사 구조는 동일하여, 전시와 평시가 분리되지 않은 지배 상황이 상시화되었다. 군대 규모는 의병 전쟁기에 일시적으로 2개 사단 주둔이었지만, 이후에는 북부에 1개 사단, 남부에 임시 조선 파견대(보병 1개 여단)를 2년마다 교대하는 1개 반 사단 체제로 의병 전쟁과 무단통치에 대응했으며, 3·1 운동 시기에는 제19사단, 제20사단의 2개 사단 체제를 완성하였다. 항일운동의 고양기에는 군대와 헌병을 분산하고 세밀하게 배치하여 그물망 같은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진정화되는 시기에는 규율과 훈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집결 배치를 강화하였다. 시베리아 간섭 전쟁기에 대외전쟁을 위한 병참이 된 조선에서는 군사행동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모든 것이 식민지 전쟁에 대한 대응이 되었다. 1919년 4월에는 이후에 치안유지법으로 이어지는 제령이 공포되었다.

② 관철되는 '섬멸'과 '연좌'의 논리와 실천

일본의 식민지 정복 전쟁의 특징은 일본의 국가이익을 위한 개발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 항일운동의 '섬멸', 그리고 민중에 대한 '연좌'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군은 직접 조선 촌락에 연좌제를 부과하여 촌락들 사이의 분단을 도모하고 항일 투쟁의 근거지를 섬멸하며 '자위단 규칙(내부훈령)'을 제정하였다. 조선 주차군이 발한 '군율' 8개 조항은 집회, 결사, 언론을 엄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게 단속하였다. 촌락은 조선 식민지 전쟁의 가혹한 최전선으로 전환된 것이다. 의병전쟁에서 일본이 '남한대토벌'을 벌인 목적은 조선 민중의 정신까지 '제국의 위무(威武)'를 각인시키는 데 있었다.

헤이그육전원칙에는 '민병', '의병', 그리고 침입 군대에 저항하는 '군민병(群民兵, partisans)'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국제법과 군법에 위반되는 처형을 자행하고 정규군을 자임한 의병장들에 대해 포로 대우를 하지 않은 채 총살을 상례화하였다. 청산리전투의 패배에서 비롯된 증오심 또한 가혹한 처단 행위를 더욱 격화시켰다.

③ '어쩔 수 없는 발포', '정당방위'론

갑오농민전쟁에서는 인천의 병참감 이토 스케요시(伊藤祐義)가 발포를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의병전쟁에서도 이 '어쩔 수 없음'을 둘러싸고 국내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폭력 규제' 훈시의 이면에서 일탈적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이 『진중일지』에서도 드러난다. 3·1 운동 당시, 헌병대 부사령관은 무력행사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정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폭력"이라고 하였다. 일본군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1919년 4월의 제암리 교회 사건이 있다. 그런데 이 주모자의 범죄는 범의(犯意)가 없는 과실(오해)이며 형법에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되었다. 우쓰노미야 조선군 사령관은 무기 사용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했지만, 이 '예외'는 탄압현장에서 예사였고, 조선군도 이를 묵인하였다. 식민지 전쟁은 학살 = 무죄라는 구조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이다.

국제적 체면상, 간도에서 조선군은 방침을 전환하여 양민이 휘말리는 가혹한 군사폭력을 자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가혹한 '섬멸'과 '연좌'를 지속했고, 만주는 마치 조선 식민지 전쟁 최대의 전쟁터로 변한 듯한 상황이 되었다. 1920년 11월 이후 독립운동의 기세가 약해진 뒤에도 '친일파' 민회(民會)를 이용하는 일본과 재기를 도모하는 독립운동 단체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와 같이 일본군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강경 조치의 관철은 군대·헌병 경찰의 박해 행위를 무처벌 상태로 만들고 사건의 은폐, 정당화, 날조를 초래하였으며, 마침내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의 서장이 되었다. 저자는 "민중의 폭력이 과격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경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라 실태는 그 반대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제노사이드에 책임져야 하는 자들의 전쟁 경험

표 7(152~163쪽)은 이 책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군 사령관·참모장· 각 사령관의 전쟁 경험을 밝힌 것이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식민지 전쟁, 제노사이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 인물로는 하세가와 요시미치,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토병'의 이용을 권장하고 1908년 6월에 조선인 헌병 보조원 도입을 선도), 오바 지로(大庭二郎), 니시지마 스케요시(西島助義, 청일전쟁부터 의병전쟁까지 식민지 전쟁의 경험이 깊음) 등이 있다.

② 1910년대에 많은 조선 경험을 쌓은 인물로는 오노 도요시(大野豊四, 무단정치 시기에 임시 조선 파견을 경험, 3·1 운동-간도학살까지 조선군 참모장), 조호지 고로(浄法寺五郎, 무단정치 시기에 제1사단 참모장, 3·1 운동과 간도 학살 당시 조선군 제20사단장) 등을 들 수 있다.

③ 다음으로 하세가와를 제외하면 한국(조선)주차군 사령부는 모두 대만정복전쟁, 대만 수비를 경험하고 있다.

④ 일본의 내란이었던 보신(戊辰)전쟁, 세이난(西南)전쟁 세대가 군인 사회를 견인하고 육군사관학교 세대(1860~1870년대 출생)가 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3·1 운동 당시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우쓰노미야 다로가 '친일파' 육성과 민족운동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추진한 전형적인 식민주의자이자 '문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무단'이었던 점이 이토 히로부미와도 통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일본에서 일부 수용되는 이러한 긍정적 인물 평가를 비판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전쟁 인프라와 민중의 일상지배로 이동하는 국가폭력

러일전쟁에 앞선 서울 점령 시기, 일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신선을 확보하여 기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였다. 한국주차군은 전쟁의 후방지원과 함께 철도 부설 임무도 맡아 전신, 철도, 군수품에 관한 군율을 일반 주민에게까지 적용하였다. 이 군율은 1910년 한국병합 시기까지 존속하였다.

전쟁 중 군용지와 철도 부설지를 위한 토지 수용과 노동력 징발에 대해 각지에서 주민 소요가 일어나자 한국주차군 사령관은 '군율'(1904년 7월)을 주요 철도, 전신선 연선에 공포하고 나아가 11월에는 한국 전 지역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였다. 군용전선, 철도의 보호를 각 촌락의 책임으로 부담시키고, 가해자와 은닉자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한편, 밀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190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군율에 따라 처형된 조선인은 합계 257명에 달하였다(사형 35명 포함). 함경도의 일본군 점령 지역에서는 1904년 10월 이래 '군정'이 시행되었다.

도로 개수, 철도 건설을 위한 토지 수탈과 강제 부역에 대한 민중의 불만은 총독부 정치하에서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일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선 민중의 행동을 과민하게 '소요'에 대한 전조로 포착하여 가혹하게 단속하였다. 그 주전장은 '철도'와 '전선'이었다. 무단 통치 시기 철도 법령 위반 증가는 헌병 경찰의 세밀한 배치와 가혹한 단속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제3사단의 자바이칼 파견의 '병참업무'로서 철도와 전신선 연선에 거주하는 조선 민중을 '소요 예비군'으로 간주하고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 것과 연결된다.

1918년 8월에 조선군은 군대 수송과 군수품 수송을 목적으로 철도 엄호대를 설치하였다. 3·1 운동 이전에 이미 사실상의 분산 배치 = 식민지 전쟁 대응이 진행되고 있었고 철도 보호를 둘러싸고 헌병경찰 및 조선군과 조선 민중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재부상하고 있었다. 표 14~표 16(272~273쪽)에 제시된 건수를 보면, 1918년부터 법령 위반이 다시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헌병경찰관이 일반민중을 과도하게 '소요 예비군'으로 간주함으로써 폭력 기구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잠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신선 엄호에서 일상지배와 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족운동 단속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고 '정온(靜穩)'에서 '불온'으로 이행하는 전조가 포착되었다.

'집결'과 '분산'의 딜레마에 있던 조선군은 3·1 운동 시 다시 분산 배치를 실시하였다. 헌병경찰이나 조선군이 긴급 과제로 끌어올릴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채 3·1 운동을 맞이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저자는 이것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3·1 운동 당시 조선군은 상주 사단 및 소속 부대와 철도엄호대를 구사하여 3월 초부터 평안 남북도, 황해도, 함경 남북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협력조치(=병기 사용에 의한 살육)'을 실시하였다. 이 가혹한 조치는 조선 사회 전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4월에는 헌병경찰과 조선군이 더욱 가혹한 군사폭력을 행사하였다.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포착되는 작은 범행들조차 그 사실을 왜곡하여 일부 전투(저항투쟁)을 확대 해석하여 탄압한 것이다.

또한 3·1 운동 이후의 '문화정치'에서 경찰 및 '친일파' 육성을 기축으로 하여 표면상의 '정온'화를 도모하려 했지만, '이면'에서는 식민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서 식민지 전쟁에 관철되는 논리 구조를 볼 수 있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하에서 조선 사회의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는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5)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 전개된 식민지 전쟁의 경험

표 7에 이어 중요한 것은, 지진 당시의 군사참의회의에 출석한 육군 수뇌부의 조선, 대만, 시베리아 관련 군력을 보여주는 표 17(284쪽)이다. 표 18(288-295쪽)에서는 관동 계엄사령부, 지방 사단장, 보병 연대장이 식민지 전쟁에 관여했던 과거를 밝히고 있다. 직접 학살에 가담한 자경단을 구성한 재향군인들 역시 제1사단, 제14사단(우쓰노미야), 제13사단[다카다(高田)], 제15사단[도요하시(豊橋)] 등 식민지 전쟁 체험이 풍부한 관동이나 중부 지방 사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소속 보병, 기병, 야포병 연대로 보면, '남한 대토벌' 당시 임시 조선 파견, 무단통치기의 사단 주둔, 임시 조선 파견이 가장 큰 경험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리하고 있다. 나아가 총후에서는 향토 신문이 장병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토끼 사냥', '연습'으로 표현하며 조선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궤변이 일상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책은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이 관민 일체의 제노사이드였음을 논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찰, 자경단과 같이 추상적으로 파악되어온 역사를, 전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의 얼굴이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고 제노사이드의 구조를 밝혀냈다.

식민지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 사회의 논리적 기준은 '문존무비(文尊武卑)'에서 '무존문비(武尊文卑)'로 변하였다. 민족운동에 대한 무력 탄압을 경험한 '식민지 토병'은 '친일파'로 형성되어 '내전'의 주역으로 전환되어갔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오늘날 현대사의 원류를 본다. '어쩔 수 없는 발포', '정당방위'에서 드러난 식민지 전쟁의 본질은 한국 현대 정치에서 보이는 폭력의 정당화와도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Ⅲ. 이 책의 의의와 과제

저자의 큰할아버지인 신창범(愼昌範)은 관동대지진 당시 도쿄 아라카와(荒川) 둑에서 자경단에게 붙잡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친족 3명을 포함한 같은 고향 사람 13명은 살해당하였다. 신창우가 역사학 연구를 지망한 원점에는 가족이 겪은 이러한 통한의 체험이 있다. 무고한 민중을 학살하고 그 사실을 은폐한 채, 지금까지 사죄, 보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는 일본은 세 차례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한다.

이 책의 의의는 우선, 일본군의 활동을 식민지 전쟁을 축으로 하여 동태적으로 파악한 점에 있다. 다음으로 조선 식민지 전쟁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일본군 장병의 경력을 밝혀 전쟁 책임을 구체적으로 추궁한 점이다. 셋째, 종래 한반도, 만주, 일본으로 각각 따로 이야기되어왔던 개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을 지속되는 식민지 전쟁으로 파악하고, 그 경험의 축적이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로 귀결되었음을 실증한 다음, 학살의 책임을 국가권력의 중추까지 추적해간 점에 커다란 성과가 있다.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이란, 바로 제국 일본이 대만 정복 전쟁 이래 70년간 축적해온 식민지 전쟁의 귀결이며,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 책임이 중첩된 국가 범죄인 것이다.

연속하여 이어져온 식민지 전쟁의 흐름에 시베리아 간섭 전쟁 또한 위치 지운 점도 의미 있다. 이는 오에 시노부와 강덕상 등의 선행연구를 계승하여 이룬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의병전쟁 때의 육군 보병 소위 하라 신이치(原進一) 관계 자료(가나가와현 공문서관) 등, 새로운 자료의 발견도 연구 진척 과정에서 계속되고 있는 점 또한 성과로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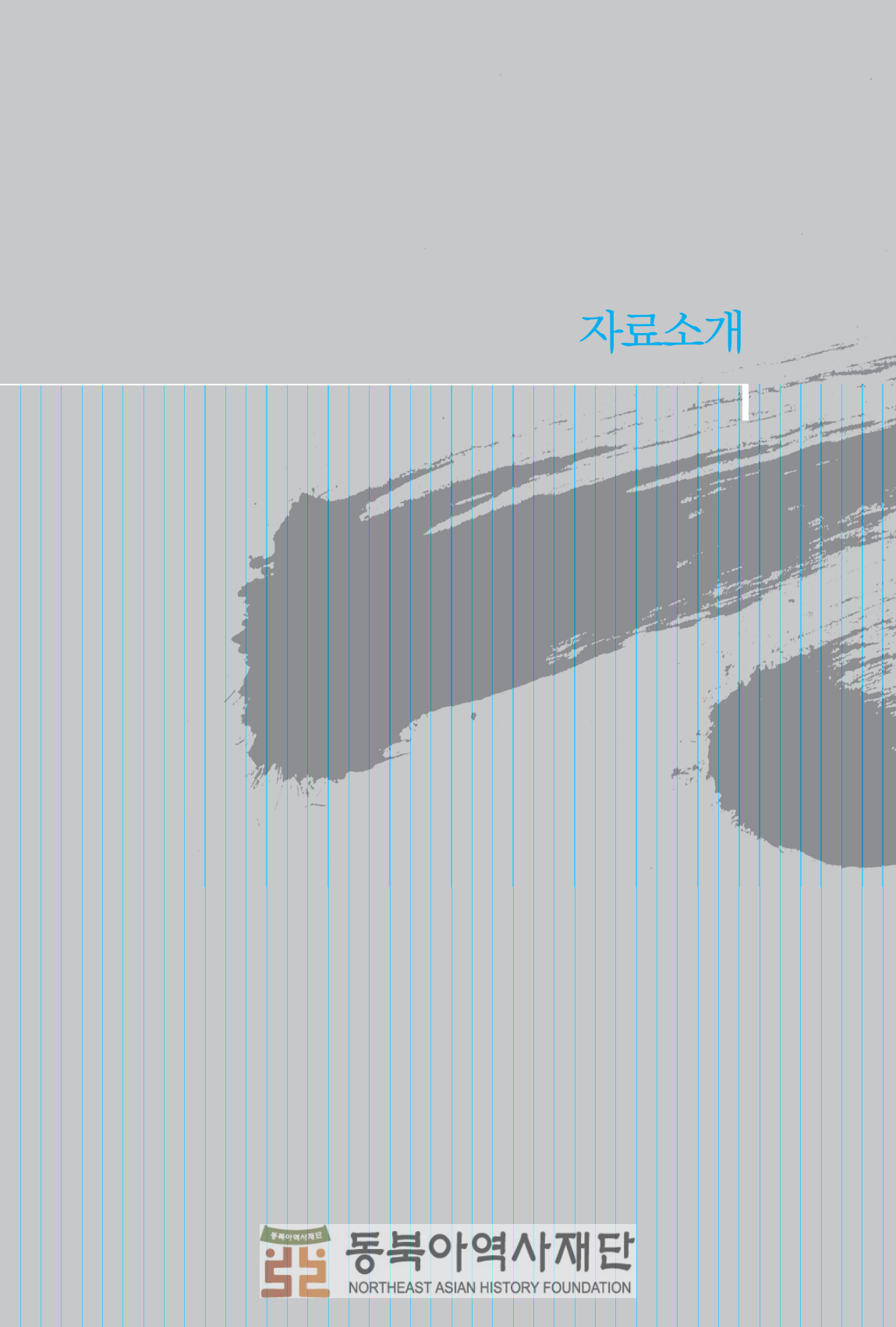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폭동' 유언비어의 배후에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 내무대신 ←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 경시총감 ← 조선총독부 경보국장)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서평자는 이책에 내무관료인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서평자는 이 책을 미시적인 일상의 현장에서부터 거시적인 구조에 이르기까지 접근한 중요한 연구로 평가한다.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많은 연구자들에게 공유되기를 바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ttps://doi.org/10.23037/dyn.2025..90.014

일본의 중세 혹은 중세의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이시모다 쇼, 『일본 중세적 세계의 형성』

김현경 | 명지대학교 일어일문학전공 조교수

I. 이시모다가 말하는 '중세'
II. 중세적 세계와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I. 이시모다가 말하는 '중세'

일본의 역사학자 이시모다 쇼(石母田正)가 쓴 책 『中世的世界の形成』을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했을 때, 당연히 책의 제목은 원제의 직역에 해당하는 『중세적 세계의 형성』으로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번역 원고를 편집한 후 보내온 교정고의 책 제목 앞에 '일본'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에서 한국어로 출간되는 책에 '중세적 세계'로 되어 있으면 한국의 중세인지, 유럽의 중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했고, 출판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목을 수정하였다. 역자는 서둘러 역자 후기에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일본사의 중세임을 명시하기 위해 앞에 "일본"을 붙이기로 함'이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그렇게 해서 이시모다 쇼 지음, 김현경 옮김, 『일본 중세적 세계의 형성』(AK커뮤니케이션즈, 2024년 12월 15일 발행)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2025년 12월 현재까지 『中世的世界の形成』의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번역서가 나온 것은 한국어판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책이 나온 뒤의 반응을 보면,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시모다의 저작을 한국어로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책의 출간을 반기는 한편, 일본의 중세 역사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 '일본 중세'를 이해하고자 이 책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제목에 '일본'을 붙인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역자는 이제서야 새삼스럽게 제목에 '일본'을 붙이지 않고 '중세적 세계의 형성'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시모다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세적 세계'의 '중세'란 단지 일본의 중세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1912년에 태어난 이시모다는 1928년 제2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이시모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철학자 미키 기요시(三木清), 역사학자 하니 고로(羽仁五郎)의 저작물을 접하였으며, 1930년에는 교우회 잡지에 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문을 발표하여 마르크스주의에 공명하는 견해를 표하였다. 1931년에는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서양철학과에 입학하였으나, 1934년에는 국사학과로 전과하여 본격적으로 역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정치적 운동이 현실에서 탄압받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이시모다는 혁명을 위해 천황제를 비판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을 선택하였다. 그는 고대 천황제와 율령으로 규정된 국가 체제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노예제 사회로 설정하며, 아시아에서는 봉건제로의 이행 같은 생산양식의 발전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논의를 극복하려는 입장에 있었다.

이시모다는 1938년에 역사학자 와타나베 요시미치(渡部義通)가 주도한 일본 고대사와 중세사를 공부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그는 공부 모임을 통해 고대 사회의 몰락에서 중세 사회의 성립으로 가는 과정의 법칙성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그러기 위해 고대 촌락과 노예제를 연구하여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 사회 전반에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당국의 사상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마르크스주의 연구 단체들이 해산되고, 와타나베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체포되거나 탄압을 받았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 천황제 국가를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기대를 품기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시모다는 언젠가 다가올 패전에 대비하며 반동적인 역사학과 투쟁하려 하였다. 고대 사회가 붕괴하고 중세를 맞이하려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고대사를 이해하려고 한 그는 1944년에 『중세적 세계의 형성』(이하 '이 책')을 집필하였고 책은 1946년에 발행되었다.

이 책에서 이시모다가 이야기하는 '중세적' 세계란 세계사적인 시대구분과 사회 발전 단계에서 '중세'라 불리는 요소를 포함하는 봉건사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율령 체제 안의 반전농민(班田農民)과 도다이지(東大寺)의 사노(寺奴)는 고대 사회에서 토지에 예속된 노예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고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별도의 계급으로 분화하면서 무사=영주가 되고 율령제와 도다이지로 대표되는 고대 세력을 부정하는 일이 고대의 몰락이자 중세의 형성에 해당한다. 중세적 무사단=영주제가 만들어내는 새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운 사회 질서가 봉건제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세'는 일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각을 이 책의 제2장 중 고대법에 관한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시모다는 고대법이 민족 고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형식성과 보편성을 띠는 세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고대 노예제 사회의 여러 민족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으로 타당한 법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고대법과 관련하여 로마법의 소유법 관념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대법이 퇴폐하고 형식만 남으면서 지역 주민들은 고대법을 극복하고 장원에서 적용되는 지방의 법을 형성해갔는데, 그것이 중세적 세계를 형성하려고 했던 구로다장(黑田庄)이라는 장원에서 전개된 역사적 과정이었다. 일본의 장원법 체계는 로마법적 요소와 더불어 게르만법적 요소가 존재했는데, 이시모다는 두 요소가 대립하고 상극하는 것이 일본 중세가 형성되는 시대를 특징짓는 것이라고 보았다. (물론 이시모다는 일본의 역사에 대하여 세계사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작업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의 중세 성립 과정은 복잡하고 특수한 것임을 주장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시모다가 말하는 '중세', '중세적 세계'는 세계사 속의 고대와 중세, 노예제 사회와 봉건제 사회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세는 법의 관념이 현실 생활의 살아 있는 규범으로서 현실 사회에서 관철되고, 고대 사회의 모순을 부정하며 제약을 극복한 '국민적 존재'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그러한 '중세'에는 꼭 '일본'이라는 단서(但書)가 달릴 필요는 없으리라고 역자는 문득 생각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중세적 세계와 동아시아

이시모다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극복하고자 하였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책이 집필된 시점에는 '천황'이나 마르크스주의 관련 용어 같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을 만한 표현을 회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반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책도 일본에서 고대의 질서를 부정하고 극복하면서 중세 사회가 형성되는(정확히 말하면 구로다장의 경우 그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과정을 다루는 만큼,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관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시모다는 일본의 율령법이 중국의 법과 제도를 계수(繼受)하였지만 그것은 일본이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사회에 뿌리내린 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고대법의 특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은 종족(宗族)이라는 성(姓)과 조상이 같은 혈족 단체가 농촌 사회의 특질을 규정하는 사회였고, 고대법은 그러한 농촌의 가족 공동체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이해하였다. 고대 일본 역시 그러한 성격을 지닌 '동양적 고대'의 일환으로서 존재하였기 때문에 중국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동양적 고대로부터 분리되어 중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동양사학자들이 제기했던 질문인 '중국에는 왜 일본처럼 무사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이시모다는 중국에 무사단=영주제의 성립을 저해하는 공동체적 질서의 제약이 존재한 반면, 일본은 공동체적 질서를 깨뜨리고 동족 조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중세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는 답을 내렸다.

이시모다가 명확히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가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양 내지 아시아를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해당하는 정체된 상태(아시아적 정체성)로 설정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본이 고대를 부정하고 중세 봉건제로 이행할 수 있었듯이 중국 사회도 여러 제약 조건만 없었다면 중세로의 전환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인식도 가능하다. 세계사의 기본 법칙은 유럽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민족에나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가 일본의 역사적 과정이 '동양의 다른 민족들'의 역사를 해명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믿는다고 이 책에서 서술한 데서도 그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50년대에 이시모다를 포함한 일본 연구자들이 세계사 속의 아시아에 주목하고, 연구의 관심을 동아시아로 돌리게 된 것과도 연관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이시모다를 포함한 일본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중국공산당의 '민족해방' 과정에서 이어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은 일본보다 빨리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것으로 느껴졌다. 훗날 이시모다는 『속 역사와 민족의 발견(續歷史と民族の發見)』에서 근대를 경험한 일본과 달리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한 중국이 대중적 지반에서의 '근대화'에서는 반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시모다는 고대적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중세 봉건사회를 견인하는 주체를 '국민'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근대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갈 주체 역시 '국민'이라고 보았다. 전쟁 속에서 여러 민족이 제국주의 아래 강제로 복속된 상황을 목격한 이시모다로서는 각각의 민족이 제국주의를 상대로 투쟁하는 연대를 상정하였다. 패전 이후 미군정의 지배 아래 레드 퍼지(red purge)가 일어났고, 일본공산당이 일본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민족해방 민주혁명론을 주장하였는데, 이시모다는 이러한 민족해방의 주체인 국민을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 집단으로서의 민족으로 설정하였다. 이시모다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연대하고자 한 것도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적 민족'을 지향했기 때문일 것이다. (단, 이시모다의 민족 개념과 인식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 그는 나중에 중국공산당과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를 철회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동아시아의 주요한 구성원인 한국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시모다가 한국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그는 강제 연행되어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채집하여 1953년에 발표한 글 「아이즈 기행(會津紀行)」에 싣기도 하였다. 이시모다는 조선인 문제에 대하여 투쟁한 것은 일본공산당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일본공산당은 식민지 상태였던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책 속에 한국이 부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필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현실적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들어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아시아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아시아적 정체성이라는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이시모다는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고대가 전제국가를 성립한 뒤 개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이 각자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극복해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구상은 1971년에 출판된 저서 『일본의 고대국가(日本の古代國家)』로 이어진다(번역본은 AK커뮤니케이션즈에서 2026년 출간 예정).

요컨대 이 책은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고대국가론을 전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역사의 발전단계론과 세계사적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다. 비록 이 책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책에는 동아시아의 맥락이 복류(伏流)하고 있다. 역자로 하여금 『중세적 세계의 형성』이라는 제목 앞에 '일본'을 덧붙이는 일을 뒤늦게 망설이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잔잔한 복류의 물결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단행본

石母田正, 2017, 『日本の古代國家』(岩波文庫), 岩波書店.

磯前順一, 2023, 『石母田正』, ミネルヴァ書房.

논문

최종길, 2013,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의 민족 담론」, 『일본학』 3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 · 논문 · 간행물 · 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 · 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 · 의결 ·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 · 심의 · 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 · 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6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 · 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 · 중관계연구소, 한 · 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 · 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Ⅰ〉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편집위원

구도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종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최은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90호(2025. 12)

초판 1쇄 발행 2025년 12월 31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